전세계 로동자들은 단결하라!

7 호

평양 근로자사 1968

근로자

전세계 로동자들은 단결하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第 7 호 (317)

차 례

김일성동지에 의하여 이룩된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으로 튼튼히 무장하자

우리 당과 인민은 김일성동지에 의하여 항일무장투쟁의 불길속에서 이룩된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가지고있다.

항일무장투쟁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은 조선혁명의 승리를 위하여 우리 당과 인민이 전면적으로 계승발전시켜야 할 무한히 귀중한 재부이며 밑천이다.

우리 인민은 이 빛나는 혁명전통이 있음으로 하여 혁명과 건설에서 찬란한 성과를 이룩할수 있었으며 조선혁명의 종국적승리를 달성할수 있다.

김일성동지에 의하여 이룩된 영광스러운 우리 당의 혁명전통은 전당에 유일사상체계를 확고히 세우며 전사회를 혁명화, 로동계급화하기 위한 귀중한 방식이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우리 당의 혁명전통을 깊이 연구체득하여야만 당의 유일사상,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할수 있으며 어떤 난관과 시련 속에서도 일편단심 혁명에 모든것을 다바쳐 투쟁하는 수령께 무한히 충실한 참된 혁명전사로 될수 있다.

* *

김일성동지에 의하여 항일무장투쟁의 불길속에서 이룩된 빛나는 혁명전통, 이것은 우리 당과 조선혁명의 근본이며 뿌리이다.

우리 당은 이 억세고 튼튼한 혁명전통을 뿌리로 하여 자라나고 오늘과 같은 백전백승의 강철의 맑스—레닌주의당으로 강화발전되였으며, 우리 혁명은 이 뿌리로 하여 그처럼 간고하고 복잡한 환경속에서도 오직 승리의 한길로 곧바로 전진할수 있었다.

우리 인민은 바로 이 빛나는 혁명전통이 있음으로 하여 영광스러운 혁명투쟁의 길에서 보람차고 행복한 생활을 누릴수 있으며 수령의 현명한 령도를 받들고 혁명의 최후승리에 대한 확고한 신심과 락관에 넘쳐 힘차게 전진하고있다.

혁명전통은 혁명하는 인민에게 있어서 가장 귀중한 재부이며 밑천이다.

혁명이 옳은 길로 발전하고 성과적으로 수행되려면 혁명의 뿌리가 튼튼해야 한다.

마치 나무가 푸르러 싱싱하게 자라자면 그 뿌리가 튼튼해야 하는것처럼 혁명도 그 뿌리인 혁명전통이 억세고 튼튼해야 어떤 풍파와 시련도 이겨내고 대를 이어가면서 건전하게 발전할수 있으며 종국적승리를 달성할수 있다.

혁명전통에는 혁명을 이끌어나가는 사상과 정신, 혁명수행의 방도 등 혁명승리를 위한 모든 근본적문제들이 담겨진다.

이것은 오직 로동계급의 력사적위업을 개척해나아가는 혁명의 위대한 수령에 의하여 창조된다. 로동계급의 위대한 수령은 과학적인 예견성과 통찰력을 가지고 혁명발전의 매단계마다 정확한 로선과 그 실행방도를 제시하는 동시에 인민대중을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고 그들을 혁명투쟁에로 조직동원하며 혁명의 전진도상에서 부닥치는 온갖 난관과 시련을 타개하고 혁명을 힘있게 추진시킨다. 이리하여 로동계급의 위대한 혁명전통이 이루어지며, 로동계급은 이를 토대로 함으로써만 자기의 력사적위업을 완성해낼수 있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혁명위업에 충실

한 당과 인민은 무엇보다도 혁명의 위대한 수령에 의하여 창조된 혁명전통을 소중히 여기며 그것을 굳건히 고수하고 계승발전시키기 위하여 견결히 투쟁한다.

반대로 온갖 혁명의 배신자들은 례외없이 탁월한 수령에 의해 이룩된 혁명전통을 거세해버리려고 악랄하게 책동한다. 그들은 저들의 반혁명적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혁명의 위대한 수령의 높은 권위를 헐뜯으며 수령에 의하여 창조된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시비해나선다.

그들은 혁명의 뿌리인 혁명전통을 말살함으로써 당을 변질시키고 인민들로 하여금 당과 혁명의 근본, 자기들의 행복의 근원을 잊어버리게 하려고 음으로 양으로 갖은 모략을 다한다.

혁명하는 인민은 반드시 혁명의 위대한 수령을 목숨으로 사수하며 수령에 의하여 창조된 혁명전통을 굳건히 고수하고 그를 빛나게 계승발전시켜야 한다. 혁명전통을 고수하고 계승하는가 안하는가 하는것은 대를 이어 혁명을 끝까지 수행하는가, 못하는가 하는 심각한 문제로 된다.

우리 당과 우리 혁명의 뿌리, 이것은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민족적영웅이시며 탁월한 맑스—레닌주의자이신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의하여 영광스러운 항일무장투쟁행정에서 이룩된 빛나는 혁명전통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가 계승해야 할 유일한 전통은 맑스—레닌주의의 기발밑에 근로인민의 리익을 옹호하여 투쟁한 항일유격대의 혁명전통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2권, 72페지)

우리 당과 인민이 대를 이어가면서 유일하게 계승발전시켜야 할 혁명전통은 오직 김일성동지께서 항일무장투쟁의 불길속에서 이룩하신 빛나는 혁명전통이며 우리에게 있어서 이외에 그 어떤 다른것이란 없다.

물론 나라의 독립과 민족의 해방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은 일찌기 일제의 조선강점을 전후한 시기부터 전개되였다. 의병들의 투쟁과 독립군운동도 있었으며 전인민적인 3. 1봉기도 있었다. 또한 1920년대에 들어와서는 맑스—레닌주의가 급속히 보급되고 그 영향밑에 로동운동, 농민운동을 비롯한 대중적인 반일민족해방운동이 광범히 전개되였다.

그러나 이 모든 투쟁들은 그 어느것을 막론하고 혁명의 위대한 수령과 맑스—레닌주의전략전술에 기초한 통일적인 령도가 보장되지 못하였기때문에 많은 피를 흘리였으나 승리할수 없었다. 이 투쟁들은 일제의 조선침략과 그의 식민지통치에 일정한 타격은 주었으나 결국 실패를 면치 못하였으며, 혁명전통으로 될만한 그 어떤 업적도, 투쟁정신도 남겨놓지 못하였다.

오직 조선혁명은 김일성동지께서 혁명의 길에 나서신 때로부터 진정한 맑스—레닌주의기치밑에 승리적으로 발전하게 되였으며 또한 이때로부터 우리 당의 억세고 튼튼한 뿌리가 내리기 시작하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나라에 조성된 혁명정세와 우리 혁명의 성격과 임무를 과학적으로 통찰하신데 기초하여 강도 일본제국주의침략자들을 반대하는 조선인민의 반일민족해방운동을 식민지민족해방운동의 최고형태인 무장투쟁에로 발전시킬데 대한 혁명적로선을 제시하시고 몸소 항일무장투쟁을 조직령도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 조직전개하신 항일무장투쟁은 우리 인민의 혁명운동을 보다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강화발전시킨 위대한 혁명투쟁이였다. 이것은 우리 인민에게 민족재생의 희망과 승리의 신심을 안겨주고 조선혁명을 전국적판도에서 일대 고조에로 불러일으켰다.

이리하여 항일무장투쟁행정에서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이시며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신 김일성동지에 의하여 비로소 맑스—레닌주의에 기초한 우리 당과 혁명의 깊고 억센 뿌리, 영광

스러운 혁명전통이 이룩되였다.

김일성동지에 의하여 이룩된 항일무장투쟁의 빛나는 혁명전통이 우리 당과 혁명의 유일한 뿌리로 되는것은 거기에 혁명이 종국적으로 승리하는 그날까지 우리 당과 인민이 반드시 견지하고 계승발전시켜야 할 가장 철저한 혁명적사상체계, 고귀한 혁명업적과 투쟁경험, 혁명적사업방법과 인민적사업작풍의 전통 등 실로 풍부하고도 다방면적인 내용이 깃들어있기때문이다.

항일무장투쟁의 불길속에서 위대한 주체사상과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의 전통을 비롯하여 혁명과 수령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 어떤 역경속에서도 혁명을 끝까지 수행하는 불요불굴의 혁명정신과 혁명적지조, 원칙적단결과 혁명적동지애, 사회주의적애국주의와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 등의 가장 빛나는 혁명전통이 이룩되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무장투쟁을 조직전개하심에 있어서 일관하게 철저한 맑스—레닌주의적혁명사상, 주체사상을 확고히 견지하시였으며 혁명투쟁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자주적으로 자력갱생의 원칙에서 해결하여나가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무장투쟁시기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남의 힘을 믿고 자기 혁명을 하겠다고 추호도 생각해서는 안된다. 우리 혁명은 어디까지나 우리의 힘으로 해야 한다.

우리의 항일무장투쟁은 바로 여기에 큰 의의가 있는것이다.

그래야만 우리는 앞으로 닥쳐올 대사변을 떳떳이 맞이할수 있으며 해방된 조국의 민주건설도 우리의 손으로 할수 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특히 조선공산주의운동의 력사적교훈과 당시 우리 나라 혁명의 구체적실정으로부터 출발하시여 사대주의, 교조주의에 물젖은 종파분자들의 반혁명적준동과 대국주의자들의 민족배타주의적책동을 반대하시여 견결히 투쟁하시였다.

김일성동지에 의하여 교양육성된 항일유격대원들은 그이의 위대한 혁명사상, 주체사상을 자신의 뼈와 살로 만들고 그것을 혁명활동에 철저히 구현함으로써 수령께 무한히 충실한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확립하였으며 혁명과 수령을 위해 한목숨을 서슴없이 바치는 불요불굴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양하였다.

또한 항일유격대는 가장 열렬한 사회주의적애국주의와 철저한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의 산모범을 창조하였다.

항일무장투쟁행정에서 이룩된 이 빛나는 혁명전통은 우리 혁명의 승리를 위하여 우리 당과 인민이 시종일관 견지하여야 할 위력한 사상적무기로 된다.

김일성동지에 의하여 항일무장투쟁행정에서는 또한 맑스—레닌주의적당창건의 조직사상적준비, 인민정권수립과 인민무력건설문제, 반제통일전선운동과 반제공동전선운동 등 우리 당이 계승하여야 할 실로 고귀한 업적과 풍부한 투쟁경험이 이룩되였으며 인민의 힘을 믿고 그에 의거하여 모든 문제를 해결하며 인민을 사랑하고 그에 복무하는 군중로선에 기초한 우리 당의 혁명적사업방법과 인민적사업작풍의 전통이 이루어졌다.

김일성동지에 의하여 항일무장투쟁행정에서 이룩된 우리 당의 빛나는 혁명전통은 혁명투쟁의 보편적진리를 체현하고있으며 혁명활동의 모든 경우에 대처할수 있는 만능의 무기를 준다.

이처럼 풍부하고 다방면적인 내용을 가진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에서 백전백승하는 조선로동당이 솟아났으며 이 풍부한 혁명전통을 뿌리로 하여 혁명과 건설에서 찬란한 성과와 위대한 승리가 마련될수 있었다.

김일성동지에 의하여 이룩된 항일무장투쟁의 빛나는 혁명전통이 조선혁명의 전로정에서 그처럼 위대한 생활력과 불패의 위력을 발휘할수 있은것은 그것이 세계혁명력사상 그 류례가 드문 간고한 혁명투쟁의 불길속에서 형성된것이기때문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무장투쟁의 간고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

였다:

《…■찌산■은 온갖 곤난■ 이겨내면서 1~2년도 아니고 15성상에 걸친 간고한 투쟁■ 전개하였습니다. ■찌산■은 적의 무기■■앗아가지고 무장하였고 식량과 피복도 적의것■ ■앗아썼고 인민■의 원조에 의해서 해결하였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2권, 70페지)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항일유격대는 일제와 같은 강대한 적을 상대로 하여 15성상이란 오랜 세월에 걸쳐 온갖 난관과 시련을 이겨내면서 무장투쟁을 전개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항일유격대는 외부의 강대한 적과 싸워야 하였을뿐아니라 온갖 기회주의자들과 혁명의 배신자들을 반대하여 심각한 투쟁을 전개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항일유격대는 국가적후방이나 외부의 지원도 없는 극히 어려운 조건하에서 필요한 모든것을 적과의 투쟁을 통하여 오직 자체의 힘으로 해결하면서 싸워야했다.

실로 항일유격대가 겪은 난관과 시련은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것이였으며 그의 매걸음은 어려운 풍파를 뚫고 가시덤불길을 헤쳐나가는 준엄한 투쟁의 련속이였다. 항일유격대는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와 탁월한 전략전술에 의하여 항상 주도권을 튼튼히 틀어쥐고 투쟁의 앞길에 가로놓인 중중첩첩한 난관과 시련을 극복타개하면서 적들에게 련속 심대한 타격을 가하였으며 불사조마냥 영웅적으로 싸워이겼다.

이와 같이 우리 당의 빛나는 혁명전통은 미증유의 간고성을 띤 장구한 혁명투쟁의 불길속에서 온갖 시련과 간난신고를 이겨낸 영웅적투쟁을 통하여 이룩된것이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우리 당의 혁명전통은 비할바없이 위력한 힘을 가지고있으며 우리에게 있어서 더없이 귀중한것이다.

해방후 우리 당과 인민이 혁명과 건설의 매단계마다에서 달성한 위대한 성과와 승리는 오직 항일무장투쟁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밑천으로 하여 이룩된것이다.

바로 이 전통, 이 억세고 튼튼한 혁명의 뿌리가 있었기때문에 해방후 그 복잡한 조건하에서도 제때에 당이 창건될수 있었으며 인민정권을 수립하고 민주주의혁명을 완수할수 있었으며 조국해방전쟁에서 위대한 승리를 쟁취하고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에서 오늘과 같은 빛나는 성과를 달성할수 있었다.

이 전통이 있음으로 하여 복잡하고 어려운 정세하에서 종파주의와 온갖 좌우경기회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었으며 전당과 전체 인민을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 당의 유일사상으로 철저히 무장시킬수 있었다.

항일무장투쟁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계승함으로써 우리 인민은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에서 세계 《최강》을 자랑하던 미제무력침공자들을 때려부시고 세계력사상 처음으로 미제의 내리막길의 시초를 열어놓았으며 김일성동지께서 일관하게 견지하여오신 위대한 주체사상을 구현하여 세기적으로 락후하였던 이 땅우에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웠다.

항일무장투쟁행정에서 단련된 오랜 혁명가들과 함께 혁명전통을 계승발전시키는 해방후 20여년간의 혁명투쟁에서 특히 가렬한 조국해방전쟁의 불길속에서 수많은 혁명적골간이 새로 자라났으며 우리의 혁명력량이 비상히 강화되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무장투쟁에서 이룩하신 혁명적사업방법과 인민적사업작풍의 전통을 발전시켜 위대한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과 대안의 사업체계를 창조하시였으며 혁명과 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혁명적군중로선을 철저히 관철하시였다.

오늘 우리 근로자들의 무궁무진한 창조력이 더욱 발양되고 이 땅우에 천리마의 기상이 나래치고있는것도, 전당과 전체 인민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위에 철통같이 뭉쳐 혁명의 위대한 승리를 앞당기고있는것도 모두가 항일

무장투쟁의 빛나는 혁명전통을 계승하고있기때문이다.

우리 당과 인민이 이처럼 위대하고 빛나는 혁명전통을 가지고있음으로 하여, 그것을 계승하여 혁명과 건설에서 위대한 성과를 달성한것으로 하여 우리 당과 인민의 국제적위신은 비상히 제고되였으며 세계지도에서 오래동안 빛을 잃었던 우리 나라가 《주체의 조국》, 《천리마의 나라》, 《사회주의모범》으로 온세상에 찬연한 빛을 뿌리고있다.

오늘 세계의 혁명적인민들은 우리 당의 빛나는 혁명전통을 몸소 창조하시고 그것을 발전시키면서 우리 혁명을 승리의 한길로 인도하실뿐아니라 세계혁명승리를 위하여 탁월한 공헌을 하고계시는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최대의 경의를 드리고있으며 그이께서 가리키시는 길을 따라 혁명투쟁에 힘차게 일떠서고있다.

실로 김일성동지에 의하여 이룩된 항일무장투쟁의 혁명전통, 그 억세고 튼튼한 혁명의 뿌리가 있음으로 하여 번영하는 오늘의 사회주의적조국이 있으며 우리 혁명의 휘황찬란한 앞날이 있다.

우리 당과 인민은 이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이 있음으로 하여 혁명의 대를 굿굿이 이어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빛나게 실현해나가고 있으며 전세계에서 미제를 괴수로 하는 제국주의침략자들을 쓸어버리고 혁명의 위대한 승리를 촉진하는데 적극 이바지하고있다.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김일성동지께서 이룩하신 항일무장투쟁의 빛나는 혁명전통으로 튼튼히 무장하며 그것을 견결히 고수하고 계승발전시킴으로써만 혁명하는 당, 혁명하는 인민의 영예와 혁명적자부심을 깊이 간직하고 조선혁명의 종국적승리를 앞당겨나아갈수 있으며 세계혁명에 적극 이바지할수 있다.

* *

우리는 조선혁명의 종국적승리를 앞당기기 위하여, 우리 조국의 무궁한 번영을 이룩하기 위하여 김일성동지께서 이룩하신 항일무장투쟁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으로 튼튼히 무장하여야 한다.

우리 당의 빛나는 혁명전통으로 무장한다는것은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투쟁력사와 령도의 현명성, 높은 덕성을 깊이 연구체득하여 그이의 혁명사상으로 무장하며, 항일유격대원들의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본받아 그들처럼 수령의 참된 전사로 되기 위한것이다.

그러므로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혁명전통학습에서 기본은 김일성동지의 빛나는 혁명투쟁력사와 령도의 현명성, 높은 덕성을 깊이 연구체득하여 수령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무장하는것이다.

조선혁명의 진정한 력사는 김일성동지의 혁명투쟁력사이며 항일무장투쟁의 불길속에서 이룩된 빛나는 혁명전통은 그 어느것이나 김일성동지의 혁명적활동과 떼여놓고 생각할수 없다.

우리 당과 인민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를 조선혁명의 위대한 수령으로 모시고있음으로 하여 그처럼 억세고 튼튼한 혁명의 뿌리,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가질수 있었다.

우리 당과 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찌기 혁명의 길에 나서신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40여년간 오직 조선인민의 자유와 해방을 위하여,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세계혁명 발전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제식민지통치의 가장 암담하던 시기에 맑스—레닌주의기치밑에 영광스러운 항일무장투쟁을 조직전개하심으로써 조선혁명과 우리 민족의 운명을 위기에서 구원하시고 조국광복의 위업을 성취하시였으며 우리 당과 인민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마련하시였다.

실로 김일성동지께서 혁명의 길에 나서신 때로부터 우리 인민의 진정한 혁명력사가 시작되였으며 조선공산주의운동의 승리의 력사는 곧 우리 당과 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 주체사상을 구현하여온 영광스러운 로정이다.

우리는 김일성동지의 혁명투쟁력사를 깊이 연구체득함으로써 우리 당의 빛나는 혁명전통이 어떻게 이루어졌으며 오늘 우리가 누리고있는 모든 행복이 어떻게 마련되였는가를 똑똑히 파악하여야 한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혁명전통학습을 통하여 김일성동지의 령도의 현명성과 높은 덕성을 깊이 연구체득하여야 한다.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 우리 당과 인민이 쌓아올린 모든 승리와 성과들은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가 낳은 빛나는 결실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무장투쟁시기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혁명발전의 매시기마다 가장 정확한 로선과 정책을 제시하시고 우리 인민을 위대한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주시였다.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가 있음으로 하여 우리는 잃었던 조국을 다시 찾았고 세기적인 락후와 빈궁이 지배하던 이 땅우에 착취와 압박이 영원히 청산되고 모든 인민이 살기 좋고 행복한 가장 선진적인 사회주의제도를 세울수 있었으며 일대 민족적번영과 륭성의 시대를 마련할수 있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활동의 전기간에 걸쳐 공산주의적풍모와 고매한 덕성의 가장 숭고한 모범을 보여주시였다.

그이께서는 일관하게 강의한 혁명적원칙과 불요불굴의 투지, 미래에 대한 열렬한 사랑과 혁명적락관주의, 비상한 혁명적전개력을 가지시고 혁명승리의 길을 개척하시였으며 혁명의 길에 가로놓인 모든 위기와 풍파를 한몸으로 막아나서시였다. 그이께서는 조국과 인민을 가장 뜨겁게 사랑하시였으며 인민들과 혁명동지들을 어버이심정으로 극진히 보살피시고 그들을 한품에 안아 키워주시였다.

우리는 김일성동지의 령도의 현명성과 고매한 덕성을 깊이 연구체득함으로써 위대한 수령의 령도를 받는 무한한 긍지와 혁명적자부심을 간직하고 그이의 가르침에 충실한 참된 혁명전사로 되여야 한다.

우리는 김일성동지의 빛나는 혁명력사와 령도의 현명성, 높은 덕성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그이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여야 한다.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은 맑스—레닌주의를 우리 나라 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하고 발전시킨 사상이며 정치에서 자주, 경제에서 자립, 국방에서 자위의 원칙으로 일관된 철저한 주체사상으로서 조선혁명을 가장 곧바른 승리의 길로 인도하며 그의 종국적승리를 담보하는 위대한 사상이다.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은 우리의 혁명과 건설을 수행하기 위한 가장 정확한 맑스—레닌주의적지도사상이며 온세상에서 제국주의를 쓸어버리고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을 승리에로 이끄는 위대한 사상이다.

우리에게 있어서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는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으로 무장함으로써만 맑스—레닌주의세계관이 확립되고 조선혁명과 세계혁명의 승리를 위하여 헌신적으로 끝까지 투쟁하는 참된 혁명가로 될수 있다.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는것을 가장 숭고한 의무로, 최대의 영예로 생각하고 그이의 혁명사상을 자신의 피와 살로 만듦으로써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확립하여야 한다.

혁명전통학습에서 또한 중요한것은 항일유격대원들의 수령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을 따라배우는것이다.

조선의 참된 공산주의자들인 항일유격대원들은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김일성동지께서 제시는 조선혁명의 사령부를 목숨으로 보위하였으며 수령의 명령과 지시라면 어떠한 역경속에서도 그것을 끝까지 옹호관

철하였다.

항일유격대원들은 언제 어디에서나 오직 수령의 사상으로 살고 싸웠으며 수령의 가르침을 높이 받들고 적과의 싸움에서 불요불굴의 투지와 무비의 용감성을 발휘하였으며 혁명과 수령을 위하여 한목숨을 서슴없이 바쳐 싸워이겼다.

우리는 항일유격대원들의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본받음으로써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으로 더욱 튼튼히 무장하고 수령을 목숨으로 사수하여야 하며 일편단심 수령과 생사고락을 같이하면서 그이께 끝까지 충실하여야 한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무장하며 항일유격대원들의 수령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의 모범을 따라배우기 위하여 혁명전통학습을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김일성동지의 혁명적가정과 초기혁명활동, 영광스러운 항일무장투쟁을 승리에로 조직령도하신 김일성동지의 빛나는 혁명로정, 해방후 우리 혁명과 건설을 촉진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실현하기 위한 김일성동지의 탁월한 혁명활동을 보여주는 《인민의 자유와 해방을 위하여》, 《항일빨찌산참가자들의 회상기》, 《인민들속에서》 등을 비롯한 혁명전통자료들을 깊이 연구체득하여 그속에 담겨져 있는 수령의 위대한 혁명사상과 혁명정신, 고매한 덕성을 꾸준히 따라배워야 한다.

특히 우리는 당의 유일사상체계확립을 위한 교양사업의 거점인 《김일성동지혁명력사연구실》을 잘 꾸리고 그것을 실속있게 운영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김일성동지의 혁명력사를 체계적으로 연구체득하여 수령의 령도의 현명성과 높은 덕성을 깊이 파악함으로써 당의 유일사상,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더욱 철저히 무장하여야 한다.

※ ※

김일성동지께서 이룩하신 우리 당의 빛나는 혁명전통으로 튼튼히 무장하며 그것을 견결히 고수하고 계승발전시키는것은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가장 숭고한 의무이며 영예로운 과업이다.

혁명전통학습에 대한 태도는 수령께 얼마나 충실하며 혁명에 얼마나 충실한가 하는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척도의 하나로 되며 혁명전통을 견결히 고수하고 계승발전시키는것은 온갖 기회주의자들의 책동으로부터 수령을 보위하며 수령의 령도를 받들고 대를 이어 혁명을 끝까지 완수하기 위한 투쟁이다.

우리는 혁명전통을 고수하는것이 우리 혁명의 운명과 관련되는 근본문제이라는것을 심장으로 파악하고 김일성동지께서 몸소 이룩하신 우리 당의 빛나는 혁명전통, 이 무한히 귀중한 혁명의 뿌리를 누구도 감히 훼손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우리 당의 빛나는 혁명전통은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있어서 무한히 귀중한 혁명적량식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가르치시였다:

《혁명전통교양을 심도있게 하는것은 사람들을 혁명화하고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데서 가장 중요한 작용을 합니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김일성동지께서 간고하고도 장구한 항일무장투쟁행정에서 이룩하신 위대한 혁명전통을 깊이 연구체득함으로써 자신을 수령의 혁명사상으로 더욱 튼튼히 무장하고 혁명화, 로동계급화하여야 하며 수령께서 제시하신 모든 로선과 정책을 무조건 끝까지 관철하고야 마는 참된 혁명전사로 준비하여야 한다.

우리 인민은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를 높이 받들고 항일무장투쟁의 혁명전통을 계승하여 우리 혁명과 건설을 더욱 촉진하며 우리 세대에 반드시 조국의 통일독립과 조선혁명의 전국적승리를 달성하여야 한다.

전당과 전체 인민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를 높이 받들고 그이께서 마련해주신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의 계승자로서의 드높은 긍지와 높은 책임감을 간직하고 우리 혁명의 피줄기를 대대손손 빛나게 이어나가야 한다.

모든 근로자들을 당과 수령의 주위에 더욱 튼튼히 묶어세우자

오늘 우리 당은 조성된 정세에 대처하여 광범한 군중을 당과 수령의 두리에 더욱 튼튼히 묶어세워 우리의 혁명력량을 일층 강화할것을 중요하게 강조하고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직접적인 발기에 의하여 당은 우리 인민의 경사스러운 민족적명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스무돐을 계기로 당과 수령의 두리에 굳게 뭉친 우리 인민의 정치사상적통일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한 일련의 중요한 조치를 취하고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지난 20여년간 혁명의 참모부인 우리 당의 공고발전과 그 전투력의 제고를 위하여, 혁명의 전취물인 우리 인민주권과 사회주의제도의 공고발전을 위하여, 조국의 통일독립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것을 바쳐 헌신적으로 복무하여온 일군들을 비롯한 우리 당의 혁명적골간들과 전체 군중들에게 커다란 정치적신임을 표시하시면서 그들이 모두 당의 로선과 정책을 높이 받들고 혁명과 건설의 매개 초소에서 더 적극적으로 투쟁할수 있도록 두터운 배려를 돌려주시고계신다.

이것은 우리 당의 핵심진지를 더욱 공고히 하는 동시에 우리의 전체 인민을 혁명사상으로 교양하여 강력한 혁명력량으로 묶어세울데 대한 우리 당의 일관한 방침을 더욱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것이다. 당이 취한 금번 조치는 우리 당의 혁명적골간들의 역할을 높이 평가하고 그들에 튼튼히 의거하며 로동자, 농민, 근로인테리를 비롯한 모든 인민들을 굳게 믿고 혁명의 한길로 끝까지 이끌고 나아갈데 대한 우리 당의 가장 철저한 혁명적립장으로부터 흘러나온것이다.

이 조치는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정치적열의를 더욱 높임으로써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에서 새로운 로력적앙양을 불러일으키고있으며 공화국북반부를 전투적기백과 혁명적랑만이 넘치는 하나의 붉은 대가정으로 더욱 확고히 전변시키고있다.

모든 당조직들과 일군들은 전체 인민을 당과 수령의 두리에 더욱 굳게 단결시킬데 대한 우리 당의 방침의 혁명적본질과 그 거대한 의의를 깊이 파악하고 북반부의 혁명과 건설을 촉진하며 조국통일과 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앞당기기 위하여 당의 이 방침을 더욱 철저히 관철시켜야 할것이다.

* *

모든 근로자들을 교양하여 혁명의 편에 튼튼히 묶어세우는것은 우리 혁명을 위대한 승리의 한길로 이끄시는 전행정에서 4천만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일관하게 견지하여오신 중요한 전략적방침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혁명의 진두에 나서신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40여년간 위대한 주체사상과 탁월한 령도예술, 고매한 덕성으로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모든 군중을 한품에 안아 영광스러운 혁명의 길로 확고히 인도하여주시였으며 전체 인민에게 가장 보람차고 행복한 생활을 마련하여주시였다. 그이께서는 혁명의 골간부대를 튼튼히 꾸리고 혁명의 편에 설수 있는 모든 군중을 단결시켜 우리 혁명의 주체적력량을 끊임없이 강화하시였으며 전체 인민을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광명한 미래에로 이끌어나갈 위대한 구상을 품으시고 모든 군중을 육친의 정으로 교양하

시고 이끌어주시였다. 간고하고 장구한 항일무장투쟁행정에서와 해방후 혁명과 건설의 매단계에서 우리 인민에 대한 그이의 원칙적교양과 육친적배려는 모든 인민들로 하여금 수령의 주위에 굳게 뭉치여 수령께 무한히 충실할수 있게 하였다.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하에 우리 당은 창건첫날부터 일관하게 계급로선과 군중로선을 확고히 견지하고 그를 철저히 관철하였으며 전체 인민을 당과 수령의 두리에 튼튼히 단결시키고 우리 혁명의 승리적전진을 믿음직하게 보장하여왔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은 혁명발전의 매시기에 프로레타리아독재의 주되는 대상을 명백히 규정하였으며 극소수의 적대분자들을 고립시키고 혁명의 편에 끌수 있는 모든 계층들을 대담하게 포섭하고 적극적으로 교양개조하는 능동적인 방침을 취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당의 정책은 각계각층 군중의 열성과 적극성을 더욱 제고하였으며 전체 인민의 단결을 강화하였습니다.》
(《조선로동당 제4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 137페지)

우리 당은 무엇보다도 먼저 당대렬을 강화하고 당주위에 광범한 로동자, 농민을 튼튼히 묶어세웠으며 모든 분야에서 당의 계급진지를 백방으로 강화하였다. 혁명과 건설에서 로동계급의 령도적역할을 높이고 로농동맹을 공고히 하였으며 오랜 인테리들을 적극적으로 포섭하고 교양하여 로동계급의 혁명적인 인테리로 개조하기 위하여 투쟁하였다.

이에 기초하여 당은 모든 인민을 당과 수령의 주위에 튼튼히 결속하기 위하여 각계각층 군중들속에서 적극적인 정치사업을 전개하였다.

특히 당은 우리 혁명이 날카로운 계급투쟁을 동반하며 우리 나라 주민구성이 복잡한 사정으로부터 출발하여 사회정치생활의 경위가 각이한 군중들과의 사업을 정력적으로 진행하였다. 사회정치생활의 경위가 복잡한 사람들과의 사업에서 우리 당이 견지한 일관한 원칙은 어디까지나 본인의 현재의 동향을 기본으로 하여 매사람을 평가하며 적대분자를 최대한으로 고립시키고 한사람이라도 더 많이 혁명의 편에 전취하는것이다. 당은 성분과 환경, 과거의 경력이 복잡하여도 현재 혁명에 충실하며 자신을 개조하기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는 사람은 모두 아량있게 포섭하고 믿어주며 혁명과 건설에서 자기의 재능과 열성을 충분히 발휘할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고 인내성있게 교양하여 당주위에 단결시켰다. 또한 지난날 계급적으로 각성되지 못하고 미제와 그 주구들의 기만선전에 넘어가 일시적으로 과오를 범하였던 사람들도 투쟁을 통하여 자기의 과오를 씻고 오늘 혁명에 충실한 경우에는 지난날의 과오를 벗겨주는 사업을 체계적으로 진행함으로써 그들의 적극성을 더욱 발양시켰다.

우리 당의 이와 같은 방침은 반혁명세력을 결정적으로 약화시킨 동시에 우리의 혁명력량을 비상히 강화할수 있게 하였다. 우리 사회의 주민구성이 복잡하고 세계반동의 괴수인 미제국주의자들과 직접 대치하고있는 조건에서도 로동계급의 령도하에 로농동맹을 기초로 하는 전체 인민의 정치사상적통일은 철통같이 강화되였으며 전사회에 신뢰와 화목의 분위기가 지배하게 되였다. 오늘 전체 인민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위에 하나의 사상의지로 굳게 단결되여있으며 오직 수령께서 가리키시는 길을 따라 혁명과 건설을 힘차게 추진시키고있다.

모든 근로자들을 당과 수령의 주위에 굳게 단결시킬데 대한 우리 당의 일관한 방침이 혁명과 건설에서 거대한 생활력을 발휘할수 있은것은 그것이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수행의 근본요구를 정확히 반영하고있기때문이다.

공산주의자들과 로동계급의 당이 혁명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계급로선과 군중로선을 철저히 관철하여 당의 계급진지를 강화하며 혁명의 골간부대를 튼튼히 꾸리는 기초우에서 광범한 대중을

혁명의 편에 굳게 묶어세워야 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혁명은 우리 당이 혼자서 할수는 없습니다. 혁명은 대중을 위한 사업이요, 인민을 위한 사업이기때문에 많은 사람이 참가하지 않고서는 성공할수 없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2권, 334페지)

김일성동지께서 교시하신바와 같이 혁명의 승패는 결국 누가 대중을 더 많이 쟁취하는가에 달려있다.

모든 군중을 당과 수령의 주위에 굳게 묶어세워 인민대중의 정치사상적통일을 강화하는것은 사회주의사회발전의 절실한 요구이다.

사회주의하에서는 로동계급과 협동농민, 근로인테리들간에 사회경제적처지의 공통성, 목적과 리해관계의 공통성으로 하여 서로 긴밀히 협조하며 단결하는 관계가 지배하게 되며 인민대중의 정치사상적통일이 확고하게 이루어지게 된다. 인민대중의 정치사상적통일, 당과 수령의 령도밑에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건설하려는 그들의 공통된 지향과 열의는 사회주의사회의 발전을 추동하는 기본동력이다. 따라서 사회주의사회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로동계급의 령도하에 로농동맹을 기초로 하는 인민대중의 정치사상적통일을 백방으로 강화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계급투쟁을 강화하여야 한다. 사회주의하에서 계급투쟁을 부인하는것은 수정주의이며 혁명을 포기하는것으로 된다. 맑스—레닌주의당은 사회주의건설이 진척될수록 프로레타리아독재를 약화시킬것이 아니라 계속 강화하여야 하며 계급투쟁도 계속하여야 한다.

김일성동지께서 교시하신바와 같이 사회주의하에서의 계급투쟁은 그전사회에서의 계급투쟁과는 형식과 방법이 다르다. 사회주의하에서 계급투쟁은 중요하게는 두가지 형태로 진행된다. 하나는 사회주의제도를 반대하며 자본주의제도를 복구하려는자들을 철저히 진압하는것이며 다른 하나는 사람들의 머리속에 남아있는 부르죠아사상, 봉건사상등 낡은 사상을 반대하여 사상투쟁을 전개하는것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가는 과도기에 있어서 계급투쟁의 주되는 형식은 사상투쟁, 다시말하여 전사회를 로동계급화, 혁명화하는것입니다. 우리는 사회주의제도를 반대하고 뒤집어엎으려는자들에 대하여서는 철저한 독재를 실시하여야 하지만 그런자들을 내놓고 절대다수의 사람들은 다 사상교양을 통하여 로동계급화하고 혁명화하여 혁명의 편으로 만들어야 합니다.》라고 교시하시였다.

사회주의하에서 근로자들의 머리속에 남아있는 낡은 사상잔재를 반대하는 투쟁은 결국 사람들을 공산주의적으로 교양개조하기 위한 사업이다. 사회주의사회에는 낡은 사상이 새로 발생할수 있는 사회경제적 및 물질적 근원은 없다. 근로자들속에서 지배적인 사상은 맑스—레닌주의혁명사상이며 공산주의사상이다. 그러므로 근로자들속에서 사상교양사업을 꾸준히 진행한다면 극소수의 의식적인 반동분자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을 다 교양개조하여 혁명의 편에 묶어세울수 있으며 공산주의에로 이끌고나갈수 있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로동계급의 당은 사회주의하에서 사회주의제도를 반대하는 현행범들, 극소수의 의식적인 적대분자들에 대해서는 철저한 독재를 실시하는 동시에 절대다수의 사람들은 다 교양개조하여 당과 수령의 주위에 튼튼히 묶어세워야 하는것이다.

한사람이라도 더 많은 군중을 당과 수령의 주위에 튼튼히 결속시킬데 대한 우리 당의 일관한 방침은 특히 우리 혁명의 절박한 요구를 전면적으로 반영하고있다.

우리 당은 공화국북반부에서 혁명과 건설을 강력히 추진시키는 동시에 남반부에서 철천지 원쑤 미제를 때려부시고 조국통일과 혁명의 전국적승리를 달성하기 위하여 투쟁하고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

하시였다:

《현단계에서 조선로동당과 조선인민앞에 나서고있는 최대의 민족적과업은 조국의 통일과 혁명의 전국적승리를 달성하는것입니다. 이를 위하여서는 우선 인민들이 이미 주권을 잡고 새생활을 창조하고있는 북반부에서 혁명과 건설을 강력히 추진시켜야 하며 북반부를 우리 혁명의 위력한 기지로 만들어야 합니다.》(《현정세와 우리 당의 과업》, 47페지)

공화국북반부인민들의 정치사상적통일단결은 북반부에서의 혁명과 건설을 위한 결정적력량일뿐아니라 조국통일과 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위한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다. 북반부에서 각계각층의 인민들을 당과 수령의 주위에 굳게 결속하는것은 우리의 혁명기지를 더욱 강력한 정치적력량으로 전변시키는 동시에 남반부의 혁명력량을 굳게 결속함에 있어서도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가 만일 북조선의 각계각층 군중을 다 교양개조하여 혁명의 편에 확고하게 쟁취한다면 그것은 남조선인민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주게 될것이며 그들을 우리 당 주위에 묶어세우는데 큰 도움으로 될것입니다.》**라고 교시하시였다.

남반부에서 민족해방투쟁을 진행하며 민주주의혁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남조선의 로동자, 농민, 인테리들과는 물론 민족자본가, 민주인사들과도 손을 잡아야 한다. 즉 남조선에서 혁명의 주력군을 꾸리는 동시에 미제를 반대하는 광범한 계층들과 반미구국통일전선을 이룩하여야 한다.

북반부의 전체 인민대중이 사회주의제도하에서 보람차고 행복한 생활을 누리며 당과 수령의 두리에 더욱 굳게 뭉쳐 전투적기백과 혁명적랑만에 넘쳐 힘차게 싸워나아갈 때 남조선의 각계각층 인민들도 4천만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위에 하나의 사상의지로 굳게 뭉쳐 혁명투쟁에 적극적으로 일떠서게 될것이다.

이리하여 한줌도 못되는 원쑤들은 최대한 고립되고 남북반부의 전체 인민대중은 강력한 혁명력량으로 더욱 튼튼히 단결될것이며 조국통일과 조선혁명의 전국적승리는 비상히 촉진될것이다.

이와 같이 전체 인민대중을 당과 수령의 주위에 튼튼히 묶어세울데 대한 우리 당의 일관한 방침은 로동계급의 혁명운동발전의 객관적합법칙성과 우리 혁명의 절박한 요구를 훌륭히 반영하고있는 것으로 하여, 로동계급의 계급적원칙성과 철저한 계급로선에 기초한 군중로선을 옳게 구현하고있는것으로 하여 위대한 생활력을 발휘하고있으며 우리 혁명을 촉진하는 강력한 요인으로 되고있다.

우리 당은 생활에 의하여 그 정당성이 확증된 이 방침을 계속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우리의 혁명력량을 더욱 강화할것이며 조국통일과 혁명의 전국적승리를 힘있게 앞당겨나아갈것이다.

*　　*

미제국주의자들의 광란적인 전쟁도발소동으로 날로 긴장되고있는 현정세에 대처하여 천리마의 대진군을 더욱 다그치고 우리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촉진하며 조국통일과 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주동적으로 앞당기기 위해서는 전체 인민을 우리 당과 4천만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위에 더욱 굳게 단결시켜야 한다.

전체 근로자들이 당과 수령의 주위에 튼튼히 단결하여 오직 수령께서 가리키신 한길을 따라 나아갈 때 우리에게는 원쑤들의 그 어떤 발악도 어떠한 시련도 두려울것이 없으며 그 어떤 점령하지 못할 요새도 있을수 없다.

모든 당조직들은 우리 당의 핵심들, 기본군중과의 사업을 잘하는 동시에 사회정치생활의 경위가 복잡한 군중들속에서 조직정치사업을 강력히 전개하여 우리의 혁명력량을 백방으로 강화하여야 한다. 무엇보다도 먼저 장기간의 간고하고 준엄한 혁명의 불길속에서 단련된 오랜 혁명투사들을 비롯하여 해방후 혁명과 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당과 인민 앞에 공훈을 세운 일군들과 혁명가유가족, 전사자가족, 피살자가족, 영예군인, 영예전상자들을 사회적으로 존경

하고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그들의 핵심적역할을 더욱 높여야 하며 로동자, 농민 등 사회의 모든 기본군중들과의 사업을 잘하여 당의 로선과 정책을 관철하는데서 그들이 더욱 큰 역할을 놀도록 하여야 한다. 이에 기초하여 사회정치생활의 경위가 복잡한 사람들을 교양개조하여 단결시키기 위한 사업을 더 진공적으로 전개하여야 한다. 사회정치생활의 경위가 복잡한 사람이라도 현재 우리 당을 따라오겠다는 사람들은 다 대담하게 믿어주고 그들이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자기의 지혜와 정력을 남김없이 발휘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리하여 전체 인민을 정치사상적으로 더욱 튼튼히 결속시키며 전사회를 더욱 단합되고 화목하며 생기있는 하나의 붉은 혁명적대가정으로 만들어야 한다.

모든 군중들을 당과 수령의 주위에 더욱 튼튼히 묶어세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그들속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확고히 수립하며 전사회를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것이다.

당과 대중의 불패의 통일단결, 전체 인민의 확고부동한 정치사상적통일은 전당과 전체 인민이 우리 당의 유일사상,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될 때에만 공고화될수 있다. 우리 당 내에는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 이외에 그 어떤 사상도 있을수 없으며 우리 당원들과 인민들에게 있어서 수령의 혁명사상으로 무장하는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은 우리 혁명의 유일한 지도사상이며 각계각층의 우리 인민이 나아갈 유일하게 옳바른 길을 가리켜준다. 모든 당원들과 전체 인민이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으로 무장할 때 언제 어디에서나 수령과 한마음 한뜻으로 사고하고 행동할수 있으며 수령의 주위에 하나의 사상의지로 굳게 단결할수 있다. 당조직들은 모든 군중을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 우리 당의 유일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고 그들을 수령께 무한히 충실한 혁명전사로 만들어야 한다.

모든 군중을 당과 수령의 주위에 튼튼히 묶어세우기 위해서는 전사회를 혁명화, 로동계급화할데 대한 당의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여야 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대표자회에서 전사회를 혁명화할데 대한 문제가 중요하게 강조되였는데 이것도 결국은 될수 있는 대로 많은 사람들을 교양개조하여 혁명가로 만들어 우리의 혁명력량을 강화하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전사회를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것은 사회의 전체 성원들을 로동계급의 혁명사상, 공산주의사상으로 무장시키고 전체 근로대중을 가장 선진적이고 혁명적인 로동계급의 모양대로 개조함으로써 전체 인민의 정치사상적통일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담보로 된다. 모든 군중이 로동계급의 혁명적세계관으로 무장하고 자기의 협소한 리해관계나 안일을 위해서가 아니라 당과 혁명을 위하여,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몸바쳐 싸우려는 혁명정신을 소유하여야만 당과 대중의 통일단결이 더욱 확고해질수 있다. 당조직들은 사상혁명을 강화하여 사람들의 의식속에 남아있는 온갖 낡은 사상잔재를 철저히 뿌리빼고 모든 근로자들을 집단과 전사회의 리익을 위하여,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물불을 가리지 않고 싸우는 열렬한 혁명가로 만들어야 한다.

전체 군중을 당과 수령의 주위에 튼튼히 묶어세우기 위해서는 모든 당조직들과 지도일군들이 사람과의 사업을 잘하여야 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사업은 사람과의 사업이며 당사업에서 기본은 해설과 설복의 방법으로 사람들을 교양개조하여 더 많은 군중을 혁명의 편에 끌어들이는것입니다.》

사람과의 사업을 잘하는것은 모든 군중을 교양개조하여 단결시키기 위한 확고한 담보이다. 당조직들과 지도일군들

이 사람과의 사업을 강화하고 사상혁명을 강력히 추진시켜야만 모든 군중을 당의 유일사상체계로 확고히 무장시킬수 있으며 그들의 혁명화, 로동계급화를 촉진할수 있다.

일군들은 관료주의, 형식주의를 근절하고 혁명적군중관점과 인민적사업작풍을 소유하며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을 철저히 관철하여 군중속에 깊이 들어가서 정치사업, 사람과의 사업을 더욱 적극적으로 전개하여야 한다. 무엇보다도 먼저 군중속에서 당정책교양과 혁명전통교양을 강화하며 계급교양을 기본으로 하는 공산주의교양 특히 사회주의적 애국주의교양을 설득력있게 진행함으로써 모든 군중을 당과 수령께 무한히 충실한 혁명전사로 키우며 그들의 계급적 각성과 정치사상의식수준을 부단히 높여야 한다. 동시에 모든 군중이 높은 정치적각성과 창조적적극성을 가지고 당정책관철에 자각적으로 동원되도록 하여야 한다.

사람과의 사업은 대상의 실정에 맞게 실속있게 진행되여야 하며 사람들의 심금을 울릴수 있게 되여야 한다. 따라서 사람들의 의식수준과 정치사상적동향 등을 깊이 료해파악하고 그에 알맞는 교양방도를 세워야 하며 한사람을 교양해도 철저히 개조하여 단결시켜야 한다.

사람과의 사업을 잘하기 위해서는 하나가 열, 열이 백을 교양하고 움직이게 하는 사업체계를 세워야 한다. 그리하여 모든 지도일군들과 당원들이 이 사업에 적극 참가하게 하며 당조직뿐아니라 모든 근로단체조직들도 사람들을 교양개조하여 단결시키는 사업을 자기의 제1차적사업으로 진행하게 하여야 한다.

전체 근로자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여 당주위에 단결시킬데 대한 우리 당의 방침은 우리 인민에 대한 당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크나큰 정치적 신임의 뚜렷한 표시이다. 우리 근로자들에게 있어서 당과 수령의 높은 정치적 신임을 받는것보다 더 큰 영광은 없으며 위대한 수령의 현명한 령도를 받들고 당이 맡겨준 초소에 서서 혁명에 몸바쳐 싸우는것보다 더 행복하고 보람찬 일은 없다.

모든 근로자들은 무엇보다도 먼저 당과 수령께 무한히 충실하며 어떤 역경속에서도 정치적절개, 혁명적지조를 확고히 지키고 끝까지 혁명위업에 헌신하는것으로써 당과 수령의 두터운 신임과 거듭되는 배려에 보답하여야 한다.

근로자들은 착취제도하에서 압박받고 천대받던 쓰라린 과거를 영원히 잊지 말며 오늘의 이 행복, 이 영광을 마련하여주신 당과 수령의 높은 은덕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항상 계급적립장을 확고히 견지하며 수령의 참된 전사로서의 긍지와 영예를 빛내여야 한다. 모든 근로자들은 수령의 가르침을 높이 받들고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에서 천리마의 대진군을 다그치고 금년도 인민경제계획을 공화국창건 스무돐전에 끝내며 7개년계획을 앞당겨 완수하기 위하여 견결히 투쟁하여야 한다.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민족적영웅이시며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며 국제공산주의운동과 로동운동의 탁월한 령도자의 한분이신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위에 하나의 사상의지로 굳게 단결하여 그이께서 가리키신 길을 따라 북반부에서의 혁명과 건설을 촉진하며 조국통일과 조선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앞당기기 위하여 힘차게 나아가자.

항일유격대내에서의 비판과 자기비판

비판은 혁명대오의 정치사상적통일을 보장하고 사회성원들의 혁명화를 촉진하는 강력한 사상투쟁의 무기이며 낡은것을 극복하고 새것과 긍정적인것을 조장발전시키는 혁명발전의 위력한 무기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무장투쟁시기에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비판은 우리의 결함를 시정시키는 사상투쟁의 귀중한 무기이다. 한시라도 비판의 분위기가 무디게 되면 사람들은 침체에 빠지게 되고 전진이 멎을수 있다.

…혁명적조직규률과 혁명적규률을 위반할때에는 누구를 막론하고 혁명적비판이 가해져야 한다. 만일 이것이 없다면 우리들의 대오를 강철의 대오로 강화발전시키지 못할것이며 원수들과 싸워서 승리할수 없을것이다.》

항일유격대원들은 김일성동지의 가르치심을 받들고 혁명의 전진을 방해하며 혁명대오의 통일과 단결을 약화시킬수 있는 온갖 부정적현상을 반대하여 언제나 원칙적으로 투쟁하였다.

특히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민족적영웅이시며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신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혁명로선과 방침, 명령과 지시를 위반하거나 그를 정확히 제때에 집행하지 않는 현상에 대해서는 추호의 타협도 없이 날카로운 사상투쟁을 전개하였다.

항일유격대원들은 바로 이 원칙적비판을 통하여 항일무장투쟁의 장구한 전진도상에 대두하였던 좌경모험주의, 사대주의, 종파주의 등 온갖 기회주의자들의 책동과 대렬내에 잠입한 이색분자들의 음흉한 기도를 제때에 폭로분쇄하고 혁명의 기치를 끝까지 고수하였다.

또한 이 비판을 통하여 일상적인 사업과 생활에서 나타나는 결함을 제때에 바로잡고 혁명대오의 사상의지적통일과 동지적단결을 강화하였으며 매 성원들의 혁명화를 촉진하였다.

1

항일유격대원들은 언제나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을 무조건 옹호하며 혁명대오의 통일과 단결을 강화하기 위한 원칙에서 비판을 진행하였다.

혁명대오의 통일과 단결을 강화하는것은 혁명의 승패를 좌우하는 관건적문제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무장투쟁시기 비판을 혁명대오의 통일과 단결을 강화하는 중요한 무기로 삼을데 대하여 항상 강조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사소한 결함이라도 묵과하지 말고 그를 시정하기 위하여 힘써야 한다. 자신의 결함을 시정할뿐만아니라 동지의 결함을 시정해주기 위해서도 힘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이것이 없이는 동지호상간에 보다 공고한 사상의지의 통일이 보장될수 없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또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의 단결은 원칙적인 단결이며 우리의 비판은 원칙적인 비판이여야 한다.…》

항일유격대원들은 수령의 이 가르치심을 명심하고 혁명의 리익을 침해하며 혁명대오의 통일과 단결을 약화시키는 종파주의, 지방주의, 가족주의 등 온갖 분파적행동을 절대로 허용하지 않았으며 개인리기주의를 비롯한 일체 불건전한 사상잔재를 반대하여 언제 어디서나 원칙적으로 비판하고 투쟁하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하는 사람은 어느때나 혁명의 리익을 자기의 제일가는 생명으로 여기고 온갖 부정과 원칙적으로 투쟁해야 한다고 가르치시면서 일상생활에서 그 모범을 보여주시였다.

1935년초 북만원정에서 돌아오신 김일성동지께서는 병환중이심에도 불구하고 다홍왜회의에 참가하시여 반《민생단》투쟁에서 편협한 민족배타주의자들과 종파분자들의 책동으로 인한 극좌적인 오유를 바로잡기 위하여 원칙적비판을 전개하시였다.

당시 동만당특위내의 다수를 차지하고있은 편협한 민족배타주의자들과 종파분자들이 《민생단》문제와 간부문제에서 들고나온 그릇된 주장과 행동은 혁명대오의 통일과 단결을 약화시키며 혁명에 엄중한 손실을 주는 극좌적행동이였다. 그들은 동만당특위의 높은 직위를 악용하여 저들의 견해와 반대되는 의사를 내놓는 사람에 대해서는 덮어놓고 《민생단》의 감투를 씌워 모해하였기때문에 그 누구도 그들의 그릇된 주장과 극좌적행동을 비판하지 못했다.

혁명의 리익을 위하여 목숨을 내걸지 않고서는 그들의 그릇된 론단에 정면으로 맞설수 없었던 바로 그러한 때 오직 김일성동지만이 자신의 일신상문제를 생각지 않으시고 조선혁명의 리익을 위하여, 혁명대오의 통일과 단결을 위하여 편협한 민족배타주의자들과 종파분자들의 그릇된 주장을 론박하는 원칙적비판을 전개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그후 요영구회의에서도 비타협적인 원칙적비판으로써 반《민생단》투쟁에서의 극좌적오유를 하루속히 시정할데 대하여 강경하게 주장하시였다.

그리하여 그후 편협한 민족배타주의자들과 종파분자들에 의하여 극좌적으로 진행되였던 반《민생단》투쟁에서의 엄중한 오유가 시정됨으로써 《민생단》의 혐의를 받았던 많은 혁명가들이 구원되고 계속 혁명의 길에서 용감히 싸웠으며 혁명대오의 철통같은 통일단결이 이루어졌다.

항일유격대원들은 김일성동지의 모범을 따라배우면서 언제 어디서나 혁명의 리익을 적극 옹호하여 견결히 투쟁하였다.

특히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혁명로선과 방침, 명령과 지시에 어긋나는 현상에 대해서는 추호의 타협도 없이 날카로운 사상투쟁을 하였다.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민족적영웅이시며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신 김일성동지께서 항일무장투쟁시기 제시하신 혁명로선과 방침은 우리 나라 혁명정세를 과학적으로 분석하시고 맑스—레닌주의를 주체적립장에서 우리 나라 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한 가장 정확하며 혁명적인 로선과 방침이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이 로선과 방침들에서 조선혁명의 앞길을 명철하게 밝히시였으며 조선인민의 투쟁을 항상 승리에로 전진시키는 유일한 방도를 가르치시였다.

조선인민은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혁명로선과 방침을 철저히 관철할 때만이 민족적독립과 사회적해방을 이룩할수 있었다.

그러므로 항일유격대원들은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을 적극 옹호하여 투쟁하는것을 가장 큰 임무로, 영예로 생각하고 그이께서 주신 교시를 자의로 해석하거나 자의로 변경시키려는 사소한 표현에 대해서도 완강하게 투쟁하였다.

1940년 가을 연길현 로두구근방의 집단부락의 적을 치고 식량을 해결할데 대한 사령관동지의 명령을 받고 로두구쪽으로 행군해가던 조선인민혁명군의 한 소부대는 도중에서 도로공사장의 적을 치고 많은 식량을 얻었다.

이렇게 되자 일부 대원들속에서 식량을 해결했으니 로두구로 가지 말고 뒤따르는 적을 피해 얼른 다른 곳으로 빠지자는 의견이 나왔다.

소부대책임자는 누구도 사령관동지의 명령을 자의로 변경할 권리가 없으며 혁명가는 오직 김일성동지의 로선과 방침, 명령과 지시를 무조건 옹호관철할 의무만이 있다는것을 설명해주면서 일부 그릇되게 생각한 동무들이 납득되도록 잘 깨우쳐주었다.

그후 소부대는 뒤따르는 적을 딴곳에

끌어다 매어놓고 사령관동지께서 명령하신대로 토두구근방집단부락의 적을 쳤다. 그리하여 그들은 더많은 식량을 해결했을뿐만아니라 김일성동지께서 의도하신대로 적들의 시선을 토두구쪽으로 쏠리게 함으로써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의 활동을 유리하게 하였다.

항일유격대원들은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혁명로선과 방침에 위반되는 현상과 제때에 정확히 투쟁하기 위하여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는것을 첫째가는 의무로 내세웠다.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해야 옳고 그른것을 정확히 갈라볼수 있으며 나타난 결함을 제때에 고칠수 있었다.

그러므로 항일유격대내에서는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는것을 첫째가는 의무로 내세웠으며 그이의 혁명사상에 기초하여 사업과 생활을 일상적으로 검토하고 총화하는 기풍을 세웠다.

전투를 총화해도 김일성동지의 명령에 립각하여 총화하고 군중속에서의 하루생활을 총화해도 그이께서 제시하신 군중로선에 준하여 총화하고 한사람의 규률위반문제를 비판해도 그이께서 가르치신 혁명규률의 원칙적요구에 비추어 비판하는 등 언제나 김일성동지의 교시를 자로 삼아 사업과 생활에서 나타나는 부정적현상과 비타협적으로 투쟁하였다.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혁명로선과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이런 원칙적비판의 기초에는 언제나 죽어도 수령을 위하여 죽고 살아도 수령을 위하여 살아야 한다는 항일유격대원들의 김일성동지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이 안받침되여있었다.

수령께 무한히 충실한 사람만이 그이의 혁명사상을 옹호하여 견결히 투쟁할수 있고 또 혁명의 리익에 배치되는 현상과 원칙적으로 투쟁하는 사람만이 수령께 언제나 충실할수 있었다.

항일유격대원들은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언제 어디서나 그이의 혁명사상을 고수하여 완강하게 투쟁함으로써 항일유격대내에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외에는 그 어떤 사상도 모르는 유일사상체계를 확립하였으며 바로 그것으로 하여 조국해방의 빛나는 승리를 이룩할수 있었다.

항일유격대원들은 동지들의 일상생활에서 나타나는 적은 결함에 대해서도 언제나 묵과하지 않고 원칙적으로 비판하였다.

조선인민혁명군의 한 부대가 내두산을 향하여 행군해가던 도중 김정숙동지는 한 신입대원이 권총을 잃어버린 사실을 먼저 알자 적들이 뒤따르는 위험을 무릅쓰고 그의 팔목을 이끌어 오던 길로 되돌아가서 권총을 찾았다.

권총을 찾자 신입대원은 기뻐 어쩔줄 모르면서 자기가 권총을 잃어버렸던 사실을 상부에 보고하지 말아달라고 간청하였다.

그러나 김정숙동지는 그를 어루만져지 않고 자기 과오를 감추며 하는 그의 사상적병집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비판했다.

신입대원은 혁명대오에서는 잘못에 대하여 어떤 융화도 타협도 있을수 없다는것을 깊이 깨닫고 다시는 자기의 잘못을 감추려 하지 않았으며 또 동지들의 결함에 대해서도 묵과하지 않았다.

항일유격대원들은 이런 원칙적비판을 통하여 혁명의 리익을 가장 귀중히 여기고 언제나 어두운 구석이 없이 청백하게 생활하였으며 혁명대오의 원칙적단결을 보장하였다.

항일유격대원들은 비판을 원칙적이면서도 또한 언제나 동지적으로 하였다.

동지의 아픔을 진실로 자기의 아픔으로 생각하며 동지를 옳은 길로 이끌어주기 위해 바치는 뜨거운 마음이 크면 클수록 원칙적비판의 효과도 컸다.

항일유격대내 동지호상간 비판에서 엄격성은 언제나 깊은 동지적사랑과 밀접히 결합되여있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무장투쟁시기 다음과 같이 가르치시였다:

《…동무들이 생각해보라. 어머니가 자식을 꾸짖을 때 얼마나 랭철한가를, 그것이 남의 자식이라면 그렇지 않을것이다.

귀하고 자랑스러운 제 자식이기때문에 사소한 일까지도 그토록 아프게 꾸짖는것이다. 그래서 어머니가 좋다는것이며 그 사랑은 대해보다도 깊고 태산보다도 높다고 하는것이다. 이 고귀한 사랑의 정신을 우리 일군들은 소유해야 한다. 어머니의 심정으로 동지를 비판할 때 머리를 수그리지 않는 사람은 없을것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유격대원들에게 늘 이렇게 가르치시면서 비판을 한다고 하여 덮어놓고 남의 허물을 들추거나 중상, 모욕하지 말고 결함의 근본을 놓고 원칙적이면서도 동지적으로 비판해야 한다고 간곡히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일상생활에서 그 모범을 보여주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 주시는 비판은 항상 원칙적이면서도 그속에 깊은 동지적사랑이 깃들어있기에 비판받는 대원들은 누구나 가슴깊이 접수하고 하루빨리 자기의 과오와 결함을 시정하였다.

항일유격대원들은 김일성동지의 모범을 따라배우면서 언제나 깊은 동지적사랑을 가지고 동지들을 원칙적으로 대했다.

동지를 열렬히 사랑하는 사람만이 원칙적인 비판을 할수 있고 또 동지를 원칙적으로 대하는 사람만이 동지를 진심로 사랑할수 있다는것—이것은 항일무장투쟁의 장구한 나날을 통하여 검증된 귀중한 진리였다.

그러므로 항일유격대원들은 결함이 있는 사람들을 멀리한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일수록 더 가까이 접근하여 말 그대로 친형제의 심정으로 따뜻이 일깨워주었다.

그리하여 동지호상간의 원칙적단결은 더 강화되고 혁명적의리가 더 두터워졌다.

항일유격대원들은 비판을 언제나 일상적으로 하였다.

항일무장투쟁시기 김일성동지께서는 한 중대당지부회의를 지도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결함이 나타났을 때에는 비록 사소한것일지라도 묵과하지 말고 개별적인 충고와 집체적인 방조를 통하여 하루속히 시정시키도록 힘써야 한다는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비판과 호상방조는 당원들의 일상적인 품성으로 되여야 한다.

오직 이를 통해서만 모든 당원들의 사상의지와 행동의 통일이 이루어지며 위대한 목적, 혁명의 성과적인 수행을 위한 길에서 빛나는 결실을 맺을수 있는것이다.…》

항일유격대원들은 김일성동지의 가르치심을 명심하고 비판과 호상방조를 회의에서뿐만아니라 행군하면서도, 휴식하면서도, 학습하면서도 일상적으로 하였다.

이렇게 하니 비판받는 사람도 더잘 접수하고 더 빨리 자기의 결함을 고쳤을뿐만아니라 혁명대오내에 언제나 혁명적이며 동지적인 건전한 기풍이 확립될수 있었다.

비판의 습성화—그것은 동지를 제때에 위험한 구렁텅이에서 건져주며 동지호상간의 사상의지, 행동의 통일을 강화하는 중요한 무기였다.

항일유격대에서는 호상비판을 생활화하기 위하여 혁명투쟁에서 오래동안 검열되고 단련된 로대원들과 아직 투쟁경험으로나 년령상으로 어린 동무들을 잘 배합하여 방조하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항일유격대내에는 그 무엇으로도 깨뜨릴수 없는 사상의지적, 동지적 단결이 이루어졌으며 항일유격대원들은 그 통일단결된 힘으로 강대한 일제와 싸워이겼다.

항일유격대원들은 동지호상간의 비판을 언제나 대상의 특성에 맞게 하였다.

비판은 동지의 결함을 들춰내려는데 목적이 있는것이 아니라 동지를 교양하며 동지의 결함을 고쳐주자는데 목적이 있다.

아무리 좋은 비판이라 하더라도 대상에게 잘 납득되지 않는다면 그 비판은 큰 효력을 나타낼수 없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무장투쟁시기 비판은 언제나 교양이 되고 힘이 되도록 성의있게, 간곡하게 해야 한다고 가르치시면서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만약 비판을 랭철하고 엄격하게 한다고해서 대상을 료해하지도 않고 그저 소리만 높여 〈엄중하다!〉, 〈옳지 않다!〉고 이것저것 내리치기만 한다면 그 비판은 쓸모없고 무맥한것으로 될것이며 오히려 하지 않은것보다

못할것으로 볼수도 있다.

비판을 진심으로 듣게 하자면 우선 그 대상이 가지고있는 결함을 정확하게 료해해야 하며 왜 그런 결함을 낳게 하였는가, 그 원인이 어디 있는가를 파고들어가서 과학적으로 분석해보아야 한다. 그런 다음에 대상이 알아듣도록 하나하나 결함을 지적해주고 그것이 왜 나쁜가를 일깨워주고 그가 결함을 시정할수 있도록 진지하게 방조해주어야 한다.…》

항일유격대원들은 김일성동지의 가르치심과 모범에서 배우면서 호상비판을 언제나 대상의 성격에 맞게 하였다.

말이 적고 꿍한 사람은 한번 비판을 받으면 오래 가슴속에 새겨두는 성미가 있으므로 비판을 자주하지 않고 요긴한 때 한번씩 하였으며 반대로 성격이 급한 사람은 접수력이 빠른 대신에 비판받은것을 인차 잊어버리므로 자주하였다. 그리고 모든 문제를 깊이 생각하지 않기때문에 과오를 범하군 하는 사람에게는 범한 과오의 사상적근원을 깊이 반성해볼수 있는 적절한 기회를 마련해주었다.

항일유격대원들은 호상비판을 대상의 성격에 맞게 했을뿐만아니라 대상의 준비정도에 맞게 하였다.

지휘관들과 구대원들 속에서 나타나는 결함에 대해서는 제때에 엄하게, 신입대원들속에서 나타나는 결함에 대해서는 주로 일깨워주는 방법으로 비판하였다.

같은 신입대원들속에서 나타나는 결함도 준비정도에 따라 어떤 동무에게는 그 즉시에, 어떤 동무에게는 하루 이틀 지나서 찬찬히, 어떤 동무에게는 구대원들이 그전에 범했던 과오를 교훈삼아 실례를 들면서 결함의 요소를 앞질러 충고하는 등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비판했다.

신입대원들에 대한 비판에서 기본은 해설과 설복, 감화교양의 방법으로 일깨워주는것이였다.

마동희동지는 자기와 함께 당번임무를 받고 동강냉이를 갈던 한 신입대원이 몸이 고달파서 더 못 갈겠다고 하자 그날에 있은 전투와 행군으로 몹시 피로할것이라고 생각하여 선뜻 쉬라고 말하였다.

그러자 신입대원은 좋아하며 신세를 갚기 위해 좋은것을 드리겠다고 하였다.

마동희동지는 그의 이야기에서 아주 옳지 않은것을 느끼고 그 자리에서 비판하려다가 그의 피로한 얼굴을 보고 등을 떠밀어 자리에 눕게 하고는 피로를 극복하면서 밤새워 혼자 망질을 다하였다.

마동희동지는 새벽녘에야 깨여나 자기앞에 그 무엇인가 내미는 신입대원을 보고 이제는 그가 피로도 풀었으니 일깨워줄 때가 되였다고 생각하고 다음과 같이 타일러주었다.

《내가 동무의 몫까지 일한것은 피곤해하는 동무를 돕기 위해서였소. 동지애에 대해서 삯값을 물겠거든 어디 물어보오! 그래 무엇로 물겠소? 돈으로? 물건으로? 돈이나 물건으로 동지애를 살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잘못 생각했소. 그것은 동지에 대한 모욕이요.》

마동희동지의 비판은 엄격했으나 신입대원에게는 그의 말이 엄격하다기보다 깊은 사랑이 가득찬 부드러운 목소리로 들렸다.

만일 전날밤 그가 망질을 못하겠다고 했을 때, 그리고 자기몫까지 해주면 신세를 갚겠다고 했을 때 이런 비판을 했다면 그 비판은 아직 혁명조직에서 단련되지 못한 그에게 분명 반감으로밖에 접수되지 않았을것이였다.

그러나 이때에 와서는 전날밤 마동희동지의 고결한 행동이 그를 크게 감동시켰으며 바로 그것으로 하여 동지의 엄한 비판이 거침없이 그의 가슴속에 깊이 찾아들었던것이다.

이처럼 체계적인 교양을 받지 못하고 단련이 부족한 특히 어린 대원들에게는 모범을 통하여 부정을 극복하는 감화교양의 방법으로 일깨워주는것이 좋았다.

반면에 오래동안 교양도 받고 조직생활도 많이하고 수준도 높은 대원들이 과오를 범했을 때는 그 성격과 정중에 따라 그 자리에서 또는 회의를 열고 날카롭게 대중적인 사상투쟁의 방법으로 비판했다.

엄중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처벌

도 주었다.

이렇게 하는것은 과오를 범한 동무들 자신의 사상수양에 좋았을뿐만아니라 전체 성원들을 교양하고 혁명화함에 있어서도 좋았다.

항일유격대내에서 원칙적비판은 언제 어디서나 매사람에 알맞게 동지적으로 진행됨으로써 비판한것때문에 동지호상간에 서로 반목이 생기거나 질시하는 현상이 없었으며 비판받았다 하여 소심해지는 일이 결코 없었다.

항일유격대원들은 비판을 두려워한것이 아니라 비판하지 않는것을 오히려 섭섭하게 생각하였다.

2

항일유격대내에서의 자기비판의 기본원칙은 호상비판과 마찬가지로 언제 어디서나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사고하고 행동하며 혁명대오의 통일과 단결을 강화하기 위한, 그리고 자신의 사상을 일상적으로 단련하며 혁명화를 촉진하기 위한 원칙적비판이였다.

항일유격대원들은 자기의 사업과 생활에서 나타나는 결함에 대하여 동지들이 비판하기전에 스스로 검토하고 스스로 대중앞에 내놓고 비판하는것을 자기비판의 기본으로 내세웠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자기 사업의 결함를 늘 비판하는것은 마치 우리가 매일 아침 세수하는것과 같다. 우리가 매일 세수를 하지 않고 때가 낀대로 그냥 두어두면 때가 쌓이고 쌓여서 얼굴에 병이 나고 마지막에는 얼굴이 아주 못쓰게 변하고 말것이다.… 매일 아침 얼굴의 때를 씻어내듯이 우리는 자기 사업에서 결함을 항상 씻어내야 한다.》

자기비판의 습성화—이것은 자기의 사업과 생활을 스스로 매일 검토총화하는 습성을 배양함이 없이는 불가능하였다. 매개인의 사업과 생활은 집단속에서뿐만아니라 각이한 환경에서 개별적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으며 한 집단속에서 생활한다 해도 남이 어데서 무엇을 잘못했으며 무엇을 잘못 생각하고있는가를 다 알수는 없으므로 자기 잘못은 자기가 스스로 내놓고 비판해야만 동지들의 방조를 받아 자기의 결함을 제때에 고칠수 있었다.

항일유격대원들은 자기비판을 언제나 자신들의 사상을 단련하며 혁명화를 촉진하는 귀중한 사상수양의 거울로 삼고 매일 자기의 사업과 생활을 스스로 검토했으며 자기의 결함을 절대로 대중앞에 숨기지 않았다.

조선인민혁명군부대가 마당거우밀영에 도착한 날 밤, 신입대원 김동무는 보초를 서다가 졸았다.

적들이 언제 기여들지 모르는 형편에서 보초가 졸았다는것은 유격대의 규률을 위반한 행동이였다.

그는 자기가 졸게 된 원인을 처음엔 여러날 행군에서 온 피로라고 생각했으나 다음 순간 결함의 원인을 언제나 사상적근원에서 찾아야 한다고 하신 사령관동지의 말씀에 비추어 곰곰히 검토해보니 그렇게 단순히 볼수 없었다. 중요한 원인은 사상적인 해이성이였으며 사령관동지께서 주신 혁명임무에 대한 불충실성이였다.

김동무는 자기의 과오를 이렇게 규명하면서 자기의 규률위반이 얼마나 엄중한가를 느꼈다.

한편 그의 머리속에는 자기가 보초서는 동안 사고가 없었고 또 졸고있는것을 본 사람도 없는데 공연히 말해서 비판받고 처벌받을 필요가 있겠는가, 앞으로 졸지 않으면 될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다.

하지만 그는 총을 메고 혁명을 하겠다고 나선 사람이 어찌 자기의 량심을 속일수 있겠는가 하고 자책하였다.

김동무는 보초를 교대한 즉시로 자기가 보초소에서 졸았다는것을 분대장에게 보고하고 자기 잘못을 솔직히 비판했다.

다음날 아침 사령관동지께서 김동무를 찾으셨다.

그이께서는 언제나 다름없이 너그러운 웃음을 지으시며 그를 반갑게 맞아주시였다.

김동무는 얼굴을 들수 없었다.

《사령관동지! 저는 지난밤 보초소에

서 무정각하게 좋았습니다. 이것은…》 하고 김동무는 자기가 범한 과오의 원인을 그이께 말씀올렸다.

김일성동지께서는 김동무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추궁보다 오히려 그의 비판의 성실성에 대하여 높이 평가하여주시였다.

《…자기 결함이 무엇인가를 자신이 찾고 깊이 뉘우치는것은 아주 좋은 일이다. 동무 한사람을 믿고 수많은 혁명전우들이 전투의 피로를 풀고있다는것을 를게 생각하면 다시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다.

우리의 혁명과업이 얼마나 중요하며 우리의 전우들이 얼마나 귀중한가를 생각하며 싸울 때는 어떤 어려움도 달게 여겨지고 어떤 장벽이라도 뚫고나갈 강의한 의지와 난관앞에서 굴하지 않는 인내력이 생긴다.…》

김일성동지의 말씀 한마디한마디에는 잘못을 저지른 자식을 타이르시는 친어버이의 정이 깃들어있어 김동무로 하여금 자기 잘못을 더 깊이 뉘우치게 하였다. 그리고 자기 결함을 제때에 내놓고 비판하는것이 얼마나 귀중한가를 더욱 깊이 느끼게 하였다.

사령관동지께서는 김동무를 보낸 다음 분대장동무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였다:

《…자기 잘못을 스스로 내놓고 뉘우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더 따뜻이, 더 친절히 도와주어야 한다. 그리고 새로 입대한 동무나, 어린 동무나, 로대원이나 다같이 대해서는 안된다. 교양을 주고 방조를 주고 단련정도에 따라 임무는 어떻게 주면서 살펴주어야 한다.…》

항일유격대원들은 김일성동지의 가르치심을 따라 언제나 자기를 스스로 진심으로 뉘우치는 동무들에 대하여 더 따뜻이 대해주고 더 친절히 도와주었다.

이렇게 하는것은 결함을 더 빨리 고칠수 있게 했을뿐만아니라 자기비판의 분위기를 높임에 있어서도 아주 좋았다.

항일유격대내에서는 지휘관들이 언제나 자기비판의 앞장에 섰다.

아래사람들은 언제나 웃사람들을 따라배우는만큼 하부교양에서 가장 위력한 방법은 지휘관들이 일상생활에서 모범을 보이는것이였다.

그러므로 항일유격대내에서는 지휘관들이 초급지휘관보다 먼저, 초급지휘관들이 구대원보다 먼저, 구대원들이 신대원들보다 먼저 자기비판하는 기풍을 세웠다. 자기비판의 내용에 있어서도 지휘관들은 누구보다 더 솔직히, 더 랭철하게, 더 진지하게, 심도있게 하였다.

1936년 추운 겨울 참모장 허형식동지는 지휘관들도 대원들과 똑같이 보초근무를 설것을 지시하고 자신도 솔선 나섰다.

그런데 하루는 허형식동지가 문전초근무를 서다가 교대시간을 좀 넘기였다. 당시 부대에서는 향대에 불을 붙여놓고 그것이 다 타면 보초근무를 교대하군 하였는데 미처 거기에 주의를 돌리지 못했던것이다.

그는 이 사실을 놓고 엄중한 규률위반으로 대원들앞에서 자기비판을 하고 이튿날 다시 처벌근무를 섰다.

대원들은 참모장동지가 추운날에 처벌근무까지 서는것을 그냥 보고있을수 없었다. 그래서 한 대원이 슬그머니 불타는 향대밑을 절반이나 꺾어버렸다.

이 사실을 허형식동지가 알고 그 대원에게 어째서 그 향대를 꺾었느냐고 물으니 그는 참모장동지가 처벌근무까지 서지 않아도 능히 결함을 고칠수 있다고 생각되여 꺾었다고 대답하였다.

대원의 말을 듣고나서 허형식동지는 《혁명대오내에는 두가지 규률이 있을수 없소, 이것은 사령관동지의 말씀이요.》라고 하면서 참모장도 대원도 다같이 유일한 혁명적원칙과 규률에 근거하여 행동해야 하며 이와 어긋났을 때에는 누구나 다 유일한 규률에 따라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엄격히 말했다.

자기비판에서 지휘관들과 구대원들이 앞장에 서며 적은것이라 해도 언제나 이처럼 랭철히 비판하는 기풍은 결함을 객관에서보다 자기자신의 사업에서 먼저 찾는 좋은 방법이였을뿐만아니라 비판의 분위기를 높이면서 우가 아래를 도와주며 원칙적으로 교양하는 하나의 중요한 방침이였다.

항일유격대원들은 자기비판을 한 다음에는 자기의 결의를 그대로 실천에 옮겼다.

항일유격대원들은 한순간을 모면하기 위하여 참회식으로 자기비판을 하거나 말로만 하는 일이 절대로 없었다.

말로만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실천활동에서는 자기 결함을 고치지 않는 그런 자기비판은 본인자신의 결함을 고치지 못하게 할뿐만아니라 동지호상간의 사상의지적단결을 약화시키고 혁명에 지장을 준다는것을 실생활은 보여주었다.

그러므로 항일유격대원들은 언제나 자기비판을 진심으로 했으며 실천활동을 통하여 자신이 검열하고 또 대중들로부터 검열받았다.

자기비판에서의 말과 행동의 일치—그것은 항일유격대원들의 사업과 생활에서 가장 고귀한 품성의 하나였다.

항일유격대원들은 자기비판에서 일단 고치겠다고 결의한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끝까지 고치는 기풍을 세웠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항일유격대원들은 같은 과오와 결함을 반복하지 않았으며 같은 내용의 자기비판을 계속 되풀이하지 않았다.

그들은 같은 결함을 반복하며 같은 내용의 자기비판을 하는것을 아주 커다란 수치로 생각하였다.

항일유격대원들은 자기비판을 한 다음에는 언제나 자기의 결의를 실천에 옮김으로써 자신의 혁명화를 더욱 촉진하였으며 혁명대오내에 언제나 건전한 기풍을 확립하였다.

3

항일유격대내에서는 비판한 다음에 서로 도와주며 동지의 결함을 끝까지 고쳐주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무장투쟁시기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진정으로 동지적인 비판은 엄격히 비판하는것으로 그쳐서는 안된다. 비판한 다음에 그에게 알맞는 분공을 주고 그 실행정형을 알아보고 도와주어 동지의 결함을 끝까지 고쳐주어야 한다. 결함을 고쳐주지 않고서는 누구도 견실한 비판을 했다고 말할수 없다.…》

그이께서는 이처럼 가르치시였을뿐아니라 항상 자신의 산모범으로 대원들을 교양하시였다.

1936년 겨울 적들의 포위를 뚫으며 낮에 밤을 이어 행군할 때였다.

리동무가 밤에 행군하면서 담배를 몰래 피운 사실을 사령관동지께서 아시고 다음날 아침 그를 부르시였다.

밤에는 불빛이 멀리서도 보이므로 유격대내에서는 누구든지 밤에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되여있었다.

리동무는 사령관동지앞에 가서 전날밤 자기가 잘못한것을 비판하고 앞으로 담배를 끊을 결심을 말씀올렸다.

김일성동지께서는 그의 이야기를 잠잠이 들으시고 대담하게 담배를 끊을 자신이 있는가고 물으시였다.

리동무는 자신이 있다고 말씀올렸다.

그러자 김일성동지께서는 《좋소! 동무의 결심을 믿소.》라고 하시면서 그에게 하나의 중요한 과업을 주겠다고 말씀하시였다.

순간 리동무는 무슨 전투과업인줄 알고 그 전투임무를 훌륭히 수행함으로써 자기의 과오를 씻으리라 생각했다.

그런데 뜻밖에도 그이께서는 전투과업이 아니라 《금연단 단장》의 과업을 주시였다.

그는 그날로 담배쌈지를 치웠다.

그러나 얼마 안가서 담배생각이 저도 모르게 나서 호주머니에 손이 들어갈 때가 많았다. 《금연단 단장》의 과업을 받지 않았다면 벌써 맹세를 저버렸을것이라고 자책도 하면서 참고이겨나갔다.

하루는 그가 정말 이 과업을 끝까지 실행할수 있겠는가를 생각하고있었는데 김일성동지께서 부르시였다.

그이께서는 그 동안의 사업정형을 알아보시고 그에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해주겠다고 하시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말씀을 하시였다:

《…유격대에 담배를 지독하게 피우는 나이많은 한 지휘관이 있었다. 하루는 담배를 피우며 글을 쓰는데 나어린 한 대원이 들어와서 자기들이 금연단을 조직했다고 보고했다. 지휘관은 만족하여 앞으로 금연단활동을 강화하라고 하였다. 그러자 그 대원은 부대내 많은 사람들이 금연단에 들었는데 지휘관동지도 들지 않겠는가고 물었다. 지휘관은 동의할수밖에 없었다.

말이 쉽지 몇십년 인이 박힌 담배를 끊는게 쉬웠겠는가.

하지만 그는 일단 약속한 일인만큼 그후에 다시 담배를 피우지 않았다. 혁명하는 사람에게는 바로 이런 굳센 의지가 있어야 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그후에도 자주 리 동무를 찾아서 사업정형을 알아보시고 맡은 분공을 원만히 실행하도록 친히 도와주셨다.

김일성동지께서 보여주신 이런 이신작칙의 기풍은 비판에서 형식주의를 없애고 비판을 실속있게 하는 좋은 방법이였을뿐만아니라 비판받은 사람들이 위축됨이 없이 부대생활에 적극 참가하여 자기 결함을 빨리 고칠수 있게 하는 훌륭한 방도였다.

항일유격대원들은 사령관동지의 모범을 따라 과오를 범한 사람들에 대하여 비판한 다음에는 언제나 그들에게 알맞는 분공을 주고 그들의 사업을 일상적으로 도와주었다.

분공은 매사람의 성격과 특징, 능력과 소질 그리고 그가 범한 과오의 성질에 따라 알맞게 주었다.

례하면 혁명성은 강한데 정치리론수준이 약해서 사업과 생활에서 결함을 나타내는 사람에게는 학습분공을, 정치리론수준은 높은데 어려운 시련속에서 단련되지 못해서 결함이 있는 사람에게는 혁명적단련을 할수 있는 분공을, 일단 적과의 싸움에 들어서면 용맹을 떨치는데 보통 때에는 부대생활에 주인답지 못한 사람에게는 부대관리와 관련한 사업분공을, 그리고 군중과의 사업에서 깊은 연구가 없었기때문에 과오를 범한 사람에게는 《군중정치사업을 어떻게 할것인가?》 하는 문제를 연구시켜 대중앞에서 강의하게 하는 등 알맞는 분공을 주고 도와주었다.

이렇게 하니 항일유격대원들은 누구나 할것없이 사업과 생활에서 나타난 결함들을 활기를 띠고 제때에 고쳤다.

항일유격대내에서는 비판받은 동지들의 마음을 제때에 풀어주었다.

비판한 다음에 제때에 풀어주는것은 나이 어리고 단련이 부족한 동무들을 교양하며 그들의 결함을 끝까지 고쳐주는데 특히 좋았다.

비판받을 당시에 잘 접수되지 않던 문제들도 비판받은 다음 동지들의 뜨거운 마음을 몸가까이 느끼면 느낄수록 자기의 잘못을 더 크게 깨달을수 있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무장투쟁시기 비판할 때는 원칙적으로 아주 엄격하게 하고 비판한 다음에는 비판받은 동지들을 더 따뜻이 대해주어야 한다고 가르치시면서 일상생활에서 모범을 보여주시였다.

항일유격대원들은 언제나 김일성동지의 모범을 따라 동지들을 비판할 때에는 엄격히 비판하고 그런 다음에는 정말 결함을 고칠수 있도록 따뜻이 대해주고 마음을 풀어주고 각방면으로 도와주었다.

이렇게 하니 비판받은 동무들은 동지적의리를 생각해서도 자기의 결함을 빨리 고치지 않을수 없었다.

항일유격대원들은 동지들의 비판을 허심히 접수하고 자기의 결함을 혁명적으로 고치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비판을 받은 동무들은 좀 아파도 그것을 사상적으로 허심히 접수해야 하며 자기의 결함을 고치기 위하여 용기를 내야 한다. 비판을 받았다 하여 락심하거나 복수할 생각을 가져서는 절대로 안된다. 비판을 받은 동무들은 자기 과오의 근원을 심각히 검토하고 그것을 시정하기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여야 한다.…》

비판받은 사람에게 있어서는 동지들의 비판내용이 사실과 꼭 맞는가, 맞지 않는가 하는 개별적사실보다도 동지들의 비판속에 들어있는 기본사상이 더 중요한것이다.

그러므로 항일유격대원들은 동지들의 비판에서 간혹 부정확한것이 있다 하더라도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해당되면 그것을 허심하게 접수하고 고치였다.

1937년 가을 조선인민혁명군사령부 후방부 책임자였던 김주현동지는 국내공작에서 범한 과오로 하여 강한 비판을 받고 당분간 작식대사업을 맡아한 일이 있었다.

그는 작식대일을 하면서도 언제나 사령관동지께서 주신 비판을 사상적으로 깊이 접수하고 자기의 결함을 고치기

위해서 우선 맡은 혁명임무수행에 충실하였다.

그는 밥가마와 작식도구들을 걸머지고 대렬뒤를 따르다가 숙영명령만 내리면 어느 사이에 팔을 걷고 작식준비를 하여 더운 밥과 더운 국을 제때에 대원들에게 공급하군했다.

그는 이런 행정에서 자기의 과오가 단순한 실수에 기인한것이 아니라 언제나 사령관동지의 혁명사상과 의도대로 숨쉬고 행동하지 못한데서 범한 사상적과오라는것을 깊이 뉘우치며 자기의 결함을 이악하게 고치였다.

그러므로 혁명동지들은 그를 더욱 사랑하고 존경하였다.

사령관동지께서는 무거운 짐을 지고 다니는 김주현동지를 보고 작식도구만해도 무겁겠는데 천막까지 지고다닌다고 걱정하시면서 다른 대원들과 나누어지라고 자주 말씀하시였다. 그리고 대렬 맨뒤에서 걷는 그가 적들에게 제일먼저 발견될수 있다고 하시면서 가마를 진 그의 등에 손수 나무를 꺾어 위장도 해주시였다.

그러시면서 그이께서는 김주현동지가 범한 과오의 근본이 무엇이며 다시는 그런 과오를 범하지 않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시군하시였다.

김주현동지는 사령관동지의 극진한 보살핌과 혁명동지들의 따뜻한 방조에서 더 기운을 얻고 언제나 자기의 맡은 임무를 혁명적으로 수행하였다. 그리고 그 수행과정을 통하여 자기의 결함을 고치고 다시 지휘관으로 등용되였다.

비판한 동무들은 비판받은 동무들을 끝까지 도와주고 비판받은 동무들은 동지들의 비판을 허심히 접수하고 혁명적으로 고치는것—이것은 항일유격대내에 수립된 하나의 혁명적원칙이였으며 혁명적의리였다.

*　　　　　*

현시기 비판의 무기를 들고 사상투쟁을 강화하는것은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더욱 철저히 세우고 사회의 모든 성원들의 혁명화를 촉진하며 혁명대오의 정치사상적통일을 강화함에 있어서, 그리고 당과 수령께서 제시하신 혁명과업을 원만히 수행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우리는 항일유격대원들의 모범을 따라 온갖 부정적현상들을 반대하는 사상투쟁을 원칙적으로, 일상적으로 강력히 전개함으로써 어떤 역경속에서도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외에는 그 어떤 사상도 모르는 우리 당의 유일사상으로, 그 어떤 풍파속에서도 꺾이면 꺾일지언정 굽히지 않는 백절불굴의 혁명정신으로 무장하며 그 어떤 고난속에서도 당의 리익과 배치되는 부정적현상들을 제때에 분쇄하고 당의 로선과 정책을 끝까지 관철해나가는 당의 붉은 전사로, 혁명가로 되여야 한다.

이렇게 할 때 혁명대오의 정치사상적통일을 강화하고 우리의 혁명과 건설을 더욱 촉진할수 있으며 조국통일의 대사변을 주동적으로 앞당길수 있다.

우리 당 군사로선의 정당성

우리 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력사적인 우리 당대표자회보고에서와 공화국정부의 위대한 10대정강에서 조성된 정세에 대처하여 우리의 혁명기지를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철옹성같이 꾸리며 나라의 방위력을 더욱 강화할데 대한 전투적과업을 제시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혁명의 임무와 현국제국내정세에 대한 과학적이고 심오한 분석에 기초하여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킬테 대한 전략적인 로선을 제시하시고 전군간부화와 전군현대화, 전민무장화와 전국요새화를 기본내용으로 하는 군사로선을 관철하며 전국가적, 전인민적 방위체계를 갖출데 대한 명확한 방향과 방도들을 가르쳐주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의 방위력을 강화하기 위하여서는 군대와 인민을 정치사상적으로 무장시키는 기초우에서 우리 당의 군사로선을 관철하여야 합니다. 우리 당은 군대의 간부화, 군대의 현대화, 전체 인민의 무장화, 전국의 요새화를 군사로선의 기본내용으로 규정하고 그것을 실생활에 구현하기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여왔으며 여기에서 이미 커다란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당의 군사로선을 계속 견지하며 그것을 철저히 관철하여야 하겠습니다.》(《현정세와 우리 당의 과업》, 59페지)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킬테 대한 전략적방침과 우리 당의 군사로선은 프로레타리아독재의 력사적임무와 제국주의를 반대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할데 대한 맑스—레닌주의리론을 새로운 력사적현실에 맞게 창조적으로 발전시킨것이며 제국주의가 남아있는 조건에서 혁명에서 승리한 로동계급이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어떻게 건설해야 하며 제국주의의 침략과 있을수 있는 전쟁에 대처하여 혁명적무장력과 나라의 방위력을 어떻게 건설해야 하는가에 대한 과학적인 해답을 주고있다.

주권을 잡은 로동계급과 맑스—레닌주의당이 제국주의가 남아있는 조건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성과적으로 건설하며 자기의 혁명위업을 끝까지 실현하기 위해서는 특히 혁명무력을 백방으로 강화하며 나라의 방위력을 튼튼히 다져야 한다.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우리 당의 군사로선은 주권을 잡은 로동계급과 맑스—레닌주의당앞에 나서는 이 중대한 임무를 훌륭히 실현할수 있게 하는 철두철미 반제적이며 자위적인 혁명적군사로선이다. 여기에는 우리 당의 철저한 맑스—레닌주의적립장, 자주적이며 반제적인 견결한 혁명적립장과 자신의 민족적 및 국제적 임무에 대한 높은 책임감과 충실성이 집중적으로 표현되여있다.

우리 당의 자위적인 혁명적군사로선은 맑스—레닌주의의 혁명적원칙에 튼튼히 서서 조선혁명을 조선인민자신이 책임지고 자체의 힘으로 끝까지 수행하려는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주체사상의 구현이다.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 주체사상의 구현인 우리 당의 자위적군사로선은 우리 혁명실천에서 이미 그 정당성을 전면적으로 실증하였으며 미제국

주의자들의 침략과 전쟁 책동이 로골화되고있는 오늘 불패의 생활력을 더욱 훌륭히 발휘하고있다.

우리 인민은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자위적군사로선을 확고히 견지하고 더욱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미제와 그 주구들의 그 어떤 도발책동도 단매에 때려부시고 우리 혁명의 전취물을 굳건히 지킬것이며 나아가서 조국통일과 조선혁명의 전국적승리를 달성하고야 말것이다.

* *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전군간부화, 전군현대화, 전민무장화, 전국요새화를 기본내용으로 하는 우리 당의 군사로선은 현력사적조건에서 혁명무력건설과 사회주의나라들의 국방건설문제를 가장 정확하게 실현할수 있게 하는 독창적인 새로운 맑스—레닌주의적군사로선이며 우리 나라의 실정에 완전히 부합되는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군사로선이다.

전군간부화, 전군현대화는 우리 당의 군사로선의 기본적인 구성부분을 이룬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인민군대를 간부화하고 현대화하는것은 우리의 군대를 불패의 무력으로 강화하는 중요한 담보로 됩니다.》(《현정세와 우리 당의 과업》, 59페지)

전군간부화와 전군현대화는 우리의 혁명무력을 현대전의 요구에 상응하게 질적으로 강화하고 그 전투력을 비상히 제고하는 기본방침으로 된다.

전군간부화방침은 인민군대대렬을 정치사상적으로, 군사기술적으로 단련하여 모든 군인들이 자기에게 부과된 직책상임무를 원만히 수행케 할뿐아니라 일단 유사시에는 전사로부터 장령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 한등급이상의 높은 직무를 담당수행할수 있게 한다.

이 방침의 위력은 그것이 인민군대의 전투력을 전반적으로 비상히 높이는 동시에 수많은 군사간부들을 길러냄으로써 필요할 때에는 우리의 무력을 급속히 확대할수 있게 한다는데 있다.

전군현대화방침은 우리 인민군대를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군사과학과 군사기술로 튼튼히 무장시킴으로써 인민군대로 하여금 현대전의 그 어떤 작전과 요구에도 대처할수 있게 한다. 그것은 발톱까지 무장한 원쑤들을 결정적으로 제압하고 놈들의 침략을 성과적으로 격파분쇄할수 있게 하는 믿음직한 담보이다.

오늘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시는 어떠한 혁명임무나 전투과제도 훌륭히 수행할수 있도록 정치사상적으로, 군사기술적으로 튼튼히 준비된 우리 인민군대의 일당백의 전투적위력과 그의 부단한 장성강화는 우리 당의 전군간부화, 전군현대화 방침의 정당성과 그 불패의 힘에 대한 뚜렷한 증시로 된다.

전군간부화, 전군현대화와 함께 전민무장화와 전국의 요새화는 우리 당 군사로선의 중요한 내용으로 된다. 전민무장화와 전국요새화는 전체 인민을 무장시키고 전국을 하나의 난공불락의 군사요새로 전변시키는 위력한 방침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전민무장화와 전국의 요새화는 적들의 어떠한 침공도 막아낼수 있는 군사전략상 가장 위력한 방위체계입니다.》(우와 같은 책, 61페지)

전민무장화, 전국요새화는 바로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전체 인민을 무장시키고 전연과 후방을 막론하고 전국을 하나의 난공불락의 요새로 전변시킴으로써 원쑤들이 우리 나라의 어느곳에 언제 어떤 형태로 침입하여도 적들을 철저히 격멸소탕할수 있게 한다.

우리는 전민무장화, 전국요새화를 다같이 실현함으로써만 일당백으로 무장한 우리 인민군대와 함께 전체 인민이 요새화된 공고한 진지에 의거하여 사회주의조국을 믿음직하게 보위하면서 침략자들에게 더욱 강력한 타격을 가하며

그들을 완전히 소탕할수 있는 위력한 방위태세를 갖출수 있는것이다.

전군간부화와 전군현대화, 전민무장화와 전국요새화 방침을 기본내용으로 하는 우리 당의 군사로선은 조선혁명의 종국적승리를 확고히 담보하며 나아가서 국제혁명운동에 성과적으로 기여할수 있는 가장 정당한 로선이다.

우리 당의 자위적군사로선에는 어디까지나 우리자체의 힘으로 사회주의조국과 인민의 안전을 보위하며 조국통일과 혁명의 전국적승리를 달성하려는 우리 당의 혁명적립장이 뚜렷이 반영되여 있다.

주권을 잡은 로동계급과 공산주의자들은 자기 힘으로 자기 나라에서의 혁명과 건설을 수행할뿐아니라 혁명의 전취물을 보위할 임무를 지니고있다. 우리는 지구상에 제국주의가 남아있는한 사회주의전취물을 수호하며 혁명과 건설을 계속 성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반드시 주체적인 정치경제적력량과 함께 자위적인 방위력을 강화하여야 한다.

주체적력량을 준비함이 없이 혁명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없으며 자체의 방위력을 강화하지 않고는 원쑤들의 침해로부터 사회주의조국을 튼튼히 보위할수 없다.

물론 혁명투쟁에서 국제적인 지지와 원조도 필요하다. 그것은 매개 나라에서의 혁명의 승리를 위한 요인의 하나이다. 사회주의나라들이 힘을 합쳐 공동으로 투쟁한다면 그것은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으로부터 매개 나라를 보위하는데 커다란 도움으로 된다. 그러나 조국보위의 결정적요인은 그 나라의 주체적힘이며 따라서 자체의 힘으로 자기 나라를 보위하는것이 기본원칙으로 되여야 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제국주의반룡을 반대하는 투쟁에서 승리의 결정적요인은 그 나라 내부력량입니다. 외래침략자들과의 전쟁에서 외부의 지원도 필요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보조적역할을 하는데 지나지 않습니다. 매개 나라의 주체적력량이 준비되여있지 않은 조건에서는 외부의 지원이 아무리 커도 혁명투쟁은 승리할수 없습니다. 만일 공산주의자들이 자체의 혁명력량을 준비하지 않고 외부로부터의 지원과 원조만 바라고있다면 조국의 안전과 혁명의 전취물을 제국주의침략으로부터 믿음직하게 지켜낼수 없습니다.》(《국가활동의 모든 분야에서 자주, 자립, 자위의 혁명정신을 더욱 철저히 구현하자》, 17페지)

력사적경험이 보여주는바와 같이 개별적인 사회주의나라들의 국제적지원이 다른 사회주의나라들에 도움을 줄수는 있으나 이 나라들의 방위력을 대신할수 없다.

오직 사회주의나라들이 국방에서 자위의 원칙을 견지하고 자체의 방위력을 강화하여야 자기 조국을 자기 힘으로 튼튼히 보위할수 있으며 또한 사회주의나라들의 안전을 보위하며 민족해방운동과 전반적세계혁명발전에도 거대한 기여를 할수 있다.

우리 당의 군사로선은 우리 나라에 수립된 선진적인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에 확고히 기초한 가장 정당한 로선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당대표자회보고에서 전민무장화와 전국의 요새화를 실현할 불패의 자위적방위체계를 확립할데 대하여 강조하시면서 **《이러한 방위체계는 우리의 사회주의제도하에서 인민의 정치사상적통일과 나라의 튼튼한 경제토대에 기초해서만 수립할수 있습니다.》**(《현정세와 우리 당의 과업》, 61페지)라고 교시하시였다.

인간에 의한 인간의 착취와 압박이 지배하고 주권이 소수착취계급에게 장악된 자본주의제도하에서는 전체 인민의 무장화란 실현될수 없다. 계급사회에서 인민대중의 수중에 무기가 들어갈 때에는 그것이 바로 착취계급들을 멸망케 하는 강력한 힘으로 되기때문에 착취계급은 인민대중을 무장시킬수 없으며 도리여 인민대중이 무장하는것을 무엇보다 두려워한다.

전민무장화는 오직 로동계급과 협동농민, 근로인테리들의 단결과 협조가

사회관계의 기본을 이루는 사회주의제도하에서만 실현될수 있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하에서는 로동계급과 협동농민, 근로인테리들이 사회경제적처지의 공통성, 목적과 리해관계의 공통성으로 하여 동지적으로 결합되고 서로 긴밀히 협조하며 수령의 주위에 굳게 뭉쳐 다같이 공산주의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투쟁하고있다. 수령의 주위에 하나의 사상의지로 굳게 뭉친 우리 인민의 정치사상적통일은 우리 사회발전의 기본동력일뿐만아니라 국방건설을 촉진하며 사회주의조국을 보위하는데서도 결정적요인으로 된다.

오늘 인민군대와 전체 인민은 우리 당의 유일사상으로 확고히 무장하고 어떠한 환경에서도 김일성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목숨으로 보위하며 일편단심 수령을 따르며 그이의 명령, 지시라면 물불을 헤아리지 않고 끝까지 관철하려는 굳은 혁명적의지와 확고한 신념에 충만되여있다.

또한 우리 사회에서 국방사업은 우리 인민이 쟁취한 사회주의전취물과 우리의 혁명기지를 보위하는 사업으로서 전체 인민의 가장 신성한 의무로, 가장 영예로운 과업으로 되고있다.

전민무장화는 바로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이러한 우월성에 확고히 기초한것이며 인민대중의 무궁무진한 힘을 믿고 그에 의거하여 모든 문제를 훌륭히 풀어나가는 우리 당의 전통적인 혁명적군중로선을 국방분야에서 철저히 관철하는것으로 된다.

우리 당의 군사로선은 또한 우리의 강력한 자립적민족경제의 튼튼한 토대에 의거하고있다.

나라의 방위력은 사람들의 정치사상적준비상태, 군사적요인과 함께 나라의 경제력, 후방의 공고성에 크게 의존한다.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지난 기간 우리 인민이 악전고투하여 축성하여놓은 우리 나라의 튼튼한 자립적민족경제는 원쑤들의 어떤 불의의 침공에도 그리고 장기전의 제조건에서도 대처할수 있는 중요한 힘의 원천으로 되며 우리의 불패의 자위적방위력을 보장하는 물질기술적토대로, 방대한 국방건설의 경제적담보로 된다.

바로 우리는 자체의 강력한 경제력으로 하여 인민경제의 급속한 발전과 인민생활의 부단한 향상을 보장하면서 나라의 방대한 국방상 수요를 자체로 충족시킬수 있으며 인민군대의 무장장비를 부단히 개선하며 전체 인민을 무장시키고 전국을 요새화하는 과업도 성과있게 해결해나가고있다.

우리 당의 군사로선의 정당성과 그 위력은 또한 현대전쟁의 요구를 정확히 반영하고있는데 있다.

현대전은 그 전투행동이 거대한 규모로 전개될뿐만아니라 장기성, 립체성을 띠게 된다.

최신과학기술이 도입되는 현대전은 전투가 지상에서만 진행되는것이 아니라 공중과 해상에서도 벌어지며 또한 일정한 전선의 지역에서만 진행되는것이 아니라 종심깊이 후방에서도 진행된다. 현대전은 전선과 후방이 따로 없으며 전선과 후방을 하나의 전투마당으로 만든다.

현대전에서 결정적승리를 달성하기 위하여서는 상비군을 강화하는 동시에 전체 인민을 무장시켜 그들로 하여금 원쑤를 쳐부시기 위한 투쟁에 의식적으로, 적극적으로 참가하도록 하여야 한다.

사회주의전취물을 믿음직하게 수호하며 원쑤들을 도처에서 성과적으로 때려부시기 위해서는 또한 온나라를 튼튼한 요새로 전변시켜야 한다. 특히 3면이 바다로 되여있는 우리 나라 실정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전국의 요새화를 실현함으로써만 무장한 인민군대와 전체 인민이 요새화된 공고한 진지에 의거하여 자기를 믿음직하게 보위하면서 침략자들에게 더욱 강력한 타격을 가하며 그들을 완전히 소멸할수 있는 위력한 방위체계를 갖출수

있는것이다.

우리 당 군사로선의 기본내용을 이루는 전군간부화와 전군현대화, 전민무장화와 전국요새화는 밀접히 통일되여 우리의 강유력한 군사력을 이루며 인민군대를 핵심으로 하는 전국가적, 전인민적 방위체계를 튼튼히 세우기 위한 중요한 담보로 된다.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 군사사상의 구현인 우리 당의 자위적군사로선은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수행과 우리 혁명발전의 절실한 요구를 전면적으로 반영한 가장 정당한 군사로선이며 사회주의나라의 방위력강화의 원칙들과 현대전의 요구에 완전히 부합되는 독창적인 혁명적군사로선이다.

그것은 미제와 그 주구들의 도발책동을 일격에 분쇄하고 조국통일과 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주동적으로 앞당기기 위한 투쟁에서 우리 인민에게 필승의 신념을 안겨주는 위력한 무기로 되며 군사분야에서 맑스—레닌주의혁명적원칙을 고수하고 더욱 발전시킨 탁월한 군사로선이다.

우리 당의 군사로선은 우리 혁명의 실천에서 위대한 생활력을 발휘하고있으며 그 정당성은 이미 생활을 통하여 남김없이 확증되였다.

우리 당의 군사로선이 혁명실천에서 위대한 생활력을 발휘하게 되는것은 무엇보다도 그것이 깊고 억센 뿌리를 가지고있기때문이다. 우리 당의 군사로선은 항일무장투쟁행정에서 이룩된 영광스러운 혁명무력건설전통의 빛나는 구현이며 그를 계승발전시킨것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간고하고 장구한 항일무장투쟁 행정에서 우리 인민의 혁명적무력건설의 튼튼한 기초를 쌓아올리시였다.

일제식민지통치의 파쑈적폭압이 절정에 달하였던 시기에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시고 우리 혁명의 진두에 나서신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선혁명의 승리를 위한 정확한 혁명로선과 전략전술적방침을 제시하시고 항일무장투쟁을 중심으로 한 전반적조선혁명을 빛나는 승리에로 이끄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선혁명은 조선인민자신이 책임지고 수행해야 한다는 확고한 주체적립장과 자력갱생의 혁명적원칙에서 일제의 반혁명무력에 대항하는 상비적무장력인 항일유격대를 창건하시였다. 항일유격대는 선진적인 로동자, 농민, 애국청년들로써 조직된 우리 나라에서의 첫 맑스—레닌주의혁명군대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위대한 주체사상과 탁월한 군사예술로 항일유격대원들을 부단히 교양하여 그들을 유능한 군사정치간부로 육성하시였으며 항일유격대대오를 끊임없이 확대하고 무장력을 더욱 더 강화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또한 유격전쟁의 거점으로서의 유격근거지를 창설하고 요새화하는 방침, 적위대, 반일자위대, 돌격대 등 각종 형태의 반(半)군사조직들을 통하여 근거지인민들을 무장시키는 독창적인 방침을 제시하시고 그것을 빛나게 실현하심으로써 유격대를 핵심으로한 공고한 근거지방위체계를 확립하시였다.

항일유격대원들과 혁명적인민들은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령도를 높이 받들고 그이의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였으며 어떤 역경속에서도 수령을 목숨으로 보위하고 수령의 명령과 지시를 끝까지 관철하여 혁명의 위대한 승리를 이룩하였다.

오직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며 천재적인 군사전략가이신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와 그이께서 제시하신 탁월한 혁명로선과 전략전술적방침이 있었기에 항일유격대는 그처럼 간고한 환경에서도 부단히 확대강화될수 있었으며 매전투마다에서 항상 주도권을 틀어쥐고 일제의 100만 대군을 짓부시고 조국

광복의 위업을 성취할수 있었다.

김일성동지께서 항일무장투쟁행정에서 이룩하신 빛나는 혁명전통은 해방후 우리의 혁명무력건설과 나라의 국방력강화를 위한 고귀한 밑천으로 되였다.

해방후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당은 항일투사들을 골간으로 하여 인민군대를 창건하고 군수공업을 창설발전시켰으며 나라의 방위력을 백방으로 강화하는 사업을 진행하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전국가적, 전인민적 방위체계를 확립할데 대한 일관한 구상을 철저히 실현하기 위하여 해방후 우리 혁명의 매단계에서 혁명적무력건설과 나라의 국방력강화에 커다란 력량을 돌려주시였다. 그이께서는 전쟁전 평화적건설시기와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시기, 전후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시기에 우리 인민군대를 강화발전시키는데 가장 커다란 배려를 베풀어주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무장투쟁행정에서 육성하신 수많은 간부들을 인민군대에 파견하시고 인민군대의 군사정치간부들을 길러내며 전체 인민군 군인들을 정치사상적으로, 군사기술적으로 튼튼히 준비시키는데 일관하여 세심한 지도를 주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특히 1954년 12월 조선인민군 군정간부회의에서 당의 전군간부화방침을 더욱 심오히 천명하시고 전체 군인들을 한등급이상의 높은 직무를 담당수행할수 있도록 튼튼히 준비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취하시였다.

수령의 육친적인 지도와 교육교양에 의하여 위대한 조국해방전쟁과 전후 혁명투쟁의 불길속에서 우리 인민군대는 당의 유일사상체계가 꽉 들어차고 현대적군사과학과 기술을 소유한 일당백의 불패의 혁명군대로 자라났으며 수많은 혁명적골간으로 튼튼히 꾸려진 혁명가의 대부대로 자라났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무장투쟁의 혁명전통을 발전시키시여 우리 인민군대의 대오를 확대발전시키는 한편 인민군대를 현대적무기와 전투기술기재로 튼튼히 무장시키기 위하여 백방으로 심려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우리자체의 군수공업을 창설하고 현대적군사과학과 기술을 부단히 발전시키며 우리 나라 실정에 맞는 군사장비를 발전시키기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주시였다. 그이께서는 특히 전후시기 자립적민족경제토대의 튼튼한 확립과 군수공업의 급속한 발전에 기초하여 우리의 인민군대를 현대화하기 위한 사업을 강력히 추진시키시였다.

수령의 극진한 배려에 의하여 오늘 우리는 현대전쟁에 필요한 신형무기들을 자체로 생산하며 우리의 무장장비를 부단히 개선강화하고있으며 아무리 전쟁이 장기화되여도 소모되는 무기를 계속 보충강화하며 기동력과 타격력을 더욱 증대시킬수 있게 되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전군간부화, 전군현대화와 함께 전민무장화, 전국요새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일관하게 커다란 힘을 돌려주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해방후 즉시 인민군대를 창건하고 강화발전시키셨을뿐아니라 항일무장투쟁시기 각종 반(半)군사적 조직을 통하여 근거지인민들을 전반적으로 무장시키고 공고한 근거지방위체계를 강화하여 적의 침입을 성과적으로 격퇴소멸한 고귀한 경험에 기초하여 나라의 주인인 전체 인민을 조국보위를 위하여 준비시키시였으며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시기에는 전체 인민을 전쟁승리를 위하여 힘있게 조직동원하시였다. 특히 전후시기에는 비상비적 혁명무력인 로농적위대를 친히 조직하시고 전체 인민이 한손에는 낫과 마치를 들고 다른 손에는 총을 쥐고 사회주의건설을 촉진하는 한편 조국보위의 임무를 훌륭히 수행할수 있도록 혁명적인 조치를 취하시였다. 수령의 현명한 령도하에 오늘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사회주의건설의 매개 부문에서 위대한 로력적위훈을 떨치고있을뿐만아니라 자기의 혁명초소를 굳건히 지키고있으며 일단 유사시에는 인민군대와 함께 원수를

에게 섬멸적인 타격을 줄수 있도록 자신을 튼튼히 준비하고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무장투쟁시기의 유격근거지요새화경험에 기초하여 해방후 전연과 중요 군사요충지대에 방위시설을 축성하여 적의 불의의 침공에 대처할수 있도록 하시였으며 조국해방전쟁시기에는 적이 침입하는 모든 곳에 견고한 방위시설을 구축하게 하심으로써 지상, 해안, 공중으로 침습하는 적들에게 섬멸적인 타격을 가할수 있도록 하시였다. 전후에는 전연뿐만아니라 해안, 종심깊이에까지 전국을 요새로 꾸릴데 대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시였으며 나라의 공고한 후방기지를 창설하는 방침을 취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전국요새화방침이 성과적으로 실현됨으로써 오늘 우리는 적의 그 어떠한 불의의 타격에도 인원과 물자를 보존하고 그 어떤 장기전에도 대처할수 있게 준비되였다.

혁명무력을 강화하며 나라의 방위력을 창설강화할데 대한 김일성동지의 혁명적이고 적극적인 방침의 정당성은 이미 우리 혁명실천에서 전면적으로 확증되였다.

김일성동지께서 일관하게 견지하신 위대한 군사사상과 그 구현인 자위적인 군사로선이 있었기에 우리는 해방후 세계반동의 원흉인 미제와 직접 대치한 조건에서도 혁명과 건설을 성과적으로 추진시킬수 있었으며 특히 미제를 괴수로 하는 16개국 침략군대를 반대하는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에서 빛나는 승리를 달성할수 있었다.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에서의 우리 인민의 빛나는 승리는 김일성동지의 탁월한 령도와 그이께서 제시하신 자위적이며 독창적인 혁명적 군사로선과 전략전술적방침의 현명성을 보여주었으며 자기 조국과 혁명의 전취물을 수호하기 위하여 수령의 주위에 철석같이 뭉쳐 적과의 싸움에서 발휘한 우리 인민군대와 전체 인민들의 대중적 영웅주의의 무비의 힘을 시위하였다.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자위적군사로선이 실현됨으로써 우리는 전후 공화국북반부의 혁명기지를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철옹성같이 다질수 있었다.

특히 1962년에 소집되였던 당중앙위원회 제4기 제5차전원회의에서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전략적방침과 나라의 방위력을 백방으로 강화하기 위한 혁명적조치는 우리 혁명기지를 더욱 튼튼히 꾸리는데서 획기적계기로 되였다. 당의 군사로선이 철저히 관철되고 나라의 방위력이 철옹성같이 강화됨으로써 우리는 최근년간 더욱 로골화되는 미제의 침략책동을 성과적으로 분쇄하고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추진할수 있게 되였다.

오늘 우리의 정치, 경제, 군사적 위력은 미제가 우리 나라에서 첫 참패를 당한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와는 비할바없이 강대해졌다.

우리는 이미 미제와 그 주구들의 어떠한 침략도 단호히 분쇄할수 있는 만단의 준비를 갖추어놓았으며 남조선인민들의 혁명투쟁을 힘있게 지원하고 조국통일을 주동적으로 실현할수 있는 튼튼한 담보를 마련하여놓았다.

실로 우리는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우리 당의 자위적군사로선을 관철함으로써 국제국내적으로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완전히 자주적으로, 주동적으로 해결할수 있게 되였다.

우리는 철두철미 자위적인 우리 당의 혁명적군사로선을 시종일관 견지하고 철저히 관철하여왔기때문에 사회주의동방초소를 굳건히 지키고있으며 나아가서는 싸우는 형제나라들을 적극 지지성원하여줄수 있게 되였으며 세계의 혁명적인민들의 반제반미투쟁에도 커다란 기여를 할수 있게 되였다.

실생활은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우리 당의 자위적군사로선이 현력사적시기에 있어서뿐만아니라 먼 장래에 있어서도 제국주의가 남아있는한 튼튼히 견지하여야 할 가장 정당한 혁명적로선이라는것을 보여준다.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우리 당의

자위적군사로선은 우리 혁명발전의 요구와 현대전의 요구를 전면적으로 반영하고있으며 맑스—레닌주의군사과학을 발전풍부화시킴에 있어서 빛나는 공헌으로 되며 그것은 날이 갈수록 위대한 생활력을 더욱 훌륭히 발휘할것이다.

* *

오늘 우리 당과 인민 앞에는 날강도 미제의 전쟁도발책동을 분쇄하고 우리 혁명의 전취물을 굳건히 수호하며 조국통일과 조선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앞당기기 위하여 보다 철저한 준비를 갖추어야 할 긴절한 과업이 나서고있다.

최근 미제침략자들은 우리 나라에서 새전쟁도발책동을 전례없이 로골화하고있다. 놈들은 어리석은 도발책동을 감행하다가 그때마다 조선인민의 자위적조치에 의하여 단호한 보복타격을 받은 사실에서 응당한 교훈을 찾을 대신에 계속 광란적인 전쟁소동을 벌리고있으며 각종 형태의 무모한 침략책동을 강화하고있다.

미제의 전쟁정책으로 인하여 우리 나라의 정세는 더욱 긴장되여가고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정세는 한층 더 긴장되여가고있으며 우리 나라와 아세아의 전반적지역에서 전쟁의 위험은 더욱 커가고있습니다.

조성된 정세는 우리들로 하여금 나라의 방위력을 철벽같이 다지고 원쑤들의 임의의 불의의 침공에 대처할수 있도록 전쟁준비를 잘 할것을 요구하고있습니다.》(《국가활동의 모든 분야에서 자주, 자립, 자위의 혁명정신을 더욱 철저히 구현하자》, 60페지)

우리는 자체의 국방력을 더욱 튼튼히 다짐으로써 무모한 침략책동을 일삼는 원쑤들에게 결정적타격을 가하고 놈들을 우리 조국강토에서 영영 쓸어버려야 하며 조국통일을 우리 세대에 기어코 실현하여야 한다.

긴장된 정세에 대처하여 우리의 방위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의 인민군대와 전체 인민을 정치사상적으로 튼튼히 무장시켜야 한다.

조성된 정세에 대처하여 각급 당조직들은 사람과의 사업을 잘하여 모든 군중을 수령의 주위에 더욱 굳게 결속시켜야 한다.

우리 당의 일관한 방침에 따라 전체 당원들과 인민들, 그리고 인민군대와 로농적위대원들을 우리 당의 유일사상,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며 그들을 철저히 혁명화, 로동계급화하여야 한다.

우리의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 군인들과 로농적위대원들 속에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외에는 그 어떤 다른 사상도 모르는 당의 유일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함으로써 그들이 언제어디서나 수령의 사상의지대로 사고하고 행동하며 수령의 교시를 무조건 옹호관철하며 어떠한 풍파속에서도 동요없이 일편단심 김일성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목숨으로 보위하는 수령의 충직한 혁명전사로 되게 하여야 한다.

또한 전체 인민들과 군인들을 제국주의와 지주, 자본가계급을 증오하며 특히 우리 인민의 철천지원쑤인 미제국주의와 일본제국주의에 대하여 불타는 증오심을 가지고 그와는 끝까지 투쟁하는 높은 계급적각오와 불굴의 혁명정신으로 무장시켜야 하며 착취제도를 반대하고 사회주의제도를 옹호하며 사회주의조국을 적들의 침해로부터 보위하기 위하여 견결히 투쟁하도록 하여야 한다.

동시에 전체 인민들과 군인들이 전쟁에 대한 옳은 관점을 가지며 원쑤들의 침략책동과 있을수 있는 전쟁도발에 대처하여 항상 경각성을 높이고 적들의 일거일동을 예리하게 주시하며 만약 원쑤들이 감히 덤벼든다면 일격에 격멸소탕할수 있도록 준비되여있게 하여야 한다.

우리의 방위력을 강화하기 위하여서는

인민들과 군인들을 정치사상적으로 무장시키는 기초우에서 전군간부화, 전군현대화, 전민무장화, 전국요새화를 기본내용으로 하는 당의 군사로선을 철저히 관철하여야 한다.

인민군 군인들은 무엇보다 먼저 당의 전군간부화방침을 받들고 정치사상적으로, 군사기술적으로 튼튼히 무장하여 전사로부터 장령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 한등급이상의 높은 직무를 담당수행할수 있도록 자신을 부단히 단련하여야 한다.

혁명군대의 정치사상적우월성은 그것이 현대군사과학기술과 결합될 때 일당백의 위대한 힘을 발휘할수 있다.

인민군부대들에서 전투훈련을 더욱 정력적으로 전개하며 모든 군인들이 현대적군사과학과 군사기술을 충분히 소유하며 최신무기와 전투기술기재들을 능숙하게 다룰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군대내에서 상하일치, 군민일치의 전통적 기풍을 더욱 발양하며 강철같은 군사규률을 확립하도록 하여야 한다.

인민군대내에서 붉은기중대운동을 보다 심화발전시킴으로써 모든 군인들이 정치사상적으로 무장하고 군사기술적으로 튼튼히 준비된 수령의 충직한 전사로 되게 하여야 한다.

나라의 방위력을 철벽으로 다지기 위하여서는 인민군대를 강화하는 동시에 전체 인민을 무장하고 전국을 요새화할데 대한 당의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여야 한다.

모든 간부들과 당원들, 전체 로농적위대원들이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 당의 유일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전쟁경험과 군사지식을 습득하며 각종 전투훈련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어떠한 강적도 능히 타승할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우리는 당의 전국요새화방침을 계속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나라의 모든 산봉우리들을 1,211고지로 만들며 조국의 모든 산골짜기를 《함정골》로 전변시켜 우리의 강토를 침범하려는 원쑤들을 한놈도 살려보내지 말아야 한다.

조성된 정세에 대처하여 나라의 경제적위력을 강화하여 후방을 공고히 하는 문제가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현대전에서의 승패는 전쟁수행에 필요한 인적 및 물적 자원을 장기적으로 원만히 보장하는가 못하는가에 많이 달려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우리는 후방을 공고히 하는데 깊은 주의를 돌려야 합니다.》(《현정세와 우리 당의 과업》, 62페지)

인민경제 모든 부문의 당조직들과 지도일군들은 대안의 사업체계와 청산리방법을 더욱 철저히 관철하고 천리마작업반운동을 확대발전시키며 기술혁신을 촉진하고 로동행정사업을 결정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있는 설비, 있는 로력, 있는 자재로 더 많이, 더 좋게, 더 값싸게 생산하고 건설하며 원쑤를 족치는 기세로 자기 맡은 혁명초소마다에서 부단한 혁신과 앙양을 일으켜 사회주의건설의 혁명적대고조의 불길을 더 높여야 한다.

이와 함께 우리는 정세의 요구에 맞게 경제를 개편하는 사업을 적극 추진시켜 일단 유사시에도 생산을 중단함이 없이 진행할수 있게 준비하며 군사전략상 중요한 지대를 잘 꾸리고 군수공업을 더욱 발전시키며 필요한 물자의 예비를 충분히 조성함으로써 온나라의 후방을 어떠한 장기전에도 튼튼히 견디여낼수 있는 공고한 기지로 만들어야 한다.

당조직들은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인민군대를 친형제와 같이 사랑하며 그들을 성심성의로 원호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전사자가족, 후방가족들을 사회적으로 존경하고 더잘 원호하도록 관심을 돌려야 한다.

전체 인민들은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주위에 더욱 굳게 뭉쳐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당의 로선을 받들고 사회주의건설을 강력히 추진시키는 한편 당의 군사로선을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우리의 방위력을 일층 강화하고 온나라를 철벽의 요새로 다지여 사회주의조국을 믿음직하게 보위하면서 조선혁명의 전국적승리를 향하여 힘있게 앞으로 나아가자.

혁명적대고조와 당위원회

김 학 손

오늘 우리 나라 전체 로동계급과 근로자들은 력사적인 당대표자회결정과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10대정강을 높이 받들고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높은 혁명적열의로 들끓고있으며 새로운 혁명적대고조를 계속 견지해 나가고있다.

이러한 벅찬 현실속에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거듭되는 간곡한 교시와 높은 평가를 받은 우리 광산 로동계급은 무한히 격동되고있으며 모두가 용기백배하여 계속 혁명적대고조의 봉화를 높이 추켜들고 긴장된 투쟁을 전개하고있다.

우리 광산의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지난해 실적에 비하여 121%로 장성된 금년도생산계획을 공화국창건 20주년기념일전으로 118%로 넘쳐수행하며 년말까지는 지난해 실적의 2.3배에 해당한 광물을 생산할 결의를 다지고 확신성있게 나가고있다. 우리 광산 로동계급은 2개의 채광소대 전투원들이 금년도생산과제를 지난 4월 15일전으로 완수한것으로 하여 경애하는 수령의 선물과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 참가자들의 이름으로 된 축하편지를 받는 최대의 영예를 지니였다. 이에 더욱 고무된 붉은 광부들은 기세충천하고있으며 많은 중대, 소대들이 련이어 금년도생산계획을 끝내는 성과를 이룩하고있다.

우리 광산에서 일어나고있는 이러한 혁명적대고조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직접적지도와 육친적인 배려를 떠나서는 상상조차 할수 없는것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발전의 매시기마다 광산이 틀어쥐고나아가야 할 방향과 방도를 명시하여주시고 우리 광산당위원회의 사업에 대하여 세심한 지도를 주시였으며 로동자들의 생활과 건강에 대하여 항상 친어버이심정으로 보살펴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지난해 1월 25일 우리 광산의 70명 핵심당원들을 친히 몸가까이 부르시고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당의 새로운 혁명적로선을 관철함에 있어서 유색광물생산이 가지는 의의와 우리 광산이 차지하는 위치에 대하여 일일이 가르쳐주시였으며 1970년도까지의 년차별전투계획까지 손수 짜주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금년 2월 29일밤에도 전화로 광산당위원회를 찾으시고 조성된 정세에 대처하여 우리들이 나아갈 길을 다시금 환히 밝혀주시였다.

우리는 오직 수령의 교시를 자기의 확고한 신념으로, 행동의 유일한 지침으로 삼음으로써 혁명적대고조의 앞장에 나설수 있게 되였다. 우리 광산이 오늘 나라의 믿음직한 유색광물생산기지의 하나로 그 면모를 일신하게 된것도, 생산과 기술, 사상과 도덕의 모든 분야에서 전변을 가져오게 된것도 전적으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와 육친적배려의 결과이다.

우리 광산 로동계급은 김일성동지의 교시를 관철하는 행정을 통하여 그이의 령도의 혁명성을 더욱 깊이 인식하였으며 그이의 교시를 무조건 끝까지 관철하는 길만이 당과 혁명에 충실하는 길이며 그이의 사상의지대로 사고하고 행동할 때만이 혁명적대고조의 앞장에 서서 나갈수 있다는것을 확신하였다.

* *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일어나고있는 새로운 혁명적대고조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의 빛나는 구현이며 현시기 조성된 복잡한 정세와 우리 나라 사회경제발전의 절실한 요구를 반영한 합법칙적현상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력사적인 당대표자회에서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새로운 혁명적로선을 제시하시고 몸소 그 관철을 위한 투쟁에로 우리의 영웅적로동계급을 불러일으키시였으며 그들의 심장마다에 새로운 혁명적대고조의 불씨를 지펴주시였다.

당의 새로선을 관철하는 행정에서 일어난 새로운 혁명적대고조는 혁명과 건설의 매시기마다 조성된 정세와 혁명발전의 요구를 정확히 통찰하시고 그에 대한 과학적분석에 기초하여 주체적인 올바른 로선과 정책을 제시하시며 강의한 맑스—레닌주의적원칙성과 비상한 혁명적전개력으로써 로동계급과 근로대중의 무궁무진한 힘과 지혜를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 능숙히 조직동원하시는 그이의 령도의 현명성을 다시한번 뚜렷이 실증하는것이다.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힘있게 병진시키며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혁명적대고조를 계속 견지해나가는것은 우리 혁명 위업의 종국적승리를 담보하는 관건적고리의 하나로 된다.

우리는 당의 새로운 혁명적로선을 철저히 관철하며 혁명적대고조를 계속 견지함으로써만 우리 혁명기지의 정치적 및 물질적 력량을 더욱 강화하고 날로 격화되는 원쑤들의 침략책동에 대처하여 혁명의 전취물을 믿음직하게 수호할수 있으며 조국통일을 더 빨리 성취할수 있는 강유력한 밑천을 마련할수 있다. 또한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혁명적대고조를 계속 앙양시켜나감으로써만 지난 기간 우리가 마련한 자립적민족경제의 위력을 더욱 강화할수 있으며 인민생활을 향상시켜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더욱 빛내일수 있다.

당의 새로운 혁명적로선을 관철하기 위한 혁명적대고조의 기저에는 우리 혁명의 탁월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와 우리 당의 불패의 위력, 당과 수령의 주위에 하나로 굳게 뭉친 전체 인민의 정치사상적통일, 당의 의도를 파악하고 빨리 전진하려는 대중의 혁명적열의가 놓여있다. 따라서 그 승리는 확고부동한것이며 필연적이다.

혁명과 건설에서의 위대한 승리, 이것은 우리의 전진을 방해하는 온갖 낡은것과의 치렬한 투쟁을 통해서만 성과적으로 달성될수 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경험은 당에서 새로선이 나올 때마다 그 관철을 방해하는 동요분자, 소극분자, 보수분자들이 생긴다는것을 보여줍니다. 어떤 일이든지 새로 시작할 때에는 반드시 적극분자가 있는 반면에 소극분자가 있는것이고 선진분자가 있는 반면에 보수분자가 있는것입니다. 그렇기때문에 당의 새로선을 관철함에 있어서는 투쟁을 통해서 온갖 락후한것과 보수적이고 소극적인것을 타파해야 합니다.》

우리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확고히 세우며 우리의 전진을 방해하는 온갖 반동적이며 비계급적인 사상요소들과 낡고 침체한것을 철저히 반대극복하는것은 당의 혁명적로선을 관철하며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혁명적대고조를 계속 견지함에 있어서 가장 선차적인 문제로 된다.

우리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를 받들고 광물생산에서 새로운 대고조를 일으키기 위한 실지투쟁을 통하여 이것을 확고한 진리로 체득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지난해 1월 25일 우리 광산의 갱장, 중대장, 소대장 등 핵심당원들을 몸가까이 부르시고 사회주의건설에서 새로운 혁명적대고조를 일으키기 위하여서는 공업의 첫공정인 채취공업부문에서부터 봉화를 들어야 한다고 간곡히 교시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끊임없이 전진하고

끊임없이 높은 속도로 발전하는것은 사회주의경제발전법칙이라고 하시면서 경제가 발전하고 그 규모가 커지면 전진속도를 높일수 없다는 《리론》의 반동적본질을 당시의 우리 광산 실정과 밀접히 결부하여 일일이 가르쳐주시였다.

수령께서는 또한 미제국주의자들의 새 전쟁도발책동으로 말미암아 조성된 현 정세하에서 경제건설도 하고 국방건설도 하며 인민생활도 더욱 높이자면 우리 로동계급이 유색금속을 더 많이 캐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는 우리들로 하여금 사대주의, 수정주의, 교조주의, 소극성, 보수주의, 경험주의 등 온갖 반동적, 반혁명적 사상요소들을 극복하고 침체와 락후에서 벗어날수 있게 하였으며 광산발전에서 일대 혁명적 전환을 가져오게 하였다.

한때 우리의 일부 일군들은 광업이란 품위 높은 광석과 품위 낮은 광석을 혼합하여 처리하면서 생산을 《점진적》으로 장성시키는 방법으로 운영해야 된다는 그릇된 인식을 가지고있었다. 이것은 광물생산계획을 《안전》하게 세우고 적게 받으려는데서 집중적으로 나타났다.

중요한것은 일군들속에서 소극성, 보수주의를 철저히 극복하고 로동계급의 앙양된 혁명적기세에 발맞추어 광물생산에서 앙양을 일으킬수 있도록 지도를 따라세우는것이였다. 당위원회는 생산을 책임진 기업소의 주인으로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를 심장으로 접수하고 그 관철을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혁명적으로 짜고들었다.

광산당위원회는 김일성동지의 교시를 집행하는 행정에서 일정한 경험과 교훈을 쌓았으며 자기 사업에 대한 확고한 신심을 가지게 되였다.

혁명적대고조, 이것은 우리 혁명의 탁월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하에 당과 수령께 무한히 충실한 우리 로동계급의 높은 혁명적자각과 강의한 투쟁정신의 발현인것만큼 혁명적대고조를 계속 견지하는데서 무엇보다도 중요한것은 수령에 대한 무한한 충성심으로 심장을 불태우며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는것이다.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으로 확고히 무장될 때 높은 혁명적열성과 창발성이 생기게 되고 강의한 투지와 계속혁신의 투쟁정신이 나오게 되며 혁명적대고조가 일어나게 된다.

지난해 우리 광산의 붉은 광부들이 광물생산에서 그 전해에 비하여 1.5배나 되는 높은 지표를 달성할수 있은것은 그 어떤 추가적인 설비투하나 로력의 증가에 의한것도 아니며 자연조건이 갑자기 좋아진것도 아니다. 문제는 광산의 로동계급이 수령의 혁명사상과 교시를 심장으로 받아들여 자기의 피와 살로 만들고 오직 한마음 수령께 무한히 충실하려는 일념을 안고 그이의 교시대로 계속혁신, 계속전진한데 있다.

당위원회는 김일성동지의 교시를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자기의 기본사명으로 간주하고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수령의 교시, 당정책으로 철저히 무장시키며 수령께서 주신 직접적인 교시를 관철한다는 무한한 긍지와 영예감을 지니도록 그들을 교양하는데 힘을 집중하였다.

당위원회는 김일성동지의 교시를 직접 받고돌아온 당위원회 위원들과 핵심당원들로 하여금 시범학습을 통하여 교시의 진수를 정확히 파악하고 당원들에게 철저히 해설침투시킬수 있도록 잘 준비시켜 매개 당조직들에 파견하는 사업부터 시작하였다. 또한 근로단체들에서도 조직별로 직외강사들을 잘 준비시켜 자기 산하조직들에 파견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당 및 근로단체 조직별로 교시침투사업을 빈틈없이 조치하여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빠짐없이 교시에 정통하고 누구나 다 똑같이 리해하고 움직이게 하였다.

김일성동지의 교시를 철저히 관철하기 위하여서는 교시침투사업을 매개 단위의 전투과업과 밀접히 결부하여 보다 구체화하고 심화하는것이 중요하다. 그래야만 모든 전투원들이 자기의 투쟁방향과 전투목표를 똑똑히 알고 자신이 할 일에 대한 구체적인 결심을 다지게

되는것이다.

당위원회는 김일성동지의 교시를 자기 부문, 자기 단위의 사업과 밀접히 결부시켜 구절구절 새겨가면서 학습하도록 문제별학습을 조직하였다. 당위원회는 초급당비서, 직외강사 등 선전핵심들에게 해당한 제목들을 설정하여주고 매개 직장과 갱 앞에 제기된 전투과업과 결부하여 교시를 반복침투시키도록 하였다. 또한 매개 단위에서는 교시의 진수를 철저히 파악하기 위한 사업을 증산예비를 적극 탐구동원하는 방향에서 계속 심화시켜나갔다. 례컨대 참모초급당조직들에서는 계획작성에서 나타난 일군들의 소극성과 보수주의를 철저히 극복하는 방향에서, 운반갱초급당조직들에서는 운반능력을 증대되는 굴진량과 채광량에 따라세우기 위한 예비를 탐구하며 선광초급당조직들에서는 이미 마련하여놓은 밑천을 최대한으로 리용하여 선광처리량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방도를 찾는 방향에서 학습을 심화시켰다. 이때 당위원회가 매개 당조직들에 문제토의의 중심방향을 설정하여주는것이 효과적이였다. 그리하여 모든 단위에서 선차적이며 중요한 고리에 모를 박아 집중적으로 예비를 탐구해낼수 있었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이렇게 수령의 교시에 정통하고 그 관철에 한결같이 떨쳐나섰을 때 그들은 낡은 공칭능력과 기준량을 깨뜨리고 모든 가능성을 동원하여 기적과 혁신을 일으킬수 있었으며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양할수 있었다. 《조선인민군창건 20주년갱》의 당원들과 사로청원들은 《1.25청년돌격대》를 무어 년초에 갱앞에 부과되였던 생산과제를 한개 중대가 담당할것을 결의해나섰다. 그리하여 광석을 집중적으로 채굴하라고 하신 수령의 교시를 높이 받들고 품위 높은 지대의 채굴능력을 단시일에 비약적으로 높일수 있었다. 운반갱의 당원들과 로동자들은 1.5배의 광물을 증산할것을 결의해나선 채광공들의 기세에 발맞추어 기본운반갱도의 운반선로를 중형화, 대형화할 결의를 들고나왔다. 그들은 무시로 통과하는 전차와 광차를 멈춰세우지 않고 50일간 결사적인 투쟁을 전개하여 선로를 대형레루로 교체함으로써 통과능력을 1.8배로 높일수 있었다.

로동계급의 앙양된 혁명적기세에 일군들의 지도수준을 따라세우는것은 혁명적대고조를 계속 견지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일군들자신이 혁명적대고조의 앞장에 선 지휘성원답게 자기 역할을 옳게 수행하여야만 기업소가 자기앞에 맡겨진 생산과제를 훌륭히 수행할수 있는것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전투에서 군대의 승패가 지휘관의 지휘여하에 크게 달려있는것과 마찬가지로 군중운동의 승패는 지도적역할을 하는 당원들이 군중공작을 잘하는가 못하는가에 달려있습니다.》(《김일성선집》, 제1권, 1963년판, 87페지)

당위원회는 수령의 교시를 지침으로 삼고 지도일군들의 역할을 높이기 위한 투쟁을 처음부터 강력히 전개하는데 모를 박았다.

일군들의 역할을 높임에 있어서 중요한것은 그들자신이 소극성, 보수주의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하는것이다. 소극성과 보수주의, 이것은 주로 일군들속에서 발로되는 낡은 사상의 표현이다. 그러므로 당위원회는 수령의 교시를 침투관철하기 위한 사업과 더불어 일군들속에서 소극성, 보수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사상투쟁을 심각히 전개하였다. 우선 당, 행정 및 근로단체 간부들의 모임을 가지고 기업소지휘성원들인 당 및 행정 책임일군들부터 대담하게 자기의 결함을 비판하였다. 책임일군들자신이 당원대중앞에서 소극성, 보수주의를 완전히 극복하여야만 아래단위에서 발로되는 소극성과 보수주의의 사소한 표현도 제때에 포착할수 있고 그것을 반대하여 강하게 투쟁할수 있는것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으로 로동계급을 튼튼히 무장시키고 그들을 대고조에로 추동함에 있어서 적극적이며 효과적인 방도의 하나는 일군

들이 어렵고 힘든 대목을 맡아나섬으로써 실천적모범으로 대중을 고무하는것이다. 중요한것은 일군들이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의 요구대로 항상 군중속에 들어가며 현실에 깊이 침투하는것이다. 일군들이 생산자대중과 동떨어져서 책상머리에만 앉아있어가지고는 막장에서 무엇이 벌어지는가를 알수 없었고 군중이 얼마나 무궁무진한 힘을 가지고있는가를 알수 없었다. 그러므로 당위원회는 일군들이 로동자들속에 들어가 그들과 같이 일하고 생활하면서 배우고가르치도록 하는데 힘을 넣었다. 또한 이렇게 할 때만이 아래단위에서 맺힌 고리도 제때에 풀어나갈수 있었다.

지난해 우기이후!《90일전투》를 전개할때의 경우가 그러하였다. 《90일전투》는 수령앞에 다진 맹세를 실천하느냐 못하느냐 하는 판가리싸움이였으며 최후돌격전이였다. 이 전투를 위한 종업원결기모임을 가진 다음 지도일군들이 막장에서 로동자들과 침식을 같이하면서 걸린 고리를 풀어주고 어려운 일에서 앞장섰다. 지휘성원들이 솔선 착암기를 잡고 동발을 들일 때 그것은 군중의 심금을 울릴수 있었으며 교시관철에 떨쳐나선 그들의 사기를 더욱 북돋아줄수 있었다. 전투마당에서 지휘관도 총을 쏘는것과 같이 지도일군들이 어려운 일에서 앞장서며 로동자들과 합심하여 수령의 교시관철에 떨쳐나설 때 보다 큰 혁신을 불러일으킬수 있는것이다. 우리는 일군들의 이신작칙이 말없는 위력한 정치사업방법의 하나이라는것을 실지로 체험하였다.

로동계급속에서 정치사업을 강화함과 동시에 기술혁신운동을 강력히 전개하는것은 혁명적대고조를 계속 앙양시켜나가는데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생산자대중속에서 정치사업을 강화하여 그들의 창의창발성을 높이며 기술혁신운동을 강력히 추진시키는것은 추가적인 건설과 투자없이도 보다 많은 예비와 가능성을 동원하여 생산을 계속 높은 속도로 장성시킬수 있는 중요한 담보로 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에게는 아직도 파묻혀있는 예비가 아주 많습니다. 우리의 가장 큰 예비는 정치사업을 잘하여 생산자들의 혁명적열의와 창발성을 더욱 높이며 기술혁신운동을 강화하여 사람이 하던 일을 기계가 대신하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당위원회는 정치사업과 함께 기술혁신운동을 대고조를 위한 중요한 고리의 하나로 틀어쥐고 이 사업을 적극 고장하는데 많은 관심을 돌렸다. 당위원회는 기술혁신에서 군중의 지혜와 창발성을 최대한 동원하라고 하신 김일성동지의 교시를 높이 받들고 새로운 기술적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기사장을 통한 참모체계의 기술자들과의 사업을 강화하는 한편 중요하게는 제기된 문제를 가지고 직접 로동자들속에 들어가 그들과 진지하게 의논하며 그들의 발기를 무조건 지지하여 성숙시키는 원칙을 견지하였다. 경험은 항상 군중속에 들어가 당과 수령께서 무엇을 요구하시며 우리 광산에서 걸린 문제가 무엇인가를 솔직히 알려주고 그들과 해결대책을 진지하게 토의하면 풀리지 않는 문제란 없다는것을 보여주었다. 광산에서 운광능력을 확장하기 위하여 수직갱 하나를 더 건설하느냐 안하느냐 하는것이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였을 때였다. 이때에도 군중의 지혜를 믿고 그들에게 든든히 의거함으로써 막대한 자금과 로력, 시간을 들여 수직갱 하나를 더 건설하지 않고도 스키프통을 경량화하는 방법으로 권양능력을 1.5배나 높일수 있었다.

기술혁신운동을 전개함에 있어서 중요한것은 한두개 공정만이 아니라 그와 련관된 공정들의 기술혁신을 옳게 맞물려주는것이다. 운반수직갱계통을 해결함과 동시에 선광처리계통의 능력을 확장하는 문제가 제기되였다. 당위원회는 이 문제를 진지하게 토의한 끝에 선광장의 일부 불합리한 설비개소를 개조할것을 결심하고 이 방향에서 선광직장내

로동자, 기술자들 속에서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들었다. 그리하여 선광장에 추가적인 투자없이 파쇄공정을 세분화하고 마광기, 부선기 등에 기술혁신안을 도입하여 이빠진 공정에 살을 붙이는 방법으로 불과 한분기내에 선광처리능력을 1.5배로 높일수 있었다. 실로 로동자들과 토의하면 기술도 나오고 과학도 나오는것이다.

당위원회가 예비동원에서 틀어쥔 다른 한가지 문제는 간접보조부문일군들을 사상동원하여 사회적로동에 광범히 참가시키는것이였다. 당위원회는 광부들의 앙양된 혁명적기세에 관리부서일군들이 보조를 맞춤으로써 전투원들을 더욱 고무하는 동시에 사회적로동을 통하여 일군들이 로동계급의 혁명적기질을 더욱 철저히 배우도록 하였다.

당위원회는 당, 행정 및 보조부문 일군들이 갱을 맡아 지원하는데로부터 점차 사회적광물생산과제를 맡아 생산에 참가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사회적운동은 자금과 로력의 추가없이 생산을 증대시켜 국가에 막대한 리득을 주게 하는 방도의 하나였다. 지난해 사회적운동으로 생산한 광물량은 광산전반의 2개월분 생산량에 해당하였으며 광산의 광물총생산원가는 16.2%나 낮출수 있었다. 실로 예비란 탐구하기에 달렸고 동원하기에 달려있는것이다.

한편 광산당위원회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를 높이 받들고 온 광산이 들끓게 하기 위하여 가두녀성들과의 사업에도 항상 커다란 관심을 돌렸다. 당위원회는 김일성동지의 교시를 관철하기 위한 종업원궐기모임, 당중앙위원회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공화국내각의 공동축하문과 축기전달모임, 《90일전투》를 위한 종업원총회 등 군중적인 사상동원사업과 함께 《가정부인로천대회》를 가지고 가정부인들까지 떨쳐나서게 하였으며 막장으로부터 가두에 이르기까지 온 광산이 수령의 교시관철일색으로 들끓게 하였다. 그리하여 가두녀성들이 인민반, 지구별로 매개 전투장을 담당하여 지원하는 운동에 한결같이 일떠섰으며 온 광산이 대고조의 분위기로 들끓게 되였다.

실천적경험은 김일성동지께서 교시하신바와 같이 당위원회가 대중에 의거하며 광범한 대중을 발동시키는 혁명적이고 적극적인 방법으로 자기 사업을 틀어쥐고나갈 때 수많은 잠재력과 가능성을 탐구동원할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다음으로 당위원회가 혁명적대고조를 견지함에 있어서 크게 관심을 돌린 점은 로동자들에 대한 후방공급사업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로동자들에 대한 정치 사업에는 후방사업도 포함시켜야 합니다. 후방사업을 떠난 정치사업이란 있을수 없습니다. 누구든지 정치사업을 잘하려면 후방사업도 잘해야 합니다.》**(《김일성선집》, 제6권, 469페지)라고 교시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 교시하신바와 같이 로동자들이 생활문제에 대하여 아무런 근심걱정없이 생산활동에 전심전력할수 있도록 후방공급사업을 충분히 보장하는것은 그들의 열의를 제고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우리 일군들이 혁명적군중관점을 확고히 수립하고 생산자대중의 생활에 대하여 언제나 세심한 관심을 돌려 보살펴준다면 당과 수령에 대한 그들의 충성심은 더욱 커지며 일에서 그만큼 열성과 창발성을 더 발휘하게 되는것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자정이 넘은 깊은 밤에도 광산당위원회에 전화를 걸으시여 로동자동무들이 다 건강한가, 후방공급사업이 잘되는가고 거듭 물으시면서 그에 대한 구체적인 방도까지 가르쳐주시였다. 수령께서 이토록 로동자들의 후방공급사업에 대하여 심려하시는데 우리가 로동자들의 생활문제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하는것은 너무나 응당한 일이다.

당위원회는 후방공급사업을 중요한 당위원회적인 사업으로 전환시키고 위원회에서 정기적으로 토의하고 총화하는 제도를 확립하였다. 오늘 우리 광산에서는 식료가공으로부터 청량음료에 이르기까지 후방공급을 위한 자체의 공고한 물질적토대를 갖추어놓았다. 갱내에는 식당, 휴식장, 의료실, 목장, 양이장 등을 꾸려놓고있으며 그 운영에서

도 상당한 경험을 쌓았다. 이러한 갱내시설은 후방사업의 중요한 물질적조건으로 될뿐아니라 생산자들로 하여금 수천척지하막장에서도 지상과 다름없는 조건에서 일한다는 인식을 가질수 있게 한다. 우리는 후방사업을 혁명적으로 개선하고 치밀하게 조직함으로써만 낮에 밤을 이어 돌격전을 전개하는 광부들의 앙양된 기세를 더욱 북돋아줄수 있고 생산에서 보다 혁신을 일으키게 할수 있다는것을 생활을 통하여 체험하였다.

생산자대중속에서 정치사업을 강화하며 생산을 앙양시켜 혁명적대고조를 계속 견지함에 있어서 당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더욱 높이고 당사업을 정상화하는것이 매우 중요하였다. 경험은 당위원회가 전투적인 참모부로서 산유기체와 같이 자기 사업을 정상화하여야만 생산도 정상화될수 있다는것을 보여주었다. 특히 중요한것은 대안의 사업체계를 철저히 관철하는것이다. 대안의 사업체계를 관철하여야만 대중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고도로 발양시키고 내부예비를 동원하여 최대한의 증산을 보장할수 있으며 관료주의, 형식주의를 근절하고 생산지도, 기술지도, 생산보장사업 등을 옳게 할수 있다.

당위원회는 생산을 전적으로 책임진 광산의 주인으로서 행정경제사업에 대한 키잡이역할을 옳게 수행하기 위하여 집체적협의를 강화하며 특히 행정일군들과의 배합작전을 강화하는데 커다란 관심을 돌렸다. 당위원회는 김일성동지께서 채취공업부문앞에 주신 교시, 특히 우리 광산에 주신 교시를 집행하는 행정에서 새롭고 중요한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우선 당 및 행정, 기술을 책임진 일군들이 사전에 토의하여 일치한 견해를 가진다음 당위원회에 내놓고 충분히 토의함으로써 보다 원만한 대책을 마련할수 있게 하였다. 이렇게 토의결정된 다음에는 그것이 당조직과 근로단체조직들을 통하여, 행정단위들과 기술지도체계를 통하여 지체없이 아래에 침투되게 하였다. 또한 당위원회는 일단 방향과 방도를 토의확정하고 해당한 분공을 조직한 다음에는 행정측에 맡길것은 대담하게 맡기고 행정일군들의 권위를 세워주며 당조직과 근로단체조직들을 적극 발동하여 행정측이 조직하는 사업에서 당원들이 앞장서고 모든 동맹원들이 한결같이 움직이도록 조직사업을 전개하였다. 이리하여 간부들과 당원들이 발동되여 전체 군중을 움직이고 온 광산이 한덩어리가 되여 수령의 교시관철에 떨쳐나섰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우리 광산 로동계급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육친적사랑과 높은 신임에 초보적이나마 보답하는 길에 들어설수 있게 되였다. 그런데도 수령께서는 거듭 우리들에게 분에 넘치는 평가를 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광산 채광소대원들의 성과에 대하여 과분한 치하를 주시면서 《이런 소대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 나라 경제는 더욱 더 빨리 발전할것이며 인민들은 더 잘 살게 될것입니다. 우리 나라가 더 강해지면 그만큼 미제국주의자들과 그 앞잡이인 남조선의 박정희나 지주, 자본가들은 우리를 더욱 무서워할것입니다.》(《사회주의건설의 위대한 추동력인 천리마작업반운동을 더욱 심화발전시키자》, 8~9페지)라고 교시하시였다.

지금 우리의 붉은 광부들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교시하신대로 지질탐사, 기술혁명, 과학연구의 세가지 원칙을 튼튼히 틀어쥐고 그이의 높은 신임과 기대에 기어이 보답하기 위하여 《소대는 중대의 몫을, 중대는 갱의 몫을, 갱은 광산의 몫을 담당하자》는 구호밑에 공화국창건 20주년기념일을 앞둔 《110일전투》를 치열히 전개하고있으며 생산계획을 일별, 월별로 넘쳐수행해나가고있다.

우리는 또한 혁명적대고조를 계속 견지하기 위하여 천리마작업반운동을 강력히 전개하여야 한다고 하신 수령의 교시대로 천리마작업반운동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금년중으로 천리마광산의 영예를 기어이 쟁취할것이다.

우리는 당의 유일사상,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더욱 튼튼히 무장하고 언제나 수령의 참된 혁명전사답게 전진, 전진, 투쟁 또 전진함으로써 혁명적대고조의 앞장에 서서 계속 힘차게 나아갈것이다.

우리 당의 계획의 일원화, 세부화 방침의 정당성

오늘 우리앞에는 당대표자회결정과 위대한 10대정강을 높이 받들고 모든 분야에서 천리마대고조의 불길을 더욱 높임으로써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촉진하여야 할 영예롭고도 중요한 과업이 나서고있다. 이를 위하여서는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대안의 사업체계의 요구대로 경제지도와 기업관리를 더욱 개선하며 우리 당의 계획의 일원화와 세부화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는것이 중요하다.

김일성동지의 직접적발기에 의하여 창조된 계획의 일원화와 세부화는 대안체계의 가장 본질적인 요구의 하나로서 사회주의계획화발전에서 새로운 획기적인 전환을 의미한다.

사회주의하에서 계획화사업은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이에 대하여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강조하시였다: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계획화는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하나입니다. 사회주의하에서는 계획이 없이는 도대체 경제가 움직일수 없습니다. 계획화사업이 잘못되면 막대한 물자와 로력을 랑비하게 되고 심지어는 나라의 경제가 혼란상태에 빠질수도 있습니다.》

계획화사업은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성과를 좌우하는 근본문제의 하나이다. 사회주의제도하에서 경제는 오직 계획적으로만 발전할수 있다. 계획이 없이는 사회주의경제를 운영할수 없으며 한걸음도 전진시킬수 없다.

계획화사업을 잘하여야만 인민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며 나라의 모든 자원을 합리적으로 리용하고 대중의 혁명적열의를 옳게 조직동원하여 생산의 높은 장성속도와 인민생활의 체계적인 향상을 보장할수 있으며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전면적으로 발양시킬수 있다.

우리 당은 사회주의경제건설을 령도하는 전행정을 통하여 인민경제계획화사업을 개선강화하는데 시종일관 깊은 관심을 돌려왔으며 계획화에서 당성, 과학성, 군중로선의 원칙을 확고히 견지함으로써 경제건설을 빠른 속도로 추진시켜왔다. 특히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을 구현한 대안의 사업체계를 확립함으로써 계획화사업을 획기적으로 강화발전시켰으며 자립적민족경제의 토대를 튼튼히 축성하고 인민생활을 향상시키는 사업을 더욱 힘있게 촉진시켜왔다.

김일성동지께서는 계획화에서 이룩된 성과와 풍부한 경험에 기초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합법칙적요구에 상응하게 계획화사업을 보다 심화발전시키기 위하여 일원화계획체계를 수립하고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세부계획화를 실현할데 대한 새로운 방침을 제시하시였다.

계획의 일원화와 세부화는 전국에 뻗쳐있는 국가계획기관과 계획세포들이 단일한 계획화체계를 이루고 통일적인 중앙집권적지도밑에 계획화의 유일성을 철저히 보장하며 기업소경영활동의 모든 측면을 세부에 이르기까지 정확히 맞물리는것이다.

계획의 일원화와 세부화에 관한 김일성동지의 심오한 사상은 인민경제계획화에 관한 맑스—레닌주의리론을 사회주의건설의 실천적경험에 기초하여 새롭게 창조적으로 발전시키고 풍부화한것으로서 사회주의경제관리와 특히는 인민경제계획화의 발전에서 거대한 리론실천적의의를 가진다.

김일성동지께서는 계획의 일원화와 세부화 방침을 통하여 사회주의경제관리에서 계획성의 요구를 고수하고 국가의 중앙집권적계획적지도를 심화시키며 계획화에서 군중로선을 구현하게 하는 원칙과 방도를 정확히 제시하심으로써 사회주의계획화에서 반드시 풀어야 할 근본적인 문제들에 대한 과학적인 해답을 주시였으며 사회주의계획화의 전도

에 새로운 발전전망을 열어놓으셨다.

김일성동지께서 새롭게 전면적으로 천명하신 계획의 일원화, 세부화—이것은 사회주의경제의 계획화에서 아직 그 누구도 해보지 못한 독창적인 길을 개척한것으로서 인민경제계획화분야에서 이룩된 주체사상의 빛나는 결실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서 제기되는 리론실천적문제들을 창조적으로 정확히 해결해나가는 우리 당의 세련된 령도의 또하나의 빛나는 모범으로 된다.

계획의 일원화와 세부화는 인민경제계획화의 본질적요구와 과업에 전적으로 부합되는 유일하게 과학적인 계획화방도이다. 우리는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일원화계획체계의 우월성을 더욱 발양시키고 세부계획화를 전면적으로 도입함으로써만 사회주의경제건설의 높은 속도를 보장하고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당의 전략적방침을 성과적으로 관철하여나갈수 있다.

1

계획의 일원화와 세부화는 사회주의경제의 가장 과학적인 계획화방도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계획의 일원화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계획의 일원화란 계획을 제 마음대로 세우는것이 아니라 국가에서 요구하는대로, 우리 나라 사회를 발전시키는데 필요한대로 세우는것이다.》

일원화계획체계는 당과 국가가 요구하는대로, 경제발전의 요구대로 계획을 세우기 위하여 국가가 중앙으로부터 기업소에 이르기까지 계획화사업을 통일적으로 틀어쥐고 집행하게 하는 체계이다.

계획화체계를 일원화할데 대한 당의 방침에 따라 우리 나라에서는 이미 국가계획위원회의 현지주재기관으로서의 지구계획위원회들이 창설되였으며 각급 경제기관의 계획부서들을 해당 국가계획기관들에 이중종속시키는 조치가 취해졌다. 그 결과 단일한 국가계획기관체계에 의하여 성, 국, 중앙기관들로부터 기업소와 지방에 이르기까지 국가가 계획화사업을 통일적으로 장악하고 집행할수 있게 되였다.

이 체계하에서는 국가계획위원회와 그 지구위원회를 골간으로 하는 국가계획기관체계의 해당 계획기관들에 성, 국과 지방 및 기업소 계획부서들을 각각 복종하게 하고 그것들을 계획세포로서 움직이게 함으로써 계획화사업에 대한 국가의 통일적이며 유일적인 지도에 기초하여 각급 계획기관들과 계획단위들의 역할과 책임성이 높아지고 그것들간의 련계가 강화되게 된다.

계획의 일원화와 함께 계획의 세부화는 경제를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운영할데 대한 대안체계의 기본요구의 하나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계획의 세부화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의 계획화사업은 당의 정책과 객관적현실에 맞게 인민경제의 전반적균형을 정확히 보장하는 동시에 구체적이고 세밀하여야 하며 모든 부문들과 기업소들을 세부분에 이르기까지 다 잘 맞물리도록 되여야 합니다.》

계획을 세부화한다는것은 당의 정책과 객관적현실에 맞게 인민경제발전의 종합적균형을 보장하는 동시에 모든 부문들과 기업소들의 경제활동을 세부분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으로 맞물린 계획을 세운다는것을 의미한다.

세부계획화의 본질적요구는 계획의 구체성과 균형성을 보장함으로써 당의 정책적요구를 정확히 구현한 현실적이며 동원적인 계획을 세우는데 있다.

이러한 원칙적요구로부터 출발하여 세부계획화는 우선 계획화의 지표체계를 전면적으로 더욱 확대하여 구체적으로 설정할것을 요구한다. 이것은 계획화사업에서 종합적지표나 큰수자만 규정할것이 아니라 인민경제의 전반적부문들과 기관, 기업소들의 경제활동전반을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타산하여 다 계획에 포괄시키게 한다는것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세부계획화는 유일한 인민경제계획에 의하여 전국가적계획과 성, 국 계획 및 기업소계획들을 엄격히 맞물

리게 할것을 요구한다. 이것은 인민경제의 부문간, 부문내부간, 지역간 또는 기업소들간의 경제적련계를 반영하는 모든 균형들을 아래로부터 맞물려올려오는 정연한 체계에 의하여 국가계획으로 정확히 맞물리게 한다는것을 의미한다.

세부계획화는 또한 인민경제발전에서와 부문간, 부문내부간 및 기업소들간의 경제적련계와 균형을 보장하는데서 기본적이며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생산, 기본건설, 자재공급, 운수, 로동부문으로부터 교육, 문화, 보건 등 부문들과 재정, 후방사업 등 전반적 분야를 포괄하게 된다.

세부계획화에서는 인민경제발전의 종합적지표뿐만아니라 성, 국들과 지방기관, 기업소들의 경제활동을 반영하는 모든 지표들을 다 국가의 법적과제로 규정하게 된다. 따라서 전국가적계획은 물론 성, 국 계획들과 기업소계획에 규정된 모든 계획과제들은 자의로 변경시킬수 없으며 계획실행에 대한 총화와 평가도 국가계획기관에 등록된 계획에 의하여 철저히 진행하게 된다.

계획의 일원화와 세부화는 호상 밀접히 련관되여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계획화체계를 일원화하는 조건에서만 세부계획화를 원만히 실현할수 있다고 강조하시였다.

세부계획화는 중앙으로부터 지방과 기업소에 이르기까지 인민경제의 부문간, 기업소간 및 지역간 그리고 그것들 내부호상간의 모든 경제활동을 계획에 세부분까지 구체적으로 맞물리는 복잡한 사업인것만큼 그것은 국가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모든 부문들과 단위들간의 련계와 협조를 강화하고 지도일군들로부터 로동자들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이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가하며 책임성을 높일것을 절실히 요구하고있으며 또 그것을 전제로 하고있다. 따라서 세부계획화는 모든 계획기관들과 계획일군들이 서로 합심하여 한결같이 움직이도록 하는 일원화계획체계하에서만 성과적으로 실현될수 있다.

일원화계획체계는 또한 계획을 세부분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으로 맞물릴것을 요구하며 세부계획화가 잘되는 조건하에서만이 그 자체의 우월성을 충분히 발휘할수 있게 된다.

오늘 심화발전되고있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경제건설은 계획의 일원화와 세부화를 더욱 절실한 문제로 제기하고있다.

우리 나라의 경제규모는 과거와는 비할바없이 커졌으며 많은 새공장, 기업소들과 새로운 생산부문들이 생겨나고 인민경제의 기술적장비가 강화되여 부문간, 부문내부간 및 기업소호상간의 련계와 기업소내 분업이 매우 복잡하여졌다. 이에 따라 생산의 전문화와 협동화가 광범히 조직되고 생산공정이 더욱 복잡한 기술공정으로 되였다.

변천된 오늘의 현실은 인민경제에 대한 국가의 계획적지도를 한층더 심화시켜 자재, 설비, 로력 등 생산의 제요소와 생산, 분배, 류통, 소비에 이르는 재생산의 모든 고리들을 세부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으로 타산하고 서로 맞물려주며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의 경제적련계를 튼튼히 맺어줄것을 요구하고있다.

이러한 조건에서 만일 어느 한가지라도 사소한것이라 하여 계획에 정확히 맞물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반드시 련관된 기관, 기업소들의 계획수행에 지장을 주게 되고 결국 인민경제발전에 영향을 미치게 될것이다.

오직 계획화사업에 대한 통일적인 지도를 강화하여 모든 계획기관들과 단위들을 한결같이 움직이게 하는 기초우에서 모든 고리들과 보장조건들을 정확한 계획에 의하여 빈틈없이 맞물림으로써만 내부예비를 최대한으로 동원리용하고 생산을 정상화할수 있으며 따라서 인민경제의 계획적발전을 성과적으로 보장할수 있다.

당은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이러한 합법칙적요구에 따라 계획화사업을 심화발전시키는 적극적대책으로서 일원화계획체계의 우월성을 충분히 발휘시키며 세부계획화를 전면적으로 실현할데 대한 주동적인 조치를 취하였다. 이것은 사회주의경제발전의 현실적요구에 전적으로 부합되는 정확한 조치이며 나라의 사회주의건설을 더욱 힘있게 촉진하기

위한 적극적인 요인으로 된다.

2

계획의 일원화와 세부화는 사회주의 계획화발전에서와 사회주의경제건설을 촉진함에 있어서 거대한 리론실천적의의를 가진다.

계획의 일원화와 세부화의 의의는 우선 그것이 사회주의하에서 계획성의 요구를 철저히 고수함으로써 인민경제의 계획적, 균형적 발전을 확고히 보장할수 있게 한다는데 있다.

사회주의하에서 계획성의 요구를 고수하느냐 안하느냐 하는 문제는 경제를 계획적, 균형적으로 발전시키는가 안시키는가 하는 근본적인 문제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 사회주의경제는 계획이 없이는 한걸음도 움직일수 없습니다. 인민경제의 계획적, 균형적 발전은 사회주의경제의 중요한 법칙입니다. 사회주의경제를 옳게 운영하려면 우선 계획기관이 이 법칙의 요구에 따라 정확한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안됩니다.》(《김일성선집》, 제6권, 457페지)

경제가 자연발생적으로 발전하며 부단한 동요와 불균형으로 특징지어지는 자본주의사회와는 근본적으로 달리 나라의 모든 생산수단이 사회적소유로 되고있는 사회주의제도하에서는 경제가 계획적으로, 균형적으로 끊임없이 발전하는것이 법칙으로 되고있다. 사회주의제도가 공고화되고 사회주의경제가 발전하면 할수록 인민경제의 계획적, 균형적 발전법칙의 요구는 더욱 전면적으로 실현되여야 한다.

이것은 사회주의건설이 심화되고 인민경제의 지도관리가 더욱 복잡하고 어려운 과업으로 제기될수록 사회주의적계획성의 요구를 확고히 고수하며 그 요구를 더욱 폭넓고 깊이있게 관철할수 있도록 계획화사업을 부단히 개선하여야 한다는것을 의미한다.

사회주의하에서 계획성의 요구를 철저히 고수하기 위하여서는 나라의 모든 계획화사업을 국가가 유일적으로 틀어쥐고 세부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으로 짜고들어야 한다. 이것은 인민경제계획화의 본질적인 요구이다.

종합적균형과 함께 모든 부문들과 기업소들의 경제활동을 국가계획으로 세부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으로 맞물릴데 대한 우리 당의 새로운 계획화방침은 인민경제계획화의 본래의 사명에서 나오는 합법칙적요구를 정확히 구현한것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경제에서는 항상 부문간의 균형을 바로잡아야 할뿐아니라 부문내부의 균형도 바로잡아야 하며 경제활동의 세부분에 이르기까지 엄격히 서로 맞물리도록 계획화하여야 합니다.》**고 가르치시였다.

원래 인민경제계획은 당의 로선에 립각하여 경제발전의 균형을 전면적으로 정확하게 보장할수 있도록 세밀하고 구체적인것으로 되여야 한다.

인민경제계획화의 중요한 임무는 생산발전의 높은 속도를 항구적으로 보장할수 있도록 경제발전의 균형을 정확하게 설정하는데 있다.

여기에서 우선 중요한것은 인민경제발전의 종합적균형을 보장하는것이다. 이것은 사회주의건설에서 당의 전략적방침을 정확히 실현하며 나라의 물질적 및 로력적 자원을 합리적으로 리용하여 인민경제의 급속한 발전과 인민생활의 체계적인 향상을 보장하는 기본조건으로 된다.

그런데 인민경제발전의 전반적균형을 정확히 보장하기 위하여서는 종합적균형을 맞출뿐만아니라 그와의 밀접한 련계밑에 부문내부, 기업소내부에서의 생산요소들에 이르는 세부까지 구체적으로 빈틈없이 맞물려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만 계획이 정확한것으로 될수 있으며 인민경제 모든 부문들과 기업소들 그리고 모든 고리들이 치차와 같이 딱딱 맞물고 돌아가며 막히는 고리가 없이 생산이 제대로 풀려나갈수 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생산계획이나 건설계획이나 할것없이 세부에 이르기까지 자재의 보장조건들을 정확히 따지지 않은 계획은 사실상 계획이라고 할수 없습니다. …우리의 경험에 의하면 큰 수자를 몇개 묶는것은 그리 어려운 일도 아

니며 또 그것만 가지고는 사회주의경제를 운영할수 없습니다. 중요한 문제는 큰것과 함께 작은것들, 소소한것들까지 옳게 계획화하는데 있습니다.》

사회주의하에서 인민경제계획화는 응당 당이 규정한 경제발전의 총적방향에 의거하여 종합적균형을 보장하는것으로 되여야 하는 동시에 모든 부문들과 기업소들의 구체적인 실정에 기초하여 세부분에 이르기까지 다 잘 맞물릴수 있도록 되여야 한다.

이것은 사회주의경제발전의 요구에 맞는 유일하게 과학적인 계획화방도이다. 오직 이 길로 나갈 때만이 사회주의계획경제의 우월성을 충분히 발양시킬수 있다.

만일 큰수자나 종합적인 지표만 확정하고 기업소의 세부분에 이르기까지 맞물리지 않는다면 인민경제의 전반적균형은 옳게 유지할수 없으며 따라서 인민경제의 계획적, 균형적 발전을 원만히 보장할수 없다. 례를 들면 공작기계생산에서 큰 자재들만 맞물리고 베아링 몇개만이라도 잘 맞물리지 않는다면 공작기계는 생산될수 없다. 그것은 계획적, 균형적 발전법칙의 요구를 무시하고 계획성을 약화시키는것으로서 사실상 사회주의경제발전의 요구와는 인연이 없다.

계획의 일원화와 세부화는 또한 계획화에서 민주주의적중앙집권제원칙을 철저히 구현할수 있게 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민주주의적중앙집권제란 대중의 지혜를 발휘하여 계획을 작성하는데서도 아래사람들의 의견을 올려가지고 그 의견을 기업소를 거쳐서 종합한 다음에는 중앙에서 다시 토론해가지고 아래에 내려보내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시였다.

계획의 일원화와 세부화에서 경제에 대한 국가의 계획적이며 통일적인 지도와 군중로선은 더욱 밀접히 결합되게 된다.

일원화계획체계는 경제에 대한 국가적지도를 강화하는 기초우에서 군중로선을 구현할수 있게 함으로써 중앙집권제와 민주주의를 옳게 결합시키고있는 과학적이고도 합리적인 계획화체계이다. 이 체계하에서는 계획을 세우는데 있어서 민주주의적으로 아래의 의견을 묻으면서 중앙집권제를 실시한다. 이에 있어서 국가의 통일적지도는 군중로선을 통하여 더욱 공고화되고 군중로선은 통일적인 국가적지도밑에서 더욱 충분히 발현된다.

일원화계획체계는 우선 계획화사업에서 통일적이며 계획적인 중앙집권적지도를 강화할수 있게 한다.

인민경제에 대한 국가의 계획적이며 통일적인 지도는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성과를 좌우하는 근본문제의 하나이다.

사회주의하에서 주권을 장악한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는 나라의 경제생활과 인민생활, 전반적인 나라살림살이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지고있다.

따라서 국가는 나라의 모든 경제생활을 통일적으로 틀어쥐고 계획적으로 지도하여야 하며 경제의 규모가 커지고 부문간의 련계가 다양해지며 새롭고 현대적인 기술이 도입됨에 따라 국가의 중앙집권적계획적지도를 더욱 강화하고 심화시켜야 한다. 계획화사업에 대한 국가의 통일적인 지도를 강화하여야만 전사회를 유일한 계획에 의하여 움직이는 경제적유기체로 만들수 있고 경제발전의 높은 전진속도를 달성할수 있으며 당정책을 성과적으로 관철하여나갈수 있다.

만일 경제에 대한 국가의 중앙집권적지도를 약화시킨다면 그것은 경제를 자연발생성에 내맡기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것이다. 그렇게 되면 계획적, 균형적 발전을 보장할수 없고 경제는 침체상태에 빠지게 될것이다.

일원화계획체계는 국가가 계획화사업을 통일적으로 장악하고 유일적으로 진행하게 함으로써 국가적지도를 심화시키는 계획화체계이다.

이 체계하에서는 국가가 모든 계획단위들과 고리들을 통일적으로 장악하고 나라살림살이의 세부분에 이르기까지 계획화사업을 유일적으로 진행하게 한다.

그리하여 중앙으로부터 지방과 기업소에 이르기까지 국가의 계획적지도가 심화되며 한고리를 잡아당기면 모든 고리가 일치하게 움직이듯이 이 체계를 통하여 당의 의도가 거침없이 들어가게

되고 당정책이 옳게 관철되게 된다.

계획의 일원화와 세부화는 계획화사업에 대한 국가적지도를 강화하는 기초우에서 군중로선을 관철할수 있게 한다.

계획의 일원화와 세부화의 가장 큰 우월성의 하나는 그것이 계획화사업을 군중의 힘에 의거하여, 군중로선의 방법으로 진행할수 있게 한다는데 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계획화사업에서 군중로선을 관철할데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강조하시였다:

《우리는 항상 계획을 생산자들과 토의하여 작성하며 그 계획을 생산자대중자신의것으로 전환시키도록 하는 원칙을 견결히 지켜야 하겠습니다.

계획은 반드시 생산을 지도하는 사람이 직접 작성해야 합니다.》(《대안의 사업체계를 더욱 발전시킬데 대하여》, 10페지)

생산을 지도하는 사람이 생산자들과 직접 협의하여 계획을 세우며 계획을 생산자들자신의것으로 만드는것—이것은 사회주의적계획화의 기본원칙이다.

김일성동지께서 강조하신바와 같이 계획화를 잘하기 위하여서는 설비의 상태와 자재의 보장정형, 로동력, 근로자들의 사상의식과 기술수준 등 생산에 필요한 모든 요인들을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타산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모든 요인들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은 직접 생산에 참가하는 로동자들이다. 그러므로 계획은 반드시 군중과 토의하여야 한다. 군중과 토의하면 예비도 그 실현방도도 나오고 모든 문제가 다 풀린다.

생산하는 사람들과 토의하지 않고 책상머리에서 수자만 계산해서 만들어낸 계획은 결코 현실에 부합되는 계획으로 될수 없다.

계획화사업을 광범한 생산자대중에 철저히 의거하여 진행함으로써만 현실을 정확히 반영한 과학적이고도 동원적인 계획을 작성할수 있으며 또 그 계획을 훌륭히 수행할수 있다.

군중을 동원하는 사업방법이야말로 공산주의자들의 본래의 사업방법이며 계획화사업에서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할 가장 혁명적이고도 과학적인 방법이다.

계획의 일원화와 세부화는 계획화사업에 생산자대중을 적극 인입하고 그들의 창조적열의를 옳게 조직동원하여 현실을 정확히 반영한 과학적이며 동원적인 계획을 작성하고 그를 성과적으로 실현할수 있게 하는 계획화방도이다.

계획의 일원화와 세부화를 실현함으로써 지도가 대중속에 깊이 침투하게 되며 계획을 작성하고 실행하는 모든 행정이 군중의 힘에 의거하여 수행되게 된다.

계획의 일원화와 세부화를 통하여 생산자대중은 계획작성사업에 높은 혁명적열의와 창발성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가하게 되고 구체적이고 세밀한 전투임무에 의하여 계획을 자신의 사업으로 접수하게 되며 계획실행에서 책임성과 의무성을 더욱 높이게 된다.

이것은 계획의 일원화와 세부화 방침의 실현이 생산을 지도하는 사람들이 생산자인 로동자들과 토의하여 계획을 세우며 그 계획을 생산자들자신의것으로 만들데 대한 군중로선의 요구를 철저히 구현할수 있게 한다는것을 말하여준다.

계획화사업에서 민주주의적중앙집권제원칙을 구현하고있는 일원화계획체계는 인민경제계획화사업에서 주관주의와 기관본위주의, 지방본위주의를 없애고 당의 정책적요구를 철저히 관철할수 있게 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가장 합리적이고 현실적이며 동원적인 계획을 세우기 위하여서는 국가계획기관들의 주관주의를 극복할뿐아니라 생산자들의 기관본위주의와 지방본위주의를 퇴치함으로써 전반적인 국가적리익의 견지에서 이 모순을 정확히 해결하며 국가의 요구와 생산자들의 의견을 잘 배합하여야 합니다. 바로 이 문제를 옳게 해결할 목적에서 우리는 계획화체계를 일원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종전의 계획화체계밑에서 국가계획기관일군들은 전반적인 나라살림살이와 경제발전의 전망은 잘 알지만 객관적현실과 구체적인 생산예비를 잘 모르는데로부터 주관주의적으로 될수록 보장은 적게 해주면서 많은것을 생산할것을 요구하였다. 다른한편 생산단위일군들은

구체적현실과 기업소의 생산예비에 대해서는 잘 알지만 나라의 전반적인 살림살이형편과 경제발전의 전망은 잘 모르는데로부터 될수록 많은것을 보장받고 생산은 적게 하려는 기관본위주의, 지방주의적 요소를 가지고있었다.

이와 같은 부족점들과 모순들은 경제의 규모가 커지고 부문구조가 복잡하여짐에 따라 균형을 정확히 설정하고 경제를 빨리 발전시키는데 지장을 주게 되였다.

만일 계획화사업에서 주관주의를 없애지 못한다면 계획은 현실적이고 과학적인것으로 될수 없으며 또한 기관본위주의와 지방본위주의를 없애지 못한다면 소극성과 보수주의를 범하고 계획이 동원적인것으로 될수 없다.

계획화사업에서의 주관주의, 기관본위주의와 지방본위주의는 계획화에 대한 중앙집권적지도를 강화하고 그에 기초하여 군중로선을 관철시킴으로써만 성과적으로 극복될수 있다.

계획화에서 국가의 통일적지도와 군중로선의 요구를 옳게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상하합심하고 주관적욕망과 객관적조건을 옳게 타산하며 지도와 대중의 능동적역할을 정확히 결합시켜야 한다.

바로 일원화계획체계와 세부계획화는 인민경제의 전반적부문들로부터 공장, 기업소 내부사업에 이르기까지 국가적요구에 의하여 움직이게 하며 생산자들의 높은 의식성과 창조력에 의거하여 계획화사업을 진행할수 있는 실질적인 길을 열어주고있다.

일원화계획체계와 세부계획화는 특히 당의 로선과 정책을 실현하는데 광범한 군중을 적극 조직동원할수 있게 하며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전략적방침을 매개 부문과 지방 및 기업소 계획에 옳게 구체화할수 있게 한다.

뿐만아니라 세부에 이르기까지 법적과제로서 정확히 맞물려진 계획을 정확히 실행함으로써 전반적인민경제발전에서 통일적인 움직임을 이룩할수 있게 한다.

또한 계획의 일원화, 세부화는 계획실행에서 자기 마음대로 하면 하고 말면마는 자유주의적현상을 극복하고 엄격한 규률을 세울수 있게 한다.

이것은 전사회의 움직임을 통일적으로 지도하며 경제의 급속한 장성속도를 계속 견지할수 있게 한다.

이상에서 보는바와 같이 계획의 일원화와 세부화 방침은 국가의 유일적인 인민경제계획에 의하여 나라의 전반적 경제생활을 조직하고 근로자들의 창조적열성과 적극성을 높이 발양시킬데 대한 사회주의적계획화의 과업에 전적으로 부합되며 당의 로선과 정책에 립각하여 계획화사업을 진행할수 있게 하는 가장 과학적인 계획화방침이라는것을 말하여주고있다.

실로 김일성동지께서는 종전의 계획화체계가 가지고있던 결함들과 모순들을 전면적으로 명철하게 분석하시고 그 해결의 구체적이며 과학적인 방도를 제시하시였다.

계획의 일원화와 세부화는 혁명적인 원칙과 과학적인 내용을 구현하고있음으로 하여 사회주의계획화리론발전에서 뿐만아니라 사회주의경제건설을 촉진함에 있어서 거대한 의의를 가진다.

계획의 일원화와 세부화는 이미 마련하여놓은 경제적밑천을 최대한으로 리용하며 생산과 건설을 계획적으로 급속히 확대할수 있게 함으로써 경제가 발전하고 그 규모가 커짐에 따라 전진속도를 더욱 높일수 있게 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계획의 일원화와 세부화는 사소한것에 이르기까지 국가계획으로 정확히 맞물리게 함으로써 전력공업과 채취공업을 선행시키며 공업의 골간에 살을 붙여 생산구조를 완비하고 이미 마련하여놓은 물질기술적토대를 효과적으로 리용하며 인민경제 각 부문들과 기업소들의 생산적련계를 원활히 보장할수 있게 한다.

그리하여 모든 부문들과 기업소들에서 생산을 정상화하고 생산능력을 최대한으로 높이며 경제를 급속히 장성시킬수 있게 한다.

또한 그것은 모든 생산요소들과 조건들을 구체적으로 따지고 그것들을 정확히 맞물리게 함으로써 숨어있는 예비와 생산잠재력을 남김없이 동원하고 자재, 로력, 자금의 사장과 랑비를 없앨수 있

계 한다.

이와 함께 생산과 수요를 맞물리는데 있어서 품종, 규격, 재질 및 용도별로 세분화함으로써 기업소들과 생산자들로 하여금 품종을 확대하고 질을 높이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투쟁하도록 한다.

계획의 일원화, 세부화는 나라의 경제로대를 급속히 확대하기 위한 기본건설에서도 그것을 국가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구체적인 계획에 맞물며 추진시킴으로써 건설에서 당의 정책적요구를 정확히 관철하며 건설을 더 빨리, 더 값싸고, 더 좋게 할수 있게 한다.

그리하여 일원화계획체계와 세부계획화는 전반적인민경제발전을 촉진시켜 나라의 경제적위력의 강화와 인민생활의 체계적인 향상을 이룩하며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전면적으로 발양시킬수 있게 한다.

계획의 일원화와 세부화를 실시하는 것은 특히 오늘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당대표자회결정과 공화국정부정강을 높이 받들고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소극성과 보수주의를 타파하고 사회주의건설의 혁명적고조를 견지하며 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촉진하고 조국통일의 대사변을 주동적으로 맞이하기 위하여 들끓고있는 근로자들의 혁명적열정과 로력적성과를 고무함에 있어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이와 함께 계획의 일원화와 세부화의 실시는 나라와 경제관리의 주인으로 된 근로자들의 책임성과 규률성을 강화하며 그들속에서 집단주의, 공산주의 정신을 높이 발양시키고 그들을 나라의 참된 살림군으로 키우며 전사회의 혁명화, 로동계급화 과정을 촉진시킴에 있어서도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이 모든것은 계획의 일원화와 세부화가 사회주의계획화발전의 기본방도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힘있게 촉진하는 중요한 담보라는것을 확증하여 준다.

⁂ ⁂

계획의 일원화와 세부화에 관한 우리 당의 방침을 성과적으로 실현함에 있어서 우선 중요한것은 이 방침의 정당성, 그 의의와 필요성, 수행방도들을 철저히 인식하며 그를 관철하기 위하여 한결같이 동원되는것이다.

계획의 일원화와 세부화 방침에는 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앞당기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촉진할데 대한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구상과 깊은 뜻이 스며있다.

그것은 계획화에 관한 단순한 실무적 문제가 아니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전행정에서 튼튼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중요한 정책적과업이다.

그러므로 우리 일군들은 일원화계획체계와 세부계획화에 대한 김일성동지의 사상을 깊이 체득하며 높은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이악하게 달라붙어 그것을 끝까지 관철하여야 한다.

김일성동지께서 강조하신바와 같이 계획의 일원화, 세부화 방침을 관철하는 것은 방대한 사업인것만큼 계획위원회 혼자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할수 없다.

그것은 각급 계획기관들과 계획부서들이 다 발동되여 자기의 역할을 결정적으로 높일 때만이 가능하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세부계획을 작성하는것은 방대한 사업인만큼 인원을 아무리 늘인다고 하여도 국가계획위원회혼자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할수 없습니다. 이 사업은 국가계획위원회와 함께 성계획국과 기업소계획부를 비롯한 각급 계획기관들과 계획부서들이 다 발동되여야만 실현될수 있습니다.…

세부계획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선 국가계획위원회자체가 사업방법을 고쳐 각급 계획기관들과의 련계를 강화하여야 하며 모든 계획기관들이 다 국가적립장에 서서 서로 돕고 이끌면서 일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일원화계획체계하에서 국가계획위원회는 당의 경제작전국으로서 성, 국, 기업소들과 지방계획기관들에 튼튼히 의거하여 사업하며 각 부문들과 기업소들에서 당의 의도대로 세부계획을 정확히 작성하고 그를 철저히 집행하도록 도와주며 계획화의 전행정에 대한 지도통제기능을 강화하여야 한다.

국가계획위원회는 특히 당의 정책과

객관적현실에 맞게 경제발전의 전반적 균형을 정확히 보장하도록 세부계획을 작성하는 동시에 성, 국을 비롯한 각급 계획단위들에서 그것을 구체화하는 사업을 책임적으로 장악지도함으로써 계획화사업에서 나타나는 온갖 주관주의와 기관본위주의, 지방본위주의를 없애야 한다.

국가계획위원회 지구위원회들은 생산, 기본건설, 자재공급, 운수 및 로동의 세부계획화사업에 중심을 두고 지구내 공장, 기업소 일군들과 함께 국가적 립장에 서서 생산과 수요를 아래에서 책임적으로 맞물려오는 원칙에서 기업소계획을 정확히 작성하고 국가계획작성사업에 직접 참가함으로써 계획의 객관성을 보장하고 그 실행을 지도할 임무를 옳게 수행하여야 한다.

성, 국 및 지방기관, 기업소 계획부서들은 자기 상급기관과 국가계획기관의 지도밑에 해당 단위의 계획화사업에서 세부계획화에 대한 당의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여야 한다.

중앙으로부터 지방과 기업소에 이르기까지 계획화사업의 유일성을 보장하는 기초우에서 각급 계획기관들과 계획단위들이 이상과 같은 임무를 원만히 수행할 때 일원화계획체계의 우월성을 충분히 발양시키며 세부계획화사업을 원만히 실현해나갈수 있다.

계획일군들이 경제발전의 객관적현실에 정통하는것은 과학적이고 동원적인 계획을 세우기 위한 선결조건이다. 그러므로 나라의 전반적경제형편에 대한 연구분석사업과 개별적 부문 및 기업소들에 대한 실태조사사업을 결정적으로 개선하는것이 중요하다.

계획의 일원화와 세부화 방침을 성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또한 계획화에서 군중로선을 정확히 관철하여야 한다.

생산자대중을 계획화사업에 보다 광범히 참가시키고 그들의 지혜와 창발성을 발양시킴에 있어서 중요한것은 군중토의사업을 실속있게 진행하는것이다.

군중토의사업에서는 당이 제시한 경제과업을 철저히 관철하며 내부예비를 최대한으로 동원하여 있는 로력, 있는 설비, 있는 자재로써 더 많이, 더 좋게 생산하도록 하는데 기본을 두면서 모든 계획항목별로 구체적으로 토의하여 계획규모를 확정하며 기관, 기업소들 호상간의 련계를 강화하고 그들간의 련합토의를 광범히 조직진행하는것이 필요하다.

군중토의사업을 실속있게 진행하기 위하여서는 계획일군들이 인민경제 모든 부문의 해당 지도일군들과 함께 사전준비를 철저히 갖추고 생산현장에 직접 나가서 정치사업을 앞세워 로동자들속에 당의 방침과 군중토의에서 해결하여야 할 중심문제들을 명확히 알려주고 계획을 그들과 진지하게 토의하며 제기된 의견들을 종합하여 계획에 정확히 반영하여야 한다.

계획화에서 당의 방침을 정확히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또한 합리적인 조직기술적대책들을 철저히 세우는것이 필요하다.

우선 당정책과 경제발전의 현실적요구에 맞게 계획화방법론을 혁명적으로 개선하여야 한다.

계획화사업을 정확히 보장할수 있는 방법론은 응당 당정책과 대안체계의 요구를 관철하고 계획화에서 군중로선을 구현하며 균형을 정확히 보장하고 인민경제의 내부예비를 최대한으로 동원리용할수 있도록 되여야 한다.

이렇게 하여야만 계획지표와 바란스의 체계 및 그 내용들이 옳게 규정될수 있으며 제반 조직기술적대책들도 정확히 취해질수 있다.

다음으로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계획화의 기초로 되는 기술경제적기준재정사업을 세부계획작성에 선행시키는 원칙에서 결정적으로 개선강화하여야 한다.

계획화에서는 또한 량적지표와 함께 로력, 설비, 자재, 자금의 리용과 관련된 지표들을 늘이고 세분하며 모든 질적지표들을 과학적인 기술경제적타산에

기초하여 정확히 설정하는것이 중요하다.

이와 함께 제품의 규격화와 가격제정사업, 계산통계사업을 개선강화하여야 한다.

계획규률을 강화하는것은 계획의 일원화와 세부화를 실현하고 국가계획의 성과적수행을 보장하는 중요담보이다.

우선 계획작성에서 김일성동지의 교시와 당정책에 엄격히 립각하여 계획을 세움으로써 계획에 당의 정책적요구가 정확히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계획작성사업을 선행시켜 그 기일을 어김없이 보장하며 계획작성 및 비준절차를 엄격히 준수하고 일단 비준된 계획은 국가의 법적과제로서 고정시켜야 한다.

김일성동지께서 교시하신바와 같이

《…계획은 엄격한 법적성격을 띠며 국가계획에 규정된 항목들에 대한 사소한 위반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국가규률의 위반으로 됩니다.》(《김일성선집》, 제4권, 127페지)

모든 단위들에서 국가계획과제들을 일별, 월별, 분기별로 그리고 지표별로 어김없이 완수, 초과완수하며 협동생산계획을 무조건 정확히 수행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계획작성과 수행에서 제도와 규률을 강화함으로써만 당이 제시한 계획의 일원화, 세부화 방침을 정확히 관철할수 있으며 그 우월성을 더욱 전면적으로 발양시킬수 있다.

계획화사업에 대한 당위원회들의 지도를 강화하는것은 계획화사업의 성과를 보장하는 결정적담보이다.

일원화계획체계와 세부계획화는 모든 계획 기관, 기업소 지도일군들로부터 생산자들에 이르기까지 이에 대한 당의 정책적요구를 옳게 인식하고 자각적으로 동원됨으로써만 성과적으로 보장되고 그 우월성이 발현될수 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가르치시였다:

《당의 로선과 정책을 깊이 소유하여야만 당의 의도대로 사고하고 활동할수 있으며 당 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서 신심이 생기고 투지와 열정이 나올수 있습니다.》(《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의 과업에 대하여》, 18페지)

각급 당조직들은 계획화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를 강화하며 전체 당원들과 군중들 속에서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우리 당의 계획의 일원화, 세부화 방침을 전면적으로 실현할데 대한 당의 요구를 철저히 관철하도록 정치사업을 일층 강화하여 모두가 다 높은 정치적각오를 가지고 계획화사업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게 하여야 한다.

모든 지도일군들과 계획일군들은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확고히 세우고 보수주의와 소극성, 안일과 침체를 반대하며 항상 긴장되여 일하며 생활하는 동시에 당정책과 계획실무에 정통함으로써 당의 방침을 끝까지 관철하여야 한다.

오늘 우리 나라 사회주의건설의 실천은 당이 제시한 계획의 일원화, 세부화 방침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뚜렷이 실증하고있다.

우리의 경험은 사회주의건설이 심화되고 경제관리운영이 복잡하여지면 질수록 국가가 계획화사업을 통일적으로 틀어쥐고 군중로선과 과학성의 요구를 옳게 결합하며 사회주의경제의 관리운영에서 계획성의 요구를 철저히 관철하고 계획을 세밀하게 짜고들 때 인민경제발전을 더욱 촉진시키며 생산의 높은 장성속도를 보장할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우리는 계획의 일원화와 세부화에 관한 당의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여 인민경제계획화사업에서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옴으로써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당대표자회결정과 10대정강에서 제시된 과업을 철저히 관철하여나가야 할것이다.

우리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확고히 세우고 주체적인 립장에 튼튼히 서서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계획의 일원화, 세부화 방침을 성과적으로 관철하여나간다면 우리는 반드시 혁명적대고조를 계속 견지하고 생산을 끊임없이 높은 속도로 발전시켜나갈수 있을것이다.

(《로동신문》에서)

우리 당의 주체사상에 튼튼히 의거하여 나라의 과학기술발전을 촉진하자

오 동 욱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의 10대정강에서 우리 혁명의 총적임무로부터 출발하는 당면한 정치, 경제, 문화, 군사적 과업들을 제시하시면서 우리 당의 주체사상에 튼튼히 의거하여 나라의 과학기술발전을 촉진시킬데 대한 강령적교시를 주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과학연구사업에서 기본은 우리 당과 우리 혁명이 요구하는 방향에 따라 주체적립장에 튼튼히 서서 과학기술을 발전시켜나가는것입니다. 과학연구사업에서 주체를 튼튼히 세워야만 과학자들의 창발성과 재능을 높이 발양시켜 과학기술발전을 촉진할수 있으며 자기 나라의 자원, 자기의 기술에 의거하여 우리의 경제를 더 빨리 발전시켜나갈수 있습니다.》(《국가활동의 모든 분야에서 자주, 자립, 자위의 혁명정신을 더욱 철저히 구현하자》, 55페지)

과학연구사업에서 주체적립장을 철저히 견지하는것은 과학기술이 우리 나라 혁명과 사회주의건설에 최대한 효과적으로 복무할수 있게 하는 유일하게 정확한 길이다.

우리 나라 과학기술의 기본사명은 우리 나라 혁명과 건설에 복무하는것이다.

우리는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기 위하여 투쟁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당이 제시하는 혁명과업에 철저히 복무하도록 과학기술을 연구하고 발전시켜야 한다.

우리에게는 우리 나라 혁명과 우리 나라 사회주의건설에 맞는 과학기술과 리론이 필요하다. 우리 당의 요구에 어긋나는 과학,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지 않는 과학은 아무리 연구하여도 쓸데가 없다.

우리 당의 주체적립장에 튼튼히 서서 과학기술을 발전시킨다는것은 곧 과학기술을 우리 당과 수령께서 제시하시는 혁명과업의 수행에 철저히 복무시키며 우리 나라 사회주의건설의 현실적요구에 부합되게 발전시켜나간다는것을 의미한다. 우리 나라에서의 기술혁명을 촉진시키며 우리에게 있는 풍부한 자연부원과 원료, 자재, 기술로 다방면적이고 현대적인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하고 발전시키는데 복무하도록 과학기술을 연구발전시키는것이 이 분야에서 주체를 세우는 길이다. 이렇게 하여야만 우리 나라에서의 사회주의,공산주의 건설을 성과적으로 추진시킬수 있다.

과학연구사업에서 주체를 튼튼히 세우는것은 과학자, 기술자들의 창발성과 재능을 높이 발양시켜 과학기술발전을 촉진하는데서 극히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과학연구사업에서 주체를 잃으면 사대주의,교조주의적 편향에 빠질수 있으며 과학기술과 경제발전에서 엄중한 후과를 가져올수 있다. 과학기술일군들이 사대주의와 교조주의에 빠지게 되면 자기의 독자적인 사고력이 마비되여 어떠한 창발성과 재능도 발휘할수 없게 되며 결국에는 자기의 힘을 믿지 않게 되고 모든것을 남에게만 의존하게 되며 자기의것은 다 나쁘고 남의것은 다 좋다고 하는 민족허무주의에 떨어지게 된다.

자기의 힘을 믿고 자기의 머리로 사고하며 모든 문제를 자체의 힘에 의거하여 자기 나라 혁명의 리익에 맞게 해결해나가는 주체적립장만이 과학기술일군들의 창발성과 재능을 높이 발양시켜 과학기술을 급속히 발전시켜나갈수 있게 하는 유일하게 옳은 혁명적립장이다.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주체사상에 튼튼히 서서 과학기술을 급속히 발전시키는것은 특히 우리 나라의 자원과 기술에 기초하여 경제를 계속 높은 속도로 발전시켜나갈수 있게 하는 중요한 담보이다.

당의 주체적립장에 튼튼히 서서 과학기술을 발전시켜야만 우리 나라에 풍부한 자원들을 원료로 하여 자립적인 민족공업을 더욱 발전시킬수 있으며 우리의 기술에 의거하여 나라의 경제발전을 추진할수 있다. 우리 나라의 혁명과 건설을 촉진하는데 모든것을 다바쳐 투쟁하려는 철저한 혁명적각오와 립장을 가지고 과학연구사업에 달라붙을 때 우리의 과학자, 기술자들은 나라의 내부자원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동원리용하며 없는것은 만들어내고 부족한것은 찾아내며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하는 도상에서 제기되는 어렵고 복잡한 모든 과학기술적문제들을 제때에 독자적으로 해결해나갈수 있으며 조국강토우에 더욱 부강하고 문명한 사회주의, 공산주의 락원을 건설하는데 더 크게 이바지할수 있다.

과학자, 기술자들이 우리 당의 주체적립장에 튼튼히 서는것은 형제나라들의 과학기술적성과들을 우리 나라의 부강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 효과적으로 리용함에 있어서 절실한 문제로 제기된다.

과학기술분야에서 형제나라들과의 국제주의적협조와 련계를 강화하며 다른 나라들의 선진적인 과학기술성과들을 옳게 받아들이는것은 과학기술과 경제의 발전을 촉진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그러나 이 경우에 있어서도 우리는 반드시 주체적립장에 튼튼히 서서 다른 나라의 과학기술적성과들에 비판적으로 대하여야 하며 그것을 우리 나라의 구체적현실에 맞게 받아들여야 한다.

우리 당의 주체사상에 튼튼히 의거하여 나라의 과학기술을 급속히 발전시키는것은 일군들속에서 김일성동지의 탁월하고 현명한 령도하에 날로 번영하여나가는 우리 조선민족으로서의 높은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게 하며 사대주의, 교조주의를 완전히 뿌리뽑는데서 매우 큰 의의를 가진다. 우리의 과학기술이 우리 나라 혁명과 건설의 요구에 맞게 세계적수준에서 급속히 발전하고 경제력이 더욱 강화될 때 우리 인민의 혁명적열의와 민족적자부심은 더욱 높아질것이다.

실로 과학연구사업에서 주체를 튼튼히 세우는것은 우리 나라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을 위한 결정적고리이며 혁명과 건설을 더욱 촉진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문제이다.

* *

우리 당은 다른 모든 분야에서와 마찬가지로 나라의 과학기술을 발전시킴에 있어서 시종일관 주체적립장을 확고히 견지하여왔다.

과학기술을 주체성있게 발전시키는데서 우리 당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제기한 문제는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제기되는 실천적문제들을 해결하는데 과학기술력량을 집중하는것이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당은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제기되는 실천적문제들 특히 국내의 원료원천을 가지고 우리 공업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하여 제기되는 절박한 기술적문제들의 해결에 과학부문의 력량을 집중하였습니다.》(《조선로동당 제4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 38페지)

과학기술발전에서 주체를 세우기 위하여 제기한 우리 당의 방침은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주체사상을 이 분야에 구현한것으로서 우리의 과학자, 기술자들의 행동의 지침이며, 우리의 과학기술을 나라의 혁명과 건설의 요구에 맞게 빨리 발전시킬수 있게 한 가장 옳은 길이였다.

과학기술분야에서 주체를 세울데 대한 우리 당의 정확한 방침이 있었기때문에 우리는 경제건설과 국방건설 및 인민생활의 다양하고 부단히 장성하는 중공업 및 경공업 제품과 농업생산물에 대한 수요를 국내산으로 충족시킬수 있게 되였으며 주체적인 공업 즉 우리 나라에 풍부한 자연부원과 우리의 기술에 의거한 자립적민족공업을 가질수 있게 되였다.

우리는 주체가 철저히 선 공업의 대표적실례의 하나로서 비날론공업을 들수 있다.

김일성동지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비날론공업은 완전히 우리의 주체적공업이다. 그것은 비날론이 우리의 과학자에 의하여 세계에서 처음으로 발명되고 비날론공장이 우리의 과학자, 기술자들과 영웅적로동계급의 힘에 의하여 건설되였을뿐만아니라 특히는 그것이 우리 나라에 풍부한 원료원천에 의거한것이기때문이다. 사실상 자기 나라의 원료원천에 의거하지 않는 공업은 자립적민족공업이라고 말할수 없다. 우리는 과학기술분야에서 주체를 세울데 대한 우리 당의 정확한 방침의 결실로서 비날론공장을 들어 당당히 세계에 자랑할수 있다.

이외에도 갈을 원료로 하는 인조섬유생산의 공업화, 무연탄가스화에 의한 암모니아의 생산을 비롯한 자체의 원료원천에 의거한 공업을 발전시키는데서 우리의 주체적과학기술은 거대한 위력을 발휘하고있다.

과학기술분야에서 주체를 확립하기 위한 우리 당의 정확한 방침에 의하여 우리는 이미 마련된 생산토대를 더욱 정비보강하며 새로운 공업부문들을 창설하는 등 자립적민족경제의 토대를 더욱 공고히 하는데서 커다란 성과를 달성할수 있었다. 특히 우리는 자체의 힘으로 현대적인 대형기계설비들을 생산해냄으로써 생산을 발전시키며 근로자들의 로동을 헐하게 하는데서 획기적인 전진을 이룩하였다. 아연 및 석도금판 생산설비, 대형뜨락또르, 3,500톤급 대형랭장운반선, 1천마력디젤엔진, 보습식채탄기와 쌍원통채탄기 등 현대적인 기계설비들이 우리의 과학자, 기술자, 로동자들의 힘에 의하여 생산되고 수다한 창의고안, 합리화안들이 생산에 도입되여 큰 위력을 발휘하게 되였다.

나라의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제기되는 실천적문제들의 해결에 이 부문의 력량을 집중하는것과 함께 우리 당이 과학기술분야에서 주체를 세우기 위하여 제시한 중요한 방침은 새사회건설의 요구에 맞게 자체의 민족간부를 대량적으로 양성하는것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찌기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정치, 경제, 문화의 각 방면에 유능한 민족간부가 없이는 독립국가를 건설할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국가건설의 각 분야에 필요한 민족간부를 대량적으로 양성하는것은 공화국정부앞에 나선 가장 중요한 과업의 하나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1권, 258페지)

해방후 새사회건설의 길에 들어선 우리 당앞에 가장 큰 난관의 하나로 제기되였던 문제는 민족간부 특히 민족기술간부가 극히 적은것이였다. 일제시기 우리 민족은 자기의 기술간부를 가질래야 가질수 없었다. 자체의 튼튼한 민족기술간부의 대렬을 준비함이 없이는 나라의 과학기술발전에서 주체적립장을 견지하는 문제도, 부강하고 문명한 독립국가를 건설하는 문제도 해결할수 없었다.

우리 당은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명확한 방침에 따라 해방후 첫시기부터 근로인민출신의 새로운 과학기술일군들을 대대적으로 길러내는 한편 오랜 과학기술일군들을 대담하게 포섭하고 교양개조하는 정확한 방침을 실시하였다.

우리 당은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에 확고히 의거하여 온갖 난관을 극복하면서 자체의 민족간부대렬을 자기의 힘으로 꾸리는데 모든 힘을 돌리였다. 당은 간부양성사업과 교육사업을 다른 사업에 확고히 선행시키는 방침을 일관하게 견지하였으며 간부양성사업의 내용과 방향을 규정함에 있어서도 철저히 주체적립장을 견지하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나라의 경제형편이 펴이지 못했던 해방후의 그 어려운 조건에서도 우리 나라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을 위하여 모든것을 아끼지 않으셨으며 민족간부양성기지들을 몸소 하나하나 꾸려나가시였다.

그이께서는 해방후에 벌써 우리 나라 과학발전과 민족간부양성기지인 김일성종합대학을 직접 창설하시고 대학내에 부문별 과학연구소들과 연구원, 박사원을 설치하도록 하시였다. 그리고 과학연구에 필요한 모든 물질적조건을 마련하여주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전쟁의 가렬한 불길속에서도 나라의 만년대계를 위하여 과학원을 창설하시였고 전후에는 과학연구기관들을 부단히 확장하고 그의 물질적토대를 강화하는데 온갖 배려를 돌리시였다.

우리 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나라 혁명과 건설의 매 단계와 매시기마다 과학연구사업의 방향과 방도들을 명확히 밝혀주시였으며 과학자, 기술자들을 나라의 귀중한 보배로 아끼시고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충실히 복무하는 혁명가로 키우시기 위하여 극진히 보살펴주시였다.

우리의 과학기술일군들은 김일성동지의 어버이사랑속에서 그리고 그이의 꾸준한 교양과 보살핌 속에서 오늘 당과 혁명을 위하여, 로동계급과 전체 근로인민의 리익을 위하여 복무하는 훌륭한 과학기술일군으로, 수령의 붉은 과학기술전사로 자라났으며 나라의 경제, 문화 건설에 귀중한 기여를 하고있다.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와 극진한 배려로 하여 우리 나라에는 현대적실험수단들과 시험공장을 갖춘 수많은 과학연구소들을 비롯한 과학연구기지가 마련되였으며 42만 5,700여명의 붉은 기사, 기수 및 전문가들의 대부대가 꾸려지게 되였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자기의 기술자, 전문가들의 지혜와 힘으로 인민경제 모든 부문이 훌륭히 관리운영되고있으며 새로운 현대적공장, 기업소들이 부단히 건설되고있다.

과학기술분야에서 달성된 세인을 경탄케 하는 모든 성과들은 오직 우리 인민을 항상 승리와 영광에로 인도하여주시는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시종일관 나라의 과학기술을 주체성있게 발전시키신 결과이며 그이의 위대한 혁명사상, 주체사상의 빛나는 승리이다.

* *

오늘 우리앞에는 과학기술을 더욱 빨리 발전시켜야 할 중대한 과업이 나서고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현시기 우리 나라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가장 중심적인 과업인 전면적기술혁명의 수행은 과학기술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킬것을 절박하게 요구하고있습니다.

우리는 과학의 요새를 점령하기 위한 줄기찬 투쟁을 전개하여 이 분야에서 일대 비약을 일으킴으로써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의 당면한 기술개건사업을 원만히 보장하여야 할것입니다.》(《국가활동의 모든 분야에서 자주, 자립, 자위의 혁명정신을 더욱 철저히 구현하자》, 55폐지)

우리 나라에 조성된 혁명정세와 경제발전은 이미 마련된 과학기술적토대와 경험에 기초하여 나라의 경제적자립성을 더욱 강화하며 전면적기술혁명을 촉진할수 있는 주체적인 과학기술을 급속히 발전시길것을 그 어느때보다도 절박한 요구로 제기하고있다.

우리는 나라의 방위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서도, 우리 인민경제의 높은 장

성속도를 계속 견지하고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참다운 우월성을 더욱 높이 발휘시키기 위하여서도, 우리 인민의 민족적자부심과 우월감, 긍지감을 더욱 북돋아주기 위해서도 과학과 기술을 더욱 급속히 발전시켜야 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공화국정부의 위대한 10대정강에서 우리 나라 과학기술을 급속히 발전시켜야 할 필요성과 함께 과학기술발전의 방향과 과업 및 그 실현을 위한 방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공화국정부정강에서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과학자, 기술자들앞에 나서는 당면한 과업은 이미 있는 경제토대를 완전히 리용하기 위한 과학기술문제들을 해결하는 동시에 인민경제발전의 전망과업으로부터 출발하여 새로운 과학기술분야를 부단히 개척해나가는것입니다.》(우와 같은 책, 56페지)

현존생산토대를 효과적으로 리용하며 나라의 경제적자립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나서는 과학기술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은 현시기 과학기술일군들의 선차적과업이다.

우리는 모든 공업부문들에서 생산공정을 기계화하고 점차 반자동화, 자동화를 실현하며 특히 지방공업의 기술개건을 촉진하여야 한다. 또한 농촌경리에서 기술혁명을 계속 추진시켜야 하며 농업생산을 확고한 과학기술적토대우에 올려세워야 한다.

우리는 공장들을 더욱 보강완비하며 생산을 정상화하는데서 요구되는 기술문제, 설비리용률을 높이며 원자재와 로력을 더욱 절약하기 위한 기술적문제, 품종을 늘이고 제품의 질을 결정적으로 높이기 위한 기술적문제 등 긴절한 문제들을 해결하여야 한다.

우리는 또한 내화물의 질을 높이기 위한 연구사업, 무연탄에 의한 제철법과 콕스생산에서 우리 나라 석탄을 쓰는 등 흑색야금공업의 자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연구사업, 자체원료에 의한 알루미니움생산에 대한 연구사업, 마그네사이트분광을 처리하며 마그네샤크링카의 규산분을 낮추기 위한 연구사업, 우리 실정에 맞는 성능이 높은 기계화 및 자동화 수단들을 만들어내기 위한 연구사업, 명반석에 의한 카리비료생산과 새로운 살초제의 생산, 나프탈린을 쓰지 않는 가소제의 생산을 비롯하여 인민경제의 화학화를 추진시키기 위한 연구사업에 과학기술력량을 집중하여야 한다.

또한 우리는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소극성과 보수주의, 신비주의를 불사르고 낡은 공칭능력을 대담하게 마스고 부단히 새로운 높은 기준을 창조하며 낡은 기계설비들을 개조완성하여 현대적수준에 끌어올리며 선진기술공정을 광범히 도입하기 위한 투쟁을 적극 진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인민경제에 내재하는 모든 예비와 가능성을 남김없이 동원하여 생산을 한계단 더 버쩍 끌어올리고 인민경제와 주민들의 수요를 더욱 원만히 충족시켜야 한다.

이와 함께 과학자, 기술자들은 나라의 경제적자립성의 강화와 인민경제발전의 전망적요구에 부합되게 새로운 과학분야를 부단히 개척해나가야 한다.

오늘 과학기술분야에는 인민경제발전의 당면과업으로 보나 전망과업으로 보나 기술공학, 특히 기계공학과 전자공학을 빨리 발전시켜야 할 절실한 과업이 나서고있다.

기계공학을 발전시킴이 없이는 현대적공장을 건설하고 최신기계설비를 만들며 공장과 설비능력을 높이는데서 제기되는 기술적문제를 원만히 해결할 수 없다. 또한 과학과 기술이 발전하고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자동화가 널리 도입됨에 따라 전자공학의 의의와 역할은 더욱더 높아지고있으며 그 적용분야는 부단히 늘어나고있다. 이러한 조건에서 기계공학분야를 빨리 추켜세우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전자공학에 대한 연구사업은 모든 방면에 걸쳐 힘있게 추진시켜야 한다.

우리의 과학기술일군들은 또한 온갖

자연피해를 철저히 막기 위한 기상과학과 수리공학연구사업을 강화하며 새로운 석유화학공업의 창설에서 제기되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해결하며 나라의 풍부한 자연부원을 효과있게 개발리용하고 자연을 성과적으로 정복하기 위하여 화학, 생물학, 농업과학, 림산과학, 해양과학 등을 발전시키는데도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한다.

우리는 국방력을 강화하는데서 제기되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의 해결에 또한 계속 커다란 힘을 넣어야 한다.

당과 수령께서 과학기술분야에 제기하고있는 방대한 과업들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우리 과학자, 기술자들이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주체사상과 그 구현인 당의 로선과 정책으로 철저히 무장하여야 한다.

과학자, 기술자들이 당정책을 모르고 우리 당의 유일사상으로 무장하지 않고는 당과 혁명의 요구에 맞는, 사회주의건설의 실천과 부합되는 옳은 연구과제를 설정할수 없으며 과학연구사업에서 성과를 거둘수 없다.

우리 당과 혁명의 요구에 맞는, 우리나라의 현실에 필요한 과학을 연구하고 발전시키자면 반드시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주체사상과 그 구현인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으로 철저히 무장하여야 한다.

오직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주체사상과 그 구현인 우리 당정책을 잘 연구하여 당의 유일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여야만 우리의 과학자, 기술자들은 과학연구사업에서 사대주의와 교조주의를 철저히 없애고 우리 나라 혁명과 사회주의건설의 실천에서 제기되는 긴절한 과학기술적문제들을 자력갱생의 원칙에서 제때에 훌륭히 해결해나갈수 있으며 당과 수령께 충실한 혁명가로 될수 있다.

그러므로 과학자, 기술자들은 무엇보다도 먼저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고 당정책을 자기의 뼈와 살로 만든 다음에 전공부문과학지식을 더 깊이 습득하도록 하여야 하며 당이 과학기술분야에 제시한 과업들을 수행하는데 모든 지혜와 재능을 다바쳐야 한다.

우리는 당의 유일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는 동시에 우리들속에 남아있는 리기주의사상을 비롯한 소부르죠아사상, 부르죠아사상을 뿌리빼고 자신을 로동계급화, 혁명화하여야 한다.

과학자, 기술자들이 자신을 로동계급화, 혁명화하는데서 가장 좋은 방법은 당조직생활을 비롯한 모든 조직생활을 강화하는것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인테리들을 혁명화하는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속에서 당조직생활을 비롯한 모든 조직생활을 강화하는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조직규률을 지키고 집단주의정신을 배양하며 자기비판도 하고 호상비판도 하며 직접 비판을 받기도 하고 남이 비판받는것을 곁에서 듣고 뉘우치기도 하는 과정을 통하여 부단히 사상이 단련되여나가는것입니다. 그러므로 조직생활을 강화하는것은 사람들을 혁명화하는데서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누구든지 조직생활을 하기 싫어하면 혁명화될수 없고 따라서 반드시 과오를 범하게 된다는것을 경험은 잘 말해준다.

우리들은 자신이 지금 혁명을 하고있다는것을 똑똑히 알고 당의 강한 통제밑에서 자기비판도 하고 조직생활을 잘하여 자신을 부단히 혁명화함으로써 우리 인민들에게 인류력사상 가장 훌륭한 사회주의제도를 마련하여주시였으며 과학자, 기술자들에게 광활하고 보람찬 앞길을 펼쳐주신 경애하는 수령께 끝까지 충실한 혁명가로서 인생을 바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여야 한다.

혁명전통학습을 강화하는것은 과학자, 기술자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데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우리는 혁명전통학습을 강화함으로써 김일성동지의 혁명투쟁력사와 령도의 현명성, 높은 덕성을 깊이 체득하여 그이의 혁명사상으로 무장하며 항일유격대원들의 김일성동지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 불요불굴의 혁명정신과 혁명에

대한 높은 책임성, 조국에 대한 열렬한 사랑과 혁명적동지애 등을 본받고 그것을 과학연구사업과 생활에 철저히 구현하도록 하여야 한다.

주체적립장에서 나라의 과학기술을 급속히 발전시키기 위하여서는 과학자, 기술자들의 자질을 결정적으로 높여야 한다.

김일성동지께서 교시하신바와 같이 당의 정책으로 철저히 무장하고 과학지식수준이 높은 과학기술일군에게는 사대주의와 교조주의가 있을수 없다.

우리는 강한 학습기풍을 세우고 꾸준히 학습함으로써 수령의 혁명사상으로 더욱 철저히 무장하고 과학리론수준을 높여야 하며 우리 나라 사회주의건설에 더 적극적으로 기여하여야 한다.

과학기술을 급속히 발전시키기 위하여서는 해당 기관, 기업소 및 일군들간의 련계와 협조를 강화하는것이 필요하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과학연구사업에서 높은 성과를 거두기 위하여서는 과학자들과 과학연구기관 호상간의 련계와 협력을 강화하며 과학자들과 생산자들간의 창조적협조를 강화하여야 합니다.》
(《국가활동의 모든 분야에서 자주, 자립, 자위의 혁명정신을 더욱 철저히 구현하자》, 57페지)

우리는 기관본위주의와 공명주의, 개인리기주의를 철저히 극복하고 어디까지나 당과 혁명의 리익을 위하여 서로 돕고 이끌면서 인민경제의 기술개건에서 제기되는 긴절한 문제들의 해결에 공동의 힘을 기울여야 하며 생산자대중속에 침투하여 그들과의 창조적협조를 강화함으로써 생산과 건설에서 더욱 큰 혁신이 일어나도록 하여야 한다.

우리는 또한 새로운 과학기술적문제들을 자꾸 벌려놓을것이 아니라 인민경제적으로 절실하고 중요한 문제, 이미 착수하였거나 아직 불충분하게 해결된 문제들을 섬멸전의 방법으로 하나하나 철저하게 해결해나가야 한다.

이와 함께 과학기술부문 지도일군들은 당이 제시한 방침대로 과학기술일군대렬을 튼튼히 꾸리고 과학연구기관들의 물질기술적토대를 더욱 강화하며 과학자들로 하여금 당정책에 기초하여 주체성있는 과학연구과제를 설정하고 그것을 끝까지 책임적으로 완성하도록 지도사업을 짜고들어 진행하여야 한다.

우리의 과학연구기관에서는 대안의 사업체계의 요구대로 당위원회의 령도적역할을 높이고 모든 사업에 정치사업을 앞세우며 과학연구사업의 계획화에서 일원화 및 세부화 원칙을 철저히 관철하여야 한다.

우리의 모든 과학자, 기술자들은 우리 인민을 항상 승리와 행복에로 이끌어주시는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주위에 더욱 튼튼히 단결하여 수령께서 과학기술분야에 제시하신 영예로운 혁명과업을 빛나게 수행함으로써 조국의 통일과 조선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앞당기는데 더 크게 이바지하여야 할것이다.

세계사회주의시장의 형성과 그 역할

계 응 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위대한 10대정강에서 지난 기간 우리 당이 대외무역분야에서 일관하게 견지하여온 혁명적이며 원칙적인 립장과 방침을 전면적으로 천명하시고 앞으로도 그것을 계속 철저히 관철할것을 중요하게 교시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정강에서 특히 우리 혁명과 건설의 경험을 일반화하시고 제2차세계대전후의 세계경제와 국제관계의 발전법칙을 심오하게 분석하신데 기초하여 세계사회주의시장에 관한 리론을 전면적으로 전개하심으로써 사회주의혁명이 승리하고 로동계급이 주권을 잡은 나라들에서의 자립적민족경제건설과 대외무역의 호상관계, 제국주의와 식민주의를 반대하는 나라들간의 경제적협조의 형태,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공동위업의 승리를 위해 투쟁하는 사회주의나라들간의 경제적련계의 원칙과 강화방도에 관한 학설을 창조적으로 발전시키시였다.

잘 아는바와 같이 사회주의가 세계적체계로 전환되고 제국주의기반에서 벗어나 새로 독립한 많은 나라들이 민족적독립을 수호하고 신구식민주의를 반대하며 경제적자립을 위한 투쟁을 힘차게 전개하고있는 오늘날 세계사회주의시장의 역할을 정확히 규정하며 그것을 맥박으로 강화발전시킬수 있는 옳은 길을 찾아내는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의 하나로 나서고있다. 그것은 아직 그 누구도 해명하지 못하였던 새로운 문제이며 사회주의나라들의 경제적위력과 단결을 강화하며 세계혁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절실하게 해결을 기다리는 문제였다.

우리 시대의 혁명의 위대한 수령이시며 탁월한 맑스—레닌주의자이신 4천만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현시대 혁명발전의 이 절박한 요구를 깊이 통찰하시고 맑스—레닌주의를 독창적으로 발전시킴으로써 세계사회주의시장의 역할과 그 강화방도에 관한 가장 원칙적이며 과학적인 해답을 주시였다. 이것은 실로 사회주의진영이 형성되고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의 수많은 나라들이 저주로운 제국주의식민지멍에에서 벗어나 정치, 경제적 자립의 길에 들어선 20세기후반기의 정세를 정확히 반영한것이며 맑스—레닌주의경제학설의 새로운 경지를 개척한것으로 된다.

철저한 계급적립장과 혁명적원칙성으로 일관되여있는 세계사회주의시장에 관한 김일성동지의 심오하고도 독창적인 사상과 명제들은 우리 당 대외무역정책의 강령적지침이며 사회주의나라들사이의 경제관계를 발전시키고 세계사회주의경제체계의 위력을 강화하며 세계혁명운동을 촉진함에 있어서 커다란 리론실천적의의를 가진다.

1

김일성동지께서는 공화국정부정강에서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세계사회주의시장은 제2차세계대전후 우리 나라를 비롯한 일련의 나라들이 자본주의체계에서 떨어져나와 사회주의가 한 나라의 범위를 벗어나 세계적체계로 전환된 경제적결과로서 형성되였습니다.》(《국가활동의 모든 분야에서 자주, 자립, 자위의 혁명정신을 더욱 철저히 구현하자》, 63페지)

김일성동지의 이 교시는 세계사회주의시장이 세계자본주의시장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계기에 의하여 이루어졌음을 명시하고있다.

다 아는바와 같이 지금 세계에는 사회주의시장과 자본주의시장이 존재하고있다. 사회주의시장과 자본주의시장은 그것들이 기초하고있는 매개 민족국가들에서의 생산수단에 대한 소유형태, 생산방식의 형태가 본질적으로 다른것만큼 그 형성과 발전의 계기들도 서로 다르다.

세계자본주의시장은 자본주의적생산방식의 경제적결과로서 수백년동안에 걸쳐 형성되였다.

세계자본주의시장은 그 형성의 첫시기부터 다른 나라 인민들을 예속시키고 뒤떨어진 나라들을 억압착취하며 해외시장을 쟁탈하기 위한 자본주의나라들간의 치렬한 경쟁을 통하여 존재해왔다.

그러나 세계사회주의시장은 이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계기에 의하여 형성되였다.

김일성동지께서 명시하신것처럼 세계사회주의시장은 제2차세계대전이후 사회주의가 한 나라의 범위를 벗어나 세계적체계로 전환된 경제적결과 이루어졌다.

세계사회주의시장은 처음부터 미제를 두목으로 하는 제국주의렬강들의 악랄한 경제봉쇄정책을 반대하는 투쟁속에서 형성되고 발전하여왔다. 제국주의자들은 세계사회주의시장을 그 형성초기에 압살하기 위하여 사회주의나라들에 대한 경제봉쇄정책을 집요하게 실시하였다.

특히 미제는 제2차대전후 제국주의렬강들을 중심으로 한 제놈들의 추종국가들을 규합하여 광란적인 새전쟁준비에 광분하는 한편 사회주의나라들을 경제적으로 봉쇄하는데 더욱 혈안이 되여 날뛰였다.

미제가 1948년부터 실시한 이른바 《마샬계획》은 그 대표적실례의 하나로 된다.

당시 전쟁상인으로 악명높은 미국무장관 마샬이란자에 의해 제창되였던 이 《계획》은 전후 서구라파나라들에 조성된 경제적난관을 리용하여 《원조》, 《차관》등의 명목으로 상품을 수출함으로써 이 나라들을 예속시키고 제놈들의 수출시장을 확보하는 동시에 당초부터 사회주의나라들을 반대할것을 주요목적으로 한 철두철미 침략적인 《계획》이였다. 미제는 《마샬계획》을 통하여 서구라파자본주의국가들로 하여금 사회주의나라들을 반대하며 특히 이 나라들에 대한 수출봉쇄정책을 실시하게끔 피하였던것이다. 그러나 사회주의나라들에 대한 미제의 이러한 경제봉쇄정책은 여지없이 파탄되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찌기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인민민주주의국가들의 경제발전의 통화는 사회주의와 민주주의 진영에 대한 미제국주의자들의 경제적봉쇄정책이 실패로 돌아갔다는것을 보여주고있습니다. 이러한 봉쇄는 다만 그 제창자들에게만 해를 끼쳤을뿐입니다. 사회주의와 민주주의 진영에 대하여 말한다면 이 진영의 나라들은 제국주의자들의 봉쇄에 대한 대답으로 서로 더욱 단결하고 경제적협조를 강화하여 자본주의세계시장에 대립하는 자기의 사회주의적세계시장을 이루어놓았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1권, 355페지)

세계제패의 옛꿈을 버리지 않고있는 미제는 오늘도 계속 다른 나라들에 대한 침략과 략탈정책을 실시하면서 사회주의나라들을 경제적으로 《질식》시키려고 피하고있다.

미제는 오늘 세계사회주의시장에 쐐기를 박아 그것을 분렬와해시켜보려고 음흉하게 시도하면서 특히 우리 나라를 비롯한 웰남, 꾸바 등 작은 나라들과 분렬되여있는 나라들에 대한 경제봉쇄를 악랄하게 감행하고있다. 미제는 이렇게 함으로써 어리석게도 사회주의나라들을 《각개격파》해보려는 제놈들의 세계전략을 실현하기 위한 경제적조건을 마련하려 하고있는것이다. 그러나 미제의 이러한 시도는 성공할수 없다.

지금 미제는 조선, 웰남, 꾸바와 무역하는 나라들에 대하여서는 물자를 수송하는 배마저 제놈들의 항구에 들

여놓지 않겠다고 위협하고있으나 그에 응하는 자본주의나라는 미국놈의 괴뢰를 내놓고는 하나도 없다.

시장문제에서 심각한 위기를 겪고있는 자본주의나라들은 미제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우리와의 무역관계를 맺을것을 원하고있으며 공장설비를 포함한 여러가지 물자를 장기간의 분할지불조건으로 수출하려 하고있다.

사회주의나라들에 대한 미제의 경제봉쇄정책은 오늘날 총파산당하고있다.

세계사회주의시장의 형성과 그 강화발전은 세계경제와 국제관계발전의 합법칙적현상이며 미제는 그 어떠한 술책으로써도 력사발전의 이 객관적과정을 가로막을수 없다.

세계사회주의시장은 국제로동계급과 제국주의억만장자들간의 격렬한 투쟁의 결과 쟁취된것이며 자본주의에 대한 사회주의의 위대한 승리의 열매이다. 세계사회주의시장이 형성되고 강화발전하여온 전과정은 자본주의는 반드시 멸망하고 사회주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것을 더욱더 힘있게 확증하여줄뿐이다.

2

김일성동지께서는 10대정강에서 세계사회주의시장이 형성된 결과 세계경제와 국제관계의 발전에 주는 이 시장의 혁명적작용과 역할을 철저한 계급적원칙에 기초하여 전면적으로 밝히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세계사회주의시장은 무엇보다 먼저 매개 사회주의나라들에서의 자립적민족경제건설을 촉진하며 인민생활을 향상시키는데서 중요한 역할을 놀게 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세계사회주의시장의 형성은 사회주의나라들간의 경제 및 기술 교류를 촉진하게 함으로써 매개 나라들의 민족경제의 발전과 사회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의 축성, 인민생활의 향상에 크게 이바지할수 있게 되였습니다.》(《국가활동의 모든 분야에서 자주, 자립, 자위의 혁명정신을 더욱 철저히 구현하자》, 64페지)

사회주의나라들은 공통된 정치적 및 경제적 기초에서 단합되고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건설을 위한 동일한 목적밑에 긴밀히 련결되여있다. 그러므로 사회주의나라들이 자립적민족경제건설로선을 확고히 견지하면서 그에 기초하여 대외경제관계에서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 원칙을 고수하고 경제 및 기술 교류를 발전시키는것은 이 나라들에서의 민족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 도움을 주며 우리 시대의 가장 위력한 혁명력량인 사회주의력량을 강화함에 있어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사회주의나라들이 자체의 힘으로 자립적이며 종합적인 경제를 발전시켜야 한다는것은 결코 국제적인 경제적련계를 거부하고 자기에게 필요한 모든것을 다 자체로 만들어내야 한다는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매개 나라가 처한 자연경제적 조건도 다르며 소요단계에서 매개 나라의 생산력발전수준과 과학기술발전수준도 다르며 따라서 생산되는 원료와 제품의 품종과 량도 다르다. 그런만큼 매개 나라들은 기본적인것, 많이 요구되는것은 자체로 생산하고 적게 요구되거나 모자라거나 자기 나라에서 생산할수 없는것은 유무상통의 원칙에서 대외무역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한다. 세계사회주의시장은 바로 사회주의나라들의 민족경제발전을 촉진하는데서 필요되는 이러한 대외경제적요구를 실현할수 있게 하여주며 바로 여기에 세계자본주의시장에 대립하는 이 시장의 결정적우월성과 그것이 놀아야 할 역할의 주되는 측면이 있는것이다.

세계사회주의시장은 그 강화발전을 위한 강력한 잠재력을 가지고있다.

사회주의경제는 주권을 쥔 맑스—레닌주의당이 사회주의경제법칙의 요구를 정확히 파악하고 옳은 경제정책을 실시하여나갈 때 침체와 답보를 모르고 끊임없는 앙양을 이룩할수 있다. 끊임없이 전진하고 끊임없이 높은 속도로 발전하는것은 사회주의경제법칙이다.

사회주의나라들은 세계인구의 3분의 1, 지구륙지면적의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 사회주의나라들에는 또한 여러가지 자연부원이 무진장하게 매장되여있으며 과학기술발전수준에서도 이 나라들은 이미 자본주의나라들을 앞서나가고있다.

이러한 모든 조건에서 사회주의나라들이 세계사회주의시장을 공고발전시키고 형제나라들간의 경제기술교류를 더욱 적극적으로 발전시켜나간다면 사회주의시장은 지금보다 몇배나 더 큰 힘을 발휘할수 있을것이며 세계사회주의 경제체계의 위력을 강화하는데 보다 큰 기여를 하게 될것이다.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세계사회주의시장은 또한 경제적자립을 위한 신생독립국가인민들의 투쟁에 유리한 조건을 지어줌으로써 이 나라들의 경제발전을 촉진하는데서 중요한 역할을 놀게 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회주의시장, 이것은 사회주의나라들뿐만아니라 신생독립국가들에도 민족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유무상통할수 있는 유리한 조건을 지어주고있습니다.》(우와 같은 책, 64페지)

오늘 제국주의기반에서 벗어나 정치적독립을 이룩한 많은 신생독립국가인민들앞에는 제국주의식민지통치의 후과를 가시고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하며 자기들의 생활을 근본적으로 개선하여야 할 절박한 과업이 나서고있다.

그런데 신생독립국가인민들이 이 중대한 과업을 실현함에 있어서 자력갱생의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는 동시에 그에 기초하여 대외경제관계를 옳게 발전시키는것이 중요한 문제로 나서고있다. 왜냐하면 지난 수세기동안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인민들을 억압하고 략탈하여온 제국주의식민주의자들은 오늘도 계속 거머리처럼 악착하게 달라붙어 이 지역 나라 인민들의 고혈을 빨아내고 그 부원을 긁어가고있기때문이다. 지금 제국주의신구식민주의자들이 여러가지 형태의 부등가교환을 통하여 이 지역에서 략탈해가고있는 리윤은 해마다 수백억딸라에 달하고 있다.

지난날 이 지역 인민들의 피를 빨아먹고 그 부원을 긁어내면서 성장하고 살쩌온 제국주의자들은 이 지역에서 순순히 물러가려 하지 않을뿐아니라 한치의 땅이라도 더 그러쥐고 예속시키려고 발광하고있는것이다. 오늘 제국주의자들은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에서 타번지고있는 민족해방운동의 새찬 불길을 끄고 신생독립국가들을 반제전선에서 하나하나 떼여내며 이 나라 인민들을 또다시 자기들에게 예속시키기 위하여 로골적인 폭력에 의거하는 동시에 《원조》, 《구라파공동시장》, 《세계경제의 통합》 등 허울좋은 간판을 미끼로 이 나라들의 경제문화생활에 계속 깊이 침투하려고 피하고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제국주의자들은 신생독립국가들에 대하여 식민주의의 새로운 형태인 신식민주의의 올가미를 들씌워 해방된 나라 인민들을 또다시 자기들에게 예속시키려고 피하고있습니다. 제국주의자들은 <원조>를 미끼로 다른 나라들을 경제적으로 예속시키며 나아가서는 이 나라들의 자주권을 짓밟는 정책을 실시하고있습니다. 오늘 제국주의렬강들이 떠벌이고있는 <구라파공동시장>과 <세계경제의 통합>과 같은것들은 다 신생독립국가들의 경제적자립을 말살하고 이 나라들을 자기들에게 예속시키려는 음흉한 침략적목적을 추구하고 있습니다.》(우와 같은 책, 67페지)

모든 사실은 제국주의자들이 신생독립국가인민들의 독립과 진보를 도와줄수 없으며 이 나라들이 제국주의자들에게 경제적으로 얽매여있는한 민족경제의 자유로운 발전과 인민생활의 근본적개선을 가져올수 없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신생독립국가인민들은 오직 자력갱생의 원칙밑에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하는 로선을 확고히 견지하여야 하며 그에 기초하여 세계사회주의시장과의 련계를 강화하고 사회주의나라들과의 대외경제관계를 발전시킴으로써 나라의 경제적자립과 인민생활향상을 다같이 촉진할수 있다.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부등가교환과 뒤떨어진 나라들의 략탈에 의한 독점적고율리윤추구의 경제법칙이 작용하는 자본주의시장과는 달리 사회주의시장은 신생독립국가들로 하여금 완전한 평등과 호혜의 원칙밑에 자기 나라에서 생산되는 여유있는 공업제품과 농산물을 실현하며 그 대신 자기 나라 경제발전에 절실히 필요한 다른 나라의 공업설비와 원료, 자재들을 구입할수 있게 하여주고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세계사회주의시장이 미제를 두목으로 하는 제국주의렬강들의 탐욕적 야망을 파탄시키고 세계자본주의경제체계의 전반적위기를 더욱 심화시키는데서 또한 커다란 역할을 논다고 가르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회주의시장의 형성은 광대한 시장을 가지고 세계경제를 롱단하는 제국주의독점체들과 외만장자들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가하였으며 특히 해외시장을 독점하고 세계원료자원을 마음대로 탈취하고 세계제패를 실현하여보려던 현대제국주의의 두목인 미제국주의의 팽창정책을 여지없이 분쇄하였으며 제국주의렬강들의 전반적경제위기를 심화시켰습니다.》(우와 같은 책, 64~65페지)

사실상 미제는 제2차세계대전에서 독일과 일본이 패하면 자본주의시장과 세계원료원천을 마음대로 빼앗을수 있다고 망상하였다.

그러나 전쟁의 결과는 미제의 기대와는 어긋났다. 자본주의시장의 범위는 축소되고 세계에는 광대한 사회주의시장이 형성되였다. 제국주의자들의 세력범위와 략탈대상지역이 절대적으로 축소됨으로써 상품판매시장과 원료산지를 위한 제국주의국가들의 투쟁은 더욱 격렬하게 되였으며 특히 세계재패를 꿈꾸던 미제의 팽창정책은 치명적인 타격을 받게 되였다.

가장 침략적이고 야수적인 미제국주의자들은 오늘 사회주의나라들을 경제적으로 봉쇄하며 후진국가인민들을 략탈할뿐아니라 다른 자본주의국가들의 경제까지도 자기에게 예속시키려고 발광하고있다. 그렇기때문에 미제국주의자들과 프랑스를 비롯한 구라파 여러 자본주의나라들간의 모순은 날로 더욱 첨예화되고있으며 세계시장을 둘러싼 기타 자본주의나라들간의 투쟁도 치열하게 벌어지고있다.

자본주의시장은 지금 매우 불안정한 상태에 빠져있으며 세계자본주의체계의 전반적위기는 계속 심화되고있다.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이러한 조건에서 만일 모든 사회주의나라들이 경제적으로 서로 유무상통하면서 사회주의시장을 공고발전시켜나간다면 자본주의시장의 불안정한 상태를 더욱 첨예화시키고 세계자본주의경제체계의 전반적위기를 더한층 심화시킬수 있을것이다.

모든 사회주의나라들은 더욱 단결하고 서로 협조하면서 사회주의시장을 끊임없이 공고발전시키며 이 시장의 전투적역할을 높임으로써 미제를 두목으로 하는 제국주의렬강들에 보다 큰 타격을 가하여야 할것이며 뒤흔들리고있는 자본주의경제체계의 위기를 더욱더 빠져나올수 없는 구렁텅이속에 몰아넣어야 할것이다.

3

김일성동지께서는 10대정강에서 세계사회주의시장의 역할을 전면적으로 분석하신데 기초하여 이 시장을 공고발전시키기 위한 혁명적이며 원칙적인 립장과 방도를 명확히 천명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세계사회주의시장을 공고발전시키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 먼저 사회주의나라들의 대외무역발전에서 사회주의시장에 선차적의의를 부여하는것이 중요하다고 가르치시였다.

이것은 사회주의나라들의 민족경제발전을 촉진하고 신생독립국가인민들의 경제적자립을 위한 투쟁을 도와주며 자본주의경제체계의 전반적위기를 심화시키는데서 노는 이 시장의 역할을 백방으로 높이기 위한 유일하게 정확한 방침이다.

물론 사회주의나라들은 세계사회주의시장을 공고발전시키고 이 나라들간의

경제적련계를 발전시키는 한편 자본주의나라들과도 경제적관계를 맺을수 있다. 그러나 자본주의나라들과의 경제실무적관계는 사회주의나라들의 대외무역에서 어디까지나 부차적의의를 가지며 그것이 대외경제관계에서 기본으로 되여서는 안된다. 사회주의나라들은 응당 형제나라들간의 경제기술교류를 촉진하고 사회주의시장을 공고발전시키는데 제1차적관심을 돌려야 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나라들이 세계사회주의시장을 공고히 하는데 선차적인 관심을 돌리고 형제나라들간의 대외경제관계를 발전시킴에 있어서 견지하여야 할 원칙적이며 혁명적인 립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회주의시장을 공고발전시키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것은 매개 형제나라가 제국주의와 식민주의를 반대하고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건설의 공동위업의 승리를 위한 정치적리익으로부터 출발하여 경제적호상관계에서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의 숭고한 정신을 발휘하며 협애한 민족리기주의를 철저히 없애는것입니다.》(우와 같은 책, 66페지)

사회주의나라들의 경제관계에서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의 숭고한 정신을 발휘하며 협애한 민족리기주의를 없애는 것은 형제나라들간의 호상관계의 규범과 경제적련계의 성격으로부터 나오는 원칙적요구이다.

사회주의나라들은 완전한 평등과 자주성, 호상존중과 내정불간섭 및 동지적협조의 원칙에 기초하여 련결되여있다. 또한 사회주의나라들간의 경제적련계는 제국주의와 식민주의를 반대하고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건설의 공동위업의 승리를 위한 정치적리익으로부터 출발하여 서로 돕고 이끌어주는, 력사상 처음보는 새로운 형태의 경제관계이다. 그러므로 사회주의나라들은 다른 모든 분야에서와 같이 대외경제관계에서도 먼저 정치적리익을 귀중히 여겨야 하며 그로부터 출발하여 진심으로 동지적으로 도와주는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의 숭고한 정신을 발휘하여야 한다. 경제적리해관계를 동반하는 무역관계라 하여 이 원칙적요구를 무시하고 협애한 민족리기주의에 사로잡혀 사회주의시장에 자본주의시장에서와 같은 질서를 도입하며 사회주의시장의 계급적본질을 흐리게 할수는 결코 없는것이다.

공통된 정치적 및 경제적 기초에서 단합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동일한 목적으로 련결된 형제나라들간의 경제관계에서 다같이 서로 도와주는것은 응당한 국제주의적의무이다.

특히 발전된 사회주의나라들이 제국주의를 반대하고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경제적으로 뒤떨어진 나라들에 대하여 어떠한 정치적부대조건이나 아무러한 사심도 없는 더많은 물질적지원을 주는 것은 이 나라들로 하여금 제국주의자들의 경제봉쇄를 성과적으로 물리칠수 있게 할뿐만아니라 자본주의시장과 거래를 적게 하고 사회주의시장에 의거할수 있게 하는 중요한 조건으로 된다.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사회주의나라들은 어떤 경우에나 결코 계급적립장을 떠나거나 공산주의적도덕과 동지적의리를 잊어버릴수 없다. 사회주의나라들은 전세계 로동계급의 국제적련대성에 의하여 굳게 련결되여있으며 계급적동맹의 원칙을 확고히 고수할때 사회주의력량과 국제공산주의운동은 더욱 강화발전할수 있다.

사회주의나라들은 제국주의를 반대하고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건설의 공동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혁명과 건설에서 민족적리익과 국제적리익의 통일을 위하여 형제나라들간의 경제적련계를 긴밀히 하며 세계사회주의시장을 공고발전시키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하여야 할것이다.

오직 이렇게 하여야만 사회주의나라들은 세계자본주의경제체계에 비한 세계사회주의경제체계의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키고 형제나라들간의 경제관계에서 계급적원칙을 확고히 고수할수 있으며 사회주의력량의 위력과 단결을 더욱 강화할수 있다. 또한 이렇게 하여야만 사회주의를 위한 국제로동계급의 혁명

투쟁과 함께 우리 시대의 위대한 혁명력량인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인민들의 민족해방운동을 힘있게 지원하고 세계제국주의의 생명선을 끊어버리며 세계혁명을 촉진하는데 더잘 기여할수 있다.

우리 당은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정확한 길을 따라 지난 기간 나라의 대외무역발전에서 항상 사회주의시장에 선차적의의를 부여하고 그 강화발전을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여왔다. 우리 나라 대외무역총액에서 사회주의나라들과의 무역액은 어느때나 압도적자리를 차지하였다.

우리 당은 항상 제국주의와 식민주의를 반대하고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공동위업의 승리를 위한 정치적리익으로부터 출발하여 형제나라들과의 대외경제관계에서 계급적립장과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원칙을 확고히 고수하고있으며 혁명하는 나라 인민들과의 련대성을 강화하기 위해 백방으로 투쟁하고있다. 우리는 미제국주의를 괴수로 하는 제국주의자들을 반대하여 싸우고있는 신생독립국가인민들의 투쟁을 성심성의 지원하고있다. 오늘 우리 당이 대외경제관계에서 견지하고있는 혁명적립장과 방침은 세계의 수많은 혁명적인민들로부터 깊은 신뢰와 한결같은 지지를 받고있으며 우리 혁명의 국제적련대성을 강화하는데 크게 기여하고있다.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우리 당과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정확한 방침에 따라 사회주의시장의 공고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것이며 형제나라들에 대한 자기의 국제주의적의무를 충실히 집행할것이다.

우리는 사회주의나라들과의 경제적련계를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면서 어떠한 정치적 및 경제적 부대조건도 없이 유무상통의 원칙에서 신생독립국가들과의 경제적관계를 적극적으로 발전시키며 우리의 자주권을 존중하고 우리와 경제관계를 맺기를 희망하는 각이한 사회제도를 가진 모든 나라들과의 무역 및 통상 관계도 발전시켜나갈것이다.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10대정강에 전면적으로 천명되여있는 세계사회주의시장에 관한 심오하고도 독창적인 사상과 명제들은 실로 커다란 혁명적의의를 가진다.

그것은 사회주의나라들간의 경제관계발전에서 지도적지침으로 되며 전세계로동계급의 공동의 재부인 맑스—레닌주의를 풍부히 함에 있어서 탁월한 공헌으로 된다.

오늘 국제정세와 대외시장형편은 우리의 무역발전에 더욱더 유리하게 전변되고있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혀주신 우리 당의 대외무역방침에 확고히 의거하여 그것을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무역사업에서 보다 큰 성과를 이룩할것이다.

근 로 자 제7호 (루계 317호)

편 집 위 원 회

발행소 • 근 로 자 사 주소 • 평양시 중구역 남문동
인쇄소 • 평양종합인쇄공장
인 쇄 • 1968년 7월 25일 발행 • 1968년 7월 30일

ㄱ—83284 값 50전

전세계 로동자들은 단결하라!

근로자

8 호

평양 근로자사 1968

근로자

전세계로동자들은 단결하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 관 지

제 8 호 (318)

차 례

사회주의적애국주의

우리 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이 진척됨에 따라 근로대중의 사회주의적애국주의의식이 노는 역할이 점점 더 커진다는것을 깊이 통찰하시고 근로자들에 대한 사회주의적애국주의교양을 강화하는 문제에 거대한 의의를 부여하고계시며 여러차례에 걸쳐 간곡한 교시를 주시였다.

사회주의적애국주의는 사람들을 조국과 인민의 리익을 위한 적극적인 투쟁에로 고무추동하며 당과 수령의 주위에 하나의 혁명력량으로 단합되게 하는 강력하고도 고상한 사상감정이다.

오늘 심화발전하는 우리 혁명은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사회주의적애국주의교양을 더욱 강화하며 모든 사람들이 사회주의적애국주의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할것을 절실하게 요구하고 있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사회주의적애국주의로 튼튼히 무장하는것은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더욱 철저히 세우고 자신의 혁명화를 촉진할수 있게 하며 사회주의건설을 더한층 힘있게 추진시키고 조국통일과 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앞당길수 있게 한다. 력사적인 당대표자회보고에서와 공화국정부의 위대한 10대정강에서 경애하는 수령께서 가리키신 길을 따라 천리마의 진군을 더욱 다그치고 울타리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남김없이 발양시키는 문제도, 국방력을 철벽으로 다지여 원쑤들의 침해로부터 조국과 인민을 굳건히 보위하는 문제도, 남조선형제들을 하루속히 구원하는 문제도 모든 근로자들의 불타는 애국적헌신성에 의해서만 성과적으로 해결할수 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적애국주의의 본질, 사회주의적애국주의교양의 방향과 방도 등에 대하여 맑스-레닌주의력사에서 처음으로 전면적인 과학적해명을 주시였으며 특히 사회주의적애국주의의 계급적성격을 명백히 하시고 사회주의적애국주의교양에서 계급적선을 똑바로 세울데 대한 문제를 중요하게 강조하시였다.

사회주의적애국주의 교양에 대한 김일성동지의 교시를 깊이있게 연구파악하는것은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사회주의적애국주의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는데서 제1차적의의를 가진다.

1

사회주의적애국주의는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지향하는 로동계급과 근로인민의 애국주의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적애국주의의 본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사회주의적애국주의는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지향하는 로동계급과 근로인민의 애국주의이며 그것은 계급의식과 민족적자주의식을 결합시키고 자기 계급과 제도에 대한 사랑을 자기 민족과 조국에 대한 사랑과 결합시킵니다.》(《현정세와 우리 당의 과업》, 80페지)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적애국주의가 로동계급의 력사적사명을 자각하고 그것을 위해 투쟁하는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근로인민의 애국주의라는것을 밝히시였다.

로동계급은 자신을 비롯한 전체 근로인민을 해방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실현하는것을 자기의 력사적사명으로 삼는다. 로동계급과 근로인민이 이 력사적사명을 수행하자면 식민지나라에서는 우선 빼앗긴 조국을 찾아야 하며 구경은 자기들이 주권과 생산수단의 주인으로 되는 사회주의제도를 전취함으로써 진정한 인민의 조국, 사회주의조

국을 건설하여야 하며, 조국의 자주독립을 고수하고 민족적번영을 이룩하여야 한다.

김일성동지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로동계급과 근로인민은 민족의 압도적다수를 차지하며 그들의 리익을 떠나서 민족의 리익, 민족적번영을 생각할수 없다. 그러므로 로동계급과 근로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위해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에로 나가는것, 오직 이것만이 진정으로 조국과 민족을 사랑하는 길이다.

이리하여 로동계급과 근로인민의 리익을 위해,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위해 인민의 조국을 창건하고 고수하며 륭성발전시키기 위한 애국주의, 이것이 바로 사회주의적애국주의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적애국주의의 계급적성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가 말하는 애국주의는 자본가, 지주를 위한 애국주의가 아니라 사회주의적애국주의입니다. 우리에게는 로동자, 농민과 전체 근로인민의 리익을 옹호하며 그들의 사회주의전취물을 지키는 애국주의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싸웁니까? 로동자, 농민, 근로인민을 위해서, 사회주의를 위해서, 사회주의전취물을 수호하기 위해서 싸웁니다. 그렇기때문에 우리의 애국주의는 부르죠아애국주의가 아니라 로동자, 농민이 주권을 잡은 사회주의나라에 대한 애국주의라는것을 군인들에게 철저히 인식시켜야 합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2권, 93~94페지)

이와 같이 사회주의적애국주의는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위해 투쟁하는 로동계급과 근로인민의 애국주의이며 사회주의조국에 대한 사랑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적애국주의가 계급의식과 민족적자주의식을 결합시키고 자기 계급과 제도에 대한 사랑을 자기 민족과 조국에 대한 사랑과 결합시킨다고 가르치시였다.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위해 투쟁하는 로동계급과 공산주의자들의 사상감정과 모든 활동의 기초에는 계급의식이 놓여있다. 착취사회에서의 계급들간의 불상용적모순에 대한 인식, 자기 계급에 대한 사랑과 적대계급에 대한 증오, 자기 계급의 력사적사명에 대한 인식과 이를 위하여 모든것을 바쳐 싸우려는 의지, 이러한 계급적의식이 그들의 모든 정신생활과 실천활동을 관통하고있다.

로동계급과 공산주의자들은 그들의 계급적처지와 혁명적세계관으로부터 출발하여 자기 계급과 압박받고 착취받는 전체 근로인민을 지극히 사랑하며 그들의 자유와 행복의 담보로 되는 사회주의제도를 열렬히 사랑한다.

사회주의제도에 대한 사랑은 사회주의적애국주의에서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사회주의제도를 수립하고 공고발전시킴이 없이는 로동계급과 근로인민의 자유와 행복에 대하여 말할수 없고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실현에 대하여 말할수 없다. 사회주의제도는 착취와 억압, 천대와 빈궁으로부터 로동계급을 비롯한 근로인민을 영원히 해방하고 그들에게 모든 자유와 권리와 행복을 보장하는 담보이다. 우리의 현실이 보여주는바와 같이 그것은 로동계급과 공산주의자들의 장기간에 걸친 피어린 애국적혁명투쟁의 가장 귀중한 전취물이며 이것이 있을 때 비로소 조국은 진정 인민의 조국으로 된다. 사회주의제도는 사회주의조국의 가장 중요하고 가장 본질적인 내용이며 이것이 있어야만 로동계급을 비롯한 근로인민의 행복한 생활과 민족적독립과 번영을 이룩할수 있다.

때문에 사회주의적애국주의는 중요하게 사회주의제도에 대한 사랑에서, 그것을 전취하고 고수하며 발전시키기 위한 투쟁에서 표현된다. 근로인민에 대한 사랑은 실지로 사회주의제도에 대한 사랑을 통해서만 열매를 맺을수 있다.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사회주의적애국주의에서는 계급적인것과 민족적인것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여 있다. 계급의식과 민족적자주의식이 결합되고 자기 계급과 제도에 대

한 사랑이 자기 민족과 조국에 대한 사랑과 결합되여 있는데 이것은 바로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위한 로동계급과 근로인민의 투쟁이 자기 민족과 조국을 떠날수 없다는 사정과 관련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지금과 같이 국경이 있고 제가끔 자기 나라를 가지고 민족별로 생활을 꾸려나가고있는 조건에서는 자기 조국과 민족을 잊어버릴수 없으며 공산주의자들이 자기 조국과 민족에 대한 사랑을 떠나서는 도대체 그 어떤 혁명에 대해서도 생각할수 없습니다. 우리는 조선에서 태여난 공산주의자들인것만큼 조선에서 혁명을 하고 조선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 조국과 민족을 사랑하며 자기 나라에 세워진 사회주의제도를 사랑하는 애국주의정신이 있어야 합니다.》

《자기 조국과 민족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자기 나라의 혁명에 대하여 열정을 가질수 없으며 그 승리를 위하여 몸바쳐 싸울수 없는것입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위한 로동계급과 공산주의자들의 투쟁은 자기 민족을 떠나서 진행될수 없고 승리할수 없다.

혁명투쟁은 우선 민족별로 벌어지는 것이며 로동계급은 자기 민족의 착취계급들을 청산한 다음에는 자신이 민족의 령도계급으로 되여야 한다. 로동계급이 령도하는 사회주의민족은 곧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근로인민들로 이루어진다. 사회주의하에서도 민족의 독자성, 민족적전통과 문화, 민족들간의 차이는 여전히 남아 있다. 로동계급을 비롯한 근로인민이 하나의 민족으로서 나라의 독립을 고수하고 자주적으로, 자유롭게 발전함이 없이는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할수 없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이 추진되는 과정은 동시에 그들이 정치경제문화생활의 모든 령역에 걸쳐 민족적으로 륭성발전하는 과정이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지향하는 로동계급과 공산주의자들은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것이며 그들의 애국주의에 있어서 계급의식은 민족적자주의식과 결합되고 자기 계급과 근로인민에 대한 사랑은 자기 민족에 대한 사랑과 결합되는것이다.

근로인민의 리익을 위해 투쟁하는 로동계급과 공산주의자들은 그 무엇에도 꺾이지 않는 자기 민족의 자주성에 대한 의식, 자주적인 민족적의지와 감정과 존엄에 대한 의식 그리고 자기 민족의 힘에 대한 신심을 굳건히 간직한다.

이러한 의식이 없이는 혁명과 건설에서 주체를 세우지 못하고 민족허무주의, 사대주의에 빠질수 있다.

로동계급과 공산주의자들의 민족적자주의식은 계급의식에 기초를 두고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계급적립장에선 민족적의식이며 계급의식과 결합된 민족적의식이다. 민족적의식은 그것이 계급의식과 결합됨으로써만 민족배타주의, 민족리기주의와는 인연이 없고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에 부합되는것으로,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리익에 복무하는것으로 된다.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로동계급과 공산주의자들은 또한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에서 자기 조국을 떠날수 없다.

로동계급을 비롯한 근로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위한 사회주의제도가 수립되고 그들의 물질적, 문화적 부가 창조되며 민족의 우수한 문화와 전통이 개화발전하는것도 바로 조국땅우에서 이루어진다. 조국강토와 거기에 있는 모든 부원, 이것을 떠나서 인민의 복리를 생각할수 없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생각할수 없다. 근로인민은 공산주의에 가서도 제나라땅에서 살아야 한다.

이리하여 자기 계급과 사회주의제도에 대한 로동계급과 근로인민의 사랑은 자기 조국에 대한 사랑과 떼여서 생각할수 없다.

이 모든것은 사회주의적애국주의에서 계급의식과 민족적의식이 결합되며 계급과 제도에 대한 사랑이 민족과 조국에 대한 사랑과 결합되며 거기에서 기본선으로 되는것은 어디까지나 계급

적요인이라는것을 말하여준다.

사회주의적애국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것은 혁명에 대한 자부심, 사회주의, 공산주의에 대한 자부심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가르치셨다:

《우리는 사회주의적애국주의교양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 지어 어린이들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혁명에 대한 자부심과 사회주의, 공산주의에 대한 자부심을 튼튼히 가지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혁명적세계관이 튼튼히 서있는 사람은 모든 문제를 혁명적립장에서, 공산주의적립장에서 보고 판단할줄 알며 자기의 혁명위업과 사회주의, 공산주의에 대한 높은 긍지와 자부심도 가질줄 압니다.》

로동계급과 근로인민을 사랑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위해 투쟁하는 공산주의자들과 혁명적인민들은 자기의 혁명위업과 그 전취물에 대한 높은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게 된다. 그것은 혁명적세계관으로 무장된 사람들에게 있어서 계급적착취와 민족적억압을 청산하고 자기 나라에서와 전세계에서 근로인민을 해방하며 피압박민족을 해방하는 혁명위업,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보다 더 영광스럽고 숭고하고 위대한 일이란 없기때문이다.

공산주의자들과 혁명적인민들은 혁명과 사회주의, 공산주의에 대한 높은 자부심이 있기때문에 어떤 곤난과 시련에도 굴할줄 모르며 그것을 끝까지 이겨내고 혁명의 지조를 고수할수 있으며 혁명의 위대한 전취물인 사회주의제도, 사회주의조국을 더욱 열렬하게 사랑할수 있다. 또한 자기 나라의 훌륭한 혁명전통과 혁명업적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은 사람들의 민족적자부심을 높여준다. 민족의 강의한 의지와 슬기와 모든 우수한 자질은 무엇보다도 그 나라 공산주의운동의 전통과 업적에 뚜렷이 반영되는것이며 이에 대한 혁명적자부심은 동시에 민족적자부심으로 된다.

이와 같이 혁명과 사회주의, 공산주의에 대한 자부심은 사회주의적애국주의정신에서 특별히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사회주의적애국주의는 수령에 대한 사랑과 충실성에서 집중적으로 표현된다.

로동계급의 수령은 혁명운동의 첫날부터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근로인민의 해방을 위하여, 민족의 진정한 독립과 번영을 위하여, 인민의 진정한 조국—사회주의조국을 전취할것을 구상하고 투쟁을 전개하는것이며 수령의 현명한 령도하에서만 훌륭한 사회주의제도를 창설하고 강화발전시킬수 있다.

수령은 사회주의조국의 상징이며 태양이다. 사회주의조국이 가져다주는 그 무엇에도 비길수 없는 크나큰 혜택과 행복은 바로 위대한 수령에 의해 마련되는것이다.

그러므로 자기들의 자유와 행복, 공고한 민족적독립과 번영을 보장해주는 사회주의조국에 대한 인민대중의 감사와 사랑의 정은 바로 수령에 대한 그들의 뜨거운 사랑과 충실성으로 표현되는것이다. 수령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 이것은 사회주의적애국주의의 최고표현이다.

우리 조국은 4천만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15성상에 걸친 애국적혁명투쟁에 의하여 광복되였으며 그이의 탁월한 령도밑에 진정한 인민의 조국으로 전변되였다.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하에 날로 더욱 륭성발전하는 우리의 사회주의조국은 근 반세기에 걸쳐 피눈물나는 망국노의 설음을 겪어온 우리 인민에게 최대한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세상에 부럼없는 행복한 생활을 마련해주었으며 일찌기 없었던 민족적대번영을 가져다 주었다. 이 조국은 20여년간 미제와 그 주구들의 파쑈테로통치밑에서 신음하는 남조선인민들에게 희망의 등대로, 반미구국투쟁을 고무하는 힘의 원천으로 되고있으며 오래동안 이국땅에서 민족적차별과 멸시, 극심한 생활고와 무권리에 시달려온 해외동포들에게 당당한 민족적권리와 긍지와 삶의

보람을 안겨주고있다.

이 모든것은 우리 인민을 극진히 사랑하시며 우리 민족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신 위대한 어버이수령 김일성동지의 영명한 령도와 뜨거운 육친적배려를 떠나서는 생각조차 할수 없는 일이다. 오직 그이께서 우리 혁명의 진두에 서계심으로 하여 우리 인민에게는 진정한 조국이 있고 모든 자유와 권리와 행복이 있으며 언제나 승리와 영광이 있고 래일에 대한 더 큰 희망이 있으며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륭성발전이 있다.

자기들의 생활상 체험을 통하여 이것을 심장으로 느끼고있는 우리 인민은 그가 해내해외 어디에 있건 한결같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끝없는 존경과 사랑과 흠모의 정을 안고 그이께 충성을 다할 일념으로 불타고있다. 이것은 사회주의제도, 사회주의조국에 대한 우리 인민의 사랑과 헌신성의 최고표현으로 된다.

사회주의적애국주의는 가장 철저하고 진정한 애국주의이며 가장 높은 형태의 애국주의이다.

착취자들은 그 어느때를 물론하고 진정한 애국자로 될수 없다. 부르죠아반동들이 내세우는 소위 《애국주의》란 오직 저들의 협소한 계급적리익과 정권을 수호하고 근로인민의 혁명의식을 마비시키기 위한것에 지나지 않는다.

착취사회에서도 근로인민은 참다운 애국적감정을 가질수 있으나 그것이 로동계급의 혁명적세계관과 결부되기전에는 사회주의적애국주의와 같이 철저하고 혁명적인 애국주의로 될수 없었다.

오직 근로인민의 해방과 행복을 위해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지향하여 투쟁하는 로동계급과 공산주의자들의 애국주의만이 가장 철저하고 진정한 애국주의로 되는것이며 이것은 애국주의에서 가장 높은 형태로 되는것이다.

로동계급의 세계관과 계급의식에 기초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에 복무하는 사회주의적애국주의가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와 서로 뗄수 없이 결합되고 통일되여있다는것은 론의할 여지가 없다.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적애국주의는 우리 시대의 가장 탁월한 공산주의자이시며 절세의 애국자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의하여 항일무장투쟁행정에서 형성되였으며 그 빛나는 전통이 이룩되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철저한 혁명적세계관으로부터 출발하시여 우리 인민을 열렬히 사랑하시고 민족적, 계급적 원쑤들을 무한히 증오하시였으며 망국노의 처지에서 우리 인민을 구원하고 조국땅우에 장차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실현하려는 열화같은 애국적혁명사상으로 항일무장투쟁을 조직전개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무장투쟁의 목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 조선인민의 절실한 념원은 강도 일본제국주의를 하루속히 타도하고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쟁취하는것이다. 그러므로 항일유격대는 일제를 반대하는 혁명력량을 집결하여 무장투쟁을 더욱 대규모적으로 전개함으로써 조선인민의 절실한 념원을 실현하여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만 머무를수는 없다.

우리 공산주의자들은 조선에서 모든 계급적압박을 청산하고 로동자, 농민을 착취의 멍에로부터 해방하며 우리 조국을 장차 착취없는 행복한 사회로 만들것을 자기의 변함없는 목적으로 삼는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하여, 조선에서의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위하여 오늘에 이르기까지 모든것을 바쳐 싸워오셨다. 우리 조국과 인민에 대한 그이의 불보다도 뜨거운 사랑은 사회주의적애국주의의 귀감으로 된다.

김일성동지의 숭고한 사회주의적애국주의사상으로 교양육성된 항일유격대원들은 그이께서 바로 그러하셨던것처럼 선조들의 백골이 묻힌 조국산천과 헐벗고 굶주리며 압제받는 부모형제자매를

을 무한히 사랑하였으며 조국광복의 일념으로 원쑤놈과 무자비하게 싸워 마침내 승리하였다.

항일무장투쟁행정에서 이룩된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사회주의적애국주의의 전통은 해방후 새조국건설의 전과정에서 빛나게 계승발전되였으며 그 위력을 남김없이 발휘하였다. 특히 미제의 무력침공을 반대하는 정의의 조국해방전쟁에서 무비의 용감성과 영웅성을 발휘하여 불멸의 위훈을 세운 전선과 후방의 수많은 영웅들은 오직 하나밖에 없는 조국을 위하여 둘도 없는 목숨을 서슴없이 바치는것을 더없는 영광으로 여기였다. 이것은 바로 항일무장투쟁에서 이룩된 숭고한 사회주의적애국주의의 전통을 떠나서 생각할수 없다. 전후시기 사회주의제도가 확립된 결과 사회주의적애국주의는 광범한 군중들속에서 활짝 꽃피게 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위에 한사람같이 뭉친 우리 인민은 조국의 룡성발전을 위하여 모든 애국적헌신성을 남김없이 발휘하고있다. 사회주의건설의 대고조와 위대한 천리마운동이 이것을 웅변으로 말해준다.

오늘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사회주의적애국주의사상으로 더욱 철저히 무장하고 항일무장투쟁행정에서 이룩된 사회주의적애국주의의 빛나는 전통을 더한층 계승발전시키는것은 우리 혁명의 새로운 전진을 위하여 긴절한 문제로 된다.

2

김일성동지께서는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사회주의적애국주의사상으로 무장시키기 위한 명확한 방향을 제시하시였다.

사회주의적애국주의사상으로 무장하는데서 가장 중요한것은 혁명에 대한 자부심, 사회주의, 공산주의에 대한 자부심을 높이는것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사회주의적애국주의교양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것은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혁명에 대한 자부심,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에 대한 자부심을 키워주는것입니다.

사회주의적애국주의교양은 결코 사람들에게 단순한 민족적자부심을 북돋아주려는데만 그 목적이 있는것이 아닙니다. 민족적자부심을 북돋아주는것도 필요하지만 사회주의적애국주의교양의 보다 중요한 목적은 혁명에 대한 자부심,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에 대한 자부심을 튼튼히 가지도록 사람들을 교양하는데 있습니다.》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혁명에 대한 자부심, 사회주의, 공산주의에 대한 자부심을 높이는것은 사회주의적애국주의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는데서 근본적의의를 가지는 문제이다.

우리는 이러한 자부심을 높이 간직함으로써만 모든 분야에서 혁명적인것과 반동적인것, 사회주의적인것과 부르죠아적인것을 민감하게 갈라보고 계급적선을 똑똑히 그을수 있으며 진실로 조국과 인민의 리익에 부합되게 자기의 모든 정력을 다 바쳐 투쟁할수 있다.

우리들이 혁명과 사회주의, 공산주의에 대한 자부심을 높이는데 있어서 기본으로 되는것은 위대한 수령을 모시고 혁명하는 인민이라는 무한한 영예감과 긍지감을 가지는것이다.

우리 인민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모시고 그이의 현명한 령도밑에 살며 혁명을 하고있는 자랑찬 인민이다.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 이것은 우리 인민의 지난 40년간의 력사가 명백히 실증하여주는바와 같이 조선혁명승리의 결정적담보이다. 오직 김일성동지의 탁월한 령도가 있음으로 하여 우리 인민은 혁명과 건설에서 중첩되는 난관과 온갖 풍파를 극복하고 승리에 승리를 거듭하여왔으며 조국땅우에 세기적인 변혁을 이룩하여놓았다.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가 있음으로 하여 우리는 백전백승의 강철의 당을 가지게 되였으며 우리 나라는 튼튼한 자립

제민족경제와 불패의 자위적국방력과 찬란한 민족문화를 가진 생기발랄하고 발전된 사회주의강국으로 될수 있었다.

김일성동지의 세련된 혁명적인 령도가 있음으로 하여 우리 당은 국제공산주의운동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있는 위대한 맑스-레닌주의당으로 되였으며 우리 인민은 제국주의 특히 미제를 반대하는 투쟁의 선두대렬에서 싸워나가는 영웅적인민으로 되였다.

우리는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과 고매한 덕성, 그이의 령도의 현명성을 심오하게 체득함으로써 그이를 수령으로 모시고 혁명하는 조선인민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더욱 높이 간직하여야 한다. 이 긍지와 자부심을 높이 간직할 때 우리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 무한히 충실할수 있으며 어떤 역경속에서도 일편단심 그이의 가르치심을 받들고 억세게 싸워나가는 수령의 충직한 붉은 혁명전사로 될수 있다.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조국과 인민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조국의 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하는 유일한 길이다.

혁명에 대한 자부심, 사회주의, 공산주의에 대한 자부심을 높이는데서 또한 중요한 문제는 우리가 가장 선진적인 사회주의제도하에서 살고있다는 드높은 우월감과 긍지를 가지는것이다.

우리는 김일성동지께서 마련하여주신 가장 선진적이고 우월한 사회주의제도하에서 들끓는 열정과 더욱 휘황한 래일에 대한 희망을 안고 오직 혁명을 위해 살며 일하는 무한히 행복한 인민이다. 사람마다 먹고 입고 사는데 근심걱정을 모르며 누구나 다 마음껏 공부하고 병나면 다같이 무상으로 치료받는 우리의 행복한 생활, 이것은 자본주의제도하에서는 도저히 상상도 할수 없는 일이며 다른 나라들에서 류례를 찾아보기 어려운것이다.

지난날 우리 인민이 겪은 쓰라린 생활과 오늘의 행복한 생활을 대비하여 볼 때, 오늘의 남조선인민들의 참담한 생활과 우리의 자유롭고 보람찬 생활을 대비하여볼 때 우리는 북반부에 수립된 사회주의제도가 얼마나 우월한 제도인가 하는것을 더욱 똑똑히 인식할수 있다.

우리는 이처럼 훌륭한 사회주의제도하에서 살고있는 선진적인민이라는데 대한 영예감과 당당한 자부심을 가질 때 우리의 사회주의제도, 사회주의조국을 더욱 열렬히 사랑하게 되며 그를 더욱 빛내이기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할수 있다. 또한 이러한 자부심과 긍지를 높이 간직할 때 우리는 온갖 비사회주의적이며 비계급적인것들을 멸시하고 증오하며 그를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할수 있다.

사회주의제도하에서 살고있다는 자부심을 높이자면 이 제도의 본질적우월성 특히 우리 나라에 수립된 사회주의제도의 비할바없는 우월성을 똑똑히 아는것이 중요하다.

우리는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제도하에서 살고있다는 높은 긍지와 자부심을 간직함으로써 이 제도를 열렬히 사랑하고 공고발전시키며 원쑤들의 침해로부터 수호하기 위하여 모든것을 다바쳐 싸울 사상적각오를 튼튼히 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사회주의적애국주의사상으로 무장하는데서 중요한 문제는 지주, 자본가계급과 제국주의자들을 증오하고 그들과 비타협적으로 투쟁하는 정신을 배양하는것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사람들이 지난날의 착취받고 압박받던 처지를 잊지 말도록 하며 그들을 지주, 자본가 계급을 증오하는 사상으로, 제국주의, 특히 미제국주의와 일본제국주의를 증오하는 사상으로 교양하는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사회주의제도, 사회주의조국에 대한 사랑은 이 제도, 이 조국을 침해하려는 계급적원쑤들에 대한 불타는 증오와 떼여서 생각할수 없다. 모든 근로자들과 새세대들이 미일제국주의의 침략적, 야수적 본성과 지주, 자본가 계급의 착취자적본성을 똑똑히 알고 그들을 무한히 증오하도록 하여야 하며, 지난날 지주, 자본가들이 우리 로동자, 농민들을 얼마나 악착하게 억압착취하였으며 미제와

일제가 우리 인민의 얼마나 악독한 철천지원쑤인가를 대를 두고 잊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여야 원쑤놈들에 대한 때에 사무친 원한을 기어이 풀고야 말겠다는 각오를 더욱 튼튼히 다질수 있으며 사회주의조국을 철옹성같이 수호하고 더욱 발전시키기 위하여 몸바쳐 싸울수 있다.

사회주의적애국주의사상으로 무장하는데서 또한 중요한것은 남조선을 잊지 말도록 하는것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사회주의애국주의교양에서 또한 중요한 것은 남조선을 잊지 말도록 사람들을 교양하는것입니다. 우리는 공화국북반부에서만 행복하고 보람찬 생활을 누리자고 하여서는 결코 안됩니다.》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위한 우리의 투쟁은 결코 조국의 북반부에만 국한될수 없으며 남조선인민들도 장차 다 같이 사회주의제도하에서 잘 살게 하여야 한다. 그러자면 우선 남반부인민들의 반미구국투쟁을 지원하고 절박한 조국통일의 전민족적과업을 해결하여야 한다. 우리는 생지옥에서 허덕이는 남조선인민들을 잊지 않고 그들을 구원하려는 불타는 정열이 있어야 조국통일의 위업을 앞당길수 있다.

다음으로 로동을 사랑하고 나라살림살이를 주인답게 꾸려나가는 정신을 배양하는것이 사회주의적애국주의로 무장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문제의 하나이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 특히 새세대들이 사회주의하에서 로동은 가장 영예롭고 영웅적인 사업이라는것을 철저히 인식하고 사회주의조국의 부강발전을 위하여, 전체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복무하려는 사상적각오를 다지게 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근로자들은 나라의 살림살이에 대한 주인다운 태도를 배양하여야 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회주의적애국주의교양은 반드시 나라의 살림살이를 알뜰히 꾸리기 위한 투쟁과 밀접히 결부시켜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숭고한 공산주의사상을 길러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모든 사람들이 참말로 주인다운 립장에서 나라의 살림살이를 꾸려나갈수 있습니다.》

모든 근로자들이 나라살림살이의 주인된 립장에 확고히 서서 그것을 알뜰히 꾸려나가는 습성을 가지게 될 때 우리는 이미 마련해놓은 경제토대가 더욱 큰 은을 나타내게 하고 우리의 생활을 더욱 빨리 향상시키며 사회주의조국의 부강발전을 더한층 촉진할수 있다.

다음으로 미래를 사랑하는 혁명적락관주의정신을 기르는것이 사회주의적애국주의사상으로 무장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공산주의는 우리의 미래이며 일치한 지향이다. 그러나 혁명의 길은 간고한 투쟁의 길이다. 무수한 난관과 시련을 극복하여야만 공산주의에 도달할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어떤 난관에도 굴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으며 그 어떤 환경에서도 승리의 신심드높이 락천적으로 살며 싸워나가는 정신,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승리하고 후대들이 보다 행복하게 살게 될 그 미래를 사랑하며 그날을 위해 오늘의 모든것을 바쳐싸우는 정신을 소유하여야 한다.

이러한 혁명적락관주의정신은 낡은것은 멸망하고 새것은 승리하며 제국주의는 멸망하고 사회주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력사발전의 법칙과 혁명위업의 정당성에 대한 확신에 기초하는것이다.

혁명적락관주의정신이 있어야 항일빨찌산들이 그러했던것처럼 그 어떤 원쑤도 그 어떤 난관도 두려워하지 않고 혁명의 최후승리를 향하여 끝까지 굴함없이 명랑하게 살며 싸워나갈수 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항일빨찌산들은 헤아릴수 없는 간난신고를 다 겪으면서 싸웠지마는 그들의 생활은 언제나 명랑하고 혁명적락관주의로 가득차

있었습니다. 혁명가들은 원쑤들의 첩첩한 포위속에서도 철창속에서도 단두대에 올라서서도 결코 비관하거나 용기를 잃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자기가 하는 사업의 정당성을 굳게 믿고있었으며 공산주의위업의 승리와 광명한 앞날을 굳게 믿고있었기때문입니다. 이것이 미래를 사랑하는 혁명가들의 태도입니다.» (《청소년 교양에서 교육일군들의 임무에 대하여》)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적애국주의정신을 배양하기 위해서 집단주의사상으로 무장하는것이 중요하다고 가르치셨다.

사회주의적애국주의는 집단주의의 가장 높은 표현이다. 조국과 인민을 위해,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위해 모든것을 바쳐 싸우는 애국자로 되기 위해서는 개인주의, 리기주의를 철저히 뿌리뽑고 집단주의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여야 하며 혁명적세계관을 확고히 세워야 한다. 리기주의, 개인주의를 청산하며 혁명적세계관으로 튼튼히 무장하는것은 진정한 사회주의적애국주의사상을 가지기 위한 필수적전제로 된다.

*　　*

우리는 혁명발전의 요구에 부합되게 사회주의적애국주의정신으로 더욱 튼튼히 무장할데 대한 수령의 교시를 심장으로 받들고 끝까지 관철하여야 한다.

우리는 김일성동지의 교시를 자신의 뼈와 살로 만들며 오직 수령의 가르치심을 따라 사회주의적애국주의정신으로 튼튼히 무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적애국주의사상으로 무장하는 사업을 혁명전통학습과 밀접히 결부하여 진행하는것이 중요하다고 가르치셨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절세의 애국자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숭고한 사회주의적애국주의사상을 따라배워야 한다. 이에 있어서 중요한것은 김일성동지의 혁명적가정과 초기혁명활동을 비롯하여 지난 40여년간의 혁명투쟁력사를 심오히 연구함으로써 그이의 고매한 사회주의적애국주의사상을 깊이 체득하도록 하는것이다.

이와 함께 김일성동지에 의하여 교양육성된 항일유격대원들의 사회주의적애국주의의 모범을 본받도록 하여야 하며 항일무장투쟁행정에서 이룩된 사회주의적애국주의의 빛나는 전통을 계승하여 조국과 인민을 위해 목숨바쳐 싸운 애국자들, 사회주의건설에 모든 지혜와 정력을 다 바치고있는 천리마기수들의 긍정적모범을 본받고 일반화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여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수령께 무한히 충직하고 사회주의건설에 헌신적이며 계급적원쑤들과의 투쟁에서 견결한 혁명전사로 튼튼히 준비됨으로써 북반부에서의 혁명과 건설을 더욱 촉진하며 조국통일의 혁명적대사변을 앞당기는데 적극적으로 이바지하여야 할것이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는 우리 인민의 가장 위대한 혁명적전취물

전 대 영

우리 당과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나라의 도시와 농촌에서 생산관계의 사회주의적개조가 완성된 때로부터 10년이 된다.

우리 나라에서는 1958년 8월에 농업, 수공업, 자본주의적상공업의 사회주의적개조가 완성됨으로써 오랜 세월 우리 인민들이 념원했고 항일유격대가 그것을 위하여 피흘려싸운 착취와 압박이 없고 모든 근로자들이 다같이 행복하게 사는 사회주의제도가 확고하게 세워졌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농업협동화와 개인상공업의 사회주의적개조가 완성됨으로써 우리 나라 북반부에는 착취와 압박이 없는 사회주의제도가 확고하게 수립되였다. 이것은 나라의 생산력을 급속히 발전시키며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근본적으로 개선할수 있는 광활한 길을 열어놓았다. 사회주의제도의 승리는 또한 로동계급의 령도밑에 로농동맹을 기초로 하는 전체 인민의 정치도덕적통일을 위한 사회경제적조건을 지어놓았다.》(《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의 사회주의건설과 남조선혁명에 대하여》, 17~18페지)

공화국북반부에서 사회주의제도의 확고한 수립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에서 력사적전환으로 된다.

사회주의제도가 승리함으로써 나라의 정치, 경제, 문화 등 모든 방면에서는 획기적인 전변이 이룩되였으며 우리 사회의 계급관계와 근로자들의 사회경제적처지는 근본적으로 달라졌다.

사회주의제도의 확립은 우리 인민정권의 정치적기초인 로동계급이 령도하는 로농동맹을 새로운 사회주의적토대우에서 더욱 강화하였으며 당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위에 굳게 뭉친 전체 인민의 정치사상적통일을 반석같이 공고히 하였다.

우리 인민은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의 실천투쟁에서 더욱 단련되였으며 자기들의 실지 체험을 통하여 사회주의의 길만이 진정한 자유와 행복의 길이라는것을 확신하게 되였다.

승리한 사회주의제도에 기초하여 나라의 생산력은 끊임없이 높은 속도로 발전하게 되였으며 과학과 기술, 민족문화는 전례없는 개화기에 들어서게 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우리 나라에서의 사회주의건설의 대고조와 천리마운동도 전후시기에 실현된 위대한 사회경제적변혁에 토대하여 일어났던것이다.

사회주의제도하에서 우리 인민의 생활은 더욱더 행복하고 즐겁고 흥겨운것으로 되였으며 그들의 물질문화생활은 나날이 향상되고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인민은 사회주의제도를 전면적으로 확립함으로써 이 땅우에 민족적번영의 새시대를 열어놓았으며 온 세상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선진적이고 부강한 《천리마의 나라》, 《사회주의의 오뜸가는 나라》를 일떠세웠다.

공화국북반부에서 사회주의혁명의 장성과 사회주의제도하에서의 우리 인민의 행복하고 보람찬 생활은 미제의 식민지파쑈통치밑에서 신음하고있는 남반부인민들에게 커다란 혁명적영향을 미치고있다. 공화국북반부를 자기들의 희망의 등대로 바라보고있는 남반부

인민들은 민족의 태양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품속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조국통일의 그날을 앞당기기 위하여 힘차게 싸우고있다.

60만 재일동포들을 비롯한 해외의 모든 우리 동포들도 영광스러운 사회주의 조국—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당당한 해외공민으로서 끝없는 민족적자부심과 긍지를 간직하고 민족의 존엄과 영예를 고수하며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위하여 힘차게 싸우고있다. 참으로 반만년의 유구한 우리 나라 력사에서 오늘 로동당시대와 같이 우리 조국이 륭성번영하는 때는 일찌기 없었으며 오늘처럼 전체 인민이 자기의 영명하신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위에 굳게 뭉쳐 그이의 현명한 령도밑에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제도를 꽃피워나가는 때는 없었다.

사회주의의 길에서 진정한 행복과 삶의 보람을 찾은 우리 인민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마련하여주신 고마운 사회주의제도하에서 사는 높은 긍지와 혁명적자부심을 깊이 간직하고 이 제도를 원쑤들의 침해로부터 끝까지 지키며 더욱 빛내여나가기 위해 모든것을 다바쳐 힘차게 투쟁하고있다.

* *

공화국북반부에 사회주의제도가 확립된지는 력사적으로 그리 오래지 않으나 그 뿌리는 매우 깊다.

우리 조국 땅우에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새아침은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일찌기 혁명투쟁의 길에 나서신 때부터 밝아왔다.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시고 일찍부터 혁명의 길에 나서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활동의 첫시기에 이미 맑스-레닌주의에 기초하여 선행한 모든 혁명운동을 과학적으로 총화분석하시고 철저하게 주체적이며 독창적인 정확한 혁명로선과 방침을 제시하시였으며 준엄한 시련을 몸소 타개하시면서 조선혁명을 승리의 한길로 이끄시였다.

그이께서는 초기혁명활동시기에 벌써 민족해방과 함께 무산계급해방의 과업을 제시하시고 당면하게는 일제침략자들 쳐부시고 조선의 해방과 독립을 이룩하며 앞으로는 조선에서 온갖 착취와 압박의 근원을 영원히 없애고 모든 근로자들이 서로 돕고 이끌면서 다같이 행복하게 사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할데 대한 투쟁목표를 명확히 밝히시였다.

우리 민족이 생사존망의 기로에 서있던 일제통치의 가장 엄혹하던 시기, 조선혁명의 전도가 헤아릴수 없이 암담하던 간고한 시기에 민족의 태양이신 김일성동지께서 혁명의 전두에 나서시여 조선혁명의 정확한 로선을 제시하심으로써 우리 인민은 처음으로 민족재생의 끝없는 희망과 승리의 굳은 신심을 안고 그이께서 가리키시는 길을 따라 조국의 광복과 이 땅우에 실현될 사회주의, 공산주의 휘황한 미래를 향하여 힘찬 진군을 시작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1930년대초에 조성된 국제국내정세와 초기혁명활동과정에서 이룩하신 경험과 교훈에 토대하여 조선공산주의운동과 반일민족해방투쟁을 보다 높은 형태의 투쟁인 무장투쟁에로 발전시키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이 시기 항일유격대의 목적과 사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 조선인민의 절실한 념원은 강도 일본제국주의를 하루속히 타도하고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쟁취하는것이다. 그러므로 항일유격대는 일제를 반대하는 혁명력량을 집결하여 무장투쟁을 더욱 대규모적으로 전개함으로써 조선인민의 절실한 념원을 실현하여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만 머무를수는 없다.

우리 공산주의자들은 조선에서 모든 계급적압박을 청산하고 로동자, 농민을 착취의 멍에로부터 해방하며 우리 조국을 장차 착취없는 행복한 사회로 만들것을 자기의 변함없는 목적으로 삼는다.》

김일성동지께서 직접 조직전개하신 영광스러운 항일무장투쟁은 일제침략자들

로부터 빼앗긴 조국을 다시찾고 민족의 자유와 독립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인 동시에 온갖 착취제도와 착취계급을 청산하고 이 땅우에 사회주의, 공산주의락원을 건설하기 위한 위대한 혁명투쟁이였다. 이 투쟁행정에서 장차 독립되고 부강한 사회주의조국을 창건하며 우리 민족의 무궁한 번영과 조선혁명의 종국적승리를 위한 불멸의 혁명전통이 이룩되였다. 이 시기 우리 나라에서는 김일성동지에 의하여 처음으로 인민혁명정부로선이 세워졌고 사회주의적애국주의가 형성발전되였으며 유격근거지—해방지구에서의 혁명정권의 활동과 시책을 통하여 앞으로 해방된 조국땅우에 새형태의 인민정권을 세우며 제반 인민적인 시책들을 실시하기 위한 고귀한 경험이 축적되였다.

실로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선의 공산주의자들, 항일유격대원들은 착취와 압박이 없고 모든 사람들이 서로돕고 다같이 자유롭고 행복하게 사는 선진적인 사회주의제도를 세우기 위하여 손에 무장을 들고 15성상 간고하고도 험난한 가시덤불길을 헤치면서 피어린 투쟁을 전개하여 조국을 광복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수많은 항일유격대원들이 청춘의 고귀한 피와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서슴없이 바쳤다.

오늘 공화국북반부에 세워진 사회주의제도는 이와 같이 김일성동지께서 조직전개하신 영광스러운 항일무장투쟁의 빛나는 혁명전통에 깊이 뿌리박고있으며 진정한 인민의 락원을 건설하기 위하여 피흘며싸운 항일유격대의 고귀한 혁명정신을 체현하고있다. 우리 인민은 바로 이 뿌리, 이 밑천이 있음으로 하여 해방후 새사회건설을 위한 복잡하고 어려운 투쟁에서 승리하고 력사적으로 아주 짧은 기간내에 공화국북반부에 가장 선진적인 사회주의제도를 확립할수 있었으며 그것을 급속히 공고발전시킬수 있게 되였다.

* *

우리 인민이 경애하신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이룩하신 항일무장투쟁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이어받아 그이의 령도밑에 해방후 북반부에서 착취와 압박의 모든 근원을 영원히 청산하고 사회주의제도를 확립하기까지에는 내외의 온갖 계급적원쑤들의 필사적인 반항을 물리치는 복잡하고 간고한 투쟁의 고비들을 겪어야 하였다.

해방후 세계반동의 원흉인 미제의 남조선강점으로 새사회건설을 위한 우리 인민의 앞길에는 새로운 난관이 조성되였다.

이러한 정세하에서 우리 인민은 공화국북반부에 대한 미제와 그 주구들의 끊임없는 침략책동을 물리치면서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과업을 속한 시일내에 수행하여야만 하였다.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과업을 철저히 수행하여야 공화국북반부에 조선혁명의 강력한 기지를 창설할수 있었으며 인간에 의한 인간의 온갖 착취의 근원을 영원히 청산하기 위한 사회주의혁명을 실현하고 우리 혁명기지를 더욱 강화할수 있었다.

그러나 해방직후 정세가 일시 혼란되였던 틈을 리용하여 혁명대오에 기여든 혁명의 배신자들은 우리 나라 사회경제발전의 합법칙적요구를 무시하고 혁명단계를 인위적으로 뛰여넘으려는 좌경적인 《사회주의혁명》의 구호를 내놓았으며 어떤자들은 치미적인 《부르죠아공화국》을 세워야 한다고떠들었다.

조성된 정세는 이 모든 어중이떠중이들의 잡소리를 단호히 물리치고 정확한 혁명로선을 명확히 제시하며 그 길로 대중을 지체없이 조직동원할것을 절박한 요구로 제기하였다.

우리 혁명의 이 요구는 오직 장구한 기간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의 불길속에서 풍부한 경험을 쌓으신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의하여서만 해결될수 있었다.

조국광복의 위업을 성취하시고 조국에 개선하신 김일성동지께서는 해방후 우리 나라에 조성된 복잡한 정세와 우

리 혁명의 전모를 깊이 통찰하신데 기초하여 공화국북반부를 조선혁명의 강력한 기지로 꾸릴데 대한 가장 정확하고 현명한 로선을 제시하시였으며 제때에 당과 인민정권을 창건하시고 전체 인민들을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과업수행에로 힘차게 조직동원하시였다.

사실상 우리 인민은 김일성동지의 정확한 혁명로선과 령도가 있었기때문에 해방직후의 그 복잡한 정세하에서도 제반 민주주의적개혁을 그처럼 단시일내에 가장 철저히 실현하고 공화국북반부를 조선혁명의 강력한 기지로 꾸릴수 있었으며 미제가 도발한 3년간의 가렬한 조국해방전쟁에서 위대한 승리를 쟁취하고 혁명을 앞으로 더욱 전진시킬수 있었다.

우리 나라에서 낡은 생산관계를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하고 사회주의제도를 확립하기 위한 사업은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과업을 성과적으로 완성한데 기초하여 이미 전쟁전시기부터 시작되였으며 전후시기에 와서 본격적으로 추진되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가르치시였다:

<우리 나라 북반부에서는 해방직후 1~2년내에 반제반봉건적민주주의혁명이 성과적으로 완성되였다. 그리하여 북반부는 민주주의혁명이 승리한 기초우에서 점차 사회주의에로 이행하는 과도기에 들어서게 되였다. 공화국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은 전후시기에 와서 주객관적조건들이 더욱 성숙됨에 따라 본격적으로 전개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의 사회주의건설과 남조선혁명에 대하여>, 8페지)

전후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적개조는 조국이 분렬되여 세계제국주의의 원흉인 미제와 계속 맞서있는 환경속에서 자본주의와 사회주의간의 치렬한 계급투쟁을 통하여 진행되였다.

우리 당이 도시와 농촌에서 사회주의적개조를 본격적으로 실시할데 대한 과업을 내놓았을 때 수정주의자들과 대국주의자들, 그에 추종한 사대주의자들과 교조주의자들, 종파주의자들은 별의별 궤변을 다 내놓으면서 당의 사회주의적개조방침을 반대하였다.

어떤자들은 남북이 통일되여 전국적으로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이 수행될 때까지는 북반부에서 혁명을 더 전진시켜서는 안된다고 하였으며 어떤자들은 아직 사회주의적공업화도 실현하지 못하고 현대적농기계도 없는 조건에서 어떻게 개인농민경리를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할수 있는가고 떠벌였다. 지어 일부사람들은 우리 당이 자본가를 그대로 두면서 리용하지 않고 왜 그들의 재산을 한데 합치는가고 하면서 개인상공업자들을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할데 대한 당의 방침을 시비하였다.

한편 우리 당은 이때 전쟁으로 인하여 경제가 류례없이 파괴되고 인민생활이 극도로 령락된 형편에서 전후인민경제의 복구개건과 인민생활의 안정향상을 위한 사업을 동시에 해결하는 매우 힘겨운 투쟁을 전개하면서 도시와 농촌에서 사회주의적개조를 전면적으로 추진시켜야 하였다. 이 시기 우리 인민의 창조적로동과 이미 이룩한 사회주의적 전취물을 해치기 위하여 외부에서 기여도는 적대분자들과 전복된 착취계급잔여분자들의 준동도 매우 심하였다.

이 모든것은 전후시기 우리 나라에서 실현된 사회경제적변혁이 얼마나 심각하고 첨예하고 복잡한 투쟁을 거쳐야 했는가를 말하여주는것이다.

그러나 우리 당은 김일성동지의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가 있었기때문에 전후의 그 헤아릴수 없는 난관속에서 한편으로는 자립적민족경제의 토대를 쌓고 인민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한 어려운 과업을 해결하면서 추호의 동요없이 그이께서 가리키신 사회주의적개조방침을 굿굿이 관철하여나갔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도시와 농촌에서 사회주의적개조를 수행함에 있어서 확고한 주체적립장을 견지하시고 우리 나라 사회경제발전의 특수성과 조성된 제반 정세를 깊이 분석하신데 기초하여 그 어떤 기존공식이나 경험에도 구애됨

이 없이 문제를 독창적으로 제기하시고 능숙하게 해결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인민경제의 기술적개조에 앞서 농촌경리의 사회주의적개조를 실현하며 자본주의적상공업자들도 각이한 형태의 협동경리에 망라시켜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할데 대한 창조적인 방침을 제시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현대적농기계가 거의 없는 조건에서도 생활이 낡은 생산관계의 개조를 절실히 요구하고 또 그것을 담당할만한 혁명력량이 준비되여 있는 조건에서는 협동화를 지체없이 해야 하며 또 능히 승리적으로 할수 있다는 확고한 립장을 견지하시였으며 그 관철에로 전당과 전체 인민을 조직동원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또한 우리 나라에서는 해방후 첫시기부터 사회주의적국영공업이 앞도적지위를 차지하고있는 반면에 원래부터 미약했던 자본주의적상공업은 전쟁에 의하여 더욱 혹심한 피해를 입은 형편에서 자본주의적상공업자들도 능히 협동경리를 통하여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할수 있으며 또 그렇게 하는것이 철저하게 혁명적인 립장이라는것을 명확히 천명하시였다.

사실 그때 대국주의와 사대주의, 교조주의자들이 국제공산주의운동에서 특정한 나라의 경험만을 절대화하고있던 형편에서 이러한 영단은 오직 확고한 주체적립장과 심오한 맑스-레닌주의리론으로 현실을 깊이 분석하시고 혁명의 전도를 멀리 내다보신 영명하신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만이 내리실수 있는 것이였다.

협동화운동을 지도함에 있어서 우리 당은 또한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실물교육과 자원성의 원칙을 엄격히 지켰으며 계급로선을 확고히 견지하고 이에 군중로선을 옳게 결합하는 정확한 계급정책을 실시하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당은 맑스-레닌주의의 일반적진리를 우리 나라의 구체적실정에 창조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사회발전의 성숙된 요구에 따라 제때에 사회주의적개조의 과업을 제기하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정확한 정책을 수립하였으며 온갖 좌우경적편향을 극복하면서 인민대중을 동원하여 조금도 동요없이 당의 정책을 철저히 관철하였습니다. 당의 사회주의적개조정책이 정확하였으며 대중이 그것을 열렬히 접수하고 높은 혁명적열의를 가지고 그 실현에 동원되였기때문에 우리는 농업, 수공업, 자본주의적상공업을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하는 가장 복잡하고 어려운 혁명과업을 단시일에 매우 순조롭게 완성할수 있었으며 우리 나라 북반부에 선진적인 사회주의제도를 확립할수 있었습니다.》(《조선로동당 제4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 19~20페지)

오직 맑스-레닌주의원칙과 혁명의 리익만을 귀중히 여기시고 모든 문제를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게 독창적으로 해결해나가시는 김일성동지의 확고한 주체적립장이 있었기때문에 우리 나라에서는 헤아릴수 없이 중첩되는 곤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백만 농민들과 도시의 수공업자들, 개인상공업자들을 사회주의의 길로 확고히 이끄는 가장 어렵고 복잡한 과업을 전후 불과 4~5년이라는 짧은 기간내에 아무러한 편향도 없이 성과적으로 완성할수 있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공화국북반부에 선진적인 사회주의제도를 확고히 세워놓으셨을뿐아니라 확립된 사회주의제도가 단시일내에 자기의 생활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할수 있도록 제반 창조적방침들을 취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사회주의제도가 승리한 이후 사회주의건설이 심화발전하는 행정에서 나서는 중요한 원칙적문제들; 사회주의제도가 확립된 새환경에 맞게 어떻게 당과 국가의 지도를 개선하고 경제를 관리하며 도시와 농촌간의 차이, 로동계급과 농민간의 계급적차이를 어떻게 없애고 공산주의의 물질적 및 사상적 요새를 점령하며 제국주의와 대치된 조건에서 어떻게 혁명과 건설을 최대한으로 촉진시킬것인가 등 아직 누구도 해답을 준 일이 없는 많은 문제들을

새롭게 독창적으로 제기하시고 몸소 그 해결의 모범을 보여주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 창조하신 위대한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과 그 구현인 새로운 경제지도관리체계, 사상기술문화혁명을 전면적으로 실현할데 대한 방침, 사회주의하에서 농촌문제의 종국적해결의 길을 밝힌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 인민대중의 정치사상적통일을 강화하는 사업과 적대분자를 반대하는 계급투쟁을 옳게 결합하며 전사회를 혁명화, 로동계급화할데 대한 방침,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의 병진로선 등은 모두다 사회주의제도가 수립된후 이 제도의 공고발전과 혁명의 가일층의 전진을 위한 명확한 방침과 방도를 밝힌것으로서 커다란 리론실천적의의를 가진다.

우리 나라에 확립된 사회주의제도가 극히 짧은 력사적기간에 그처럼 비할바없이 커다란 우월성과 생활력을 발휘하면서 날로 더욱 공고발전되고 있는것은 결코 우연하지 않다. 그것은 전적으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우리 나라에서의 사회주의적개조의 과업을 철저하게 해결하시였을뿐아니라 사회주의제도확립이후시기에 나서는 재반 원칙적문제들을 정확히 제기하시고 능숙하게 풀어나가고 계시기때문이다.

* *

오늘 우리 인민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제도의 승리를 위하여 싸운 혁명의 보람찬 나날들을 커다란 혁명적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돌이켜보면서 우리의 사회주의제도가 얼마나 귀중한가를 더욱 깊이 느끼게 된다.

우리 나라 사회제도는 가장 선진적이고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제도이다. 이 제도가 있기에 우리 인민은 인민정권과 생산수단의 참다운 주인으로서 누구나 의식주에 대한 걱정을 모르며 다 같이 일하고 다같이 배우며 다같이 무상치료를 받으면서 행복한 생활을 누리고있다. 또한 이 제도가 있기에 생산력과 과학기술, 민족문화가 끊임없이 높은 속도로 발전하고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나라에 세워진 사회주의제도는 우리 인민이 이룩한 가장 위대한 전취물입니다. 우리가 착취와 압박이 없고 인민이 정권의 주인으로 된 사회주의제도를 세웠기때문에 우리 인민이 행복할수 있으며 우리 나라가 빨리 륭성발전할수 있는것입니다.》(《청소년교양에서 교육일군들의 임무에 대하여》)

실로 김일성동지의 탁월한 령도밑에 지난날 항일유격대원들은 우리 나라에 인민의 행복한 지상락원, 사회주의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기 위하여 많은 피를 흘렸으며 장구하고도 간고한 투쟁의 길을 걸어왔다. 또한 우리의 영웅적로동계급과 근로자들은 수령의 령도밑에 해방후 미제의 무력침공으로부터 인민정권과 혁명의 전취물을 수호하기 위하여 수많은 귀중한 생명을 바쳤으며 전후에는 우리의 사회주의제도를 꽃피우고 더욱 공고발전시키기 위하여 땀도 많이 흘렸고 어려운 투쟁의 고비들을 용감하게 이겨냈다.

공화국북반부에 세워진 사회주의제도는 피로써 쟁취한 우리 혁명의 가장 위대한 전취물이며 우리 인민의 모든 행복의 원천이다. 우리 인민의 오늘의 행복과 래일의 번영도, 우리 조국의 무궁한 륭성발전과 후손만대의 행복한 생활도 모두 우리 사회주의제도와 직접 련결되여 있다.

우리는 항일유격대가 피로써 가져다주고 우리 인민의 땀으로 꽃피운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 혁명의 위대한 전취물을 원쑤들의 침해로부터 고수하고 더욱 빛내이며 전조선에서의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승리를 위하여 계속 힘차게 싸워나가야 한다.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우리 혁명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우리 인민의 철천지원쑤 미제가 남반부에 계속 둥지를 틀고 도사리고있으며

미제의 비호밑에 일본군국주의도 되살아나고있다. 지금 남조선에는 미제침략자들이 부식시켜놓은 지주, 자본가들의 반동적이며 반인민적인 착취제도가 그대로 유지되고있으며 남녘의 우리 동포들은 계속 기아와 빈궁, 무권리 속에서 신음하고있다.

우리는 공화국북반부에서 혁명을 더욱 전진시키고 조국을 통일하며 전조선에서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위하여 혁명을 계속하여야 한다.

사상혁명과 문화혁명을 힘차게 추진하여 전사회의 혁명화, 로동계급화를 촉진하는것은 승리한 사회주의제도에 토대하여 전체 인민을 당과 수령의 주위에 더욱 굳게 묶어세우며 혁명과 건설을 계속 힘있게 밀고나가기 위한 기본담보이다. 이것은 사회주의사회발전을 추동하는 기본동력인 전체 인민대중의 정치사상적통일을 강화하며 사람들의 의식명역에서까지 자본주의를 종국적으로 청산함으로써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보장하기 위한 결정적담보이다.

우리는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이 구현되여있는 우리 당의 모든 로선과 정책 그리고 그이께서 마련하신 우리 당의 빛나는 혁명전통을 더욱 깊이있게 학습하고 뼈와 살로 만듦으로써 자신을 당의 유일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해야 하며 혁명화, 로동계급화를 촉진해야 한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마련하여주신 우리의 사회주의제도를 더욱 열렬히 사랑해야 하며 어떠한 원쑤의 침해로부터도 이 제도를 지키기 위하여 몸바쳐싸워야 한다. 모든 근로자들은 공화국북반부에 세워진 가장 선진적인 사회주의제도에서 사는 높은 긍지와 우월감을 깊이 간직하고 이 훌륭한 제도를 더욱 빛내이며 전조선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싸우는 수령의 혁명전사로서의 영예와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

우리는 생활이 행복하면 할수록 미제의 식민지파쑈통치밑에서 헐벗고 굶주리며 피흘리며 싸우고있는 남녘형제들을 한시도 잊을수 없다. 전체 근로자들은 남반부인민들의 처지를 언제나 잊지말고 남조선에서 인민들의 투쟁이 고조되고 혁명정세가 성숙되여 우리의 지원을 요구할 때는 언제나 그들과 힘을 합쳐 조국통일위업을 성취할 결정적투쟁에 나설수 있도록 사상적으로 더욱 튼튼히 준비되여있어야 한다.

나라의 사회주의공업화와 기술혁명을 촉진하고 살림살이를 알뜰히 꾸리는것은 전체 근로자들이 다같이 일하고 다같이 배우며 병나면 누구나 다 무료로 치료를 받으면서 행복하게 사는 우리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모든 분야에 걸쳐 더욱 높이 발양시키기 위한 중요한 담보이다. 우리는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혁명의 매 일분 일초를 아껴 사회주의건설의 대고조를 계속 견지하고 나라의 살림살이를 깐지게 꾸림으로써 우리 사회주의제도의 경제적, 군사적 위력을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

공화국북반부에 세워진 사회주의제도를 공고발전시키고 조국통일과 전조선에서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싸우는것은 김일성동지의 령도밑에 항일유격대원들이 시작한 혁명위업을 그이의 령도밑에 우리 세대에 완수하는 가장 영예롭고 보람찬 혁명과업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위에 굳게 뭉쳐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위력을 백방으로 발양시키며 우리 혁명의 종국적승리를 위하여 힘차게 싸워나가는 우리 인민의 앞길에는 오직 승리와 영광이 있을뿐이다.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인민혁명정부 로선과 유격근거지에서의 그 빛나는 구현

심 학 송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스무돐이 가까와오고있다. 이 뜻깊은 민족적명절을 맞는 우리 인민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자이시며 령도자이신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무한한 충성심으로 심장을 불태우고있으며 그이의 현명한 령도밑에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투쟁하는 높은 긍지와 자부심으로 충만되여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김일성동지에 의하여 항일무장투쟁시기에 이룩된 빛나는 혁명전통에 그 깊은 뿌리를 두고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의 인민정권은 항일무장투쟁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에 그 깊은 뿌리를 두고있다. 1930년대에 벌써 조선공산주의자들은 조국광복회10대강령에서 해방된 조선에서 인민정권을 수립해야 하겠다는것을 첫조항에 내놓았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무장투쟁의 초기에 확고한 주체적립장에서 독창적인 인민혁명정부로선을 처음으로 제시하시고 그를 유격근거지에서 빛나게 구현하시였다.

이 과정에서 이룩된 불멸의 업적과 풍부한 경험은 해방후 인민정권의 창설과 공고발전의 확고한 기초로 되였으며 우리 조국의 번영과 륭성, 그리고 우리 인민들이 누리고있는 무한한 행복의 뿌리로 되고있다.

1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온갖 혁명에서 근본문제는 정권에 관한 문제이다. 로동계급은 낡은 통치기구를 파괴하고 새로운 인민정권을 창설하고 공고화하여야만 자기의 위대한 력사적 사명을 완수할수 있다.

일제의 통치기구를 파괴하고 새형태의 인민정권기관을 창설하는것은 조선인민의 반일민족해방투쟁에서 반드시 해결되여야 할 주되는 문제였다.

이 문제는 우리 인민의 경애하는 수령이신 김일성동지에 의하여 비로소 그 빛나는 해결을 보게 되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무장투쟁을 조직령도하신 첫시기에 우리 나라 혁명의 성격과 임무를 맑스-레닌주의적으로 규정하시고 가장 독창적인 인민혁명정부로선을 제시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여기에서 장차 수립될 정권의 성격과 형태, 그가 해결하여야 할 과업 그리고 정권전취의 방도를 명백히 천명하시였다.

정권의 성격과 형태는 중요하게 그 정권을 어느 계급이 령도하며 어떤 계급들이 참가하는가, 그 정권이 소여 혁명단계에서 해결하여야 할 사회정치적 과업이 무엇인가에 의하여 규정된다.

당시 우리 나라는 일제의 완전한 식민지통치하에서 민족적모순과 계급적모순이 복잡하게 엉킨 식민지반봉건사회

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나라의 사회경제적 제조건과 민족적 및 계급적 모순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신데 기초하여 조선혁명의 성격을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으로 규정하시였으며 혁명의 대상은 일제와 그와 결탁한 지주, 예속자본가, 친일파, 민족반역자들이고 혁명의 동력은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근로인민들과 소자산계급 및 민족자본가들이라고 규정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이로부터 우리 나라에 수립할 정권은 로동계급의 령도하에 로농동맹에 기초하여 일체 반일애국력량을 집결시킨 인민혁명정부로 되여야 한다고 인정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무장투쟁시기에 《…우리가 세우는 정부는 어느 임금이 다스리는것도 아니요 어느 지주나 자본가나 어느 개인의 리익을 위한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권리와 행복을 위하고 자유와 독립을 위한 우리 인민의 정부》라고 말씀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좌경기회주의자들이 고집한 쏘베트형태를 거부하고 극소수의 적대계급을 제외한 각계각층의 광범한 반일군중을 다 망라하여 참가시킬수 있게 하는 새로운 정권형태를 제시하시였다.

인민혁명정부는 일제의 식민지통치기구와 근본적으로 다를뿐아니라 낡은 부르죠아 《의회》 형태와도 하등의 인연이 없는 혁명적이고 민주주의적인 특성을 띤 새로운 인민정권이였다.

또한 그것은 로동계급과 빈농민만을 정권에 인입하는 쏘베트정권형태에서 배제될수 있는 계급과 계층들 즉 일제를 반대하는 도시수공업자, 소상인, 민족자본가들까지도 포함한 온갖 반일력량을 최대한으로 정권에 참가시키는 정권형태였다.

이것은 당시 우리 나라 혁명의 성격과 임무에 비추어볼 때 유일하게 옳은것이였다.

이와 함께 김일성동지께서는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단계에서 인민혁명정부가 수행하여야 할 정치, 경제, 군사, 문화적 과업들을 전면적으로 제시하시였으며 오직 무장투쟁에 의하여 일제의 식민지통치제도를 전복하고 인민정권을 수립할데 대한 방도를 규정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인민혁명정부로선은 조국광복회 10대강령에서 심오하게 정식화되고 집대성되였다.

조국광복회강령 제1조에는 《조선민족의 총동원으로 광범한 반일통일전선을 실현함으로써 강도일본제국주의의 통치를 전복시키고 진정한 조선인민정부를 수립할것.》이라고 지적되여있다.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인민혁명정부로선은 조선혁명발전의 요구를 정확히 반영하여 독창적으로 해결하신 가장 정당한 로선이며 그것은 국가와 혁명에 관한 맑스-레닌주의를 리론, 실천적으로 더욱 발전시키고 풍부화한 탁월한 모범으로 된다.

낡은 통치기구를 청산하고 새로운 인민정권을 창설함에 있어서 로동계급이 령도하는 로농동맹에 기초하여 일체 반제애국력량을 집결시키는 인민혁명정부로선은 실로 그 누구도 생각할수 없었던 맑스-레닌주의의 독창적인 발전이였다.

이것은 오직 탁월하고 위대한 수령이시며 확고한 주체적립장에서 맑스-레닌주의를 혁명의 산무기로 구사하시는 김일성동지에 의하여서만 이루어질수 있었다.

사실 그때까지만 하여도 국제공산주의운동과 로동운동에서는 로동계급의 독재정권인 쏘베트가 자본의 철쇄를 끊어버린 로동계급이 전취할 유일한 정권형태로 인정되였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나라 혁명의 성격과 임무, 사회경제적조건과 계급적관계에 부합되지 않았으며 따라서 광범한 인민대중을 혁명위업에 조직동원할수 없었던것이다.

이와 같이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인민혁명정부로선은 우리 혁명의 성격과 임무에 완전히 부합되며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광범한 인민대중을 참가시키고 그들의 리익을 철저히 옹호하는

가장 정당하고도 독창적인 로선이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인민혁명정부로선을 제시하시였을뿐아니라 몸소 그 로선을 구현하기 위한 투쟁을 조직령도하시였다.

유격근거지에서 인민혁명정부를 수립하는 투쟁은 일제침략군의 《토벌》공세를 분쇄하며 대국주의자, 사대주의자, 교조주의자, 종파주의자들의 온갖 좌우경기회주의적책동을 극복하는 치열한 투쟁을 동반하였다.

대국주의, 사대주의, 교조주의에 물젖은 좌경기회주의자들은 우리 나라 혁명의 반제반봉건적성격과 당면한 민족해방의 과업을 무시하면서 남의 경험을 통채로 받아들여 우리 나라 실정에 맞지도 않는 쏘베트정권을 고집하고 그에 의거하여 당장 사회주의적시책을 실시하려 하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당시 안도로부터 왕청유격근거지에 오시여 좌경기회주의자들의 책동에 의하여 유격근거지에 조성된 사태를 구체적으로 료해하시고 좌경적편향을 극복하기 위한 투쟁을 강력히 전개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좌경기회주의자들의 그릇된 주장을 사상, 리론적으로 폭로분쇄하시고 쏘베트를 인민혁명정부로 개편할데 대한 정확한 방침을 제시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이 방침은 대국주의자, 사대주의자, 교조주의자, 종파분자들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주었으며 혁명적군중들에게 나아갈바 앞길을 밝혀주는 강령적인 지침으로 되였다.

쏘베트를 주장한 대국주의자, 사대주의자, 교조주의자, 종파분자들을 반대한 김일성동지의 원칙적이고도 완강한 투쟁은 정권문제를 구체적으로 해결하고 조선혁명을 옳은 길로 이끄는데서 실로 거대한 전환의 계기로 되였다.

2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독창적인 인민혁명정부로선은 두만강연안의 광활한 유격근거지에 수립된 인민혁명정부의 실제 사업과 활동을 통하여 빛나게 구현되였다.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수립된 인민혁명정부는 앞으로 우리 나라에 창건될 진정한 인민정권의 원형이였으며 항일무장투쟁을 중심으로 한 조선혁명을 힘있게 추진시키는 강력한 혁명적무기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인민혁명정부를 수립하신 이후 제반 민주주의적시책을 실현하도록 승리적으로 령도하시였으며 그 과정에서 불멸의 업적과 경험을 쌓게 하시였다.

김일성동지의 령도하에 인민혁명정부는 유격근거지인민들에게 완전한 정치적자유와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그들이 민족적 및 계급적 압박에서 해방되여 자유롭게 살수 있게 하였다.

인민혁명정부는 유격근거지내의 모든 로동자, 농민, 유격대원, 학생, 상인 기타 반일대중 및 그들의 가족들에게 성별, 직업, 빈부, 신앙, 교육정도의 차별없이 다같이 정치적평등과 자유를 보장하였으며 남녀평등권을 실시하여 녀성들을 봉건적질곡에서 해방시켰다. 그리고 열여섯살이상의 남녀공민들에게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부여하였다. 반면에 반동지주, 예속자본가, 친일주구, 민족반역자들에 대하여서는 철저한 독재를 실시하였으며 그들로부터 선거권을 비롯한 일체 정치적권리와 경제적지반을 박탈하였다. 인민혁명정부는 반혁명분자들에 대하여서는 철저하고도 무자비하게 진압하였으며 간첩암해분자들의 준동을 철저히 분쇄함으로써 인민의 원쑤들이 발붙일틈을 주지 않았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인민혁명정부를 통하여 토지문제와 농민문제를 민주주의적으로 가장 정확히 해결하시였다.

토지문제와 농민문제의 정확한 해결은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단계에서의 가장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문제이

다. 특히 우리나라의 구체적실정은 이 문제의 정확한 해결을 더욱 절실히 요구하였다.

인민혁명정부는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방침에 따라 일제와 매국적인 친일지주, 친일파, 민족반역자들의 토지를 무상으로 몰수하여 농민들에게 무상으로 분배함으로써 농민들을 봉건적착취의 질곡에서 해방하였다.

난생 처음으로 땅의 주인으로 되여 제땅에서 농사를 지을수 있게 된 유격근거지내의 농민들은 땅을 분배받은 벅찬 감격을 안고 한알의 낟알이라도 더 내기 위하여 모든 힘을 다하였으며 유격대를 적극 지원하였다.

인민혁명정부는 농민들에게 땅을 주었을뿐아니라 축력과 농기구, 종곡까지 나누어주었으며 적위대, 소년선봉대, 청년의용군들로 하여금 적들의 《토벌》을 물리치게 하면서 《한치의 땅도 묵이지 말자》는 구호밑에 영농사업을 보장하는 혁명적조치도 취하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특히 근거지인민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깊은 배려를 돌리셨으며 그처럼 바쁘신 가운데서도 인민들의 생활형편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고 인민혁명정부의 공급사업에 이르기까지 일일이 지도하시고 그 방도를 가르쳐주시였다.

인민혁명정부는 또한 8시간로동제와 최저임금제를 선포하였으며 가렴잡세를 폐기하고 일제와 그 주구들의 채권을 모두 무효로 하였다.

인민혁명정부는 이와 같은 제반 경제적시책들을 통하여 유격근거지인민들을 일제의 가혹한 착취와 억압에서 해방하고 그들의 세기적숙망을 해결하여주었다.

또한 무료교육제와 무상치료제도 실시하여 사람들이 무료로 공부하고 치료를 받을수 있게 하였다.

당시 일제놈들이 극히 축소하여 발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간도 및 훈춘 지방에 배포된 혁명적출판물은 그 종류에 있어서 500종을 넘었다.

특히 인민혁명정부는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인민들을 무장시키기 위한 정치, 사상 사업을 강화하였으며 그들이 혁명의 최후승리를 확신하고 자력갱생의 혁명정신과 백절불굴의 투쟁정신을 발휘하여 견결히 투쟁하도록 교양하는데 커다란 힘을 기울였다.

이와 함께 인민혁명정부는 항일유격대를 모든 힘을 다하여 지원하였으며 김일성동지의 전민무장화와 요새화 방침에 근거하여 유격근거지를 전인민적 방위체계가 확립된 난공불락의 요새로 전변시키였다.

인민혁명정부는 김일성동지의 령도하에 교육과 군사훈련의 결합, 혁명적대중단체에서의 군사훈련의 강화, 혁명군중에 대한 군사지식의 보급과 군사훈련의 지도 등 여러가지 형태로 전체 인민들을 무장시켰으며 적들의 침공에 대처하여 유격근거지를 완전히 요새화하였다.

일제침략군의 집요한 《토벌》공세속에서도 4~5년간이나 유격근거지를 고수할수 있은것은 김일성동지의 탁월한 령도와 함께 근거지인민들의 드높은 자력갱생의 혁명정신과 불굴의 투지, 근거지를 사수하기 위한 그들의 영웅적투쟁과 떼여놓고 생각할수 없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인민혁명정부의 활동을 통하여 광범한 반일혁명군중을 혁명투쟁에 성과적으로 조직동원할수 있게 하는 인민적사업작풍과 사업방법의 전통을 이룩하게 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낡은 관료주의적사업작풍과 방법은 혁명적정권과는 인연이 없는것이며 인민의 진정한 충복은 혁명적군중관점과 인민적사업작풍 및 사업방법을 소유하여야 한다고 가르치시고 친히 그 모범을 보여주시였다.

인민혁명정부는 김일성동지의 가르침을 확고한 지침으로 삼고 자기의 모든 활동에서 이를 구현하였다.

그리하여 인민들을 대할 때 겸손하고 소박하며 례절이 바르고 어려운 일에 앞장서서 이신작칙하는 인민적사업작풍과 언제나 정치사업을 앞세우고 대중을 설복교양하며 군중의 무궁무진한 힘을 동원하여 모든 일을 해결하는 혁명적사업방법의 전통이 이룩되였다.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인민혁명정부로선이 유격근거지에서 빛나게 구현됨으로써 유격근거지에는 착취와 억압이 없는 새로운 사회경제적관계가 확립되였으며 인민들의 확고한 정치사상적통일이 이룩되고 모두가 조선혁명의 위대한 수령이신 김일성동지의 주위에 철석같이 단결되여 혁명적으로 살며 투쟁하였다.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유격근거지에서 인민혁명정부로선을 구현하는 투쟁과정에서 달성한 불멸의 업적과 풍부한 경험은 우리 인민정권의 깊고도 억센 뿌리로 되였다.

3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인민혁명정부로선이 유격근거지에서 빛나게 구현된것은 조선혁명의 발전에서 거대한 력사적의의를 가지였다.

유격근거지인민들은 인민혁명정부가 실시한 제반 시책들을 통하여 오직 김일성동지께서 령도하시는 인민혁명정부만이 그들에게 온갖 자유와 행복을 보장하여주며 인민의 리익을 위하여 투쟁하는 진정한 인민의 정권이라는것을 실제적으로 체험하고 그 밑에서 진정한 삶의 보람을 느끼였다.

당시 유격근거지에서 생활한 한 투사동지는 다음과 같이 회상하였다.

《원수가 없는 세상! 정말 힘이 솟고 사는것 같았다. 모두가 삶의 보람과 신심에 넘쳐있었다. 인민혁명정부의 시책들은 인간에 대한 사랑과 배려에 넘쳐있었고 우리의 행복을 약속했다. 녀성들과 장년, 로인들, 누구나 할것없이 모두가 자신이 자기 운명의 주인이 되여 일했다.》

또한 유격근거지에서 보람찬 생활을 체험한 한 로인은 《…여기서는 풀을 먹어도, 흙을 먹어도 우리의 세상이였소. 우리…주권은 나에게 땅까지 주었소! 늘그막에 우리의 글까지 배웠소, 정말 사는것 같았소.…》라고 말하였다.

유격근거지인민들은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과 그이께서 제시하신 조선혁명의 로선과 전략전술적방침의 정당성을 생활체험을 통하여 명백히 인식하였으며 그이께서 이끄시는 혁명의 길을 따라 전진하는 드높은 자부심을 가지고 조선혁명의 승리를 위하여 힘차게 투쟁하였다.

유격근거지인민들은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민족적영웅이시며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신 김일성동지를 조선혁명의 수령으로 모시는 영예와 그이의 전사된 더없는 긍지를 자랑하였으며 그이의 혁명사상으로 무장하고 그이께서 제시하신 혁명로선과 방침을 옹호하고 관철하는것을 가장 고상한 의무로 여기였다. 이리하여 유격근거지인민들은 김일성동지를 무한히 존경하고 흠모하면서 그이의 두리에 한마음 한뜻으로 굳게 뭉치였다.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무장하고 그이의 주위에 하나로 뭉친 유격근거지인민들의 정치사상적통일은 전체 조선인민의 민족적단합을 실현하며 나아가서 로동계급의 령도하에 반일민족통일전선운동을 확대발전시키는 확고한 기초로 되였다.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인민혁명정부로선의 구현은 항일무장투쟁을 중심으로 한 전반적조선혁명을 더한층 확대발전시킬수 있게 하였다.

유격근거지인민들은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인민혁명정부로선을 관철하여 유격근거지를 강력한 조선혁명의 책원지로, 항일유격대의 군사활동의 믿음직한 후방기지로 튼튼히 꾸리였다.

항일유격대는 유격근거지에 튼튼히 의거하여 그 대오를 급속히 확대하면서 일제침략군을 격멸소탕하였으며 1934년에는 조선인민혁명군을 편성한 기초우에서 보다 광활한 지역에 진출하여 대

기동작전을 진행하기에 이르렀다.

김일성동지의 령도하에 두만강연안의 광활한 지역에 유격근거지가 창설되고 인민혁명정부가 수립된 소식에 접한 전체 조선인민은 일제의 식민지통치체계에 커다란 파렬구가 생긴데서 무한한 기쁨과 흥분을 금치 못하였으며 반일투쟁에 일층 힘차게 떨쳐나섰다.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인민혁명정부로선과 그 빛나는 구현은 거대한 국제적의의를 가진다.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인민혁명정부로선은 혁명에서 로동계급의 정권문제해결을 위한 맑스-레닌주의리론을 새로운 정세에 맞게 더욱 발전시켰으며 제국주의통치를 전복하고 인민의 정권을 수립하기 위한 전략전술적문제들을 전반적으로 해명하였다.

오늘 반제반미민족해방투쟁을 힘차게 전개하고있는 모든 나라의 공산주의자들과 인민들 앞에는 어떤 세력에 의거하여 어떻게 투쟁하며 어떤 정권을 수립하고 어떤 시책을 실시할것인가 하는 문제들을 정확히 해결하여야 할 긴절한 과업이 나서고있다.

인민혁명정부로선은 로동계급의 령도를 확고히 보장하면서 계급로선과 군중로선을 밀접히 결합시키고 모든 반제력량을 혁명투쟁에 조직동원하는 새로운 정권형태를 창조하게 하였다. 이것은 국제적의의를 가지는 고귀한 경험으로 된다.

인민혁명정부로선의 정당성과 독창성 그 실현을 위한 투쟁과정에서 이룩된 불멸의 혁명업적과 풍부한 경험은 싸우는 전세계 혁명적인민들, 특히 식민지 및 반식민지 나라에서 민족해방투쟁에 궐기한 인민들이 전취하여야 할 정권의 모범으로 된다.

* *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인민혁명정부로선과 그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이룩된 불멸의 업적과 고귀한 경험은 해방후 인민정권수립과 그 강화발전을 위한 사업에서 훌륭히 계승발전되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무장투쟁시기에 제시하신 인민혁명정부로선과 그를 구현하여 축적하신 풍부한 경험에 기초하여 해방후에 력사적인 20개조정강을 발표하시였으며 1946년에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를 조직하시고 1947년에는 북조선인민위원회를 수립하시였다. 그리고 1948년에는 수많은 공산주의자들이 바로 그것을 념원하였고 그를 위하여 피흘려 싸운 진정한 인민정권, 조선인민의 자유와 행복의 기치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창건하시였다.

그이께서는 계급로선과 군중로선을 능숙히 결합하여 인민대중을 정권의 주위에 철석같이 조직결속하심으로써 계급적원쑤들을 철저히 진압하고 혁명과 건설을 위대한 승리에로 령도하시였다.

바로 정권문제와 국가건설에 대한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과 그이의 현명한 방침들이 구현됨으로써 지난날의 락후한 식민지농업국가였던 우리 나라가 오늘은 정치에서 자주적이고 경제에서 자립적이며 국방에서 자위적인 발전된 사회주의국가로 전변되였다.

오늘 우리 인민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력사적인 당대표자회에서와 공화국정부의 위대한 10대정강에서 제시하신 과업들을 실현하기 위하여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혁명적대고조의 불길을 더욱 높이고 있다.

인민혁명정부의 고귀한 전통을 빛나게 계승발전시켜 우리의 인민정권을 더욱 강화하는것은 북반부에서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촉진하며 조국의 통일과 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앞당기기 위하여 투쟁하고있는 우리 인민이 보다 위대한 승리를 달성하는 확고한 담보로 된다.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민족적영웅이시며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며 국제공산주의운동과 로동운동의 탁월한 령도자의 한분이신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국을 통일하고 전조선땅우에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건설하기 위한 우리 인민의 혁명위업은 필승불패이다.

항일무장투쟁시기에 이룩된 자력갱생의 혁명정신

박 희 석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직령도하신 영광스러운 항일무장투쟁은 우리 나라 공산주의운동과 반일민족해방투쟁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킨 위대한 혁명투쟁이였다.

항일무장투쟁은 김일성동지께서 확고히 견지하신 위대한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모든것을 자주적으로, 주로 우리 인민의 힘에 의거하여 해결함으로써 강도일제를 격멸하고 혁명의 승리를 달성한것으로 하여 그처럼 위대한 의의를 가지며, 제국주의를 반대하여 싸우는 혁명적인민들의 투쟁력사에 영생불멸의 빛을 뿌리고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15성상의 간고하고도 준엄한 항일무장투쟁의 전행정에서 시종일관 자력갱생의 혁명적원칙을 확고히 견지하심으로써 조선혁명을 빛나는 승리에로 이끄시였다.

우리 당과 인민은 김일성동지에 의하여 항일무장투쟁시기에 이룩된 자력갱생의 이 빛나는 전통을 고수하고 계승발전시킴으로써 혁명과 건설에서 위대한 승리를 달성하였으며 극히 짧은 기간내에 나라의 세기적인 락후성을 청산하고 우리 나라를 정치에서 자주적이고 경제에서 자립적이며 국방에서 자위적인 발전된 사회주의강국으로 전변시켰다.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은 우리 인민의 심장마다에 맥박치고있으며 부단히 혁신하고 전진, 전진, 투쟁 또 전진하는데로 우리 인민을 힘차게 고무추동하고있다. 그리하여 우리 나라에서는 인민경제가 끊임없이 높은 속도로 발전하고 있으며 인민생활은 날을 따라 향상되고 흥겨워지며 과학과 민족문화는 더욱 찬란하게 꽃피고있다.

우리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에 의하여 항일무장투쟁행정에서 이룩된 자력갱생의 빛나는 혁명전통을 계승함으로써 혁명과 건설을 더욱 강력히 추진시키며 조국통일의 혁명적대사변을 준비있게, 주동적으로 맞이하며 조선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앞당겨나갈수 있다.

1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민족적영웅이시며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며 국제공산주의운동과 로동운동의 탁월한 령도자의 한분이신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항일무장투쟁시기에 천명하시고 빛나게 구현하신 자력갱생의 혁명적원칙은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위하여 투쟁하는 매개 나라의 로동계급과 공산주의자들이 반드시 견지하여야 할 사상, 리론, 실천적 무기이며 혁명승리를 앞당기는 확고한 담보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자력갱생—이것은 공산주의적혁명기풍과 혁명정신의 중요한 특징의 하나입니다. 공산주의자들은 언제나 자기 나라 인민의 힘을 동원하여 혁명을 승리에로 이끌어야 하며 어떠한 난관도 자체의 힘으로 뚫고 새사회를 건설할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혁명을 위하여 투쟁하는 공산주의자들인만큼 반드시 자력갱생의 정신을 가져야 합니다. 이 정신이 없으면 자체의 힘을 믿지 않게 되고 자기 나라의 내부원천을 동원하기 위하여 잘 노력하지도 않게 되며 따라서 혁명위업을 수행할수 없습니다.》(《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의 당면 과업에 대하여》, 34페지)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자력갱생은 자기 나라의 혁명은 기본적으로 자기의 주체적력량에 의거하여 끝

까지 수행하려는 철저한 혁명적립장이다.

공산주의자들은 자기 인민의 힘을 믿고 그 힘을 동원하여 자기 나라의 혁명을 수행하여야 한다.

매개 나라에서의 혁명의 주인은 그 나라 인민이며 혁명승리의 결정적요인도 그 나라의 내부력량이다. 그 나라의 혁명을 결코 다른 나라 사람들이 대신하여 해줄수는 없는것이다.

매개 나라에서 혁명이 얼마나 급속히 진척되고 발전하며 언제 승리하는가 하는것은 무엇보다도 자체의 혁명력량의 준비정도와 그 나라의 혁명정세의 성숙정도에 의하여 결정된다.

혁명발전의 이러한 합법칙성은 혁명의 길에 나선 매개 나라 로동계급과 공산주의자들에게 자체의 혁명력량을 튼튼히 꾸리고 혁명정세를 부단히 성숙시키며 어떤 조건하에서도 투쟁을 멈추지 말고 끝까지 싸우며 혁명승리에 필요한 모든것을 자신의 힘으로 해결해나갈것을 요구한다.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가져야만 복잡한 정세하에서도 혁명적절개를 굽히지 않고 투쟁을 계속할수 있으며 전진도상에서 제기되는 난관과 애로들을 용감하게 이겨내면서 혁명투쟁을 최후승리에로 이끌수 있다.

이러한 립장과 태도를 견지하지 않고 외부의 지지와 원조만 바라보고 자체로 노력하지 않는다면 도대체 혁명을 수행할수 없다. 이러한 태도는 혁명가의 태도가 아니다.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은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원칙에 전적으로 부합된다.

로동계급의 혁명투쟁, 공산주의운동은 본질에 있어서 국제적이며, 로동계급의 민족적임무와 국제적임무는 통일되여있다.

자기 나라에서 혁명운동을 잘하는것은 그 나라 공산주의자들과 로동계급의 기본임무이며 또한 그것은 그들에게 맡겨진 국제적분공이다.

매개 나라 로동계급과 공산주의자들은 세계혁명력량과의 호상 지원을 강화하면서 우선 자기 나라 혁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바로 이렇게 하는것이 국제주의에 가장 충실한것이다.

이와 같이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은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위하여 투쟁하는 로동계급과 공산주의자들이 반드시 견지하여야 할 혁명적립장이며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에 완전히 부합되는 철저한 맑스-레닌주의적립장이다.

2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활동의 첫시기부터 우리 인민의 힘을 믿으시고 그에 의거하시여 나라의 독립과 민족의 해방을 성취할데 대한 혁명적립장을 확고히 견지하시고 조선혁명을 빛나는 승리에로 이끄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선인민에 대한 일제의 파쑈적폭압이 절정에 달하고 우리 민족이 생사존망의 기로에 서있던 엄혹한 시련의 시기에 선행한 모든 투쟁, 특히 1920년대 우리 나라 공산주의운동의 교훈을 총화분석하시고 조선혁명은 그 주인인 조선인민자신의 힘으로 수행해야 한다는 자력갱생의 혁명적립장에 확고히 서시여 우리 인민이 나아갈 투쟁의 앞길을 휘황히 밝혀주시였다.

1920년대의 조선공산주의운동이 남긴 쓰라린 교훈은 자체의 혁명력량을 꾸리고 그에 의거할 대신에 남만 쳐다보고 남에게 맹종맹동하면 혁명을 망쳐버리게 된다는것이였다.

또한 1930년대초에 조선혁명의 수행방도에 대한 미리 고안된 처방도 없었으며 무장투쟁을 어떻게 수행할것인가 하는데 대하여 누가 써놓은 교범도 없었다.

이러한 조건에서 자력갱생의 혁명정

신이 없다면 조선혁명을 위기에서 구출할수 없었으며 일보도 전진시킬수 없었다.

조선혁명의 승리를 위한 이 절박한 문제는 바로 김일성동지께서 우리 혁명의 진두에 서시여 혁명을 영도하시게 됨으로써 빛나게 해결될수 있었다.

우리 시대의 위대한 혁명가이시며 혁명의 탁월한 수령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정권도, 국가적후방이나 외부의 지원도 없는 조건하에서, 혁명투쟁에 필요한 크고작은 모든것을 오직 자체의 힘으로 해결하여야 하였던 극히 어려운 조건하에서 자력갱생의 혁명적기치를 높이 추켜드시고 몸소 항일무장투쟁을 조직령도하시였던것이다.

김일성동지께서 작성하시고 제시하신 항일무장투쟁로선과 모든 전략전술, 그 구체적수행방도 등의 근저를 관통하고 있는것은 확고한 주체적립장과 철저한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이다.

실로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항일무장투쟁로선은 일제의 멸망을 앉아서 기다릴것이 아니라 자기의 힘으로, 우리 인민의 주체적혁명력량에 의거하여 일제를 격멸소탕하고 조국광복을 이룩하기 위한 가장 정당한 로선이며,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이 빛나게 구현된 혁명적로선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의 길에 나서신 첫시기부터 일제와의 비타협적인 투쟁을 통해서만 우리 인민의 민족적 및 사회적 해방을 달성할수 있다는 진리를 깊이 확신하시고 무장투쟁을 위한 준비사업을 정력적으로 추진시켜나가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찌기 항일무장투쟁을 준비하시던 시기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가 무장을 잡는 문제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오늘 조성된 정세는 우리가 무장을 잡지 않으면 안되게 되였다.

……

무기면 무기, 돈이면 돈, 그리고 우리의 있는 힘을 합치고 총동원해 싸워야 한다.

앉아서 한탄하거나 적들의 귀축같은 만행을 보고 아우성이나 치는것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우리들은 일어나 손에 무기를 들고 싸워야 한다.…》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방침은 무장한 반혁명은 오직 자체의 혁명적무력으로써만 타승할수 있으며 이러한 투쟁은 외세에 의존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힘으로, 자기의 내부력량을 총동원하여 수행해야 한다는 철두철미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으로 일관된 가장 정당한 방침이였다.

오직 김일성동지께서 항일무장투쟁을 조직령도하시여 일제를 격멸하고 조국을 해방하기 위한 위대한 혁명투쟁에로 조선공산주의자들과 인민대중을 불러일으키시였기에 우리 인민은 간악한 일제를 타승하고 민족의 존엄을 고수할수 있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무장투쟁을 조직령도하심에 있어서 우리 인민의 힘을 굳게 믿으시고 그것을 조직동원하는데서 혁명승리의 기본방도를 찾으시였다.

●

혁명의 승리를 달성하기 위하여 투쟁의 길에 나선 공산주의자들에게 있어서 인민과 혈연적인 련계를 맺고 내부력량을 최대한으로 조직동원하는 길외에 그 어떤 다른 방도란 있을수 없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바로 이러한 혁명의 근본원리를 1930년대 우리 나라 혁명정세의 요구에 창조적으로 적용하시여 조선혁명의 주인이며 그의 담당자인 광범한 인민대중을 혁명의 편에 묶어세우기 위한 가장 정확한 방침을 제시하시고 그것을 빛나게 구현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유격대원들에게 항상 조선혁명의 승리는 우리 인민자신이 어떻게 투쟁하는가에 달려있다고 가르치시였으며 남에 대한 의존심을 버리고 자체의 투쟁으로 승리를 쟁취해야 한다고 그들을 고무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당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남의 힘을 믿고 자기 혁명을 하겠다고 추호도 생각해서는 안된다. 우리 혁명은 어디까지나 우리의 힘으로 해야 한다.

우리의 항일무장투쟁은 바로 여기에 큰 의의가 있는것이다.

그래야만 우리는 앞으로 닥쳐올 대사변을 떳떳이 맞이할수 있으며 해방된 조국의 민주건설도 우리의 손으로 할수 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제의 발악이 가장 우심하던 시기에도 탁월하고 명철한 전략전술로써 적들에게 련속 심대한 타격을 가하였으며 보천보전투와 무산지구진공전투를 비롯한 국내진공작전을 통하여 비운에 싸여있던 우리 인민에게 필승의 신념을 안겨주었으며 조선인민의 반일민족해방투쟁을 앙양에로 이끌어주시였다.

조선혁명에 대한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구상이 명확하게 담겨져있는 조국광복회10대강령 제1조에는 《조선민족의 총동원으로… 강도 일본제국주의의 통치를 전복시키고 진정한 조선인민정부를 수립할것.》이라고 지적되여있다.

조국광복회10대강령에서 천명된 이 현명한 방침은 당시 모든 애국적인민들을 김일성동지의 주위에 튼튼히 결속시켰으며 민족의 모든 애국적력량을 일제와의 투쟁에 남김없이 동원하여 조선혁명을 줄기차게 발전시킬수 있게 하였다.

김일성동지의 가르침을 받들고 항일유격대원들은 빼앗긴 조국과 억압당하고있는 우리 인민을 자신의 힘으로 기어코 해방하며 근로인민이 다같이 행복하게 사는 가장 훌륭한 사회주의조국을 건설하려는 드높은 책임감으로하여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양하였다.

김일성동지께 무한히 충실하였던 항일유격대원들은 광범한 혁명군중속에 깊이 침투하여 정치공작을 꾸준히 진행하고 혁명근거지를 창설하며 각종 군중단체들을 조직하는 등으로 혁명력량을 부단히 확대강화하였다.

조선혁명은 김일성동지의 주위에 굳게 뭉친 우리 인민의 강력한 주체적력량이 꾸려짐으로 하여 15성상에 걸친 일제와의 간고한 싸움에서 빛나는 승리를 달성할수 있었다.

력사적경험은 자기의 힘, 자기 인민의 힘에 의거하여 혁명을 수행하려는 자력갱생의 혁명적원칙을 튼튼히 고수함으로써만 인민대중을 혁명투쟁에 성과적으로 동원할수 있으며 혁명의 승리를 달성할수 있다는것을 보여주었다.

3

항일유격대내에서의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은 필요한것은 찾아내고 없는것은 만들어내며 자체의 힘으로 투쟁의 길을 개척해나가는 불요불굴의 투쟁에서 높이 발휘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직접 조직령도하신 항일무장투쟁은 가장 포악하고 악랄한 강도 일본제국주의를 반대하여 15성상이란 기나긴 세월에 걸쳐 전개되였다.

항일무장투쟁의 전과정은 혁명투쟁에 필요한 무기와 탄약, 식량과 피복 등 모든것을 자체로 해결하면서 흉악한 적을 반대하여싸운 간고한 투쟁의 길이였으며 어떠한 역경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혁명위업을 끝까지 수행하는 불요불굴의 투쟁으로 일관된 로정이였다.

그 무엇이 항일유격대원들로 하여금 형언할수 없는 온갖 간난신고를 용감하게 이겨내고 혁명투쟁에서 위대한 승리를 달성할수 있게 하였는가. 그것은 그들이 김일성동지의 필승불패의 혁명사상과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으로 튼튼히 무장되여있었기때문이다.

항일유격대에게 있어서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무장한 일제를 반대하여 싸우기 위하여 무엇보다도 필요한것은 무기였다.

그런데 무기를 구하는 문제는 용이한 일이 아니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무장투쟁의 초시기 무장획득을 위한 방도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시였다:

《…무기는 어디서 구하는가? 돈이 있으면 살수도 있고 또 만들수도 있다. 그러나 가장 가까운 길은 적의 무기를 뺏앗는것이다. 지혜를 짜내고 장소를 택하여 목숨을 두려워 안하고 나서면 한사람한사람이 자기가 잡을 무기는 해결할수 있다.…》

김일성동지의 가르침에 무한히 충실한 항일유격대원들은 그 누가 무기를 가져다 주기를 앉아서 기다린것이 아니라 힘과 지혜를 모아 자신의 힘으로, 자기의 피와 생명을 바쳐 그것을 쟁취하였다.

실로 항일무장투쟁의 초시기 무기획득을 위한 투쟁은 항일유격대원들이 있고 혁명적군중이 있는 모든곳에서 전개되였다.

그들은 맨주먹으로 목숨을 내걸고 자기가 잡을 무기는 자신이 해결하기 위하여 희생적으로 싸웠다.

1932년 왕청현 남하마탕고개길에서 이동하는 적부대를 습격하고 무기를 획득하는 싸움에서 혼자 네자루의 무기를 빼앗은 김철동지는 원쑤들의 흉탄에 숨을 거두면서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다.

…슬퍼마오 내 한몸이 죽는것은 아무것도 아니요, 다만 나는 이 무기들이 우리 혁명에 도움을 줄것을 생각하니 기쁘오.…

항일유격대원들은 이처럼 한자루의 총, 한알의 탄알을 얻어내기 위하여 자기의 귀중한 청춘도, 생명도 서슴없이 바쳐싸웠다.

항일유격대는 이러한 투쟁을 통하여 자신을 무장하였으며 피흘려 획득한 무장을 밑천삼아 원쑤를 치고 더 많은 무기와 탄알을 빼앗아 자체의 무장력을 급속히 확대하여나아갔다.

항일유격대내에서의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은 적의 무기를 빼앗아 자신을 무장한데서뿐아니라 온갖 지혜와 창발성을 발휘하여 애로와 난관을 뚫고 자체의 힘으로 무기를 만들어 사용한데서도 발현되였다.

항일유격대원들이 풍구, 메, 집게와 같은 변변치 않은 야장도구를 가지고 위력한 《연길폭탄》까지 만들어냄으로써 원쑤들을 전률케 한 사실은 이미 널리 알려져있다.

《연길폭탄》이 나오기까지에는 애로와 난관들이 수없이 많았으나 그 어떤 난관도 항일유격대원들의 혁명적투지를 꺾을수 없었다.

원쑤들의 삼엄한 경계와 탄압으로 화약을 구할길 없게 된 어려운 시기에도 항일유격대원들은 조금도 락심하지 않고 비상한 창발성을 발휘하여 담배대와 호박넝쿨, 부엌흙 등으로 끝내 화약을 만들어내고야 말았다. 또한 항일유격대원들은 행군과 전투로 해가 뜨고 날이 저무는 그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쇠붙이와 철사들을 구해들임으로써 심산속의 병기창에서 《연길폭탄》을 계속 생산하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대원들의 이러한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평가해주시면서 《연길폭탄》을 만들어낸 한투사동지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작탄을 더 많이 만드시오. 동무도 알다싶이 우리에게는 무기도, 식량도 가져올데가 없소, 그러니까 제힘으로 모든것을 해결하여야 하오.…》

김일성동지의 이 간곡한 말씀에서 무한한 힘을 얻은 항일유격대원들은 무기제작에서 부단한 갱신과 혁신을 가져왔을뿐아니라 못쓰게 된 무기를 자체의 힘으로 훌륭하게 수리해썼다.

항일유격대원들은 이처럼 자기의 힘과 지혜로 만들고 피와 생명을 바쳐 적들에게서 빼앗은 무장을 들고 강도 일제를 반대하여 견결히 싸워이겼다.

항일유격대원들은 무기뿐아니라 식량과 피복, 의약품과 학습도구에 이르기

까지 필요한 모든것을 자체의 힘으로 만들어내고 해결하였다.

1930년대 초시기 유격근거지—해방지구에서의 생활은 이것을 뚜렷이 보여준다.

항일유격대원들은 근거지내에 병기창을 차려놓고 무기를 제작수리했을뿐아니라 피복창을 만들어놓고 거기에서 자체로 옷을 만들어 입기도 했다. 또한 그들은 적들에게서 식량을 토획하는 한편 자체로 농사를 지어서 식량문제를 해결하였다.

항일유격대내의 병원에서는 백반과 소금으로 소독약을 만들고 와세링을 고약대신으로 썼으며 나중에는 《감장고약》, 《황납고》등 훌륭한 외상약을 만들어냈으며 약초를 가지고 여러가지 병을 치료하였다.

그들은 관솔 그을음으로 등사잉크도 만들어썼고 천도 자체로 염색을 하여 군복을 만들어 입었다.

1936년 후방밀영에서 김일성동지의 지시에 따라 버선을 만들던 후방성원들이 하나밖에 없는 재봉기바늘이 부러졌을 때 줄칼을 가지고 그 정교한 재봉기바늘을 만들어낸 이야기는 항일유격대내에서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이 얼마나 높이 발양되였는가 하는것을 생동하게 보여준다

이와 같이 항일유격대원들은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발휘하여 혁명에 더 많은 리익을 주고 원쑤들에게 더 큰 타격을 가하기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쳤으며 그들은 어떠한 성공앞에서도 자만을 모르고 부단히 전진하고 투쟁하였다.

항일유격대내에서 높이 발양된 자력갱생의 혁명정신, 어떠한 역경속에서도 추호의 동요나 주저도 없이 혁명임무를 제힘으로 끝까지 해내고야만 항일유격대원들의 혁명적기풍속에는 수령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이 안받침되여있다.

항일유격대원들은 언제 어데서나 수령에 대한 충실성으로 가슴을 불태웠으며 수령을 위해서라면 모든 지혜와 힘, 생명까지도 서슴없이 바쳐 투쟁한 수령의 참된 혁명전사들이다.

항일유격대원들은 수령께서 주신 혁명임무를 수행하는데서 조건이나 능력을 앞세워 생각한것이 아니라 그것은 반드시 해야 하며 또 능히 할수 있다는 각오와 신념을 가지고 항상 이악하게 달라붙어 어떤 난관도 물리치며 맡은 임무를 끝까지 정확하게 관철하고야 말았다.

우리는 이러한 모범을 《명령은 무조건 끝까지 관철해야 한다》를 비롯한 수많은 항일빨찌산참가자들의 회상기들에서 감명깊이 보게 된다.

밭 하나를 두고, 옥수수 한포대를 놓고 피어린 싸움이 벌어졌으며 식량포대를 부둥켜안은채 발머리에서 동지들이 피흘리며 쓰러지는 가렬한 환경에서도 굴하지도, 락심하지도 않고 마침내 800섬의 식량을 장만하여 김일성동지께서 친히 주신 혁명임무를 빛나게 수행한 이야기는 수령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이 어떻게 백절불굴의 투지와 놀라운 창발성을 낳게 하는가 하는것을 똑똑히 말하여준다.

실로 수령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은 항일유격대원들이 자력갱생의 혁명정신밑에 무궁무진한 힘과 창발성을 발휘하게 하였으며 자신의 모든 힘과 지혜를 혁명과업수행에 남김없이 바치게 한 원천이였다.

* *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직령도하신 영광스러운 항일무장투쟁의 불길속에서 이룩된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은 해방후 우리 당과 인민에 의하여 빛나게 계승발전되였다.

우리 당과 인민은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양함으로써 미제국주의침략자들과 직접 대치하고있는 어려운 조건에서 온갖 시련과 난관들을 타개하고 혁명과 건설을 비상히 빠른 속도로

추진시켰으며 위대한 승리를 달성하였다.

지난날 뒤떨어지고 빛을 잃었던 우리나라가 오늘은 세계인민들이 부러워하는 《주체의 조국》, 《사회주의건설의 모범의 나라》로 되였다.

오늘의 위대한 현실은 우리 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백두의 밀림에서 일제를 격멸소탕하는 간고한 싸움의 나날에 앞으로 해방될 조국땅우에 재손으로 착취없고 압박없는, 인민이 살기좋고 행복한 사회주의, 공산주의 락원을 건설할데 대한 항일유격대원들의 념원이 실생활에 구현된것이다.

우리 당은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해방직후 그처럼 복잡한 환경에서도 조선혁명은 우리 인민의 힘으로 수행해야 한다는 확고한 주체적립장에서 혁명적민주기지를 창설하고 자체의 혁명력량을 튼튼히 꾸려놓았다.

우리 당은 미제의 무력침공을 반대하는 조국해방전쟁시기에 우리 인민의 무궁무진한 힘을 믿고 원쑤격멸에로 그들을 힘차게 조직동원함으로써 세계 《최강》을 자랑하던 미제침략자들을 때려눕히고 위대한 승리를 쟁취할수 있었다.

우리 당은 전후 페허우에서 혁명과 건설을 본격적으로 추진시킴에 있어서도 우리 인민의 힘과 창조적지혜를 최대한으로 동원하였으며 위대한 천리마운동을 일으켜 자립적민족경제의 튼튼한 토대를 마련하고 정치, 경제, 군사, 문화의 모든 분야에 걸쳐 나라의 면모를 근본적으로 일신시켰다.

자력갱생의 기치밑에 공화국북반부에서 이룩한 거대한 승리는 남반부인민들을 무한히 고무하고있으며 그들을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로 힘차게 불러일으키고있다.

이와 같이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은 조선혁명의 승리적전진속에서 그 위대한 생활력을 더욱 크게 나타내고있다.

김일성동지께서 친히 천명하시고 손수 그 탁월한 모범을 보여주시였으며 우리 당이 일관하게 견지하고있는 자력갱생의 혁명적원칙은 오늘 전세계의 진정한 공산주의자들과 혁명적인민들을 투쟁에로 불러일으키는 위대한 기치로 되였으며 그들의 공동의 재부로 되고있다.

자력갱생, 이것은 우리가 달성한 성과를 공고발전시키며 앞으로 보다 큰 승리를 달성하는 확고한 담보이다.

오늘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일어나고있는 혁명적대고조를 계속 견지하고 발전시키며 공화국북반부의 혁명기지를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더욱 굳게 다지며 조국통일의 혁명적대사변을 주동적으로 앞당기기 위하여서는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더욱 높이 발양하는것이 절실히 요구된다.

우리 인민은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민족적영웅이시며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며 국제공산주의운동과 로동운동의 탁월한 령도자의 한분이신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공화국정부의 위대한 10대정강을 높이 받들고 모든 분야에서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더욱 높이 발양함으로써 우리 혁명의 종국적승리를 달성하고야 말것이다.

혁명적락관주의

신 창 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력사적인 당대표자회보고에서 사상사업부문앞에 나선 전투적과업을 제시하시면서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혁명적락관주의로 교양할데 대하여 간곡하게 교시하시였다.

혁명적락관주의는 사회주의적애국주의교양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그것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위하여 끝까지 투쟁해나가는 견결한 공산주의자로 육성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낡은 착취제도를 뒤집어엎고 인류의 리상인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투쟁은 간고하고 복잡하다. 혁명투쟁에 나선 공산주의자들앞에는 수많은 난관과 애로가 가로놓여있다.

그러므로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완수하기 위하여서는 근로자들을 혁명에 대한 필승의 신념, 백절불굴의 투쟁정신, 혁명적락관주의정신으로 교양하는것이 중요하다.

현시기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혁명적락관주의교양을 강화하는것은 우리 혁명의 임무와 조성된 혁명정세의 절박한 요구이다.

우리는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진 어려운 조건에서 자체의 힘으로 사회주의건설을 더욱 촉진해야 하며 남조선인민들의 혁명투쟁을 적극 지원하여 세계반동의 원흉인 미제침략자들을 우리 강토에서 몰아내고 민족적숙망인 조국통일의 위업을 성취해야 한다.

오늘 우리앞에는 미제의 발광적인 전쟁도발책동에 대처하여 분초를 다투어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다같이 힘있게 밀고나가야 할 방대한 혁명과업이 나서고있다.

조성된 정세와 혁명과업의 방대성, 우리 혁명의 장기성, 간고성, 복잡성과 관련하여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당과 수령의 주위에 철석같이 단결시키며 그들을 혁명승리에 대한 굳은 신념과 어떠한 시련도 이겨낼수 있는 강의한 혁명적의지로, 혁명적락관주의정신으로 철저히 무장시키는것은 사상교양사업앞에 나서는 중요한 과업의 하나이다.

* *

혁명적락관주의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정당성과 그 승리의 필연성을 확신하고 어떠한 역경속에서도 동요와 비관을 모르며 광명한 미래를 위하여 견결히 싸워나가는 혁명정신이다.

미래를 사랑하는 정신, 혁명적락관주의는 로동계급의 전위투사인 공산주의자들의 고유한 품성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미래를 사랑하는것은 혁명가의 중요한 특성의 하나입니다. 혁명가들은 자기자신의 오늘의 안락한 생활을 위해서가 아니라 광명한 미래를 위하여, 후대들의 행복한 새생활을 위하여 온갖 간난신고를 무릅쓰고 자기의 모든 고귀한것을 다 바쳐 투쟁하는것입니다.》

(《청소년교양에서 교육일군들의 임무에 대하여》)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공산주의자들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는것을 자기의 최고리상으로, 궁극적목적으로 삼는다. 모든 근로자들이 착취와 압박이 없는 사회에서 자유롭고 행복하게 잘 살수 있는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투

정하는것은 공산주의자들의 원대한 리상이며 그들이 지닌 숭고한 력사적사명이다.

공산주의자들은 로동계급을 비롯한 근로인민의 리익을 떠나서는 자신의 행복도, 자유도 있을수 없다는것을 자각하고 계급적원쑤들의 그 어떤 탄압과 박해에도 굴함없이 자기의 숭고한 리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위하여 몸바쳐 투쟁한다. 공산주의미래를 사랑하며 자기의 원대한 목표와 리상의 실현을 위하여 투쟁하는 공산주의자들에게 있어서 생활은 항상 명랑하고 락천적이며 전투적이다.

혁명적락관주의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승리의 필연성과 자본주의, 제국주의 멸망의 불가피성에 관한 확고한 신념에 기초하고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가르치시였다:

《사회발전의 법칙과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승리의 필연성을 명백히 인식하지 않고서는 승리에 대한 신심이 나올수 없으며 어떠한 난관앞에서도 굴하지 않는 고상한 정신과 투지가 나올수 없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1권, 581페지)

공산주의자들이 언제나 혁명적락관주의로 충만되여 모든 곤난과 시련을 이겨내며 혁명을 위하여 몸바쳐 싸우는것은 무엇보다도 그들이 로동계급의 혁명적세계관과 사회발전법칙에 대한 과학적지식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확고한 신념을 소유하고있기때문이다.

혁명은 결코 순탄한 길이 아니다. 혁명투쟁에 나선 공산주의자들은 여러가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험난한 가시덤불을 헤치고 나가야 하며 헤아릴수 없는 난관과 시련을 이겨내야 한다.

사회발전법칙에 대한 과학적지식으로 무장하여야만 어떠한 복잡한 정황속에서도 그것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정세발전의 추이를 예견할수 있으며 투쟁방향과 방도를 찾아낼수 있고 혁명의 승리를 내다볼수 있다.

공산주의자들의 혁명적락관주의는 또한 자기 위업의 정당성과 사회주의, 공산주의에 대한 혁명적자부심에 토대하고있다.

이 세상에서 온갖 낡고 부패한 착취제도를 뒤집어엎고 근로대중을 착취와 압박에서 영원히 해방하며 그들에게 행복한 생활을 마련해주기 위한,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승리를 위한 투쟁은 가장 위대하고 숭고한 위업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가르치시였다:

《공산주의자는 혁명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 정력을 다 바쳐 투쟁하며 이 투쟁에서 가장 큰 기쁨과 긍지를 느끼는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혁명이 간고하지만 혁명가들은 언제나 명랑하고 쾌활하며 정열로 차있습니다.

공산주의의 붉은 기발을 들고 싸우다가 쓰러지는것은 혁명가로서의 최대의 영광입니다. 앞서나가던 사람이 쓰러지면 다음 사람이 또 그 기치를 들고 투쟁을 계속합니다.》

《…사람은 혁명을 하면서 살아야 사는 보람이 있지 혁명도 하지 않고 편안히 앉아서 밥이나 먹고 세월을 보내서는 사는 보람이 없습니다. 더우기 오늘과 같이 벅찬 혁명의 시대에 아무런 투쟁도 하지 않고 안일하게 사는것은 사실상 생활이라고 말할수 없으며 그렇게 사는 사람은 사람값에 가지 못합니다.》

공산주의자들은 일신의 리익과 안일을 위해서가 아니라 혁명의 리익을 자기의 제일생명으로 여기고 싸워나가는 혁명투사들이다. 그들은 혁명투쟁의 한길에서 참된 행복과 삶의 보람을 느낀다.

우리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혁명의 탁월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하에 가장 영광스럽고도 보람찬 혁명투쟁에 참가하고있는 그이의 붉은 혁명전사들이다. 그렇기때문에 우리들의 혁명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는 우리를 항상 승리와 영광, 행복과 번영에로 이끌어주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모시고 그이의 령도하에 영광스러운 혁명에 참가하고있다는 높은 자부심과 긍지이다. 그것은 또한 제국주의를 타도하고 세계혁명을 계속하려는 혁명적인민

의 자부심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를 혁명의 탁월한 령도자로 모시고있는 우리 인민은 무한한 긍지와 혁명적자부심, 미래에 대한 승리의 확신으로 하여 항상 혁명적락관으로 충만되여있다.

공산주의자들의 혁명적락관주의는 무엇보다도 헤아릴수 없는 난관과 시련앞에서 동요를 모르며 혁명적지조를 꿋꿋이 지켜나가는데서 표현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혁명이란 목숨을 걸고 싸우는 투쟁이다. 혁명은 피와 땀을 흘리지 않고 순조롭게 될수는 없다.…

혁명을 먼저 생각하자!

전체 인민이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게 될 자유롭고 행복할 미래를 생각하자.…

우리가 이것을 생각할 때 어찌 난관을 두려워할것인가!…》

혁명투쟁의 력사적경험이 보여주는바와 같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실현을 위한 공산주의자들의 투쟁은 실로 헤아릴수 없는 난관과 엄혹한 시련을 동반하는 매우 간고한 투쟁이다. 혁명투쟁에 나선 공산주의자들은 헤아릴수 없는 난관과 시련, 때로는 뼈아픈 희생과 실패를 겪을수도 있다.

그러나 공산주의자들은 난관에 굴하지 않고 실패에 락심하지 않으며 계속 용감히 앞으로 싸워나가는것이다. 자기 위업의 정당성과 필승의 신념에 충만된 공산주의자들은 교수대와 단두대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다.

공산주의자들의 혁명적락관주의는 또한 현존상태에 만족하지 않으며 계속혁신, 계속전진하려는 혁명정신에서 발현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혁명가들은 미래를 사랑하며 새것을 사랑하기때문에 낡은것을 반대하고 새것의 승리를 위하여 언제나 적극적으로 투쟁합니다. 새것 즉 미래를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보수주의와 소극성이 있을수 없습니다. 그들은 오늘에 만족할수 없으며 더 좋은 앞날을 위하여 계속 앞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청소년교양에서 교육일군들의 임무에 대하여》)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공산주의자들은 당면한 혁명과업을 성과적으로 추진시켜나갈뿐아니라 미래를 앞당기기 위하여 계속혁신, 계속전진한다.

열렬한 혁명가, 공산주의자들은 침체와 답보를 허용하지 않으며 전진, 전진, 투쟁 또 전진한다.

침체하고 보수적인것, 안일해이하고 부화한 생활, 자기 향락만 추구하는 개인주의, 리기주의 등 낡은 사상잔재와 생활기풍은 혁명적락관주의와는 인연이 없다. 이러한것은 오직 자기 한몸만을 생각하며 자신의 안일과 향락을 위하여 투쟁을 회피하고 낡은 세력에 아부굴종하며 전진운동을 방해하는 시정배들의 생활기풍이며 썩어빠진 낡은 사회의 유물이다.

공산주의자들은 이러한 낡고 부패한 자본주의잔재를 단호히 배격하고 언제 어디서나 생기발랄하고 혁명적기백으로 충만되여 오직 휘황한 미래를 향하여 힘차게 전진한다.

전진, 전진, 투쟁 또 전진하는것은 우리자신의 행복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후대들에게 보다 훌륭한 래일을 안겨주기 위해서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나라의 모든 재부와 우리가 생산하고 건설하는 모든것은 다 우리의 후대를 위한것입니다. 우리가 지어놓은 집들과 극장, 문화시설들도 다 후대들을 위한것이며 우리가 절약하고 증산하기 위하여 애쓰며, 과수원을 잘 가꾸고 논밭을 알뜰히 거두는것도 다 우리의 후대들을 행복하게 살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조국의 무궁한 번영을 위하여, 우리 후대들에게 더 훌륭한 생활을 물려주기 위하여 투쟁하고있습니다.》(《녀성동맹사업에 대하여》, 47페지)

미래를 열렬히 사랑하는 공산주의자들은 혁명의 대를 이어나갈 후대들을 열렬한 공산주의투사로 육성하는것을 자기의 숭고한 책임으로 여긴다.

그러므로 공산주의자들은 우리 세대의 인민들뿐아니라 후손만대의 행복과

번영을 위하여 투쟁하며 제일 좋은것을 혁명의 후계자, 새세대들에게 배려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시종일관 자라나는 후대들을 극진히 사랑하시고 아끼실뿐아니라 그들을 열렬한 공산주의투사로 키우시기에 최대의 배려를 돌리신다.

혁명적락관주의의 고귀한 귀감은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령도하신 항일무장투쟁시기에 이룩되였다.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활동에 나서신 때로부터 조국과 인민의 자유와 해방을 위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시였으며 혁명의 길에 가로놓인 온갖 풍파와 난국을 몸소 헤치시고 우리 혁명을 위대한 승리에로 이끌어주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간고한 항일무장투쟁시기 조국의 광복과 조선에서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승리와 광명한 래일에 대한 확고한 신심으로 항일유격대원들과 인민들을 교양하시였으며 그들을 가장 철저한 혁명적락관주의정신으로 무장시키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과 고매한 덕성으로 교양육성된 항일유격대원들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정당성과 그 승리의 필연성에 대한 확신, 영명한 수령의 령도하에 조선혁명에 참가하고있다는 무한한 긍지와 자부심, 혁명적랑만으로 언제나 충만되여있었다.

그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령도하시는 조선혁명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필승의 신념을 가졌기때문에 적들의 첩첩한 포위속에서도, 단두대에 올라서서도 결코 용기를 잃거나 비관하지 않았으며 끝까지 혁명적절개와 지조를 지키면서 원쑤들과 용감하게 싸워승리하였다.

김일성동지의 령도하에 항일유격대원들은 조국의 광명한 미래를 위하여, 후대들에게 보다 훌륭한 새생활을 안겨주기 위하여 자기의 모든 고귀한것을 다 바쳐 투쟁하였으며 헤아릴수 없는 간난신고를 겪으면서도 그들의 생활은 언제나 명랑하고 락천적이였으며 전투적기백으로 충만되여있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직령도하신 항일무장투쟁행정에서 이룩된 혁명적락관주의는 해방후 우리 인민에게 빛나게 계승되여 혁명과 건설에서 훌륭히 발현되고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하에 해방후 우리 인민은 그처럼 간고하고 복잡한 혁명투쟁의 길에서도 언제나 수령께서 가리키시는 승리의 한길을 따라 동요와 주저를 모르고 힘차게 싸워왔다. 곤난이 앞을 가로막거나 준엄한 시련이 닥쳐왔을 때에도 우리 인민은 항상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우러러 승리의 신심과 용기를 얻었으며 조국의 륭성발전과 보다 휘황찬란한 미래를 내다보면서 언제나 혁명적으로 일하며 락천적으로 살아왔다.

오늘 우리 인민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위대한 세기적번영을 이룩하고있으며 세인을 놀래우는 기적을 창조하고있다.

우리 인민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혁명적로선을 철저하게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서 천리마의 혁명적대고조를 계속 견지하고있다.

오늘 우리 인민이 누리고있는 모든 승리와 영광, 행복과 번영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를 떠나서는 생각할수 없으며 보다 휘황찬란한 공산주의미래도 수령의 탁월한 령도에 의해서만 마련될수 있다.

* *

우리는 지금 혁명도상에 있다. 우리의 갈 길은 멀고 할일은 아직도 많다. 우리는 조선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종국적승리를 달성해야 할뿐아니라 세계적범위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완수하여야 할 무거운 임

무를 지니고있다. 우리는 승리에 자만하지 말고 새승리를 향하여 부단히 전진하여야 하며 혁명을 계속해야 한다.

이에 있어서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미래를 사랑하는 정신으로, 혁명적락관주의정신으로 교양하는것이 중요한 문제의 하나로 제기된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혁명적락관주의정신으로 교양함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것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필승불패의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는것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무장하여야만 혁명위업의 정당성과 필승의 신념, 혁명적자부심과 긍지를 가질수 있다.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은 사상에서 주체, 정치에서 자주, 경제에서 자립, 국방에서 자위의 원칙으로 일관된 주체사상으로서 조선혁명을 완성하며 우리 인민을 사회주의, 공산주의 승리에로 가장 정확하게 이끄는, 조선의 구체적인 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된 맑스-레닌주의이다.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은 우리 인민이 나아갈 투쟁의 앞길을 휘황하게 밝혀주고 필승의 신념을 안겨주며 자기 위업의 정당성과 미래에 대한 확신, 혁명에 대한 무한한 자부심과 긍지를 북돋아주며 그 어떤 역경속에서도 굴함없이 용감하게 싸워나아가는 백절불굴의 투쟁정신을 키워준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무장시키자면 반드시 당정책교양을 강화하여야 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가르치시였다:

《우리 당 정책은 우리 나라의 정세를 맑스-레닌주의적으로 분석하고 우리가 나아갈 길을 규정한것입니다. 우리 당의 정책과 맑스-레닌주의를 연구하면 어떠한 어려운 때에도 행복한 앞날에 대한 희망과 승리에 대한 신심을 잃지 않고 용감하게 싸워나아갈수 있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2권, 477페지)

우리 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과 그 구현인 당의 로선과 정책은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투쟁의 앞길을 휘황히 밝혀주는 등대이다.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에는 조국통일과 민족해방의 혁명위업을 완수하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완성할 구체적인 방향과 방도들이 제시되여있다.

우리는 당의 로선과 정책을 깊이 연구체득하고 그것을 자기의 뼈와 살로 되게 함으로써만 승리의 신심과 용기를 가지고 혁명투쟁을 성과적으로 수행하여나갈수 있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혁명적락관주의로 교양함에 있어서 또한 중요한 문제는 혁명전통교양을 강화하는것이다.

혁명전통교양을 강화하는것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당의 유일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고 우리 당의 력사적뿌리를 똑똑히 인식시키며 그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 가장 중요한 방도이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우리 당의 빛나는 혁명전통으로 무장시킬 때만이 대를 이어가면서 조선혁명을 완수할데 대한 김일성동지의 원대한 구상을 실현할수 있으며 혁명의 종국적승리를 달성할수 있다.

김일성동지께서 조직령도하신 항일무장투쟁은 세계력사상 그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 간고한 투쟁이였다.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하에 항일유격대는 수량상으로, 군사기술적으로 우세한 강도 일본제국주의를 상대로 하여 15성상에 걸친 장구한 기간 아무런 국가적후방도, 외부의 지원도 없이 필요한 모든것을 자체로 해결하면서 끝끝내 싸워이겼다.

오늘 우리는 거기에 비할바없이 유리한 조건에서 혁명투쟁을 하고있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를 받는 우리 인민은 당과 수령의 주위에 정치사상적으로 굳게 단결되여있으며 강력한 물질적 및 군사적 력량을 가지고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마련하여주신 항일무장투쟁의 영광스러

운 혁명전통으로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튼튼히 무장시킬 때 그들은 오늘 우리의 혁명과 건설에서 제기되는 그 어떤 난관과 시련도 능히 극복하고 미래를 위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할수 있다.

우리는 당원들과 근로자들로 하여금 항일유격대원들이 그러하였던것처럼 수령께 무한히 충직한 혁명전사로, 불굴의 공산주의투사로 자신을 부단히 수양하고 단련하도록 하여야 한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혁명적락관주의정신을 배양함에 있어서 또한 중요한것은 사회발전의 법칙에 관한 과학적지식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는것이다.

사회발전의 합법칙성을 똑똑히 인식함으로써만 제국주의자들이 아무리 오만하게 날뛰여도 우리의 혁명위업인 공산주의는 반드시 승리하고 제국주의는 멸망한다는 확고한 신심을 가지고 혁명투쟁에 적극 이바지할수 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가르치시였다:

《공산주의에로의 전진도상에 헤아릴수 없는 난관과 장애물이 가로놓여있고 이러저러한 곡절이 있을수는 있지마는 제국주의가 멸망하고 공산주의가 승리하는 력사발전의 합법칙적과정을 가로막을 힘은 없는것입니다.》
(《현정세와 우리 당의 과업》, 84페지)

우리는 근로자들에게 자본주의멸망의 불가피성과 공산주의승리의 필연성, 제국주의의 침략적본성과 그의 취약성을 깊이 인식시킴으로써 그들속에서 이미 자기 세대를 다 산 제국주의에 대한 극도의 증오감과 공산주의에 대한 열렬한 지향을 불러일으켜야 한다.

우리는 근로자들속에 우리 혁명의 첫째가는 투쟁대상인 미제국주의와 그리고 일본군국주의에 대한 불타는 적개심을 북돋아주며 미일제국주의자들과 그 주구 박정희괴뢰도당은 멸망할것이며 우리 인민의 조국통일과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필승의 신념을 키워주어야 한다.

동시에 우리는 우리 나라에 확립된 가장 선진적인 사회주의제도를 열렬히 사랑하고 그것을 더욱 공고발전시키며 나아가서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공산주의의 휘황한 앞날을 위해 모든것을 바쳐 싸워나가야 한다.

근로자들속에 혁명적락관주의정신을 배양하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을 강력히 진행하는 한편 사회주의건설의 실천적투쟁을 통해서 그들속에 혁명적의지와 승리의 신심과 락관주의사상을 키워주어야 하며 일상적인 사업과 생활에서 온갖 낡고 보수적이며 침체한것을 타파하고 언제나 활기있고 명랑하게 락천적으로 살며 일하는 공산주의적생활기풍을 수립하여야 한다.

우리는 혁명적락관주의정신으로 튼튼히 무장함으로써 항일유격대원들처럼 당과 수령께 무한히 충실할것이며 수령께서 가리키시는 길을 따라 조선혁명의 완성과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위하여 견결히 싸워나갈것이다.

대중지도와 일군들의 사업작풍

김 동 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공화국정부의 위대한 10대정강에서와 그후 일련의 교시들에서 우리 혁명기지의 정치사상적 및 경제군사적 위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당면과업을 명시하시고 그 관철에로 광범한 대중을 적극 조직동원하기 위하여 일군들속에서 관료주의를 없애고 혁명적군중관점과 인민적사업작풍을 확립할것을 다시금 간곡히 교시하시였다.

우리의 모든 일군들이 김일성동지의 이 강령적교시를 철저히 관철하는것은 당과 대중과의 혈연적련계를 더욱 강화함으로써 전체 인민의 정치사상적통일을 확고히 보장하며 광범한 인민대중을 당정책관철에로 힘있게 조직동원하여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혁명적대고조를 계속 견지함에 있어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일군들속에서 혁명적군중관점과 인민적사업작풍을 확립하는것은 우리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성과적으로 보장하는 중요한 담보로 된다.

우리 당의 모든 로선과 정책은 우리 일군들을 통하여 대중속에 침투되며 그 집행이 조직된다.

당의 로선과 정책은 대중이 그 진수를 파악하고 자각적으로 동원됨으로써만 성과적으로 관철될수 있다. 우리 일군들이 김일성동지의 교시와 당정책을 심장으로 받들고 대중지도사업을 잘하는것은 대중의 무궁무진한 힘과 지혜를 충분히 발동하여 당정책을 성과적으로 관철하기 위한 중요한 고리로 된다.

그러므로 혁명의 지휘성원들인 우리 일군들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와 당정책을 대중속에 침투시키며 그 관철에로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동원하는 사업을 책임적으로 조직전개하여야 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의 로선과 정책이 정확하고 그것을 집행하기 위한 대책과 방도가 옳게 세워진 다음에는 혁명과업이 성과적으로 수행되는가 안되는가 하는것은 전적으로 그것을 직접 조직집행하는 일군들의 사업방법과 사업작풍에 달려있으며 그들이 어떻게 광범한 대중을 이 사업에 조직동원하는가에 달려있습니다.》

(《국가활동의 모든 분야에서 자주, 자립, 자위의 혁명정신을 더욱 철저히 구현하자》, 32페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시는 우리 당의 모든 로선과 정책은 항상 정확하다. 당의 로선과 정책에는 매개 부문사업의 기본방향과 원칙들뿐만아니라 그 수행방도도 명백히 제시되여있다. 이러한 조건에서 당정책이 옳게 관철되는가 안되는가 하는것은 전적으로 일군들의 역할에 달려있다. 우리 당의 옳은 로선과 정책은 그의 직접적인 조직집행자인 우리 일군들이 대중의 힘을 믿고 그에 튼튼히 의거하여 그들을 혁명과업수행에 적극 조직동원하여야 응당한 생활력을 발휘하게 되는것이다.

당정책관철에로 대중을 조직동원함에 있어서 중요한것은 일군들의 정치사상적각오와 능력을 높이는 동시에 그들속에서 인민적사업작풍을 철저히 확립하는것이다.

일군들속에서 인민적사업작풍을 확립하는것은 대중을 당과 수령의 주위에 더욱 굳게 단결시키고 우리 혁명력량을

반석같이 다지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일군들이 혁명가적품성을 가지며 당적사업작풍을 가져야 군중을 당주위에 묶어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당을 믿고 사랑하며 당을 따라오도록 할수 있습니다.》

우리 일군들이 옳은 사업작풍을 소유하여야만 당과 대중과의 혈연적련계를 더욱 긴밀히 하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위에 굳게 뭉친 우리 인민의 불패의 통일을 강화할수 있으며 모든 근로자들을 수령께서 가리키신 길을 따라 혁명과 건설에 성과적으로 조직동원할수 있다. 우리 일군들의 옳은 사업작풍은 지도와 대중을 밀접히 결합시킴으로써 대중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지혜를 최대한으로 발양시킬수 있게 하며 지도일군들과 대중이 한몸이 되어 당정책관철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성과적으로 해결할수 있게 한다.

그러므로 우리 일군들이 진정으로 당과 수령께 충직한 혁명전사가 되고 인민의 참다운 충복이 되여 혁명과 건설에 적극 이바지하려면 인민적사업작풍을 철저히 확립하여야 한다.

인민적사업작풍은 당과 인민의 리익을 옹호하는것을 첫째가는 사명으로 하고 모든 사업을 대중의 지혜와 창조력에 의거하여 수행하는 일군들의 품성과 태도를 말한다.

인민적사업작풍은 철저한 혁명적군중관점과 우리 당의 군중로선에 기초하고 있다. 그것은 인민의 리익과 행복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바쳐 투쟁하며 인민대중의 힘을 믿고 그에 튼튼히 의거하여 인민대중과 고락을 같이하는 공산주의자들의 고유한 품성이다.

이러한 인민적사업작풍의 가장 빛나는 전통은 김일성동지께서 조직전개하신 항일무장투쟁의 불길속에서 이룩되였다.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민족적영웅이신 우리 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간고한 항일무장투쟁의 전행정에 걸쳐 **《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수 없는것처럼 유격대가 인민을 떠나서 살수 없다.》**라고 하시면서 유격대원들을 조국과 인민의 리익을 위하여 무한히 헌신하는 혁명적기풍과 인민적작풍으로 교양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상 우리 유격대원들과 정치공작원들에게 우리가 누구를 위하여 무엇을 목적하고 싸우는가를 가르쳐주시였다. 또한 그이께서는 인민의 리익을 귀중히 여기며 광범한 대중을 혁명투쟁에 적극 인입하기 위하여서는 어떤 방법으로 전투와 군중공작을 진행하여야 하는가를 일일이 가르쳐주시였으며 몸소 그 모범을 보여주시였다.

김일성동지께 무한히 충실한 항일유격대원들은 그이의 교시와 실천적모범을 따라 언제나 인민을 위하여 충실히 복무하였으며 인민의 힘에 의거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하였다. 그러므로 우리 유격대원들은 어데로 가나 인민들로부터 친혈육과 같은 두터운 사랑과 존경, 절대적인 지지를 받을수 있었으며 혁명군중과의 밀접한 련계밑에 강도 일제와의 싸움에서 언제나 승리할수 있었다.

김일성동지에 의하여 항일무장투쟁시기에 전면적으로 확립된 혁명적군중관점과 인민적사업작풍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은 해방후 우리 당과 인민에 의하여 빛나게 계승발전되였으며 우리 일군들과 당원들의 고귀한 귀감으로 되였다.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하에 우리 당은 창건 첫날부터 일군들속에서 혁명적사업방법과 함께 인민적사업작풍을 확립하기 위한 투쟁을 꾸준히 전개하여 왔다. 우리 당은 일부 일군들속에서 나타난 관료주의, 형식주의 등 반인민적사업작풍을 청산하고 당의 전통적인 혁명적사업작풍을 전면적으로 계승발전시키기 위하여 전력을 다하였다. 특히 김일성동지께서는 위대한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을 창조하심으로써 사회주의 제도가 확립된 새로운 환경에 맞게 우리 일군들의 대중사업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가져올수 있게 하시였으며 몸소 전국의 수많은 공장과 농촌을 현지지도하시는 행정에서 인민적사업작풍의 가장 위대하고 고귀한 모범을 보여주시였다.

김일성동지의 정확한 방침과 직접적인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오늘 우리 일군들은 정치, 경제, 문화, 군사의 모든 분야에서 수령의 혁명사상을 철저히 옹호관철하며 당정책집행에로 대중을 능숙히 조직동원할줄 아는 유능한 지휘성원들로 자라났다. 우리 일군들속에서는 군중속에 들어가 군중에 의거하고 그들의 무궁무진한 힘과 지혜를 동원하는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사업작풍이 그 어느 때보다도 철저히 확립되였다.

오늘 급속히 발전하는 현실은 우리 일군들의 사업작풍을 더욱 개선할것을 요구하고있다.

오늘 우리앞에는 미제국주의자들의 날로 격화되는 새전쟁도발책동에 대처하여 광범한 대중을 당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위에 철석같이 묶어세우고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혁명적대고조를 계속 견지하여 우리 혁명기지의 정치, 경제, 군사적 위력을 백방으로 강화함으로써 조국통일의 혁명적대사변을 주동적으로 앞당겨야 할 숭고한 혁명임무가 제기되고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우리 혁명의 전략적방침과 그 관철을 위한 당의 전투적호소를 받들고 일떠선 대중의 혁명적열의와 기세는 충천하다. 우리 일군들은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대중의 앙양된 혁명적기세를 계속 견지하고 우리앞에 제기된 혁명과업을 성과적으로 관철하기 위하여 사업작풍을 결정적으로 개선하여야 하며 대중지도수준을 더욱 높여야 한다.

❀ ❀

김일성동지께서는 오늘 우리 일군들이 반드시 소유하여야 할 인민적사업작풍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국가, 경제 기관일군들은 우리 당의 혁명적사업방법을 소유할뿐아니라 국가의 법령들과 결정, 지시들을 집행하는데서 언제나 앞장서며 모든 일에서 이신작칙하며 겸손하고 소박하고 례절이 바른 인민적품성을 가짐으로써 실지행동으로 대중의 모범이 되여야 합니다.》(《국가활동의 모든 분야에서 자주, 자립, 자위의 혁명정신을 더욱 철저히 구현하자》, 85페지)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우리 당의 모든 로선과 정책을 심장으로 접수하고 그것을 대중의 앞장에 서서 책임적으로 관철해나가는것은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의 매개 초소를 담당한 지휘성원들인 우리의 모든 일군들의 가장 중요한 의무이다. 우리 일군들은 어떤 단위, 어떤 위치에서 일하든지간에 군중을 발동하여 당정책을 책임적으로 끝까지 관철하여야 할 무거운 사명을 지니고있다.

군중을 발동하여 당정책을 관철시켜야 할 사명을 지닌 우리의 당 및 국가, 경제 기관의 모든 일군들에게 있어서는 관료주의, 형식주의, 주관주의, 개인리기주의, 요명주의, 공명출세주의, 소극성과 보수주의, 고용자적근성 등과 같은 반인민적작풍이 결코 허용될수 없다. 우리 일군들은 군중에게 당정책을 깊이 침투시키고 그들과 혼연일체가 되여 당정책을 끝까지 관철해나갈 때 자기의 숭고한 임무를 다할수 있다. 일군들은 사업에서 어떠한 애로와 난관이 제기되여도 확고한 신심을 가지고 당정책관철에로 대중을 힘있게 발동하여야 한다.

당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서의 일군들의 사업태도는 대중에게 커다란 영향력을 미친다. 일군들이 아무리 어려운 정황속에서도 당과 혁명에 대한 충실성과 당의 로선과 정책의 정당성에 대한 확고한 신심, 당정책을 끝까지 관철하고야 말겠다는 당적책임감과 백절불굴의 혁명정신으로 충만될 때 대중은 당정책관철에로 더욱 힘있게 발동될수 있다.

우리 일군들은 무엇보다도 자기가 차지한 위치와 맡은바 사업에 대한 무거운 당적책임감을 간직하고 당정책을 어김없이 관철해나가는 기풍이 있어야 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매개 일군들에게는 자기가 담당하고있는 사업에 대하여 그것이 심중한 당적과업이므로 어떤 난관과 애로가 있더라도 당이 결정한대로 집행하겠다는 결심이 있어야 하며 자기가 한번 사업을 잘못 집행하면 당과 국가에 커다란 손실과 해독을 주게 된다는 당적책임감이 있어야 한다.》

오늘 우리 일군들의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은 당과 수령께서 제시하신 로선과 정책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그것을 적극 지지옹호하며 당정책을 끝까지 책임적으로 관철하는 주인다운 립장과 혁명가적기풍에서 표현되여야 한다.

우리의 모든 일군들은 당과 수령의 높은 신임을 받고있으며 당정책관철을 위한 중요초소를 맡고있다는 자각에 기초하여 당과 혁명의 요구라면, 인민대중의 리익을 위함이라면 끝까지 해내고야마는 높은 책임성을 소유하여야 한다. 만일 일군들이 높은 당적책임감과 전투적기백이 없으면 대중의 무궁무진한 힘을 동원할수도 없고 해당 단위의 내부예비와 가능성을 충분히 리용할수도 없다.

우리 일군들은 어떤 정황에서도 김일성동지의 교시와 당정책을 끝까지 관철하기 위하여 없는것은 만들어내고 부족한것은 찾아내여 로력과 자재, 자금을 극력 아껴쓰며 인민들에게 한알의 쌀, 한그람의 기름, 한메터의 천이라도 더 차례지도록 아득바득 애를 쓰며 사업을 혁명적으로 밀고나가야 한다.

실천적경험은 사업에서의 성과여부가 그 어떤 객관적조건에 달려있는것이 아니라 혁명과업을 이악스럽게 달라붙어 해결하려는 일군들의 주인된 립장과 혁명적각오여하에 달려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혁명과 건설의 지휘성원들인 우리 일군들이 자기 사업에 대한 높은 책임감을 간직하고 어떻게 하면 김일성동지의 교시와 당정책을 더 잘 관철할것인가에 대하여 연구하고 사업을 짜고들어 조직하며 대중을 발동한다면 아무리 어려운 과업이라도 성과적으로 해낼수 있다.

김일성동지께서 교시하신바와 같이 우리의 모든 일군들이 자기 사업에 대한 높은 책임감을 가지고 군중을 믿고 군중에게 튼튼히 의거하며 그들을 조직하고 잘 발동한다면 산도 허물고 바다도 메우고 무엇이든지 다할수 있는것이다. 또한 일군들자신이 이러한 견결한 기풍을 발휘할 때 대중의 혁명적열의는 더욱 제고되며 그들속에서 비록 물과 불속에라도 뛰여들어 당정책을 기어이 관철하려는 전투적기백이 흘러넘치게 되는것이다.

대중지도에서 인민적사업작풍을 확립하기 위한 기본요구의 다른 하나는 일군들이 모든 사업과 생활에서 이신작칙하는것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원들은 모든 일에서 군중의 앞장에 서고 군중이 어려워하는 일에는 먼저 뛰여들어가 실천하며 일에서나 학습에서나 모범이 되여야 합니다. 그리하여 군중속에서 혁명투쟁의 기수가 되여 군중을 교양하여 이끌고나가야 합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2권, 389페지)

이신작칙은 실천을 통하여 대중을 교양하며 이끌고나가는 위력있는 우리 당의 전통적인 사업작풍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무장투쟁의 전행정에서 몸소 모든 일의 앞장에 서시여 이신작칙하시였으며 이 모범을 유격대지휘성원들이 누구나 다 구현하도록 가르치시고 지도하시였다.

항일유격대지휘성원들에게서는 사령관동지의 가르치심과 위대한 모범을 따라 언제나 대원들의 앞장에서 자기의 모범으로 대원들을 교양하고 이끄는것

이 하나의 전통적기풍으로 되여있었다. 그렇기때문에 대원들도 매일같이 계속되는 힘겨운 전투와 행군에서도, 식량부족으로 참기 어려운 고비에서도 사령관동지의 뜻을 받들고 자각적으로 규률을 지키고 언제나 용감히 싸웠다. 이것은 지휘성원들의 이신작칙이 어떠한 전투행동이나 군중공작에 있어서 성과의 중요한 담보로 된다는것을 말하여준다.

우리 일군들은 말로써가 아니라 실지 행동으로 대중을 감화시키며 교양하여 이끌어나가는 우리 당의 전통적인 사업작풍을 철저히 구현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당조직생활에서와 학습에서, 로동에서와 나라살림살이를 알뜰히 꾸리는데서, 사생활과 공중도덕생활에서 항상 군중의 모범이 되여야 한다. 특히 어렵고 힘든 일에 솔선 투신하여 실천적모범으로 대중을 이끌어나가야 한다. 이렇게 할때 대중은 진심으로 일군들을 존경하고 따르게 되며 일군들과 함께 당정책을 보다 훌륭히 관철함으로써 당과 수령의 혁명전사된 영예를 더욱 빛내이려는 각오를 굳게 다지게 된다.

일군들이 사업과 생활에서 이신작칙하면 할수록 대중은 당정책관철에로 더 잘 발동되며 혁명과업은 보다 훌륭히 수행된다. 그리하여 대중지도의 효과는 더욱 커지며 당과 대중과의 혈연적련계는 더욱 강화되는것이다.

일군들의 사업작풍에서 또한 중요한것은 겸손하고 소박해야 하는것이다.

겸손성과 소박성은 일군들의 혁명적 수양정도를 보여주는 중요한 품성이다. 모든 일군들은 자기가 일하는 위치가 결코 타고난 벼슬자리가 아니며 자신이 인민들속에서 나왔고 로동계급과 근로대중의 리익을 위하여 복무하는 심부름군이라는 관점을 옳게 가지고 사업과 생활의 모든면에서 겸손하고 허심하며 소탈하고 진실하여야 한다. 특히 군중을 대함에 있어서 교만하지 말고 너그러우면서도 강한 원칙성을 가져야 하며 례절을 지키고 인민의 생활풍습을 존중하여야 한다.

모든 일군들이 겸손하고 소박하며 군중을 진심으로 믿고 아량있게 대해줌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당을 믿고 자기의 모든것을 다바쳐 당과 수령께 끝까지 충실하도록 하여야 한다.

일군들이 이렇게 소박하고 평범한 풍모를 가져야만 사람과의 사업이 잘되고 대중과 잘 어울릴수 있으며 그들과 합심이 되여 생산과 건설에서 계속 앙양을 일으켜나갈수 있다.

대중지도에서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사업작풍을 확립하는 문제는 꾸준한 혁명적수양과 사상단련을 통하여서만 해결될수 있다. 그것은 사업작풍이 사상과 방법의 종합적표현인것만큼 인민적 사업작풍을 확립하려면 우선 일군들의 사상관점을 바로잡아야 하기때문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업작풍은 일군들의 사업능력이나 성격상 문제가 아니라 사업행정에서 나타나는 그들의 사상의 표현입니다. 우리는 국가, 경제기관일군들에 대한 사상교양을 강화하여 그들이 낡은 사상잔재의 표현인 관료주의적 사업작풍을 없애고 참말로 인민적인 사업작풍을 가지도록 하여야 하며 당과 혁명에 무한히 충실하며 조국과 인민의 리익을 위하여 견결히 투쟁하는 고상한 품성을 가지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국가활동의 모든 분야에서 자주, 자립, 자위의 혁명정신을 더욱 철저히 구현하자》, 35~36페지)

김일성동지께서 교시하신바와 같이 일군들의 사업작풍은 결코 그 어떤 기술실무적능력이나 성격상 문제가 아니라 사상관점에 관한 문제이다. 일군들이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을 소유하고 당과 혁명을 위하여,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무한히 헌신하려는 사상관점을 철저히 확립하여야 군중에 대한 옳은 립장과 태도를 가지고 인민적사업작풍을 확립할수 있으며 관료주의, 형식주의, 주관주의, 개인리기주의, 공명출세주의, 경험주의 등 낡은 사업작풍을 철저히 극복할수 있다.

인민적사업작풍을 소유함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것은 우리 일군들과

당원들이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 당의 유일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그이의 높은 덕성을 깊이 체득하는것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과 높은 덕성을 깊이 체득하여 자기의 뼈와 살로 만들고 일편단심 그이를 따라배우는것은 우리 일군들과 당원들의 가장 중요한 의무이며 최대의 영예이다.

우리의 모든 일군들은 수령의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수령의 고매한 덕성을 따라배움으로써만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인민대중의 리익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것을 다바쳐 견결히 투쟁하는 수령께 무한히 충실한 혁명전사로 될수 있으며 혁명적군중관점과 인민적사업작풍을 확고히 소유한 인민의 충복이 될수 있다.

간고한 항일무장투쟁시기 혁명의 수령 김일성동지께 충직한 우리 유격대원들은 어려운 전투의 휴식시간에도, 행군도상에도 수령의 혁명사상과 그이의 높은 덕성을 배우는것을 한시도 중단하지 않았다. 당시 우리 유격대원들은 어려운 때일수록, 사령부와 멀리 떨어져있을 때일수록 사령관동지의 가르치심을 되새겨가면서 언제나 태양을 따르는 해바라기와 같이 위대한 수령을 따라배웠다.

항일유격대원들은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고 항상 그이의 가르치심에 충실하였기때문에 가장 높은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을 소유한 혁명투사로 자라날수 있었으며 인민적사업작풍을 지닐수 있었다.

우리 당의 빛나는 혁명전통을 계승한 우리 일군들과 당원들은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 당의 유일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높은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을 소유함으로써 혁명적세계관과 군중관점을 철저히 세우고 우리 당의 전통적인 사업작풍과 배치되는 온갖 낡은 사업작풍을 반대하여 강력히 투쟁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대중에 대한 지도수준을 부단히 높여야 한다.

* *

일군들의 사업작풍을 개선하고 지도수준을 높이는것은 우리의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성과의 여부를 좌우하는 관건적문제의 하나이다.

일군들속에서 옳은 사업작풍을 확립함으로써 당과 대중과의 련계를 더욱 밀접히 하고 전체 인민의 정치사상적통일을 더욱 강화할수 있으며 생산자대중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지혜를 발동하여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계속 혁명적대고조를 견지해나갈수 있다.

모든 당조직들은 일군들과 당원들의 당조직생활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고 그들의 정치도덕적수양과 기술문화적수준을 높임으로써 대중지도에서 인민적사업작풍을 확립하기 위한 투쟁을 그 어느때보다도 강화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로 하여금 당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참된 혁명전사로서, 인민의 충복으로서 대중을 옳게 발동하여 당대표자회결정과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10대정강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서 빛나는 승리를 이룩하도록 하여야 할것이다.

중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면서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키는 우리 당 경제건설의 기본로선

오늘 우리 인민은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의 모든 초소들에서 혁명적대고조를 더욱 앙양시키고있는 보람찬 투쟁의 환경속에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경제건설의 기본로선을 제시하신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6차전원회의 열다섯돐을 맞이한다.

1953년 8월 5일 김일성동지께서는 이 전원회의에서 전후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을 전면적으로 전개하기 위한 방향을 천명하시면서 우리 당이 경제건설에서 견지하여야 할 기본로선을 제시하시였다.

중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면서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키는것은 우리 나라의 구체적조건에서 김일성동지에 의하여 창조된 가장 훌륭한 맑스-레닌주의적로선이며 사회주의경제건설에 관한 맑스-레닌주의리론을 발전풍부화한 가장 과학적이며 독창적인 경제건설로선이다.

우리 인민은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경제건설의 기본로선을 따라 모든 난관과 애로를 박차고 확신성있게 전진함으로써 사회주의건설에서 위대한 승리와 성과를 달성할수 있었다.

지난 15년간의 우리 나라 사회주의건설의 실천적경험은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경제건설의 기본로선이 사회주의경제건설을 최대한으로 촉진하는 독창적이며 옳바른 로선이라는것을 확증하였다.

이 로선을 관철하는 과정에서 위대한 성과를 달성함으로써 우리 당의 위신은 허물수 없는, 더욱 확고한것으로 되였으며, 우리 인민은 김일성동지를 수령으로 모시고 그이의 현명한 령도밑에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 헌신하고있는 긍지와 자부심을 더욱 굳게 가지게 되였으며, 당과 대중과의 통일단결은 더욱 불패의것으로 되였다.

우리의 영웅적로동계급과 전체 근로자들은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경제건설의 기본로선이 가져다준 위대한 결실, 오늘의 무한히 행복한 생활을 긍지높이 자랑하며 그이께 끝까지 충실하려는 결의로 가슴불태우고있다.

1

김일성동지께서는 전후 경제의 복구건설과 장래발전을 위하여 우리 인민이 나아가야 할 길을 다음과 같이 밝혀주시였다:

《우리는 전후경제건설에서 중공업의 선차적복구발전을 보장하면서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나라의 경제토대를 튼튼히 할수 있고 인민생활을 빨리 개선할수 있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1권, 401페지)

전후에 조성된 우리 나라의 형편은 매우 어렵고 복잡하였다. 전쟁피해는 참으로 막심하였으며 미제침략자들의 귀축같은 만행에 의하여 우리의 피땀으로 이루어진 모든것이 파괴되였다. 도시와 마을은 재더미로 되였으며 인민경

제의 모든 부문 특히는 중공업이 여지없이 마사지고 교육, 문화, 보건 시설들이 불타버렸다. 인민들은 주택과 가재도구마저 거의 다 잃어버렸으며 우리에게는 먹을것, 입을것도 심히 부족하였다.

또한 지난 3년간의 가렬한 조국해방전쟁에서 우리 인민의 영웅적투쟁에 의하여 저들의 력사상 전례없는 참패를 당한 미제국주의침략자들과 그 주구들은 여전히 침략적야망을 버리지 않고 도발책동과 파괴행위를 끊임없이 감행하였다.

전쟁에서 승리한 우리 인민앞에는 시간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우리의 혁명기지를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더욱 튼튼히 다져야 했다.

그러자면 전쟁에 의하여 령락된 인민생활을 빨리 회복하면서도 어떻게 하나 짧은 시일내에 제발로 걸어나갈수 있는 경제적밑천을 마련하여야 하였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것은 복구건설의 방향과 선후차를 명확히 규정하며 중심고리를 옳게 포착하고 거기에 힘을 집중하는 문제였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하는것은 실로 혁명의 전도와 우리 민족의 흥망을 좌우하는 사활적문제였으며 우리 인민의 철천지원쑤 미제침략자들을 물리치고 조국의 통일위업을 승리적으로 보장하느냐 못하느냐 하는것을 규정하는 관건적문제였다.

그러나 재더미우에서 첫삽을 든 우리 인민은 무엇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있었다.

바로 이러한 때 조국해방전쟁을 위대한 승리에로 이끄신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며 우리 인민의 위대한 수령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중공업을 전후복구건설의 모든 문제를 성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중심고리로 인정하시고 중공업의 우선적장성을 보장하면서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키는 경제건설의 기본로선을 제시하심으로써 우리 인민이 나아갈 길을 환히 밝혀주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 밝혀주신 중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면서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키는 우리 당 경제건설의 기본로선은 우리 혁명 발전의 요구와 우리 인민의 한결같은 의사를 반영하였으며 현재뿐만아니라 먼 앞날까지 명철하게 내다보시고 작성하신 독창적인 로선으로서 자립적민족경제의 토대를 튼튼히 축성하면서 인민생활을 급속히 향상시키는 어려운 과업을 동시에 해결할수 있게 하는 가장 정확한 혁명적로선이다.

우리 나라는 전후시기 조성된 구체적형편으로 보나 또한 부강한 자주독립국가건설과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견지에서 보나 인민경제의 어느한 부문만을 복구건설할수 없었다. 우리는 중공업도 빨리 복구건설해야 했으며 경공업과 농업도 다 같이 추켜세우며 급속히 발전시켜야 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 나라에서는 전후시기에 중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면서 경공업과 농업도 동시에 발전시켜야 하였습니다. 왜냐 하면 중공업을 발전시키지 않고서는 경공업을 발전시킬수 없고 농업도 발전시킬수 없었기때문입니다. 우리가 복구발전시킨 중공업은 다 경공업 및 농업의 발전과 밀접히 련결된것이였습니다. 또 전쟁으로 말미암아 전체 인민이 헐벗었고 도시와 농촌이 다 파괴되였기때문에 중공업만 발전시키고 경공업과 농업을 발전시키지 않았다면 그동안 인민들이 먹고 입고 살아야 할 조건들을 만들수 없었을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당은 중공업도 발전시키고 경공업과 농업도 동시에 발전시켰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2권, 41페지)

원래 중공업은 공업의 주도적부문이며 그것은 자립적민족경제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을 보장하기 위한 기간부문이다. 중공업을 발전시켜야만 자립적인 민족공업의 기초를 쌓을수 있고 부강한 자주독립국가를 건설하며 민족의 장래번영을 이룩할수 있다.

더우기 우리 나라는 경제발전의 력사

적특수성과 일련의 사정으로 하여 중공업을 급속히 발전시키는것은 각별히 절실하고 중요한 요구로 나섰다. 우리는 전쟁의 혹심한 피해를 가시며 민족경제의 식민지적편파성과 락후성을 퇴치하고 하루속히 자립적인 민족경제의 튼튼한 토대를 쌓아올려야 하였으며 또한 우리 나라의 경공업과 농업은 중공업의 복구발전에 크게 의존되여있었다. 모든것은 중공업에 달려있었으며 그의 급속한 발전을 선차적인 요구로 제기하였다.

물론 그렇다고 하여 중공업만 내세우고 거기에만 힘을 기울일수도 없었다.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아무런 기초조차 없는 경공업을 새로 창설해야 했으며 그래야 중공업과 균형을 맞추고 공업전반을 급속히 발전시키며 대중소비품에 대한 인민들의 수요를 충족시킬수 있었다.

또한 우리 나라 인민경제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농촌경리를 추켜세워야만 전체 인민의 생활을 급속히 안정향상시킬수 있었으며 공업에 식량과 원료를 대줄수 있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중공업의 복구건설과 나라의 경제토대의 강화를 홀시하거나 뒤로 미루면서 경공업과 농업의 발전에만 힘을 넣을수 없었으며 다른 한편 중공업에만 치우치면서 경공업과 농업발전을 뒤로 미룰수도 없었다. 우리는 강력한 자체의 중공업을 건설해야 했고 경공업도 농업도 다 같이 힘있게 발전시켜야 했다.

김일성동지께서 맑스-레닌주의리론을 우리 나라 구체적실정에 창조적으로 적용하여 작성하신 우리 당 경제건설의 기본로선은 실로 그 어느 나라의 력사에도 찾아볼수 없는 독창적인 로선이며 그 누구도 걸어보지 못한 새로운 길이다.

다른 나라의 공업력사를 보면 많은 나라들에서는 일정한 기간 중공업을 발전시킨 다음 경공업을 발전시켰으며 자본주의나라들에서는 경공업을 먼저 발전시켜 돈을 모아가지고 중공업을 건설하였다. 우리는 자본주의적공업발전의 길은 물론 다른 형제나라들의 경험도 받아들일수 없었다. 우리 인민은 오직 4천만 조선인민의 탁월한 수령이신 김일성동지께서 가리키신 유일하게 정당한 길로 나감으로써만 위대한 승리를 쟁취할수 있었다.

중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면서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킬데 대한 우리 당 경제건설의 기본로선은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주체사상의 빛나는 구현으로서 빠른 기간에 나라의 자립적민족경제를 훌륭히 건설할수 있게 하며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를 성과적으로 축성할수 있게 하는 정당한 길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위대한 주체사상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시종일관 확고히 견지하시여 조선혁명을 항상 승리에로 인도하고계신다. 그이께서 제시하신 우리 당 경제건설의 기본로선은 아무것도 없는 락후한 처지에서 자신의 힘으로 나라의 자주적발전과 민족적번영을 이룩할수 있는 자체의 경제적토대를 빠른 기간내에 튼튼히 꾸릴수 있게 하는 맑스-레닌주의적길을 명확히 가르쳐주고있다.

어떠한 민족이든지 중공업을 비롯한 자체의 경공업과 농업을 건설하여 민족경제의 자립적토대를 튼튼히 축성함으로써만 정치에서 자주, 경제에서 자립, 국방에서 자위의 원칙을 실현할수 있으며 나아가서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훌륭히 건설할수 있다.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하지 않고서는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성과적으로 건설할수 없다.

우리 당 경제건설의 기본로선은 나라의 경제건설과 국방건설 및 인민생활의 다양하고 부단히 장성하는 중공업 및 경공업 제품들과 농업생산물에 대한 수

요를 자체의 생산으로 충족시킬수 있는 자립적민족경제를 빠른 기간에 건설할수 있게 함으로써 튼튼한 사회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훌륭히 쌓아올릴수 있게 한다.

현시대의 탁월한 맑스-레닌주의자이시며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이신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중공업의 우선적장성을 보장하면서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킬데 대한 우리 당 경제건설의 기본로선은 실로 우리 조국의 부강발전과 조선혁명을 곧바른 승리의 길로 인도하는 위대한 로선이며 락후와 빈궁을 벗어던지고 독립되고 번영하는 새조국을 건설하며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훌륭히 건설할수 있게 하는 위력한 리론실천적무기로 된다.

2

경제건설의 기본로선을 관철하는 과정은 순탄한 길이 아니였다. 내외의 계급적원쑤들은 우리 당 경제건설의 기본로선을 반대해나섰다. 그들은 《인민생활이 어려운데 중공업건설에 치우친다.》거니, 《기계에서는 밥이 나오지 않는다.》거니 하면서 우리 당의 로선을 중상비방하였다. 그들의 주장은 장래야 어떻게 되든지간에 모든것을 당면한 소비에 돌려야 한다는것이였으며 결국은 우리 나라 자체의 경제토대를 축성하지 못하게 하려는것이였다.

그러나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당과 인민은 원쑤들의 온갖 방해책동을 단호히 물리치고 그이께서 밝혀주신 길에서 한걸음도 물러서지 않았으며 불굴의 강의성을 가지고 우리 당 경제건설의 기본로선을 철저히 관철하여나아갔다.

우리 당 경제건설의 기본로선은 오직 우리 인민의 위대한 수령이신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서만 훌륭히 관철될수 있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경제건설의 기본로선을 성과적으로 관철하기 위한 정확한 방도를 가르치시였으며 인민경제복구건설의 진두에 서시여 몸소 어려운 고비를 능숙하게 극복타개하시면서 인민들의 투쟁을 승리에로 인도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복구건설의 단계는 어떻게 설정하고 그 기간에 해결하여야 할 중심과업은 무엇이며·투자의 방향과 선후차는 어떻게 규정하고 어느 고리에 력량을 집중할것이며 자금과 기술, 로력문제는 어떻게 해결하고 국내자원과 인민대중의 혁명적열의를 어떻게 발동할것인가 하는것 등 경제건설의 기본로선을 관철함에 있어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에 대한 가장 정확한 해명을 주시였다.

우리 당은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 방침에 따라 전후 인민경제복구건설사업을 세개의 기본단계로 구분하고 첫단계는 복구건설의 준비단계로, 둘째단계는 인민경제복구발전 3개년계획을 수행하여 모든 부문에서 전쟁전수준을 회복하도록 하며 셋째단계는 5개년계획을 수행하여 사회주의적공업화의 기초를 축성하는 단계로 각각 설정하고 매시기의 주객관적조건에 알맞게 기본로선을 훌륭히 관철하여나갔다.

우리 당은 기본투자를 실시함에 있어서 선후차를 옳게 가리고 중점적투자를 보장하는 동시에 복구와 개건, 확장 및 신설을 옳게 배합함으로써 투자의 효과성을 최대한으로 높이도록 하였다. 이것은 생산의 급속한 장성을 보장하도록 하면서 현대적중공업건설을 촉진하며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키는 우리 당 경제건설의 기본로선을 성과적으로 관철함에 있어서 극히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김일성동지께서는 경제건설의 기본로선을 집행함에 있어서 중공업중에서도 직접 인민생활과 관련된 부문에 중점을 두도록 가르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공업부문에서는 중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되 사회주의공업화의 토대를 닦으며 인민들의 의식주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절실히 필요한 부문에 중점을 둘것이며 이에 기초하여 인민소비품생산을 빨리 발전시켜야 할것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2권, 28페지)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이 현명한 방침은 제한된 자금과 로력을 가지고 우리 인민의 만년대계의 확고한 밑천으로 되는 현대적중공업과 경공업, 농업을 다 같이 빠른 시일내에 건설할수 있게 하였다.

우리 당은 경제건설의 기본로선을 관철함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군중의 혁명적자각성과 창조력을 높이며 우리 나라의 온갖 내부원천과 생산장성의 예비를 최대한으로 동원하는데 주되는 힘을 기울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전후 3개년계획이 끝나고 5개년계획이 시작되던 시기, 미제와 그 주구들이 악랄한 《반공》소동을 벌렸고 반당종파분자들이 당에 도전하여나섰으며 자금과 자재가 부족하고 나라의 형편이 매우 어려웠던 때에 직접 군중속에 들어가시여 그들의 혁명적열의와 무궁무진한 창조력을 발동하고 전체 인민을 사회주의건설의 대고조에로 불러일으키심으로써 조성된 난국을 타개하고 혁명과 건설의 승리적전진을 위한 대로를 펼쳐주시였다. 력사적인 당중앙위원회 1956년 12월전원회의는 생산의 잠재력을 최대한으로 동원하며 혁명과 건설에서 일대 전환을 일으킨 천리마운동의 발단을 열어놓았다.

김일성동지의 직접적발기에 의하여 취하여진 지방공업발전을 위한 획기적대책은 전인민적운동으로 지방적예비를 동원하여 대중소비품생산을 급속히 발전시킬수 있게 하였다.

지방공업을 대대적으로 발전시킬데 대한 현명한 방침은 따로 국가의 자금을 들이지 않고 소비품에 대한 인민들의 장성하는 수요를 원만히 충족시킬수 있게 할뿐만아니라 중공업에 더 많은 투자를 하며 그를 더 빨리 발전시킬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음으로써 기본로선을 더욱 훌륭히 관철할수 있게 하였다.

또한 김일성동지께서는 인민경제의 기술적개건이 촉진됨에 따라 도처에서 기계설비가 더 많이 요구되였을 때 공작기계새끼치기운동을 발기하시고 이 운동을 전군중적으로 전개할것을 호소하시였다. 공작기계새끼치기운동에 의하여 우리는 중공업을 급속히 발전시키고 기술적개건을 더욱 촉진할수 있었으며 전반적경제발전의 속도를 일층 높일수 있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나라 혁명발전의 객관적요구에 기초하여 농촌경리부문에서 독창적인 길을 따라 협동화를 실현하는 한편 수리화를 비롯한 대자연개조사업을 전군중적운동으로 전개할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시고 농업문제와 농민문제해결에서 위대한 전환을 가져오게 하시였으며 천리마의 기세로 빨리 전진하는 공업발전에 농업을 따라세우게 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경제건설의 기본로선과 그이의 현명한 령도를 받들고 우리 인민은 사회주의건설의 대고조속에서 5개년계획을 기한전에 완수하고 사회주의공업화의 토대를 확고히 축성하였다.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우리 당 경제건설의 기본로선은 7개년계획기간에 자립적공업체계를 확립하며 인민경제의 전면적기술개건을 실현하여 우리 나라를 현대적공업과 발전된 농업을 가진 사회주의적공업국가로 전변시키기 위한 투쟁의 위력한 무기로 되고있다.

오늘 우리의 인민경제는 중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며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킬데 대한 우리 당 경제건설의 기본로선에 따라 확고히 전진하고있으며 경제의 규모가 전례없이 커지고 복잡해진 현조건하에서도 계속 천리마의 기세로 내달리고있다.

실로 우리 나라 사회주의건설과 자립적민족경제건설에서 달성한 위대한 성과와 우리 조국의 오늘과 같은 번영, 우리 인민의 오늘과 같은 행복은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이시며 탁월한 령도자이신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독창적이며 혁명적인 경제건설로선이 있었고 그이의 직접적이며 가장 현명한 령도가 있었기때문에 이루어질수 있었다.

3

중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면서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키는 우리 당의 경제건설의 기본로선은 위대한 생활력을 발휘하고있으며 우리 인민은 그것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서 거대한 승리와 성과를 달성하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자본주의발전단계를 정상적으로 거치지 못한 뒤떨어진 식민지반봉건사회로부터 아주 보잘것 없는 경제를 물려받았으며 게다가 미제날강도들이 일으킨 3년동안의 가렬한 전쟁으로 말미암아 모든것이 재더미로 되였던 우리 나라에서 어떻게 하여 겨우 10년남짓한 짧은 기간에 이렇게 현대적인 웅장한 도시들과 아담한 문화농촌을 건설하고 강력한 경제토대를 마련하며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가져올수 있었겠습니까?

이것은 오직 우리 인민이 중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면서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킬데 대한 우리 당의 독창적이며 옳바른 경제건설로선을 높이 받들고 그것을 관철하기 위하여 모든 애로와 난관을 용감히 물리치고 천리마를 탄 기세로 달리고 또 달린 결과입니다.》(《사회주의건설의 위대한 추동력인 천리마작업반운동을 더욱 심화발전시키자》, 3페지)

정전직후 원쑤들은 북조선이 백년 걸려도 다시 일어서지 못할것이라고 떠벌였다.

그러나 우리 인민은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경제건설의 기본로선을 따라 천리마적진군을 계속함으로써 전후 10년남짓한 기간에 폐허우에서 경제를 복구하였을뿐만아니라 력사적으로 넘겨받은 락후성과 빈궁을 청산하고 자기 나라를 강력한 사회주의공업-농업국가로 전변시켰으며 도시와 농촌을 더욱 아름답게 건설하여놓았다.

경제건설의 기본로선은 짧은 기간에 나라의 자립적경제토대를 튼튼히 쌓을수 있게 하였다.

기계제작공업을 핵심으로 하는 중공업의 토대가 축성되고 더욱 정비보강됨으로써 우리는 복잡하고 정밀한 크고작은 기계들과 현대적인 대규모공장의 건설에 필요한 설비들을 자체로 생산보장할수 있게 되였다. 우리의 중공업은 경공업과 농업을 비롯한 인민경제 모든 부문의 기술적개건을 촉진하며 나라의 경제적자립성을 보장하는 믿음직한 담보로 되고있다.

대규모중앙경공업공장들과 각지방에 광범히 건설된 중소규모지방공장들로 이루어진 우리 나라 경공업기지는 우리 인민들의 부단히 장성하는 수요를 자체의 생산으로 보장하고있으며 질좋고 다양한 소비품을 앞으로 더 많이 생산할수 있는 조건들을 갖추고있다.

또한 우리의 사회주의농촌경리도 빨리 발전하여 주민들에게 식량을 원만히 보장하고있으며 경공업에 다양한 원료를 공급하고있다.

경제건설의 비상히 빠른 속도—이것은 우리 당 경제건설의 기본로선이 가져다준 귀중한 열매의 하나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경제발전의 높은 속도는 사회주의사회의 합법칙성이며 그것은 인민경제의 계획적, 균형적 발전을 전제로 합니다.》(《조선로동당 제4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 51페지)

경제건설의 기본로선은 인민경제의 가장 정확하고 적극적인 균형을 보장함으로써 경제발전의 높은 속도를 달성할수 있게 하였다.

1954년부터 1965년에 이르는 기간에 우리 나라 공업은 매년 평균 28.1%로 장성하였으며 3개년계획기간에 중공업은 약 4.1배, 경공업은 약 2.1배, 농업은 1.4배로 장성하였으며 5개년계획기간에도 중공업, 경공업, 농업은 약 3.6배, 3.3배, 1.4배의 높은 속도로 각각 장성하였다.

7개년계획의 수행에 들어선 최근년간에 조성된 정세와 관련하여 당이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새 로선을 제시하고 국방력의 강화에 많은 인적 및 물적 력량을 돌리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제발전에서 계속 높은 속도가 보장되였다. 특히 지난해에는 정세가 극히 긴장되고 기후조건도 매우 불리하였지만 우리 나라 공업과 농업은 다른 나라에서 볼수 없는 높은 속도로 발전하였다.

경제건설의 기본로선의 관철은 사회주의경제건설을 최대한으로 촉진함으로써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수준을 빨리 높일수 있게 하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오늘 우리 근로자들은 다같이 일하며 먹고 입고 사는데에 대한 아무런 근심걱정도 없이 편안히 살수 있게 되였습니다. 모든 근로자들은 일하면서 배우고있으며 자녀들을 무료로 공부시키고있으며 병이 나면 언제나 무료로 치료를 받을수 있습니다.

지난날 오래동안 천대받고 가난에 시달리던 우리 인민이 오늘 어떠한 압박이나 착취도 없는 좋은 세상에서 즐겁고 희망에 가득찬 생활을 누릴수 있게 된것은 우리 나라 력사에서 커다란 전변입니다.》(《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와 농업근로자동맹사업에 대하여》, 44페지)

로동자, 사무원들의 실질임금이 체계적으로 장성하고 농업근로자들의 생활이 모두 중농, 부유중농의 수준에 이르렀다. 9년제기술의무교육제가 실시되고 근로자들이 일하면서 배울수 있는 모든 조건들이 갖추어졌다. 문화위생시설들과 봉사시설들이 확대되였고 주민들의 평균수명은 일제때보다 20년이나 늘어났으며 인민들의 생활은 날로 더욱 윤택하여지고있다.

지난날 헐벗고 굶주리면서 인간이하의 천대와 멸시를 받던 우리 인민이 오늘은 다같이 일하고 다같이 배우며 병나면 무료로 치료받으며 모든 근로자들이 다같이 잘사는 우리의 사회주의제도하에서 세상에 부럼없는 행복을 누릴수 있게 된것은 오직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로선과 정책이 정확하였고 그이의 현명한 령도가 있었기때문이다.

중공업의 우선적발전과 경공업, 농업의 동시적인 빠른 발전은 로동계급의 대렬을 급속히 확대강화하고 혁명과 건설에서 그의 지위를 더욱 튼튼히 하였으며 로동계급의 령도하에서의 로농동맹을 더욱 공고히 하고 사회주의제도의 확립과 공고발전을 촉진하였다.

경제건설의 기본로선이 관철되여 나라의 경제적위력이 강화됨으로써 공화국의 정치적자주성과 국제적위신이 더욱 공고히 되였으며 국방력도 철벽으로 다질수 있게 되였다.

경제건설의 기본로선을 관철하는 과정에서 달성한 가장 위대한 성과는 전체 인민이 당과 수령의 주위에 더욱 철석같이 뭉치게 되고 우리의 혁명대오가 정치사상적으로 일층 강화된것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인민은 투쟁속에서 단련되고 자기들의 실지 투쟁경험을 통하여 당을 무한히 신뢰하게 되였으며 당주위에 굳게 단결되였습니다.》(《현정세와 우리 당의 과업》, 63페지)

인민대중은 수령께서 제시하신 경제건설의 기본로선을 따라 모든 난관과 애로를 박차고 천리마를 탄 기세로, 일당백의 기세로 달리고 또 달림으로써 조국을 오늘과 같은 부강하고 문명한 사회주의강국으로 전변시켰으며 자기들의 생활을 근본적으로 개선하였다.

이 과정을 통하여 우리 인민은 수령께서 제시하신 로선과 방침의 정당성을

더욱 깊이 느끼게 되였으며 수령께서 가리키시는 길, 당이 제시하는 방침을 따라 전진, 전진, 투쟁 또 전진할 때 오직 승리와 영광만이 있다는 확신을 더욱 굳게 가지게 되였다.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이신 김일성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주위에 굳게 뭉친 우리 인민의 불패의 통일단결은 우리의 모든 승리의 결정적담보이다.

*　　*

오늘 우리앞에는 경제건설의 기본로선을 계속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그 생활력을 더욱 높이 발휘시켜야 할 중요한 과업이 나서고있다.

경제건설의 기본로선을 관철하는것은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키는데서 극히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김일성동지께서 당대표자회에서 제시하신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로선은 현단계에서 우리 당과 인민 앞에 나서고있는 최대의 민족적과업인 조국의 통일과 혁명의 전국적승리를 달성하기 위한 가장 옳은 새롭고 혁명적인 로선이다.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우리 당의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자면 경제건설의 기본로선을 계속 확고히 견지하여야 한다.

중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면서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키는 우리 당 경제건설의 기본로선을 철저히 관철하는 바로 여기에 나라의 경제적위력과 국방력의 급속한 강화 및 인민생활향상의 중요한 열쇠가 있다.

경제건설의 기본로선을 관철하는데서 제기되는 중요한 문제는 당대표자회에서 제시된 현시기 우리 나라 경제발전의 기본방향을 관철하며 나라의 경제토대를 계속 확대해나가는것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이미 마련하여놓은 경제적밑천을 최대한으로 리용하며 생산과 건설에서 질을 높이는것, 이것이 현시기 우리 나라 경제발전의 기본방향이며 바로 여기에 생산의 장성과 인민생활향상의 거대한 예비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기본방향에 따라 인민경제에 내재하는 예비와 가능성을 남김없이 동원하는데 주되는 힘을 돌려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의 경제토대를 더욱 확대하기 위한 새로운 기본건설을 계속 진행하여야 할것입니다.》(우와 같은책, 54페지)

당이 제시한 이 과업을 정확히 집행하는것은 경제건설의 기본로선을 계속 철저히 관철하는 길이다. 그것은 중공업, 경공업 및 농업을 비롯한 인민경제 각 부문과 부문내부 균형을 더욱 합리적으로 실현하고 경제발전의 높은 속도를 보장하며 나라의 경제적자립성을 더욱 강화하는 기본방도이다.

경제건설의 기본로선을 관철하며 사회주의건설을 촉진시키기 위하여서는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로선과 정책의 정당성을 깊이 파악하고 그이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며 자신들을 부단히 혁명화, 로동계급화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우리의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자기들앞에 부과된 혁명적과업들을 넘쳐수행함으로써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키는 혁명적로선을 관철하며 조국의 통일과 조선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앞당겨야 할것이다.

경제예비동원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

편 광 성

김일성동지께서는 경제건설에서 생산장성의 모든 예비와 가능성을 적극 탐구동원하여 경제발전의 높은 속도를 계속 확고히 보장하며 사회주의건설에서의 혁명적대고조를 더욱 높일것을 중요하게 강조하시면서 예비동원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일련의 원칙적문제들에 대한 과학적인 해명을 주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사상혁명이 추진되여 근로자들의 의식수준과 자각적열성이 높아지고 기술혁명이 실현되여 나라의 경제토대가 강화될수록 생산장성의 예비는 더욱더 많아진다고 가르쳐주시였으며 예비를 동원하기 위한 방도들을 하나하나 지적해주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 주신 교시는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기회주의적리론과 소극성, 보수주의를 짓부시고 주체를 튼튼히 세우며 경제발전의 높은 속도를 계속 확고히 보장하는데서 원칙적의의를 가진다.

그것은 사회주의경제발전의 합법칙성과 우리 나라의 구체적조건을 타산하고 우리 인민이 지난 기간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밑에 사회주의건설의 실천적투쟁행정에서 쌓은 풍부하고 고귀한 경험을 과학적으로 총화분석한데 기초한것으로서 사회주의경제건설에 관한 맑스-레닌주의리론을 가일층 발전, 풍부화시키는데서 탁월한 기여로 된다.

우리의 모든 경제지도일군들이 김일성동지께서 주신 교시를 철저히 파악하고 자기 사업을 구체적으로 짜고들어 우리 나라의 방대한 생산잠재력을 다 발휘시킴으로써 경제발전의 높은 속도를 계속 확고히 보장하는것은 조국의 통일과 조선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앞당기는데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1

사회주의하에서 경제건설이 진척되여 나라의 경제토대가 확대강화될수록 생산장성에 동원리용할수 있는 예비는 더욱더 많아진다.

이것은 일찌기 김일성동지께서 밝혀주신 사회주의경제발전의 합법칙성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1957년의 사업행정에서 우리가 얻은 중요한 교훈은 우리에게 예비가 얼마든지 있다는것입니다. 그러니 동무들은 이미 예비를 다 털어놓았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예비는 1958년뿐만아니라 명년에도 있고 1960년에도 있을것입니다. 동무들이 관리기술수준을 더욱 높이며 계속 열성과 창발성을 낸다면 끊임없이 새로운 예비를 찾아낼수 있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2권, 47~48페지)

생산과 분배, 축적과 소비를 통일적으로 장악하고 계획적으로 실현하는 사회주의국가는 확대재생산에 관한 맑스-레닌주의적원칙과 자기 나라의 구체적실정에 기초하여 사회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를 축성해나간다.

사회주의하에서 나라의 자립적경제토대의 확대강화는 현대적기술에 기초한 인민경제부문구조의 다면성을 가져온다. 경제건설이 추진되여 나라의 경제토대가 확대강화될수록 인민경제의 정확한 균형을 실현하고 부문들간, 공장, 기업소들간의 련계를 더 잘 보장하며 협동생산을 더욱 합리적으로 조직하고 로력, 자재, 기계설비들을 서로 잘 맞물려주고 합리적으로 리용하는 등 경제에 대한 관리운영을 개선하는것이 사회

주의경제건설에서 더욱더 큰 의의를 가지게 된다. 현대적기술에 기초한 다방면적인 인민경제부문들간, 공장, 기업소들간의 련계를 더 잘 보장하고 인민경제의 옳은 균형을 유지하며 생산에서의 전문화, 협동화체계를 강화한다면 생산장성의 참으로 거대한 예비가 나온다. 공장, 기업소들에서 생산면적과 기계설비를 효과적으로 리용하며 생산을 합리적으로 조직하고 로력, 자재, 자금을 더욱 절약적으로 리용하는 등에서 나오는 예비도 경제토대가 확대강화됨에 따라 더욱더 많아지기마련이다.

특히 사회주의하에서는 기계설비들의 능력을 끊임없이 빠른 속도로 높일수 있다.

기계설비는 가장 중요한 생산수단이며 자연을 정복하기 위한 위력한 무기이다.

기계설비의 능력을 높이는 문제는 나라의 경제토대가 확대강화될수록 생산의 장성을 위한 거대한 예비로 된다. 기계설비의 능력을 높이는것은 기계설비의 대수가 많을수록 그만큼 로력을 절약하고 더 많은 제품을 생산할수 있게 한다.

사회주의하에서 기계설비의 능력은 결코 고정불변한것이 아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기계의 공칭능력은 고정불변한것이 아닙니다. 생산을 잘할수 있게 살을 붙이고 기술혁신을 하며 사람들의 사상의식수준과 기술수준을 높인다면 공칭능력을 얼마든지 깨뜨릴수 있습니다.》

사회주의하에서 근로자들은 기계설비의 능력을 높이는데 큰 관심을 가진다. 근로자들이 기계설비의 능력을 끊임없이 높이고 로동생산능률을 빨리 장성시키면 시킬수록 나라는 부강하여지고 인민들의 생활도 향상된다. 그렇기때문에 사회주의하에서 근로자들은 자기들의 기술문화수준을 빨리 높이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며 생산을 잘할수 있도록 살을 붙이고 기술을 혁신하는 사업에서 열성과 창발성을 발휘한다. 이에 따라 기계설비의 《공칭능력》이 끊임없이 깨여지며 로동생산능률은 빠른 속도로 장성된다. 기계설비의 능력을 높이는것은 생산장성의 거대한 예비로 된다.

사회주의하에서 생산장성을 위한 결정적예비는 생산자대중을 발동하며 그들의 자각적열성과 창발성을 높이는데 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대중에 의거하며 광범한 대중을 발동시키는 방법은 혁명적이고 적극적인 방법이며 혁명과 건설에서 모든 잠재력과 가능성을 최대한으로 동원할수 있게 하는 방법이다.》(《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의 사회주의건설과 남조선혁명에 대하여》, 41페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은 인민대중을 위한 인민대중자신의 사업이다. 경제를 관리운영하며 기계설비를 직접 다루는것은 생산자대중이며 예비가 어디에 있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가장 훌륭히 동원리용할수 있는가를 제일 잘 알고있는 사람들도 그들이다.

근로자들의 사상의식, 자각적열성과 창발성은 생산과 기술을 발전시키며 로동생산능률을 높이는데서 결정적역할을 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제도의 위대한 생활력은 무엇보다도 먼저 착취와 억압에서 해방된 근로자들이 나라와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서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자신의 행복을 위하여 자각적열성과 창발성을 발휘하여 몸바쳐 일한다는데 있습니다.》**(《국가활동의 모든 분야에서 자주, 자립, 자위의 혁명정신을 더욱 철저히 구현하자》, 30페지)라고 교시하시였다.

사회주의제도의 이 위대한 생활력에 튼튼히 의거한다면 나라의 경제토대가 확대강화될수록 생산장성을 위하여 동원리용할수 있는 예비는 얼마든지 찾아낼수 있다. 사회주의제도의 위대한 생활력을 높이 발양시키는것은 경제예비를 최대한으로 동원리용하기 위한 결정적고리이다.

사회주의하에서도 만약 이 요인을 차요시하거나 무시하고 근로자들에 대한

경제적자극일면에 치중하면서 경제실무적방법에만 매여달린다면 인민경제에 내재하는 예비를 제대로 동원리용할수 없으며 따라서 경제발전의 높은 속도를 달성할수 없다. 이렇게 하는것은 사회주의제도의 본성에 부합되지 않는다.

대중을 발동하고 무엇보다도 그들의 자각적열성과 창발성을 높이는것은 사회주의제도의 본성에 맞는 가장 혁명적이며 적극적인 방법이며 경제예비를 최대한으로 동원리용하기 위한 가장 옳은 길이다.

생산자대중을 발동하며 그들의 자각적열성과 창발성을 높이는데서 생산장성을 위한 결정적예비를 찾는것은 우리 당이 사회주의건설에서 견지하고있는 일관한 방침이다.

그것은 사회주의건설에서 생산자대중의 사상의식, 자각적열성과 창발성이 노는 역할에 가장 큰 의의를 부여하시는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과 철저한 혁명적립장의 구현이다.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나라 사회주의건설에서 일어난 혁명적대고조와 천리마운동은 생산자대중을 발동하고 그들의 자각적열성과 창발성을 끊임없이 높인다면 나라의 경제토대가 확대강화될수록 생산장성을 위한 예비가 얼마든지 나오며 혁신과 비약이 일어나고 기적이 창조된다는것을 잘 보여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자기 운명을 자기 손에 틀어쥐고 새생활의 건설에 떨쳐나선 우리 인민의 비상한 혁명적열의와 무궁무진한 창조력에 의거하며 난관과 시련에 부닥쳤을 때에도 언제나 인민대중을 믿고 대중과 협의하며 대중의 힘과 지혜를 동원하여 그것을 극복하도록 당을 령도하시였으며 모든 일군들이 군중속에 깊이 들어가 군중과 상론하며 군중에게서 힘과 지혜를 얻으며 군중을 동원하여 제기된 과업을 해결하는 혁명적사업방법을 체득하도록 가르쳐주시였으며 손수 모범을 보여주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국제국내적으로 매우 어려운 형편에서 인민경제발전5개년계획의 수행에 들어선 1957년에 친히 강선의 로동계급속에 들어가시여 그들에게 나라의 형편과 당의 의도를 대주고 난관을 뚫고 사회주의건설에서 일대 앙양을 일으키기 위한 방도를 그들과 친히 의논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강선의 로동계급에게 《지금 우리 형편은 대단히 어렵다. …우리 나라 종파놈들은 제각기 자기 상전을 등에 업고있으며 리승만은 미국을 믿고 우리에게 덤벼들려고 한다. 우리는 누구를 믿겠는가, 당신들밖에 믿을 사람이 없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공장과 주택도 더 짓고 경제건설을 다그치며 인민생활을 더 빨리 향상시키자면 강재가 더 많이 요구되니 이 고리를 동무들이 풀어야 하겠다고 교시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 주신 직접적인 간곡한 교시에 무한히 고무된 강선의 로동계급은 내외의 원쑤들에 대한 치솟는 격분으로 소극성, 보수주의를 짓부시고 대담하게 생각하고 대담하게 실천하여 6만톤 《공칭능력》의 압연기에서 12만톤을 생산하는 기적을 창조하였으며 오늘은 벌써 50만톤의 수준에 끌어올리고 있다.

그이께서 지펴주신 혁명적대고조의 불길은 삽시에 전국에 퍼져 활화산처럼 타올랐으며 천리마운동의 발단으로 되였고 천리마적대진군에 의하여 숨어있던 예비가 샘솟듯 하였으며 원쑤들은 천리마의 발굽아래 풍지박산되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미제국주의자들과 그 주구들의 침략책동이 더욱 로골화되고 임의의 시각에 원쑤들에 의하여 조국땅우에 다시금 전쟁의 불길이 일어날수 있는 긴장한 정세가 조성된 엄혹한 시기에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새로운 혁명적로선을 제시하시고 전체 인민을 영웅적위훈에로 불러일으키셨다.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초소에서 새로운 혁명적대고조를 일으킬데 대한 4천만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를 심장으로 받든 우리의

기계전사들과 붉은 광부들을 비롯한 우리 나라의 모든 로동자들과 근로자들은 생산장성의 거대한 예비를 찾아내며 날에 날마다 세인을 경탄케 하는 새로운 혁신을 일으키고있으며 기적을 창조하고있다.

우리의 영웅적로동계급은 그 어떤 고정된 《공칭능력》이나 《기준량》도 인정하지 않으며 오직 당과 수령의 요구, 이 요구를 받들고 자신들이 창조한 혁신, 기적, 속도, 바로 이것이 공칭능력이며 기준량이라고 인정한다. 이것은 수령의 가르치심을 높이받들고 빨리 전진하려는 우리의 영웅적로동계급의 불타는 혁명적열의와 사회주의경제발전의 합법칙성 그리고 기적과 혁신으로 들끓고있는 우리 나라의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고있다.

우리의 수많은 공장, 기업소, 직장, 작업반들에서는 이미 올해 인민경제계획을 끝내였으며 모든 공장, 기업소들에서 공화국창건 스무돐전에 년간계획을 끝낼 결의로 예비를 적극 찾아내고있으며 절약과 증산의 불길을 더욱 높이고있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건설에서 일어나고있는 혁명적대고조는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모든 로선과 정책이 정당하며 생산자대중을 발동하고 그들의 자각적열성과 창발성을 높이는데서 생산장성의 결정적예비를 찾는 우리 당의 립장이 가장 옳은 립장이라는것을 확증해준다.

2

경제예비의 동원리용에서 제기되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정치사업, 사람과의 사업을 잘하여 생산자대중의 혁명적열의와 창발성을 높이는것이다.

정치사업, 사람과의 사업을 강화하는것은 생산자대중의 혁명적열의와 창발성을 높이 발양시키는 기본적이며 적극적인 방법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한마디로 말하면 정치를 앞세운다는것은 모든 당원들과 군중에게 당정책을 철저히 인식시키며 그들이 혁명과업수행방도를 대중적으로 토론하며 높은 정치적각성을 가지고 혁명과업을 실천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동원되도록 하는것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2권, 496페지)

근로자들속에서 계급적각성과 정치사상의식을 끊임없이 높이고 그들이 당의 의도와 그 실현을 위한 방도를 똑똑히 알도록 하여야 맡겨진 혁명과업수행에서 목적지향성을 가지고 높은 책임성과 헌신성을 발휘할수 있다.

그러므로 경제예비를 더 많이 찾아내고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다그치자면 반드시 모든 사업에 정치사업을 앞세우고 사람과의 사업을 강화하여 생산자대중의 무궁무진한 힘을 발동하는데 주되는 힘을 넣어야한다.

무엇보다도 우리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세우는것이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정치사업에서 가장 중요한것은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확립하는것이다.

당의 유일사상이란 사상에서 주체, 정치에서 자주, 경제에서 자립, 국방에서 자위의 원칙으로 일관된 우리 당의 사상이다. 우리 당의 사상, 우리 당의 정책은 조선혁명을 완성하고 조선인민을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가장 정확하게 이끄는, 우리 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된 맑스-레닌주의이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과 그 구현인 우리 당의 정책으로 튼튼히 무장하여야만 사업에서 자신심을 가지고 용기와 열성과 창발성을 발휘할수 있다.

이와 함께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혁명전통교양을 결정적으로 강화하며 공산주의교양 특히 사회주의적애국주의교양에 힘을 넣는 한편 당조직생활과 근로단체조직생활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전사회의 혁명화, 로동계급화과정

을 촉진시키는것이 필요하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세우고 전사회의 혁명화, 로동계급화를 촉진시킬 때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의 모든 초소들에서 증산과 절약의 예비가 더 많이 나올것이며 따라서 사회주의건설에서의 혁명적대고조는 더욱 앙양될것이다.

경제예비는 소극성, 보수주의를 비롯한 온갖 낡은것과의 투쟁을 통해서만 가장 훌륭히 동원리용될수 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혁신이 일어날 때에는 뒤떨어진것이 반드시 방해합니다. 그러므로 혁신 그자체가 벌써 뒤떨어진것과의 투쟁을 동반하는것입니다. 뒤떨어진것, 보수주의적인것과 투쟁하지 않고는 혁신이 일어날수 없습니다. 이것은 생활의 법칙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2권, 240페지)

경제지도일군들이 소극성과 보수주의를 철저히 불사르고 대담성과 용감성을 내여 대중의 앞장에 서서 그들을 적극 조직동원하며 대중을 믿고 대중과 늘 의논하며 그들이 재기하는 창발적의견들을 적극 지지해주고 도와줄 때 경제예비의 동원에서는 참말로 거대한 성과가 달성될수 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찌기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찾아내면 낼수록 여러가지 예비가 나올수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예비가 없다고 하는 사람은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이며 동요하여 당정책을 집행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사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전후 3개년계획을 받을 때나 1957년계획을 받을 때에도 벌벌 떨었습니다. 그런 사람은 오늘만 떠는것이 아니라 본래 그런 병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떠는 병을 고쳐주기 위해 드문드문 가다가 약을 먹이든지 침을 놓든지 해야 하겠습니다. 그 약은 곧 비판이며 꾸준한 사상교양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2권, 46페지)

경제예비를 최대한으로 동원리용하기 위하여서는 수정주의적경제리론을 반대하는것이 필요하다.

경제가 일정한 발전단계에 이르면 예비가 적어지며 공업생산장성의 높은 속도를 보장할수 없다는 《리론》은 사회주의경제제도의 우월성을 보지 않으며 사회주의경제발전법칙에 어긋나는 《리론》이며 사회주의를 훼방하고 헐뜯기 위하여 벌써 오래전에 부르죠아대변인들과 수정주의자들이 들고나왔던 썩어빠진 반동적리론이며 수정주의적궤변이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나라에 예비가 적으며 빨리 나갈수 없다고 하는것은 부르죠아반동리론과 수정주의적궤변에 동조하는 그릇된 사상의 표현이며 혁명적으로 일하고 빨리 전진하기를 꺼려하는 소극성, 보수주의의 발현이다.

우리의 경제토대는 방대하며 생산장성의 거대한 예비를 가지고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이미 마련하여놓은 경제적밑천을 최대한으로 리용하며 생산과 건설에서 질을 높이는것, 이것이 현시기 우리 나라 경제발전의 기본방향이며 바로 여기에 생산의 장성과 인민생활향상의 거대한 예비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와같은 기본방향에 따라 인민경제에 내재하는 예비와 가능성을 남김없이 동원하는데 주되는 힘을 돌려야 합니다.》(《현정세와 우리 당의 과업》, 54페지)

우리에게 예비는 무진장하며 얼마든지 빨리 나갈수 있다.

문제는 경제지도일군들이 사회주의하에서 경제가 발전하고 그 규모가 커질수록 생산장성에 동원리용할수 있는 예비가 더욱더 많아진다고 하신 김일성동지의 교시를 심장으로 접수하고 조직사업을 짜고들어 진행함으로써 대중을 예비동원에 옳게 조직동원하는데 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우리 당원들과 전체 근로자들은 올해 인민경제계획보다 훨씬 높은 증산목표를 결의하여나섰습니다. 그러나 결의하는데 그치고 그것을 실천에 옮기지 못한다면 그러한 결의는 아무런 의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앞에는 찾아낸 예비를 적극 동원리용하며 증산결의를 수행하도록 조직사업

을 짜고들어야 할 중요한 과업이 나서고있습니다.》

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리는것은 경제지도일군들의 조직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하나이며 경제예비의 동원리용을 위한 위력한 방도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기술혁명의 시대에 살고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끊임없이 기술을 혁신하고 새로운 기술을 창조하여야 하며 모든 기계설비들을 더욱 쓰기 간편하고 성능이 좋은것으로 끊임없이 개조하기 위하여 투쟁하여야 합니다.

지금 우리 나라의 공업토대는 대단합니다. 만일 우리의 모든 천리마기수들과 근로자들이 좀더 머리를 쓰고 기술혁명을 밀고나간다면 우리가 이미 마련하여놓은 공장과 기계설비들이 지금보다 몇배나 더 큰 위력을 나타내게 할수 있을것입니다.》(《사회주의건설의 위대한 추동력인 천리마작업반운동을 더욱 심화발전시키자》, 21페지)

오늘 예비를 최대한으로 동원리용하여 생산을 부쩍 올리는가 못올리는가 하는것은 기술혁신운동을 어떻게 추진시키는가에 크게 달려있다.

생산자들로 하여금 설비를 아끼고 사랑하며 잘 거두고 능숙하게 다루도록 하며 어떻게 하면 기계설비의 성능을 더 높이고 생산공정을 기계화, 자동화하겠는가 하는데 대하여 늘 생각하고 연구하도록 하며 그들속에서 제기되는 창의고안, 생산합리화안, 기술혁신안들을 비록 그것이 아무리 적은것이라 하더라도 적극 지지하여주고 기술자들과 생산자들간, 생산자들 호상간의 창조적협조를 잘 조직하고 필요한 모든 조건들을 마련하여준다면 생산에서 커다란 성과를 거둘수 있다.

계획의 일원화와 세부화에 대한 우리 당의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는것은 경제예비를 동원리용하는데서 제기되는 극히 중요한 문제의 하나이다.

계획의 일원화와 세부화는 전국에 뻗쳐있는 국가계획기관과 계획세포들이 단일한 계획체계를 이루고 통일적인 중앙집권적지도밑에 계획화의 유일성을 철저히 보장하는 동시에 인민경제의 전반적발전과 매개 기업소활동을 정확히 결부시키며 모든 부문들과 기업소들의 구체적실정에 맞게 계획을 구체화하며 경제활동의 세부에 이르기까지 엄격히 맞물릴수 있게 한다.

지금 근로자들이 많은 예비를 계속 찾아내고 높은 증산목표를 결의하여나서는것과 관련하여 여러 부문들과 공장, 기업소들을 서로 맞물려주는 사업을 적극 추진시키는것이 특히 중요한 문제로 된다. 경제지도일군들이 대중을 적극 발동하여 숨어있는 예비를 계속 더 많이 찾아내는 동시에 부문들간, 기업소들간을 서로 잘 맞물려주고 계획에 물린 원료, 자재를 우로부터 정확히 내려다준다면 찾아낸 예비를 더 잘 실현할수 있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과 생산단위들에서 랑비현상을 철저히 없애고 로력과 자재, 자금을 극력 아껴쓰면서 더 많이 생산하는 대중적운동을 벌리는것은 오늘 우리 앞에 나선 절박한 과업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경제건설의 성과를 보장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은 엄격한 절약제도의 실시입니다.》(《김일성선집》, 제4권, 1960년판, 122페지)

아무리 증산한다 하더라도 한편으로 랑비해버린다면 증산한 보람이 없다. 절약은 증산과 같은 의의를 가지며 국가사회적부를 증가시키기 위한 중요한 수단의 하나이다.

우선 로동행정사업을 개선강화할데 대한 당의 방침을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적은 로력으로 생산과 건설을 더 많이 하기 위한 투쟁을 강화하는것이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또한 모든 생산단위들에서 물자소비기준을 체계적으로 낮추고 원료, 자재의 보관관리사업을 개선할것이 요구된다.

이와 함께 인민경제 모든 부문과 생산단위들에서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여 살을 붙이는 사업을 적극 추진시

킴으로써 불비한점들을 보충완비하며 현존설비의 능력을 계통적으로 높이며 생산면적도 더욱 합리적으로 리용하는데 큰 관심을 돌리는것이 필요하다.

유휴자재는 중요한 예비의 하나이며 그것을 효과적으로 동원리용하는것은 사회주의건설을 촉진시키는데서 매우 큰 의의를 가진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유휴자재를 널리 동원하는것도 중요한 예비의 하나입니다. 파철이나 파솜, 파지 같은 것을 많이 모으면 생산에 많은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파철을 많이 모으면 그만큼 선철을 적게 쓰고 강철을 뽑을수 있습니다. 파지도 많이 모으면 목재를 절약할수 있으며 솜을 대신하여 화약을 만드는데 쓸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유휴자재를 동원하는 전군중적운동을 벌려야 하겠습니다.》

유휴자재를 동원하는것은 얼핏보기에는 작은일 같지만 잘만 조직하면 나라살림에 큰 보탬이 된다.

우리는 유휴자재를 동원리용하기 위한 사업을 더욱 적극적으로 전개하여야 하며 모든 근로자들로 하여금 나라의 주인답게 국가의 살림살이로부터 개인의 살림살이에 이르기까지 모든 살림살이를 더욱 알뜰히 하며 나라살림에 보탬이 되는것이라면 크고작은것을 가리지 않고 모조리 동원리용하도록 하여야 할것이다.

* *

경제예비동원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성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서는 경제지도일군들이 우리 당의 전통적인 혁명적사업방법인 위대한 청산리방법을 실생활에 철저히 구현하여 사업방법을 결정적으로 개선하여야 하며 모든 부문, 모든 공장, 기업소들에서 대안의 사업체계를 철저히 관철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천리마작업반운동을 현실의 요구에 맞게 더욱 심화발전시켜야 한다.

경제예비를 동원리용하는 사업은 그 어떤 단순한 행정실무적인 사업으로가 아니라 무엇보다도 근로자들을 계급적으로 각성되고 혁명성이 높으며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원칙에서 일하고 생활하며 다방면적으로 발전된 새형의 공산주의적인간으로 교양개조하는 사업과 기술을 발전시키고 집단적혁신을 일으키게 하는 사업과를 밀접히 결합한 혁명적인 사업으로 될것을 요구한다.

사회주의건설에서 우리 당의 총로선인 천리마운동은 이 요구를 가장 훌륭히 재현하고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시작된 천리마작업반운동은 사람들을 공산주의사상으로 교양하며 집단적영웅주의와 집단적혁신에로 불러일으키는 공산주의적인 대중적대진군운동입니다.》(《사회주의건설의 위대한 추동력인 천리마작업반운동을 더욱 심화발전시키자》, 1페지)

우리는 김일성동지께서 교시하신대로 첫째로 사람과의 사업, 둘째로 설비, 자재와의 사업, 셋째로 책과의 사업을 잘함으로써 오늘의 현실에 맞게 천리마작업반운동을 더욱 심화발전시켜야 한다.

사람과의 사업, 설비, 자재와의 사업, 책과의 사업을 잘하여 사상, 기술, 문화 혁명을 강력히 추진한다면 근로자들의 자각적열성과 창발성은 더욱 높아지고 따라서 예비는 더 많이 나올것이며 경제발전의 높은 속도를 계속 확고히 보장하게 될것이다.

남조선에서 강력한 혁명의 주력군을 꾸리는것은 혁명발전의 절박한 요구

리 명 현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선혁명을 전국적판도에서 통일적으로 령도하시면서 공화국북반부의 혁명과 건설을 곧바른 승리의 길로 이끄시는 한편 우리 나라 혁명의 중요구성부분인 남조선혁명의 앞길을 환히 밝혀주고계신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남조선혁명의 성격과 기본임무, 동력과 대상을 과학적으로 규정하시였을뿐만아니라 그 전략적방침을 정확히 세우시고 혁명의 매시기마다 조성된 정세와 력량관계에 알맞는 전술적방침을 명시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남조선에서의 강력한 혁명의 주력군을 꾸리는 문제는 남조선혁명의 전략적방침에서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남조선혁명력량을 편성배치함에 있어서 혁명의 기본군중인 로동자, 농민들로 적들에게 결정적타격을 가할 강력한 주력군을 꾸리는 동시에 혁명에 동원될수 있는 각이한 계급, 계층들로 그를 보조할 유력한 부대를 꾸림으로써 모든 혁명력량을 가장 합리적으로 배치할 명백한 방침을 제시하시였다.

남조선에서 강력한 혁명의 주력군을 꾸릴데 대한 김일성동지의 방침은 혁명력량의 편성 및 배치에 관한 이러한 탁월한 전략적방침의 가장 중요한 내용을 이룬다.

※ ※

남조선에서 혁명의 주력군을 꾸릴데 대한 김일성동지의 전략적방침의 기본내용은 맑스-레닌주의당건설을 힘차게 촉진하여 로동자, 농민대중을 당주위에 튼튼히 결속하는데 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혁명의 주력군을 꾸린다는것은 혁명에 동원될수 있는 기본계급 즉 로동자, 농민들을 당주위에 묶어세운다는것을 의미한다.》(《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의 사회주의건설과 남조선혁명에 대하여》, 59페지)

남조선에서 혁명의 기본동력을 이루는 로동계급과 농민을 당주위에 튼튼히 결속함으로써 혁명의 주력군을 꾸릴데 대한 김일성동지의 전략적방침은 남조선혁명의 주객관적요인들에 대한 심오한 맑스-레닌주의적분석에 기초하고있으며 각계각층 인민들의 계급적처지와 사회적역할이 정확히 반영되고있다.

남조선혁명에서 로동계급의 령도는 혁명발전의 필수적인 요구로 된다.

남조선혁명은 반제반봉건적과업의 해결을 제기하고있다. 이 혁명은 또한 남조선사회발전의 요구로 보나 전조선혁명의 요구로 보아 반제반봉건적과업을 해결하는데 머물수 없으며 계속 사회주의혁명에로 심화발전시켜야 할 그러한 혁명이다.

이것은 남조선혁명이 민족해방민주주의적과업의 해결을 그의 당면한 전략적내용으로 하고있으며 나아가서 사회주의적발전의 길을 열어놓게 된다는것을 의미한다. 그렇기때문에 남조선혁명에서는 오직 로동계급의 령도가 보장됨으로써만 제기된 모든 과업들을 철저히 그리고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다. 물론 남조선의 민족부르죠아지도 반제반봉건적혁명과업을 해결하는데 일정한 리해관계를 가지고있다. 그러나 그들은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매우 취약하다. 더우기 그들은 자체의 계급적제한성으로 말미암아 혁명에 적극 나서기를 주저하며 그의 적지않은 부분이 혁명과 반혁명사이에서 부단히 동요한다.

이러한 계급이 혁명을 령도할수 없다는것은 자명한 일이다.

이와는 반대로 남조선로동계급은 그 계급적처지와 력사적사명으로부터 출발하여 남조선혁명을 수행하는데 가장 절실한 리해관계를 가지고있을뿐만아니라 거대한 혁명적능력을 가지고있다.

남조선로동계급은 우리 나라 로동계급의 한부분으로서 일제통치시기에 이미 혁명의 령도계급으로 등장하였다. 해방후 남조선로동계급은 외래침략세력과 국내반동세력을 반대하여 민족적 및 사회적 해방을 위한 부단한 투쟁을 전개하여왔다.

오늘 남조선로동계급은 남조선의 사회계급적조건과 계급력량관계로 보아 혁명을 령도할 유일한 계급이다. 남조선사회의 가장 선진적이고 혁명적계급인 로동계급이 혁명의 령도적계급으로, 주력군으로 되는것은 응당하다.

남조선에서 혁명의 주력군을 이루는 또하나의 사회적력량은 농민대중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남조선에서 로동자와 함께 농민은 혁명의 주력군입니다.》

남조선혁명은 반봉건적과업의 해결을 그의 중요한 내용의 하나로 삼고있다.

그러므로 봉건적관계에 얽매여 2중 3중의 억압과 착취를 강요당하고있는 남조선농민은 로동계급과 함께 남조선혁명에 매우 절실한 리해관계를 가지고있다. 남조선농민은 그들의 생활처지와 사회에서 차지하는 지위에 의하여 커다란 혁명적잠재력을 가지고있다.

남조선농민은 전체 우리 나라 농민과 함께 지난날 반일민족해방투쟁시기부터 로동계급의 령도하에 그와 동맹하여 반제반봉건투쟁을 전개하여왔다.

오늘 의연히 식민지반봉건사회로 남아있는 남조선에서 농민은 주민의 반수이상을 차지하고있으며 그 절대다수가 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는 빈고농들로 구성되여있다.

그렇기때문에 그들은 로동계급의 가장 믿음직한 동맹자로서 혁명에 적극 참가할수 있으며 그 중요한 일익을 담당할수 있다.

남조선혁명의 동력에는 로동계급과 농민이외에도 제국주의 및 봉건세력을 반대하는 학생, 지식인, 도시소자산계급이 포함되며 민족자본가들까지도 반제반봉건투쟁에 참가할수 있다. 그들 역시 남조선에서 미제의 식민지통치를 청산하고 사회의 민주주의적발전을 보장하며 나라의 통일을 실현하는데 공통된 리해관계를 가지고있다.

따라서 그들도 혁명에 참가하여 적지 않은 역할을 할수 있으며 그 가운데서도 진보적인 청년학생, 지식인들은 현저한 역할을 놀수 있다.

이러한 계급, 계층들은 그들이 사회에서 차지하고있는 지위로 말미암아 남조선혁명의 결정적력량으로는 될수 없다. 그들은 로동계급의 령도하에 로농동맹을 핵심으로 하는 반미구국통일전선에 그 힘을 합침으로써 혁명에 응당한 기여를 할수 있다.

남조선혁명의 기본동력인 로동자, 농민대중이 강력한 정치적군대로, 주력군으로 되기 위하여서는 각성되고 조직화되여야 하며 맑스-레닌주의당주위에 튼튼히 결속되여야 한다.

로동자, 농민대중의 힘은 무엇보다도 먼저 단결에 있다.

단결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들은 발톱까지 무장한 반혁명과의 투쟁에서 무력하다. 남조선 로동자, 농민대중은 조선혁명의 위대한 수령이시며 우리 시대의 탁월한 맑스-레닌주의자이신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을 지도적지침으로 삼는 혁명적당주위에 결속되였을 때에만 위력한 힘을 발휘할수 있으며 자기의 혁명적사명을 다할수 있다.

남조선의 로동자, 농민들은 오직 혁명의 참모부인 맑스-레닌주의당주위에 조직적으로 굳게 결속됨으로써만 위대한 정치적군대로, 강력한 혁명의 주력

군으로 꾸려질수 있다.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남조선에서 맑스-레닌주의당건설을 적극 추진시키고 혁명의 기본계급인 로동자, 농민들을 그 주위에 묶어세워 강력한 혁명의 주력군을 편성할데 대한 방침은 우리 혁명의 요구와 우리 나라 현실에 맞는 창조적이며 독창적인 방침이다.

그것은 혁명력량편성에서 발로될수 있는 온갖 좌우경적편향을 극복하며 혁명의 핵심대렬에 의거하여 혁명의 군중적지반을 튼튼히 꾸리고 대중의 위대한 힘을 발동하여 반혁명의 아성을 짓부시는 정확한 방침이다.

그것은 혁명력량편성 및 배치에서 맑스-레닌주의적계급로선과 군중로선을 철저히 구현한 가장 탁월한 방침으로서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에서의 주력군편성에 관한 전략적방침의 생동한 모범을 보여주고있다.

* *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강력한 혁명의 주력군을 꾸릴데 대한 전략적방침을 관철하는것은 남조선혁명발전에서 거대한 의의를 가지고있다.

혁명의 주력군, 이것은 혁명을 추진하는 기본동력이며 반혁명세력의 항거를 짓부시고 혁명을 승리에로 이끄는 결정적력량이다.

남조선에서 강력한 혁명의 주력군을 꾸리지 않고서는 혁명운동을 목적지향성있게 발전시킬수 없으며 혁명의 종국적승리를 기대할수 없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남조선에서 로동자, 농민들을 당주위에 묶어세워 혁명의 주력군을 튼튼히 꾸릴데 대한 방침을 천명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시였다:

《맑스-레닌주의당의 령도밑에 사회의 기본계급인 로동자, 농민이 동원되여야만 혁명이 승리할수 있는것입니다.》

남조선에서 혁명의 성과적인 추진도 그의 결정적승리도 구경은 혁명의 참모부인 맑스-레닌주의당이 로동계급과 농민대중속에 뿌리박으며 그들을 조직하고 각성시켜 강력한 정치적군대로 편성하는가 못하는가 하는데 달려있다.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강력한 혁명의 주력군을 꾸릴데 대한 방침을 관철하는것은 남조선에서 혁명과 반혁명간의 력량호상관계를 혁명의 편에 결정적으로 유리하게 전변시키는 기본방도로 된다.

혁명을 승리에로 이끌기 위하여서는 반혁명을 타승할수 있는 힘을 가져야 한다.

오늘 남조선의 사회적조건에서 맑스-레닌주의당건설을 촉진시켜 로동자, 농민대중을 각성시키고 그들을 당주위에 결속함으로써 강력한 정치적군대를 꾸리는 이외에 혁명의 결정적력량을 마련하는 다른 방도는 없다.

식민지반봉건사회인 남조선에서 로동계급과 농민은 사회의 기본계급을 이루고있으며 주민의 절대다수를 차지하고있다. 그들은 남조선에서 물질적부의 생산을 직접 담당하고있는 기본생산자대중이며 착취자와 억압자들을 반대하는 계급투쟁의 주되는 력량이다.

남조선의 로동자, 농민들은 그들의 계급적처지로 말미암아 혁명의 원쑤들과 추호도 타협할수 없는 적대적관계에 있다. 그들은 오직 미제와 그 주구들인 매판자본가, 지주, 반동관료배들을 타승함으로써만 자기들의 처지를 근본적으로 개선할수 있다.

그렇기때문에 로동자, 농민대중을 더욱 튼튼히 결속하고 혁명화하여야만 남조선에서 가장 위력한 정치적군대를 편성할수 있으며 그들로써 혁명의 주력군을 튼튼히 꾸려야만 능히 반혁명을 압도하는 강력한 혁명력량을 마련할수 있다.

남조선에서 혁명의 주력군을 튼튼히 꾸리는것은 또한 혁명에 동원할수 있는 모든 계급계층들을 혁명의 편에 인입함으로써 혁명력량을 더욱 강화하며 반혁명세력을 철저히 고립시키고 약화시키는데 있어서 커다란 작용을 한다.

남조선에서 각계각층의 모든 애국적민주주의력량을 망라하는 반미구국통일전선의 형성과 공고발전도 혁명의 주력군인 로동자, 농민의 결속여하에 의하여 좌우된다.

로농동맹은 반미구국통일전선의 사회정치적기초이며 로동자, 농민은 통일전선에서 중추적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로동자, 농민들이 자기의 혁명적당주위에 굳게 결속될 때에 로동계급의 령도하에 로농동맹을 핵심으로 하는 반미구국통일전선의 형성은 급속히 실현될수 있으며 미제와 그 주구들을 반대하는 모든 애국력량을 반미구국의 기치밑에 집결시킬수 있다.

로동자, 농민대중을 조직하고 각성시켜 강력한 정치적군대로 꾸리는것은 남조선에서 반혁명의 중요한 지주로 되고있는 괴뢰군을 와해하는데도 큰 영향을 미친다.

남조선괴뢰군은 식민지고용군대이며 그 병사들의 대부분은 강제로 징집된 로동자 및 농민들이며 그 자제들이다.

따라서 로동자, 농민대중이 조직된 력량으로서 혁명투쟁의 선두에 나설 때 능히 괴뢰군을 와해시킬수 있으며 광범한 병사대중과 적지않은 중하층장교들을 혁명의 편에 돌려세울수 있다.

남조선에서 반혁명세력은 사실상 한줌도 못되는 력량이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맑스-레닌주의당의 령도하에 수백만의 로동자, 농민들과 병사대중이 원쑤에게 항거하여 일어설때 놈들은 무력해지며 혁명력량은 반혁명세력을 결정적으로 압도할수 있다.

강력한 혁명의 주력군을 꾸릴데 대한 김일성동지의 방침을 관철하는것은 남조선에서 혁명과 반혁명의 력량관계를 혁명의 편에 결정적으로 유리하게 전변시킬뿐만아니라 그에 의거하여 혁명을 급속히 발전시키고 그를 승리에로 이끄는 결정적방도로 된다.

혁명운동의 발전도상에는 일련의 굴곡이 있을수 있다. 혁명은 자기의 믿음직한 주력군을 가질 때에만 정세의 이러저러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수 있으며 부단한 전진을 이룩할수 있다.

맑스-레닌주의당의 령도하에 혁명의 기본군중이 각성되고 조직되여 튼튼한 주력군으로 형성되지 못한다면 아무리 유리한 정세가 조성되여도 그것을 효과있게 리용할수 없으며 피어린 투쟁을 통하여 전취한 부분적인 성과마저도 그를 수호하고 공고화할수 없다. 남조선혁명운동의 경험은 이를 실증하여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혁명적당이 없었고 명확한 투쟁강령이 없었으며 따라서 기본군중인 로동자, 농민이 항쟁에 광범히 참가하지 못하였기때문에 4월봉기는 철저히 조직적으로 전개되지 못하였으며 남조선인민들은 그들이 흘린 피의 대가를 미제의 다른 주구들의 손에 빼앗기지 않을수 없었습니다. 역시 혁명적당의 령도가 없었으며 로동자, 농민, 병사대중의 각성이 부족하였기때문에 남조선인민들은 군부상층의 파쑈분자들에 의한 권력탈취를 막지 못하였으며 민주주의적권리에 대한 적들의 공격을 반대하여 효과적인 반격을 조직하지 못하였습니다.》(《조선로동당 제4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 107~108페지)

정치적군대의 편성은 혁명의 참모부인 당의 전략전술을 관철하여 반혁명파의 투쟁을 성과적으로 진행할수 있는 기본조건이다.

남조선에서 혁명의 정치적군대, 무엇보다도 그의 주력부대를 튼튼히 꾸림으로써만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탁월한 전략전술적방침에 따라 반혁명의 일상적인 공세를 분쇄하면서 혁명운동을 목적지향성있게 급속히 발전시켜 나아갈수 있다.

맑스-레닌주의당주위에 결속된 강력한 정치적군대가 준비될 때 혁명발전의 매단계에서 주되는 목표에 그의 위력한 힘을 집중할수 있고 여러가지 형태의 투쟁을 배합하여 적들에게 사면팔방에서 타격을 가할수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투쟁을 보다 높은 단계에로 끌어올릴수 있으며 혁명정세를 부단히 성숙시키면서 당면한 모든 투쟁을 정권전취를 기본으로 하는 전략적임무수행에로 발전시킬수 있다.

강력한 혁명의 주력군이 있을 때에는 또한 결정적시기를 맞이하기 위한 조직사상적 및 전략전술적 준비를 갖추어 나갈수 있으며 결정적시기가 도래하면 어떠한 정황하에서도 모든 력량을 총동원하여 그를 주동적으로 영접할수 있다.

*　　　*

남조선혁명의 주력군을 튼튼히 꾸리는것은 오늘 남조선에서 그 어느때보다도 절박한 문제로 나서고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현남조선정세의 중요특징은 미제와 그 주구들이 와랄한 군사파쑈독재에 의거하여 침략과 전쟁정책을 더욱 강화하고있는것이며 그로 인하여 미제의 식민지통치에 새로운 더 심각한 위기가 조성되고있는것입니다.》(《현정세와 우리 당의 과업》, 86폐지)

지금 미제국주의는 남조선에서 헤여날수 없는 궁지에 빠져있을뿐만아니라 놈들이 발붙이고있는 모든 곳에서 타격을 받고있다.

정세발전의 객관적추세는 날이 갈수록 혁명에 유리하게, 반혁명에 불리하게 전변되고있다.

남조선에서 혁명력량의 준비도 성과있게 진척되여가고있다.

미제와 그 주구들의 압제밑에서 더는 그대로 살아나갈수 없게 된 남조선인민들속에서는 여러가지 형태의 대중투쟁이 계속 장성하고있으며 지하혁명투쟁과 무장유격투쟁이 급속히 확대발전되고있다.

투쟁과정에서 로동자, 농민들의 계급적각성과 인민대중의 민족적각성은 더욱 높아지고 혁명대오는 점차 조직화되고있으며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무장된 혁명가들의 대렬이 체계적으로 자라나고있다.

오늘 남조선에서 부단히 성숙되여가는 혁명의 객관적정세에 맞게 혁명의 주체적력량의 준비를 따라세우는것은 남조선혁명발전의 절박한 요구로 된다.

남조선에서의 혁명력량의 준비는 조선혁명의 주체적력량준비를 위해서도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오늘 북반부혁명기지는 불패의 힘으로 꾸려져있으며 혁명기지의 사회주의적력량은 언제든지 혁명적대사변을 주동적으로 맞이할수 있도록 믿음직하게 준비되여있다. 이러한 조건에서 문제는 남조선에서의 혁명력량준비여하에 크게 달려있다.

이 모든것은 남조선에서 혁명력량을 준비하며 특히 그 주력군을 튼튼히 꾸리는것이 남조선에서의 혁명의 승리와 조선혁명의 전국적완성을 위한 초미의 문제로 되고있다는것을 말하여준다.

더우기 지금 궁지에 빠진 미제침략자들과 그 주구 박정희괴뢰도당은 모험적인 전쟁도발책동에 미쳐날뛰고있으며 그로 말미암아 우리 나라에서는 임의의 시각에 전쟁이 다시 터질수 있는 긴박한 사태가 조성되여있다. 이러한 조건에서 남조선정세는 급전직하로 변할수 있다.

그러므로 남조선당조직들과 혁명가들은 시간을 최대한으로 리용하여 모든 정세에 대처할 준비를 갖추어야 하며 특히 혁명의 주력군을 튼튼히 꾸리는데 박차를 가해야 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현단계에서 남조선혁명의 기본방침은 적들의 탄압으로부터 혁명력량을 보존하는 동시에 그것을 부단히 축적하고 장성시킴으로써 혁명의 결정적시기를 맞이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데 있습니다.》(우와 같은 책, 97폐지)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이 방침을 관철함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것은 남조선에서 혁명의 주력군을 꾸리는것이다.

남조선에서 강력한 혁명의 주력군을 꾸린다는것은 결국 남조선혁명가들과 혁명조직, 혁명의 기본계급인 로동자, 농민대중이 조선혁명의 위대한 수령이신 김일성동지의 주위에 굳게 결속한다는것을 의미한다.

남조선에서 강력한 혁명의 주력군을 꾸리기 위해서는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을 지도적지침으로 하여 닭스-

레닌주의당건설을 적극 추진시키는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남조선당조직들은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을 견결히 옹호하며 그이께서 재시하신 전략전술을 남조선현실에 능숙히 구현할수 있는 준비된 혁명간부들로 그 지도적골간을 믿음직하게 꾸려야 한다.

이와 함께 자기의 대오를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과 세계관으로 확고히 무장되고 혁명을 위하여 모든것을 바칠수 있는 견결한 혁명적핵심들로 질적으로 꾸리며, 수령께 무한히 충실한 로동자, 농민, 혁명적인테리의 전위투사들로 그를 부단히 확대발전시켜야 한다.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맑스-레닌주의당은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광범한 대중과 혈연적인 련계를 맺고 대중속에 깊이 뿌리박아야만 자기의 령도적역할을 강화할수 있으며 당자체를 공고히 할수 있다.

남조선당조직들과 혁명가들은 대중속에서 그들의 활동을 더욱 강화해야 하며 특히 로동자, 농민대중을 그들의 계급적리익을 옹호하는 민주주의적대중조직에 묶어세우는데 주되는 힘을 집중하고 이 사업을 정력적으로 추진시켜야 한다.

진보적인 청년학생, 지식인들과의 사업도 혁명에서 노는 그들의 교량적역할을 높이여 학생, 지식인 운동이 로동운동 및 농민운동 과 결합되고 그에 이바지하도록 하는데 기본을 두어야 하며 혁명에 동원될수 있는 각이한 계급, 계층들과 제휴합작함에 있어서도 그것이 혁명의 주력군을 꾸리는데 보다 유리한 조건을 조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남조선당조직들과 혁명가들은 혁명의 주력군을 꾸리기 위한 모든 과업수행에서 반드시 정치사상사업에 첫째가는 관심을 돌려야 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반혁명을 고립시키며 혁명력량을 장성시키는 모든 사업에서 선차적으로 제기되는 문제는 인민대중을 정치사상적으로 각성시키는 것입니다.… 인민대중을 의식화하지 않고서는 그들을 조직적으로 묶어세울수도 없으며 대중운동을 발전시킬수도 없습니다.》(우와 같은 책, 102~103페지)

남조선로동자, 농민들을 비롯한 인민대중의 계급적 및 민족적 각성을 촉진하는데서 가장 중요한것은 그들을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무장시키는것이다.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은 조선혁명의 유일한 지도사상이다. 그이의 혁명사상은 남조선인민들에게 민족적 및 사회적 해방의 길을 뚜렷이 밝혀주고있으며 그들을 승리에로 고무하고있다.

남조선혁명가들은 자신이 이 백전백승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할뿐만아니라 그 사상으로 로동자, 농민들을 비롯한 광범한 인민대중을 적극 교양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인민대중을 항일무장투쟁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과 사회주의적애국주의사상으로 무장시키기 위한 정치사상사업을 강화해야 한다. 정치선전에서 이러한 기본방향을 확고히 틀어쥐고나감으로써만 적들에 의하여 집요하게 부식되고있는 《반공》사상과 숭미사대주의의 악영향을 극복하면서 로동자, 농민대중의 정치적각성을 촉진할수 있으며 그들을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위에 더욱 굳게 묶어세울수 있다.

남조선에서 강력한 혁명의 주력군을 꾸리는데 있어서 또한 중요한것은 여러가지 형태의 대중투쟁을 적극 조직전개하는것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혁명력량은 투쟁이 없이 저절로 준비될수 없으며 오직 간고한 투쟁을 통해서만 장성강화될수 있습니다. 투쟁의 시련속에서 혁명의 지도자들과 핵심들이 나오고 인민대중이 각성되며 혁명력량이 장성하는것입니다.》(우와 같은 책, 97페지)

남조선의 당조직들과 혁명가들은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전략전술적방침에 따라 로동자, 농민들의 대중운동

과 투쟁에 대한 정확한 지도를 보장해야 한다. 대중운동과 투쟁을 지도하는데서 온갖 좌우경적편향을 경계하면서 조성된 정세에 맞게 정치투쟁과 경제투쟁, 폭력투쟁과 비폭력투쟁, 합법투쟁과 비합법투쟁 등 여러가지 투쟁형태와 방법을 능숙하게 배합하여야 하며 투쟁을 대담하게 적극적으로 조직전개하는것이 중요하다.

남조선의 당조직들과 혁명가들은 혁명투쟁을 적극적으로 전개함으로써 적들을 수세에 몰아넣고 투쟁의 보다 유리한 조건을 전취하는 한편 투쟁을 통하여 로동자, 농민들을 각성시키고 그들의 대중조직을 체계적으로 확대강화하며 당조직들의 전투력과 령도적역할을 높이면서 남조선혁명운동전반을 부단히 그의 전략적인 과업해결에로 이끌어올려야 한다.

* *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정확한 전략전술적방침에 따라 혁명투쟁을 전개하는 과정에는 물론 어려운 난관도, 준엄한 시련도 있을수 있다. 그러나 남조선정세는 전반적으로 보아 혁명의 편에 유리하게 발전하고있으며 그 전도는 휘황하다.

남조선혁명가들과 인민들은 40여년간 모든 간고하고 복잡한 우리 인민의 혁명투쟁을 오직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오신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백전백승의 탁월하고 현명한 령도를 받고있다. 15성상에 걸쳐 항일무장투쟁을 조직전개하심으로써 강도일제를 물리치고 조국의 광복을 이룩하시였으며 해방후 북반부의 민주기지건설과 나라의 통일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을 승리적으로 령도하시였으며 미제무력침공자들을 쳐부시고 조국의 자유와 영예를 수호하는 조국해방전쟁을 승리에로 이끄셨으며 오늘 우리 인민의 혁명과 건설을 승리의 한길로 령도하고계시는 김일성동지의 령도를 받고있는 남조선혁명가들과 인민들의 투쟁은 필승불패이다.

조선혁명의 기지인 공화국북반부의 정치, 경제, 군사적 위력은 비상히 강화되였다.

남조선에서 미제의 식민지통치는 걷잡을수 없는 위기에 빠져있으며 혁명력량은 부단히 장성발전하고있다.

남조선당조직들과 혁명가들은 이와같은 유리한 조건들에 의거하여 자기의 완강하고 정력적인 투쟁으로써 능히 남조선에 강력한 맑스-레닌주의당을 건설할수 있고 혁명의 기본동력인 로동자, 농민대중을 그 주위에 굳게 결속할수 있으며 혁명의 주력군을 튼튼히 꾸릴수 있다.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남조선에서 강력한 혁명의 주력군을 꾸릴데 대한 전략적방침을 성과적으로 관철해나아갈 때 남조선혁명은 급속히 추진될것이며 우리 나라에서 혁명의 전국적승리는 더욱더 촉진될것이다.

근 로 자 제 8 호 (루계 318호)

편 집 위 원 회

발행소 • 근 로 자 사 주소 • 평양시 중구역 남문동
인쇄소 • 평양종합인쇄공장
인 쇄 • 1968년 8월 25일 발 행 • 1968년 8월 30일

ㄱ—83420 값 50전

117

Kam Roza

(Wolters)

11

전세계 로동자들은 단결하라!

근로자

9 호

평양 근로자사 1968

전세계로동자들은 단결하라!

근로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 관 지

제 9 호 (319)

차 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우리 인민의 자유와 독립의 기치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강력한 무기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스무돐 기념 경축대회에서 하신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 수상이신

김일성동지의 보고

(모두 일어서서 우뢰와 같은 박수, 환호소리 오래 계속)

친애하는 동지들!

존경하는 외국의 벗들!

조선인민이 자기의 력사에서 처음으로 진정한 독립국가를 창건하고 영광스러운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기치밑에 새 사회, 새 생활을 창조하는 길에 들어선 때로부터 20년이 지나갔습니다.

오늘 우리 나라의 전체 인민은 공화국이 걸어온 간고하고도 영광스러운 투쟁행로를 감회깊게 돌이켜보며 자기들의 영웅적투쟁을 통하여 이루어놓은 혁명의 전취물을 더욱 공고발전시키고 분렬된 조국을 통일하며 전국적으로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위업을 끝까지 완수하려는 혁명적결의를 굳게 다지면서 공화국창건 스무

넓을 기념하고있습니다. (우렁찬 박수)

나는 이 뜻깊은 민족적명절을 맞이하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와 공화국정부의 이름으로 우리 조국의 륭성발전을 위하여 영광에 찬 승리의 길을 걸어왔으며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린 이 자리에 모인 여러 동지들과 동지들을 통하여 로동자, 농민, 근로인테리를 비롯한 우리 나라의 전체 인민들을 열렬히 축하합니다. (우뢰와 같은 박수 오래 계속)

우리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하여, 공화국을 창건하고 그것을 수호하기 위하여 수많은 혁명투사들과 애국적민주인사들이 희생되였습니다. 우리 공화국기발에는 조국의 광복을 위하여 손에 무장을 들고 오랜 기간 일본제국주의를 반대하여 영웅적으로 싸운 항일혁명선렬들의 숭고한 애국주의정신이 깃들어있으며 간고한 조국해방전쟁시기에 조국의 자유와 독립과 인민주권을 지키기 위하여 몸바쳐싸운 참다운 애국투사들과 영웅전사들이 흘린 붉은 피가 스며있습니다. 나는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자기의 고귀한 생명을 바친 혁명렬사들에게 최대의 경의를 표합니다. (우뢰와 같은 박수 오래 계속)

나는 또한 공화국의 륭성발전에 끝없이 고무되면서 미제와 그 앞잡이들을 반대하며 자유와 해방과 조국의 통일을 위하여 용감하게 싸우고있는 남조선혁명가들과 전체 남조선인민들에게 형제적지지성원을 보냅니다.(우렁찬 박수 오래 계속)

이와 함께 나는 공화국의 기치밑에 해외에서 자기들의 민주주의적민족권리를 위하여, 조국의 통일을 위하여 억세게 투쟁하고있는 60만 재일 조선동포들과 모든 해외조선공민들에게 뜨거운 인사를 보냅니다. (우렁찬 박수 오래 계속)

오늘 이 경축대회에는 우리 인민의 민족적명절을 축하하기 위하여 형제적사회주의나라들과 아세아, 아프리카의 여러 친선적인 신생독립국가들 그리고 자본의 압박과 착취를 반대하며 민족적독립과 사회적진보를 위하여, 세계평화와 인민들의 안전을 위하여 싸우는 5대륙인민들의 귀중한 대표들이 참가하였습니다. 이것은 이 나라 인민들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자주권과 우리 민족의 존엄을 존중히 여기고있는 표현이며 우리 인민의 혁명위업에 대한 이 나라 인민들의 국제적련대성의 뚜렷한 표시입니다. 나는 공화국정부와 전체 조선인민의 이름으로 이 자리에 참가한 외국동지들과 벗들을 열렬히 환영하며 그들을 통하여 친선의 사절을 보내준 모든 나라 정부와 인민들에게 깊은 사의를 표합니다.(우렁찬 박수)

동지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전체 조선인민의 절대적인 지지와 사랑을 받는 우리의 참다운 조국입니다. (박수) 우리의 국가는 인민이 창건하였고 로동계급이 령도하는 로농동맹을 기초로 하는 전체 인민의 통일되고 단결된 력량에 의거하고있

으며 광범한 인민대중을 국가사업에 참가시키는 가장 민주주의적이며 가장 공고한 국가입니다.(박수) 우리 공화국은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각계각층 인민들에게 정치적자유와 권리를 보장할뿐만아니라 행복한 물질문화적생활을 보장하는 참다운 인민의 국가입니다. (박수) 그렇기때문에 우리 나라의 전체 인민은 공화국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공화국기발아래 굳게 뭉쳐 간고한 혁명투쟁과 위대한 건설사업을 진행하여왔습니다. (우렁찬 박수) 공화국의 전진도상에는 난관도 많았으며 우리는 준엄한 시련도 겪었습니다. 그러나 공화국기치밑에 우리 인민은 자기의 운명을 자기 손에 튼튼히 틀어쥐고 불요불굴의 투쟁을 벌려 모든 난관과 시련을 영웅적으로 이겨냈으며 조국의 륭성발전과 민족의 번영을 위하여 참으로 많은 일을 해놓았습니다. (우뢰와 같은 박수)

유구한 우리 인민의 력사에서 20년이란 세월은 매우 짧은 한 순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기간에 우리 공화국정권은 조선로동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맑스-레닌주의를 우리 나라의 구체적실정에 창조적으로 적용하여 정확한 정책을 세우고 그 관철에로 전체 인민대중을 능숙하게 조직동원하여 위대한 사회경제적변혁을 이룩하였습니다. (우렁찬 박수) 우리는 도시와 농촌에서 온갖 착취와 압박을 없애는 사회주의혁명을 빛나게 수행하였으며 천리마의 대진군을 벌려 자립적민족경제의 튼튼한 토대를 쌓아놓았습니다. (우렁찬 박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무력침공을 반대하는 어렵고 간고한 전쟁에서 우리 인민을 승리에로 이끌었으며 혁명의 전취물을 영예롭게 지켰습니다. (우렁찬 박수 오래 계속)

오늘 우리 공화국은 선진적인 사회주의제도와 자립적민족경제의 튼튼한 토대를 가진 그리고 위력한 전인민적방위체계와 찬란한 민족문화를 가진 자주적인 사회주의국가로 되였습니다. (우뢰와 같은 박수) 참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우리 인민이 원쑤들과의 판가리싸움에서 피로써 지켜낸 영광스러운 조국이며 자기들의 간고한 혁명투쟁과 영웅적로동으로써 이루어놓은 번영하는 사회주의조국입니다. (우렁찬 박수)

혁명과 건설을 위한 20년동안의 투쟁을 통하여 우리 공화국은 전체 조선인민의 절대적인 지지와 두터운 신뢰를 얻었습니다. (우뢰와 같은 박수) 우리 인민은 공화국의 륭성발전에서 자기들의 참다운 행복의 보금자리를 보고있으며 공화국의 필승불패의 위력을 굳게 믿고있습니다. (우렁찬 박수) 우리 나라의 전체 인민은 공화국기치밑에 조국땅우에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건설할수 있다는 신심으로 가득차있으며 공화국의 무궁한 번영을 위하여 무비의 애국적헌신성과 창조적열의를 내여 투쟁하고있습니다. (우렁찬 박수)

우리 공화국의 륭성발전은 미제국주의자들과 그 앞잡이들의 억압과 착취 밑에

서 허덕이는 남조선인민들에게 커다란 혁명적영향을 주고있습니다. (박수) 남조선인민들은 인민이 주권을 틀어쥐여야만 참다운 자유와 행복을 누릴수 있다는것을 깊이 깨닫고있으며 공화국을 조국통일의 불패의 보루로 바라보면서 미제와 그 앞잡이들을 반대하여 더욱 억세게 싸우고있습니다. (우렁찬 박수 오래 계속)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재일동포들을 비롯한 모든 해외조선공민들의 희망의 등대로 되고있습니다. (우렁찬 박수) 지난날에는 나라 없는 인민으로서 이국땅에서 온갖 수모와 멸시를 받으면서 정치적무권리와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려오던 수많은 조선동포들이 오늘은 당당한 독립국가의 공민으로서 자기들의 권리를 요구할수 있게 되였습니다. (박수)

실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전체 조선인민의 자유와 독립과 행복의 기치이며 그 영향력은 날을 따라 더욱더 커가고있습니다. (우렁찬 박수 오래 계속)

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영광스러운 20년

동지들!

주권에 관한 문제는 혁명에서 기본문제이며 혁명의 승패와 건설사업의 성과를 좌우하는 사활적인 문제입니다. 로동계급은 자기의 손에 주권을 틀어쥐고 그 기능과 역할을 끊임없이 높이며 프로레타리아독재를 계속 강화하여야만 완전한 계급적 및 민족적 해방을 이룩할수 있으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실현할수 있습니다.

조선의 공산주의자들은 혁명을 령도하는 전행정에서 시종일관 주권문제에 가장 깊은 관심을 돌려왔으며 그 옳은 해결을 위하여 모든 힘을 다하여왔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선의 공산주의자들을 비롯한 애국적인민들의 영광스러운 항일무장투쟁의 빛나는 혁명전통을 이어받은 정권이며 우리 당의 령도밑에 우리 인민이 내외의 원쑤들을 반대하는 간고한 투쟁을 통하여 쟁취한 혁명의 위대한 전취물입니다. (우뢰와 같은 박수 오래 계속)

우리 인민은 오래동안 민족적독립과 자기의 주권을 위하여 영웅적으로 싸웠으며 피도 많이 흘렸습니다. 로동계급은 착취계급의 권력기구를 뒤집어엎고 자기의 정치적지배를 확립하기 위한 투쟁에서 혁명적폭력이 없이는 승리할수 없습니다. 조선에서의 일제식민지통치기구는 조선인민에 대한 가혹한 파쑈적폭압기구였으며 따라서 우리는 혁명적폭력에 의하여서만 주권을 전취할수 있었습니다. 조선의 공

산주의자들과 애국자들은 혁명적폭력과 혁명적무력에 커다란 의의를 부여하고 맑스-레닌주의사상을 지침으로 하여 조국의 광복과 조선인민의 민족적목립을 위하여 일제를 반대하는 선진적로동자, 농민, 애국청년들로써 항일유격대를 조직하고 15성상에 걸친 영웅적무장투쟁을 벌렸습니다. (우뢰와 같은 박수 오래 계속)

항일무장투쟁은 조국의 해방과 자기의 주권을 위한 우리 인민의 민족해방투쟁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켰으며 인민정권을 세우기 위한 튼튼한 기초를 닦아놓았습니다. (우뢰와 같은 박수) 조선의 공산주의자들은 우리 나라 혁명발전의 합법칙적요구로부터 출발하여 그리고 민족적 및 계급적 모순과 사회경제적조건을 과학적으로 분석한데 기초하여 앞으로 세워야 할 정권은 로동계급이 령도하는 로농동맹에 기초하고 광범한 반일력량의 통일전선에 의거한 인민혁명정부로 되여야 한다는 로선을 내놓았습니다. (우렁찬 박수 오래 계속) 이 로선은 이미 조국해방투쟁당시에 조국광복회 10대강령에서 정식화되였습니다. (우렁찬 박수) 이와 함께 간고한 항일무장투쟁의 시련속에서 대중과 혈연적련계를 맺고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바쳐 싸울줄 아는 단련되고 세련된 수많은 공산주의자들이 자라났으며 인민정권을 창건하기 위한 혁명적골간이 준비되였습니다. (우렁찬 박수)

해방후 우리 인민은 바로 이와 같은 항일무장투쟁시기에 제기한 맑스-레닌주의적인민정권로선과 고귀한 사업경험에 토대하여 항일무장투쟁과정에서 자라난 공산주의자들의 옳바른 지도밑에 내외원쑤들과의 치렬한 투쟁속에서 인민정권을 세우며 민주주의적 새 조국을 건설하는 길에 들어섰습니다.

일제를 대신하여 남조선을 강점한 미제국주의자들은 반동세력들을 긁어모아가지고 민주주의적자주독립국가건설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을 파탄시키려고 온갖 책동을 다하였습니다. 적들의 파괴암해책동과 함께 좌우경기회주의분자들도 인민정권을 세우기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에 많은 난관을 조성하였습니다. 해방직후 우경투항주의분자들은 우리 나라에 부르죠아공화국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들은 절대다수 인민대중의 근본리익을 저버리고 친일 지주, 자본가들의 리익을 대변하여나섰습니다. 또한 극좌분자들은 해방직후부터 당장 우리 나라에 프로레타리아독재정권을 세우고 사회주의혁명을 수행하여야 한다고 떠벌였습니다. 이자들은 우리 나라 사회발전의 객관적요구를 무시하고 민주주의혁명단계를 뛰여넘으려 하였습니다.

우리 인민은 공화국북반부에 강력한 민주기지를 창설할데 대한 당의 정확한 정치로선에 기초하여 민족적 및 계급적 원쑤들과 좌우경기회주의자들의 음모책동을 걸음마다 짓부시고 광범한 대중적지반을 가진 참다운 인민정권을 세우기 위하여 투쟁하였습니다. 우리는 새 조국 건설을 지향하는 각당, 각파, 각계각층 민주력

당파의 통일전선을 이루고 광범한 인민대중을 조직동원하여 일제의 낡은 식민지통치기구를 철저히 짓부시고 나라의 방방곡곡에서 인민위원회들을 조직하였으며 그에 기초하여 새형의 정권인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를 세웠습니다.(우렁찬 박수 오래 계속)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는 로동계급이 령도하는 로농동맹에 기초하여 광범한 반제반봉건적민주력량을 망라하고있는 민주주의민족통일전선에 의거한 인민정권으로서 인민민주주의독재의 기능을 수행하였습니다. 이 정권앞에 나선 기본과업은 조국광복회 10대강령과 20개조정강을 실현함으로써 반제반봉건적민주주의혁명과업을 완수하며 북반부에 혁명적민주기지를 창설하는데 있었습니다.

민주개혁을 실시하는것은 우리 나라 사회경제발전의 합법칙적요구였습니다. 민주개혁을 실시하여야만 지주, 예속자본가를 비롯한 반동계급들의 경제적기초를 없애고 사회적진보를 위한 넓은 길을 열어놓을수 있었으며 인민정권의 사회경제적지반을 튼튼히 하고 북반부를 강력한 혁명적민주기지로 전변시킬수 있었습니다.

로지문제는 민주주의혁명단계에서 선차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초미의 문제입니다. 로지문제를 해결하여야만 농촌에 뿌리박은 반동세력의 경제적지반을 없애고 농민들을 봉건적착취에서 해방하여 그들의 정치적열성을 비상히 높일수 있으며 나라의 전반적 정치, 경제, 문화 생활을 민주화하기 위한 사회정치적지반을 강화할수 있습니다. 또한 토지개혁을 하여야만 농업생산력을 봉건적질곡에서 해방하고 빨리 발전시켜 민족공업과 전반적민족경제의 부흥발전을 힘있게 추동할수 있습니다. 토지문제의 해결은 농민이 인구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뒤떨어진 식민지농업국가였던 우리 나라에서 특별히 중요한 의의를 가지였습니다.

우리의 인민정권은 우리 나라 농촌의 계급적력량관계와 토지소유관계, 땅에 대한 우리 농민들의 세기적숙망을 충분히 고려하여 토지몰수대상을 규정하고 지주의 토지를 무상으로 몰수하여 토지가 없거나 적은 농민들에게 무상으로 나누어주는 방법으로 토지개혁을 철저히 수행하였습니다. (박수)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과업을 수행하는데서 또 하나의 중요한 문제는 식민지통치자들과 예속자본가들의 소유였던 중요 기간공업, 운수, 체신, 은행, 상업 및 대외무역을 국유화하여 그것이 인민의 리익을 위하여 리용되도록 하는것입니다. 제국주의자들과 예속자본가들이 경제명맥을 틀어쥐고있는 한 그들에 의한 략탈과 착취를 면할수 없으며 나라의 자주독립과 륭성발전을 바랄수 없습니다. 오직 외래독점자본가들과 그와 결탁한 예속자본가들의 소유를 청산하고 경제의 기본명맥을 국가가 직접 틀어쥐여야만 제국주의자들과 국내반동들의 정치, 경제적 지반을 없앨수 있으며 나라의 중요생산수단들을 민족경제의 자주적발전과 전체인민의 복리증진에 리용할수 있으며 사회주의경제의 토대를 마련할수 있습니다.

우리는 토지개혁에 뒤이어 일제와 예속자본가들의 소유였던 모든 산업시설들을 몰수하여 국유화하였습니다. (박수) 중요산업을 국유화한 결과 온갖 사회적불행을 낳게 하던 화근이 산업분야에서 기본적으로 없어졌으며 사회주의적생산관계가 발생되고 민족경제를 계획적으로 발전시킬수 있는 밑천이 마련되였습니다.

인민정권은 경제개혁들을 성과적으로 수행하는것과 함께 근로자들의 민주주의적 자유와 권리를 전면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로동법령, 남녀평등권법령과 같은 민주주의적개혁들을 실시하였습니다.(박수) 로동법령과 남녀평등권법령이 실시됨으로써 로동계급에 대한 무제한한 착취관계가 없어졌으며 녀성들은 봉건적예속에서 벗어나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남성들과 똑같은 권리를 가지게 되였습니다.(박수)

새 사회를 건설하는데서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자체의 민족간부의 부대를 튼튼히 꾸리는것입니다. 특히 일제의 식민지노예교육정책으로 말미암아 민족인테리가 매우 적었고 주민의 절대다수가 현대적기술문명에서 멀리 뒤떨어졌던 우리 나라의 형편에서 이 문제는 혁명과 건설 사업의 성과를 좌우하는 관건적인 문제로 나섰습니다. 민족간부문제를 푸는데 있어서 오랜 인테리들을 혁명과 건설에 적극 인입하는것은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 우리는 우리 나라의 오랜 인테리들이 대부분 자산계급의 출신으로서 지난날에는 할수없이 제국주의와 착취계급에게 복무하기는 하였지만 식민지인테리로서 외래제국주의의 억압과 민족적차별대우를 받았기때문에 반제혁명의식을 가지고있다는것과 공부를 하고 진리를 파악하고있다는 점에서는 사회발전법칙에 따라 선진계급인 로동계급을 위하여 복무할수 있다는것을 고려하여 그들을 대담하게 믿고 교양개조하여 새 사회 건설에 적극 참가시키는 방침을 취하였습니다. (박수) 이와 함께 해방직후의 어려운 조건에서도 교육을 민주화하며 로동자, 농민 출신의 새 인테리들을 대대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대학과 전문학교를 비롯한 각급 학교들을 전국도처에 널리 창설하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함으로써 민족간부양성사업에서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박수)

우리 당과 인민정권은 북반부의 민주기지를 정치, 경제적으로 튼튼히 꾸리는 한편, 인민민주주의제도를 원쑤들의 침해로부터 보위하기 위한 혁명무력인 조선인민군을 창건하였습니다. (우뢰와 같은 박수)

민주주의혁명과업이 성과적으로 수행된 결과 사회경제제도의 식민지적 및 반봉건적 성격이 완전히 없어졌으며 북반부의 사회경제관계는 근본적으로 달라졌습니다. 공화국북반부의 인민경제에서 국영경제와 협동경리로써 구성된 사회주의적경제형태가 지도적지위를 차지하게 되였으며 그밖에 개인농경리와 도시수공업경리로 구성된 소상품경제형태와 도시의 자본주의적개인상공업과 농촌의 부농경리에 국한된 얼마 안되는 자본주의적경제형태가 남아있게 되였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경제관계에 기초하여 우리 사회의 계급관계도 근본적으로 달라졌습니다. 북반부에서 지주, 예속자본가, 친일파, 민족반역자들이 청산되고 근로인민이 나라의 주인으로 되였으며 로동계급의 령도적역할이 높아지고 로농동맹이 더욱 강화되였습니다. (박수)

이리하여 북반부에는 인민민주주의제도가 튼튼히 서게 되였으며 조국통일의 믿음직한 담보인 강력한 혁명적민주기지가 마련되였습니다. (우렁찬 박수)

민주주의혁명이 완수되는데 따라 북반부에서는 점차 사회주의혁명에로 넘어갈수 있는 조건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로부터 우리 당은 우리 혁명의 무기인 인민정권을 사회주의혁명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맞게 더욱 발전시킬 과업을 내놓았습니다. 그리하여 력사적인 첫민주선거를 실시하고 북조선인민위원회를 창설하였습니다. (박수) 이것은 우리 나라에 탄생된 첫프로레타리아독재정권이였습니다. 북조선인민위원회는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의 강력한 무기로서 점차 사회주의에로 넘어가는 과도기의 임무를 수행하며 인민경제를 계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투쟁하였습니다.

해방직후부터 1948년 8월까지의 3년동안의 혁명과 건설에서 이룩된 이 모든 커다란 성과들에 의하여 인민정권의 사회경제적기초가 공고히 되였습니다. 특히 혁명발전의 매 단계에서 로동계급이 령도하는 로농동맹과 인민대중의 정치도덕적단결을 끊임없이 강화발전시켜온 당의 옳바른 방침에 따라 인민정권의 정치적지반이 더욱 튼튼하여졌습니다. 민주주의혁명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투쟁과정에서 수많은 핵심들과 혁명적골간들이 자라났고 광범한 인민대중이 각성되였으며 전반적으로 우리의 혁명력량이 더욱 장성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해방후 3년동안에 우리는 자주적이며 민주주의적인 통일독립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튼튼한 토대를 가질수 있게 되였습니다. (우뢰와 같은 박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북반부에서 이룩된 위대한 사회경제적변혁에 기초하여, 더욱 로골화되는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식민지예속화정책과 민족분렬책동을 반대하는 거족적투쟁속에서 전체 조선인민의 총의에 의하여 1948년 9월에 창건되였습니다. (우뢰와 같은 박수 오래 계속)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은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이룩할데 대한 우리 민족의 한결같은 념원의 구현으로서 조선로동당의 현명한 정책을 높이 받들고 그 주위에 굳게 뭉쳐 부강한 자주독립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보람찬 투쟁에서 우리 인민이 이룩한 빛나는 승리였으며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휘황한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인민의 혁명투쟁에서 획기적의의를 가지는 중대한 사변이였습니다.」 (우뢰와 같은 박수 오래 계속)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창건됨으로써 우리 인민은 지난날 외래제국주의자들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온갖 천대와 멸시를 받아오던 민족으로부터 그 누구도 감히 건드릴수 없는 힘있고 존엄있는 민족으로, 주권을 자기 손에 틀어쥐고 자체의 힘으로 자기 조국을 건설하여나아가는 자주독립국가의 슬기로운 인민으로 되였습니다. (우뢰와 같은 박수) 공화국의 창건으로 조선인민은 쓰라린 망국노의 운명에서 영원히 벗어나 떳떳한 독립국가의 기치밑에 새로운 력사무대에 등장하였으며 오래동안 세계지도에서 빛을 잃었던 우리 조국은 세계의 대소국가들과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국제무대에 진출하게 되였습니다. (우뢰와 같은 박수 오래 계속)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으로 조선인민은 조선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위업을 철저히 수행할수 있는 더욱 강력한 무기를 가지게 되였습니다. (우렁찬 박수) 우리 인민은 자기의 사회주의적자주독립국가를 가지게 됨으로써 전국적판도에서 반혁명력량에 대한 혁명력량의 결정적우세를 보장할수 있게 되였으며 제국주의자들과 온갖 반동들의 준동을 단호히 물리치고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성과적으로 밀고나갈수 있게 되였습니다. (우렁찬 박수 오래 계속)

공화국의 창건은 자기의 운명을 자기 손에 틀어쥐고 광명한 새생활을 창조하며 분렬된 조국을 통일하기 위한 혁명투쟁에 일떠선 전체 조선인민에게 무한한 힘과 용기를 안겨주었으며 나라의 주인으로 된 우리 인민의 민족적긍지와 자부심을 더욱 높여주었습니다. (우렁찬 박수 오래 계속)

동지들!

창건된후 지난 20년동안 우리 공화국은 로동당의 령도밑에 영광에 찬 승리의 길을 걸어왔으며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의 무기로서의 자기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여왔습니다. (우렁찬 박수 오래 계속) 공화국정권은 창건된 첫날부터 프로레타리아독재의 기능을 끊임없이 강화하면서 당이 내세운 정치, 경제, 문화, 군사 분야의 모든 혁명과업을 빛나게 수행하여왔습니다. (우렁찬 박수)

전쟁전에 공화국정권은 전복된 착취계급의 반항을 진압하는 한편, 경제분야에서 자본주의적발전을 제한하면서 국영부문의 지배적지위를 보장하고 민족경제를 계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투쟁하였습니다. 공화국정부는 1947년과 1948년의 인민경제계획수행에서 거둔 성과에 기초하여 1949~1950년 2개년인민경제계획을 세우고 인민대중을 그 수행에로 적극 조직동원함으로써 생산관계의 사회주의적개조를 한걸음한걸음 준비하였으며 경제의 식민지적편파성을 없애고 자립적인 민족경제의 토대를 닦는데서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박수)

그러나 사회주의에로 넘어가기 위한 공화국정권의 준비사업과 우리 인민의 평화적로동은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강도적인 무력침공으로 말미암아 일시 중단되지

않으면 안되게 되였습니다.

미제에 의하여 강요된 3년동안의 전쟁은 조국의 운명을 좌우하는 판가리싸움이였으며 우리 공화국과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가장 준엄한 시련이였습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우리 공화국을 요람기에 없애버리려고 필사적으로 덤벼들었습니다. 그러나 원쑤들은 침략자에 대한 불타는 증오심을 안고 정의의 항전에 한사람같이 일떠선 영웅적 우리 인민을 굴복시킬수는 없었습니다. (우렁찬 박수)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모든것을 전쟁의 승리를 위하여!》라는 구호밑에 모든 사업을 전시체제로 개편하고 전체 인민을 조국의 자유와 독립과 영예를 수호하는 영웅적투쟁에로 힘차게 불러일으켰습니다. (우뢰와 같은 박수)

우리 인민은 자기들을 착취와 억압에서 해방하여주었으며 자유롭고 행복한 새생활을 마련하여준 우리 당과 인민주권을 지키기 위하여 전선과 후방에서 높은 애국적헌신성과 희생성을 발휘하였으며 물불을 헤아리지 않고 영웅적으로 싸웠습니다. (우렁찬 박수 오래 계속)

우리 당에 의하여 교양육성된 영용한 인민군장병들은 당과 조국과 인민의 보위자로서의 고상한 사명을 깊이 간직하고 백절불굴의 혁명정신과 대중적영웅주의를 남김없이 발휘하였습니다. (우뢰와 같은 박수) 우리 인민군장병들은 남반부지역을 해방하는 반공격의 가렬한 전투속에서도 일시적인 전략적후퇴의 어려운 시련속에서도 재진격과 진지방어의 치렬한 전투속에서도 언제나 승리의 신심 드높이 당과 조국을 위하여 원쑤들을 용감히 맞받아나가 싸웠습니다. (우뢰와 같은 박수) 그들은 전쟁력사에서 아직 있어보지 못한 새로운 독창적인 전법들을 솜씨있게 적용하여 전투에서 언제나 주도권을 튼튼히 틀어쥐고 가는 곳마다에서 적들에게 섬멸적타격을 주었으며 조국의 하나하나의 고지, 한치한치의 땅을 목숨바쳐 지켰습니다. (우뢰와 같은 박수)

전쟁승리를 위한 우리 인민의 영웅적투쟁은 전선에서뿐만아니라 후방에서도 힘차게 벌어졌습니다. 후방에 있는 로동자, 농민, 청년학생, 남녀로소 할것없이 전체 인민들이 적들의 야만적폭격속에서도 조금도 굴하지 않고 전시생산과 전선원호사업을 위하여 영웅적으로 싸웠으며 하나로 굳게 뭉쳐 온갖 애로와 난관을 용감히 물리치고 전선의 승리를 믿음직하게 담보하였습니다. (우렁찬 박수)

우리 위업의 정당성과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적극적인 대외활동에 의하여 조국해방전쟁에서 우리 인민은 세계의 많은 나라들과 수억만 인민들의 적극적인 지지성원을 받았습니다. 쏘련을 비롯한 사회주의나라 인민들은 우리를 물심량면으로 지원하여주었으며 중국인민들은 지원군을 보내여 우리 인민의 정의의 투쟁을 피로써 도와주었습니다. 사회주의나라들과 함께 세계의 모든 진보적 나라들과 인민들은 한결

같이 미제의 침략을 규탄하고 우리 인민의 투쟁을 적극 지지하였습니다. 이러한 국제적지지성원은 우리 인민의 정의의 투쟁을 힘있게 고무하여주었습니다. (박수)

미제국주의자들은 조선전선에 자기 나라 륙군의 3분의 1과 공군의 5분의 1, 태평양함대의 대부분 그리고 15개 추종국가군대들과 남조선괴뢰군들을 포함하여 200여만의 대병력과 막대한 량의 최신전투기재들을 동원하였으며 일찌기 전쟁력사에서 그 례를 볼수 없는 야만적인 전쟁방법과 수단까지 다 썼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무엇으로써도 곤경에서 자신을 구원할수 없었습니다. 적들은 3년동안의 조선전쟁기간에 2차세계대전시기 4년동안의 태평양전쟁에서 입은 손실의 거의 2.3배에 이르는 막대한 병력과 군수기재의 손실을 보았습니다.

우리 인민의 조국해방전쟁은 미제를 비롯한 세계반동의 련합세력을 반대하는 치렬한 반제반미투쟁이였으며 인민의 원쑤들을 반대하는 준엄한 계급투쟁이였습니다. 우리 인민은 이 위대한 투쟁에서 당과 공화국정부의 정확한 령도밑에 한마음한몸이 되여 결사적으로 싸움으로써 전쟁의 어려운 시련을 영예롭게 이겨냈으며 미제와 그 앞잡이들에게 수치스러운 패배를 주고 력사적인 승리를 이룩하였습니다. (우뢰와 같은 박수 오래 계속)

조국해방전쟁에서의 력사적승리는 우리 공화국과 인민민주주의제도의 무궁무진한 생활력과 나라의 주인으로 된 우리 인민의 불패의 힘의 뚜렷한 시위였습니다. (우뢰와 같은 박수) 우리의 승리는 맑스-레닌주의당의 령도밑에 자기의 운명을 자기 손에 튼튼히 틀어쥐고 조국의 자유와 독립과 진보를 위하여 일떠선 인민은 그 어떤 힘으로도 정복할수 없다는것을 똑똑히 보여주었습니다. (우렁찬 박수) 그것은 또한 전쟁승리의 결정적요인이 그 어떤 무기나 기술의 우세에 있는것이 아니라 자기 위업의 정당성을 깊이 깨닫고 하나로 굳게 뭉친 인민대중의 힘에 있다는것을 실증하였습니다. (박수)

우리 인민은 조국해방전쟁에서 위대한 승리를 쟁취함으로써 세계《최강》을 자랑하던 미제의 코대를 꺾어놓고 그 《강대성》에 대한 신화를 산산이 깨뜨려버렸으며 미제국주의자들이 내리막길에 들어서는 시초를 열어놓았습니다. (우뢰와 같은 박수) 조선인민은 조국해방전쟁에서 사회주의진영나라들을 위협하던 미제의 침략기도를 꺾어버리고 사회주의진영의 동방초소를 굳건히 보위하였으며 세계평화와 안전을 수호하는 사업에 크게 이바지하였습니다. (우뢰와 같은 박수)

전쟁의 준엄한 시련을 통하여 우리 인민은 더욱 각성되고 단련되였으며 우리의 인민군대는 정치사상적으로, 군사기술적으로 세련되고 풍부한 전투경험을 가진 불패의 혁명무력으로 자라났습니다. (우렁찬 박수) 특히 전쟁의 가렬한 불길속에서 수십만의 혁명적골간들이 새로 자라났습니다. 간고한 혁명투쟁에서 자란 이 혁

명간부들은 우리가 아끼고 사랑하여야 할 귀중한 재부이며 우리 혁명의 승리를 위한 매우 고귀한 밑천입니다. (박수)

조국해방전쟁에서 어려운 시련을 이겨내고 력사적승리를 쟁취한 우리앞에는 파괴된 인민경제를 빨리 복구하고 령락된 인민생활을 짧은 시일에 안정시켜야 할 절박한 과업이 나섰습니다. 우리 나라에서의 전쟁피해는 말로 표현할수 없으리만큼 심하였습니다. 도시와 농촌이 재더미로 되고 인민경제 모든 부문들이 여지없이 파괴되였으며 인민들은 생활토대마저 거의 다 잃어버렸습니다. 이러한 형편에서 무엇부터 시작하여 어떻게 복구하여야 할지 갈피를 잡을수 없을 정도로 할 일은 태산같이 많았으며 사정은 너무나도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조금도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인민이 있고 령토가 있고 당이 있고 인민정권이 있는 이상 우리는 또다시 새생활을 건설할수 있다는 확고한 신심을 가지고 전후복구건설에 달라붙었습니다. (우렁찬 박수 오래 계속)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중공업의 우선적장성을 보장하면서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킬것을 전후경제건설의 기본로선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이것은 복구건설의 방향과 선후차를 옳게 정하고 중심고리를 똑바로 틀어쥐고 거기에 힘을 넣을수 있게 하는 가장 현명한 방침이였습니다.(우렁찬 박수)

중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지 않고서는 전쟁으로 말미암아 혹심하게 파괴된 우리 나라의 경공업과 농업을 성과적으로 복구발전시킬수 없었으며 인민생활을 추켜세울수 있는 튼튼한 경제적밑천을 마련할수도 없었습니다. 인민경제의 식민지적편파성과 기술적락후성을 없애고 민족경제의 튼튼한 자립적토대를 쌓는 문제는 오직 중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켜야만 풀수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중공업에만 힘을 돌리고 경공업과 농업의 발전을 뒤로 미룰수는 없었습니다. 전쟁으로 말미암아 령락된 인민생활을 빨리 추켜세우기 위해서는 쌀과 천을 비롯한 소비품의 생산을 늘여야 하였으며 원래 농업과 경공업이 몹시 뒤떨어졌던 우리 나라에서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하기 위해서도 중공업과 함께 경공업, 농업을 빨리 추켜세워야 하였습니다.

모든것이 파괴되고 모자라는 조건에서 이 로선을 관철한다는것은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였습니다. 그러나 당과 정부는 전쟁을 통하여 단련되고 세련되였으며 당주위에 굳게 뭉친 우리 인민을 믿었으며 인민대중의 힘과 국내의 모든 원천을 남김없이 동원하고 형제나라들의 원조를 효과적으로 리용할것을 고려하였습니다.

우리 당이 내놓은 경제건설의 기본로선은 우리 나라 경제발전의 합법칙적요구와 현실적가능성을 옳게 타산한 유일하게 정당한 로선이며 맑스-레닌주의확대재생

산리론을 우리 나라의 구체적실정에 맞게 적용한 창조적인 로선이며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에 기초하여 자립적민족경제를 빨리 건설할데 대한 당의 확고부동한 립장을 표현한 혁명적인 로선입니다. (우렁찬 박수)

공화국정부는 우리 당이 내놓은 경제건설의 기본로선에 따라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전쟁전 수준을 회복할것을 기본과업으로 하는 인민경제복구발전 3개년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수행하기 위한 투쟁에로 전체 인민을 조직동원하였습니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정확한 정책에 고무된 우리 나라 모든 근로자들은 허리띠를 졸라매고 악전고투하여 중첩되는 난관을 이겨내고 전후 3개년계획을 성과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그리하여 3~4년밖에 안되는 동안에 공업과 농업 생산은 전쟁전 수준을 회복하였을뿐만아니라 훨씬 넘어서게 되였습니다. (우렁찬 박수)

우리는 전후복구의 어려운 과업을 승리적으로 완수하고 우리 당 제3차대회가 내놓은 기본방향에 따라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되는 장기적인 전망계획인 5개년계획을 수행하는 길에 들어섰습니다.

5개년계획의 기본과업은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의 기초를 튼튼히 하며 인민들의 의식주문제를 기본적으로 푸는데 있었습니다.

도시와 농촌에서 생산관계의 사회주의적개조를 완성하고 사회주의제도를 전면적으로 세우는것은 5개년계획기간에 하여야 할 사회주의기초건설에서 가장 중요한 과업이였습니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혁명발전이 절실히 요구하고 그것을 수행하기 위한 모든 조건이 성숙되는데 따라 제때에 농업협동화문제를 내세우고 농촌경리의 사회주의적개조를 완성하기 위하여 정력적으로 투쟁하였습니다.

우리는 농촌경리의 사회주의적개조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맑스-레닌주의의 일반적원칙을 우리 나라의 구체적실정에 맞게 창조적으로 적용하여 농업협동화의 발전단계와 속도, 협동경리의 형태와 규모를 정확히 규정하였으며 레닌적자원성의 원칙을 엄격히 지키고 실천적모범을 통하여 농민들에게 협동경리의 우월성을 인식시키는 기초우에서 이 운동을 실속있게 발전시키도록 하였습니다.

경험적단계에서 농기구와 부림소가 모자라고 메마른 땅을 가진 빈농민들로만 조직된 농업협동조합들을 튼튼히 하고 개인농경리에 비한 그 우월성을 충분히 나타내게 하는데 있어서 로동계급의 국가적지원은 결정적의의를 가지였습니다. 당과 정부는 이미 축성된 공업의 토대에 의거하여 협동조합들에 화학비료와 농기계, 건설자재들을 우선적으로 대주었으며 식량과 종곡을 꾸어주며 재정적융자를 우선적으로 실시하며 협동조합들의 현물세납부률을 훨씬 낮추어주었으며 중요한 영농시기마다 로력적지원을 비롯하여 모든 힘을 다하여 국가적방조를 주었습니다. 이러

한 국가적방조와 농촌의 핵심들인 조합원들의 헌신적인 투쟁에 의하여 농업협동조합들은 점차 우월성을 뚜렷이 보여주기 시작하였습니다. 협동경리의 우월성이 실물로 확증되고 당의 의도가 광범한 농민들속에 깊이 침투되자 중농들이 협동화운동에 인입되게 되였으며 우리 나라에서의 협동화운동은 대중적발전단계로 넘어가게 되였습니다.

농민들이 대중적으로 협동경리에 망라됨에 따라 특히 협동경리의 형태와 생산수단의 통합방식이 중요한 문제로 나섰습니다. 당과 정부는 토지가 농민들의 사적소유로 되여있으며 농민들의 경제형편과 준비정도가 서로 다른 사정을 고려하여 작업을 공동으로 하는 고정적로력협조반과 토지를 통합하고 공동경리를 운영하되 로동과 토지에 의하여 분배를 하는 반사회주의적형태, 토지를 비롯한 기본생산수단을 통합하고 로동에 의하여서만 분배를 하는 완전한 사회주의형태와 같은 세가지형태를 규정하고 조합을 조직하는데서 구체적실정에 따라 그가운데서 어느 한 형태를 선택하도록 하였습니다. 조합원들의 부림소와 농기구 같은 생산수단을 통합할 때에도 기계적으로 하지 않고 그들의 희망에 따라 통합하든가 또는 일정한 시기까지 계속 사적소유로 남겨두면서 공동으로 리용하도록 하였으며 통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한 값을 치르도록 하였습니다. 농업협동경리의 이와 같은 세가지 형태와 생산수단의 통합방식은 중농들로 하여금 협동경리를 쉽게 받아들일수 있게 하였으며 협동화과정에서 나타날수 있는 이러저러한 폐단을 미리 막을수 있게 하였습니다.

우리는 농업협동화운동에서 자원성의 원칙을 엄격히 지키면서도 결코 이 운동을 자연발생성에 내맡기지 않았으며 농촌에서 사회주의제도의 발생과 공고발전을 위하여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의 지도방조를 강화하도록 하였습니다.

우리 당과 국가는 각이한 계층의 농민들을 협동경리에 끌어들이는데 있어서 빈농에 튼튼히 의거하면서 중농과의 동맹을 강화하고 부농은 수탈하고 청산한것이 아니라 우리 나라 실정에 맞게 그를 제한하고 점차적으로 개조하는 정확한 계급정책을 시종일관 견지하였습니다. 우리 당이 부농에 대하여 취한 방침은 사회주의혁명력량이 강대한 반면에 부농자체의 력량은 매우 미약하며 도시와 농촌에서 사회주의적개조가 매우 빨리 진행되고 부농의 착취대상과 지반이 없어져감에 따라 그들이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는 도저히 살아나갈수 없게 된 현실적조건을 과학적으로 타산한 정당한 조치였습니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이 모든 현명하고 창조적인 방침에 따라 우리 나라에서의 농업협동화는 시작한지 4~5년밖에 안되는 매우 짧은 기간에 승리적으로 완성되였습니다.(우뢰와 같은 박수)

농업협동화와 함께 도시수공업과 자본주의적상공업을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하는것은 사회주의혁명의 중요한 구성부분입니다.

거의 반세기에 걸치는 일제의 식민지통치로 말미암아 지난날 우리 나라 경제의 중요부문들은 일제자본이 독점하고있었고 우리 나라에서 민족자본의 발전은 매우 제한되여있었으며 민족자본가들의 경리는 보잘것 없었습니다. 해방후 일제와 예속자본가들의 소유였던 산업을 국유화한 결과 우리 나라 인민경제에서 사회주의적 국영경제가 지도적지위를 차지하게 됨으로써 원래 미약하였던 자본주의적상공업은 더우더 부차적인 역할밖에 할수 없게 되였습니다. 이러한 형편에서 우리는 자본주의적상공업자들을 점차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하는 방침을 취하였습니다. 전후시기에 자본주의적상공업자들의 사회주의적개조는 더욱 성숙된 요구로 나섰습니다. 전쟁으로 말미암아 자본주의적상공업은 수공업과 거의 다름없이 령세화되였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나라의 기업가, 상인들은 국가의 적극적인 방조에 의거하지 않고는 그리고 자기들의 로력과 자금을 한데 합치지 않고는 경리를 복구할수도 없었고 생활도 개선할수 없는 형편에 놓여있었습니다. 이러한 정세에서 우리는 자본주의적상공업자들을 수공업자들과 함께 여러가지 형태의 협동경리를 통하여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하였습니다. 기업가, 상인들은 생산협동조합에 망라됨으로써 남의 로력에 의하여 생활하던 지난날의 처지에서 완전히 벗어나 자신의 로동을 통하여 물질적부를 생산하는 사회주의적근로자로 개조되였습니다.

농업협동화가 완성된것과 함께 개인수공업과 자본주의적상공업이 사회주의적으로 개조된 결과 우리 나라의 도시와 농촌에서 사회주의적경리형태가 유일적으로 지배하게 되였습니다.(박수) 이것은 나라의 생산력을 빨리 발전시킬수 있는 넓은 길을 열어놓았으며 수천년동안 지속되여온 착취와 빈궁의 근원을 없애고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훨씬 높일수 있게 하였습니다.(우렁찬 박수)

5개년계획기간에 사회주의건설분야에서의 기본과업은 사회주의공업화의 기초를 닦고 자립적민족경제의 토대를 마련하는것이였습니다.

전후 3개년계획이 훌륭히 수행된 결과 우리 나라는 복구기로부터 기술적개건기에 들어서게 되였습니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5개년계획을 기술적개건의 첫 단계로 규정하고 이 기간에 사회주의적공업화의 기초를 닦음으로써 민족경제의 자립적토대를 더욱 튼튼히 하며 앞으로 우리 나라 인민경제의 모든 부문을 최신기술로 장비할수 있는 조건을 마련할 과업을 내세웠습니다.

사회주의경제건설분야에서 5개년계획의 과업은 생산을 매우 빠른 속도로 발전시킬것을 요구하였으나 우리에게는 자재도 자금도 모든것이 다 모자랐습니다. 더구나 이 시기에 공화국북반부를 반대하는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침략책동과 파괴

활동이 그 어느때보다도 격화되였으며 당안에서는 반당종파분자들이 우리 혁명을 배반하고 우리 당과 정부의 지도부를 전복하기 위한 음모활동을 감행하였습니다.

이러한 엄숙한 시기에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맑스-레닌주의의 혁명적기치를 높이 들고 우리 인민을 사회주의건설의 일대 고조에로 확신성있게 이끌었으며 높은 창조적열의와 정력을 발휘하여 모든 난관을 뚫고 천리마의 기세로 달려나아갈것을 모든 근로자들에게 호소하였습니다.(우렁찬 박수 오래 계속) 당에 끝없이 충실한 우리 나라의 모든 근로자들은 당중앙위원회를 견결히 지지옹호하여나섰으며 당의 혁명적호소에 호응하여 모자라는것은 찾아내고 없는것은 만들어내며 모든 낡은 기준과 공칭능력을 마사버리고 새 기준과 기적들을 창조함으로써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일대 혁신을 일으켰습니다.(우뢰와 같은 박수) 그리하여 사회주의건설은 매우 빠른 속도로 전진하게 되였으며 우리 인민은 방대한 5개년계획을 공업총생산액적으로는 2년반에, 현물지표별로는 4년동안에 넘쳐수행하는 기적을 창조하였습니다.(우렁찬 박수 오래 계속)

우리 나라의 천리마운동은 사회주의건설의 이러한 대고조속에서 발단되였습니다. 천리마운동은 우리 당 주위에 굳게 뭉친 우리 인민의 위대한 창조력의 발현이며 사회주의건설을 최대한으로 앞당기기 위한 전인민적운동입니다.(우렁찬 박수) 천리마운동은 경제문화건설에서의 집단적혁신과 근로자들을 교양개조하는 사업을 유기적으로 결합시킨 대중적운동으로서 사회주의건설에서 우리 당의 총로선으로 되였습니다.(우렁찬 박수)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천리마운동을 계속 심화발전시킴으로써 우리 근로자들의 정치적열성과 창조력을 높이 발양시키고 경제와 문화, 사상과 도덕의 모든 분야에서 커다란 혁신을 이룩하였습니다.(우렁찬 박수)

5개년계획이 성과적으로 수행된 결과 우리 나라 북반부에서 사회주의기초건설의 력사적과업은 승리적으로 실현되고 우리 나라는 자립적민족경제의 튼튼한 토대를 가진 사회주의적공업농업국가로 되였습니다.(우렁찬 박수 오래 계속)

우리 당 제4차대회는 5개년계획의 수행에서 이룩한 위대한 성과를 총화하고 사회주의건설을 더욱 전진시키기 위한 7개년계획의 전망과업을 내놓았습니다. 7개년계획의 기본과업은 승리한 사회주의제도에 의거하여 전면적기술개건과 문화혁명을 수행하며 인민생활을 획기적으로 높이는데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난날 산업혁명을 하지 못하였고 자본주의적발전단계를 정상적으로 거치지 못하였으며 낡은 사회로부터 뒤떨어진 생산력을 물려받은 우리 나라에서 기술혁명을 수행하는것은 특별히 중요한 의의를 가지였습니다.

새 사회 건설에서 빛나는 성과를 이룩한 우리 나라 모든 근로자들은 승리자의 드높은 긍지와 앞날에 대한 더 큰 희망을 가지고 새롭고 광활한 전망을 열어준 7

개년계획의 웅대한 강령을 실현하기 위하여 영웅적으로 투쟁하여왔습니다.(우렁찬 박수) 그러나 지난 몇해동안 미제국주의자들의 침략책동이 더욱 로골화되는데 따라 우리는 국방력을 강화하는데 추가적으로 더 큰 힘을 돌리지 않으면 안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우리 나라의 경제발전은 예견하였던것보다 일정하게 늦어지게 되였습니다. 경제발전에 일정한 영향을 주더라도 나라의 방위력을 철벽으로 다져야만 원쑤들의 침해로부터 사회주의전취물을 수호하고 사회주의건설을 위한 근로자들의 평화적로동도 믿음직하게 보위할수 있습니다. 정세의 변화에 따라 국방력을 더욱 강화하는것은 우리 나라의 혁명과 건설의 근본리익에 전적으로 부합되는것입니다. 이로부터 우리 당 대표자회는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새로운 혁명적로선을 내놓고 그 관철에로 전체 근로자들을 불러일으켰습니다.(우렁찬 박수)

우리의 영웅적로동계급을 비롯한 모든 근로자들은 당대표자회결정을 받들고 천리마의 기세, 일당백의 기세로 사회주의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힘찬 투쟁을 벌림으로써 세상사람들을 경탄케 하는 기적들을 련이어 창조하였습니다.(우렁찬 박수) 지금 공화국창건 스무돐을 맞이하고있는 우리 나라의 모든 공장, 기업소, 광산, 탄광, 철도, 항만들과 협동벌들에서는 혁명적대고조의 불길이 계속 세차게 타번지고있으며 7개년계획의 수행에서 결정적의의를 가지는 올해계획은 기간을 훨씬 앞당겨 완수될것이 예견되고있습니다.(우렁찬 박수) 우리는 올해에 석탄, 화학비료, 주요유색금속, 목재 생산을 비롯한 일련의 공업부문들에서 7개년계획의 고지들을 능히 점령할수 있다는 확신을 가질수 있습니다.(우렁찬 박수 오래 계속)

동지들!

공화국이 창건된후 오늘에 이르는 20년동안의 혁명과 건설을 위한 간고하고도 어려운 투쟁을 통하여 우리는 정치, 경제, 문화의 모든 방면에 걸쳐 위대한 성과를 거두었으며 나라의 위력은 비할바없이 장성강화되였습니다.(우렁찬 박수 오래 계속)

우리 공업은 류례없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였습니다. 1967년의 공업생산은 1948년에 비하여 22배로 높아졌습니다.(우렁찬 박수)

우리의 중공업은 새로운 기술로 장비되고있으며 국내의 자연부원에 의거하여 발전하고있습니다. 특히 기계제작공업이 빨리 발전하여 1967년에 그 생산액은 1948년에 비하여 100배로 높아졌으며 공업총생산액에서 기계공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948년의 7.4%에서 1967년에는 31.4%로 높아졌습니다.(박수) 오늘 우리의 기계제작공업은 여러가지 현대적기계설비들을 많이 생산하고있으며 기계설비들에 대한 국내수요를 거의 모두 자체로 충족시키고있습니다.(박수) 기계제작공업을 핵심으

로 하는 우리의 중공업은 나라의 경제적자립성을 공고히 하며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기술혁명을 힘있게 밀고나갈수 있는 튼튼한 기지로서 더욱 큰 위력을 나타내게 되였으며 경공업과 농촌경리의 발전에 더 잘 복무하게 되였습니다.

인민소비품생산기지도 튼튼히 꾸려졌습니다. 지금 우리 나라에서는 자체로 생산한 상품으로 인민들의 수요를 보장하고있으며 질좋은 여러가지 소비품을 앞으로 더 많이 생산할수 있는 튼튼한 기초를 마련하여놓았습니다.(박수) 우리가 경공업발전에서 거둔 이러한 성과는 대규모공장들과 함께 중소규모의 지방공장들을 병행하여 발전시킬데 대한 당의 현명한 방침을 정확히 관철한 결과입니다.(박수) 대체로 경공업은 온 나라의 이르는 곳마다에 널려있는 여러가지 원료를 가공하며 모든 지방 근로자들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켜야 합니다. 대규모중앙공업만 가지고는 이러한 생산을 합리적으로 조직할수 없습니다. 이로부터 우리는 중앙공업과 함께 지방원료들과 유휴로력들을 적극 동원하여 지방공업을 대대적으로 발전시켰으며 초기에는 인민소비품생산에서 현대적기술과 함께 수공업적기술도 널리 리용하였습니다. 이러한 방침은 국가투자를 얼마 하지 않고도 인민소비품생산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킬수 있게 하였습니다.(박수) 오늘 우리 나라의 지방공업은 전체 소비품생산의 절반을 차지하고있으며 전반적인민경제발전을 촉진시키는데서 커다란 역할을 하고있습니다.

우리는 농촌경리의 발전에서도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였습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지난해에 류례없는 큰물이 졌으나 알곡생산은 해방직후에 비하여 2.7배로 늘어났으며 공예작물, 남새, 과실, 축산물 생산도 빨리 높아졌습니다. 우리는 이미 식량을 자급자족할뿐만아니라 상당한 량의 예비를 가지게 되였으며 농촌경리의 모든 부문을 더욱 높은 수준에로 발전시킬수 있는 튼튼한 토대를 닦아놓았습니다.(우렁찬 박수)

공화국이 창건된 다음 교육문화사업도 비할바없이 발전하였습니다. 오늘 우리 나라의 각급 학교들에서는 인구의 4분의 1이나 되는 269만명의 학생들이 무료로 공부하고있습니다. 특히 우리는 전반적중등의무교육제를 거쳐 지난해부터 전반적 9년제기술의무교육을 실시하게 됨으로써 새세대들을 전면적으로 발전된 우리 혁명의 믿음직한 계승자로 키우며 모든 근로자들의 기술문화수준을 더욱 높일수 있게 되였습니다.(박수) 지금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는 정전직후에 비하여 19배나 되는 42만 5,700여명의 기사, 기수 및 전문가들이 일하고있으며 그들의 힘과 지혜와 노력에 의하여 현대적 공장, 기업소들이 훌륭히 건설되여 관리운영되고있습니다.(박수)

착취와 압박이 없어지고 경제와 문화가 빨리 발전하는데 따라 인민들의 물질

문화생활수준은 끊임없이 높아가고있습니다. 1967년에 인구 한사람당 국민소득은 1946년에 비하여 9배, 1949년에 비하여 4.4배로 높아졌습니다.(박수) 지금 우리 나라에는 일자리가 없어 떠돌아다니는 사람도 밥을 빌어먹는 사람도 없으며 모든 근로자들은 먹고 입고 쓰고 사는데 대해서도 아들딸들을 공부시키는데 대해서도 병을 치료하는데 대해서도 근심걱정을 하지 않게 되였으며 모든 사람들이 마음껏 일하고 배우면서 행복한 삶을 누릴수 있게 되였습니다.(우렁찬 박수 오래 계속)

사회주의경제건설이 강력히 추진되고 제국주의자들의 격화되는 침략책동에 대처하여 국방력을 더욱 튼튼히 할데 대한 당과 정부의 정확한 방침이 관철된 결과 나라의 군사적위력이 비할바없이 강화되였습니다.(우렁찬 박수) 오늘 우리 나라에는 전체 인민의 확고부동한 정치사상적통일과 튼튼한 자립적민족경제에 기초한 위력한 전인민적방위체계가 서있습니다. 이리하여 우리는 제국주의자들의 온갖 발악적책동을 성과적으로 물리치고 조국과 인민의 안전을 믿음직하게 보위할수 있게 되였습니다.(우렁찬 박수 오래 계속)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견결한 반제반미적립장과 자주적이고 원칙적인 대외정책에 의하여 우리 공화국의 국제적지위는 끊임없이 높아가고있습니다.(우렁찬 박수) 오늘 우리 나라는 형제적사회주의나라들을 비롯하여 아세아, 아프리카의 여러 신생독립국가들과 친선협조관계를 맺고있습니다. 세계의 많은 평화애호인민들과 우리 인민들과의 접촉과 교류도 날로 활발해지고있으며 그들과의 련계가 더욱 밀접해지고있습니다. 이리하여 우리는 세계의 가는 곳마다에 수많은 벗들을 가지게 되였으며 우리 혁명의 국제적련대성은 날을 따라 더욱더 강화되여가고있습니다. (우렁찬 박수)

동지들!

지난 20년동안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에서 이룩된 위대한 성과들에 의하여 그리고 우리 나라에서 일어난 커다란 사회경제적변혁으로 말미암아 인민정권은 더욱 강화되였으며 우리의 국가사회제도는 비상히 공고발전되였습니다.(박수) 오늘 우리의 국가는 도시와 농촌에서 유일적지배를 확립한 사회주의적생산관계와 튼튼한 자립적민족경제의 토대에 의거하고있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의 인민정권은 확고한 정치적지반을 가지게 되였습니다. 생산관계의 사회주의적개조가 끝남으로써 사회주의적토대우에서 로농동맹은 더욱 강화되였으며 이 동맹을 기초로 하여 전체 인민대중의 반석같은 정치사상적통일이 이

루어졌습니다.(우렁찬 박수 오래 계속) 로동계급과 협동농민, 근로인테리들이 사회주의경제체계에 망라되여 당과 혁명을 위하여,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자기자신의 행복을 위하여 다같이 일하며 서로 긴밀히 협조하는 동지적관계가 온 사회를 지배하고있으며 전체 인민이 당과 정부의 주위에 굳게 뭉쳐 우리 혁명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위하여 물불을 헤아리지 않고 투쟁하고있습니다.(우렁찬 박수)

혁명과 건설에서 인민정권이 자기의 기능과 역할을 끊임없이 높이기 위하여서는 변천된 새로운 환경에 맞게 그 사업체계와 사업방법을 계속 개편하며 완성하여야 합니다.

생산관계의 사회주의적개조가 완성되고 사회주의제도가 확립된 다음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성과적으로 건설하는가 못하는가 하는것은 끊임없이 발전하는 생산력에 사회주의적생산관계를 어떻게 적응시키고 완성시켜나가며 확립된 토대에 맞게 상부구조를 어떻게 완성하며 토대에 대한 상부구조의 작용을 어떻게 강화하는가 하는데 크게 달려있습니다. 우리 당과 정부는 맑스-레닌주의원리를 창조적으로 적용하고 우리 나라의 혁명과 건설의 실천적경험을 일반화하여 변천된 새환경에 맞게 국가 및 경제 기관들의 사업을 개편하며 그 일군들의 지도수준을 높이기 위한 일련의 중요한 조치들을 취함으로써 이 분야에서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박수)

특히 1960년 2월에 있은 청산리지도는 국가, 경제 기관들의 사업을 혁신하는 새로운 계기로 되였습니다.(우렁찬 박수) 청산리에 대한 사업경험을 일반화하는 과정을 통하여 국가, 경제 기관들의 사업에서는 근본적인 전환이 일어났습니다. 지도가 아래에 더욱 접근하게 되였으며 웃기관이 아래기관을 도와주며 일군들이 군중속에 깊이 들어가 그들을 교양개조하고 단결시키며 군중의 혁명적열의와 창의창발성을 발동하여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는 혁명적인 사업방법이 서게 되였습니다.

청산리지도가 있은 다음 우리는 인민경제에 대한 관리 및 지도 사업에서 청산리정신과 청산리방법을 더욱 철저히 관철할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업관리체계를 개편하며 새로운 농업지도체계를 내오는 획기적조치를 취하였습니다.(박수)

새로운 공업관리체계인 대안체계가 도입된 결과 경제기관, 기업소들이 모든 사업을 당위원회의 집체적지도밑에 진행하며 정치사업을 앞세우고 군중을 발동하

여 제기된 혁명과업을 수행하며 웃기관이 아래기관을 도와주고 웃사람이 아래사람을 도와주며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을 가르쳐주며 모든 사람이 동지적으로 협조하고 모든 직장, 모든 공장, 모든 부문들이 서로 밀접히 협력하여 협동생산을 발전시키며 객관적인 경제법칙들에 의거하여 경제를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운영할수 있게 되였습니다.(우렁찬 박수)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대안의 사업체계를 내오면서 경제관리에서 민주주의중앙집권제적규률을 강화하고 우리 경제를 더욱 계획적으로,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계획화에서 일원화와 세부화를 실현하도록 하였습니다.(박수) 계획의 일원화와 세부화가 도입됨으로써 국가기관들의 경제조직자적기능이 더욱 강화되였으며 계획화에서 국가계획기관들의 주관주의와 생산자들의 기관본위주의, 지방본위주의를 없애고 국가의 의도와 생산자들의 창의창발성을 잘 배합하여 참말로 현실적이고 과학적이고 동원적인 계획을 세울수 있게 되였습니다.(우렁찬 박수)

당과 정부는 농촌경리부문에서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를 기본으로 하는 새로운 농업지도체계를 내오고 여기에 농업기술자들과 농기계작업소, 관개관리소를 비롯한 농촌경리에 봉사하는 국가기업소들을 집중시켰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농업지도체계를 내옴으로써 농촌경리를 지난날과 같이 행정적방법으로가 아니라 기업적방법으로 지도할수 있게 되였으며 협동농장들에 대한 국가의 물질기술적방조를 더욱 효과적으로 실현하고 협동적소유에 대한 전인민적소유의 지도적역할을 결정적으로 강화할수 있게 하였습니다.(박수)

전문적인 새로운 농업지도체계를 내온것은 지방정권기관들의 사업도 근본적으로 강화할수 있게 하였습니다. 도, 시, 군 인민위원회들은 국토관리, 건설, 상업, 교육, 문화, 보건 사업들에 힘을 넣어 이 부문들의 사업을 더욱 추켜세울수 있게 되였습니다.

이리하여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각급 국가, 경제 기관들의 기능과 역할은 더욱 높아졌으며 정권기관일군들과 인민대중과의 혈연적련계가 더욱 강화되고 광범한 근로자들이 국가사업에 주인답게 참가할수 있게 되였습니다.(박수)

실로 지난 20년동안 우리 인민은 사랑하는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기치를 따라 용감하게 전진함으로써 우리 조상들이 수천년을 두고도 하지 못하였던 위대한 세기적변혁을 이룩하였습니다. 공화국의 20년은 영광의 20년이며 투쟁과 승리의 20년이며 창조와 전진의 20년입니다.(우뢰와 같은 박수 오래 계속)

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사회주의제도를 더욱 공고발전시킬데 대하여

동지들!

공화국의 기치밑에 조선인민이 지난 20년동안 나라의 륭성발전과 민족의 번영을 위한 투쟁에서 위대한 승리를 이룩한것은 오직 사회주의의 길을 따라 힘차게 전진하였으며 사회주의의 불패의 생활력에 확고히 의거하였기때문입니다. 우리의 승리는 자본주의제도에 비한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뚜렷이 보여줍니다. (우렁찬 박수)

사회주의제도는 인민대중이 정권을 잡고있으며 생산수단에 대한 사회적소유에 기초하여 인민들의 복리를 계통적으로 증진시킬 목적밑에 높은 과학기술적토대우에서 생산을 끊임없이 계획적으로 발전시키며 온갖 착취와 압박을 영원히 없애고 각자는 능력에 따라 일하며 각자에게는 로동의 질과 량에 따라 분배를 하는 가장 선진적인 사회제도입니다. (박수)

인민이 아무런 정치적권리와 자유를 가지고있지 못한 자본주의사회와는 달리 사회주의제도에서 인민대중은 정치, 경제, 문화의 모든 부문에서 참다운 민주주의적권리와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받고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전체 인민이 나라의 정치에 자유롭게 참가하고 자기의 혁명위업을 위하여 국가주권을 행사하며 자기의 능력과 소질에 따라 직업을 선택하고 마음껏 일하며 배우며 생활하고있습니다. (박수)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생산수단이 사적소유로 되여있고 생산의 목적이 자본가, 지주들이 더 많은 리윤을 짜내는데 있기때문에 생산자대중은 오직 자기의 목숨을 이어가기 위하여 마지못해 일하게 되며 생산과 기술의 발전에 대해서 그 어떠한 관심도 가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회주의사회에서는 생산수단이 사회적소유로 되여있으며 근로자들은 국가와 사회를 위하여, 자기자신을 위하여 일합니다. (박수) 이것은 인민대중의 무궁무진한 창조력과 재능을 발휘하게 하여 생산을 끊임없이 급속히 발전시키게 합니다. (박수) 사회주의사회에서는 인민경제 모든 부문과 모든 기업소들이 같은 목적과 리해관계에 기초하여 유기적으로 련결되여있음으로 하여

자본주의사회에서와 같은 생산의 무정부성과 과잉생산공황이 없어지고 인민경제가 계획적으로, 균형적으로 발전하며 나라의 모든 인적 및 물적 자원과 생산의 잠재력을 최대한으로 효과있게 동원리용할수 있습니다. (박수) 또한 사회주의제도에서는 착취자와 피착취자도 없으며 로동의 결과는 전적으로 근로자들의 복리증진에 돌려지고 생산이 빨리 높아짐에 따라 인민들의 생활은 계통적으로 높아집니다.

자본주의의 길은 착취와 억압, 예속과 몰락의 길이며 사회주의의 길은 계급적 착취와 민족적억압을 없애고 전체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보장하며 나라의 완전독립과 번영을 보장하는 길입니다. (박수)

남북조선의 상반되는 두 현실은 그 뚜렷한 실례의 하나로 됩니다. 공화국북반부에는 착취와 억압이 없는 가장 진보적인 사회주의제도가 서고 강력한 자립적민족경제의 토대가 닦아졌으며 북반부인민들은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누리고있는 반면에 남조선은 미제의 식민지로, 침략적군사기지로 전변되고 경제는 여지없이 파탄되였으며 인민들은 온갖 정치적자유와 초보적인 민주주의적권리마저 빼앗기고 테로와 폭압 밑에서 신음하고있으며 수천년래의 민생고에서 허덕이고있습니다.

력사적경험은 제국주의의 식민지적예속에서 벗어난 인민들이 반드시 사회주의길로 나가야 한다는것을 보여주고있습니다. 독립을 쟁취한 인민들은 외래제국주의와 국내반동세력들의 파괴책동을 물리치고 제국주의식민지통치기구를 짓부시며 제국주의와 국내반동들의 경제적지반을 박탈하고 소탕하며 혁명력량을 강화하고 진보적인 사회제도를 세우며 자립적민족경제와 민족문화를 건설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여야 할것입니다. 오직 이렇게 하여야만 자본주의가 불가피적으로 겪은 쓰라린 전통과 재난의 력사를 되풀이하지 않고 인민들의 자유와 행복과 민족적독립과 번영에로의 빠른 길을 따라 힘차게 나아갈수 있습니다. (박수)

자본주의는 이미 자기 시대를 다 살았으며 날을 따라 멸망의 길로 더욱더 줄달음치고있습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인류의 광명한 미래이며 모든 민족들이 사회주의, 공산주의에로 가는것은 움직일수 없는 력사발전의 법칙입니다. (박수)

우리는 앞으로도 추호의 동요없이 사회주의의 길을 따라 계속 확고히 전진할것입니다. (우렁찬 박수)

오늘 우리 인민앞에는 새 사회 건설에서 이룩한 빛나는 성과에 기초하여 혁명과 건설을 더욱 힘있게 추진시킴으로써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보장하여야 할 력사적과업이 나서고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나라의 북반부에 사회주의의 기초를 튼튼히 쌓아놓았습니다. 그

러나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자면 아직도 우리는 더 많은 일을 하여야 합니다. 사회주의의 기초가 건설된 다음에도 사회주의국가는 정치, 경제, 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혁명을 계속 철저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착취계급이 청산되고 생산관계의 사회주의적개조가 끝난 다음에도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에로의 과도기의 전기간에 걸쳐 계급투쟁은 계속됩니다. 물론 도시와 농촌에서 사회주의적개조가 완성되면 착취계급은 계급으로서 완전히 청산되며 그의 사회경제적지반도 더는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그 잔여분자들은 여전히 남아있으며 그들은 자기의 옛지위를 되찾으려는 망상을 버리지 않고 파괴활동을 끊임없이 감행합니다. 그러므로 사회주의제도가 승리한 다음에도 사회주의사회에는 적대적요소들이 오래동안 남아있게 됩니다. 이 적대요소들이 그 자체로서는 그리 큰것이 아니지만 외래제국주의자들의 리용물로, 그 앞잡이로 되고있기때문에 그것을 결코 소홀히 할수 없는것입니다. 제국주의자들은 사회주의국가를 반대하고 침략하는데서 직접적인 무력간섭을 하는 한편, 사회주의나라안에 남아있는 전복된 착취계급잔여분자들과 반동들을 긁어모아가지고 그들을 사촉하여 사회주의국가를 내부로부터 파괴하려고 꾀하고있습니다.

특히 우리 나라에서는 세계반동의 원흉인 미제국주의자들이 남조선에 둥지를 틀고 공화국북반부의 사회주의제도를 전복할 목적으로 남반부의 반동계급들과 북반부의 착취계급잔여분자들을 사촉하여 파괴암해활동과 사상적침투를 끊임없이 감행하고있습니다.

또한 사회주의제도가 선 다음에도 근로자들의 의식속에는 수천년동안 내려오던 착취사회에서 물려받은 낡은 사상잔재가 오래동안 남아있게 됩니다. 사회주의제도의 승리는 낡은 사상을 낳는 경제적기초를 청산하며 사람들을 새로운 사상으로 무장시킬수 있는 사회적 및 물질적 조건을 지어줍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사상의식발전이 사회의 물질적조건의 변화에 뒤떨어지는것만큼 사회주의제도가 승리한 다음에도 근로자들의 머리속에는 착취사회에서 물려받은 낡은 사상잔재들이 오래동안 남아있게 됩니다. 사회주의사회에는 또한 제국주의자들의 사상문화적침투로 말미암아 외부로부터 부르죠아적사상독소가 끊임없이 침습해들어옵니다.

이와 함께 전사회에 사회주의적생산관계의 유일적지배가 확립된 다음에도 도시와 농촌간의 차이, 로동계급과 농민간의 계급적차이가 오래동안 남아있게 되는것입니다. 도시에 비한 농촌의 락후성은 무엇보다도 농업이 공업보다 물질기술적토대가 약하며 농촌주민들의 문화수준이 도시주민들보다 낮으며 농민들이 로동자

들보다 사상의식이 뒤떨어져있는데서 나타나고있습니다. 이러한 락후성은 낡은 사회의 유물입니다. 바로 이러한 락후성으로 하여 전인민적소유가 지배하고있는 공업과는 달리 농촌경리에서는 협동경리가 지배적인 형태로 남아있게 되며 따라서 로동계급과 농민간의 계급적차이가 남아있게 되는것입니다.

생산력을 발전시키는 분야에서도 우리에게는 할 일이 많습니다. 우리는 지난 기간 선진적인 사회주의제도를 세워놓음으로써 생산력의 발전과 인민생활을 높이기 위한 광활한 길을 열어놓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공업화의 기초를 쌓아올리고 기술혁명의 첫걸음을 내디딘데 지나지 않으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에 상응하는 높은 생산력을 이룩하려면 아직도 멀었습니다. 인민생활면에서도 우리는 착취와 빈궁의 사회적근원을 없애고 생산을 빨리 발전시켜 우리 인민의 물질문화생활에서 가장 기본적인것은 해결해놓았으나 아직 그들의 생활을 매우 유족하고 문명한것으로는 만들지 못하였습니다.

적대계급의 준동이 있고 낡은 사상의 부식작용이 계속되며 도시와 농촌간의 차이,로동계급과 농민간의 계급적차이가 남아있으며 나라의 공업화가 완전히 실현되지 못하고 사회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가 튼튼히 마련되여있지 못한 사회는 아직 완전히 승리한 사회주의사회라고 말할수 없습니다.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보장하며 로동계급의 력사적위업을 완수하기 위하여 사회주의국가는 계급투쟁의 무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무기로서의 자기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여야 합니다. (박수)다시 말하여 사회주의국가는 프로레타리아독재를 강화하여 한편으로는 계급투쟁을 계속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주의 경제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가야 할것입니다.

사회주의국가는 적대분자들에 대한 독재와 사상혁명, 경제사업을 다같이 잘해나가야만 사회주의, 공산주의에로 가는 길에서 반드시 점령하여야 할 두 요새인 사상적요새와 물질적요새를 점령하여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보장할수 있습니다. 이 과업들가운데서 어느 하나라도 소홀히 하거나 놓쳐버려도 그것은 사회주의건설의 전반적행정에 커다란 난관을 조성하며 돌이킬수 없는 엄중한 손실을 가져다주게 될것입니다.

만일 사회주의국가가 프로레타리아독재, 사상혁명을 조금이라도 소홀히 하고 계급투쟁을 약화시킨다면 승리한 사회주의제도를 공고발전시킬수 없을뿐만아니라 내외원쑤들의 침해로부터 사회주의제도를 지켜낼수도 없습니다. 사회주의의 본질적우월성, 사회주의의 위대한 생활력은 무엇보다도 착취와 억압에서 해방된 근로

자들이 공동의 목적과 리익을 위하여 서로 굳게 단결하며 동지적으로 긴밀히 협조하며 창의창발성과 자각적열성을 내여 일한다는데 있습니다. 경험은 계급투쟁을 강화하여 근로자들의 계급적각성과 사상의식수준을 높이지 않고서는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나타낼수 없으며 근로자들이 안일과 해이에 사로잡혀 경제건설과 기술혁명 과업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없다는것을 보여주고있습니다.

반대로 계급투쟁과 사상혁명만을 강조하면서 사회주의경제건설을 차요시하는 것도 잘못입니다. 사상혁명은 사회주의국가가 반드시 수행하여야 할 중요한 혁명과업이기는 하지만 그자체에 목적이 있는것이 아닙니다. 사상혁명은 근로자들의 의식속에 남아있는 낡은 사상을 뿌리빼고 그들의 자각적열성과 창의창발성을 불러일으켜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성과적으로 건설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은 인민의 자유와 해방을 위하여 투쟁할뿐만아니라 인민의 행복한 생활을 위하여 투쟁합니다. 낡은 제도를 뒤집어엎고 인민들을 착취와 억압에서 해방한 다음에 공산주의자들앞에 나서는 중요한 임무는 사회주의경제건설을 잘하는것입니다. 인민의 복리증진에 대한 배려, 이것은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 활동의 최고원칙입니다. 우리가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목적도 결국은 모든 인민의 물질문화적수요를 원만히 충족시키며 그들의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보장하려는데 있습니다. 경제건설을 잘하여야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에 상응한 생산력의 높은 발전수준을 이룩할수 있으며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인민생활을 결정적으로 높일수 있습니다. 또한 경제건설을 힘있게 추진시켜 사회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쌓아야만 나라의 정치적독립과 자주성을 확고히 보장할수 있으며 국방력도 강화할수 있습니다.

사상혁명만 강조하고 기술혁명을 소홀히 한다면 근로자들을 고된 로동에서 해방하는 혁명과업을 완수할수 없으며 사상혁명자체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없습니다. 사람들의 사상의식은 사회생활의 물질적조건에 의하여 규정되며 따라서 사회주의사회에서도 그것은 기술을 발전시키고 인민들의 생활수준을 높이는데 기초하여 개변되는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나타날수 있는 온갖 좌우경적편향을 경계하면서 프로레타리아독재와 계급투쟁을 계속 강화하고 경제건설도 잘하여야 하며 사상혁명을 확고히 앞세우고 여기에 병행하여 기술혁명도 힘있게 밀고나가야 합니다. (박수) 이렇게 하여야만 사람들의 사상도 개조하고 사회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도 튼튼히 쌓아올려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할수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계급적원쑤들에 대한 독재를 강화하며 사상혁명을 철저히 수행하여 전사회를 혁명화, 로동계급화하여야 하겠습니다. (박수)

프로레타리아독재의 력사적사명은 착취계급을 청산하고 그 반항을 진압하는 한편, 모든 근로자들을 교양개조하여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며 온갖 계급적차이를 점차적으로 없애며 공산주의를 건설하는데 있습니다. 우리는 당의 계급로선과 군중로선을 옳게 결합시켜 한줌도 못되는 적대분자들을 고립시키고 진압하는것과 함께 광범한 대중을 교양개조하여 당 주위에 더욱 굳게 묶어세워야 합니다.

다 아는바와 같이 프로레타리아독재는 소수적대분자들에 대해서는 진압하고 로동계급과 농민을 비롯한 절대다수의 근로인민들에게는 민주주의를 실시합니다. 프로레타리아독재의 이 두 측면을 옳게 결합하여나간다는것은 절대다수의 인민대중을 교양개조하여 단결시키는 사업과 극소수의 적대분자들의 음모책동을 반대하는 계급투쟁을 옳게 결합시켜나간다는것을 의미합니다. 사회주의사회에서는 로동계급과 농민, 근로인테리의 단결과 협조가 사회관계의 기본으로 된다는것을 잊어버리고 계급투쟁을 일면적으로 강조하며 그것을 과장한다면 좌경적오유를 범하게 될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사람들을 믿지 못하게 되고 애매한 사람을 적대분자와 같이 취급할수 있으며 당과 대중을 리탈시키고 사회에 불안한 분위기를 조성할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회주의사회에서도 적대적요소가 있고 낡은 사상잔재가 남아있으며 계급투쟁이 계속된다는것을 무시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이른바 《민주주의》를 실시하고 《자유》를 준다면 그것은 엄중한 우경적오유를 범하는것으로 될것입니다. 정치적개념으로서의 민주주의는 반드시 계급적성격을 띠고있습니다. 온갖 착취자들의 독재는 피착취근로대중에 대한 독재이고 그들의 민주주의는 오직 소수 착취자들을 위한 민주주의이며 반대로 프로레타리아독재는 착취계급에 대한 독재이고 광범한 인민대중에 대한 민주주의입니다. 인류력사에서 계급을 떠난 국가가 없었던것과 마찬가지로 계급성을 떠난 민주주의도 없었으며 또 있을수도 없습니다. (박수) 어떤 국가에서나 민주주의는 주권을 잡은 계급을 위한 민주주의이며 적대되는 계급에 대한 독재가 그와 결합되여있습니다. 전복된 착취계급잔여분자들이 준동하고 계급투쟁이 계속되고있는 조건에서 모든 사람을 위한 《순수한 민주주의》, 《완전한 자유》란 있을수 없습니다. 부르죠아민주주의는 억만장자들에게 근로자들을 마음대로 착취하고 략탈하여 치부하며 그들을 억압할 자유를 주지만 근로대중에게는 헐벗고 굶어죽을 자유밖에 주지 않습니다. 사회주의사회에서 민주주의의 계급적성

격을 부인하고 프로레타리아독재하에서 모든 사람이 다 접수할수 있는 이른바 《순수한 민주주의》, 《완전한 자유》를 주장한다면 그것은 사실에 있어서 인민들에게 부르죠아적민주주의와 노예적자유를 강요하는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우리는 민주주의에 대한 추상적이며 초계급적리해를 반대합니다. (박수)

지금 서방제국주의자들과 혁명의 배신자들은 일부 사회주의나라들에서 벌어지고있는 이른바 《민주주의적발전》과 《자유화》소동에 대하여 사회주의사회발전의 《합법칙적과정》이라느니, 《서방세계에 희망을 안겨주는 동구라파에서의 새로운 바람》이라느니, 《가일층의 민주주의를 위한 심각한 개조과정》이라느니 하면서 환성을 올리고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사회주의나라들에서 사회주의전취물을 좀먹고 자본주의복구의 길을 열어놓으려는 제국주의자들과 혁명의 배신자들의 어리석은 책동입니다. 우리는 사회주의나라들을 내부로부터 파괴하려는 제국주의자들의 음모책동에 대하여 경각성을 높여야 합니다.

사회주의국가인민들이 진정으로 자유와 민주주의를 향유하려면 프로레타리아독재를 강화하여야 합니다. (박수) 프로레타리아민주주의는 착취계급을 영원히 청산하고 로동계급을 비롯한 근로인민들의 참다운 정치적자유와 권리를 전면적으로 보장할뿐만아니라 행복한 물질문화생활을 보장하여주며 그들사이의 동지적 협조와 방조를 백방으로 강화하는것을 내용으로 하는것입니다. 프로레타리아민주주의보다 더 나은 그 어떠한 민주주의도 있을수 없습니다. (박수) 만일 프로레타리아민주주의보다 더 높은 어떤 민주주의가 있다면 그것은 벌써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로동계급과 농민의 계급적차이가 없어지기도전에 또한 낡은 사회의 사상잔재가 청산되기도 전에, 특히는 사회주의를 반대하는 내외의 원쑤들의 침략책동과 파괴책동이 계속 격화되고있는 때에 프로레타리아독재가 필요없게 되였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잘못입니다. 부르죠아민주주의와 프로레타리아민주주의와의 계급선을 모호하게 하고 민주주의의 계급적성격을 부인하면서 원칙적인 계급투쟁을 회피하는 경우에는 적대적요소에 대한 경각성이 무디게 되고 당과 로동계급의 령도적역할이 마비되며 사회생활에서 부르죠아저의 부식적작용이 강화될수 있습니다.

결국 좌경적편향이나 우경적편향은 다같이 적아를 똑똑히 가려볼수 없게 하며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건설에 커다란 손실을 끼치게 됩니다. 국가활동에서 온갖 좌우경적편향을 다 반대하면서 독재와 민주주의, 계급투쟁과 인민대중의 통일단결을 강화하는 사업을 옳게 결합하여나가는것은 우리 당이 견지하고있는 일관한 방침입니다. (우렁찬 박수)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공화국정권의 프로레타리아독재의 기능을 강화하여 우

리의 사회주의제도에 대한 내외원쑤들의 온갖 음모책동을 성과적으로 물리쳐야 할것입니다. (우렁찬 박수) 우리는 아직도 옛처지를 되찾으려는 꿈을 버리지 않고있는 전복된 지주, 자본가 계급잔여분자들에 대해서는 엄격한 제재를 가하며 내부의 적대분자들과 결탁하여 우리의 사회제도를 공격하려는 제국주의자들의 반혁명적기도에 대해서도 제때에 단호한 반격을 가하여 철저히 소탕해버려야 할것입니다.(박수) 그리하여 우리 혁명의 전취물을 굳건히 보위하고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믿음직하게 담보하여야 할것입니다. (박수)

우리는 적대분자들을 진압하는 동시에 사회의 모든 계층들에 대한 로동계급의 령도적역할을 강화하며 사상혁명을 철저히 수행하여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여야 합니다.

적대분자들에 대한 진압은 프로레타리아독재국가의 기본기능이며 사회주의국가가 끝까지 수행하여야 할 계급투쟁의 형식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프로레타리아독재기능의 전부가 아니며 계급투쟁의 전반적형식을 다 포함하는것도 아닙니다. 사회주의사회에는 적대분자들을 진압하는 계급투쟁과 함께 근로자들속에 남아있는 낡은 사상을 뿌리뽑고 그들을 다 공산주의사상으로 무장시키기 위한 사상혁명을 중요내용으로 하는 계급투쟁의 기본형식이 있는것입니다. 사회주의제도가 승리한 다음에도 계급투쟁은 계속되지만 그 내용과 형식은 좀 달라져야 할것입니다.

물론 사회주의사회에서 근로자들의 의식속에 남아있는 낡은 사상잔재를 반대하는 투쟁이 로동계급의 사상과 부르조아사상간의 투쟁이라는 의미에서 계급투쟁이기는 하지만 그것은 종래의 계급투쟁과는 완전히 구별되는것입니다. 사회주의혁명을 할 때의 계급투쟁은 주로 착취자들을 계급으로서 완전히 청산하기 위한 투쟁이였다면 사회주의제도가 선 다음에 진행하는 계급투쟁은 사람들을 청산하기 위한것이 아니라 주로 사람들의 사상을 개조하기 위한 사상투쟁입니다. 사회주의사회에서 사상혁명은 공동의 리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손잡고나가는 근로자들 내부의 문제로서 모든 근로자들을 교양개조하여 공산주의자로 만드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상혁명은 적대분자들과의 투쟁처럼 폭력적방법으로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설복과 교양의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하며 근로자들의 통일과 단결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되여야 합니다.

사회주의사회에서 사상혁명의 중요대상은 근로자들속에 남아있는 낡은 봉건적, 부르조아적, 소부르조아적 사상 잔재이며 외부에서 침습해들어오는 반동적자본주의 사상독소입니다. 사회주의국가는 사상혁명을 힘있게 벌려 근로자들속에 남아있는

낡은 사상잔재를 남김없이 뿌리빼야 하며 외부에서 들어오는 부르죠아적사상독소를 철저히 막아내야 합니다. (박수) 특히 나라가 분렬되여있고 세계반동의 원흉인 미제국주의자들과 직접 맞서고있는 우리의 형편에서는 적들의 파괴암해책동과 사상적침투를 반대하는 투쟁이 더욱 중요하게 나서며 우리는 여기에 언제나 깊은 주의를 돌려야 합니다. 우리는 로동계급의 령도적역할을 끊임없이 높이는것과 함께 당정책교양과 혁명전통교양, 계급교양을 기본으로 하는 공산주의교양과 사회주의적애국주의교양사업을 꾸준히 진행하여 모든 근로자들을 혁명화하고 로동계급화하여야 하겠습니다.

농촌문제를 종국적으로 해결하고 협동적소유를 전인민적소유의 수준에까지 끌어올리는것은 사회주의제도가 승리한 다음 프로레타리아독재국가앞에 나서는 가장 중요한 과업의 하나이며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위한 근본조건의 하나입니다. 사회주의국가는 농촌문제를 종국적으로 해결하여 농촌의 락후성을 완전히 없애야만 외부로부터 침습하여오는 반동적부르죠아독소와 전복된 착취계급잔여분자들이 발붙이고 준동할수 있는 근거지와 지반을 완전히 없앨수 있습니다. 그리고 협동적소유를 전인민적소유의 수준에로 높여야만 농업생산력을 높이 발전시킬수 있으며 농민들속에 남아있는 리기주의적요소들을 뿌리빼고 모든 근로자들을 전사회와 전체 인민을 위하여 높은 자각적열성을 내여 일하게 하는 집단주의의 길로 확고하게 이끌수 있습니다. 우리 당은 농촌사업에서 이룩한 성과와 경험을 일반화하여 사회주의사회에서의 농촌문제해결의 기본원칙과 구체적방도를 이미 내놓았습니다. 우리는 당이 내놓은 명확한 방침에 따라 농촌에서 기술혁명, 문화혁명, 사상혁명을 힘있게 추진시켜 현대적공업에 비한 농촌경리의 기술적락후성, 선진적인 도시에 비한 농촌의 문화적락후성, 가장 혁명적계급인 로동계급에 비한 농민의 사상적락후성을 없애며 농촌에 대한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의 지도방조를 계속 강화하며 전인민적소유와 협동적소유의 발전을 유기적으로 결합시키면서 협동적소유를 전인민적소유에로 끊임없이 접근시키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박수)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온갖 계급적차이를 없애며 협동적소유를 전인민적소유의 수준에로 끌어올리는것과 함께 사회주의경제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가야 합니다. (박수) 사회주의경제건설분야에서의 우리의 과업은 나라의 공업화와 기술혁명과 문화혁명을 철저히 수행하여 사회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쌓고 모든 근로자들이 현대적기계를 능숙하게 다룰수 있는 지식과 기능을 소유하도록 하는것입니다.

우리는 공업을 계속 빨리 발전시키며 농촌경리를 포함한 인민경제 모든 부문을 현대적기술로 장비함으로써 우리 나라에 현대적공업과 발전된 농촌경리를 건설하며 모든 사람들을 전면적으로 발전된 유능한 공산주의건설자로 키워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착취에서 해방된 우리 인민을 고된 로동에서 해방하며 공업로동과 농업로동, 중로동과 경로동, 육체로동과 정신로동간의 차이를 점차 없애고 일은 헐하게 하면서도 더 많은 물질적부를 생산할수 있게 하여야 하겠습니다. (박수) 공업과 농업 생산을 빨리 발전시키는 기초우에서 우리는 모든 근로자들의 물질문화생활수준을 적어도 지난날의 중산계층의 생활수준이상으로 끌어올려야 합니다. 그리하여 전체 인민들이 다 사회주의제도의 참다운 우월성을 실생활을 통하여 더 잘 느끼도록 하며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사회주의제도를 공고발전시키기 위하여 몸바쳐싸우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여야 사회주의는 완전히 승리하였다고 말할수 있습니다. (박수)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기 위하여 우리앞에 당면하게 나서는 중요한 과업은 당대표자회결정과 공화국정부의 10대정강에서 제시된 방침에 따라 사상혁명을 확고히 앞세워 전사회의 로동계급화, 혁명화를 힘있게 밀고나가면서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의 병진로선을 철저히 관철하여나가는것입니다.

당대표자회결정을 관철하기 위하여 무엇보다도 중요한것은 올해 인민경제계획을 빨리 넘쳐 끝내고 명년에 우리 나라 사회주의건설에서 결정적의의를 가지는 7개년계획의 중요고지들을 점령하기 위한 생산준비를 철저히 갖추는것입니다.

우리는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생산을 정상화하기 위한 선결조건인 전력공업과 채취공업을 확고히 앞세우는데 선차적인 관심을 돌려야 하겠습니다.

전력공업부문에서는 지금 있는 발전소들의 설비와 시설들을 철저히 정비하여 그 능력을 최대한으로 높이며 대규모발전소들의 건설을 적극 추진시켜 동력기지를 더욱 강화하여야 하겠습니다. 특히 지금 있는 화력발전소들을 더 잘 관리운영하며 새로운 화력발전소건설을 다그쳐 전력생산에서의 파동성을 없애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공업과 운수를 비롯한 인민경제 모든 부문의 전력수요를 더욱 원만히 충족시키며 농촌전기화를 1970년안으로 완전히 끝내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석탄공업부문에서는 7개년계획의 고지를 올해에 점령한다고 하여 자만하지 말고 석탄생산을 더욱 높이기 위한 투쟁을 계속 힘차게 벌려야 하겠습니다. 지질탐사사업과 굴진을 결정적으로 앞세워 채탄장을 너너히 마련하며 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려 작업을 적극 기계화, 자동화하고 로천채굴을 비롯한 선진채굴방법을 널

리 받아물어 석탄생산에서 계속 혁신을 일으킴으로써 급격히 늘어나는 인민경제의 석탄수요를 원만히 보장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지금 있는 광산들을 확장하면서 전망이 큰 유색금속광산들의 개발을 다그치며 지금 하고있는 신광장건설을 빨리 끝내고 모든 광산설비들을 원만히 대주어 광물생산을 더욱 높이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기계공업과 기본건설을 비롯한 인민경제의 여러 부문에 철강재를 대주는 흑색금속공업에서 생산을 정상화하는것은 전반적인민경제발전을 위하여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 흑색금속공업부문에서는 제철공업의 자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과학연구사업을 더욱 정력적으로 진행하며 우리 나라 무연탄을 가지고 철을 생산할수 있는 철생산기지를 꾸리는 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가면서 선철, 강철, 강재 생산을 원만히 보장할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앞으로 대대적으로 진행하게 될 대자연개조사업을 성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기계공업, 특히 대형기계생산을 더욱 발전시켜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대형굴착기, 대형자동차, 대형뜨락또르, 대형선박, 대형공작기계를 생산할 대형설비생산기지들을 더욱 확대강화하여야 할것입니다.

다음해에 하게 될 방대한 건설을 원만히 보장하기 위하여 건재공업, 특히 세멘트생산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키는데 큰 힘을 넣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나라에서 교통운수, 특히 철도는 매우 긴장성을 띠고있으며 그것을 푸는것은 다음해 생산을 원만히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조건의 하나입니다. 철도의 긴장성을 풀기 위하여 철도전기화를 힘있게 밀고나가며 륜전기재의 생산과 수리능력을 강화하며 구내선을 더 늘이고 짐을 싣고부리는 작업을 기계화하여 륜전기재의 리용률을 백방으로 높이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농촌경리부문에서는 당면한 가을걷이를 빨리 끝내고 다음해에 알곡생산을 더욱 높이며 축산업을 발전시키는데 모든 힘을 넣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농촌경리의 물질기술적토대를 강화하기 위하여 기계화, 화학화 비중을 계속 높여야 하며 앞으로 국토건설을 대대적으로 진행할 준비사업을 적극 추진시켜야 하겠습니다.

이리하여 다음해 계획을 어김없이 수행함으로써 사회주의건설의 웅대한 강령인 7개년계획의 모든 중요고지들을 점령하여야 할것입니다. (우렁찬 박수)

7개년계획의 수행은 공화국의 사회주의제도를 공고발전시키며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위한 투쟁에서 커다란 전진을 이룩하는 획기적사변으로 될것입니다.

(우렁찬 박수) 7개년계획이 수행되면 우리의 공업은 부문구조가 더욱 완비되고 튼튼한 원료기지를 가진 그리고 새로운 기술로 장비된 자립적체계가 확고히 선 공업으로 될것이며 인민경제의 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 요구되는 질좋은 여러가지 생산수단과 소비품을 더 많이 생산하게 될것입니다. 농촌경리의 물질기술적토대가 강화되고 선진농업과학의 성과들이 널리 도입되어 알곡생산을 비롯한 농업생산의 모든 부문들이 빨리 발전하게 될것이며 농민들의 힘든 로동은 훨씬 덜어질것입니다. 우리의 도시와 농촌은 보다 더 아름답게 꾸며질것이며 우리 인민의 생활은 더욱 넉넉하고 문화적인것으로 될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나라는 공업농업국가로부터 발전된 사회주의공업국가로 될것입니다. (우렁찬 박수)

전체 근로자들은 앙양된 혁명적기세를 조금도 늦추지 말고 더 혁명적으로 일하며 이미 마련된 경제토대와 생산의 모든 잠재력을 최대한으로 효과있게 리용하여 생산과 건설을 다그침으로써 7개년계획의 수행을 더욱 앞당기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렁찬 박수 오래 계속)

동지들!

사회주의의 종국적승리를 이룩하기 위하여서는 사회주의나라들의 계급적동맹과 사회주의진영의 통일단결을 강화하며 그 위력을 불패의것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국제자본주의의 포위속에서 프로레타리아트가 주권을 잡은 개별적나라들은 전세계적규모에서 공산주의가 실현될 때까지 제국주의의 침략과 자본주의복구의 위험을 면할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권을 잡은 매개 나라의 프로레타리아트가 혁명의 종국적승리를 이룩하자면 자체의 주체적혁명력량을 백방으로 강화하는것과 함께 세계사회주의혁명의 다른 부대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야 하며 만국의 로동계급과 전세계피압박인민들과의 참다운 국제주의적련대성을 강화하여야 합니다. (박수)

여기에서 사회주의진영의 형성과 그 확대발전은 커다란 의의를 가지고있습니다. 로동계급의 력사적사명은 전세계적범위에서 온갖 착취제도를 청산하고 인류의 최고리상인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는데 있습니다. 세계혁명의 종국적승리는 여러 나라들에서 사회주의혁명이 일어나 완전히 승리하고 점차 사회주의진영이 확대강화발전되는 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지는것입니다. 사회주의진영은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종국적승리를 위한 국제로동계급의 불패의 혁명기지이며 전세계피압박인민들과 모든 진보적인민들의 승리의 믿음직한 보루이며 세계평화의 위력한 성새입니다. (박수)

바로 그렇기때문에 미제를 괴수로 하는 제국주의자들과 온갖 반동들은 사회주의진영 존재자체를 무엇보다도 두려워하며 그것을 파괴하기 위하여 필사적으로 발악하고있습니다. 그들은 반제반미투쟁의 기치를 높이 들고 혁명적으로 나가는 나라들은 무력으로 각개격파하며 인민들속에서 제국주의에 대한 환상을 퍼뜨리고 제국주의와의 무원칙한 타협만 주장하면서 혁명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려는 나라들에 대해서는 사상문화적침투를 강화하여 이 나라들을 내부로부터 와해하려고 책동하고있습니다.

이런 조건에서 사회주의나라들은 단합된 힘으로 세계제국주의련합세력의 침략과 파괴음모책동을 꺾어버리고 사회주의진영을 공동으로 보위하여야 하며 그러자면 사회주의진영이 하나로 굳게 통일되여있어야 합니다. (박수)

사회주의진영의 통일단결은 제국주의의 침략으로부터 매개 사회주의국가들을 믿음직하게 보위하며 사회주의진영의 전반적범위에서 사회주의혁명의 종국적승리를 보장하는 중요한 담보입니다. (박수)

사회주의진영의 존재와 그 단결된 힘은 비단 사회주의나라 인민들뿐만아니라 전체 인류의 운명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되고있으며 현시기 세계혁명의 모든 문제의 해결이 바로 사회주의나라들의 단합된 노력에 중요하게 달려있습니다. (박수)

오직 사회주의진영의 확고부동한 통일과 그 위력을 끊임없이 강화하여야만 우리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성과적으로 촉진시킬수 있으며 식민지예속국가인민들과 신생독립국가인민들의 반제민족해방투쟁과 자본주의나라 로동계급의 혁명투쟁을 힘있게 지지하고 고무할수 있습니다.(박수)

단결은 로동계급의 가장 위력한 무기입니다. (박수) 로동계급은 그가 력사무대에 등장한 첫날부터 국제자본을 반대하는 투쟁에서 언제나 단결을 가장 귀중한 무기로 삼아왔으며 단결의 힘에 의하여 어려운 투쟁에서 승리하였습니다. 오늘도 국제적으로 련합된 자본주의철쇄를 끊어버리는 세계혁명운동의 승리는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원칙에 의거한 국제공산주의운동의 단합된 력량에 의해서만 이룩될수 있으며 무엇보다도 먼저 그 중심에 있는 사회주의진영의 통일을 강화하여야만 확고히 보장될수 있습니다. (박수)

사회주의나라들은 단결할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가지고있습니다. 사회주의나라들에서는 주권이 로동계급의 손에 쥐여져있고 생산수단에 대한 사회적소유가 확립되여 사람에 의한 사람의 착취와 억압이 청산되였으며 이 나라들에서 혁명과 건설

의 지도적사상은 맑스-레닌주의입니다. 사회주의나라들은 다같이 제국주의와 식민주의를 반대하며 자유롭고 행복한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공통된 목적을 이룩하기 위하여 투쟁하고있습니다. 사회주의진영은 인위적으로 만들어낸것도 아니며 그 어떤 국제적조약에 의하여 이루어진것도 아니며 일시적인 동맹도 아닙니다. 그것은 국제자본을 반대하는 혁명투쟁과정에서 승리한 국제로동계급이 계급적련대성의 필연적요구에 의하여 하나의 항구적인 동맹체로 결합됨으로써 이루어진것입니다.

모든 사회주의나라들이 계급적립장을 확고히 견지하고 혁명의 근본리익에서 출발한다면 사회주의나라들의 통일단결은 끊임없이 강화될것입니다. (박수)

형제당, 형제나라들 사이에 의견상이가 발생할수 있습니다. 의견상이는 형제당, 형제나라들이 활동하는 력사적 및 지리적 조건과 민족적임무가 서로 다른데로부터 발생할수도 있으며 또한 맑스-레닌주의원리를 옳게 인식하지 못하고 철저한 혁명적립장을 가지지 못한데로부터 생길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의견상이는 서로 다른 국가사회제도간의 모순을 반영하는것도 아니며 서로 적대되는 계급들간의 근본적으로 다른 리해관계를 반영하는것도 아닙니다. 사회주의나라들사이의 의견상이가 아무리 심각하다 하더라도 그것은 사회주의진영과 국제공산주의운동내부의 문제이며 그것은 어디까지나 계급적형제들의 단결의 념원에서 출발하여 사상투쟁의 방법으로 해결하여야 할 문제입니다. 사상상 의견상이로 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 공동위업을 위한 투쟁에서 생사고락을 같이 하여야 할 계급적전우들인 형제당, 형제국가들이 서로 반목질시하거나 적대시하여서는 결코 안될것입니다. 공산주의자들은 언제나 계급적형제들과 계급적원쑤들을 가릴줄 알아야 하며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결코 계급적립장을 떠나서는 안됩니다. 계급적련대성의 원칙을 떠난다면 국제공산주의운동이란 있을수 없으며 사회주의진영이란 생각할수 없습니다. 형제나라들사이에 서로 반목하고 질시하고 적대시한다면 그것을 기뻐할것은 오직 제국주의자들뿐이며 손해볼것은 국제공산주의운동입니다.

공산주의자들은 사회주의진영의 존망과 세계혁명의 운명과 관련되는 이 엄중한 사태를 그저 보고만 있을수 없습니다. 분렬은 저지되여야 하며 통일은 수호되고 강화되여야 합니다. (박수)

형제당, 형제나라들이 진실로 단결하려면 완전한 평등, 자주성, 호상존중, 내정불간섭 및 동지적협조를 기본내용으로 하는 형제당 및 형제나라들 사이의 호상관계의 규범을 엄격히 지켜야 합니다. (박수)형제당들과 사회주의국가들이 이 호상

관계의 규범을 엄격히 지킬 때에 사회주의진영의 통일과 국제공산주의운동의 단결은 참말로 자각적이며 공고한것으로 될것입니다. 이러한 규범들이 위반되면 형제당들과 형제나라들 사이에는 복잡한 문제들이 벌어지게 되며 사회주의진영의 단결을 해치게 됩니다.

사회주의나라들과 공산당 및 로동당들은 완전히 평등하고 자주적입니다. 그들은 모두다 로동계급의 계급적련대성에 의하여 국제혁명대오의 동등하고 독자적인 민족부대로서 자기 나라 혁명에 대하여 자기 나라인민들 앞에 책임질뿐아니라 세계혁명에 대하여 세계인민앞에 책임집니다. 공산주의운동대렬내에서는 그 누구도 특권적지위를 요구할수 없으며 사회주의나라들사이에는 상급과 하급의 관계란 있을수 없습니다. 사회주의나라들의 계급적단결을 강화하기 위하여서는 모든 형제나라들이 평등한 립장에서 서로 존중하고 진심으로 도와주어야 합니다. (박수)

이와 함께 외부의 압력에 눌리여 독자성을 잃고 다른 당, 다른 나라에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일도 있어서는 안될것입니다. 자기의 주체성이 없이 남을 맹목적으로 따라가는것은 사회주의진영의 단결을 강화하는것도 아니며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에 충실한것도 아닙니다. 반대로 이렇게 하는것은 자기 나라의 혁명과 건설에 엄중한 손실을 가져오게 하며 따라서 국제혁명력량도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할것입니다. 공산당 및 로동당들과 사회주의나라들은 자기 활동에서 독자성과 자주성을 견지하여야만 자기 나라의 특성에 맞는 정확한 정책을 세울수 있으며 혁명위업과 건설사업을 성과적으로 촉진시킬수 있습니다. (박수) 공산주의자들은 혁명과 건설을 령도함에 있어서 결코 맑스-레닌주의보편적진리로부터 물러서도 안되며 또한 민족적특성을 무시하고 형제나라들의 경험을 교조적으로 본따서도 안됩니다.

사회주의나라들은 정치에서 자주성을 강화하는것과 함께 자기 힘을 믿고 자기 나라 인민의 로동과 국내부원으로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합니다. 매개 나라는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하여야만 사회주의건설을 촉진할수 있을뿐만아니라 전체 사회주의진영의 위력을 강화할수 있습니다. (박수) 매개 사회주의국가들의 경제는 세계사회주의경제체계의 자립적인 하나의 단위로서 서로 긴밀한 련계와 협조속에서 끊임없이 발전하고있습니다. 사회주의경제체계는 그를 이루고있는 매개 단위가 강력하여질때 그 전반적위력도 강대해집니다. 만일 매개 사회주의나라들의 민족경제가 종합적으로 발전하지 못하여 자립성을 상실하고 독자적인 자기의 기능을 놀지 못한다면 그것은 전체 사회주의진영의 매개 고리를 약화시키는것

으로 되며 결국 천일체로서의 세계사회주의경제체계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것입니다. 중요한것은 모든 사회주의나라들의 경제가 다 건전하게 발전하여 자기의 자립적역할을 충분히 하는 기초우에서,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와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서 호상 경제적협조를 강화하여 세계사회주의경제체계가 총체적으로 원만히 움직이며 자기의 위력을 충분히 발휘할수 있도록 하는것입니다. (박수) 이렇게 하여야만 매개 나라의 사회주의건설에서 민족적리익과 국제적리익의 통일을 보장할수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하여야만 사회주의나라들은 제국주의렬강들의 경제적침략과 경제적봉쇄정책을 성과적으로 물리칠수 있으며 나아가서는 세계자본주의경제체계의 전반적위기를 더욱 심화시킬수 있습니다. (박수)

우리가 주장하는 자주성은 결코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와 모순되지 않을뿐만아니라 반대로 그것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것입니다. 자주성도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를 강화하기 위한것으로 되여야 하며 결코 그것을 약화시키는것으로 되여서는 절대로 안됩니다. (박수) 자주성을 떠난 국제주의가 있을수 없는것과 마찬가지로 국제주의를 떠난 자주성도 있을수 없습니다. (박수) 만일 그 누가 자주성을 견지한다는 구실밑에 맑스-레닌주의와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를 배반하고 민족리기주의로 나간다면 그것은 큰 잘못입니다. 더우기 독자성의 간판밑에 계급적련대성의 원칙을 저버리고 계급적형제들사이의 공동행동과 공동투쟁을 거부하는것은 공산주의자의 태도가 아닙니다. 이렇게 하는것은 세계혁명발전에 막대한 손해를 주게 되며 나아가서는 자기 나라 혁명도 말아먹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것입니다.

사회주의나라들사이의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적단결을 강화하면서 자주성을 옹호하고 완전한 평등과 자주성에 기초하여 단결하고 협조하는것은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가 일관하게 견지하고있는 립장입니다. (박수) 우리는 우리 혁명의 민족적임무와 국제적임무로부터 출발하여 앞으로도 맑스-레닌주의와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원칙, 완전한 평등과 자주성의 원칙에 기초하여 사회주의나라들과의 친선단결을 강화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할것입니다. (우렁찬 박수 오래 계속)

3. 반제반미투쟁을 강화하여 미제를 때려부시고 조국을 통일하며 세계평화를 수호할데 대하여

동지들!

공화국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건설은 조선혁명의 한 부분이며 조선혁명은 세계혁명의 한 고리입니다. 우리 인민은 공화국북반부에서 사회주의건설을 최대한으로 촉진하는 동시에 남조선에서 미제를 몰아내고 조국을 통일하기 위하여 투쟁하며 평화와 민주주의, 민족적독립과 사회주의를 위한 전세계인민들의 공동투쟁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모든 힘을 다하고있습니다.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의 침략과 전쟁 정책을 반대하고 세계평화와 인류의 진보를 위하여 투쟁하는것은 대외활동분야에서 우리 공화국이 견지하고있는 일관한 방침입니다. (우렁찬 박수)

미제국주의는 현대의 가장 야만적이며 가장 파렴치한 침략자이며 세계제국주의의 두목입니다. 미제국주의는 멸망하여가는 자기들의 처지로부터의 출로를 국제긴장상태의 격화와 군비경쟁의 강화 그리고 새로운 침략전쟁에서 찾으려고 필사적으로 발악하고있습니다. 지구상에는 미제국주의의 침략의 마수가 미치지 않는 곳이 없으며 미제국주의의 침략위협을 받고있지 않는 나라가 없습니다. 미제국주의는 아세아와 구라파, 아프리카와 라틴아메리카 그리고 큰 나라와 작은 나라 할것없이 세계의 모든 지역, 모든 나라들에 침략의 마수를 뻗치고있습니다.

특히 사회주의나라들을 반대하는 미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파괴 책동이 최근년간에 더욱 격화되였습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남부윁남에서 야만적살륙전쟁을 강화하는 한편, 윁남민주공화국에 대한 강도적침략행위를 계속하고있으며 꾸바의 령토 관따나모를 강점하고 꾸바공화국을 반대하는 침략과 도발 책동을 끊임없이 감행하고있습니다. 조선에서 미제국주의자들의 새 전쟁 도발책동은 이미 엄중한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그들은 남조선에서 새 전쟁을 적극 준비하고있으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반대하는 군사적도발을 더욱 로골적으로 감행하는 길에 들어섰습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인민들의 민족해방운동을 가혹하게 탄압하고있으며 민족적독립의 흉악한 교살자로 등장하고있습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라오스에 대한 무력간섭을 강화하고있으며 캄보쟈의 령토완정을 유린하고 캄보쟈인민을 반대하는 도발책동을 계속하고있습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이스라엘팽창주의자들을 사촉하여 아랍인민들을 반대하는 침략전쟁을 감행하였으며 민족적독립과 새생활을 위한 그들의 투쟁을 교살하려고 악랄하게 책동하고있습니다.

최근년간에 새로 독립한 민족국가들에 대한 미제국주의자들의 파괴활동과 전복음모가 더욱 로골화되였습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원조》를 미끼로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의 신생독립국가들에 침투하여 이 나라들의 내정에 간섭하는 한편, 반동들을 매수하고 긁어모아 일부 신생독립국가들에서 반동적인 군사정변들을 더욱 빈번히 조작하고있습니다. 그리하여 이 나라들을 우경에로 돌려세우며 반제전선에서 하나하나 떼여내려고 꾀하고있습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일본군국주의와 서부독일군국주의를 적극 재생시킴으로써 아세아와 구라파에서 또다시 새로운 전쟁의 발원지를 만들고있으며 세계의 이르는 곳마다에서 평화와 인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있습니다.

이 모든 사실들은 미제국주의가 침략과 전쟁의 주되는 세력이며 인류의 가장 흉악한 공동의 원쑤라는것을 말하여주고있습니다. 미제국주의는 전세계인민들의 첫째가는 투쟁대상입니다.

제국주의가 남아있는 한 세계는 결코 평온할수 없으며 침략과 전쟁은 없어질수 없습니다. 제국주의, 특히 미제국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을 떠나서는 세계평화를 수호할수 없으며 민족적 해방과 독립도 민주주의와 사회주의의 승리도 이룩할수 없습니다. 제국주의에 대하여서는 어떠한 환상도 있을수 없으며 그것을 종국적으로 타승할 때까지는 혁명의 기치를 높이 들고 반제반미투쟁을 계속 강화하여야 합니다. (박수)

조선인민은 전쟁을 바라지 않지만 결코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렁찬 박수) 만일 적들이 우리에게 새 전쟁을 강요한다면 전체 인민은 공화국북반부의 위대한 사회주의의 전취물을 수호하며 조국의 완전한 해방과 통일을 성취하기 위하여, 아세아와 세계 평화를 수호하기 위하여 영웅적인 투쟁에 한사람같이 일떠설것이며 원쑤들에게 섬멸적인 타격을 줄것입니다. (우뢰와 같은 박수)

미제국주의를 반대하며 세계평화를 수호하기 위하여서는 미제의 앞잡이들과

그 동맹자들을 반대하여 투쟁하여야 합니다.

사회주의와 민족해방운동을 반대하는데 모든 반동세력들을 끌어들이는것은 미제의 전략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합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침략과 전쟁 정책을 수행하는데서 여러 나라의 반동세력들에 의거하고있으며 이들은 미제국주의의 침략의 길잡이로 되고있습니다.

이러한 대표적실례로서 일본군국주의와 서부독일군국주의를 들수 있습니다. 미제의 적극적인 비호밑에 일본과 서부독일에서는 인류에게 그처럼 많은 불행과 고통을 가져다준 군국주의세력이 빨리 되살아나고있으며 일본군국주의와 서부독일군국주의는 아세아와 구라파에서 위험한 침략세력으로 자라고있습니다. 이것은 아세아와 구라파 그리고 세계평화를 진정으로 귀중히 여기는 사람이라면 누구도 수수방관할수 없는 엄중한 사태발전입니다.

오늘 미제국주의자들은 특히 아세아에 침략의 예봉을 돌리고있으며 일본군국주의는 미제의 아세아침략의 《돌격대》로 충실히 복무하고있습니다. 일본군국주의는 미제를 등에 업고 또다시 아세아침략의 옛꿈을 실현하여보려고 어리석게 시도하면서 조선과 다른 아세아사회주의나라들을 반대하는 전쟁계획까지 짜놓고있으며 그밖의 다른 지역들에 공공연히 침략의 마수를 뻗치기 시작하였습니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은 미제의 지시에 따라 새 전쟁을 적극 준비하고있으며 일본은 아세아나라들을 침략하기 위한 미제의 공급기지로 또한 공격기지로 복무하고있습니다. 이러한 형편에서 일본군국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을 결코 소홀히 할수 없습니다.

일본군국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은 미제를 반대하는 투쟁의 일환이며 아세아와 세계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투쟁입니다. 일본군국주의의 위험성을 과소평가하며 그를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곧 일본반동지배층의 침략적야망을 조장하여주는것으로 되며 아세아에서 미제의 지위를 강화하여주는것으로 됩니다. 사회주의나라들이 일본과 경제관계를 가지거나 미일간의 모순이 앞으로 격화되는 경우에 그것을 반제투쟁의 리익에 맞게 리용할수는 있으나 결코 여기에 일본군국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을 융해시키거나 이것으로 하여 일본군국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을 약화시켜서는 안될것입니다. 모든 사회주의나라들이 미제를 반대하여 싸우는것과 함께 아세아에서 일본군국주의를 반대하여 공동으로 투쟁하며 일치한 행동으로써 그의 침략적야망을 저지파탄시켜야 할것입니다. (박수)

미제국주의를 타승하기 위해서는 세계의 이르는 곳마다에서 반미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합니다. (박수) 아세아와 구라파, 아프리카와 라틴아메리카, 큰 나라와

작은 나라 할것없이 미제가 침략의 마수를 뻗치고있는 모든 지역, 모든 나라들에서 광범한 반제력량이 공동으로 미제국주의에 타격을 주며 압력을 가하여야 할것입니다. (박수) 오직 이렇게 하여야만 미제의 힘을 최대한으로 분산약화시킬수 있으며 사회주의나라들과 작은 나라들을 하나하나 정복하려는 미제국주의자들의 전략을 성과적으로 짓부실수 있습니다.

특히 혁명을 하는 작은 나라 인민들이 승리에 대한 굳은 신심을 가지고 힘을 합쳐 미제국주의에 치명적인 타격을 가하는것이 중요합니다. (우렁찬 박수) 경험은 아무리 작은 나라들이라고 하더라도 자기 인민의 힘을 믿고 그에 의거하며 주체를 세우고 견결히 일떠서 싸운다면 어떠한 제국주의침략세력도 능히 타승할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습니다. (우렁찬 박수) 비록 작은 나라들이라고 하더라도 제국주의를 반대하여 더욱 많은 나라들이 힘을 합쳐 견결히 투쟁한다면 매 전선에서 인민들은 결정적으로 우세한 힘을 가지고 미제국주의를 때려눕힐수 있습니다. (우렁찬 박수) 혁명하는 모든 나라 인민들이 세계의 이르는 곳마다에서 미국놈들의 팔다리도 뜯어내고 머리를 잘라버려야 합니다. (우렁찬 박수) 미제국주의자들이 강한것 같이 보이지만 이렇게 여러 나라 인민들이 사면에서 공격을 들이대고 모두 달라붙어 각을 뜨면 그들은 맥을 추지 못할것이며 결국에 가서는 멸망하고야 말것입니다. (우렁찬 박수 오래 계속)

우리는 미제국주의의 힘을 과소평가하여도 안되지만 결코 과대평가하여도 안됩니다. 지구상의 온갖 제국주의가 다 그러한것처럼 미제국주의도 계속 내리막길을 걷고있으며 더욱더 죽어가고있습니다. (박수) 미제국주의자들의 격화되는 침략책동은 그들의 강대성을 보여주는것이 아니라 반대로 그들의 취약성을 실증하여주는것입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이 횡포하게 행동하면 할수록 그들의 처지는 더욱더 어렵게 되여가고있습니다. 다른 한편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인민들의 투쟁은 계속 앙양되고있으며 그 투쟁대렬은 더욱더 늘어나고있습니다.

미제를 괴수로 한 세계제국주의와 온갖 반동들의 완전한 멸망과 평화와 민주주의, 민족적독립과 사회주의를 위한 전세계인민들의 공동투쟁의 종국적승리는 필연적인것입니다. 이것은 어떠한 힘으로도 막을수 없는 우리 시대의 기본추세입니다. (박수)

국제관계분야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견지하고있는 일관된 정책은 사회주의진영의 통일단결을 강화하며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신생독립국가들과의 친선협조관계를 발전시키고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이 지역 인민들의 해방투쟁과 모든 나라 인민들의 혁명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하는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국제주의적의무로 인정하고있으며 그것을 위해서 모든 힘을 아끼지 않고 있습

니다. (박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조선인민은 웰남에서의 미제국주의자들의 범죄적인 침략전쟁을 단호히 반대하고 영웅적웰남인민의 정의의 투쟁을 견결히 지지합니다. (우렁찬 박수) 우리 인민은 웰남인민의 투쟁을 자신의 투쟁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웰남민주공화국 정부가 요구할 때에는 언제나 웰남인민과 함께 싸울 만단의 준비를 갖추고있습니다. (우렁찬 박수 오래 계속)

조선인민은 꾸바공화국을 반대하는 미제국주의자들의 끊임없는 침략책동을 단호히 규탄하며 조국과 혁명의 전취물을 수호하며 사회주의를 성과적으로 건설하고 있는 형제적꾸바인민의 영웅적투쟁을 견결히 지지합니다. (우렁찬 박수 오래 계속)

우리 인민은 미제를 괴수로 하는 제국주의의 침략과 전쟁 정책을 반대하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공동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투쟁하는 사회주의나라 인민들에게 열렬한 형제적인사를 보냅니다. (우렁찬 박수)

조선인민은 라오스에 대한 미제국주의자들의 무장간섭을 견결히 규탄하며 민족적독립을 위한 라오스인민의 정의의 투쟁을 적극 지지합니다. (우렁찬 박수)

우리 인민은 미제국주의자들과 그 앞잡이들의 간섭을 반대하고 령토완정과 민족의 자주권을 고수하기 위한 캄보쟈인민의 정당한 투쟁을 전적으로 지지합니다. (우렁찬 박수)

우리 인민은 미제와 국내독점자본을 반대하며 나라의 완전한 독립과 민주주의와 평화를 쟁취하기 위한 일본인민의 투쟁을 지지하며 그에 전투적련대성을 보냅니다. (우렁찬 박수)

조선인민은 미제와 그 앞잡이 이스라엘팽창주의자들의 무력침략을 반대하고 민족적독립을 수호하며 새 생활을 창조하기 위한 아랍련합공화국과 수리아를 비롯한 아랍인민들의 투쟁을 견결히 지지합니다. (우렁찬 박수)

조선인민은 제국주의, 식민주의를 반대하고 민족적독립을 공고히 하며 나라의 번영을 위한 알제리, 기네, 말리, 꽁고(브), 탄자니아, 모리따니, 남부예멘, 예멘아랍공화국, 부룬디, 소말리아, 잠비아 인민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합니다. (우렁찬 박수)

우리 인민은 자유와 해방을 위한 꽁고(킨), 앙골라, 모잠비크, 포르투갈령 기네를 비롯한 아프리카나라 인민들의 투쟁을 지지하며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자들과 이스라엘팽창주의자들을 반대하며 자기 조국의 해방과 독립을 위한 팔레스티나인민들의 투쟁을 지지하며 스미스도당의 비법적이며 일방적인 남로데시아 《독립》책동을 반대하는 짐바브웨인민과 인종차별을 반대하는 남아프리카인민들의 투쟁을 지지합니다. (우렁찬 박수)

우리는 미제와 친미반동독재정권을 반대하여 영용한 무장투쟁을 벌리고있는 베네수엘라, 콜롬비아, 과떼말라, 볼리비아, 도미니카, 페루 인민들을 비롯한 라틴아메리카인민들의 혁명투쟁을 지지합니다. (우렁찬 박수)

조선인민은 자본의 착취와 억압을 반대하며 자기들의 민주주의적권리와 사회주의를 위하여 투쟁하는 자본주의나라 로동계급과 근로자들에게 굳은 련대성을 표시하며 그들의 투쟁에 열렬한 성원을 보냅니다. (우렁찬 박수)

우리 인민은 평화와 민주주의와 민족적독립과 사회주의를 위하여 싸우는 인민들의 편에 언제나 튼튼히 서있을것이며 그들과의 련대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노력할것입니다. (우렁찬 박수 오래 계속)

동지들!

남조선에서 미제국주의침략자들을 몰아내고 조국을 통일하기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은 전세계적규모에서 힘차게 벌어지고있는 반제반미투쟁과 밀접한 련관속에서 발전하고있습니다.

남조선은 미제국주의자들의 완전한 식민지일뿐만아니라 전 조선과 아세아를 침략하기 위한 그들의 군사기지이며 우리 나라는 세계제국주의의 원흉과 직접 맞서있는 반제국주의투쟁의 가장 치렬한 전선의 하나입니다. 우리는 남조선에서 미제침략자들을 몰아내고 조국의 통일을 이룩함으로써 자기에게 맡겨진 민족적 및 국제적 의무를 다하여야 합니다. (박수)

미제국주의는 《샤만호》의 침입으로부터 시작하여 오늘에 이르기까지 100여년동안이나 우리 나라를 침략하여온 조선인민의 철천지원쑤입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첫침략기도에서부터 수치스러운 참패를 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나라에 대한 침략과 략탈 만행을 끊임없이 감행하였으며 조선인민앞에 영원히 씻을수 없는 수많은 죄악들을 저질렀습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해방전에는 일제의 조선강점과 그 식민지통치를 부추겨주었으며 해방후에는 일제를 대신하여 남조선을 직접 강점하고 새로운 식민지통치자로 군림하였습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벌써 20년이상 남조선에서 가장 반동적인 식민지군사파쑈통치를 실시하고있습니다. 그들은 남조선을 자기의 완전한 식민지로, 침략적군사기지로 전변시켰으며 남조선인민들을 기아와 빈궁, 테로와 학살이 지배하는 생지옥에 몰아넣었습니다. 해방후 오늘까지 미제국주의자들이 우리 조국 남반부에서 감행한 온갖 만행들은 현대제국주의의 침략력사에 가장 치욕스러운 한페지를 남겨놓았습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남조선에 대한 식민지통치자로서의 자기들의 더러운 정체를 가리우기 위하여 남조선이 마치도 《독립국》이며 거기에 그 어떤 독자적인 《정부》

가 존재하는듯이 떠벌이고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오늘에 와서 그 누구도 속일수 없는 하나의 서투른 연극에 지나지 않습니다.

조선인민은 단일한 민족으로서 하나의 국가, 하나의 정부를 가지고있을뿐입니다. 조선민족의 유일한 국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며 오직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만이 전체 남북조선인민의 참다운 민족적 리익과 의사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남조선의 이른바 《대한민국정부》는 결코 남조선인민을 대표할수 없으며 그 어떤 자주권도 행사하지 못하는 허수아비정권입니다.

우리 공화국정권이 애국적이고 반제적인 정권이라면 남조선 《정권》은 매국적인 정권입니다. 공화국정권은 오래전부터 조국의 해방과 독립을 위하여 외래제국주의침략자들과 용감히 싸운 애국적혁명투사들에 의하여 령도되고있으나 남조선괴뢰정권의 력대통치자들은 례외없이 미일제국주의자들이 길러낸 그들의 앞잡이들이며 자기 상전에게 나라와 민족을 팔아먹은 매국노들입니다. 오늘 남조선괴뢰정권에 틀어앉아있는 현위정자들에 대하여 말한다면 이자들도 그의 모든 선행자들과 마찬가지로 지난날 조국과 인민을 배반한 민족의 반역자들입니다. 남조선의 현통치배들은 우리 공산주의자들이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하여 손에 무장을 들고 15성상이나 일본제국주의를 반대하여 피어린 투쟁을 하고있을 때 일본 《천황》에게 충성을 맹세하였으며 반일투쟁에 나선 혁명가들과 애국적인민들을 무참히 탄압하고 학살하는 만행을 감행하였습니다. 그들은 일제가 패망한 다음에는 상전을 바꾸어 미제국주의자들의 충실한 앞잡이로 되였으며 바로 미제의 부추김을 받아 강도적인 수법으로 《정권》을 가로챈 군사깡패들입니다.

공화국정권이 또한 독립적이고 자주적인 정권이라면 남조선의 이른바 《정권》은 철두철미 식민지적이고 예속적인 《정권》입니다.

공화국정권은 우리가 내놓은 강령에 기초하여 우리자신의 손으로 세운 정권이며 우리 인민들의 자각적인 노력과 투쟁에 의하여 공고발전되고있습니다. (박수) 공화국정부의 모든 대내외정책은 전적으로 조선인민의 민족적리익과 의사에 기초하여 세워지며 철저한 자주, 자립, 자위의 원칙을 구현하고있습니다. (우렁찬 박수) 이와는 정반대로 남조선괴뢰정권은 처음부터 조선인민의 의사와는 어긋나게 미제국주의자들이 총칼을 휘둘러서 만들어낸 《정권》입니다. 미제강점자들은 해방후 남조선에서 인민들의 창의에 의하여 세워진 인민위원회들을 강제로 해산하고 자기들의 《군정》을 선포하였으며 남조선에 대한 공공연한 식민지적군사파쑈통치를 실시하였습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군정》이 남조선인민들의 강력한 반항에 부딪치게 되자 자기들의 식민지통치를 가리우려는 음흉한 목적으로부터 출발하여 《미군정청》의 간판을 이른바 《대한민국정부》로 바꾸어달았던것입니다. 남조선괴뢰정권

은 바로 이와 같이 하여 세상에 생겨났으며 따라서 이 《정권》은 하나로부터 열까지 모두 미국강점자들의 지령에 따라 움직이며 그들의 전쟁정책을 위하여 남조선의 모든것을 송두리채 내맡기고있습니다. 남조선의 괴뢰정권은 자기 상전의 지시에 따라 수많은 무고한 남조선동포들을 더러운 웰남침략전쟁터에 내몰아 미제의 대포밥으로 개죽음을 당하게 하고있습니다. 이 한가지 사실만으로도 남조선의 이른바《정권》이라는것이 얼마나 미제의 충실한 앞잡이인가 하는것을 똑똑히 알수 있습니다.

또한 공화국정권이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근로인민의 리익을 대표하며 옹호하는 참다운 인민의 정권이라면 남조선괴뢰정권은 지주, 매판자본가들과 반동관료배들의 리익을 대변하는 반인민적인 반동《정권》이라는 사실도 더는 숨길수 없습니다. 이 《정권》의 이른바 《정책》은 모두 미제국주의자들과 그 앞잡이들의 안일과 향락을 보장하여주기 위하여 인민들을 략탈하고 착취하는데 돌려지고있습니다. 그리하여 남조선사회는 미제국주의자들과 그 앞잡이들에게 마련된 세상으로 되고있지만 인민대중에게는 생지옥으로 되고있습니다.

이 모든 사실들은 남조선의 실권을 틀어쥐고있는 실제적통치자가 바로 미제국주의자들이라는것을 보여주고있습니다. 남조선의 이른바 《대한민국정부》는 사실상 그들의 군사적점령을 《합법화》하고 그 식민지통치를 가리우는 위장물로 존재하여왔으며 미제국주의의 침략정책을 충실히 집행하는 도구로 복무하여왔을뿐입니다.

미제의 남조선강점과 그의 침략정책은 남녘동포들이 겪고있는 모든 불행과 고통의 화근입니다. 남조선인민들은 미제의 남조선강점을 반대하고 그의 식민지통치를 때려부시기 위하여, 그 앞잡이들인 지주, 매판자본가, 반동관료배들을 타도하기 위하여 더욱 억세게 투쟁하여야 할것입니다. (박수) 남조선인민들은 오직 자신의 결정적투쟁에 의해서만 억압자들을 뒤집어엎고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쟁취할수 있습니다. (박수) 남조선인민들은 미제국주의자들을 남조선에서 몰아내며 그의 식민지통치를 때려부시기 위한 투쟁을 주권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과 밀접히 결합시켜 진행하여야 하며 여기에 모든 형태의 투쟁을 복종시켜야 합니다. (박수)

인민들의 자유와 해방은 투쟁이 없이 저절로 이룩될수 없으며 인민들은 오직 혁명적방법에 의해서만 주권을 쟁취할수 있습니다. (박수) 물론 혁명력량을 키우기 위하여서는 조성된 주객관적정세에 맞게 정치투쟁과 경제투쟁, 합법투쟁과 비합법투쟁, 폭력투쟁과 비폭력투쟁, 작은 규모의 투쟁과 큰 규모의 투쟁과 같은 여러가지 투쟁형태를 옳게 배합하여 혁명투쟁을 발전시켜나아갈수 있습니다. 혁명이 간고하다고 하여 유리한 정세가 다가오기만 기다리면서 적극적인 투쟁을 벌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큰 잘못입니다. 그러나 그 투쟁형태가 어떻든지간에 그것들은 모

두 주권을 쟁취하기 위한 결정적인 투쟁의 준비로 되여야 하며 그 결정적투쟁은 오직 폭력적방법에 의하여서만 승리할수 있는것입니다. (박수)

폭력투쟁이 없이 그 어떤 평화적인 방법으로 남조선인민들이 주권을 잡을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환상에 지나지 않습니다. 력사는 아직까지 그 어떤 식민지통치자나 반동지배층도 혁명적폭력에 의하여 타도됨이 없이 스스로 인민대중에 대한 자기의 지배를 포기하고 정권을 내놓은 실례를 알지 못하고있습니다. 더우기 남조선에는 세계제국주의의 원흉인 미제가 둥지를 틀고있으며 그들은 공화국북반부와 아세아에 대한 자기들의 침략적야욕으로 하여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써서라도 남조선에 대한 식민지적지배를 유지하려고 하는것입니다. 남조선에서 미제국주의자들은 인민들의 영웅적투쟁에 의하여 여러번 심각한 위기를 겪었습니다. 그러나 미제국주의자들은 그때마다 자기들의 무력을 동원하여 필사적으로 저항하였으며 인민들에 대한 유혈적인 탄압소동을 벌리군 하였습니다. 남조선인민들의 영웅적 4.19봉기에 의하여 리승만괴뢰정권이 넘어진것은 사실에 있어서 남조선에서 미제의 식민지통치의 일대 붕괴를 의미하였으나 이때에도 미제국주의자들은 남조선에서 물러가려 하지 않았을뿐만아니라 자유와 해방에 대한 인민들의 요구에 가장 악랄한 군사파쑈통치를 세우는것으로 대답하였습니다.

남조선인민들은 지난 20여년동안의 쓰라린 체험을 통하여 미제국주의자들에 대해서는 그 어떤 환상도 가져서는 안되며 오직 전인민적인 항쟁으로써 미제국주의자들과 그 앞잡이들을 철저히 때려부실 때에만 비로소 자유와 해방을 쟁취할수 있으며 빼앗긴 인민주권을 도로 찾을수 있다는것을 더욱더 깊이 깨닫게 되였습니다. (박수)

오늘 남조선인민들의 혁명투쟁은 확대되고있으며 그것은 무장투쟁을 비롯한 여러가지 형태의 적극적인 반미구국투쟁으로 발전하고있습니다. (우렁찬 박수) 투쟁은 점차 조직화되고 혁명의 주력군인 로동자, 농민들 속에 깊이 뿌리를 박고있으며 각계각층의 보다 광범한 군중속에서 힘차게 벌어지고있습니다. (박수) 남조선혁명가들과 애국적인민들은 자기들의 혁명조직을 더욱 확대하면서 도시와 농촌에서, 지하와 산중에서 지어는 감옥과 《법정》에서까지 원수들과 굴함없는 투쟁을 벌리고있습니다. (우렁찬 박수 오래 계속) 남조선의 이르는 곳마다에서 활동하고있는 혁명적무장소조들의 활동과 로동자, 농민, 어민, 군인, 청년학생, 언론인, 교육자 그리고 량심있는 민족자본가를 포함한 광범한 인민들의 혁명적진출은 미제와 그 앞잡이들로 하여금 공포에 떨게 하고있으며 그들을 일대 혼란속에 몰아넣고 있습니다. (우렁찬 박수)

인민들의 자유와 해방, 조국의 통일독립을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서 남조선혁

명가들과 애국적인민들이 쌓아올린 고귀한 투쟁업적들은 우리 나라의 영광스러운 혁명력사에 길이 빛날것입니다. (우뢰와 같은 박수)

미제와 그 앞잡이들은 남조선 방방곡곡에서 일어나고있는 애국적인민들의 혁명투쟁을 《북조선의 침입》으로 묘사하며 남조선 혁위기의 원인이 《북으로부터의 위협》에 있는듯이 떠벌이면서 요란한 반공소동을 벌리고있습니다. 최근에 남조선괴뢰들이 북조선의 소행이라고 떠들고있는 통일혁명당사건은 이의 뚜렷한 실례의 하나입니다. 세상이 다 아는바와 같이 이 사건에 관련된 100여명에 이르는 혁명투사들은 모두다 남조선의 대학교수들과 언론계인사들, 군인들, 공무원들입니다. 사태가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을 과연 북조선사람들의 소행이라고 말할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허위와 기만을 일삼는 남조선괴뢰통치집단의 철면피하고 어리석은 책동이며 사람들의 이목을 딴데로 돌리기 위한 그들의 상투적인 기만술책에 지나지 않습니다. 착취와 압박이 있는 곳에서는 인민들의 반항이 있는 법입니다. 남조선인민들이 자신의 자유와 해방을 위하여 억압자들을 반대하여 투쟁하는것은 불가피합니다. 남조선인민들은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가혹한 파쑈테로통치밑에서 더는 견딜래야 견딜수 없게 되여 앉아서 죽느니보다는 차라리 일어서서 싸워야 한다는 굳은 각오를 가지고 미제의 식민지통치제도를 전복하기 위하여 손에 무장을 들고 용감히 싸우고있는것입니다. (박수) 미제와 그 앞잡이들은 남조선의 혁위기가 그 누구의 탓도 아닌 바로 미제의 식민지통치 그자체의 산물이라는 이 엄연한 사실을 결코 숨길수 없습니다.

미제와 그 괴뢰도당의 파쑈적폭압과 온갖 기만술책에도 불구하고 남조선인민들은 투쟁을 통하여 더욱더 각성되고 단련될것이며 결국에 가서는 미제의 식민지통치를 뒤집어엎고야말 불패의 혁명력량으로 자라나게 될것입니다. (박수) 그리하여 적당한 때가 오면 반드시 미제침략자들을 몰아내고 그 앞잡이들을 타도함으로써 혁명의 승리를 이룩하고야 말것입니다. (우렁찬 박수)

남조선혁명은 발톱까지 무장한 강대한 적을 상대로 하고있는것만큼 매우 어려운 조건에서 진행되며 그 앞길은 의연히 간고합니다. 그러나 남조선인민들의 혁명투쟁이 아무리 간고하다고 하여도 그들은 결코 외롭지 않으며 지난날 조선공산주의자들이 일본제국주의와 싸울 때보다는 훨씬 유리한 조건에서 투쟁하고있습니다. 지난날 우리 공산주의자들은 국가적후방도 없었고 정규적무력의 지원도 전혀 없었으며 국제혁명력량의 지원도 지금처럼 강하지 못한 조건에서도 15성상이나 무적을 자랑하던 일제와 싸워이겼습니다. (우렁찬 박수) 오늘 남조선인민들은 이와는 달리 나라의 북반부에 위력한 혁명기지를 가지고있으며 북반부인민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고있습니다. 우리 당의 령도밑에 공화국북반부의 전체 인민들은 모든 힘을

다하여 남조선인민들의 혁명투쟁을 지원할것입니다. (우렁찬 박수) 우리는 필요할 때에는 언제나 남조선인민들과 힘을 합하여 민족해방혁명을 완수하며 조국통일위업을 성취하는 결정적투쟁에 동원될수 있도록 만단의 준비를 갖추고있습니다. (우렁찬 박수 오래 계속)

미제가 쫓겨가고 남조선에서 인민민주주의혁명이 승리하여 인민들이 자기 손에 정권을 쥐게 되면 북반부의 사회주의력량과 남조선의 민주주의력량의 단합된 힘에 의하여 우리 조국의 통일위업은 성취될것입니다. (우렁찬 박수 오래 계속)

조국통일은 남북조선 전체 인민들의 한결같은 념원이며 잠시도 미룰수 없는 민족 최대의 과업입니다. 우리 인민은 지난 20여년동안의 생활체험을 통하여 남북이 갈라져서는 결코 살수 없다는것을 절실히 느끼게 되였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창건된 첫날부터 전체 조선인민의 한결같은 의사와 념원을 반영하여 조국을 통일하기 위한 가장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방안들을 내놓았으며 그 실현을 위하여 할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여왔습니다. 우리 공화국정부가 일관하게 주장하고있는 조국통일의 기본방침은 남조선에서 모든 외국군대를 철거시킨 다음 어떠한 외세의 간섭도 없이 조선인민자신의 손에 의하여 자주적으로 민주주의적원칙에서 남북통일을 실현하자는것입니다. 우리의 이 평화통일방안은 누구에게나 접수될수 있는 가장 공명정대하고 현실적인 방안입니다.

미제국주의자들과 남조선의 매국위정자들은 조국통일을 위한 공화국정부의 이 정당한 방안을 한사코 반대하면서 우리의 성의있는 노력에 대하여 매번 침략적도발행동으로 대답하였습니다. 미제와 그의 매국앞잡이들이 부르짖는 《공산화의 위험》이니, 뭐니 하는 구호들은 다 우리 조국의 분렬을 영구화하기 위한 방패에 지나지 않으며 그들이 주장하는 《유엔감시하의 선거》란 사실에 있어서 전조선을 미제국주의자들의 손에 내맡기자는 술책밖에 다른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 미제의 충실한 앞잡이인 남조선의 매국도당은 나라의 평화적통일을 한사코 반대하면서 평화통일이란 말만 해도 인민들을 마구 잡아가두며 엄벌에 처하고 있습니다. 남조선에 미제와 그 앞잡이들을 그대로 두고서는 나라의 평화적통일이란 생각할수 없습니다. 우리 조국의 평화적통일은 오직 남조선에서 현괴뢰정권을 뒤집어엎고 진보적세력들이 정권을 쥔 다음에야 실현될수 있습니다. (박수)

조국의 평화적통일에 관한 우리의 주장은 결코 미제국주의자들과의 투쟁을 배제하는것이 아니며 이것은 민족의 원쑤들과의 그 어떤 《타협》이나 사회제도의 이른바 《평화적이행》에 관한 《리론》과는 아무런 공통성도 없습니다. 우리 나라의 통일문제는 어디까지나 한 나라의 비극적인 분렬을 끝장내고 외래제국주의침략자들로부터 빼앗긴 자기의 령토와 인민을 도로 찾으며 나라의 완전한 독립을 이룩하려는

우리 민족의 사활적요구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 구체적방도가 어떻든지간에 조국통일은 미제침략자들을 우리 강토에서 몰아내고 남조선괴뢰정권을 때려부신 다음에야 비로소 이룩될수 있습니다.

남조선혁명이 승리하고 조국이 통일되면 그날부터 우리는 3천리강토우에 남북조선 전체 인민들의 힘과 지혜를 합치고 나라의 풍요한 부원을 통일적으로 개발리용하여 이 세상에 부러울것 없는 살기좋고 부강한 조국, 더욱 번영하는 새 조선을 건설할것입니다. (우렁찬 박수 오래 계속)

승리와 영광의 그날을 앞당기기 위하여 남조선인민들은 혁명력량을 더 빨리 준비하고 대중적인 반미구국투쟁을 보다 힘차게 벌려야 할것입니다. (박수) 그리고 북반부인민들은 우리의 혁명기지를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더욱 튼튼히 다지며 남조선인민들의 혁명투쟁을 계속 힘차게 지원하며 국제혁명력량과의 전투적련대성을 끊임없이 강화하여야 하겠습니다. (박수)

동지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20년동안의 투쟁로정을 통하여 자기의 불패의 생활력과 위력을 뚜렷이 증명하였으며 공화국의 기치밑에 조선인민은 혁명과 건설에서 위대한 승리를 이룩하였습니다. (우렁찬 박수 오래 계속)

지금 우리 공화국은 류례없는 번영기에 놓여있습니다. 우리 인민은 공화국의 품속에서 자기 위업의 정당성과 승리에 대한 신심을 가지고 매우 흥겹고 보람차게 일하며 배우며 생활하면서 더욱 힘차게 전진하고있습니다. (우렁찬 박수)

우리 인민의 모든 승리와 성과들은 조선로동당의 옳바른 로선과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이룩되였습니다. (우렁찬 박수 오래 계속) 우리 당은 맑스-레닌주의를 우리 나라의 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하면서 우리 인민을 언제나 승리와 영광에로 이끌었습니다. (우뢰와 같은 박수)

세련된 맑스-레닌주의적당에 의하여 령도되며 주권을 자기의 손에 튼튼히 틀어쥐고있으며 온 세계 인민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받고있는 조선인민은 자기의 정당한 혁명위업을 수행하는데서 언제나 승리할것입니다. (우뢰와 같은 박수 오래 계속)

모두다 공화국의 기치를 높이 들고 로동당의 두리에 굳게 뭉쳐 조선혁명의 종국적승리를 향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휘황한 앞날을 향하여 더욱 힘차게 앞으로 나아갑시다. (우뢰와 같은 박수 오래 계속)

조선인민의 영광스러운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20주년 만세!

(모두 일어서서 우뢰와 같은 박수, 만세, 환호소리 오래 계속)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스무돐경축연회에서 하신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 수상이신

김일성동지의 연설

친애하는 동지들!

존경하는 외국의 벗들!

오늘 우리 인민은 커다란 기쁨과 높은 긍지를 가지고 자기의 사랑하는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스무돐을 뜻깊게 경축하고있습니다.

나는 이 경사스러운 민족적명절을 맞이하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와 공화국정부의 이름으로 당신들과 전체 조선인민을 열렬히 축하합니다.

나는 또한 우리 인민의 자유와 해방을 위하여, 조국의 독립과 혁명의 전취물을 수호하기 위하여 자기의 고귀한 생명을 바친 우리의 모든 혁명렬사들에게 최대의 영광을 드리며 그 유가족들에게 숭고한 경의를 표합니다.

동지들과 벗들!

우리 공화국이 창건된 때로부터 벌써 2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20년이란 한개 국가의 력사로서는 그리 오랜 시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기간에 우리 공화국은 로동당의 령도밑에 간고하고도 자랑찬 투쟁의 길을 걸어왔으며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참말로 위대한 업적을 쌓아올렸습니다. 나라의 모든 생활에서 근본적인 전변이 일어났으며 자연도, 사회도, 사람들도 다 몰라보게 달라졌습니다.

혁명과 건설을 위한 지난 20년동안의 투쟁을 통하여 우리 인민은 착취와 압박이 없고 모든 사람이 다 자유롭고 행복한 생활을 누릴수 있는 선진적인 사회주의제도를 세워놓았으며 자체의 힘으로 나라의 모든 살림살이를 훌륭히 꾸려나갈수 있는 자립적민족경제의 튼튼한 토대를 닦아놓았습니다.

우리 인민은 공화국의 정치, 경제, 군사적 위력을 강화함으로써 우리의 혁명기지를 반석같이 다져놓았습니다.

지금 우리 나라의 형편은 매우 좋습니다. 우리 공화국은 정치에서 자주적이고

경제에서 자립적이며 국방에서 자위적인 힘있는 사회주의국가로서 날로 륭성발전하고있으며 그 국제적지위는 끊임없이 높아가고있습니다.

전체 인민이 당과 공화국정부 두리에 하나의 사상의지로 굳게 뭉쳐있으며 온 나라가 화목하고 명랑하고 생기발랄한 분위기에 휩싸여있습니다.

날로 번영하는 사회주의조국의 품속에서 우리의 투쟁은 매우 보람찬것으로 되였으며 우리의 생활은 혁명적정열과 혁명적락관으로 넘쳐있습니다.

우리 인민은 로동당의 령도밑에 공화국의 가일층의 륭성발전을 위하여, 조국통일과 조선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위하여 더욱 큰 신심과 보다 광명한 전망을 가지고 천리마를 탄 기세로 계속 힘차게 전진하고있습니다.

사회주의건설의 웅대한 강령인 7개년계획수행에서도 우리는 마지막 돌격단계에 들어섰습니다. 우리는 올해에 벌써 일련의 공업부문들에서 7개년계획의 고지들을 점령하게 될것입니다.

우리는 승리에 자만하지 말고 새로운 승리를 위하여 계속 긴장된 투쟁을 벌림으로써 명년에 7개년계획의 모든 고지들을 승리적으로 점령하여야 할것입니다.

7개년계획이 완수되면 우리 나라는 부강한 사회주의공업국가로 될것이며 우리 인민의 생활은 더욱 넉넉하고 문명하게 될것입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위력의 장성은 남조선인민들에게 힘과 용기를 북돋아주며 미제국주의침략자들에게는 심대한 타격으로 됩니다.

남반부인민들은 우리 공화국을 조국통일의 성새로 바라보며 공화국의 륭성발전에 끝없이 고무되면서 미제침략자들과 그 앞잡이들을 반대하고 자유와 해방과 나라의 통일을 위하여 영웅적으로 싸우고있습니다.

나는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와 전체 북반부인민들의 이름으로 원쑤들의 야만적폭압과 테로를 박차고 남조선각지에서 용감하게 싸우고있는 남조선혁명가들과 애국적인민들에게 열렬한 성원을 보냅니다.

미제국주의자들과 그 앞잡이들의 발악에도 불구하고 오늘 남조선에서 식민지통치는 심각한 위기에 빠져들어가고있으며 인민들의 혁명적기세는 더욱 높아가고있습니다.

그 어떠한 힘으로도 민족의 해방과 조국의 통일을 위하여 한사람같이 일떠선 전체 남북조선인민들의 앞길을 가로막을수 없습니다.

조선에 대한 미제국주의의 침략정책은 종국적으로 파탄될것이며 우리 조국의 통일은 반드시 실현되고야 말것입니다.

오늘 60만 재일조선동포들을 비롯한 모든 해외 조선공민들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자기들의 참다운 행복과 희망의 등대로 바라보면서 당당한 독립국가의 공민으로서 자기들의 권리를 요구할수 있게 되였습니다.

나는 민주주의적민족권리와 조국의 통일을 위하여 투쟁하고있는 재일동포들에

게 그리고 해외에 있는 모든 조선공민들에게 축하와 인사를 보냅니다.

동지들과 벗들!

이번에 수많은 외국의 동지들과 벗들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여준것은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커다란 기쁨으로 되며 우리의 명절을 더욱 즐겁게 하여줍니다.

이것은 우리들사이의 친선과 단결을 강화하는데 크게 이바지할것입니다.

나는 우리 정부와 인민의 이름으로 우리의 귀중한 외국손님들에게 다시한번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인민은 당신들을 자기의 친근한 벗으로서 맞이하고있으며 당신들을 열렬히 환영하고있습니다.

이것은 제국주의를 반대하고 평화와 민주주의, 민족적독립과 사회주의를 위하여 함께 싸우는 인민들에 대한 우리 인민의 친선과 련대성의 뚜렷한 표현입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조선인민은 국제혁명력량과의 단결을 강화하며 전세계 인민들의 혁명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하는것을 자기의 신성한 국제주의적 의무로 여기고있습니다.

우리는 웰남에서의 미제의 야만적인 침략전쟁을 단호히 규탄하며 웰남인민의 영웅적반미구국투쟁을 견결히 지지합니다.

조선인민은 맑스-레닌주의와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에 기초한 사회주의나라들의 계급적동맹과 국제공산주의운동의 통일단결을 수호하기 위하여 앞으로도 계속 모든 힘을 다할것입니다.

우리 인민은 반제반미투쟁의 혁명적기치밑에 자유와 민족적독립을 위하여 싸우는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의 모든 나라 인민들의 편에 언제나 튼튼히 서있을것이며 그들의 민족해방투쟁을 계속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그들과의 전투적 련대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할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자본의 억압과 착취를 반대하며 생활상 권리와 민주주의적자유와 사회주의를 위하여 투쟁하는 자본주의나라 로동계급과 근로자들에게 굳은 련대성을 표시하며 그들의 투쟁을 열렬히 지지합니다.

미제를 괴수로 하는 제국주의침략세력과 반동세력은 멸망을 면치 못할것이며 인민들의 혁명투쟁은 반드시 최후의 승리를 이룩할것입니다.

나는 공화국창건 스무돐을 맞이하면서 우리 조국의 무궁한 번영과 우리 민족의 더욱 행복한 미래를 위하여, 사회주의건설과 조국의 통일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에서 새로운 승리를 위하여, 맑스-레닌주의와 사회주의진영의 통일단결을 위하여, 우리의 명절을 축하하여 이 자리에 참석한 형제적사회주의나라들과 아세아와 아프리카, 구라파와 라틴아메리카의 여러 나라 손님들의 건강을 위하여, 여러 동지들의 건강을 위하여 이 잔을 들것을 제의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걸어온 영광의 길, 혁명승리의 앞길을 밝혀주는 위대한 강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창건되고 우리 인민이 새로운 력사무대에 나선 때로부터 20년이 지나갔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공화국의 기발을 높이 들고 전진하여온 우리 인민은 20년동안에 쌓아올린 위대한 업적을 무한한 긍지를 가지고 돌이켜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더욱 힘차게 투쟁하고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공화국창건 스무돐 기념경축대회에서 하신 력사적인 보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우리 인민의 자유와 독립의 기치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강력한 무기이다》에서 공화국이 걸어온 영광스러운 20년을 전면적으로 총화하시고 우리 혁명의 휘황한 앞길을 밝혀주시였다.

김일성동지의 보고는 우리 인민의 주권쟁취를 위한 투쟁, 민주주의혁명과 사회주의혁명, 사회주의건설의 전행정에서 빛나게 승리하여온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의 불패의 생활력과 그 정당성을 확고히 증시하였으며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와 종국적인 승리의 길,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의 승리의 길을 명확히 천명하였다.

그것은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위대한 수령의 령도밑에 이룩한 혁명적 업적에 대한 드높은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게 하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완수하기 위하여 더욱 억세게 싸워나가도록 그들을 힘있게 불러일으키고있다.

그것은 또한 자유와 해방, 조국의 통일을 위하여 반미구국투쟁의 불길을 높이고있는 남조선혁명가들과 인민들에게 용기와 투지를 북돋아주고 그들을 영웅적투쟁에로 고무하고있으며 모든 해외동포들에게 민족적긍지와 자부심을 한없이 높여주고있다.

김일성동지의 보고는 현시대 국제공산주의운동과 세계혁명운동이 날카롭게 제기하고있는 원칙적문제들에 정연하고도 체계적인 해명을 준것으로서 국제적으로 거대한 리론실천적의의를 가진다.

그것은 사회주의를 지향하여 전진하는 모든 인민들에게 주권을 잡기 위한 투쟁의 길, 혁명과 건설의 가장 정확한 길을 밝게 비쳐주는 휘황한 등대이다.

그것은 제국주의를 반대하며 민족적독립과 진보를 위하여 투쟁하는 세계의 혁명적인민들에게 반제반미투쟁의 위력한 무기를 주며 그들이 확고한 신심을 가지고 옳은 길을 따라 싸워나가도록 크게 고무하고있다.

보고는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와 종국적인 승리의 길을 처음으로 과학적으로 해명하고 정식화한 우리 시대의 고전적문헌이며 맑스-레닌주의와 국제공산주의운동의 가일층의 발전에 특출한 기여를 한 력사적문헌이다.

실로 김일성동지의 보고는 혁명을 위하여,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위하여 싸우는 모든 인민들에게 끝없는 신심과 고무를 주고있으며 침략과 전쟁에 광분하면서 인민들의 투쟁의 앞길을 가로막으려는 미제와 제국주의 반동세력에게 강력한 타격을 주었다.

외국의 수많은 벗들은 금번의 김일성동지의 보고를 《상상을 초월하는 아주 훌륭한 보고》, 《한나라의 범위를 벗어나서 국제공산주의운동전반에 적용되는 보고》라고 말하고있으며 《진실한 맑스-레닌주의의 교과서》, 《사회주의의 례제》, 《세계혁명을 추동하는 강력한 원동력이며 조선혁명뿐만아니라 세계혁명의 전도를 휘황하게 밝혀주는 밝은 태양과 같다.》라고 말하고있다.

김일성동지의 력사적보고를 접한 우리 인민은 항상 우리들을 번영과 륭성, 승리와 행복에로 이끄시는 위대한 수령에게 다함없는 영예와 최대의 영광을 드리고있으며 그이께서 가리키시는 혁명의 길을 따라 더욱 힘차게 싸워나아갈 드높은 전투적기백과 혁명적열정으로 가득차있다.

1

우리 인민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탁월한 령도밑에 력사상 처음으로 자기의 진정한 조국—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가지게 되였으며 지난 20년간 영광의 길, 투쟁과 승리의 길, 창조와 전진의 길을 걸어왔다.

김일성동지께서는 공화국창건 스무돐기념경축대회에서 하신 보고에서 항일무장투쟁의 빛나는 혁명전통을 이어받은 공화국이 이룩한 위대한 업적과 경험을 맑스-레닌주의적으로 심오하게 분석총화하시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김일성동지께서 조직령도하신 항일무장투쟁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에 그 깊은 뿌리를 둔 참다운 인민의 정권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제의 폭압이 절정에 달하여 우리 인민이 생사존망의 기로에 서있던 그 엄혹한 시기에 혁명적폭력과 혁명적무력에 커다란 의의를 부여하시고 빼앗긴 조국을 다시 찾기 위하여, 인민의 혁명적주권을 위하여 영광스러운 항일무장투쟁을 조직령도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간고한 항일무장투쟁시기에 국가와 혁명에 관한 맑스-레닌주의리론을 독창적으로 발전시켜 조선인민이 쟁취하여야 할 주권은 로동계급이 령도하는 로농동맹에 기초하고 광범한 반일력량의 통일전선에 의거한 인민혁명정부로 되여야 한다는 로선을 천명하시였다.

이것은 김일성동지께서 몸소 작성하신 조국광복회 10대강령에서 전면적으로 체계화되고 집대성되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무장투쟁의 불길속에서 맑스-레닌주의적인민정권로선을 구현하심으로써 앞으로 조국이 해방된후 새형의 인민정권을 수립하기 위한 고귀하고도 풍부한 업적과 경험을 쌓으시였으며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바쳐 싸울줄 아는 수많은 혁명적골간을 육성하시였다.

우리 인민은 이 빛나는 혁명전통이 있음으로 하여 해방후 그처럼 복잡다단한 정세하에서도 지체없이 새형태의 인민주권을 가질수 있었으며 그렇듯 중첩된 시련을 뚫고 승리의 한길로 전진할수 있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해방직후 우리 나라에 조성된 혁명정세를 명철하게 분석하시고 진정한 인민정권수립을 위한 명확한 로선을 제시하시였다.

《우리의 당면과업은 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창건하는것입니다. …

제국주의잔재세력과 봉건세력을 반대하고 민주주의혁명을 완수하려면 반드시 로동계급이 핵심이 되고 광범한 농민들과 애국적지식인들, 지어는 민족적량심을 가진 민족자본가들까지 망라하는 민주주의통일전선을 형성함으로써 로동계급이 령도하는 인민정권인 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건설하여야 합니다.》

(《김일성저작선집》, 제1권, 6~7페지)

우리 당은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국내의 반동세력과 좌우경기회주의자들을 반대하는 투쟁속에서 새형의 인민정권을 수립하고 혁명에서 기본문제인 주권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였다.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는 북반부에서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을 승리적으로 완수하였으며 북조선인민위원회는 우리 나라의 첫 프로레타리아독재정권으로서 점차 사회주의에로 넘어가는 과도기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투쟁하였다. 북반부는 조선혁명의 튼튼한 기지로 되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북반부에서 이룩된 위대한 사회경제적변혁에 기초하여 남북조선의 전체 인민을 미제의 침략정책과 민족분렬책동을 반대하는 거족적투쟁에로 궐기시키시였으며 이 투쟁속에서 우리 인민의 영광스러운 조국—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창건하시였다.

공화국의 창건은 부강하고 통일된

사회주의 조국을 건설할데 대한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구상의 실현이였으며 우리 인민의 오랜 세기에 걸친 력사적숙망의 구현이였다.

우리 인민은 국가주권을 가진 당당한 민족으로, 자주독립국가의 진정한 주인으로 되였으며 조국의 통일독립을 실현하고 조선혁명을 완성할수 있는 더욱 강력한 무기를 가지게 되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 인민은 자기의 사회주의적자주독립국가를 가지게 됨으로써 전국적판도에서 반혁명력량에 대한 혁명력량의 결정적우세를 보장할수 있게 되였으며 제국주의자들과 온갖 반동들의 준동을 단호히 물리치고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성과적으로 밀고나갈수 있게 되였습니다.》(《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우리 인민의 자유와 독립의 기치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강력한 무기이다》, 15페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공화국은 창건된후 지난 20년간 미제침략자들과 국내반동세력을 반대하는 투쟁에서, 우리 대렬내에 잠입한 원쑤들과의 장기적이고도 심각한 투쟁에서 그리고 헤아릴수 없는 경제적난관을 극복하는 치렬한 투쟁에서 승리를 거듭하고 우리 나라의 면모와 우리 인민의 생활을 근본적으로 변혁시켰다.

우리 공화국이 모든 시련을 이겨내고 발전되고 강력한 사회주의국가로 동방에 거연히 솟아오른것은 오직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탁월한 령도의 결과이며 그이의 위대한 주체사상, 그이께서 제시하신 자주, 자립, 자위의 혁명적로선의 빛나는 결실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미제국주의자들이 우리 공화국을 요람기에 말살하려고 덤벼들었을 때 조국과 혁명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시고 우리 인민을 원쑤격멸의 성스러운 투쟁에로 힘차게 불러일으키시였으며 우리 인민은 수령의 령도를 받들고 자기들에게 자유롭고 행복한 새생활을 마련하여준 우리 당과 인민정권을 지키기 위하여 영웅적으로 싸워이겼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 인민의 조국해방전쟁은 미제를 비롯한 세계반동의 련합세력을 반대하는 치렬한 반제반미투쟁이였으며 인민의 원쑤들을 반대하는 준엄한 계급투쟁이였습니다. 우리 인민은 이 위대한 투쟁에서 당과 공화국정부의 정확한 령도밑에 한마음 한뜻이 되여 결사적으로 싸움으로써 전쟁의 어려운 시련을 영예롭게 이겨냈으며 미제와 그 앞잡이들에게 수치스러운 패배를 주고 력사적인 승리를 이룩하였습니다.》(우와 같은 책, 18~19페지)

우리 인민은 조국해방전쟁에서 승리함으로써 공화국의 무궁무진한 생활력과 나라의 주인으로 된 인민의 위대한 힘을 뚜렷이 시위하였으며 사회주의진영나라들을 위협하던 미제의 침략기도를 꺾어버리고 미제국주의자들을 서산락일의 운명에 몰아넣었다.

공화국이 걸어온 20년은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주체사상, 자주, 자립, 자위의 혁명적로선이 철저히 관철됨으로써 세기적락후와 빈궁이 지배하던 우리 나라가 정치에서 자주적이고 경제에서 자립적이며 국방에서 자위적인 강유력한 사회주의나라로 전변된 력사적시기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맑스-레닌주의를 우리 나라의 구체적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하고 발전시키시여 혁명의 매시기마다 현명한 로선과 정책을 제시하시였으며 조선혁명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독창적으로 해결하시였다.

우리 나라의 현실은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모든 문제를 주체성있게 해결하여온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립장이 가장 정당하였으며 조선혁명이 요구하고 맑스-레닌주의원칙과 우리 나라 실정에 부합되는것이라면 그 무엇에도 구애됨이 없이 자신이 택한 길을 따라 확고히 전진하여온것이 유일하게 옳았다는것을 확증하여주었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김일성동지께서 우리 나라 현실을 맑스-레닌주의적으로 심오하게 분석하신데 기초하여 제시하신 독창적이며 주체적인 사회주의적개조방침을 관철함으로써 전후의 그 어려운 시기에 불과 4~5년이란 짧은 기간에 도시와 농촌을 사회주의일색으로 전변시켰다. 공화국북반부에는 선진적

인 사회주의제도가 전면적으로 수립되였으며 로동계급이 령도하는 로농동맹에 기초한 전체 인민의 정치사상적통일은 사회주의적토대우에서 더욱 공고화되였다. 사회주의제도의 승리는 또한 나라의 생산력을 급속히 발전시키며 인민생활을 근본적으로 개선할수 있는 넓은 길을 열어놓았다.

우리 인민은 위대한 천리마의 대진군을 계속하여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현명한 경제건설로선을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력사적으로 짧은 기간에 나라의 튼튼한 자립적경제토대를 축성하여놓았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 당이 내놓은 경제건설의 기본로선은 우리 나라 경제발전의 합법칙적요구와 현실적가능성을 옳게 타산한 유일하게 정당한 로선이며 맑스-레닌주의확대재생산리론을 우리 나라의 구체적실정에 맞게 적용한 창조적인 로선이며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에 기초하여 자립적민족경제를 빨리 건설할데 대한 당의 확고부동한 립장을 표현한 혁명적인 로선입니다.》(우와 같은 책, 21~22페지)

인민경제의 주도적부문인 공업은 그의 기술적장비에서나 부문별 구성에서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왔으며 공업생산은 매우 높은 수준에 도달하였다.

우리 농촌은 어떤 재해도 이겨내고 농업생산을 끊임없이 장성시킬수 있는 발전되고 문화적인 사회주의농촌으로 되였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옳은 교육문예정책에 의하여 우리 나라는 교육과 문화에서 세계적으로 발전된 나라로 되였다. 특히 일반교육과 기초기술교육을 배합하는 전반적9년제기술의무교육이 실시되여 우리의 후대들이 모두 전면적으로 발전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후비대로 자라고있으며 사회주의문화예술이 찬란히 꽃피고있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나라의 경제문화건설을 촉진하는 동시에 김일성동지께서 천명하신 독창적인 군사로선을 관철하여 어떠한 원쑤들의 침해로부터도 우리 혁명의 전취물을 굳건히 보위할수 있는 강력한 자위적국방력을 마련하여놓았다.

지난 20년동안에 일어난 심각한 사회경제적변혁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혁명과 건설에서 이룩된 빛나는 성과들에 의하여 우리 인민정권은 더욱 강화되고 국가사회제도는 비상히 공고화되였다.

우리의 인민정권은 확고한 정치적지반을 가지게 되였으며 단일한 사회주의적생산관계와 튼튼한 자립적민족경제의 토대에 의거하고있다.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인민정권은 혁명과 건설에서 그 기능과 역할을 끊임없이 높여왔으며 변천되는 환경에 맞게 사업체계와 사업방법을 계속 완성하여왔다.

특히 김일성동지께서 창조하신 위대한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과 이를 구현한 대안사업체계, 새농업지도체계는 국가경제기관들의 사업을 근본적으로 혁신하는 력사적계기로 되였으며 계획의 일원화와 세부화 방침은 경제에 대한 민주주의중앙집권적인 계획적지도를 가장 철저히 보장하는 새로운 길을 개척하였다.

참으로 우리 인민은 공화국의 기치밑에 조국의 새력사를 창조하는 영광스러운 투쟁에서 위대한 승리를 달성하였다.

우리 인민이 20년간에 달성한 승리와 성과들은 거대한 국제적의의를 가진다.

우리 인민은 위대한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수행하여 세기적으로 뒤떨어진 식민지였던 우리 나라를 발전된 사회주의조선으로, 세계혁명의 튼튼한 동방초소로 전변시킴으로써 국제혁명력량을 강화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우리의 성과는 특히 제국주의와 식민주의 예속을 반대하여 투쟁하는 인민들, 뒤떨어진 처지에서 독립과 진보의 길에 들어선 인민들이 번영과 륭성을 이룩하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사회주의적발전의 길을 따라 나아가야 하며 주체를 튼튼히 세우고 자력갱생의 혁명적원칙에서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는것을 힘있게 보여주고있다.

또한 우리 인민은 력사상 처음으로

미제를 격파한 위대한 모범으로써, 그리고 오늘 철벽같은 자위태세를 마련하여 혁명의 전취물을 믿음직하게 보위하고 미일제국주의자들의 침략기도를 파탄시키기 위한 영웅적투쟁을 통하여 미제를 반대하여 싸우는 모든 나라 인민들에게 승리의 신심을 안겨주고 반제반미투쟁을 크게 고무하고있다.

우리 나라의 수천년 력사에서 오늘처럼 우리 인민이 일대 민족적번영을 이룩한 때는 없으며 오늘처럼 영웅조선의 기상을 온세상에 떨친때는 일찌기 없었다.

우리의 모든 승리와 성과들은 오직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탁월한 령도에 의하여 이룩된것이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우리 인민은 오늘의 우리 나라의 위대한 현실, 우리 인민의 자유롭고 행복한 생활, 우리 조국의 무궁한 장래번영을 전적으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이름과 결부시키고 있는것이다.

2

김일성동지께서는 보고에서 지난 기간 우리 인민이 달성한 성과에 기초하여 사회주의제도를 더욱 공고발전시키며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할데 대한 력사적과업을 제시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확고한 주체사상과 철저한 혁명적립장으로부터 출발하시여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에 관한 문제에 고전적인 해명을 주시였으며 그를 보장하기 위한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의 과업 및 그 해결방도를 독창적으로 제기하시고 전면적으로 해명하시였다.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에 관한 문제는 오늘 국제공산주의운동에서 정확한 해명을 절박하게 요구하는 원칙적문제로 제기되고있다.

이 문제를 정확히 해결함이 없이는 사회주의제도를 수립한 다음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가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성과적으로 건설하여나갈수 없다. 현실은 이 문제에서 그릇된 립장을 취할때 각종 좌우경적편향을 범하게 되고 혁명과 건설에 심대한 후과를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고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관건적의의를 가지는 이 중대한 문제는 오직 우리 시대의 위대한 맑스-레닌주의자이시며 40여년간의 기나긴 혁명투쟁에서 고귀하고도 풍부한 경험을 쌓으신 혁명의 천재적수령 김일성동지에 의하여서만 빛나게 해결될수 있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에 관한 문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보장하기 위한 프로레타리아독재의 임무를 새롭게 전면적으로 해명하심으로써 맑스-레닌주의와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발전을 위하여 탁월한 리론실천적기여를 하시였으며 불멸의 위대한 공헌을 하시였다.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에 관한 김일성동지의 심오한 과학적해명은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어떻게 건설하여야 하는가 하는 근본립장과 방도를 천명한것으로서 우리 나라에서와 전세계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위한 투쟁의 강령적지침이며 그 승리를 확고히 담보하는 강유력한 리론실천적무기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사회주의국가는 정치, 경제, 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혁명을 계속하여야 한다고 가르치시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적대계급의 준동이 있고 낡은 사상의 부식작용이 계속되며 도시와 농촌간의 차이, 로동계급과 농민간의 계급적차이가 남아있으며 나라의 공업화가 완전히 실현되지 못하고 사회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가 튼튼히 마련되여있지 못한 사회는 아직 완전히 승리한 사회주의사회라고 말할수 없습니다.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보장하며 로동계급의 력사적위업을 완수하기 위하여 사회주의국가는 계급투쟁의 무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무기로서의 자기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여야 합니다. 다시말하여 사회주의국가는 프로레타리아독재를 강화하여 한편으로는 계급투쟁을 계속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주의경제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가야 할것입니다.》(우와 같은 책, 43~44페지)

우리 나라의 현실과 국제공산주의운동의 경험은 계급투쟁이 착취계급의 청산으로 끝나는것이 아니며 그것은 사회주의하에서도 계속된다는것을 보여주고 있다.

외부로부터 제국주의반동세력의 부단한 침략과 파괴책동이 감행되며 전복된 적대계급의 잔여분자들이 남아있으며 또한 사람들의 의식속에 낡은 사상잔재가 남아있는 한 이것은 불가피하다.

그러므로 사회주의국가는 프로레타리아독재를 계속 강화하여야 하며 계급투쟁을 철저히 수행하여야 한다. 특히 사회주의국가는 적대분자들에 대한 독재의 기능을 강화하여 그 준동을 철저히 진압하여야 한다.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사회주의사회의 적대적요소들은 그 자체로서는 그리 큰것이 아니지만 그것이 사회주의국가를 내부로부터 파괴하려는 제국주의자들의 리용물로 되고있는 조건에서 그것을 결코 소홀히 할수 없는것이다.

이와 함께 사회주의국가는 사회의 모든 계층들에 대한 로동계급의 령도적역할을 강화하며 사상혁명을 철저히 수행하여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여야 한다.

사상혁명을 포기하거나 약화시키게 되면 근로자들속에 남아있는 낡은 사상을 뿌리뽑을수 없으며 반동적부르죠아사상의 침습에 문을 열어주고 인민들의 정치사상생활에 엄중한 해독을 끼치게 된다. 오직 로동계급을 비롯한 광범한 대중을 로동계급의 의식과 혁명사상으로 부단히 교양하여야만 낡은 사상잔재를 남김없이 뿌리뽑을수 있으며 제국주의자들의 사상공세와 적대적인 부르죠아사상의 침습을 막을수 있으며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추진시켜나갈수 있다.

프로레타리아독재국가는 적대분자들의 음모책동을 반대하는 계급투쟁과 인민대중을 교양개조하여 단결시키는 사업을 옳게 결합시켜나가야 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적대분자들에 대한 진압은 프로레타리아독재국가의 기본기능이며 사회주의국가가 끝까지 수행하여야 할 계급투쟁의 형식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프로레타리아독재기능의 전부가 아니며 계급투쟁의 전반적형식을 다 포함하는것도 아닙니다. 사회주의사회에는 적대분자들을 진압하는 계급투쟁과 함께 근로자들속에 남아있는 낡은 사상을 뿌리뽑고 그들을 다 공산주의사상으로 무장시키기 위한 사상혁명을 중요내용으로 하는 계급투쟁의 기본형식이 있는것입니다.》(우와 같은 책, 150~151페지)

사회주의하에서 계급투쟁을 정확히 진행할데 대한 김일성동지의 교시는 공산주의자들이 계급투쟁의 무기를 튼튼히 틀어쥐고 어떤 좌우경적편향도 범함이 없이 프로레타리아독재의 력사적사명을 승리적으로 수행할수 있게 한다.

로동계급과 농민, 근로인테리의 단결과 협조가 사회관계의 기본을 이루고있는 사회주의사회에서 계급투쟁을 일면적으로 강조하고 과장한다면 좌경적오유를 범하게 된다.

또한 사회주의를 반대하는 내외의 원쑤들의 침략책동과 파괴암해책동이 계속되고있으며 낡은 사회의 사상잔재가 남아있는 조건에서 계급적립장을 떠난 무원칙한 《민주주의》와 《자유》를 실시한다면 엄중한 우경적오유를 범하게 된다.

사회주의하에서 인민대중의 진정한 정치적자유와 민주주의는 오직 프로레타리아독재를 강화함으로써만 보장될수 있다. 프로레타리아독재는 소수 적대분자들에 대하여서는 진압하고 인민대중에 대하여서는 민주주의를 실시한다. 그것은 가장 높은 형태의 민주주의이며 프로레타리아민주주의보다 더 나은 민주주의란 있을수 없다.

만일 사회주의하에서 프로레타리아독재를 부인하고 《순수민주주의》와 《완전한 자유》를 주장한다면, 프로레타리아민주주의의 계급성을 모호하게 하고 원칙적인 계급투쟁을 회피한다면 당과 로동계급의 령도적역할이 마비되고 혁명위업에 만회할수 없는 손실을 초래할수 있다.

우리는 지난날 그러하였던바와 같이 앞으로도 내외의 온갖 원쑤들을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하는 동시에 사상혁명을 선행시키고 사람들을 부단히 혁명화,로동계급화함으로써 혁명대오를 정치사상적으로 튼튼히 꾸리고 온나라를 혁명적정열로 들끓게 할것이며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새로운 승리를 달성할것이다.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위한 근본조건의 하나는 농촌문제를 종국적으로 해결하고 협동적소유를 전인민적소유의 수준에까지 끌어올리는것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이미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를 발표하심으로써 농촌문제를 종국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기본원칙과 방도를 전면적으로 해명하시였다.

과학적공산주의리론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킨 우리 시대의 탁월한 맑스-레닌주의문헌이며 농촌문제의 종국적해결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강령인 테제의 위대한 사상은 현실에 빛나게 구현되고있으며 그 생활력은 날이 갈수록 더욱 크게 나타나고있다.

우리는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명확한 방침에 따라 농촌에 대한 로동계급의 국가적지도와 방조를 계속 강화하고 농촌에서 기술혁명, 문화혁명, 사상혁명을 힘있게 추진시켜야 하며 현대적공업에 비한 농촌경리의 기술적락후성, 선진적인 도시에 비한 농촌의 문화적락후성, 가장 혁명적인 로동계급에 비한 농민의 사상적락후성을 없애고 전인민적소유와 협동적소유의 발전을 유기적으로 결합시키면서 협동적소유를 전인민적소유에로 끊임없이 접근시켜야 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려면 온갖 계급적차이를 없애며, 협동적소유를 전인민적소유의 수준에 끌어올리는 동시에 경제건설을 잘하여 사회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축성하여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적대분자들에 대한 독재와 사상혁명, 경제사업은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위한 투쟁의 뗄수 없는 구성부분이며 이 사업들은 밀접한 련관속에서 통일적으로 수행되여야 한다.

오직 프로레타리아독재와 계급투쟁을 계속 강화하면서 경제건설도 잘하며, 사상혁명을 앞세우면서 이와 병행하여 기술혁명도 힘있게 밀고나가야 사람들의 사상의식도 개조하고 사회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도 튼튼히 축성할수 있다.

사회주의국가는 공업과 농촌경리를 포함한 인민경제의 모든 부문을 계속 높은 속도로 발전시켜야 하며 사회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쌓고 모든 근로자들의 생활수준을 적어도 지난날의 중산계층의 생활수준이상으로 끌어올려야 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를 축성하는 가장 정확한 맑스-레닌주의적길을 밝히시고 사회주의경제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기적적인 성과를 달성할수 있게 하시였다. 우리는 경제건설에서 커다란 성과를 달성함으로써 나라의 독립을 공고히 하고 민족적번영의 새시대를 열어놓았으며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향하여 확신성있게 전진하고있다.

그러나 우리는 공업화의 기초를 쌓아올리고 기술혁명의 첫거보를 내디던데 지나지 않으며 사회주의제도에 상응하는 높은 생산력을 이룩하려면 아직 할 일이 많다.

우리는 나라의 공업화와 기술혁명과 문화혁명을 철저히 수행하여 사회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쌓고 인민들의 물질문화적수요를 더욱 원만히 충족시키도록 하여야 한다. 우리는 앙양된 혁명적기세를 늦추지 말고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의 병진로선을 철저히 관철하며 당면하여 이미 마련된 경제토대와 생산의 모든 잠재력을 최대한으로 동원리용하여 7개년계획의 수행을 앞당겨야 할것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보고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와 함께 사회주의의 종국적승리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의 길을 밝혀주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로동계급이 주권을 잡은 나라들이 제국주의와 대치하여 사회주의를 건설하며 전세계적범위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승리할 때까지 계

국주의침략과 자본주의복구의 위험을 면할수 없는 세계혁명발전의 객관적행정에 대한 과학적분석에 기초하여 사회주의의 종국적승리를 이룩하는 문제에 새로운 해명을 주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보고에서 사회주의의 종국적승리를 이룩하기 위하여서는 자체의 혁명력량을 백방으로 강화하는 동시에 사회주의나라들의 계급적동맹과 사회주의진영의 통일단결을 강화하고 그 위력을 튼튼히 하며 세계사회주의혁명의 다른 부대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이것은 자기 나라 혁명과 국제혁명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투쟁하는 모든 사회주의나라들이 변함없이 견지하여야 할 지침이다.

여기에서 근본적의의를 가지는것은 사회주의진영의 확고한 통일을 보장하는것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가르치시였다:

《사회주의진영은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종국적승리를 위한 국제로동계급의 불패의 혁명기지이며 전세계피압박인민들과 모든 진보적인민들의 승리의 믿음직한 보루이며 세계평화의 위력한 성새입니다.》(우와 같은 책, 58페지)

사회주의진영의 통일을 고수하며 그의 계급적련대성을 강화하는것은 이 진영에 대한 제국주의자들과 온갖 반동들의 파괴책동이 더욱 격화된 현조건에서 특별히 첨예한 문제로 나서고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진영의 진정한 통일과 단결을 이룩하려는 일관한 념원으로부터 출발하여 가장 정당한 립장과 원칙적방도를 다시금 천명하시였다.

사회주의나라들이 진실로 계급적립장을 확고히 견지하고 혁명의 근본리익에서 출발한다면 이 나라들간의 의견상이가 아무리 심각하다 하여도 반드시 해결할수 있으며 통일단결을 끊임없이 강화할수 있다.

사회주의나라들은 언제나 형제당, 형제나라들간의 호상관계의 규범을 엄격히 지키며 특히 자주성을 견지하면서 국제주의적단결을 강화하여야 한다.

사회주의나라들과 공산당 및 로동당들은 국제혁명대오의 평등하고 자주적인 민족부대들로서 자기 나라 혁명에 대하여 책임질뿐만아니라 세계혁명에 대하여 책임진다.

오직 자주성을 견지하여야 자기 나라에서 혁명과 건설을 잘할수 있고 세계혁명에 기여할수 있으며 형제당, 형제나라들과 진정한 동지적관계와 국제주의적단결을 부단히 발전시킬수 있다.

자주성을 잃고 남을 맹목적으로 따르게 되면 혁명과 건설에서 난관을 겪게 되며 형제당, 형제나라들과의 관계에서도 복잡한 문제들을 조성하게 된다. 자주성을 견지하는것은 사회주의진영의 통일을 강화하기 위한것이며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에 충실한것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가 주장하는 자주성은 결코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와 모순되지 않을뿐만아니라 반대로 그것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것입니다.— 자주성을 떠난 국제주의가 있을수 없는것과 마찬가지로 국제주의를 떠난 자주성도 있을수 없습니다.》(우와 같은 책, 64페지)

혁명하는 사람들은 결코 국제주의를 떠나서 민족리기주의를 추구할수 없다.

만일 자주성을 견지한다는 구실밑에 맑스-레닌주의와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를 배반하고 계급적형제들과의 공동행동과 공동투쟁을 거부한다면 그것은 도대체 공산주의자의 태도가 아니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승리를 촉진하기 위하여, 세계혁명의 승리를 위하여 사회주의진영의 통일과 국제공산주의운동의 단결을 강화하는데 모든 힘을 다할것이다.

3

김일성동지께서는 공화국창건 스무돐기념경축대회에서 하신 보고에서 반제반미투쟁에서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가 견지하고있는 일관한 방침과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방침

을 밝히시였다. 이것은 조선혁명과 세계혁명이 제기하는 절박한 문제들에 정확한 해명을 준것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광범한 반제력량을 동원하여 현대의 가장 야만적이며 가장 파렴치한 침략자이며 세계제국주의의 두목인 미제를 반대하는 투쟁에 공격의 예봉을 돌릴데 대한 세계혁명의 기본전략을 천명하시였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사회주의나라들을 반대하는 침략과 파괴책동을 더욱 격화시키고있으며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인민들의 민족해방투쟁을 가혹하게 탄압하는 흉악한 교살자로 등장하고있다. 미제국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을 떠나서는 세계평화를 수호할수 없으며 민족적해방과 독립도, 민주주의와 사회주의의 승리도 이룩할수 없다.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아세아와 구라파, 아프리카와 라틴아메리카, 큰 나라와 작은 나라 할것없이 미제가 침략의 마수를 뻗치고있는 모든 지역, 모든 나라들에서 광범한 반제력량이 공동으로 반미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하며 그와 함께 일본군국주의와 서부독일군국주의를 비롯한 미제의 앞잡이들과 그 동맹자들을 반대하여 투쟁하여야 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특히 혁명을 하는 작은 나라 인민들이 힘을 합쳐 미제의 각을 뜨고 미제를 때려부실데 대한 투쟁전략을 새롭게 제시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비록 작은 나라들이라고 하더라도 제국주의를 반대하여 더욱 많은 나라들이 힘을 합쳐 견결히 투쟁한다면 매 전선에서 인민들은 결정적으로 우세한 힘을 가지고 미제국주의를 때려눕힐수 있습니다. 혁명하는 모든 나라 인민들이 세계의 이르는 곳마다에서 미국놈들의 팔다리도 뜯어내고 머리를 잘라버려야 합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이 강한것 같이 보이지만 이렇게 여러 나라 인민들이 사면에서 공격을 들이대고 모두 달라붙어 각을 뜨면 그들은 맥을 추지 못할것이며 결국에 가서는 멸망하고야말것입니다.》(우와 같은 책, 71페지)

이것은 미제의 세계전략과 현시기 반제반미투쟁의 구체적정세를 정확히 분석하신데 기초하여 제시하신 가장 과학적인 투쟁방침이다. 그것은 혁명을 하는 작은 나라들이 남을 쳐다볼것이 아니라 자기가 처한 위치에서 자주적으로 반제반미투쟁을 강력히 전개하게 함으로써 세계도처에서 투쟁의 불길이 더욱 세차게 타오르게 하고 미제의 종국적멸망을 촉진시키는 철저하게 혁명적인 전략이다.

지난 조국해방전쟁에서의 우리 인민의 투쟁경험은 비록 크지않은 나라의 인민도 자기의 힘을 믿고 하나로 굳게 뭉쳐 견결히 일떠서 투쟁한다면 미제를 능히 타승할수 있다는것을 사실로써 보여주었다. 꾸바혁명의 승리와 윁남인민의 승리적인 반제반미투쟁의 경험도 역시 이것을 잘 보여주고있다.

혁명하는 작은 나라 인민들이 승리의 신심을 가지고 용기백배하여 투쟁에 떨쳐나서며 단결된 힘으로 앞뒤좌우에서 련속 타격을 가한다면 반드시 미제의 마지막 숨통을 끊어버릴수 있다.

김일성동지께서 천명하신 반제반미투쟁전략은 세계의 혁명적인민들의 심장을 굳게 틀어잡고있으며 그들의 확고한 투쟁지침으로 되고있다. 그것은 더욱더 많은 나라 인민들을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킬것이며 그들의 혁명투쟁을 승리에로 인도할것이다.

남조선혁명을 완수하고 조국의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은 세계인민들의 반제반미투쟁과 밀접한 련관속에서 발전하고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금번의 력사적보고에서 100여년이래의 피맺힌 원쑤, 해방후 20여년간 민족분렬의 재난을 강요하고있는 우리 인민의 철천지 원쑤인 미제를 남조선에서 몰아내고 우리 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촉진하기 위한 정확한 전략전술적방침을 다시금 명확히 천명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남조선인민들은 오직 자신의 결정적투쟁에 의해서만 억압자들을 뒤집어엎고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쟁취할수 있습니다. 남조선인민들은 미제국주의자들을 남조선에서 몰아내며 그의 식민지통치를 때려부시기 위한 투쟁을 주권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과 밀접히 결합시켜 진행하여야 하며 여기에 모든 형태의 투쟁을 복종시켜야 합니다.**》(우와 같은 책, 79페지)

김일성동지께서 교시하신 바와 같이 남조선혁명수행에서 정치투쟁과 경제투쟁, 합법투쟁과 비합법투쟁, 폭력투쟁과 비폭력투쟁 그리고 작은 규모의 투쟁과 큰 규모의 투쟁 등 모든 형태의 투쟁은 례외없이 주권전취를 위한 결정적투쟁의 준비로 되여야 하며 그 결정적투쟁은 오직 폭력적방법에 의해서만 승리할수 있다.

오늘 남조선혁명가들과 애국적인민들은 원쑤들의 파쑈적폭압을 박차고 미제와 그 주구들을 반대하여 무장투쟁을 비롯한 혁명투쟁을 더욱 적극적으로, 더욱 다양한 방법으로 전개하고있다. 원쑤들은 그 어떠한 광란적폭압으로써도 남조선인민들의 혁명력량의 장성을 억제할수 없으며 남조선혁명의 승리적전진을 가로막을수 없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가 일관하게 견지하고있는 조국통일의 기본방침을 다시금 천명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 공화국정부가 일관하게 주장하고있는 조국통일의 기본방침은 남조선에서 모든 외국군대를 철거시킨 다음 어떠한 외세의 간섭도 없이 조선인민자신의 손에 의하여 자주적으로 민주주의적원칙에서 남북통일을 실현하자는것입니다.**》(우와 같은 책, 84페지)

자주적이며 민주주의적원칙에 기초하여 조국의 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남조선에서 미제침략자들을 몰아내고 그 주구 괴뢰정권을 타도하여야 한다.

남조선의 실제적지배자인 미제침략자들이 남조선을 그러쥐고있는 한 결코 조국의 자주적통일은 실현될수 없다.

또한 미제의 총검에 의하여 날조된 미제의 충실한 앞잡이이며, 미제의 침략정책을 집행하는 도구인 남조선괴뢰정권을 타도함이 없이는, 조국과 민족을 배반하고 미제침략자들에게 아부굴종하는 민족반역자, 매국노의 집단인 괴뢰도당을 그대로 두고서는 민주주의적원칙에서 조국의 통일을 실현할수 없다.

남조선인민들은 미제침략자들을 몰아내고 그 주구인 괴뢰정권을 타도하며,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각계각층 인민의 리익을 대표하는 진정한 인민주권을 세우기 위하여 억세게 싸워야 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조국의 평화적통일을 위한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주장이 결코 미제와의 투쟁을 배제하는것이 아니며, 민족의 원쑤들과의 《타협》이나 사회제도의 이른바 《평화적이행》에 관한 《리론》과는 아무런 공통성도 없다고 명확히 천명하시였다.

우리 조국의 통일문제는 그 구체적방도가 어떻든지간에 오직 미제침략자들을 우리 강토에서 몰아내고 남조선괴뢰정권을 때려부신 다음에야 비로소 이룩될수 있다.

남북조선의 전체 인민은 통일된 조국,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모시고 4천만 조선인민이 지혜와 힘을 모아 건설하게 될 더욱 번영하고 살기좋은 새조선을 휘황히 내다보면서 조국의 통일위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힘찬 투쟁을 벌리고있다.

공화국기치하에 조국을 통일하기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은 정당한 위업이며 그것은 전세계인민들로부터 적극적인 지지를 받고있다.

반미구국의 기치밑에 남북조선에서 전개되고있는 우리 인민의 장엄한 투쟁에 의하여 미제침략자들은 남조선에서 쫓겨날것이며 남조선혁명은 승리하고 조국은 우리 세대에 반드시 통일될것이다.

* *

김일성동지의 력사적보고는 우리의 사회주의제도를 더욱 공고발전시키고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보장하며 남조

선혁명과 조국의 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명확한 전망과 전투적과업을 명시한 강령적문헌이다.

우리 혁명의 종국적승리를 위한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전략적구상과 그이의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를 집중적으로 구현하고있는 보고는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심장을 한없이 격동시키고있으며 조선혁명의 완성을 위하여, 세계혁명의 승리를 촉진하기 위하여 더욱 억세게 싸워나가도록 우리를 힘있게 불러일으키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보고를 심장으로 받들고 그이께서 가르치신대로 실천하여 나갈 때 우리 인민은 반드시 새로운 보다 위대한 승리를 이룩할것이다.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김일성동지의 보고를 심오히 학습하고 그에 담겨져있는 수령의 위대한 혁명사상을 자신의 뼈와 살로 만들며 그이께서 제시하신 과업을 실천하기 위하여 한사람같이 떨쳐나서야 한다.

여기에서 근본적의의를 가지는것은 전당과 전체 인민을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철저히 무장시키고 전사회의 혁명화, 로동계급화를 촉진함으로써 우리의 혁명대오를 정치사상적으로 더욱 튼튼히 꾸리는것이다.

이와 함께 우리는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혁명적대고조의 불길을 계속 높이고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의 병진로선을 확고히 관철함으로써 7개년계획의 수행을 앞당기고 우리의 물질적력량을 반석같이 다지기 위하여 전진, 전진, 투쟁 또 전진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탁월한 령도밑에 주권을 자기 손에 튼튼히 틀어쥐고 전진하는 우리 인민의 혁명위업은 필승불패이며 우리앞에는 오직 위대한 승리, 찬란한 미래가 있을뿐이다.

모두다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민족적 영웅이시며 백전백승의 강철의 명장이시며 국제공산주의운동과 로동운동의 탁월한 령도자의 한분이신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위에 굳게 뭉쳐 우리 혁명의 종국적승리를 위하여 힘차게 싸워나아가자!

근 로 자 제9호 (루계 319호)

편집위원회

발행소 • 근 로 자 사 주소 • 평양시 중구역 남문동

인쇄소 • 평양종합인쇄공장

인 쇄 • 1968년 9월 25일 발행 • 1968년 9월 30일

ㄱ—83508 값 50전

전세계 로동자들은 단결하라!

10 호

평 양 근로자사 1968

전세계로동자들은 단결하라!

근로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 10 호 (320)

차 례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인민들의 위대한 반제혁명 위업은 필승불패이다

(체 게바라 전사 한돐에 즈음하여)

김 일 성

라틴아메리카인민이 낳은 불굴의 혁명투사이며 참다운 국제주의전사인 에르네스또 체 게바라동지가 볼리비아의 전투마당에서 장렬하게 전사한 때로부터 1년이 가까와오고있다. 조선인민은 전세계 혁명적인민들과 함께 불타는 적개심과 깊은 애도의 뜻을 가지고 체 게바라동지의 서거 한돐을 맞이하고있다.

체 게바라는 일찌기 청년시절부터 반제반미투쟁의 기치를 높이 들고 인민의 자유와 해방을 위한 성스러운 투쟁의 길에 나섰으며 피압박인민들의 혁명위업을 위하여 온 생애를 바쳤다.

중세기의 종교적 및 정치적 환상에 의하여 은폐되고있던 착취를 공공연하고 파렴치하며 직접적이고 잔인한 착취로 바꾸어놓았으며 사람의 인격적가치를 교환가치로 전환시킨 피비린내나는 근대부르죠아력사무대가 서막을 올린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장구한 기간 지구상의 수많은 공산주의자들과 혁명투사들이 낡고 썩은 모든 것을 쓸어버리고 전사회구조를 혁명적으로 재편성하기 위한, 저주로운 낡은 사회의 상층부를 폭파하고 자유롭고 행복한 새 사회의 보금자리를 닦기 위한 혁명적폭풍우속에서 피를 흘렸으며 목숨을 바쳤다. 체 게바라는 이 성스러운 투쟁에 자기의 고귀한 생명을 바침으로써 세계혁명렬사대렬의 영광스러운 한 성원으로 되였다.

체 게바라는 투쟁에서 지칠줄 모르는 불굴의 혁명가였으며 편협한 민족주의적 감정에서 완전히 벗어난 참다운 국제주의전사였다. 그는 자기의 일생을 통하여 견결한 혁명투사, 참다운 국제주의자의 훌륭한 모범을 보여주었다.

체 게바라는 피델 까스뜨로동지를 비롯한 꾸바혁명가들과 함께 영웅적인 무장투쟁을 벌려 미제와 그 앞잡이 바띠스따독재정권을 때려부시고 꾸바혁명의 승리를

이룩하는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1965년에 체 게바라는 불타는 혁명열의를 가지고 승리한 꾸바땅을 떠나 수많은 난관과 준엄한 시련이 기다리는 새로운 초소에로 투쟁무대를 옮겼다. 그는 라틴아메리카의 이르는곳마다에서 미제와 그 앞잡이들을 반대하는 무장투쟁에로 인민대중을 조직동원하였으며 그 앞장에서 생명의 마지막 순간까지 용감하게 싸웠다.

체 게바라의 이러한 혁명적활동은 꾸바혁명의 승리를 더욱 공고히 하고 전반적라틴아메리카혁명의 발전을 추진하는데 커다란 공헌을 하였다.

꾸바혁명의 승리는 라틴아메리카에서 일어난 사회주의혁명의 첫승리이며 라틴아메리카에서의 위대한 10월혁명의 계속이다. 꾸바혁명이 승리함으로써 얼마전까지만 하여도 미제의 세습령지로 간주되였던 라틴아메리카에 오늘은 사회주의의 붉은 기치가 높이 휘날리게 되였으며 사회주의진영이 서반구에까지 확대되고 그 위력이 비상히 강화되였다. 오늘 라틴아메리카혁명의 맨 앞장에서 확고하게 나아가는 꾸바공화국은 싸우는 라틴아메리카인민들의 희망의 등대로 되고있으며 그들의 투쟁의 앞길에 승리의 서광을 비쳐주고있다. 꾸바혁명의 승리는 서반구에서 미제국주의자들의 식민지체계를 밑뿌리채 뒤흔들어놓았으며 온 라틴아메리카를 혁명적폭풍우속에 휘몰아넣고 이 지역 인민들을 독립과 자유를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로 힘있게 추동하고있다. 실로 꾸바혁명의 승리는 라틴아메리카에서 미제의 식민지통치체계의 붕괴의 발단이였으며 장구한 기간 이 지역 인민들을 착취하고 억압하던 미제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였으며 멸망의 선고였다.

꾸바혁명의 승리를 공고히 하는것은 꾸바인민의 생사흥망을 결정하는 중대한 문제일뿐만아니라 전반적라틴아메리카혁명발전의 운명을 좌우하는 관건적인 문제이다..

혁명은 한나라에서 찬란한 성과를 거두면서 시작되여도 상당한 고통스러운 진통의 시기를 겪게 된다. 국제자본주의의 포위속에서 프로레타리아트가 정권을 장악한 나라들은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에로의 혁명적이행의 전력사적시기에 제국주의의 침략과 자본주의복구의 위험을 면할수 없다. 전복된 착취계급들이 빼앗긴 자기들의 옛지위를 되찾으려고 언제나 시도하며 외래제국주의자들이 무력침공과 정치사상적와해를 위한 음모책동을 끊임없이 계속한다.

미제국주의자들과 라틴아메리카의 반동들은 꾸바공화국의 존재자체를 몹시 미워하고 무서워하며 꾸바공화국을 교살하기 위하여 집요하고 악랄하게 책동하고있다. 그들은 꾸바혁명을 말살함으로써 서반구를 배회하고있는 공산주의의 《유령》을 몰아내고 라틴아메리카에서 료원의 불길처럼 타오르고있는 인민들의 해방투쟁을 막아보려고 피하고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직접 자기들의 무력을 동원하여 꾸바를

압살하려고 꾀하는 한편, 저들의 지배와 예속 밑에 있는 라틴아메리카의 반동적독재정권들을 사촉하여 꾸바에 대한 정치경제적압력을 가하며 봉쇄정책으로써 꾸바를 질식시키려 하고있다.

국제자본의 포위속에서 주권을 잡은 인민들이 혁명의 종국적승리를 이룩하기 위하여서는 자체의 주체적력량을 백방으로 강화하는것과 함께 세계사회주의혁명의 다른 부대들의 믿음직한 후원을 받아야 하며 만국의 로동계급과 전세계 피압박인민들의 광범한 국제적협조를 받아야 한다. 말하자면 세계의 대다수 나라, 적어도 주변의 여러 나라들에서 혁명이 련속적으로 일어나 제국주의적포위를 사회주의적포위로 바꾸어야 하며 사회주의국가를 포위하고있는 제국주의의 장벽을 허물어버리고 프로레타리아독재의 세계적체계에로의 전환의 길을 열어놓아야 하며 포위당한 일국의 사회주의요새의 고립성을 없애고 국제로동계급과 세계피압박인민들의 전투적련대성의 강력한 뉴대를 이루어놓아야 한다. 오직 이렇게 될 때에라야만 제국주의자들의 무력간섭과 자본주의복구의 시도를 완전히 면할수 있고 사회주의의 종국적승리가 보장되였다고 말할수 있을것이다.

인민들의 해방투쟁은 자본의 힘이 국제적인것처럼 국제적인 운동이다. 개별적인 나라들의 혁명운동은 민족적인것인 동시에 세계혁명의 한부분이다. 매개 나라 인민들의 혁명투쟁은 서로 지지하고 보충하는 관계에 있으며 세계혁명이라는 하나의 흐름에 합류하고있다. 먼저 승리한 혁명은 자기의 경험과 모범으로써 아직 승리하지 못한 나라들의 혁명을 도와주고 자기의 정치경제군사적힘으로 세계인민들의 해방투쟁을 적극 지원하며 아직 혁명이 승리하지 못한 나라 인민들은 더욱 적극적으로 투쟁하여 제국주의자들의 압살정책으로부터 승리한 다른 나라 혁명을 보위하고 자기 나라 혁명의 승리를 앞당겨야 한다. 이렇게 하는것은 세계혁명운동발전의 법칙이며 이미 인민들의 해방투쟁과정에서 이룩된 훌륭한 전통이다.

꾸바혁명은 세계혁명의 유기적인 한부분이며 특히 라틴아메리카혁명의 결정적인 고리이다. 꾸바혁명을 보위하며 그 승리를 공고발전시키는것은 꾸바인민들의 의무일뿐만아니라 라틴아메리카의 피압박인민들과 세계 모든 혁명적인민들의 국제주의적의무이다. 세계자본주의체계에 첫돌파구를 낸 로씨야에서의 10월혁명의 전취물을 보위하는것이 세계혁명발전의 운명을 좌우하는 중대한 문제였다면 라틴아메리카에서의 미제국주의의 식민지체계에 첫돌파구를 낸 꾸바혁명의 전취물을 보위하는것은 라틴아메리카혁명의 운명을 결정하는 중대한 문제이다.

꾸바혁명을 보위하기 위하여서는 그 주변에 있는 라틴아메리카나라들에서 혁명운동을 발전시키는것이 매우 중요하다. 미제가 발붙이고있는 라틴아메리카의 여

더 나라들에서 혁명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면 미제의 힘은 그만큼 분산약화될것이며 힘을 집중하여 꾸바를 질식시키려는 미제국주의자들과 그 앞잡이들의 책동은 파탄을 면치 못할것이다. 더 나아가서 라틴아메리카의 다른 몇개 나라에서 혁명이 승리하면 꾸바는 제국주의의 사면포위에서 벗어나게 되고 꾸바와 라틴아메리카의 혁명에는 유리한 국면이 열리게 될것이며 세계혁명은 더욱 촉진될것이다.

혁명이 일어나려면 혁명의 주객관적정세가 조성되여야 한다. 혁명은 매개 나라에서 객관적혁명정세가 조성되는 구체적실정에 따라 전개되여야 한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혁명이 저절로 발전될수 있다거나 성숙될수 있다는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혁명은 반드시 혁명가들의 적극적이고도 간고한 투쟁을 통하여서만 전진될수 있으며 성숙될수 있다. 혁명이 간고하다고 하여 유리한 정세가 오기만 기다리면서 적극적인 투쟁을 벌리지 않는다면 혁명력량을 장성시킬수 없다. 혁명력량은 투쟁이 없이 자연발생적으로 마련될수 없으며 오직 간고한 투쟁을 통하여서만 장성강화될수 있다. 적들의 탄압으로부터 혁명력량을 보존하는 동시에 적극적인 투쟁을 통하여 그것을 끊임없이 축적하고 장성시켜 혁명의 결정적시기를 맞이할 준비를 하지 않는다면 비록 객관적정세가 조성되였다 할지라도 혁명의 승리를 이룩할수 없게 될것이다. 희생을 피한다는 구실밑에 혁명을 외면하는것은 사실상 인민들을 자본의 종신노예로 되라는것이며 참혹한 착취와 압박, 모진 천대와 멸시, 수많은 고통과 희생을 영원히 참으라는것과 같다. 일반적으로 혁명적전환기의 급성적동통은 낡은 사회의 종양으로부터 오는 만성적고통보다는 훨씬 경한 법이다. 사회혁명은 백주에 탄탄한 대로를 따라가듯이 헐하게 될수 없으며 순풍에 돛을 단 배와 같이 순조롭게 전진하는것도 아니다. 혁명도상에는 험한 가시덤불과 파란곡절도 있을수 있으며 일시적인 실패와 부분적인 희생도 있을수 있다. 난관을 이겨내지 못하고 희생이 두려워서 혁명을 주저한다면 그것은 혁명가의 태도가 아니다.

매개 나라 혁명가들의 과업은 국내외정세를 옳게 판단하고 적아간의 력량관계를 옳게 타산한 기초우에서 과학적이고 면밀한 투쟁방법을 세우고 평상시에는 암초를 에돌고 필요없는 희생을 피하면서도 적극적인 투쟁을 벌려 간고한 혁명의 시련속에서 핵심을 키우고 인민대중을 각성시켜 혁명력량을 축적하고 장성시키며 혁명적대사변을 맞이할 만단의 준비를 갖추는것이다. 그리하여 일단 혁명정세가 조성되면 때를 놓치지 말고 지체없이 반동통치를 짓부시는 결정적투쟁에 일떠서야 한다.

혁명투쟁의 형태와 방법도 역시 개별적인 사람들의 의사에 따라 결정되는것이

아니며 그것은 어디까지나 조성된 주객관적정세와 그리고 반동통치계급의 반항여하에 따라 결정되는것이다. 혁명가들은 모든 투쟁형태에 다 준비되여있어야 하며 정치투쟁과 경제투쟁, 폭력투쟁과 비폭력투쟁, 합법투쟁과 비합법투쟁 같은 여러가지 투쟁형태와 방법을 옳게 배합하여 혁명운동을 쉴새없이 발전시켜나가야 한다.

반혁명적폭력은 모든 착취계급에게 있어서 필수적인 통치수단이다. 인류력사는 아직 어떤 통치계급이 자기의 지배권을 순순히 양보한 일을 알지 못하며 어떤 반동계급이 반혁명적폭력을 쓰지 않고 공순히 정권에서 물러선 실례를 알지 못한다. 특히 제국주의자들은 멸망이 가까와오면 올수록 자기의 지배를 유지하기 위하여 폭력수단에 더욱더 필사적으로 매여달린다. 제국주의자들은 자기 나라 인민들을 탄압할뿐만아니라 다른 나라에 대한 침략과 략탈을 목적으로 군사력을 동원하여 피압박민족들의 모든 혁명적진출을 류혈적으로 탄압한다.

이런 조건에서 피압박인민들의 해방투쟁은 외래제국주의자들과 그와 결탁한 국내 착취계급의 반동적독재기구를 전복하는 혁명적폭력이 없이는 승리할수 없다. 폭력에는 폭력으로 맞서야 하며 혁명적무력으로써 반혁명적무력을 격파하여야 한다.

오늘 라틴아메리카에서 세차게 타오르는 혁명의 불길은 이 지역에 조성된 혁명정세가 가져온 응당한 결과이다.

라틴아메리카의 절대다수의 나라들이 미제국주의의 완전한 지배와 예속 밑에 들어갔다. 라틴아메리카의 많은 나라들에 친미독재정권이 수립되였으며 이 나라들의 경제는 미국독점체들의 완전한 예속경제로 되였다. 라틴아메리카에 대한 미제의 침략과 략탈정책은 이 지역의 사회발전을 저애하는 기본질곡으로 되고있으며 이 지역 인민들을 참을수 없는 불행과 고통 속에 몰아넣고있다. 미제국주의자들과 라틴아메리카의 친미독재정권들은 군대와 경찰을 비롯한 각종 폭압기구를 대대적으로 늘여놓고 인민들의 온갖 혁명적진출을 가장 야수적으로 탄압하고있다.

헐벗고 굶주리며 압박받고 천대받는 라틴아메리카인민들이 압제자들을 반대하여 손에 무장을 들고 용감히 일떠서 싸우지 않고서는 자유와 해방을 쟁취할수 없다는것이 명백하다.

체 게바라가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의 기치, 반제반미투쟁의 기치밑에 라틴아메리카의 혁명가들과 함께 꾸바혁명을 보위하며 이 지역 피압박인민들의 해방의 날을 앞당기기 위하여 손에 무장을 들고 희생을 무릅쓰면서 라틴아메리카의 여러 나라에서 적극적이고 영웅적인 혁명투쟁을 벌린것은 지극히 정당한 일이며 또 훌륭한 일이다. 전세계 혁명적인민들은 라틴아메리카혁명가들과 함께 영웅적무장투쟁을 전개한 체 게바라의 용감한 행동에 대하여 깊은 공감을 표시하고있다. 체 게바라의 빛나는 모범은 비단 라틴아메리카인민들의 혁명투쟁뿐만아니라 아세

아, 아프리카 인민들의 해방투쟁의 구감으로 되고있으며 그들을 영웅적위훈에로 고무하고있다.

체 게바라는 지금 우리 곁에 없다. 그러나 그가 흘린 피는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다. 그의 이름과 그가 쌓아올린 불멸의 혁명적업적은 인류해방사에 영원히 기록될것이며 그의 고상한 혁명정신은 영생불멸할것이다.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의 혁명투쟁의 결전장들에는 수천, 수만의 새로운 체 게바라가 나타날것이며 그가 다하지 못한 혁명위업은 라틴아메리카의 혁명가들과 세계혁명적인민들의 투쟁에 의하여 반드시 이룩될것이다.

오늘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는 가장 치열한 반제전선으로 되고있다. 제국주의는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인민들의 강력한 항쟁에 부딪치고있으며 가장 심대한 타격을 받고있다. 그러나 제국주의는 이 지역에서 자기의 옛지위를 유지하며 잃어버린 진지를 되찾으려고 필사적으로 발악하고있다.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인민들의 해방위업은 끝나지 않았다. 지구상에 제국주의가 살아있고 인민들을 억압하고 략탈하는한 인민들은 잠시도 반제국주의투쟁을 멈출수 없다. 투쟁은 지구상에서 온갖 형태의 식민주의를 종국적으로 쓸어버릴 때까지, 억압당하고 천대받던 모든 민족이 자기의 독립국가를 건설하고 사회적진보와 민족적번영을 이룩할 때까지 계속되지 않으면 안된다.

제국주의는 쫓겨나지 않는한 식민지예속국가들에 대한 자기의 지배를 결코 버리지 않을것이다. 침략과 략탈은 제국주의의 본성이다. 침략적이 아닌 제국주의가 있다면 그것은 벌써 제국주의가 아니다. 제국주의의 침략적본성은 죽을 때까지 변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제국주의에 대한 온갖 환상을 버려야 하며 제국주의를 반대하여 끝까지 싸워야 한다. 오직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원칙적립장을 견지하고 견결한 반제투쟁을 강화하여야만 피압박민족들은 자유와 독립을 이룩할수 있으며 해방된 인민들은 제국주의의 침략을 저지시키고 민족적독립을 튼튼히 하며 나라와 민족의 번영을 이룩할수 있다.

미제국주의는 현대의 가장 야만적이고 가장 흉악한 제국주의이며 세계제국주의의 우두머리이다. 미제국주의에 의하여 자기의 자주권과 령토를 침해당하고있거나 미제의 침략위협을 받고있는 나라는 아세아와 라틴아메리카의 나라들만이 아니며 아프리카의 나라들만이 아니다. 지구상에는 미제국주의의 침략의 마수가 미치지 않는 곳이 없으며 미제의 발길이 닿는 곳에 인민들의 피가 흐르지 않는데가 없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온 세계를 자기의 예속밑에 넣으려는 변함없는 목적을 추구하고 있다. 다름아닌 이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미제는 사회주의나라들과 신생독립국

가들을 반대하는 무력침공과 파괴활동을 끊임없이 감행하며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인민들의 해방투쟁을 야수적으로 탄압하고있는것이다. 미제국주의의 이 침략적야망을 단호히 꺾어버리지 않으면 안된다. 미제국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을 떠나서 세계의 평화를 수호할수 없으며 민족적해방과 독립도, 민주주의와 사회주의의 승리도 이룩할수 없다는것이 명백하다. 반미투쟁은 세계의 모든 인민들이 회피할수 없는 공동의 의무이며 가장 선차적인 혁명과업이다.

미제국주의를 성과적으로 격파하기 위하여서는 미제의 세계전략을 철저히 간파하는것이 필요하다.

현시기 세계침략을 위한 미제의 기본전략은 큰 나라들과는 될수록 관계를 악화시키지 않고 대결을 피하면서 작고 분렬된 혁명적인 사회주의나라들과 신생독립국가들은 무력으로 각개격파하려 하며 사상적으로 나약하고 혁명을 하지 않으려 하며 제국주의와의 무원칙한 공존만 부르짖으면서 인민들속에서 제국주의에 대한 환상을 퍼뜨리며 제국주의와 사이좋게 살기를 바라는 나라들에 대하여서는 사상정치적공세를 강화하여 이 나라들을 내부로부터 와해하려 하는것이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이와 같은 세계전략에 기초하여 군비를 대대적으로 늘이고있으며 사회주의나라들과 진보적나라들을 공격하기 위한 군사기지들과 침략적군사동맹을 더욱 강화하고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전면전쟁과 핵전쟁을 대대적으로 준비하면서 웰남을 비롯한 일련의 지역들에서 《국부전쟁》과 《특수전쟁》을 로골적으로 감행하는 길에 들어섰다.

이와 함께 미제국주의자들은 로동운동의 대렬안에서 혁명을 두려워하는 비겁분자들을 매수하여 저들의 앞잡이로 리용하려고 미쳐날뛰는 한편, 일부 나라들에서의 《자유화》와 《민주주의적발전》을 조장하기 위한 새로운 형태의 랭전에 매달리고있다. 그들은 《최혜국》대우니, 《동서간의 접촉과 교류》를 확대한다느니 하면서 그것을 수단으로 저들의 반동적사상문화를 침투시켜 인민들을 사상적으로 타락시키고 경제를 발전시키지 못하게 하여 이 나라들을 내부로부터 파괴하려고 시도하고있다. 제국주의자들은 신생독립국가들을 반제전선에서 하나하나 떼내기 위한 파괴활동과 전복음모를 감행하고있다. 그들은 로골적인 폭력에 의거하는것과 함께 《원조》를 미끼로 신생독립국가들에 침투하여 이 나라들의 내정에 간섭하고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우익반동들을 규합하여 진보적력량을 반대하게 하며 일부 신생독립국가들을 반혁명의 길로 돌려세우려 하고있다.

말하자면 미제국주의자들은 한손에는 감람나무가지를 들고 다른 한손에는 화살을 쥐고 휘두르면서 핵공갈과 《평화적침투》, 탄압과 회유기만을 결합하여 혁명

적인 나라들은 무력침략으로 하나하나 먹어가며 사상적으로 나약한 나라들은 사상문화적침략으로 와해시키려고 피한다.

전세계 인민들은 미제의 이와 같은 음모책동에 대하여 최대의 경각성을 가져야 하며 있을수 있는 적들의 각종 침략에 대처하여 만단의 준비를 갖추고있어야 할 것이다.

반제반미투쟁을 힘있게 발전시키기 위하여서는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모든 지역, 모든 나라, 모든 당파들과 모든 사람들, 모든 력량의 전투적단결을 최대한으로 강화하는것이 중요하다.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인민들은 공통된 념원과 지향을 가지고있음으로 하여 그들의 혁명투쟁은 밀접한 련관속에서 진행되고있다. 라틴아메리카가 제국주의기반에서 신음하면 아세아와 아프리카 인민들이 편안할수 없으며 아세아와 아프리카 지역에서 미제국주의가 망하면 라틴아메리카인민들의 민족해방운동에도 유리한 국면이 마련될것이다.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인민들의 전투적단결과 긴밀한 뉴대는 반제반미혁명력량을 수배, 수십배로 강화할것이며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국제반동들의 련합전선을 성과적으로 격파하는 불패의 힘으로 될것이다. 그러므로 미제가 도사리고있는 모든 지역 인민들이 힘을 합쳐 그를 되게 후려갈겨야 한다.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에는 사회주의국가도 있고 중립주의국가도 있으며 큰 나라도 있고 작은 나라도 있다. 제국주의자들의 괴뢰정권들이나 추종국가들을 내놓고는 이 모든 나라들이 다 반제반미력량으로 된다. 이 지역 나라 인민들은 국가사회정치제도와 정견과 신앙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다같이 제국주의자들과 식민주의자들의 억압과 착취를 받아온 피압박민족으로서 제국주의와 신구식민주의를 반대하며 민족적독립과 민족적번영을 이룩하기 위한 공동의 목적과 지향을 가지고있다. 국가사회정치제도와 정견과 신앙의 차이는 미제국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을 함께 하는데 결코 장애로 될수 없다. 매개 나라들은 공동의 적을 때려부시고 공동의 목적을 이룩하기 위하여 반제통일전선을 이룩하고 반미공동행동을 취하여야 할것이다.

물론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여러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있을수 있다. 어떤 사람들은 제국주의를 반대하여 적극적으로 나설수 있고 어떤 사람들은 반제투쟁에서 동요할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 나라 인민과 세계인민들의 압력에 못이겨 마지 못해 반제투쟁에 합류할수도 있다. 그러나 그 동기가 어떻든간에 제국주의의 앞잡이들을 내놓고는 이 모든 력량을 반미공동투쟁에 끌어들이는것

이 필요하다. 비록 불철저하고 견고치 못한 력량이라도 더 많은 력량을 반미공동투쟁에 끌어들여 미제를 최대한으로 고립시키고 그에게 공동으로 타격을 가한다면 그것은 좋은 일이지 결코 나쁜 일이 아니다. 반제투쟁을 회피하는 사람들은 반제투쟁에 나서도록 하며 반제투쟁에서 소극적인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나오게 하여야 한다. 반미통일전선을 분렬시키거나 반미공동행동을 거부하는것은 반제반미투쟁을 약화시키는 엄중한 결과를 가져올뿐이다.

미제국주의와 싸워이기려면 큰 나라나 작은 나라 할것없이 모든 나라들에서 미제에 타격을 가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특히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의 작은 나라들이 큰 나라에 의존하려는 사대주의를 버리고 반미투쟁에 적극 나서는것이 중요하다. 큰 나라들이 싸우지 않으면 미제를 때려부실수 없는것처럼 여기는것은 잘못이다. 물론 큰 나라들이 작은 나라들과 같이 미제를 반대하여 싸우면 더욱 좋다. 그렇기때문에 작은 나라들은 큰 나라들과 단결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그러나 큰 나라가 아니고는 미제와 싸워이길수 없는것은 결코 아니다. 큰 나라들에 대한 의존심을 가지고 가만히 앉아있어서는 혁명을 할수 없으며 다른 사람이 자기를 대신하여 혁명을 해줄수 없다는것은 너무나 자명하다. 작은 나라들도 주체를 세우고 인민대중을 묶어세워 희생을 두려워하지 않고 용감히 일어나 싸운다면 큰 적을 타승할수 있다. 이것은 실생활에 의하여 확증된 우리 시대의 아주 명백한 진리이다. 조선전쟁의 경험이 이 진리를 증명하여주었으며 꾸바혁명의 승리와 웰남인민의 영웅적반미구국항전이 또한 이 진리를 훌륭히 증명하여주고있다.

더우기 작은 나라들이라고 하더라도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많은 나라들이 힘을 합쳐 싸우면 인민들은 결정적으로 우세한 력량으로 아무리 강대한 원수라도 능히 때려눕힐수 있다. 혁명하는 나라 인민들이 함께 달라붙어 미제가 침략의 마수를 뻗치고있는 모든 곳에서 그의 왼팔과 바른팔을 뜯어내고 왼다리와 바른다리를 뜯어내며 나중에는 머리를 잘라버려야 한다. 지금은 미제국주의자들이 허장성세하지만 세계혁명적인민들이 달라붙어 각을 뜨면 미제국주의는 맥을 추지 못할것이며 결국은 녹아나고 말것이다. 우리는 작은 나라들을 각개 격파하려는 미제의 전략에 대하여 작은 나라들이 달라붙어 미제국주의의 두족을 각개 절단하는것으로 대답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는것이 미제를 타승하기 위한 작은 나라들의 투쟁전략이라고 말할수 있다.

조선인민은 미제국주의의 남조선강점을 반대하고 나라의 통일을 위하여 20년 이상이나 투쟁하고있다. 조선혁명은 국제혁명운동의 한부분이며 조선인민의 혁명투쟁은 평화와 민주주의, 민족적독립과 사회주의를 위한 전세계 인민들의 공동투

쟁속에서 발전하고있다. 조선인민은 자기의 민족해방위업을 완성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동시에 국제혁명운동의 전반적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하고있다. 우리 인민은 미제를 반대하는 모든 력량과 단결하며 미제를 반대하는 모든 나라 인민들의 투쟁을 시종일관 지지하고있다. 우리는 이것을 조선혁명승리의 중요한 요인으로 인정하고있다.

제국주의는 자기의 시대를 다 산 죽어가는 력량이며 인민들의 해방투쟁은 인류의 진보를 지향하는 새로운 력량이다. 인민들의 해방투쟁도상에 헤아릴수 없는 난관과 장애들이 가로놓여있고 이러저러한 곡절이 있을수 있지마는 제국주의가 멸망하고 인민들의 해방투쟁이 승리하는것은 막을수 없는 력사발전의 법칙이다. 미제를 괴수로 하는 제국주의자들이 인민들의 앙양되는 해방투쟁을 가로막아보려고 미친듯이 날뛰고있지만 그것은 멸망하는자들의 마지막 발악에 지나지 않는다. 미제국주의자들이 발악하면 할수록 그들의 처지는 더욱더 어렵게 되고있다. 미제국주의는 내리막길을 걷고있으며 서산일락의 운명에 처하여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인민들의 해방투쟁에 의하여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에서 반드시 쫓겨나고야 말것이다.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인민들의 위대한 반제혁명위업은 필승불패이다.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더욱 발양시키며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기 위하여 힘차게 전진하자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스무돐기념 경축대회에서 하신 보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우리 인민의 자유와 독립의 기치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강력한 무기이다》에서 조선혁명과 세계혁명의 완수를 위한 가장 정확한 전략전술적방침들을 제시하시면서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전면적으로 발양시키며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기 위하여 제기되는 근본적이며 원칙적인 문제들에 대하여 심오하고도 정연한 해답을 주시였다.

보고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확고한 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방침과 방도를 과학적으로 명시한 강령적문헌이며 조선혁명과 국제공산주의운동의 력사적경험을 천재적으로 개괄하고 집대성한 고전적문헌이다.

보고는 우리 인민과 전세계혁명적인민들에게 있어서 혁명투쟁의 승리를 위한 위력한 사상, 리론, 실천적 무기로 되는 동시에 미제를 괴수로 하는 제국주의자들과 우리의 계급적원쑤들에게 있어서는 죽음을 재촉하는 칠추로 된다.

김일성동지의 보고에 접한 우리 인민들은 자기들에게 자유와 행복의 터전인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제도를 마련하여주시였으며 보다 휘황한 미래를 앞당겨주고계시는 어버이수령에 대한 한없는 충성심으로 가슴을 불태우면서 더욱 높은 혁명적열정과 전투적기백으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위하여 힘차게 투쟁하고있다.

* *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스무돐기념경축대회에서 하신 보고에서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제도를 세우고 공고발전시키는 행정에서 쌓은 빛나는 성과와 업적, 고귀한 경험에 기초하여 사회주의제도의 본질과 우월성을 다시금 전면적으로 분석하시였으며 앞으로도 사회주의의 길을 따라 계속 힘차게 전진할데 대한 우리 인민의 확고부동한 결의를 천명하시였다.

수령의 령도밑에 우리 인민이 걸어온 지난 20여년간의 력사는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제도가 승리하고 공고발전된 력사였으며 그 무궁무진한 우월성이 전면적으로 발양된 력사였다. 20년이란 한 나라의 력사에서는 극히 짧은 순간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이 기간에 우리 나라에서는 나라의 륭성발전과 민족적 번영을 위한 투쟁에서 위대한 승리가 달성되였으며 우리 인민의 생활에서는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이것은 이 땅우에 수립된 사회주의제도의 무비의 우월성을 뚜렷이 보여준다.

수령께서 마련하여주신 사회주의제도가 있음으로 하여 우리 인민은 수천년의 력사에서 처음으로 착취와 억압에서 영

원히 해방되고 나라의 참된 주인으로 되였으며 자유와 행복을 마음껏 누릴수 있게 되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 사회에서는 전체 인민이 나라의 정치에 자유롭게 참가하고 자기의 혁명위업을 위하여 국가주권을 행사하며 자기의 능력과 소질에 따라 직업을 선택하고 마음껏 일하며 배우며 생활하고있습니다.》(《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우리 인민의 자유와 독립의 기치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강력한 무기이다》, 38~39페지)

우리의 정권은 가장 선진적인 프로레타리아독재정권으로서 근로인민의 근본적리익을 대변하고있으며 인민대중에게 최고형태의 민주주의를 보장하고 그것이 계급적원쑤들에 의하여 침해되지 않도록 튼튼히 보호하고있다. 당과 수령의 령도밑에 각급 정권기관들은 자기의 모든 활동에서 철두철미 인민에게 의거하고있으며 인민의 충복으로서 그에 복무하고있다.

이리하여 사회주의제도하에서 우리 인민은, 인민이 아무런 정치적권리와 자유를 가지고있지 못한 자본주의사회에서와는 달리 정치, 경제, 문화의 모든 부문에서 참다운 민주주의적권리와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받고있으며 나라의 크고작은 문제들을 처리하는데 자유롭게 참가하고있다.

사회주의제도하에서 우리 인민은 생산수단의 주인으로서 나라와 혁명을 위하여, 자기자신의 행복을 위하여 있는 힘과 지혜를 다하여 일하고있으며 가장 행복하고 보람찬 생활을 누리고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사회주의사회에서는 생산수단이 사회적소유로 되여있으며 근로자들은 국가와 사회를 위하여, 자기자신을 위하여 일합니다. 이것은 인민대중의 무궁무진한 창조력과 재능을 발휘하게 하여 생산을 끊임없이 빨리 발전시키게 합니다.…또한 사회주의제도에서는 착취자와 피착취자도 없으며 로동의 결과는 전적으로 근로자들의 복리증진에 돌려지고 생산이 빨리 높아짐에 따라 인민들의 생활은 계통적으로 높아집니다.》(우와 같은 책, 39페지)

생산수단이 인민의 소유로 된 우리나라 사회주의제도하에서는 모든 근로자들이 생산에 대하여 절실한 리해관계를 가지며 서로 굳게 단결하고 동지적으로 긴밀히 협조하며 최대한의 창의창발성과 자각적열성을 내여 일하고있다. 전체 근로자들은 당과 수령께서 제시하시는 모든 로선과 정책을 받들고 그 실현을 위하여 몸바쳐투쟁하는것을 고상한 의무로, 가장 큰 영예로 생각하고있다.

생산수단에 대한 사회적소유에 기초하여 같은 목적과 리해관계로 유기적으로 련결되여있는 우리의 인민경제 모든 부문들과 기업소들은 나라의 모든 인적, 물적 자원들과 생산의 잠재력을 가장 효과있게 동원리용하여 생산을 계획적으로,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있다.

사회주의제도의 이러한 우월성으로 하여 우리 나라에서는 생산과 건설이 비상히 빠른 속도로 끊임없이 발전되여왔다.

기계제작공업을 핵심으로 하는 위력한 중공업과 믿음직한 경공업의 창설도, 기계로 농사짓고 관개수로의 그물로 덮여진 억년흉작을 모르는 부유하고 문화적인 사회주의농촌의 건설도, 민족문화의 찬란한 개화발전도, 어떤 원쑤들의 침략도 일격에 때려부실수 있는 강력한 전인민적방위체계의 확립도 바로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에 기초해서만 이루어질수 있었다.

참으로 우리 인민은 수령의 현명한 령도밑에 사회주의의 길을 따라 줄기차게 전진함으로써 우리 조국을 자립적민족경제와 찬란한 민족문화와 자위적국방력을 가진 사회주의강국으로 만들었다.

사회주의제도의 무궁무진한 우월성으로 하여 착취와 압박이 없어지고 경제와 문화가 빨리 발전할뿐만아니라 모든 물질문화적부가 전적으로 인민들의 복리향상에 바쳐짐으로써 우리 인민은 날을 따라 더욱더 유족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누리게 되였다. 오늘 우리 인민들

은 실업이란 어떤것인지 알지 못하고 있으며 먹고 입고 쓰고 사는데 대해서나 아들딸들을 공부시키고 병이 나면 치료받는데 대하여 근심걱정을 하지 않고 있다.

우리의 사회주의제도하에서는 인민대중이 진정으로 주권과 생산수단의 주인이 됨으로써 그들의 정치사상적통일이 비상히 강화되였고 근로자들의 정신도덕생활에서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고있다.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사회주의제도가 승리한 우리 사회에서는 로농동맹을 기초로 하는 인민대중의 정치사상적통일, 당과 수령의 령도밑에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건설하려는 그들의 공통된 지향과 열의가 사회발전을 추동하는 기본동력으로 되고있으며 사회주의건설을 촉진하는 결정적요인으로 되고있다.

우리 사회에서 인민대중의 강철같은 정치사상적통일은 수령에 대한 그들의 무한한 충실성을 초석으로 하여 이루어졌으며 또 그러한 충실성에서 집중적으로 표현되고있다.

위대한 수령을 모시고 사는 드높은 긍지와 기쁨, 수령께 무한히 충실하여 혁명을 끝까지 수행하려는 불타는 일념은 우리 인민의 정신생활에서 가장 큰 자리를 차지하고있다. 그렇기때문에 우리 인민은 당의 유일사상인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외에는 그 어떤 사상도 알지 못하며 오직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으로 무장하고 그것을 끝까지 관철하며 수령을 목숨으로 옹호보위하기 위하여 투쟁하고있다.

수령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에 기초한 우리 인민의 정치사상적통일은 실로 우리가 이룩한 모든 승리의 힘있는 요인으로 되였으며 또 되고있다.

바로 이러한 통일이 이루어지고있음으로 하여 우리 사회는 하나의 큰 혁명적 붉은 가정으로 되고있으며 모든 사람들은 당과 혁명의 리익, 사회와 집단의 리익을 가장 귀중히 여기고있고 그것을 위하여서는 자기의 목숨도 서슴없이 바치고있다. 또한 이러한 통일로 하여 도처에서 긍정적모범이 창조되고있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가 이와 같이 우월한것은 오직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위하여, 조국땅우에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기 위하여 40여년간 준엄한 혁명의 가시덤불길을 헤치시면서 우리 인민을 승리와 영광에로 인도하신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이 제도를 세우시였고 직접 령도하고계시기때문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세계력사상 류례가 없는 간고한 조건에서 15성상 항일무장투쟁을 조직지도하시여 우리 인민에게 빼앗겼던 조국을 찾아주시였고 해방후 그처럼 복잡하고 어려운 정황속에서도 우리 혁명과 건설을 승리에로 이끄시여 사회주의제도를 세워주시였으며 나라의 구체적실정과 우리 혁명의 요구에 맞게 맑스-레닌주의를 창조적으로 적용하시고 발전시키시여 독창적인 탁월한 로선과 정책을 세우시고 관철하심으로써 우리 나라의 사회주의제도를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것으로 만들어주시였다.

그렇기때문에 우리 인민은 가장 선진적인 사회주의제도를 창설하여주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 자기의 운명을 완전히 의탁하고있으며 사회주의제도의 륭성발전에서 참다운 행복의 보금자리를 보고 이 제도를 공고발전시키기 위하여 자기의 모든것을 다바쳐 투쟁하고있다.

김일성동지께서 마련하여주신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는 우리 혁명의 가장 위대한 전취물이며 우리 혁명위업의 완수를 위한 튼튼한 밑천이다.

김일성동지의 령도밑에 조국의 광복을 위하여 손에 무장을 들고 오랜 기간 일제를 반대하여 영웅적으로 싸운 항일혁명선렬들의 숭고한 애국주의정신이 깃들어있으며 간고한 혁명투쟁에서 흘린 우리 인민의 고귀한 피와 땀이 스며있는 우리의 사회주의제도가 있음으로 하여 우리 인민의 오늘의 행복과 더욱 광명한 미래가 있으며 우리 혁명의 더욱 위대한 승리의 앞날이 있다.

우리 나라에 세워진 사회주의제도의 비할바없이 큰 우월성은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길만이 자유와 행복, 민족적

독립과 번영의 길이라는것을 힘있게 증명하여주고있다.

우리는 수령의 령도를 높이 받들고 앞으로도 계속 사회주의의 길을 따라 힘차게 전진하여야 하며 사회주의제도를 더욱 공고발전시켜야 한다. 이 땅에 확립된 사회주의제도를 더욱 공고발전시키고 그 우월성을 전면적으로 발양시켜야만 우리는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위업을 끝까지 승리적으로 완성할수 있다.

사회주의제도의 공고발전과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완성을 위하여 우리 앞에 나선 중요한 과업은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는것이다.

우리는 수령께서 가리키시는 길을 따라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투쟁함으로써 우리 인민의 더욱 큰 행복과 나라의 무궁한 륭성발전을 이룩하며 우리 혁명의 종국적승리를 더욱 앞당겨야 할것이다.

＊ ＊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스무돐기념경축대회에서 하신 력사적보고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할데 대한 문제를 새롭게 제기하시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방침과 방도들에 대하여 명확한 해명을 주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 밝혀주신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할데 대한 방침과 방도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합법칙성에 대한 새로운 과학적천명으로 되며 현시대가 제기한 절박한 문제에 대한 가장 정확한 해답으로 된다. 사회주의의 기초를 축성한 다음 공산주의자들과 맑스-레닌주의당이 어떻게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할것인가,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는 어느 때에 가서 이루어지며 그를 이룩하기 위하여 제기되는 과업들과 그 수행방도는 무엇인가 하는것은 리론적으로나 실천적으로 해결을 기다리는 날카로운 문제이다. 이 문제를 옳게 해결하는가 못하는가에 따라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명확한 전망과 필승의 신념을 안고 사회주의의 길을 따라 확고히 전진하는가 못하는가, 혁명의 기치를 계속 높이 들고 끝까지 투쟁하는가 못하는가 하는 것이 결정된다. 력사적경험은 이것을 잘 보여주고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절박하게 나선 이 문제는 오직 우리 시대의 탁월한 맑스-레닌주의자이시며 혁명의 위대한 수령이신 김일성동지에 의하여서만 해결될수 있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이 문제를 전면적으로 해명하심으로써 사회주의의 기초를 건설한 다음 혁명과 건설에서 나타날수 있는 온갖 편향을 철저히 극복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끝까지 완수할수 있는 광활한 길을 열어놓으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 밝혀주신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할데 대한 방침과 방도는 그이의 위대한 혁명사상, 주체사상의 구현으로서 혁명을 끝까지 계속하여 로동계급의 력사적사명을 완수하시려는 그이의 완강한 계속혁명의 립장을 반영하고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오늘 우리 인민앞에는 새 사회 건설에서 이룩한 빛나는 성과에 기초하여 혁명과 건설을 더욱 힘있게 추진시킴으로써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보장하여야 할 력사적과업이 나서고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나라의 북반부에 사회주의의 기초를 튼튼히 쌓아놓았습니다. 그러나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자면 아직도 우리는 더 많은 일을 하여야 합니다. 사회주의의 기초가 건설된 다음에도 사회주의국가는 정치, 경제, 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혁명을 계속 철저히 수행하여야 합니다.》(우와 같은 책, 41페지)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사회주의의 기초를 건설한 다음에도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에로의 과도기의 전기간에 걸쳐 사회주의국가앞에는 계급투쟁을 계속하며 도시와 농촌간의 차이, 로동계급과 농민간의 계급적차이를 완전히 청산하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에 상응하게 생산력을 가일층 발전

시켜야 할 력사적과업이 남아있게 된다. 사회주의혁명이 승리하고 사회주의기초가 이미 건설된 조건에서도 사회주의나라들에는 례외없이 외래제국주의자들의 리용물로, 앞잡이로 되고있는 전복된 착취계급잔여분자들의 준동이 있고 인민들속에 낡은 사상잔재가 남아있으며 도시에 비한 농촌의 락후성이 남아있다. 또한 사회주의, 공산주의에 상응하게 생산력의 높은 발전수준이 달성되지 못하고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적대계급의 준동이 있고 낡은 사상의 부식작용이 계속되며 도시와 농촌간의 차이, 로동계급과 농민간의 계급적 차이가 남아있으며 나라의 공업화가 완전히 실현되지 못하고 사회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가 튼튼히 마련되여있지 못한 사회는 아직 완전히 승리한 사회주의사회라고 말할수 없습니다.**》(우와 같은 책, 43페지)라고 교시하시였다.

사회주의의 기초를 건설한데 만족하여 사회주의가 완전히 승리하기도전에 혁명을 중단한다면 사회주의, 공산주의위업을 완수할수 없다는것은 명백하다.

더우기 우리는 남조선에 뭉지를 틀고 앉아서 남반부의 반동계급들과 북반부의 전복된 착취계급잔여분자들을 사촉하여 우리의 사회주의제도에 대한 파괴암해책동과 사상적침투를 계속하고있는 미제와 직접 대치하고있으며 남조선혁명을 지원하고 조국통일의 혁명적대사변을 앞당겨야 할 민족지상의 혁명과업을 앞에 두고있는 조건에서 혁명을 더욱 적극적으로 발전시켜나아가야 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기 위하여 사회주의국가앞에 제기되는 과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보장하며 로동계급의 력사적위업을 완수하기 위하여 사회주의국가는 계급투쟁의 무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무기로서의 자기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여야 합니다. 다시말하여 사회주의국가는 프로레타리아독재를 강화하여 한편으로는 계급투쟁을 계속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주의경제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가야 할것입니다.**

사회주의국가는 적대분자들에 대한 독재와 사상혁명, 경제사업을 다같이 잘해나가야만 사회주의, 공산주의에로 가는 길에서 반드시 점령하여야 할 두 요새인 사상적요새와 물질적요새를 점령하여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보장할수 있습니다.》(우와 같은 책, 43~44페지)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 먼저 프로레타리아독재를 강화하여야 한다. 사회주의국가는 프로레타리아독재의 기능을 강화하여 계급적원쑤들의 준동을 철저히 진압하고 근로자들을 교양개조하며 사회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쌓아 인민들의 유족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보장하여야만 사회주의제도를 공고발전시키고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할수 있다.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사회주의국가는 적대분자들에 대한 독재와 사상혁명, 경제사업을 다같이 밀고나가야 하며 그중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하거나 약화시켜서는 안된다. 계급투쟁, 사상혁명을 소홀히 하거나 약화시킨다면 사회주의제도를 공고발전시킬수 없을뿐만아니라 사회주의제도의 존재자체를 위태롭게 만들수 있으며 근로자들로 하여금 안일과 해이에 사로잡히게 함으로써 경제건설과 기술혁명과업도 성과적으로 진행할수 없게 할것이다. 반대로 계급투쟁과 사상혁명만을 내세우면서 사회주의경제건설을 차요시한다면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활동의 최고원칙인 인민의 복리증진을 이룩할수 없을것이며 나라의 정치적독립도, 국방력의 강화도 보장할수 없고 계급투쟁과 사상혁명 그자체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없게 할것이다.

사회주의국가는 프로레타리아독재를 강화하여 계급투쟁과 사상혁명, 경제건설을 다같이 틀어쥐고 힘있게 밀고나가면서 우선 계급적원쑤들의 준동을 철저히 진압하며 근로자들의 의식속에 있는 낡은 사상을 뿌리빼는 사업을 잘하여야 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계급적원쑤들에 대한 독재를 강화하며 사상혁명을 철저히 수행하여 전사회를 혁명화, 로동계급화하여야 하겠습니다.

프로레타리아독재의 력사적사명은 착취계급을 청산하고 그 반항을 진압하는 한편, 모든 근로자들을 교양개조하여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며 온갖 계급적차이를 점차적으로 없애며 공산주의를 건설하는데 있습니다.》 (우와 같은 책, 46페지)

프로레타리아독재하에서 계급적원쑤들을 철저히 진압하는 사업과 인민대중을 교양개조하여 단결시키는 사업은 밀접히 결합되여있다. 그것은 프로레타리아독재가 소수 적대분자들에 대하여서는 진압하고 로동계급과 농민을 비롯한 절대다수의 근로인민에게는 민주주의를 실시한다는 사정과 관련되여있다. 프로레타리아독재의 이 두측면을 옳게 결합시켜나아가는것은 우리 혁명의 승리를 보장함에 있어서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

우리 당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국내외적으로 조성된 복잡한 정세하에서도 프로레타리아독재를 계속 강화하고 독재와 민주주의, 계급투쟁과 인민대중의 통일단결을 강화하는 사업을 옳게 결합시킬데 대한 일관한 방침을 견지하여왔다. 그렇게 함으로써 주민들의 사회정치적구성이 단순하지 않으며 미제와 남조선괴뢰도당의 리간책동이 집요하게 감행되고있는 어려운 조건에서도 적대분자들을 철저히 진압하고 우리의 혁명대오를 부단히 강화하였으며 혁명과 건설을 항상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왔다.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프로레타리아독재의 두측면 가운데서 어느 하나 즉 독재의 측면이나 민주주의의 측면을 일면적으로 강조한다면 피할수 없이 엄중한 좌우경적오유를 범하게 된다. 사회주의하에서는 로동계급을 비롯한 근로대중의 단결과 협조가 사회관계의 기본으로 된다는것을 잊어버리고 계급투쟁만을 강조한다면 당과 대중을 리탈시키고 사회에 불안한 분위기를 조성시키는 좌경적오유를 범하게 된다. 반대로 사회주의사회에서도 계급투쟁이 계속된다는것을 잊어버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민주주의》를 실시하고 《자유》를 준다면 엄중한 우경적오유를 범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에는 적대적요소들에 대한 경각성이 무디게 되고 당과 로동계급의 령도적역할이 마비되여 사회생활에서 부르죠아지의 부식작용이 강화될수 있다. 전복된 착취계급잔여분자들이 준동하고 부르죠아지의 사상독소가 끊임없이 침습하여들어오며 계급투쟁이 계속되고있는 조건에서 모든 사람들을 위한 《순수 민주주의》, 《완전한 자유》를 주장하는것은 사실상 인민들에게 부르죠아민주주의와 착취사회에서와 같은 노예적자유를 강요하는것으로 된다.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정치적개념으로서의 민주주의는 반드시 계급적성격을 띤다. 어떤 국가에서나 민주주의는 주권을 잡은 계급을 위한 민주주의이며 적대되는 계급에 대한 독재가 그와 결합되여있다. 프로레타리아독재는 착취계급에 대한 독재이며 광범한 인민대중에 대한 민주주의이다. 그것은 최고형태의 민주주의이다. 따라서 사회주의나라인민들이 진정으로 민주주의를 향유하려면 프로레타리아독재를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

우리는 앞으로도 온갖 좌우경적편향을 다 반대하고 공화국정권의 프로레타리아독재의 기능을 강화할데 대한 당의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여야 한다. 우리는 한시도 우리가 세계반동의 원흉인 미제와 직접 대치되여있으며 우리의 사회주의제도를 전복하기 위한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의 파괴암해책동이 극도에 달하고있으며 우리 내부에 그들과 결탁된 계급적원쑤들이 숨어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혁명적경각성을 고도로 높여야 한다. 그리하여 옛제도를 되찾으려는 꿈을 버리지 않고있는 전복된 지주, 자본가계급잔여분자들에 대하여 엄격한 제재를 가하며 미제를 비롯한 대내외계급적원쑤들의 반혁명적기도를 제때에 적발하고 단호한 반격을 가하여 분쇄하여야 한다.

우리는 계급적원쑤들을 진압하는것과 함께 사회의 모든 계층들에 대한 로동

계급의 령도적역할을 강화하며 사상혁명을 철저히 수행할데 대한 당의 방침을 받들고 전사회의 혁명화, 로동계급화 과정을 촉진하여야 한다.

사상혁명을 수행하여 사람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것은 사회주의제도가 세워진이후 프로레타리아독재국가앞에 나선 가장 중요한 임무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적대분자들에 대한 진압은 프로레타리아독재국가의 기본기능이며 그가 수행하여야 할 계급투쟁의 형식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프로레타리아독재기능의 전부도 아니며 계급투쟁의 전반적형식을 다 포함하는것도 아니라고 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사회주의사회에는 적대분자들을 진압하는 계급투쟁과 함께 근로자들속에 남아있는 낡은 사상을 뿌리빼고 그들을 다 공산주의사상으로 무장시키기 위한 사상혁명을 중요내용으로 하는 계급투쟁의 기본형식이 있는것입니다. 사회주의제도가 승리한 다음에도 계급투쟁은 계속되지만 그 내용과 형식은 좀 달라져야 할것입니다.》(우와 같은 책, 50～51페지)

사회주의하에서 사상혁명은 그자체에 목적이 있는것이 아니라 근로자들속에 남아있는 낡은 봉건적, 부르죠아적, 소부르죠아적 사상잔재와 외부로부터 침습해들어오는 부르죠아사상독소를 뿌리빼고 근로자들의 창조적열성과 자각성을 불러일으켜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성과적으로 건설하는데 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장구하고도 간고한 혁명투쟁과정에서 쌓으신 풍부한 경험에 기초하여 혁명과 건설의 실천투쟁에서 인간의 사상의식이 노는 역할에 거대한 의의를 부여하시면서 사상혁명을 기술혁명, 문화혁명에 선행시키며 모든 사업에 정치사업, 사람과의 사업을 앞세울데 대한 확고한 원칙을 제시하시였으며 몸소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숭고한 혁명정신과 높은 계급의식으로 튼튼히 무장시켜 열렬한 혁명가로, 우수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자로 키워주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사상혁명은 공동의 리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나가는 근로자들 내부의 문제로서 모든 사람을 교양개조하여 공산주의자로 만드는데 목적이 있는것만큼 어디까지나 설복과 교양의 방법으로 진행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면서 사상혁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과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로동계급의 령도적역할을 끊임없이 높이는것과 함께 당정책교양과 혁명전통교양, 계급교양을 기본으로 하는 공산주의교양과 사회주의적애국주의교양사업을 꾸준히 진행하여 모든 근로자들을 혁명화하고 로동계급화하여야 하겠습니다.》(우와 같은 책, 52페지)

우리는 미제와 그 주구들의 사상적침투가 계속되는 조건에서 사상혁명을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

사상혁명을 진행하여 근로자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데서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그들을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고 그들속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세우는것이다.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은 맑스-레닌주의를 우리 나라 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하고 발전시켜 조선혁명을 승리와 영광의 한길로 이끌어온 사상이며 조선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와 공산주의의 승리를 담보하는 위대한 사상이다.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 우리 당의 유일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는것은 우리의 모든 승리의 결정적담보이다.

우리는 전체 근로자들을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고 그들속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세움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수정주의, 좌경기회주의, 사대주의, 부르죠아사상, 봉건유교사상, 종파주의, 지방주의, 가족주의 등 온갖 불건전하고 반동적인 사상요소들을 반대하고 어떠한 조건에서도 당과 수령이 가리키시는 길을 따라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위하여 확신성있게 나아가도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기 위하여 당조직들은 근로자들속에서 당정책교양을 더욱 강화하여 그들을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의 구현

인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으로 튼튼히 무장시켜야 한다. 동시에 혁명전통교양을 꾸준히 전개하여 근로자들로 하여금 김일성동지의 빛나는 혁명력사와 령도의 현명성, 높은 덕성을 깊이 체득하며 수령에 대한 항일유격대원들의 무한한 충실성을 따라 배우도록 하여야 한다.

우리는 또한 계급교양을 강화하여 모든 근로자들이 착취제도와 계급적원쑤들을 증오하고 사회주의제도를 열렬히 사랑하며 개인리기주의, 자유주의 등 낡은 사상잔재와 락후한 인습을 반대하고 공산주의사상과 도덕으로 무장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게 하여야 한다.

우리는 당정책교양과 혁명전통교양, 계급교양을 기본으로 하는 공산주의교양과 사회주의적애국주의교양을 깊이있게 진행하여 모든 근로자들이 혁명적자부심, 사회주의, 공산주의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모든 분야에서 계속혁명적대고조를 일으키도록 하여야 한다.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더욱 발양시키며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함에 있어서 우리 앞에 나서는 중요한 과업의 하나는 농촌문제를 종국적으로 해결하고 협동적소유를 전인민적소유의 수준에까지 끌어올리는것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농촌문제를 종국적으로 해결하고 협동적소유를 전인민적소유의 수준에까지 끌어올리는것은 사회주의제도가 승리한 다음 프로레타리아독재국가앞에 나서는 가장 중요한 과업의 하나이며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위한 근본조건의 하나입니다.》(우와 같은 책, 52페지)

김일성동지께서 교시하신바와 같이 사회주의농촌문제를 종국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투쟁은 착취사회가 남겨놓은 도시에 비한 농촌의 락후성을 청산하기 위한 투쟁이며 외부로부터 침습하여오는 반동적부르죠아독소와 길복된 착취계급잔여분자들이 발붙이고 준동할수 있는 근거지와 지반을 완전히 없애기 위한 투쟁이다.

농촌문제를 종국적으로 해결하고 협동적소유를 전인민적소유의 수준에로 높여야만 농업생산력을 높이 발전시키고 농민들을 공산주의의 길로 확고하게 인도할수 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이미 위대한 맑스—레닌주의적사회주의농촌건설강령이며 심오한 고전적문헌인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에서 사회주의농촌문제해결을 위한 기본원칙과 구체적과업들을 명시하시였다.

우리는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해주신 명확한 방침에 따라 농촌에서 기술혁명, 문화혁명, 사상혁명을 더욱 힘있게 수행하여 현대적공업에 비한 농촌경리의 기술적락후성, 선진적인 도시에 비한 농촌의 문화적락후성, 로동계급에 비한 농민의 사상적락후성을 없애야 한다. 또한 농촌에 대한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의 지도방조를 백방으로 강화하여 농촌의 발전속도를 한층더 높이도록 하며 전인민적소유와 협동적소유의 발전을 유기적으로 결합하면서 협동적소유를 전인민적소유에로 끊임없이 접근시켜야 한다.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기 위하여 사회주의국가는 계급투쟁과 사상혁명을 강화하고 농촌문제를 종국적으로 해결하는 사업과 함께 사회주의경제건설을 더욱 힘있게 밀고나가야 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회주의경제건설분야에서의 우리의 과업은 나라의 공업화와 기술혁명과 문화혁명을 철저히 수행하여 사회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쌓고 모든 근로자들이 현대적기계를 능숙하게 다룰수 있는 지식과 기능을 소유하도록 하는것입니다.》(우와 같은 책, 53페지)

사회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쌓는것은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발양시키고 그의 완전한 승리를 달성함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의 하나로 된다. 강력한 사회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가 없이는 사회주의, 공산주의에 상응한 생산력의 높은 발전수준을 이룩할수 없으며 근로자들의 복리도 전면적으로 높일수 없다.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사회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는 민족적차이가 남아있고 국가가 존재하는 한 민족국가단위로 쌓아야 하며 그것은 자립적민족경제의 건설을 통해서만 축성될수 있다. 우리 나라에서의 사회주의건설의 실제적경험은 이것을 똑똑히 증명하여주고있다.

사회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가 민족국가의 범위에서 종합적이며 자립적인 경제단위로 축성되여야만 나라의 자연부원을 최대한으로 리용할수 있으며 생산장성의 높은 속도를 보장할수 있고 과학과 기술을 발전시키며 근로자들을 전면적으로 발전된 공산주의건설자로 키울수 있다.

우리는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 주체사상의 구현인 자립적민족경제건설로선을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우리 나라에 보다 현대적인 공업과 발전된 농촌경리를 건설하며 모든 근로자들을 전면적으로 발전된 공산주의건설자로 키워야 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공업과 농업 생산을 빨리 발전시키는 기초우에서 우리는 모든 근로자들의 물질문화생활수준을 적어도 지난날의 중산계층의 생활수준이상으로 끌어올려야 합니다. 그리하여 전체 인민들이 다 사회주의제도의 참다운 우월성을 실생활을 통하여 더 잘 느끼도록 하며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사회주의제도를 공고발전시키기 위하여 몸바쳐싸우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여야 사회주의는 완전히 승리하였다고 말할수 있습니다.》 (우와 같은 책, 54페지)라고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가일층 높이기 위하여 힘차게 투쟁하여야 한다. 모든 부문에서 이미 마련하여놓은 경제적밑천을 효과있게 리용하고 생산물과 건설물의 질을 높여야 하며 로동생산능률을 더욱 제고하고 나라살림살이를 알뜰하게 꾸려나가야 한다. 그리하여 가까운 년간에 인민생활향상에서 획기적인 전변을 이룩할데 대한 수령의 교시를 빛나게 관철해야 한다.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기 위하여 우리 앞에 나선 당면과업은 당대표자회결정과 공화국정부의 10대정강에서 제시된 방침에 따라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의 병진로선을 철저히 관철하는것이다.

이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것은 근로자들의 정치적열의를 더욱 높이 발양하여 계속 혁신을 일으키며 금년도 인민경제계획을 빨리 넘쳐끝내고 명년에 7개년계획의 중요고지들을 점령하기 위한 생산준비를 철저히 하는것이다. 7개년계획이 수행되면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는 보다 큰 우월성과 생활력을 나타내게 될것이며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는데서 획기적인 전진이 이루어질것이다. 우리는 원료와 자재를 선행시키고 기계설비들을 정비보강하는 등 생산준비를 빈틈없이 갖추어 지난날 항상 그러하였던것처럼 7개년계획의 중요고지들을 점령하게 될 명년도 인민경제계획도 어김없이 수행함으로써 당과 수령의 높은 기대에 보답하여야 한다.

* *

김일성동지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스무돐기념경축대회에서 하신 보고에서 제시하신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할데 대한 방침과 방도는 우리 혁명과 건설을 승리에로 인도하는 가장 정확한 지도적지침이다.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할데 대한 방침을 높이 받들고 그것을 철저히 실현하여 나갈 때 우리의 사회주의제도는 더욱 공고발전되고 그 우월성이 전면적으로 발양될것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에서는 보다 빛나는 승리가 달성될것이다. 또한 우리 혁명의 기지, 공화국북반부의 혁명력량은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반석같이 다져질것이며 남조선혁명을 완성하고 조국통일과 조선혁명의 종국적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더욱 튼튼한 담보가 마련될것이다.

우리는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할데 대한 김일성동지의 탁월한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그를 끝까지 관철함으로써 우리 조국땅우에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실현하시려는 수령의 위대한 구상을 빛나게 구현하여야 한다.

모두다 수령의 가르치심을 높이 받들고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위하여 힘차게 나아가자!

김일성동지께서 항일무장투쟁시기에 이룩하신 우리 당창건의 조직사상적준비

오늘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공화국창건 스무돐기념경축대회에서 하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력사적인 보고를 커다란 감격과 흥분속에 접하고 그이께서 제시하신 강령적인 교시를 끝까지 관철하고야 말려는 새로운 투지와 혁명적열의로 가슴불태우면서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창건 스물세돐을 뜻깊게 맞이하고있다.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건하신 조선로동당은 우리나라 로동계급과 전체 근로대중의 선봉대로서 지난기간 우리 인민을 항상 승리와 영광에로 인도하였으며 혁명과 건설에서 위대한 업적을 쌓아올렸다.

우리 당은 국내외의 계급적원쑤들과 공산주의운동내부의 온갖 기회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속에서 세련되고 단련된 강철의 당으로, 어떠한 풍파속에서도 끄떡없이 조선혁명을 능숙하게 그리고 확신성있게 령도해나가는 혁명적인 불패의 당으로 강화발전되였다.

우리 당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을 구현하여 혁명과 건설을 위한 20여년간의 투쟁에서 거대한 성과를 이룩함으로써 인민대중속에서 허물수 없는 권위와 신임을 획득하였으며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견결한 립장과 국제공산주의운동과 세계혁명의 전반적발전에 기여한 특출한 공헌으로 하여 전세계혁명적인민들과 공산주의자들로부터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있다.

조선인민은 자기의 운명을 전적으로 우리 당에 의탁하고있으며 당과 수령께서 가리키시는 길을 따라 천리마의 기세, 일당백의 기세로 힘차게 전진하고있다.

우리 당이 이렇듯 짧은 기간에 백전백승의 맑스-레닌주의당으로 자라났으며 세련된 혁명의 참모부로서 조선혁명을 계속 위대한 승리에로 인도할수 있은것은 전적으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탁월하고 현명한 령도가 있었기때문이며 그이의 령도하에 조직전개된 간고한 항일무장투쟁시기에 이룩된 당창건의 깊고 억센 뿌리에서 자라났으며 그 빛나는 혁명전통을 계승하였기때문이다.

* *

우리 당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15성상에 걸친 영광스러운 항일무장투쟁행정에서 이룩하신 당창건의 조직사상적준비에 기초하여 창건되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간고한 항일무장투쟁의 불길속에서 우리 당창건의 조직사상적준비를 위한 가장 정확한 방침을 제시하시고 그를 빛나게 구현하시였다.

항일무장투쟁시기에 당창건의 조직사상적기초를 마련하는것은 조선공산주의운동과 민족해방투쟁의 성과적추진을 위하여 반드시 해결하여야 할 절박한 문제였다.

1920년대의 우리 나라 공산주의운동은 맑스-레닌주의혁명리론으로 확고히 무장한 혁명의 탁월한 수령의 령도가 없었음으로 하여 정확한 혁명로선과 전략전술을 가지지 못하고 대중속에 뿌리를 박지 못하였으며 일제의 탄압과 종파분자들의 분렬책동을 극복할수 없었

다. 그리하여 1920년대의 조선공산당은 조직된 력량으로서의 자기 존재를 끝마치고 말았다. 그러나 혁명적인 로동자, 농민들과 청년학생들은 일제의 탄압에 항거하여 계속 완강한 투쟁을 전개하였다. 부단히 앙양되는 반일민족해방투쟁과 공산주의운동을 승리적으로 전진시키자면 혁명의 참모부인 맑스-레닌주의당을 가져야 하였으며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그 조직사상적기초를 튼튼히 마련하여야 하였다.

그러나 1920년대 공산주의운동을 파괴한 종파분자들은 저들의 죄과를 뉘우칠 대신 의연히 파쟁을 일삼으면서 당창건준비에서 막대한 해독적작용을 놀았다. 이들은 아무런 주견도, 준비도 없이 저마다 《명도권》을 장악하기 위하여 자파중심의 《당재건》을 떠들었다. 또한 종파분자들은 당창건문제를 주체적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외부세력에 의존하려는 사대주의적편향을 발로시켰다.

당창건문제를 둘러싸고 공산주의운동내에 조성된 이와 같은 사태와 앙양된 혁명정세는 혁명적인 맑스-레닌주의당창건을 위한 명확한 방도를 시급히 제시하고 그를 령도할 세련되고 단련된 령도자, 위대한 수령의 출현을 절실하게 요구하였다.

로동계급이 혁명투쟁에서 승리하자면 사회발전법칙의 지식과 계급투쟁에 관한 리론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과학적인 전략전술을 가져야 하며 동맹자를 전취하고 혁명의 후비군을 동원하며 리용할줄 알아야 하는바 이 모든 사업은 탁월한 수령의 령도를 받는 로동계급의 당만이 수행할수 있다. 현명한 수령이 없이는 건전한 맑스-레닌주의당의 창건도 혁명투쟁의 승리도 기대할수 없다.

오직 맑스-레닌주의로 튼튼히 무장하고 현실을 깊이 통찰하여 먼리 앞을 내다보며 대중의 지향과 요구를 가장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를 능숙히 구현할줄 아는, 장기간의 간고한 혁명투쟁에서 단련되고 검열되였으며 풍부한 투쟁경험과 과학적인 령도예술을 소유한 탁월한 수령만이 로동계급과 수백만대중을 혁명위업의 승리에로 인도하는 혁명적인 맑스-레닌주의당을 창건할수 있으며 그러한 당만이 진정으로 로동계급의 선봉대로서의 역할을 다할수 있는것이다.

조선인민은 김일성동지께서 우리 민족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시고 혁명의 진두에 나서시게 됨으로써 비로소 위대한 수령을 모시고 그이께서 가리키시는 승리의 길을 따라 확신성있게 전진하게 되였으며 수령의 위대한 혁명사상은 우리 인민의 가슴마다에 해방의 등대로, 승리의 기치로 되였다.

오직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만이 일제의 파쑈적탄압과 각종 기회주의자들, 종파분자들의 책동으로 말미암아 조성된 온갖 난관과 애로를 극복하고 반일민족해방투쟁의 길을 승리적으로 개척해나가시면서 당창건을 준비하고 혁명력량을 꾸리는 어렵고도 복잡한 문제들을 빛나게 해결하실수 있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선인민에 대한 일제의 파쑈적폭압이 절정에 달하고 우리 민족이 생사존망의 기로에 서있던 엄혹한 시련의 시기에 선행한 모든 투쟁, 특히 1920년대 우리 나라 공산주의운동의 교훈을 전면적으로 총화분석하시고 혁명활동의 첫시기부터 품어오시던 조선혁명에 대한 원대한 구상에 기초하시여 조선혁명의 앞길을 휘황히 밝혀주시였을뿐아니라 맑스-레닌주의당창건준비에서 반드시 견지하여야 할 가장 원칙적인 립장을 천명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몇몇 공산주의자들이 모여서 당창건을 선포하는 방법으로가 아니라 우리 나라 초기공산주의운동에 내재하고있던 본질적약점들을 극복하기 위한 심각한 투쟁과정을 통하여 당창건의 조직사상적준비를 철저히 갖춘 토대우에서만 당을 창건할수 있다고 가르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조국의 해방과 독립을 위한 우리의 위업

를 달성하자면 우리는 반드시 맑스-레닌주의당을 가져야 합니다. 더우기 우리의 혁명투쟁은 조국의 해방과 독립을 쟁취하는것으로 끝나는것이 아니라 장차 우리 나라를…사회주의국가로 만들자는것이 우리의 일관한 주장입니다. 이 원대한 과업을 어떻게 혁명의 참모부가 없이 해나갈수 있겠습니까. 당—이것은 우리의 모든 승리의 향도성입니다. 그러므로 맑스-레닌주의당을 창건하는것은 우리 조선공산주의자들 앞에 제기된 가장 절실하고 기본적인 임무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하여 일부 종파분자들이 말하는것처럼 우리 형편에서 지금 당장 당을 창건하자고 할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런 준비와 혁명력량의 축적이 없이 즉시 당을 창건할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허공에 집을 짓겠다는것과 같은 공허한 망상에 지나지 않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가장 심중하게 그리고 가장 정력적으로 당을 창건하기 위한 조직사상적토대를 한걸음씩 축성해나가야 할것입니다.》

김일성동지의 이 가르치심은 우리 나라 초기공산주의운동의 쓰라린 교훈을 되풀이하지 않고 조선혁명을 승리에로 령도할 참다운 혁명적인 당을 창건할수 있게 하는 가장 정확한 길이였다.

당시 공산주의대렬이 4분5렬된 상태에서 종파분자들의 수법대로 아무런 준비도 없이 당을 창건한다면 그것은 모래우에 루각을 세우는것과 같은것이다. 당창건의 준비를 모든 면에 걸쳐 면밀히 갖추지 않고서는 진투적인 당을 창건할수도 없었으며 공산주의자들과 혁명조직들을 하나의 전일체로 묶어세울수도 없었다. 우리 나라에서 건전한 맑스-레닌주의당창건의 유일하게 옳은 길은 오직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당창건의 조직사상적준비를 철저히 갖출데 대한 립장을 확고히 견지하는것이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또한 당창건을 위한 준비에서 사대주의, 교조주의를 철저히 배격하고 주체적립장을 확고히 견지해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김일성동지의 이 가르치심은 조선혁명을 조선인민자신이 책임지고 자체의 힘으로 끝까지 수행하려는 그이의 위대한 주체사상의 구현이다. 김일성동지께서 작성하시고 제시하신 항일무장투쟁로선과 모든 진략전술, 그리고 당창건의 조직사상적준비를 위한 원칙적립장 등의 근저를 관통하고있는것은 그이의 확고한 주체사상과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이다.

1920년대의 조선공산주의운동은 자체의 혁명력량을 꾸리고 그에 의거할 대신 남만 쳐다보고 남에게만 의존해가지고서는 당건설도 혁명투쟁도 성과적으로 추진시킬수 없다는 력사적교훈을 남기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사대주의자들은 마치 조선사람자체의 힘으로 당을 창건할수 없는것처럼 그릇되게 생각하고있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사대주의자들의 이러한 그릇된 주장을 준렬히 비판하시고 외세의존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기의 신념에 의거하여, 자기 힘을 믿고 주체적립장에서 당창건을 위한 준비사업을 끝까지 추진시켜나가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김일성동지의 이 가르치심은 당시까지 그이의 직접적인 지도를 받지 못함으로 하여 암중모색하던 조선공산주의자들에게 당건설에 관한 옳은 인식을 가지게 하였으며 그들을 확고한 주체사상으로 무장시키는 강령적지침으로 되였다.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 당창건을 위한 원칙적문제들은 일제의 폭압과 종파분자들의 책동이 우심하던 극히 어려운 환경에서 우리 당창건을 위한 준비사업을 가장 곧바른 길로 이끌며 급속히 추진시켜나가게 함에 있어서 관건적의의를 가지였다.

이처럼 우리 나라에서 공산주의운동과 당창건을 위한 준비사업은 오직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가 있음으로써만 옳바른 궤도에 들어서게 되였으며 확신성있게 전개되였다.

* *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무장투쟁시기에 우리 당창건의 조직사상적준비를 마련하기 위한 가장 정확

한 방침을 제시하시고 몸소 어려운 난관들을 타개하시면서 그 실현을 위하여 정력적으로 투쟁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당창건을 위한 준비사업을 고립적으로, 그리고 수공업적방법으로 진행할것이 아니라 항일무장투쟁과 반일민족통일전선운동과 밀접히 결합시켜 다방면적으로 추진시켜나갈데 대하여 가르치시였다.

김일성동지의 이 가르치심은 실제투쟁과 조직생활을 통하여 빠른 시일내에 공산주의자들을 육성하며 분산되여있는 공산주의자들을 단일한 혁명조직에 결속하며 통일전선조직체내에서 공산주의자들의 령도를 확고히 보장하며 일제의 탄압과 종파분자들의 책동으로부터 공산주의자들과 혁명군중을 보위하는 확고한 담보로 되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로동자, 농민 출신의 참다운 공산주의적핵심들로 당창건의 조직적골간부대를 튼튼히 꾸리며 공산주의대렬의 사상의지 및 행동의 통일을 보장하며 당의 대중적지반을 축성함으로써 대중속에 깊이 뿌리박은 강력한 당을 창건할데 대한 가장 정확한 방침을 제시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당창건의 조직사상적준비를 위한 방침은 맑스-레닌주의당건설의 일반적원칙을 우리나라 공산주의운동의 구체적실정에 맞게 창조적으로 적용하여 천명하신 가장 정확한 방침이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우선 어떤 역경속에서도 계급적립장을 확고히 견지하며 혁명을 위하여 견결히 투쟁할수 있는 로동자, 농민 출신의 공산주의자들로써 당창건의 조직적골간부대를 튼튼히 꾸리기 위한 사업에 온갖 심혈을 다 기울이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가르치시였다:

《…당창건을 위한 준비사업에서 가장 중요한것은 항일무장투쟁을 통하여 공산주의자들의 대오를 육성확대하는것이다. 실제투쟁에서 세련되고 검열된 공산주의자들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 혁명수행에서 핵심적역할을 수행할것이다. 우리가 어떤 난관에 부닥치든지간에 이들을 골간으로 하여 그 주위에 혁명군중을 튼튼히 집결시킨다면 우리는 맑스-레닌주의당을 창건할수도 있으며 제기된 복잡한 혁명과업을 정확하게 수행할수도 있을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일무장투쟁을 진행하는 기간에 우리의 무장대오를 부단히 확대강화하며 적과의 싸움에서 공산주의자들을 육성단련해야 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당창건의 조직적골간을 튼튼히 꾸리기 위하여 계급적립장이 확고한 로동자, 농민 출신의 선진분자들을 무장대오에 한사람이라도 더 많이 받아들이여 그 대렬을 부단히 확대하시면서 그들을 실천투쟁과 맑스-레닌주의교양을 통하여 불굴의 공산주의혁명투사로 키우셨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또한 당시 우리 나라에 당이 없었고 당을 즉시 창건할수도 없었던 조건에서 국내외의 각지에 정치공작원들을 파견하시여 조국광복회를 비롯한 각종 혁명조직들을 통해서 계획적으로 전망성있게 공산주의자들을 육성하시고 그들을 조직적으로 튼튼히 결속하시였다.

이리하여 항일무장투쟁의 가렬한 불길속에서 단련되고 검열되였으며 혁명과 수령께 무한히 충직하고 어떤 역경속에서도 혁명의 최후 승리를 위하여 견결히 싸우며 대중을 능숙하게 조직동원할수 있는 세련된 공산주의자들이 수많이 자라났다.

이것은 공산주의대렬의 통일단결을 강화하고 그 순결성을 보장하며 광범한 군중을 교양하여 조선혁명의 탁월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위에 묶어세움으로써 당창건의 준비를 이룩하는 전반적문제들을 성과적으로 해결할수 있게 한 기본담보로 되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당창건의 조직적준비를 위하여 공산주의대렬의 통일단결과 그 순결성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에 특별한 관심을 돌리시였다.

공산주의대렬의 순결성을 보장하고

사상의지 및 행동의 통일을 이룩하는것은 맑스-레닌주의당건설의 일반적요구이며 당의 전투력의 원천이다. 이것은 1920년대 공산주의운동에 막대한 해독을 끼친 종파분자들이 1930년대에 들어와서도 계속 무원칙한 파쟁을 일삼으면서 우리 나라 공산주의운동과 당창건준비사업을 각방으로 저해하고있던 당시 조건하에서 극히 중요한 문제로 제기되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당창건을 위하여서는 공산주의대렬내에서 종파주의, 기회주의 등 불순한 사상과 무자비하게 투쟁하며 혁명대오의 조직사상적순결성을 고수하는 문제도 매우 중요하다. 특히 우리는 한때 조선인공산주의자들 속에서 종파분자들이 파쟁에 광분함으로써 공산주의운동에 막대한 해독을 끼친 쓰라린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자들의 일부는 지금도 혁명대오내에 잠입하여 <반민생단> 투쟁이란 구호하에 동지호상간에 리간을 조성시키고있으며 각종 좌우경적편향들을 류포시킴으로써 조선인공산주의자들의 대렬을 내부로부터 와해시키려 하고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자들과 추호도 타협없는 투쟁을 전개함으로써 당조직과 혁명대오내에 어떠한 종파행동이나 적대사상도 발붙일 틈을 주지 말도록 해야 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무장투쟁의 첫시기부터 맑스-레닌주의당건설의 일반적요구와 우리 나라 초기공산주의운동대렬내에서의 파쟁의 쓰라린 교훈에 비추어 종파주의를 철저히 극복청산하고 공산주의대렬의 통일단결과 그 순결성을 고수하며 선진적인 로동자, 농민 출신의 새 세대들로 공산주의대렬을 튼튼히 꾸려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그이께서는 또한 공산주의대렬의 통일단결을 강화하는 문제는 앞으로 창건될 당의 생명이며 가장 기본적이며 선결적인 조건으로 된다고 가르치시고 반종파투쟁을 사대주의, 교조주의를 비롯한 온갖 형태의 좌우경기회주의조류를 반대하는 투쟁, 특히 반《민생단》투쟁에서의 좌우경적후과를 극복하기 위한 투쟁과 밀접히 결합시켜 강력하게 조직전개하시였다.

김일성동지의 가르치심과 비타협적이며 원칙적인 투쟁에 의하여 항일유격대내에서와 그와 직접 련결된 혁명조직들에서는 종파주의를 완전히 극복청산하고 공산주의대렬의 통일단결과 맑스-레닌주의순결성을 확고히 보장할수 있게 되였다.

이리하여 항일유격대원들과 공산주의자들은 전체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이신 김일성동지의 주위에 굳게 결속되여 그이께서 가리키시는 길을 따라 힘차게 전진하게 되였으며 우리 당창건의 조직적준비가 튼튼히 마련되였다.

맑스-레닌주의당을 창건하기 위한 사업에 있어서 중요한 과업의 하나는 당창건의 사상적준비를 철저히 갖추는것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당창건의 사상적준비를 위하여 공산주의대렬의 사상적유일성을 확고히 보장할수 있는 가장 정확한 맑스-레닌주의적혁명로선을 제시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당시에 조성된 주객관적인 혁명정세와 우리 나라의 사회경제적형편, 그리고 계급관계에 대한 심오한 분석에 기초하여 조선혁명의 성격과 임무, 동력과 대상을 명철하게 규정한 가장 정확한 혁명로선을 제시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 천명하신 혁명로선과 전략전술적방침은 그이께서 손수 작성하신 위대한 조국광복회 10대강령에 집대성되였다. 조국광복회 10대강령은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단계에서 맑스-레닌주의당이 가져야 할 최저강령의 요구를 전면적으로 반영한 혁명적강령이였다.

조국광복회 10대강령은 조선혁명앞에 가장 명백한 투쟁방향과 진로를 명시해줌으로써 전체 조선인민에게 조국광복의 서광을 안겨주는 등대로 되였으며 공산주의자들이 통일적인 목표를 가지고 목적의식적으로 투쟁할수 있게 하는

지도적지침으로 되였다. 또한 그것은 공산주의운동의 사상적유일성을 보장하고 종파분자들과 온갖 기회주의자들의 책동에 결정적타격을 주며 공산주의대렬의 사상적순결성을 보장할수 있게 한 유일한 자막대기로, 사상리론적무기로 되였다.

당창건의 사상적준비를 이룩함에 있어서 또한 중요하게 해결하여야 할 문제는 유격대원들과 혁명군중을 과학적인 맑스-레닌주의세계관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는것이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유격대원들과 혁명군중을 맑스-레닌주의세계관으로 무장시키기 위하여 《혁명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학습은 첫째가는 의무이다》라는 구호밑에 간고한 싸움의 나날에도 중단함이 없이 사상교양사업을 조직지도하시였다. 항일유격대원들과 혁명군중들은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혁명로선과 전략전술적방침의 정당성을 깊이 체득함으로써 혁명적이며 과학적인 세계관을 확립할수 있게 되였다.

당창건의 사상적준비를 위한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와 그이께서 제시하신 정확한 혁명로선으로 하여 공산주의대렬에는 유일사상체계가 서고 사상의지적통일이 보장되였으며 혁명과 수령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 조국과 인민에 대한 열렬한 사랑, 계급적원쑤에 대한 끝없는 증오, 고상한 공산주의적신념과 뜨거운 혁명적동지애로 결합된 불패의 혁명대오로 강화되였다.

당창건의 대중적지반을 튼튼히 축성하는것은 우리 나라 공산주의운동발전의 구체적실정으로부터 출발하여 매우 중요한 문제로 제기되였다.

대중적지반을 튼튼히 꾸려야만 당창건을 위한 유리한 조건을 조성할수 있으며 창건된 당을 공고발전시킬수 있다.

1920년대 우리 나라 공산주의운동의 경험은 당이 로동계급을 비롯한 근로대중속에 깊이 뿌리 박지 못하고 대중운동을 옳게 지도하지 못할 때 그는 자기의 력사적사명을 원만히 수행할수 없으며 자기 조직을 오래 유지할수도 없다는것을 보여주었다.

항일무장투쟁시기 일제침략자들은 공산주의운동에 대한 탄압을 강화하고 공산주의자들과 인민대중과의 련계를 끊으려고 갖은 책동을 다하였으며 종파분자들도 대중의 혁명화를 심히 반대해나섰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찌기 혁명활동에 나서신 첫시기부터 몸소 대중속에 들어가시여 그들을 혁명적반일애국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며 각종 대중단체를 조직하고 거기에 광범한 혁명군중을 결속하심으로써 당창건의 대중적지반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을 정력적으로 전개하시였다.

항일유격대원들과 공산주의자들은 《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수 없는것처럼 유격대가 인민을 떠나서 살수 없다.》고 하신 김일성동지의 가르치심을 높이 받들고 계급로선과 군중로선을 철저히 관철하였으며 대중속에 들어가 인민과의 혈연적련계를 백방으로 강화하였다.

당창건의 대중적지반을 구축하기 위한 투쟁을 통하여 조선혁명운동에서 로동계급의 령도하에 로농동맹이 확고히 형성되였으며 광범한 반일력량을 망라하는 민족통일전선운동이 힘차게 전개되였다. 그리하여 일제와 반동세력은 대중으로부터 더욱더 고립되고 혁명과 반혁명간의 계급적력량관계는 혁명의 편에 결정적으로 유리하게 전변되였으며 전국적규모에서 일제를 반대하는 대중운동은 더욱 세차게 발전되여갔다.

이와 같이 당창건을 위한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방침과 그 실현을 위한 완강한 투쟁을 통하여 항일무장투쟁시기에 우리 당창건의 조직사상적준비가 튼튼히 이루어졌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항일무장투쟁은 조선공산주의운동의 첫시기에 있었던 본질적약점들을 이겨내고 맑스-레닌주의당을 창건하기 위한 조직사상적기초를 닦았으며 우리 인민의 가장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이루어놓았습니다.

간고한 유격투쟁의 시련속에서 참다운 공산주의적혁명가들이 자라났으며 혁명대오의 확고한 통일이 이루어졌습니다. 항일무장투쟁시기에 비로소 맑스-레닌주의가 우리 나라의 현실과 결합되고 공산주의운동이 민족적 및 사회적해방을 위한 우리 인민의 혁명투쟁과 결합되였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은 대중과 긴밀한 련계를 맺고 대중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바쳐 싸움으로써 인민대중의 두터운 신임을 얻었습니다.》 (《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284~285페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영광스러운 항일무장투쟁시기에 이룩하신 당창건의 조직사상적준비는 해방후 그처럼 복잡다단한 국제국내정세하에서 우리 당을 제때에 창건할수 있게 한 튼튼한 기초로 되였으며 조선혁명의 전반적발전을 힘있게 추진시킬수 있는 확고한 담보로 되였다.

* *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무장투쟁시기에 이룩하신 당창건의 조직사상적준비에 기초하시여 해방후 조성된 새로운 정세하에서 우리 당을 창건하기 위한 사업에 지체없이 착수하시였다.

해방후의 정세는 우리 인민에게 결정적으로 유리하게 전변되였다. 그러나 혁명의 앞길에는 새로운 많은 난관들이 제기되였다.

일제를 대신한 미제침략자들의 남조선강점으로 말미암아 조선혁명의 앞길에는 복잡성과 간고성, 장기성이 조성되였다. 공산주의자들 앞에는 자기의 혁명대오를 급속히 정비하고 혁명의 참모부인 맑스-레닌주의당을 지체없이 창건함으로써 광범한 대중을 당주위에 묶어세워, 혁명의 주체적력량을 튼튼히 꾸려야 할 과업이 절박하게 제기되였다.

조선혁명의 이 절박한 요구는 오직 장기간의 혁명투쟁에서 세련되고 단련되였으며 조선공산주의자들속에서 허물수 없는 권위와 위신을 가지고 계시며 전체 인민의 절대적인 신뢰와 존경을 받고계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의해서만 빛나게 해결될수 있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나라의 전반적정세를 과학적으로 분석하신 기초우에서 맑스-레닌주의당건설의 일반적원칙을 우리 나라의 실정에 창조적으로 적용하시여 항일무장투쟁시기에 손수 키우신 공산주의자들을 핵심으로 하고 여러 지방에서 활동하던 공산주의자들을 망라하여 당을 창건할데 대한 가장 정확한 방침을 천명하시였으며 그 실현을 위하여 정력적으로 투쟁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무장투쟁시기에 이룩된 당창건의 조직사상적준비에 기초하여 공산주의자들과 로동계급을 비롯한 전체 인민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모든 난관과 장애를 물리치고 1945년 10월 10일 조선혁명의 전위부대인 우리 당을 창건하는 력사적위업을 빛나게 실현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이것은 로동계급의 혁명적당을 창건하기 위한 조선공산주의자들의 오랜 기간에 걸치는 투쟁과 노력의 고귀한 열매였으며 우리 나라 공산주의운동과 전반적조선혁명의 발전에서 력사적인 전환이였습니다. 조선의 로동계급과 근로인민은 이때로부터 자기의 혁명투쟁에서 힘있는 전위부대, 맑스-레닌주의적참모부를 가지게 되였으며 당의 령도밑에 혁명의 길을 승리적으로 개척하여나아가게 되였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286~287페지)

김일성동지에 의한 우리 당의 창건은 우리 나라 공산주의운동과 전반적혁명발전에서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온 력사적 사변이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당은 창건된후 즉시 북반부에서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을 수행하였으며 북반부를 조선혁명의 믿음직한 기지로 꾸려놓았다.

우리 당은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방침에 따라 로동계급을 비롯한 광범한

근로대중속에 깊이 뿌리박고 항일무장투쟁에서 단련된 공산주의자들을 핵심으로 하여 당대렬을 부단히 확대강화하면서 혁명과 건설에서 단련된 우수한 근로자들을 자기 대렬에 받아들임으로써 급속히 대중적당으로 장성발전하였다.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당은 자기 대오를 조직사상적으로 튼튼히 꾸리고 그 주위에 인민대중을 굳게 결속시킴으로써 해방후 그처럼 짧은 기간에 북반부혁명기지를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튼튼히 다져놓을수 있었고 미제침략자들과 그 주구들을 반대하는 성스러운 조국해방전쟁에서 위대한 승리를 달성할수 있었으며 전후 재더미우에서 오늘과 같은 강력한 사회주의적공업농업국가를 일떠세울수 있었다.

우리 당은 김일성동지에 의하여 항일무장투쟁시기에 확립된 반종파투쟁의 원칙과 풍부한 경험에 의거하여 우리나라 로동운동에서 고질로 내려오던 종파주의를 뿌리채 뽑아버리고 공산주의운동의 완전한 통일을 실현하였다. 그리하여 우리 당은 아무리 복잡하고 어려운 환경에서도 김일성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목숨으로 사수하며 당과 수령의 가르치심이라면 물불을 헤아리지 않고 끝까지 관철하고야마는 당의 유일사상체계가 전당에 확고히 수립된 강철의 대오로,전투적이며 혁명적인 당으로 강화발전되였다.

당은 시종일관 맑스-레닌주의원칙을 고수하고 주체를 철저히 확립하며 모든 사업에서 군중로선을 관철함으로써 혁명과 건설에서 빛나는 승리를 달성하였다.

김일성동지의 령도밑에 우리 당은 항일무장투쟁시기에 이룩된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계승발전시킴으로써 조선혁명을 대를 이어 끝까지 수행할수 있는 혁명가의 대부대를 꾸려놓았다.

우리 당이 오늘과 같이 하나의 사상의지로 굳게 결속된 강유력한 맑스-레닌주의당으로 강화발전되여 혁명과 건설을 끊임없이 위대한 승리의 한길로 향도할수 있은것은 오직 조선혁명의 탁월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가 있음으로써만 가능하였다.

오늘 전당과 전체 인민은 당대표자회 결정과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10대정강, 그리고 공화국창건 스무돐기념경축대회에서 하신 그이의 력사적인 보고를 높이 받들고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며 미제국주의자들의 그 어떠한 침해로부터도 혁명의 전취물을 튼튼히 보위하고 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앞당기기 위하여 영웅적으로 투쟁하고있다.

우리 앞에는 분렬된 조국을 통일하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끝까지 완수해야 할 성스러운 혁명과업이 나서고있다. 이를 위하여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혁명의 참모부인 당을 조직사상적으로 더욱 공고화하는것이다.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당의 유일사상,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함으로써 당의 통일과 단결을 눈동자와 같이 고수하며 전당을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 무한히 충실한 혁명가의 붉은 대오로, 그이의 주위에 하나의 사상의지로 굳게 결속된 강력한 전투부대로 꾸리고 그 전투력을 가일층 제고하기 위하여 백방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항일무장투쟁의 불길속에서 이룩된 빛나는 혁명전통에 깊이 뿌리박고 필승불패의 힘을 지닌 조선로동당은 언제나 백전백승할것이며 혁명의 탁월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를 받들고 그이의 두리에 굳게 뭉쳐나가는 조선인민의 혁명위업은 반드시 성취되고야 말것이다.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우리 당 로선의 정당성과 위대한 생활력

우리 당과 혁명 발전에서 커다란 력사적의의를 가지는 조선로동당 대표자회가 있은지 두돐이 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당대표자회보고에서 현국제국내정세를 과학적으로 분석평가하신데 기초하여 우리 혁명위업과 전반적세계혁명운동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우리 당의 원칙적립장과 방침, 그 실현을 위한 강령적인 투쟁과업들을 명시하시였으며 특히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당의 새로운 혁명적로선을 전면적으로 천명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당 대표자회보고에서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오늘 우리의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가장 중요한것은 조성된 정세의 요구에 맞게 사회주의건설의 전반적사업을 개편하며 특히 원쑤들의 침략책동에 대비하여 국방력을 더욱 강화할수 있도록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키는것입니다. 이것은 정세의 변화와 관련하여 벌써 몇해전부터 집행하여온 우리 당의 기본적인 전략적방침입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당의 이 방침을 확고히 견지하여야 하며 그에 립각하여 모든 사업을 전개하여야 할것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354페지)

생활은 우리 당 대표자회에서 제시한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로선의 정당성을 이미 확증하였으며 그 생활력은 날이갈에 따라 더욱더 증대되고있다.

오늘 우리 나라의 전체 근로자들은 김일성동지의 력사적인 당대표자회보고와 위대한 10대정강, 그리고 공화국창건 스무돐기념경축대회에서 하신 보고를 높이 받들고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더욱 큰 성과를 이룩하고있다.

* *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우리 당의 로선은 제국주의침략과 전쟁 책동이 로골화되고있는 현시기의 첨예한 정세하에서 혁명의 전취물을 믿음직하게 수호하면서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성과적으로 건설할수 있게 하는 가장 정당한 로선이다.

그것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우리 혁명과 건설의 경험을 일반화하시고 프로레타리아독재문제, 제국주의와 전쟁문제,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건설방도문제 등에 대한 맑스-레닌주의리론을 새로운 력사적조건에 맞게 창조적으로 발전시키신데 기초하여 처음으로 제시하신 철저하게 혁명적인 로선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정확히 결합하는것이 가지는 의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어떻게 결합시키는가 하는것은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건설의 운명을 좌우하는 기본문제의 하나입니다. 우리 공산주의자들은 여기에서 나타날수 있는 온갖 편향을 반대하고 이 문제를 정확히 해결하여야 합니다.》(우와 같은 책, 354페지)

사회주의, 공산주의 승리의 세계사적 과정은 매개 나라들에서 승리한 혁명이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국내반동세력의 반혁명적복구시도를 반대하여 끊임없이 투쟁하면서 민족국가단위로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건설하는 과정이며 여러 나라들에서의 이러한 승리가 국제적규모에서 부단히 확대되여가는 과정이다. 전세계에서 사회주의혁명이 동시에 승리하는것이 아니라 객관적조건과 주체

적력량의 준비정도에 따라 일부 나라들에서 혁명이 먼저 승리하게 되며 따라서 사회주의나라들은 제국주의와 장기적으로 대치된 상태에서 혁명과 건설을 추진시키지 않을수 없다.

특히 오늘날 사회주의나라들은 력사상 가장 강도적이며 가장 흉악하고 파렴치한 미제의 끊임없는 침략과 전쟁의 위협속에서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건설하고있다. 세계재패의 야망을 버리지 않고있는 미제는 지금 세계도처에서 제놈들의 강도적본성을 로골적으로 드러내놓고 공개적인 무력침략과 내부와해의 악랄하고 교활한 방법으로 사회주의나라들을 비롯한 국제혁명력량을 각개격파해보려 하고있으며 사회주의나라들을 반대하는 침략전쟁을 실제로 벌려놓고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구라파와 아세아에서 서독군국주의와 일본군국주의의 재생재무장과정을 급격히 추진시켜 또다시 새로운 전쟁의 발원지를 만들고있으며 특히 아세아에 침략의 예봉을 돌리고 웰남침략전쟁을 확대하면서 일본군국주의를 아세아침략의 《돌격대》로 내몰고있다.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사실상 제2차세계대전이 끝난이후 오늘에 이르는 20여년동안 미제가 일으킨 침략과 전쟁의 불길이 타오르지 않은 날이란 하루도 없다.

이러한 조건하에서 주권을 잡은 공산주의자들은 제국주의 특히 미제에 대한 높은 경각성을 가지고 경제에서 자립, 국방에서 자위의 원칙에 확고히 의거하여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다같이 튼튼히 틀어쥐고 정확히 결합시켜 나감으로써만 미제를 두목으로 하는 제국주의자들의 끊임없는 침략과 전쟁 책동을 물리치고 프로레타리아독재를 유지공고히 하며 사회주의, 공산주의에로의 전진운동을 힘차게 촉진할수 있다. 또한 이렇게 하여야 사회주의나라들을 비롯한 국제혁명력량을 각개격파하려는 미제의 흉악한 전략을 단호히 저지파탄시키고 사회주의진영의 전반적위력을 강화할수 있으며 반제민족해방운동과 국제공산주의운동에도 효과적으로 이바지 할수 있다.

사회주의나라들은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의 과업중 그 어느 하나도 결코 소홀히 할수 없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전쟁이 일어나면 다 파괴될것이라 하여 국방건설에만 치우치고 경제건설을 제대로 진행하지 않는것도 잘못이며 평화적기분에 사로잡혀 경제건설에만 치우치고 국방력을 충분히 강화하지 않는것도 잘못입니다.》(우와 같은 책, 354페지)

미제를 두목으로 하는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전쟁 책동이 로골화되고있는 현정세하에서도 사회주의나라들은 모든 조건과 가능성을 다 리용하여 경제건설을 적극 추진시켜 나가야 한다.

사회주의경제건설은 주권을 쥔 맑스-레닌주의당의 근본과업의 하나이며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담보이다. 경제건설을 잘하여야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에 상응한 생산력의 높은 발전수준을 이룩할수 있으며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인민생활을 견질적으로 높일수 있다. 또한 경제건설을 힘차게 추진시켜 사회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쌓아야만 나라의 정치적독립과 자주성을 확고히 보장하며 현대적국방건설의 요구도 원만히 충족시킬수 있다.

주권을 쥔 맑스-레닌주의당이 사회주의경제건설을 힘차게 밀고나가는것은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전쟁책동이 로골화되고있는 현시기의 첨예한 정세하에서 인민들에게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명확한 전망과 혁명승리의 신심을 확고히 안겨주며 인민들의 사기를 더욱 높여 혁명과 건설에 보다 힘차게 나설수 있게 한다.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주권을 잡은 공산주의자들은 래일 당장 전쟁이 일어난다 하여도 오늘밤까지는 국방건설과 함께 경제건설을 힘차게 추진시켜야 한다.

만일 전쟁의 위협이 크고 전쟁이 일어나면 다 파괴될 것이라 하여 경제건설에 소극적으로 대한다면 이는 혁명과 건설의 가일층의 전진을 가로막는것으로 된다. 이렇게 되면 결국 나라의 위력을 강화할수 없고 인민생활도 향상시킬수

없으며 도대체 제국주의가 망하기전에는 사회주의도, 공산주의도 건설할수 없게 될것이다.

사회주의나라들은 경제건설을 잘하는 동시에 국방력을 백방으로 강화하는데 최대한의 힘을 넣어야 한다.

만일 사회주의나라들이 미제를 두목으로 하는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전쟁책동이 더욱더 증대되고있는 현정세하에서 경제건설에만 치우치고 자체의 국방력을 강화하는데 백방의 힘을 넣지 않는다면 이는 허용할수 없는 무경각성으로 되며 혁명과 건설에 돌이킬수 없는 후과를 가져올수 있다. 이러한 립장은 제국주의에 대하여 환상을 가지고 전쟁의 위험을 과소평가하는것이며 전쟁과 평화 문제에서의 맑스-레닌주의적립장, 견결한 반제투쟁의 혁명적립장으로부터 물러서는것으로 된다. 그것은 결국 제국주의침략자들을 더욱 오만하게 하여 오히려 전쟁의 위험을 증대시킬수 있게 하며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건설은 고사하고 제국주의침략으로부터 혁명의 전취물을 수호할수 없고 조국과 인민을 보위할수도 없게 할것이다. 제국주의는 침략과 전쟁의 근원이며 제국주의가 남아있는한 그 침략적본성은 결코 변할수 없는것이다.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우리 당의 로선은 프로레타리아독재의 민족적임무와 국제적임무를 다같이 성과적으로 실현하며 이 두 임무를 정확히 결합시킬수 있게 하는 철저한 혁명적로선이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공화국북반부에서 사회주의건설을 촉진하고 우리의 혁명기지를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반석같이 꾸리며 조국통일과 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앞당길수 있게 하는 결정적담보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가르치시였다: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키는 로선은 정당하다. 우리는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더욱 발휘하여 조국통일의 혁명적대사변을 준비있게 맞이하기 위하여 반드시 이 로선을 실현하여 우리의 경제군사적위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우리 조국 남반부를 강점한 첫날부터 침략정책과 식민지예속화정책을 실시하고있는 미제는 오늘 전대미문의 군사파쑈통치로써 남반부의 우리 동포들을 가혹하게 탄압하고 있을뿐아니라 공화국북반부를 반대하는 새로운 침략전쟁을 일으키기 위하여 광분하고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수만명의 자기의 침략군대를 남조선에 주둔시키고있으며 괴뢰군병력을 대대적으로 증강하면서 지상과 공중, 해상에서 매일과 같이 공화국북반부에 대한 적대행동을 감행하고있다. 미제는 남조선을 전조선과 아세아를 침략하는데 더욱 효과적으로 리용하기 위하여 남조선괴뢰도당을 일제를 비롯한 아세아의 반동들과 군사적으로 결탁시키려고 책동하고있으며 《한일조약》을 미끼로 아세아에서 새로운 군사동맹을 조작하려고 꾀하고있다. 미제는 이미 웰남을 반대하는 침략전쟁에 남조선괴뢰들을 끌어들였으며 웰남침략전쟁에서 당하고있는 참패를 만회해보려고 날뛰면서 우리 나라와 아세아의 전반적지역에 전쟁을 확대하려고 하고있는것이다.

우리 나라에서 미제의 새전쟁도발책동은 이미 엄중한 단계에 들어섰으며 이로 인하여 우리 나라에서는 임의의 시각에 전쟁이 다시 터질수 있는 사태가 조성되고있다.

이러한 정세하에서 우리는 나라의 방위력을 더욱 강화할수 있도록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키는 당의 전략적방침을 확고히 견지하여야만 조선혁명의 기지인 북반부의 정치, 경제, 군사적 위력을 튼튼히 다지고 미제의 격화되는 침략책동에 주동적으로 대처할수 있으며 남반부인민들의 혁명투쟁을 적극 지원하고 우리 세대에 조국의 통일과 혁명의 전국적승리를 기어이 실현할수 있다.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우리 당의 로선은 우리 혁명의 사활적리익에 완전히 부합될뿐아니라 세계혁명의 근본리익에도 부합된다.

공산주의자들은 언제나 자기 나라에서의 혁명을 잘하는 동시에 세계혁명을 촉진하기 위하여 모든 힘을 다해야 한

다. 더우기 혁명을 먼저 수행하고 사회주의의 길에 들어선 나라들은 국제공산주의운동과 로동운동을 추진시키는데 보다 적극적으로 기여하여야 한다. 주권을 잡은 로동계급이 자기 나라의 혁명을 잘하는 동시에 국제공산주의운동의 한 부대로서 사회주의진영을 보위하고 이 진영의 전반적위력을 강화하는데 적극 기여하며 반제투쟁의 기치밑에 싸우는 나라 인민들은 성심성의 도와주는 것은 신성한 국제주의적의무이다.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우리 당의 로선은 사회주의진영의 동방초소를 굳게 지키고 이 진영의 전반적위력을 강화하며 세계혁명을 끝까지 수행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우리 당의 불요불굴의 혁명정신과 확고부동한 반제혁명투쟁의 립장을 구현하고있다.

우리 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의 병진로선을 제시하심으로써 우리 혁명승리의 확고한 담보를 마련하여주시였으며 제국주의를 반대하고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의 승리를 위하여 싸우는 모든 나라 인민들앞에 반제반미투쟁과 공산주의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위한 명확한 길을 밝혀주시였다.

*　　　*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당대표자회보고를 비롯하여 일련의 중요한 교시들에서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당의 새로운 혁명적로선을 관철하는데서 나서는 근본요구에 대하여서도 전면적인 해답을 주시였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다같이 높은 발전속도를 이룩함으로써 사회주의건설의 대고조를 계속 견지하는것이다.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우리 당의 로선은 나라의 방위력을 강화하는데 백방의 힘을 넣는 동시에 경제건설도 계속 천리마의 속도로 다그칠것을 요구하는 적극적이며 전투적인 로선이다. 우리는 국방건설에 특별한 힘을 넣어야 하는 조건에서도 경제건설의 속도를 조금도 늦출수 없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는 경제건설과 국방건설 둘중 어느것도 죽일수 없다.**》고 가르치시였다.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다같이 높은 발전속도를 이룩하는것은 물론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이것은 혁명의 근본리익으로부터 출발하는 절대적요구이며 또한 사회주의사회는 자기의 고유한 우월성으로 하여 이러한 높은 발전속도를 이룩할수 있는 모든 예비와 가능성을 가지고있다.

사회주의하에서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은 모두 인민들자신의 절실적인 리익과 관련되는 사업이다. 그러므로 인민대중의 높은 혁명적열의와 자각성을 동원한다면 생산의 발전을 위한 예비를 끊임없이 찾아내고 경제발전의 높은 속도를 계속 유지할수 있으며 그에 기초하여 경제건설의 추진과 국방력의 강화, 인민생활의 향상을 다같이 힘차게 밀고나갈수 있다. 문제는 주권을 잡은 맑스-레닌주의당이 대중의 정치적열성과 창발성을 최대한으로 발양시키는데 기초하여 어떻게 경제발전의 예비를 적극 동원하며 조직사업을 짜고드는가에 달려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당대표자회보고에서 나라의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이미 이룩한 성과를 공고발전시키면서 생산과 건설을 계속 힘차게 추진하기 위한 현시기 우리 나라 경제발전의 기본방향을 명확히 제시 하시였으며 그것을 실현하는데 중심을 두면서 경제토대를 더욱 확대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기본건설을 진행할데 대하여 교시하시였다. 이것은 오늘 우리 인민경제의 위력한 토대와 거기에 숨어있는 방대한 생산잠재력을 효과적으로 동원리용하여 생산의 높은 발전속도를 계속 유지함으로써 경제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의 과업을 원만히 실현하고 국방건설의 과업도 성과적으로 보장할수 있게 하는 가장 정확한 방침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의 병진로선을 성과적으로 관철하기

위하여서는 또한 민족경제의 자립적토대를 더욱 강화하여 어떤 환경에서도 국가와 인민의 물질적수요를 원만히 충족시킬수 있도록 우리 인민경제를 더욱 공고하고 생활력이 강한 자립경제로 만들어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민족경제의 자립적토대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당의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여야 하겠습니다. 생산부문들과 기업소들을 보강하고 완비하며 인민경제의 부문구조를 더욱 개선하며 대규모기업소들과 중소규모기업소들을 계속 병행하여 발전시키며 나라의 생산력을 합리적으로 배치하고 특히 지방경제의 발전을 촉진하도록 하여야 합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361페지)

생산부문들과 기업소들을 더잘 보강하고 완비하는 동시에 그에 의거하여 매개 부문과 기업소들에서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의 과업을 모두 잘 수행할수 있게 하는것은 인민경제의 자립성을 강화하며 경제건설에서 경제적리익과 국방상리익을 정확히 결합시킴에 있어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이것은 나라의 경제구조를 더욱 개선완성하는데 기초하여 인민경제전반적으로는 물론 매개 기업소들에서까지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의 과업을 둘다 통일적으로 틀어쥐고나갈수 있게 하는 담보로 된다. 이와 함께 모든 지방들에서 농업을 다각적으로 발전시키며 대규모기업소들과 중소규모기업소들을 병행하여 발전시킴으로써 지방경제의 종합적발전을 보장하는것은 나라의 경제적자립성을 강화하며 경제건설에서 경제적리익과 국방상리익을 결합하는 중요한 조건으로 된다. 그것은 공업과 농업간의 련계를 강화하고 전반적인 사회주의농촌건설을 촉진하며 도시와 농촌간의 차이를 없애는데서뿐아니라 국방상 견지로 보아도 매우 큰 의의를 가지고있다. 특히 대규모기업소와 함께 중소규모기업소들을 발전시키는것은 평상시에도 중요한 의의를 가지지만 일단 유사시에는 그 의의가 더욱더 커질수 있다.

나라의 생산력배치에서 경제적요구와 함께 국방상요구를 잘 고려하는것은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키는 당의 방침을 관철하는데서 중요한 문제의 하나로 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국방력의 강화는 다만 무력을 강화하는것만으로는 모자랍니다. 전시태세에서 인민들의 경제생활을 고려하여 생산력을 적당하게 배치하는것도 국방력을 강화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3권, 343페지)

생산력배치에서 경제적요구와 함께 국방상요구를 다같이 고려하며 모든 지방을 골고루 발전시키는것은 우리 당이 시종일관 견지하고있는 방침이다. 그것은 있을수 있는 전쟁에 대처하여 평상시부터 만단의 준비를 갖추는 적극적인 방침이며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다 잘할수 있게 하는 정확한 방침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당의 로선을 성과적으로 관철하기 위하여서는 또한 전체인민과 인민군대를 정치사상적으로 튼튼히 준비시키는데 기초하여 당의 군사로선을 철저히 실현하여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군사로선은 혁명무력건설과 사회주의나라들의 국방건설문제를 성과적으로 해결함에 있어서 관건적의의를 가진다. 그러므로 정확한 군사로선의 작성은 주권을 쥔 맑스-레닌주의당이 자체의 혁명무력을 백방으로 강화하며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킴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의 하나로 나선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인민군대를 핵심으로 하는 전인민적방위체계를 세울데 대한 독창적인 군사전략적방침을 제시하심으로써 이 중요한 문제를 정확히 해결하기 위한 맑스-레닌주의적길을 명확히 밝혀 주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의 방위력을 불패의것으로 강화하기 위하여서는 당의 군사로선에 따라 인민군대에서는 전군간부화와 전군현대화 방침을 계

속 관철하며 인민들은 전민무장화와 전국요새화 방침을 어김없이 집행하여야 하겠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573페지)

전군간부화와 전군현대화, 전민무장화와 전국요새화를 실현함으로써 우리 인민군대를 일당백의 강철의 혁명무력으로 만들며 그를 핵심으로 하는 전인민적, 전국가적방위체계를 세울데 대한 김일성동지의 군사사상은 맑스-레닌주의군사리론에서 처음으로 제기된 독창적인 군사전략사상이다. 그것은 현대전의 특성과 혁명전쟁의 법칙을 타산하고 사회주의제도만이 가질수 있는 정치사상적우월성과 나라의 튼튼한 자립적민족경제의 토대에 의거하여 미제를 두목으로 하는 현대제국주의의 가장 야수적인 침략으로부터 사회주의국가를 믿음직하게 보위하며 혁명과 건설을 힘차게 추진시킬수 있게 하는 가장 정확한 군사전략적방침이다.

우리 당의 군사로선은 국방에서의 자위의 원칙을 철저히 구현하고있으며 적들의 일상적인 파괴책동과 온갖 형태의 무력침공을 걸음마다 분쇄하면서 사회주의건설을 힘차게 추진할수 있게 하는 믿음직한 담보로 되고있다.

* *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새로운 혁명적로선과 그것을 관철하는데서 나서는 모든 중요한 문제들을 명확히 제시하여주시였을뿐아니라 몸소 진두에서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직접 조직지도하여주시고계신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혁명발전의 매 시기마다 제기된 혁명임무와 정세발전의 추이를 정확히 분석하시고 그에 맞게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의 과업을 옳게 결합하여 진행할수 있도록 모든 대책을 취하여주시었으며 그것이 현실에서 커다란 생활력을 낼수 있도록 온갖 배려를 다 돌리시었다.

그이께서는 우리 당 대표자회이후 최근년간에만 하여도 당의 새로운 혁명적로선을 성과적으로 관철할수 있도록 함흥지구를 비롯하여 전국의 수많은 공장, 기업소들의 사업을 현지에서 직접 지도하시였으며 당중앙위원회 제4기 제16차전원회의를 비롯한 당 전원회의들과 기타 많은 중요한 회의들을 몸소 소집하시고 당의 새로선관철에서 나서는 근본적요구들과 그 실현방도들을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시였다. 오늘 우리 인민이 공화국북반부에 대한 미제와 그 주구들의 더욱 더 격화되고있는 새전쟁도발책동에도 끄떡하지 않고 그것을 걸음마다 분쇄하면서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힘찬 천리마의 진군을 계속하고있는것은 전적으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확고한 주체적립장과 자주, 자립, 자위의 혁명정신을 일관하게 견지하시고 조성된 정세의 요구에 맞게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다같이 잘할수 있도록 정확히 지도하여 주시고계시기때문이다.

실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로 하여 우리 나라에서는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당의 로선을 관철하는데서 빛나는 모범이 창조되였으며 이 로선의 불패의 생활력은 더욱더 증대되고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의 영웅적로동계급을 비롯한 모든 근로자들은 당대표자회결정을 받들고 천리마의 기세, 일당백의 기세로 사회주의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힘찬 투쟁을 벌림으로써 세상사람들을 경탄케 하는 기적들을 련이어 창조하였습니다.》(《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우리 인민의 자유와 독립의 기치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강력한 무기이다》, 30페지)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우리 당의 로선은 우선 나라의 경제적자립성을 강화하고 사회주의경제발전의 높은 속도를 보장하여주고있다.

조성된 정세의 요구에 맞게 국방건설을 강력히 진행하는 한편 사회주의경제건설을 계속 힘차게 추진시켜나가는 우리 당의 정확한 방침과 전체 인민들의 헌신적로력투쟁에 의하여 자립적민족경제의 토대는 날을 따라 더욱 튼튼해지

고있다. 기계제작공업을 핵심으로 하는 강력한 중공업기지와 경공업기지가 더욱 강화되고있으며 사회주의농촌경리는 현대적기술로 장비되고있다.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키는 힘겨운 투쟁을 전개하면서도 우리의 공업은 지난해에만도 17%라는 높은 발전속도를 이룩하였으며 올해에는 또다시 지난해보다 24%이상의 장성속도를 내다보게 되였다. 또한 우리의 농촌경리는 지난해에 력사에 드문 대홍수로 커다란 자연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류례없는 대풍을 마련하였으며 금년에도 혹심한 가물을 이겨내고 큰 풍작을 마련할수 있게 되였다.

우리 인민은 사회주의건설의 웅대한 강령인 7개년계획수행에서 마지막 돌격단계에 들어섰으며 올해에 벌써 일련의 공업부문들에서 7개년계획의 고지들을 점령하게 될것이다.

사회주의경제건설이 빨리 진척되고 나라의 경제력이 강화됨에 따라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은 더욱더 향상되고있다. 특히 최근년간 우리 당과 정부는 국방건설에 커다란 힘을 돌리면서도 인민들의 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한 대담한 조치를 련이어 취하였다. 당과 정부는 농업현물세제를 완전히 없앰으로써 착취에서 해방된 우리 농민들을 조세부담으로부터도 영원히 해방시켰다. 또한 1967년부터는 전반적9년제기술의무교육제를 실시하는 력사적조치를 취하였으며 보통교육부문 일군들의 임금을 다시금 대폭 인상하였다. 주택과 탁아소 및 유치원 건설, 일용필수품과 식료품공급의 개선, 임금의 인상, 일부 소비품가격의 인하를 비롯한 광범한 인민적시책이 실시됨으로써 근로자들의 실질수입은 전반적으로 높아지고있다.

우리 당은 사회주의경제건설과 함께 국방건설에서도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고있다.

우리 당의 정확한 군사로선에 따라 인민군대를 불패의 혁명무력으로 강화하고 전체 인민을 무장시키며 전국을 요새화하기 위한 거대한 사업들이 성과적으로 수행됨으로써 원쑤들의 그 어떤 침해로부터도 조국과 인민을 보위할수 있는 튼튼한 자위적태세가 갖추어졌다. 우리의 방선은 문자그대로 철벽이다.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우리 당 로선의 위대한 생활력은 최근년간 미제와 그 주구 박정희괴뢰도당의 더욱더 우심해지고있는 침략과 전쟁책동을 걸음마다 분쇄하고 조국과 인민의 안전을 튼튼히 수호하고있는데서도 뚜렷이 나타나고있다. 우리의 영웅적인민군용사들은 최근 몇해동안에만도 많은 병력과 중무기를 동원하여 군사분계선일대에서 빈번히 도발하여온 적들에게 섬멸적타격을 주었으며 공화국령해를 불법침입한 적 《경호함 56호》를 동해바다 깊이 수장하여버렸고 하늘로 날아든 적 고공정찰기를 비롯한 많은 적비행기를 격추격상시켰다. 특히 용감한 우리의 인민군 해군들은 금년초에 오만무례하게도 우리 나라 령해 깊이 침입하여 로골적인 적대행위를 감행하던 미제의 무장간첩선 《푸에블로》호와 거기에 탄 미제침략자들을 몽땅 나포하였다. 이 모든것은 자주권을 침해하는 도발자들에 대한 응당한 징벌로서 우리의 전인민적방위체계의 불패의 위력을 보여주고있다.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우리 당 로선의 위대한 생활력은 공화국북반부의 경제적, 군사적 위력을 그 어느때보다도 강화할수 있게 할뿐아니라 수령의 두리에 굳게 뭉친 우리 인민의 정치사상적통일을 더욱 반석같이 공고히 하며 전체 인민이 긴장되고 동원된 태세를 견지하게 함으로써 온나라를 혁명적대고조의 분위기로 계속 들끓게 한다는데 있다. 전체 근로자들은 수령의 두리에 더욱 굳게 뭉쳐 한손에는 총을, 다른 한손에는 마치와 낫을 들고 미제를 족치는 그 심정, 그 기세로 일하고있으며 조국통일의 혁명적대사변을 준비있게 맞기 위한 혁명과업수행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고있다.

공화국북반부의 경제적위력과 국방력의 강화는 또한 나라의 정치적독립의 보장과 우리 당 자주로선관철의 확고한 담보로 되고있다. 우리 당은 자체의 튼

튼한 경제력과 국방력을 가지고 있기때문에 대내외활동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완전히 자주적으로, 주동적으로 처리하고있다. 우리의 튼튼한 자립적민족경제와 위력한 자위적국방력은 근로자들의 민족적긍지와 자부심을 더욱 높여주고있으며 결심만 하면 무엇이든 할수 있고 그 어떤 원쑤와도 싸워이길수 있다는 확고한 승리의 신심을 안겨주고 있다.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우리 당의 로선은 미제의 식민지파쑈통치를 뒤집어엎고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남조선혁명가들과 인민들의 투쟁을 힘차게 고무해주고 있다. 공화국북반부의 사회주의건설에서 이룩되고있는 성과들 특히 자립적민족경제건설과 자위적국방력의 강화에서 이룩된 눈부신 성과에서 커다란 힘을 얻고있는 남조선혁명가들과 인민들은 공화국북반부를 조선혁명의 강력한 보루로, 희망의 등대로 바라보면서 미제와 그 주구들을 타도하고 조국을 통일하기 위하여 도시와 농촌에서, 지하와 산중에서, 감옥과 교수대에서 용감하게 싸우고있다.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키는 우리 당의 로선은 오늘 세계의 혁명적인민들속에서 한결같은 지지와 공명을 불러일으키고있다.

우리 당과 인민은 자력갱생의 기치밑에 자립적민족경제의 토대를 튼튼히 쌓고 전국가적, 전인민적 방위체계를 세워놓음으로써 사회주의진영의 정치, 경제, 군사적 위력을 강화하는데 크게 기여하고있으며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정책과 좌우경기회주의자들의 온갖 책동을 물리치고 사회주의진영을 견결히 수호하는데 이바지하고있다. 우리 당과 인민은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의 실제적인 성과로써 사회주의제도의 참다운 우월성을 온세상에 과시하고있으며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의 고귀한 경험으로 세계혁명적인민들의 반제반미투쟁을 힘차게 고무하여주고있다.

*　　*

오늘 우리앞에는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당의 로선을 더욱 철저히 관철하여야 할 과업이 나서고있다.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키는것은 우리 혁명의 승리를 위한 심각한 투쟁이며 우리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앞에 나서고있는 가장 중요한 당면과업의 하나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이 새로운 혁명적로선을 관철하려면 첫째로는 모든 부문, 모든 단위의 간부들과 근로자들이 사상적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할것이며, 둘째로는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소극성과 보수주의, 락후와 침체를 반대하여 강하게 투쟁하며 지난날보다 몇배, 몇십배의 노력을 하여야 할것입니다. 그리하여 사회주의경제건설분야에서나 국방건설분야에서나 할것없이 모든 분야에서 천리마의 대진군을 계속하며 새로운 혁명적고조를 일으켜야 할것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483페지)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우리 당의 로선을 성과적으로 관철하자면 무엇보다 먼저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서 당의 새로운 혁명적로선을 심장으로 받들고 끝까지 관철하고야 말겠다는 사상적준비를 더욱 굳게 다지도록 하여야 한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서 있을수 있는 전쟁에 주동적으로 대처할수 있도록 정치사상적준비를 잘 갖추게 하며 우리의 혁명력량을 튼튼히 꾸리는것은 원쑤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할수 있는 가장 중요한 담보이다. 또한 정치사상적준비를 잘하여야 경제건설을 힘있게 추진시켜 물질적준비도 더 잘 할수 있다.

모든 당조직들과 일군들은 전쟁에 대처할 정치사상적준비를 철저히 갖추며 특히 전쟁에 대한 옳은 관점과 승리의 신심을 더욱 높이 간직하고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당의 로선을 성과적으로 관철하여 나가도록 대중을 적극 교양하여야 한다.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우리는 전쟁을 바라지 않지만 결코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더우기 미제가 남반부에 둥지를 틀고 북반부에 대

한 침공을 시시각각으로 노리고있는 조건에서 우리는 원쑤들이 덤벼들면 용감하게 그것을 맞받아나아가 싸우며 또한 조선혁명을 책임진 수령의 참된 전사로서 남조선인민들의 혁명투쟁을 지원하여 미제를 남조선에서 몰아내고 조국을 통일하기 위한 사상적각오를 더욱 굳게 다지고있어야 한다. 우리는 전쟁에 대한 옳은 관점을 가지고 정치사상적준비를 잘하는 동시에 당면하여 당대표자회가 제시한 현시기 경제발전의 기본방향을 철저히 실현하며 모든 부문, 단위들에서 금년도 계획을 넘쳐수행하고 명년도 생산준비를 빈틈없이 갖춤으로써 7개년계획의 모든 고지들을 기한전에 앞당겨 점령해야 한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생산을 정상화하기 위한 선결조건인 전력공업과 채취공업을 확고히 앞세우며 흑색금속공업의 자립성을 더욱 강화하고 철생산기지를 잘 꾸리며 기계공업, 특히 대형설비생산기지를 확대강화하고 건재공업을 빨리 발전시켜야 한다. 또한 교통운수, 특히 철도의 긴장성을 풀기 위한 투쟁을 힘차게 추진시켜야 한다.

농촌경리분야에서는 당면한 가을걷이를 빨리 끝내고 다음해에 알곡생산을 더욱 높이며 공예작물과 남새, 축산업을 발전시키는데 계속 커다란 힘을 넣어야 한다. 또한 기계화와 화학화의 비중을 더욱 높여야 하며 앞으로 국토건설을 대대적으로 진행할 준비사업을 적극 추진시켜야 한다.

우리는 경제건설을 최대한으로 추진시키는 동시에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한 당의 방침을 더욱 철저히 관철하여야 한다.

오늘 경제건설과 국방건설 분야앞에 나서고있는 방대한 과업들은 오직 대중의 무궁무진한 창조력과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위대한 생활력을 백방으로 발양시키며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혁명적대고조를 계속 견지하고 앙양시킴으로써만 실현될수 있다. 나라의 국방력을 철벽으로 다지면서 사회주의 경제건설에서 계속 천리마의 속도로 나가자면 모든 부문에서 지난날보다 몇배, 몇십배의 로력투쟁을 하여야 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대표자회결정을 성과적으로 관철하며 새로운 혁명적대고조를 일으키기 위하여서는 전후시기 당의 경제건설의 기본로선을 관철할 때처럼, 1957년, 1958년에 천리마대고조를 일으킬 때처럼 소극분자, 보수분자, 동요분자들을 반대하여 강한 사상투쟁을 벌려야 합니다.》 (우와 같은 책, 488페지)

우리는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혁명적대고조를 계속 견지하기 위하여 우리의 전진을 가로막는 보수주의, 소극성 등을 극복하기 위한 날카로운 사상투쟁을 전개하며 전진, 전진, 투쟁 또 전진하는 혁명적기세로 내달려야 한다.

우리는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천리마작업반운동을 더욱 확대발전시키며 로동행정사업을 빈틈없이 짜고들어 480분 로동시간을 최대한으로 리용하며 대중적인 기술혁신운동을 강력히 벌려야 한다. 그리하여 모두가 분초를 다투어 두몫, 세몫이상씩 일을 해제껴야 한다.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우리 당의 로선은 정치에서 자주, 경제에서 자립, 국방에서 자위의 원칙으로 일관된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 주체사상을 구현한 로선이다. 그러므로 당의 이 로선을 관철하자면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수령의 위대한 혁명사상을 뼈와 살로 만들고 무조건 끝까지 옹호관철하며 그와 배치되는 사소한 현상과도 비타협적으로 투쟁하며 자신을 부단히 혁명화, 로동계급화해야 한다. 그리하여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이외에는 그 어떤 사상도 모르는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세우며 온갖 낡은 사상잔재를 뿌리뽑고 사업에서 혁명적기백이 차고넘치도록 하며 어떤 바람이 불어도 혁명의 지조를 끝까지 지키면서 모든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수행하여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우리는 당의 유일사상체계로 튼튼히 무장하고 김일성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 두리에 더욱 굳게 뭉쳐 천리마의 진군을 계속 견지하며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당의 로선을 관철하는데서 새로운 더욱 큰 승리를 이룩할것이다.

천리마운동은 사회주의건설에서 우리 당의 총로선이다

권 진 상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위대한 천리마운동이 계속 힘차게 벌어지고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의 영웅적로동계급을 비롯한 모든 근로자들은 력사적인 당대표자회결정과 위대한 10대정강을 받들고 천리마의 기세, 일당백의 기세로 사회주의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힘찬 투쟁을 벌림으로써 세상사람들을 경탄케 하는 기적들을 련이어 창조하고있다. 더우기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스무돐기념경축대회에서 하신 력사적인 보고에 접한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종국적승리에 대한 신심을 더욱 굳게 하면서 수령의 가르치심을 높이 받들고 혁명적대고조를 계속 견지함으로써 공화국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건설을 비상히 촉진하며 조국의 통일과 조선혁명의 전국적승리를 부단히 앞당기고있다.

천리마의 대진군속에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위에 굳게 뭉친 우리 인민의 정치사상적통일은 비상히 공고화되고 나라의 정치, 경제, 군사적 위력은 일층 강화되고있다.

지난 10년간의 경험은 천리마운동이 우리 혁명과 건설을 비상히 촉진시키는 강력한 추동력으로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와 공산주의에로의 전진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을 힘있게 밀어주는 위대한 혁명운동이라는것을 전면적으로 확증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천리마운동에 관한 강령적교시들과 그 실현을 위한 우리 인민의 실천투쟁의 풍부한 경험들은 사회주의, 공산주의에로 더 빨리 갈수 있는 과학적인 길을 명시하고 립증한것으로서 자유와 해방, 민족적독립과 새사회건설을 위한 세계혁명적인민들에게 힘찬 고무적영향을 주며 국제공산주의운동과 로동운동발전에 탁월한 기여로 된다.

우리는 천리마운동의 혁명적본질과 그 위대한 생활력을 깊이 인식하고 이 운동을 더욱 확대발전시켜나감으로써 우리앞에 제기된 모든 혁명임무를 빛나게 실현할수 있으며 우리 혁명의 종국적승리를 더욱 앞당길수 있다.

1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친히 창조하시고 지도하시는 위대한 천리마운동은 사회주의건설에서 우리 당의 총로선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이 로선의 본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가르치시였다:

《천리마운동은 사회주의건설에서 우리 당의 총로선으로 되여있다. 이 로선의 본질은 모든 근로자들을 공산주의사상으로 교양하고 개조하여 당의 두리에 더욱 튼튼히 묶어세우며 그들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재능을 높이 발

양시킴으로써 사회주의를 더 잘, 더 빨리 건설한다는데 있다.》(《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229폐지)

김일성동지의 직접적인 지도에 의하여 1957년에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일어난 위대한 천리마운동은 거대한 힘을 발휘하면서 끊임없이 확대발전되여왔다. 천리마운동은 특히 천리마작업반운동에 의하여 더 심화발전되였으며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위대한 변혁을 일으키며 사회주의건설을 비상히 촉진시키는 일대 군중적혁신운동으로 되였다.

우리 당은 천리마운동에서 우리 나라에서의 사회주의의 성과적건설을 위한 결정적담보를 찾았으며 우리 당 제4차대회는 천리마운동을 사회주의건설에서의 당의 총로선으로 규정하였다.

지난 10년 남짓한 기간 우리 당과 인민이 달성한 모든 성과는 김일성동지께서 창조하신 사회주의건설에서 우리 당의 총로선인 천리마운동과 밀접히 결부되여있다.

천리마, 이것은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를 받는 영웅조선의 기상이며 이 땅우에 이룩된 위대한 기적과 혁신의 상징으로 되고있다. 천리마의 정신, 천리마의 기세로 남보다 빨리 나가려는것—이것은 우리 인민의 확고부동한 생활의 신조로 되였다.

이리하여 세상사람들은 정당하게도 김일성동지의 령도를 받는 우리 나라를 《천리마조선》으로 부르고있으며 우리 인민은 김일성동지께서 마련하여주신 위대한 천리마시대에 살며 일하는것을 끝없는 행복으로 생각하고있다.

천리마운동이 이와 같이 사회주의건설에서의 우리 당의 총로선으로서 거대한 힘을 발휘하는것은 무엇보다도 그것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합법칙성과 우리 혁명의 절박한 요구를 가장 정확하게 반영하고있는데 있다.

천리마운동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가장 중요한 요구, 빨리 달려나갈데 대한 합법칙적요구를 옳게 구현하고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람들의 사상의식수준과 생산열의를 끊임없이 높여 계속 전진하고 계속 혁신함으로써 더 많은 물질적 및 문화적 재부를 창조하여나가는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합법칙적요구이며 따라서 천리마운동은 이 요구를 옳게 반영한것입니다. 원래 천리마란 하루에 천리씩 달리는 말이라는 뜻인데 이것은 우리의 오랜 조상때부터 빨리 달린다는 상징적술어로서 씌여왔습니다. 천리마운동이란 이런 천리마를 탄 기세로 사회주의경제발전법칙의 요구대로 빨리 달려나가자는것을 우리 인민의 민족적감정과 구미에 맞게 표현한것입니다.》(《사회주의건설의 위대한 추동력인 천리마작업반운동을 더욱 심화발전시키자》, 3~4폐지)

근로대중의 높은 정치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에 의하여 모든것이 빨리 전진하는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합법칙성이며 사회주의제도의 가장 중요한 우월성이다. 사회주의건설에서 가장 중요한것은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과 대중의 자각적열의에 의거하여 모든 가능성을 최대한으로 동원함으로써 모든 부문을 다같이 높은 속도로 발전시키는데 있다.

특히 우리 나라에서는 빨리 달려나가는것이 더욱 절실한 문제로 나섰다.

사회주의건설을 비상히 빠른 속도로 전진시키는것은 우리 혁명발전의 절박한 요구였으며 우리 인민의 열렬한 지향이였다.

우리 당과 인민은 낡은 사회로부터 락후한 경제와 문화를 넘겨받았다. 나라의 절반땅을 강점한 세계반동의 원흉 미제침략자들이 도발한 3년간의 전쟁에서 그것마저 혹심한 파괴를 당하였다. 전후 우리는 미제의 끊임없는 전쟁도발책동을 분쇄하면서 혹심한 전쟁의 피해를 가시며 북반부의 사회주의건설을 진

행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이러한 사정은 우리들로 하여금 과거의 락후성을 하루속히 퇴치하기 위하여, 민족의 최대의 숙망인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남이 한걸음을 걸을 때에는 백걸음을 걸으며 남이 10리를 달릴 때에는 100리를 달리는 기세로 전진할것을 절실히 요구하였다.

과거에 어렵게 살아왔으며 당에 의하여 교양되고 육성된 우리 인민은 우리 혁명의 절박한 요구와 자기앞에 부과된 력사적사명을 깊이 자각하고 다시는 지난날의 쓰라린 생활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하여, 우리 혁명의 전국적승리와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승리적전진을 위하여 최대한으로 빨리 전진할것을 열렬히 지향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바로 이러한 우리 혁명발전의 요구와 우리 인민의 혁명적지향을 반영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합법칙성에 의거하여 혁명과 건설을 결정적으로 촉진시키는 적극적인 방침을 수립하시고 전체 근로자들을 그 관철을 위한 영웅적투쟁에로 힘차게 조직동원하시였다.

수령께 무한히 충실한 우리의 영웅적 로동계급은 《천리마를 탄 기세로 달리자!》라는 당과 수령의 전투적호소를 심장으로 받들고 온갖 애로와 난관을 극복하면서 도처에서 새로운 기적을 창조함으로써 사회주의건설의 혁명적대고조를 이룩하였다.

우리 나라에서의 위대한 천리마운동은 바로 이와 같이 탁월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를 높이 받들고 우리 혁명이 제기하는 가장 중요한 요구를 철저히 실현하기 위하여 달려나가는 우리 인민의 위대한 창조력의 발현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합법칙적요구의 반영이다. 그것은 우리의 혁명위업이 완수되는 그날까지 계속 튼튼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위대한 혁명운동이다.

천리마운동이 우리 당의 총로선으로서 거대한 힘을 발휘하는것은 또한 이 운동이 당과 수령의 주위에 굳게 뭉친 우리 인민의 정치사상적통일의 발현이며 그것을 부단히 공고히 하는 혁명운동이라는데 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의 현명한 령도, 당과 인민의 확고부동한 통일, 빨리 나아가려는 우리 인민의 비상한 각오와 혁명적열의, 이것이 사회주의건설의 대고조와 천리마운동의 밑바닥에 놓여있으며 우리의 모든 승리의 결정적담보로 되고 있습니다.》 (《김일성저작선집》, 제3권, 96페지)

김일성동지께서 교시하신바와 같이 사회주의하에서는 로농동맹에 기초한 인민대중의 정치사상적통일, 당과 수령의 령도밑에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건설하려는 그들의 공통된 지향과 열의가 사회발전의 기본동력으로 된다. 그러므로 사회주의건설에서 가장 중요한것은 모든 근로자들을 교양개조하여 당과 수령의 주위에 더욱 굳게 단결시키며 인민대중의 정치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전면적으로 발양시키는것이다.

천리마운동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를 받는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확고부동한 정치사상적통일에 기초하여 일어난 위대한 혁명운동이다.

동시에 그것은 모든 근로자들을 공산주의사상으로 교양개조하여 당과 수령의 주위에 더욱 굳게 단결시킴으로써 우리 인민의 정치사상적통일을 부단히 강화한다.

천리마운동은 근로자들을 집단적영웅주의와 집단적혁신에로 불러일으키는 공산주의적인 대중적대진군운동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천리마운동은 많은 사람들을 계속 전진하

고 계속 혁신하는 사회주의건설의 적극분자로 만드는 하나의 공산주의교양운동이며 많은 사람들이 대중적영웅주의를 발양하여 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가게 하는 공산주의적전진운동입니다.

다시말하여 천리마운동의 기본목적은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에로 가는 과도기에 모든 사람들을 교양개조하여 소극분자를 적극분자로 만들고 뒤떨어진 사람이 한사람도 없게 하며 모든 사람들이 대중적영웅주의를 발휘하여 빠른 속도로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려는데 있습니다.》(《사회주의건설의 위대한 추동력인 천리마작업반운동을 더욱 심화발전시키자》, 7페지)

사람들의 머리속에 남아있는 낡은 사상잔재를 청산하는 사상교양사업은 근로자들을 당과 수령의 주위에 굳게 단결시키며 그들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최대한으로 발양시키는 담보이다.

천리마운동은 사상혁명을 성과적으로 실현하는 훌륭한 운동이며 이 운동의 기본은 근로자들속에서 공산주의사상과 도덕의 전면적승리를 보장하는데 있다.

천리마운동은 무엇보다도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당의 유일사상체계로 튼튼히 무장시키며 그들속에서 혁명화, 로동계급화를 촉진하여 그들을 당과 수령께 무한히 충실한 혁명전사로, 공산주의적인간으로 육성하는 사상혁명의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게 한다.

이리하여 천리마운동은 우리 인민을 당과 수령의 주위에 더욱 굳게 단결시키며 그들의 혁명적열의를 최대한으로 발양시킨다.

인민대중의 정치사상적통일단결을 비상히 강화시키는 위대한 천리마운동은 사회주의건설의 그 어떤 개별적측면이나 령역만이 아니라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온갖 낡은것을 쓸어버리고 새것을 창조하는 군중적 혁신운동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천리마운동은 경제와 문화, 사상과 도덕의 모든 분야에서 끊임없는 혁신을 일으키며 사회주의건설을 최대한으로 다그치기 위한 전인민적운동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115페지)

천리마운동은 사람들을 공산주의사상으로 교양개조하여 단결시키는 사업과 경제문화건설에서의 집단적혁신운동을 유기적으로 결합시킨 대중적운동이다. 그것은 근로자들의 앙양된 정치적열의가 사회주의건설의 실천에서 훌륭한 열매를 맺게 한다.

천리마운동은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공산주의적집단주의사상에 기초하여 일하며 배우며 생활하도록 함으로써 군중적운동으로 생산과 건설을 힘있게 전개하게 하며 과학기술의 발전을 강력히 추동한다.

이와 같이 근로대중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높이 발양시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전면적으로 촉진하는 천리마운동은 사회주의제도의 본질적요구를 정확히 구현한 혁명운동이며 따라서 이 제도의 우월성과 생활력을 전면적으로 발휘시키며 이 제도의 급속한 전진을 보장하는 일대 혁명운동이다.

우리 나라에서의 천리마운동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주체적인 로선과 정책을 관철하는 행정에서, 수령께서 제시하신 모든 로선과 정책을 자기의 사활적인 사업으로 접수한 우리 로동계급과 근로자들의 영웅적투쟁에 의하여 발생발전하였다.

사회주의건설에서 우리 당의 총로선인 천리마운동은 우리의 혁명과 건설을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주는 유일한 지도사상인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 주체사상을 정확하게 구현하고있는 운동이다.

그것은 대국주의, 사대주의, 수정주의, 좌경기회주의, 종파주의 등 우리 당의 사상과 배치되는 온갖 반동적이며 반혁명적인 사상을 단호히 배격하고 조선혁명을 자주적으로, 자력갱생의 원칙에서 최대한으로 촉진시키기 위한 전당적, 전인민적 투쟁의 산물이며 어떤 어려운 환경에서도 오직 당과 수령을 믿고 수령께 모든것을 의탁하면서 싸워나가는 우리의 영웅적로동계급과 전체 근로자들의 수령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의 발현이다.

천리마운동을 시작할 때 우리 혁명과 건설의 국제국내적환경은 매우 간고하고 복잡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스무돐기념경축대회에서 하신 보고에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사회주의경제건설분야에서 5개년계획의 과업은 생산을 매우 빠른 속도로 발전시킬것을 요구하였으나 우리에게는 자재도 자금도 모든것이 다 모자랐다. 더구나 이 시기에 공화국북반부를 반대하는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침략책동과 파괴활동이 그 어느때보다도 격화되였으며 당안에서는 반당종파분자들이 우리 혁명을 배반하고 우리 당과 정부를 전복하기 위한 음모활동을 감행하였다.

이러한 엄숙한 시기에 어버이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맑스-레닌주의의 혁명적기치를 높이 들고 우리 혁명의 주력부대이며 당의 믿음직한 보위자인 우리의 로동계급을 믿으시고 몸소 강선의 강철전사들을 찾으시여 그들을 사회주의건설의 일대 고조에로 확신성있게 이끌어주시였다.

수령의 가르치심을 따라 자주의식과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으로 튼튼히 무장한 우리의 영웅적로동계급과 전체 근로자들은 수령에 대한 무한한 충성의 일념으로 가슴을 불태우면서 모자라는것은 찾아내고 없는것은 만들어내며 부단히 새기준, 새기록을 창조함으로써 내외원쑤들의 온갖 준동을 짓부시고 혁명과 건설에서 위대한 앙양을 이룩하였다. 이리하여 수령께서 친히 지펴주신 천리마의 불꽃이 료원의 불길처럼 타번지여 온나라를 휩쓸었으며 이때부터 우리 나라에서는 천리마운동의 위대한 새시대가 펼쳐졌다.

이와 같이 발생한 천리마운동은 당의 사상과 배치되는 온갖 반혁명적이며 반동적인 사상을 반대하는 날카로운 사상투쟁속에서, 자력갱생의 기치밑에 모든 애로와 난관을 이겨내고 자체의 힘으로 혁명과 건설을 촉진하는 대중적투쟁속에서 계속 줄기차게 발전되고 심화되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에게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이 있었기때문에 천리마를 탈수 있었습니다. 누가 우리에게 천리마를 태워준것이 아닙니다. 말탈줄 모르는 사람을 남이 태워주면 떨어져 상할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체의 힘으로 천리마를 탔으며 계속 천리마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앞으로 내달리고있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3권, 435페지)

천리마운동은 필요한 모든것을 자체의 힘으로 만들어내며 내부에 있는 모든 잠재력과 가능성을 동원하여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추진시키는 전인민적전진운동이다. 이 운동참가자들은 자체의 힘을 믿지 않고 남만 쳐다보는 그릇된 립장과 소극성과 보수주의 등 낡은 사상잔재를 철저히 배격하고 자기 머리로 생각하고 자기의 힘으로 새사회를 건설하기 위하여 군중적으로 투쟁함으로써 우리 혁명위업의 승리를 부단히 앞당기고있다.

이와 같이 천리마운동은 조선혁명을 자주적으로, 자력갱생의 원칙에서 끝까지 수행할데 대한 우리 당의 주체사상을 견결히 옹호하고 고수하며 철저히 관철시키는 혁명운동이며 모든 난관과 애로를 뚫고 자체의 내부예비와 잠재력을

최대한으로 동원하여 혁명과 건설을 더 빨리 촉진하는 대중적대진군운동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친히 창조하시고 이끌어주시는 우리 인민의 위대한 천리마운동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합법칙성과 우리 혁명의 절실한 요구를 정확하게 구현하고있는것으로 하여, 당과 수령의 주위에 굳게 뭉친 우리 인민의 불패의 정치사상적통일단결에 확고히 기초하고있는것으로 하여, 특히는 우리 시대의 가장 위대한 맑스-레닌주의사상인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 주체사상에 의하여 지도되는것으로 하여 거대한 힘을 발휘하면서 사회주의, 공산주의에로의 우리 인민의 전진운동을 비상히 빠른 속도로 촉진시키고있다.

2

사회주의건설에서 우리 당의 총로선이며 인민경제발전의 강력한 추동력인 천리마운동과 천리마작업반운동은 자체의 혁명적본질과 위대한 생활력으로 하여 세상에 출현하자마자 우리의 로동계급을 비롯한 전체 인민의 한결같은 지지찬동을 받았으며 우리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를 휩쓸면서 료원의 불길처럼 확대되였다.

천리마운동, 천리마작업반운동은 강선의 로동계급속에서 시작되여 전국의 로동계급과 근로자들속에 급속히 퍼졌으며 공업뿐만아니라 농업, 건설, 운수, 체신, 상업, 교육, 보건, 과학, 문화, 예술 등 모든 부문을 휩쓸었다.

지금 우리 나라에서의 천리마운동은 국가경제기관일군들과 로동자, 농민들은 물론 청년학생들과 가두인민반원들속에서까지 힘있게 전개되고있다.

이것은 사회주의건설의 위대한 추동력인 천리마운동이 인민대중속에 깊이 뿌리박은 위대한 운동이라는것을 잘 보여준다.

김일성동지께서 창조하신 위대한 천리마운동은 그이의 직접적인 지도하에 지난 10여년간 사회주의건설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에서 그 생활력을 남김없이 발휘하였다.

천리마운동은 당이 내세운 사상혁명, 기술혁명, 문화혁명의 과업들을 수행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물질적요새와 사상적요새를 점령하는 사업에서 이미 위대한 업적을 쌓았으며 거대한 생활력을 발휘하고있다.

천리마운동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서 가장 어렵고도 중요한 과업인 사상혁명수행에서 거대한 전진을 이룩하게 하고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천리마운동, 천리마작업반운동이 확대발전되는 과정에서 사람들을 교양개조하여 당과 수령의 주위에 단결시키는 사업이 근로자들자신의 사업으로 확고히 전환되였다. 천리마작업반운동을 통하여 근로자들을 교양개조하여 당과 수령의 주위에 굳게 단결시킬데 대한 우리 당의 방침이 대중속에 깊이 침투되고 대중자신에 의하여 성과적으로 관철되고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천리마기수들의 머리에는 자기 개인의 향락도 개인의 공명도 없으며 그들은 언제나 집단과 전체의 리익을 생각하며 그들의 생활을 지배하는것은 고상한 애국주의와 공산주의도덕입니다.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참다운 공산주의자들이며 진실한 인민의 충복입니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와 농업근로자동맹사업에 대하여》, 42페지)

천리마기수들은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을 자기의 뼈와 살로 만들고 항일무장투쟁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으로 튼튼히 무장한 당과 수령께 무한히 충직한 붉은 전사들로 훌륭히 준비되고있다.

그들은 자신이 당의 사상으로 철저히 무장되고있을뿐아니라 대중을 공산주의적으로 교양개조하는 훌륭한 교양자들이다.

천리마기수들은 김일성동지께서 창조하신 위대한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을 옳게 구현하여 모든 사업에서 정치사업, 사람과의 사업을 앞세우며 설복과 교양의 방법으로 사람들을 깨우쳐주고 동지적우애와 공산주의적호상방조로써 모든 일을 훌륭히 해나가고있다.

천리마작업반들에서는 특히 근로자들에 대한 교양사업이 실천활동과 밀접히 결합되고 생산현장을 거점으로 하여 집단의 힘으로, 군중적투쟁으로 힘있게 전개되고있다.

여기에서는 당정책교양과 혁명전통교양, 계급교양을 기본으로하는 공산주의교양과 사회주의적애국주의교양이 성과적으로 진행되고있다.

천리마운동을 통하여 전당과 전체 인민들 속에서는 당의 유일사상체계가 더욱 튼튼히 확립되고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혁명화, 로동계급화 과정이 급속히 촉진됨으로써 그들속에서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 우리 당의 주체사상외에는 그 어떤 사상도 모르며 언제 어디서나 당과 수령을 목숨으로 보위하고 수령의 의도대로 사고하고 행동하며 수령의 명령과 지시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끝까지 관철하는 혁명적기풍이 더욱 높이 발양되고있다. 그리하여 오늘 공화국 북반부는 전체 인민이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주위에 굳게 결속된 화목하고 단란한 하나의 붉은 대가정으로 되었다.

천리마운동의 위대한 생활력은 사상혁명의 과업과 함께 기술혁명과 문화혁명의 과업을 훌륭히 수행함으로써 사회주의건설의 높은 속도를 계속 확고히 보장하는데 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천리마운동의 커다란 정치경제적의의는 무엇보다도 먼저 그것이 사회주의건설의 높은 속도를 보장하였다는데 있습니다.》
(《김일성저작선집》, 제3권, 99페지)

천리마운동이 사회주의건설에서 높은 속도를 보장하는것은 대중의 정치적열의를 고도로 발양시키는 기초우에서 그들의 문화기술수준을 급속히 높이고 모든 분야에서 근로자들의 무궁무진한 창발성을 최대한으로 발양시키는데 있다.

천리마운동참가자들은 모든 성원들이 일하면서 배우고, 배우면서 일하는 혁명적생활기풍을 확립함으로써 사상의식수준과 문화수준, 기술수준을 부단히 높이고있으며 기술혁명과 문화혁명의 앞장에 서고있다.

천리마작업반들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공동으로 노력하며 집체적지혜와 집단적창발성을 발휘함으로써 생산과 건설에서 대중적혁신을 일으키고있으며 생산공정을 기계화, 자동화하고 생산과 기술발전에서 걸린 고리들을 성과적으로 풀어나가고있다.

이 운동참가자들과 전체 천리마기수들은 당과 수령에 대한 무한한 충성심을 안고 자력갱생의 혁명적기치밑에 최대한으로 절약하여 증산하며 없는것은 찾아내고 부족한것은 만들어내며 있는것은 더 효과적으로 리용하면서 온갖 애로와 난관을 용감히 극복하고 생산과 건설에서 계속 혁신의 불길을 높이고있다.

천리마작업반들에서는 소극성, 보수주의, 신비주의 등 온갖 낡은것을 쓸어버리고 새기록, 새기준을 부단히 창조함으로써 생산과 건설에서 높은 속도를 보장하고있다.

천리마기수들은 또한 나라와 생산의 진정한 주인이라는 높은 자각을 가지고 기업관리에 의식적으로 참가하고있다.

천리마기수들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조하신 위대한 대안의 사업체계의 요구를 훌륭히 구현함으로써 사

회주의제도의 본성과 사회주의건설에 가장 적합한 이 체계의 우월성과 생활력을 남김없이 과시하고있다.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사상혁명이 추진되여 근로자들의 의식수준과 자각적열성이 높아지고 기술혁명이 실현되여 나라의 경제적토대가 튼튼해질수록 생산장성의 예비는 더욱더 많아지며 따라서 끊임없이 전진하고 끊임없이 높은 속도로 발전하는것은 사회주의경제법칙이다. 천리마작업반운동은 바로 이 법칙의 정당성을 가장 정확히 증명해주고있다.

천리마운동은 생산장성의 높은 속도를 보장할뿐아니라 과학문화발전도 급속히 추동하고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나라에서는 과학기술도 과학자, 기술자들과 로동자, 농민들의 창조적협조밑에 군중적운동으로 빨리 발전하고있으며 문학예술도 전문적인 작가, 예술인들의 활동과 광범한 대중적문예활동이 배합된 기초우에서 날로 활짝 꽃피고있다.》(《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225페지)

천리마운동을 통하여 광범한 근로대중이 과학기술발전에 인입되고 새기술을 소유하기 위한 군중적운동이 더욱 확대발전되고있다. 그리하여 과학기술이 대중자신의 소유물로 전환되고 로동자, 농민, 과학자, 기술자들간의 창조적협조가 강화됨으로써 과학기술발전에서 커다란 성과가 달성되고있다. 이와 함께 근로자들 속에서 문화예술활동이 광범히 전개되고 우리의 사회주의적민족문화예술이 공고한 군중적기초우에서 눈부신 발전을 이룩하고있다.

또한 천리마운동은 나라의 방위력과 군사적위력을 강화하는데서도 거대한 생활력을 발휘하였다.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부문, 모든 단위를 포괄하는 장엄한 천리마의 대진군속에서 오늘 우리 나라는 일당백의 간부군대로 자라난 인민군대를 핵심으로 하는 전인민적방위체계가 철벽으로 다져짐으로써 그 어떤 원쑤들의 도발책동도 능히 격파할수 있는 난공불락의 요새로 되였다.

천리마운동의 벅찬 투쟁속에서 우리 나라는 극히 짧은 기간에 세기적인 락후성을 영원히 청산하고 강력한 자립적민족경제와 자위적인 방위력, 찬란한 문화를 가진 사회주의강국으로 전변되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가르치시였다:

《만일 우리가 천리마작업반운동을 힘차게 벌리지 않았더라면 오늘과 같은 웅장한 민주수도 평양시를 비롯한 크고작은 수많은 도시들을 건설할수 없었을것이며 현대적기술로 장비된 수백, 수천개의 공장, 기업소들을 일떠세우고 선진적인 사회주의농촌경리를 건설하여 자립적민족경제의 튼튼한 터전을 닦아놓을수 없었을것이며 따라서 전체 인민이 다같이 행복한 생활을 누릴수 있는 사회주의지상락원을 건설해놓지 못하였을것입니다.》

(《사회주의건설의 위대한 추동력인 천리마작업반운동을 더욱 심화발전시키자》, 2페지)

천리마운동이 시작된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10년남짓한 짧은 기간에 우리 나라에서는 참으로 커다란 비약이 이루어졌으며 세상사람들을 놀래우는 위대한 기적이 창조되였다.

이 모든것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친히 창조하신 사회주의건설에서 당의 총로선이며 인민경제발전의 위대한 추동력인 천리마운동, 천리마작업반운동의 거대한 우월성과 불패의 생활력을 시위하는것이며 수령의 주위에 한마음, 한뜻으로 굳게 뭉쳐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휘황한 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달려나가는 우리 인민의 영웅적기개와 전투적기백을 뚜렷이 보여주는것이다.

3

사회주의건설을 빨리 다그치기 위한

우리 인민의 실지투쟁에서 그 정당성과 위대한 생활력이 남김없이 발휘된 천리마운동을 계속 심화발전시키는것은 우리 혁명발전의 절실한 요구이다.

우리는 이미 거둔 성과에 조금도 자만하지 말고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더욱 정력적으로 밀고나가며 전진속도를 더욱 높여야 한다. 우리 나라는 아직도 통일되지 못하였으며 혁명은 끝나지 않았다. 우리 조국남반부에 침천지원쑤 미제침략자들이 있고 이 땅에 혁명의 적이 있는한 우리는 혁명을 계속해야 하며 혁명을 끝까지 완수해야 한다.

더우기 오늘 우리 나라에 조성된 정세는 날로 격화되는 미제의 전쟁도발책동으로 하여 매우 긴장되여있다. 특히 날강도 미제는 무장간첩선《푸에블로》호 침입사건을 계기로 공화국북반부를 반대하는 로골적인 군사도발을 더욱 강화하고있으며 전쟁준비에 미쳐날뛰고있다.

조성된 긴장한 정세는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당의 로선을 철저히 관철하며 혁명적대사변을 주동적으로 맞이할수 있는 준비를 더욱 빈틈없이 갖출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긴장한 투쟁을 벌며 혁명적대고조의 불길을 한층 더 높이며 달리는 천리마에 더욱 박차를 가하여야 한다.

그러자면 사회주의건설에서 우리 당의 총로선이며 인민경제발전의 강력한 추동력인 천리마운동과 천리마작업반운동을 계속 튼튼히 틀어쥐고 부단히 심화발전시켜야 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오늘의 현실에 맞게 천리마작업반운동을 더욱 심화발전시키기 위한 심오하고도 구체적인 과업을 명시하시였다:

《천리마작업반운동의 중심과업은 첫째로 사람과의 사업을 잘하는것이며, 둘째로 설비, 자재와의 사업을 잘하는것이며, 셋째로 책과의 사업을 잘하는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바꾸어 말하면 사람과의 사업을 하라는것은 사상혁명을 하라는것이며 설비, 자재와의 사업을 하라는것은 기술혁명을 하라는것이며 책과의 사업을 하라는것은 곧 문화혁명을 하라는것입니다.》 (우와 같은 책, 11페지)

사상혁명, 기술혁명, 문화혁명은 천리마작업반운동의 기본과업이며 오늘 천리마운동을 더욱 심화발전시키기 위한 중심과업이다.

모든 천리마기수들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를 심장으로 받들고 사람과의 사업, 설비, 자재와의 사업, 책과의 사업을 강화함으로써 사회주의건설에서 당의 총로선이며 인민경제발전의 강력한 추동력인 천리마운동과 천리마작업반운동을 더욱 심화발전시키며 사상혁명, 기술혁명, 문화혁명 수행에서 앞장에 서야 한다. 그리하여 모든 근로자들을 한사람도 빠짐없이 다 당과 수령께 끝없이 충실한 혁명전사로, 지식있고 문명한 새로운 공산주의적인간으로 만들기 위하여 투쟁하여야 하며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집단적혁신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게 해야 한다.

천리마기수들은 사상혁명, 기술혁명, 문화혁명을 강력히 추진시키는 기초우에서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당의 혁명적로선을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새 비약, 새 기적을 끊임없이 창조하여 당과 수령의 기대에 훌륭히 보답해야 할것이다.

그리하여 천리마운동이 우리 조국의 통일과 조선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정치사상적 및 물질적 준비를 철저히 갖추는데서 더욱 위대한 생활력을 발휘하게 하여야 한다.

사회주의건설에서 당의 총로선인 천리마운동을 더욱 심화발전시키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것은 전체 지도일군들

과 당원들, 천리마기수들 속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확립하는것이다.

지도일군들과 당원들, 천리마기수들이 우리 당의 유일사상,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여야 원쑤들의 온갖 비방중상을 물리치고 당의 총로선을 옹호하고 끝까지 고수할수 있으며 이 로선을 심화발전시키기 위하여 당과 수령께서 제시하신 모든 과업들을 철저히 관철할수 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의 주체사상으로 무장하지 못하고 머리속에 낡은 사상을 가지고있을 때 밖으로부터 들어오는 나쁜 사상의 영향을 받게 되는것은 피할수 없는 일입니다. 오직 자주, 자립, 자위의 혁명정신으로 일관된 당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할 때에만 머리속에 있는 낡은 사상잔재를 뿌리뽑을수 있으며 밖으로부터 들어오는 온갖 나쁜 사상의 영향을 막아낼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혁명투쟁경험이 실증하여주는 움직일수 없는 진리입니다.》 (우와 같은 책, 14페지)

모든 지도일군들과 당원들, 천리마기수들은 자신이 먼저 당의 유일사상,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광범한 근로자들속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사업을 강화함으로써 사회주의건설에서 당의 총로선인 천리마운동을 견결히 고수하고 부단히 심화시키며 그 위력을 훌륭히 발휘시켜야 할것이다.

사회주의건설에서 우리 당의 총로선인 천리마운동을 부단히 확대발전시키고 그 위력을 더 훌륭히 발휘시키기 위하여서는 또한 소극성과 보수주의, 기술신비주의 등을 철저히 분쇄하기 위한 사상투쟁을 강화해야 한다.

온갖 대중적혁신운동이 그러한바와 같이 천리마운동도 낡은 사상을 반대하는 투쟁속에서만 성과적으로 발전할수 있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는 사회주의건설에서 대담하게 나가기를 두려워하는 소극성과 보수주의, 기술에 대한 신비주의를 비롯한 온갖 잡귀신들과 사상투쟁을 강화하고 그것을 철저히 쓸어버림으로써 우리 인민의 천리마진군에 더욱 박차를 가하며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가야 한다.

천리마운동에 대한 당조직들의 령도적역할을 높이는것은 이 운동을 부단히 심화발전시키는데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당조직들은 사람과의 사업, 정치사업을 앞세우면서 천리마운동에 대한 지도를 당위원회적인 사업으로 전환시키며 천리마작업반의 대렬을 튼튼히 꾸리고 이 운동이 당이 제시한 방침에 엄격히 립각하여 발전하도록 하는데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한다. 또한 당조직들은 근로단체조직들을 발동하여 천리마작업반운동을 계속 심화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을 실속있게 조직집행하도록 하며 이 운동의 모든 선진적인 경험을 일반화하며 천리마기수들의 정치실무수준을 부단히 높여주어야 한다.

이리하여 모든 근로자들을 남김없이 천리마운동에 일떠서게 하고 천리마기수대렬이 부단히 확대되도록 하며 이미 천리마칭호를 쟁취한 집단들은 보다 높은 영예를 지닐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전당과 전체 인민은 4천만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스무돐기념경축대회에서 하신 강령적교시를 높이 받들고 그이께서 친히 창조하시고 지도하시는 위대한 천리마운동을 심화발전시킴으로써 당과 수령의 주위에 굳게 뭉친 우리 인민의 정치사상적통일을 더욱 튼튼히 하며 사회주의건설에서 혁명적대고조를 계속 견지하고 우리 혁명의 전국적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자.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에 관한 위대한 전략전술적방침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력사적인 우리 당 대표자회 보고와 공화국정부 10대정강, 그리고 최근에 있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스무돐기념경축대회보고에서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에 관한 우리 당의 과학적인 전략전술적방침들을 천명하시였으며 그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과업들을 명시하시였다.

남조선을 해방하고 조국통일을 실현하는것은 북반부에서 사회주의를 건설하는것과 함께 현시기 조선인민앞에 나서는 가장 중요한 임무이다.

남조선에서 미제를 몰아내고 조국을 통일함이 없이는 남조선인민들이 오늘의 식민지노예의 처지에서 벗어날수 없으며 전국적범위에서 민족해방혁명을 완성할수 없고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위한 조선혁명의 종국적승리를 이룩할수도 없다.

우리는 하루속히 남조선에서 미제국주의침략세력을 몰아내고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위업을 완성함으로써 남북반부의 전체 인민이 4천만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를 모시고 통일된 사회주의조국에서 살게 될 그날을 앞당겨야 한다.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하에 지난 20여년간 남조선을 해방하고 조국을 통일하며 전국적혁명을 완수하기 위한 우리 인민의 혁명투쟁에서는 실로 위대한 전진이 이룩되었다.

나라의 북반부에서는 이미 사회주의혁명이 수행되고 온갖 착취와 억압이 없고 사람마다 자유롭고 행복하게 사는 불패의 위력을 가진 사회주의제도가 확고히 수립되였다. 공화국북반부는 오늘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조선혁명의 강력한 기지로, 원천지로 전변되였다.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전략전술적방침에 따라 전개되고있는 남조선인민들의 혁명투쟁은 오늘 미제국주의의 식민지통치에 거듭 심대한 타격을 주면서 급격히 발전하고있으며 투쟁을 통하여 남조선의 혁명력량은 더욱 장성강화되고있다.

우리 나라에서 혁명과 반혁명간의 력량관계는 결정적으로 혁명의 편에 유리하게 전변되고있으며 조국통일의 력사적대사변의 날은 시시로 다가오고있다.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을 실현하고 조선혁명을 완수하기 위한 투쟁에서 이룩된 이 모든 성과는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의 결과이며 그이의 탁월한 맑스-레닌주의적전략전술이 빛나게 구현된 결과이다.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에 관한 우리 당의 전략전술적방침은 우리 인민의 혁명투쟁의 앞길을 밝혀주는 가장 정당한 지도적지침이며 우리 혁명의 승리를 담보하는 위력한 사상리론적무기이다.

우리 당의 전략전술적방침의 위대한 생활력, 그 불패의 힘의 원천은 우리 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주체사상을 구현하고있다는데 있다.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을 위한 우리 당의 방침은 그 모든것이 확고한 주체적립장과 맑스-레닌주의에 대한 창조적인 태도로 일관되여있다.

우리 나라에 조성된 정세와 적아간의 력량관계에 대한 전면적인 분석에 기초하고 우리 혁명발전의 합법칙적요구와 우리 인민의 절박한 지향을 가장 정확히 반영한 이 방침은 그 어느 나라에서도 해본 경험이 없는 완전히 새로운 문제들을 독창적으로 해결한것으로서

맑스-레닌주의를 창조적으로 발전시키고 혁명에 대한 전략전술을 풍부히 한 모범으로 된다.

김일성동지께서 독창적으로 제시하신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을 위한 전략전술적방침에는 자기 나라 혁명에 대하여 자신이 책임지고 어디까지나 자신의 힘으로 혁명을 완수하려는 자주적립장이 철저히 관통되여있으며 우리 혁명의 민족적, 계급적 임무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이 반영되여있으며 미제국주의침략세력을 주대상으로 하는 조선혁명의 전국적승리에 대한 확고부동한 신념이 깃들어있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우리 당의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에 관한 전략전술적방침은 가장 과학적이고 혁명적이며 우리 인민의 모든 혁명적잠재력을 최대한으로 동원하여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위업을 가장 빨리 실현할수 있게 하는 유일하게 정당한 방침이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을 위한 전략전술적방침을 깊이 체득하고 그것으로 철저히 무장함으로써 우리 인민의 민족적숙망인 조국통일을 하루빨리 실현하며 조선혁명의 전국적승리를 결정적으로 앞당기기 위하여 더욱 힘차게 투쟁할것이다.

1.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은 조선혁명에 대한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과업이다.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령도하시는 조선혁명의 종국적목적은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를 실현하는데 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찌기 혁명투쟁의 길에 나서신때로부터 전조선땅에 온갖 민족적 및 계급적 압박과 착취가 없고 모든 인민이 자유롭고 행복하게 사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할데 대한 원대한 구상을 품으시고 일관하게 그를 실현하기 위하여 모든것을 다바쳐 투쟁하여오셨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이미 항일무장투쟁시기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 조선인민의 절실한 념원은 강도 일본제국주의를 하루속히 타도하고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쟁취하는것이다. …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만 머무를수는 없다.

우리 공산주의자들은 조선에서 모든 계급적압박을 청산하고 로동자, 농민을 착취의 멍에로부터 해방하며 우리 조국을 장차 착취없는 행복한 사회로 만들것을 자기의 변함없는 목적으로 삼는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투쟁에 나서신 첫날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 나라 혁명발전의 매단계마다 이 원대한 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적이며 독창적인 맑스-레닌주의적로선과 전략전술적방침을 제시하시고 그것을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우리 혁명을 승리의 한길로 이끄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특히 해방후 우리 나라에 조성된 정세와 우리 인민앞에 나선 절박한 혁명임무에 대한 맑스-레닌주의적분석에 기초하여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을 완수하기 위한 정확한 전략전술적방침들을 제시하심으로써 어렵고 복잡한 환경속에서도 우리 혁명의 앞길을 환히 밝혀주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해방후 미제의 남조선강점으로 인하여 조국이 분렬되고 남북조선에서 혁명이 통일적으로 발전할수 없게 된 형편에서 우리 인민의 주체적력량으로 조선혁명을 완수하기 위한 혁명적민주기지로선을 제시하시였다.

이 로선은 북반부에 강력한 주체적혁명력량을 꾸림으로써 그에 의거하여 미제의 강점하에 있는 남반부에서 혁명을 적극 전진시켜 반혁명력량에 대한 혁명력량의 압도적우세를 보장하며 조선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위한 유리한 조건을 조성하는 결정적담보이다.

혁명적민주기지로선은 미제국주의자들의 침략정책에 대처하여 북반부에 강력한 혁명기지를 창설함으로써 조국의 통일과 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주동적으로 추진시키는 가장 정확한 로선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공화국북반부에 강력한 혁명적민주기지를 창설하시고 사회주의제도를 확고히 세우신데 기초하여 우리 나라 혁명의 종국적승리를 촉진하기 위한 두가지 혁명과업을 제시하시였다:

《…오늘 조선로동당과 조선인민 앞에는 두가지 혁명과업이 나서고있다.

그 하나는 나라의 북반부에서 사회주의를 건설하는것이며 다른 하나는 남조선을 미제국주의의 식민지통치에서 해방하고 조국의 통일을 실현하는것이다.》(《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195페지)

사회주의를 건설하는것은 이미 사회주의혁명이 수행되고 사회주의제도가 확고히 수립된 공화국북반부에서 사회발전의 합법칙적요구이다. 그것은 동시에 남조선에서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을 완수하고 나아가서 조국이 통일된후 전국적으로 혁명을 급속히 전진시켜나아가기 위한 결정적담보를 마련하는것으로서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실현하려는 조선혁명발전의 절실한 요구이기도 하다.

북반부에서 사회주의건설을 적극 추진시키지 않고서는 조선혁명을 종국적승리에로 확신성있게 끌고나갈수 없고 조국통일위업을 주동적으로 실현할수 없으며 더우기 미제국주의침략세력과 직접 대치하고있는 조건하에서 사회주의조국의 안전과 혁명의 전취물자체도 믿음직하게 지켜낼수 없다.

사회주의건설과 함께 또한 우리 인민앞에는 남조선을 해방하고 조국을 통일하여야 할 당면한 최대의 민족적과업이 나서고있다.

미제의 남조선강점과 그로 인한 남북조선의 분렬은 우리 나라의 통일적발전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있으며 특히 남조선인민들에게 헤아릴수 없는 재난과 고통을 가져다주고있다. 오늘 남조선인민들은 미제와 그 주구들의 2중3중의 착취와 압박 밑에서 헐벗고 굶주리고있으며 일찌기 있어보지 못한 최대의 민족적재난을 겪고있다.

나라의 절반땅이 미제침략자들에게 강점되고 조국이 분렬되여있는한 조선인민은 하루도 편안히 살수 없으며 남조선인민들은 오늘의 불행하고 고통스러운 처지에서 벗어날수 없다.

조국통일을 실현하는것은 우리 인민앞에 제기된 숭고한 민족적임무일뿐만아니라 조선혁명의 종국적승리를 촉진하기 위한 필수적인 전제로 된다.

이 민족적임무를 완수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조선혁명을 통일적으로 이끌고나갈수 없으며 혁명의 종국적목적을 이룩할수 없다.

이와 같이 북반부에서 사회주의건설을 추진하는 동시에 남조선을 해방하고 조국통일을 실현하는것은 그 어느 하나도 떼여낼수 없는 우리 혁명의 절박한 과업이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우리 당은 남조선이 해방되고 조국이 통일될 때까지는 북조선에서 혁명과 건설을 추진시키지 말아야 한다는 반동적견해와 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건설만 생각하면서 조국통일의 임무를 잊어버리는 온갖 표현들을 견결히 반대배격하고 북반부에서 사회주의건설을 추진시키는 동시에 조국통일을 실현하며 전국적으로 혁명을 끝까지 완수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원칙적립장을 시종일관 확고하게 견지하여왔다.

우리 나라의 객관적정세와 혁명발전의 특수성은 남북반부에서 각이한 혁명과업을 제기하고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나라에 조성된 정세와 남북조선의 혁명발전단계의 차이를 과학적으로 타산하신데 기초하여 남북조선에 서로 다른 혁명과업을 제시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현시기에 있어서는 북조선과 남조선에서 서로 다른 혁명과업이 나서지 않을수 없는 것이다. 다시말하여 북조선에서는 사회주의건설이 당면한 혁명과업이지만 남조선에서는 반제반봉건적민주주의혁명이 당면과업으로 된다.》(우와 같은 책, 196페지)

조선은 하나이며 우리 민족도 하나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남북조선은 서로 분리되여있을뿐만아니라 사회경제제도가 근본적으로 다르며 따라서 혁명의 발전단계도 서로 다르다.

사회주의제도가 확립된 북반부와는 달리 남조선은 식민지반봉건사회로서 자체의 고유한 모순을 가지고있다. 이와 같은 조건하에서 비록 조선혁명은 전국에 걸쳐 하나의 통일을 이루고있지만 남조선에서는 북반부에서와는 다르게 발전하지 않을수 없으며 남조선인민들앞에는 북반부에서와는 다른 혁명과업이 제기되지 않을수 없는것이다.

남조선혁명을 완수하기 위한 투쟁은 남조선인민들을 식민지적 및 봉건적 억압과 착취에서 해방하기 위한 반제반봉건적투쟁이며 동시에 그것은 조국통일을 실현하고 우리 나라 혁명의 전국적 발전을 추진하기 위한 투쟁의 일환이다.

북반부의 사회주의건설과 남조선혁명은 다같이 조선혁명의 구성부분으로서 호상 밀접히 련결되여있으나 남조선혁명은 어데까지나 남조선사회자체내의 모순에 의하여 산생된것이며 그것을 완수하는것은 중요하게 남조선인민들자신에게 달려있다.

남조선인민들은 오직 자신의 결정적 투쟁에 의해서만 미제의 식민지통치를 짓부시고 진정한 해방과 자유를 쟁취할수 있다. 따라서 남조선혁명을 북반부의 사회주의건설로 대치할수 없으며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을 북반부인민들이 대신하여 수행할수 없다. 우리 나라에서 남조선혁명이 따로 제기되고 남조선인민들의 혁명과업이 따로 제기되는 리유는 여기에 있다.

남조선혁명이 따로 제기되는만큼 그것은 조국통일문제와 구별하여 보아야 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이 두 혁명과업의 호상관계를 전면적으로 천명하시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을 항상 변증법적인 련관속에서 통일적으로 령도하여오시였다.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의 호상관계에 관한 김일성동지의 교시는 이 두혁명과업을 정확하게 관철해나가기 위한 가장 중요한 사상리론적무기로서 여기에는 우리 혁명의 주체적력량을 최대한으로 동원하여 조선혁명을 가장 정확하게 가장 빠른 길로 인도하시려는 그이의 탁월한 전략적구상이 담겨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은 호상 밀접히 련관되여있으며 결코 떼여놓고 볼수 없다고 말씀하시였다.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은 조선혁명의 특성에서 흘러나온것으로서 그것은 다같이 조선혁명에 관한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과업이다.

우리 나라에서의 조국통일은 남조선혁명을 전제로 하는 조국통일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기치하의 통일이다. 그것은 단순히 분렬된 국토와 민족을 재통합하는데 그치는것이 아니라 남조선에서 혁명을 일으켜 북반부와 같이 4천만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에 기초한 선진적인 사회제도를 수립할것을 지향하는것이다.

남조선혁명은 비록 남조선사회자체에서의 모순에 의하여 산생된것이기는 하나 그것은 결코 전조선혁명과 유리된것이 아니며 남조선사회의 자체발전만을 위한것도 아니다. 그것은, 어데까지나 조국통일을 실현하며 전국적범위에서 민주해방혁명, 사회주의혁명을 완성하기 위한 조선혁명의 한 부분이며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령도하시는 전조선혁명의 구성부분으로서 남조선사회에서의 모순을 해결할뿐만아니라 조국통일위업

을 실현하는데 복무한다.

그러므로 남조선혁명을 하지않고서는 조국통일위업을 성과적으로 실현할수 없으며 조국통일을 추진시키기 위해서는 남조선혁명을 적극 추진시켜야 한다.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은 다같이 조선혁명을 전국적으로 완성하기 위한 혁명과업으로서 호상 통일되여있고 밀접히 련관되여있으나 그것은 결코 같은것이 아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을 동일시하거나 이 량자를 혼동하지말데 대하여 거듭 강조하시면서 그 차이에 대해서도 정확한 해명을 주시였다.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은 그 포괄하는 지역적범위가 다르다.

조국통일은 남북조선 전지역을 포괄하는것으로서 전국적인 조선혁명을 완성하기 위한 혁명과업이며 남조선혁명은 남반부지역을 포괄하며 전국적인 조선혁명을 완수하는데 복무한다.

국토가 량단되고 민족이 분렬되여있는 객관적현실에 근거를 둔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은 공화국의 기치밑에 국토완정과 민족적통일을 실현하는것을 자기의 고유한 과업으로 삼으며 남조선에서의 민족적 및 계급적 모순에 현실적근거를 두고있는 남조선혁명은 남조선에서 이 모순을 해결하는것을 자기의 고유한 과업으로 삼는다.

이와 같은 차이로부터 조국통일과 남조선혁명은 서로 다른 자기의 전략전술을 가지게 되는것이다.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은 혁명력량편성에 있어서 동일하지 않다.

조국통일, 조선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혁명력량은 북반부의 혁명력량, 남반부의 혁명력량 그리고 국제혁명력량이며 이 3대혁명력량에서 가장 중요한 원동력은 북반부의 혁명력량이다. 남조선혁명의 경우는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남조선의 광범한 인민대중이 혁명력량으로 되며 그 중에서 령도계급은 남조선의 로동계급이다.

또한 조국통일을 수행함에 있어서는 평화적방도가 있을수 있으나 남조선혁명에서는 결코 평화적인 길이 있을수 없으며 오직 폭력적인 방도가 있을뿐이다.

이와 같이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은 호상 불가분적으로 련관된 임무를 지니고있는 동시에 서로 다른 차이점을 가지고있다.

이 량자는 결코 완전히 분리시켜 생각할수 없으며 동시에 그 어느 하나에 다른 하나를 용해시킬수도 없다.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의 호상관계를 이와 같이 정확하게 파악하는것은 남북반부에서 혁명력량을 최대한으로 동원하며 혁명을 백방으로 추진시키는데 있어서 거대한 실천적의의를 가지고있다.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을 혼동하고 조국통일에 남조선혁명을 용해시키며 조국통일만을 일면적으로 내세우는것은 남조선인민들의 혁명적능력을 발양하지 못하게 하는것이며 그것은 결국 남조선혁명도, 조국통일도 다같이 저애하는것이다.

또한 조국통일을 남조선혁명과 완전히 분리시키는것도 이와 못지않게 유해롭다.

과거 박헌영간첩도당이 소위 남조선의 《단독해방론》을 떠들면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령도밑에 통일된 조국땅에서 행복한 생활을 누리려는 남조선인민들의 지향과 신념을 약화시키려고 책동하였으며 남북대립사상을 악랄하게 고취함으로써 우리 혁명에 막대한 해독을 끼친 심각한 교훈이 이것을 잘 보여주고있다.

남조선혁명을 조선혁명과 분리시키는 것은 조선혁명의 통일적인 발전을 거부

하는것으로서 남조선혁명을 북반부의 사회주의건설과 유리시킴으로써 전반적인 조선혁명발전에 엄중한 해독을 주게 된다.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의 호상관계에 관한 김일성동지의 교시는 바로 이러한 편향들을 극복하고 남북반부에서 혁명의 주체적력량을 최대한으로 동원하여 조선혁명을 가장 곧바른 길로 인도한다는데 거대한 전략전술적의의가 있는것이다.

2.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의 위대한 전략전술적방침은 우리 인민의 혁명투쟁을 승리에로 인도하는 유일하게 정당한 지도적지침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우리 당의 원칙적립장과 탁월한 전략전술적방침을 천명하심으로써 조선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의 앞길을 환히 밝혀주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스무돐기념경축대회에서 하신 보고에서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공화국정부가 일관하게 주장하고있는 조국통일의 기본방침은 남조선에서 모든 외국군대를 철거시킨 다음 어떠한 외세의 간섭도 없이 조선인민자신의 손에 의하여 자주적으로 민주주의적원칙에서 남북통일을 실현하자는것입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우리 인민의 자유와 독립의 기치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강력한 무기이다》, 84페지)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우리 당이 시종일관 견지하고있는 자주적원칙은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주체사상의 구현으로서 그것은 우리 나라 혁명을 어데까지나 자신이 책임지고 주체적인 력량에 의하여 해결하려는 혁명임무에 대한 높은 책임감, 우리 인민의 무궁무진한 힘에 의하여 능히 조국의 통일을 이룩할수 있다는 확신에 기초하고있다.

조선의 통일은 조선민족의 내부문제이며 유엔이나 그 어떠한 외부세력도 여기에 간섭할 권리가 없다. 조선인민은 자신의 힘에 의해서만 조국통일을 성취할수 있으며 그 어떠한 외부세력이 우리에게 통일된 조국을 가져다줄수 없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확고한 자주적립장에서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주체적력량을 기본으로 하는 3대혁명력량을 강화할데 대한 전략적방침을 제시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조국의 통일, 조선혁명의 전국적승리는 결국 3대력량의 준비에 달려있다고 말할수 있다.

첫째로, 공화국북반부에서 사회주의건설을 잘하여 우리의 혁명기지를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더욱더 강화하는것이며,

둘째로, 남조선인민들을 정치적으로 각성시키고 튼튼히 묶어세움으로써 남조선의 혁명력량을 강화하는것이며,

셋째로, 조선인민과 국제혁명력량과의 단결을 강화하는것이다.》 (《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239페지)

이것은 국토가 량단된 우리 나라에서의 혁명력량편성에 대한 전략적방침을 독창적으로 천명하신것이다.

3대혁명력량을 강화하는것은 국제반동의 원흉인 미제와 대치하게 된 조선혁명의 간고성과 복잡성을 과학적으로 예견하시고 적을 타승할 강력한 혁명력량을 준비하며 혁명의 내적요인과 함께 외적요인을 다같이 성숙시킴으로써 조국통일과 조선혁명을 확신성있게 승리에로 이끌기 위한 현명한 방침이다.

이 방침에는 남북조선의 혁명력량으로 이루어지고있는 주체적력량을 백방으로 강화하는데 기초하여 국제혁명력량과의 련대성을 강화할데 대한 우리 당의 주체적립장이 명시되여있으며 조

선혁명을 잘함으로써 세계혁명에 기여하는 동시에 국제혁명력량과의 련대성을 강화하여 미제를 반대하는 공동위업의 승리를 보장하려는 우리 당의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적립장이 훌륭하게 구현되고있다.

우리 당은 조국통일의 3대혁명력량을 강화함에 있어서 조선인민의 주체적력량을 강화하는데 근본적인 의의를 부여하고있다. 공화국북반부의 사회주의력량과 남반부의 애국적민주주의력량으로 이루어지고있는 조선인민의 주체적력량은 조국통일과 조선혁명의 전국적승리를 달성함에 있어서 주동적이며 결정적인 력량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혁명에서 국제적인 지지성원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주인인 우리자신이 노력하고 투쟁하여야만 혁명을 전진시킬수 있으며 승리에로 이끌수 있는것이다.》(우와 같은 책, 219페지)

조선혁명의 주인은 우리 당과 조선인민이며 혁명승리의 결정적요인도 우리의 주체적력량이다. 누구도 우리를 대신하여 혁명을 해줄수 없으며 우리 나라 혁명에 대하여 책임질수 없는것이다. 조국의 통일과 조선혁명의 승리는 무엇보다도 조선인민의 주체적력량의 준비여하에 달려있으며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의식적이며 조직적인 투쟁에 의해서만 실현될수 있다.

주체적력량이 강해야 어떤 역경에 처하더라도 승리의 신심을 잃지않고 용감성과 인내성, 창발성을 발휘할수 있으며 난관과 시련을 뚫고 승리의 앞길을 개척하여 나갈수 있다. 또한 주체적력량을 튼튼하게 꾸림으로써만 국제혁명력량의 지원도 효과적으로 리용할수 있으며 조선혁명의 국제적련대성을 강화하고 세계혁명의 발전에 더 잘 기여할수 있는것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이러한 자주적립장으로부터 출발하여 해방직후에 벌써 우리 나라에 조성된 복잡한 정세를 명철하게 통찰하시고 북반부에 혁명적민주기지를 창설하며 그를 강화함으로써 장기성과 간고성을 예견하는 우리 나라의 통일문제를 민족주체적인 력량으로 해결하기 위한 과학적인 전략적방침을 제시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당은 주권을 잡은 첫날부터 사회발전의 합법칙적요구에 따라 이미 해방된 북반부에서 혁명과 건설을 최대한으로 촉진시키는것과 함께 여기에 강력한 주체적혁명력량을 꾸림으로써 북반부를 조선혁명의 믿음직한 기지로 만들기 위하여 투쟁하였다.》(우와 같은 책, 196~197페지)

《미제국주의자들의 침략정책에 대처하여 이미 해방된 북조선에서 혁명을 적극 밀고나가며 북조선에 튼튼한 혁명기지를 창설하여야만 조국의 통일과 혁명의 전국적승리의 길을 성과적으로 개척할수 있었던것입니다.》(우와 같은 책, 286페지)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민주기지로선은 조선혁명과 조국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우리 당 방침의 초석이며 조국통일이 실현될 때까지 계속 견지하여야 할 전략적방침이다.

이 로선은 조선혁명을 전국적으로 완성하기 위한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전략적구상을 가장 집중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즉 여기에는 조성된 정세와 력량관계로 보아 전국에서 혁명을 일거에 수행할수 없게 된 조건에서 우선 이미 해방된 북반부에서 혁명을 적극 추진시킴으로써 북반부에 강력한 주체적혁명력량을 꾸리며 그에 의거하여 남조선혁명을 지원하고 남조선혁명력량을 강화하여 북반부혁명력량의 주도적역할밑에 두 지역의 혁명력량의 전략적배합에 의하여 전국적혁명을 완성할데 대한 김일성동지의 탁월하고 원대한 전략적구상이 담겨있다.

혁명적민주기지로선은 김일성동지께

서 천명하신 혁명근거지에 관한 맑스-레닌주의리론과 항일무장투쟁시기의 유격근거지창설에 관한 고귀한 경험을 해방후 조성된 특수한 혁명정세에 창조적으로 구현한것이다.

이것은 자력갱생의 원칙에 기초한 혁명적인 로선이며 미제국주의침략자들을 반대하는 철저한 반제적인 로선이다.

우리 당은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이 혁명적민주기지로선에 의거하여 북반부에서 혁명과 건설을 강력히 추진시킴으로써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혁명기지의 력량을 백방으로 강화하는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고 그것을 관철하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조국통일과 조선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위하여 북반부혁명력량을 튼튼히 꾸리는 동시에 남조선의 혁명력량을 강화할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시였으며 남조선혁명을 발전시키는데 커다란 관심을 돌리시였다.

남조선혁명력량은 조선혁명을 위한 주체적력량의 한 구성부분으로서 조국통일의 대사변을 앞당기며 그를 달성함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직접 미제와 그 주구들의 억압하에 있는 남조선인민들이 북반부인민들과 함께 혁명투쟁에 일떠서야 조국통일위업을 성과적으로 이룩할수 있다.

지난 조국해방전쟁의 경험은 아무리 북반부에 강력한 혁명력량이 준비되여 있다고 하더라도 남조선에 혁명력량이 준비되여있지 못하다면 조국통일의 유리한 기회마저 노칠수 있다는것을 보여주었다.

더우기 오늘 우리의 혁명기지인 공화국북반부가 불패의 력량으로 튼튼히 꾸려진 조건에서 조국통일과 조선혁명의 전국적승리는 남조선에서의 혁명력량의 강화여하에 크게 달려있다.

남조선에서 혁명력량을 강화하는것은 혁명의 결정적시기에 남북혁명력량의 전략적배합을 실현하기 위한 필수적전제로 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전체 조선인민이 굳게 뭉쳐 미제침략자들과 그 앞잡이들을 반대하는 투쟁에 일떠선다면 적들이 아무리 발악한다 하더라도 능히 그들을 때려부시고 영광스러운 승리를 쟁취할것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3권, 151페지)

조선혁명은 제국주의두목이며 현대 식민주의의 아성인 미제침략자들을 대상으로 하고있는 조건에서 남북반부의 혁명력량을 단합함으로써만 적을 성과적으로 타승하고 조국통일과 혁명의 결정적승리를 이룩할수 있다. 분렬된 조국을 통일하고 혁명의 전국적승리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남북반부의 전체 인민들이 미제국주의자들의 민족분렬정책을 분쇄하고 반미구국투쟁의 기치밑에, 조국통일의 기치밑에 굳게 단결하여 결정적인 투쟁을 전개하여야 한다.

우리의 주체적력량을 튼튼히 꾸리는데 기초하여 국제혁명력량과의 단결을 강화하는것은 조국통일과 조선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위하여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3대혁명력량의 구성부분을 이루고있는 국제혁명력량은 조국통일과 조선혁명의 국제적지원력량이다.

국제반동의 원흉인 미제국주의는 조선인민의 첫째가는 투쟁대상일뿐만아니라 세계인민의 공동의 원쑤이다. 그러므로 국제혁명력량과의 련대성을 강화하고 미제를 반대하는 공동투쟁을 전개함으로써만 놈들을 조선에서뿐만아니라 세계도처에서 고립약화시키고 그 멸망을 촉진시킬수 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혁명하는 모든 나라 인민들이 세계의 이르는 곳마다에서 미국놈들의 팔다리도 뜯어내고 머리를 잘라버려야 합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이 강한것 같이 보이지만 이렇게 여러 나라 인민들이 사면에서 공격을 들이대고 모두 달라붙어 각을 뜨면 그들은 맥을 추지 못할것이며 결국에 가서는 멸망하고야말것입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우리 인민의 자유와 독립의 기치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강력한 무기이다》, 71페지)

미제를 반대하는 한전선에서의 승리

는 미제의 힘을 그만큼 약화시키며 다른 전선에서의 승리를 위한 유리한 조건을 조성한다. 오늘 웰남인민들의 반미구국항쟁,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의 혁명적인민들의 반제반미민족해방투쟁은 미제의 식민주의정책과 침략책동에 타격을 줌으로써 우리 나라의 혁명정세발전에 유리한 국제적환경을 조성하고있다.

국제혁명력량을 강화하고 그와의 단결을 강화하는것은 또한 조국통일과 조선혁명의 승리를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에 대한 직접적인 국제적지원을 강화하는데도 커다란 의의가 있다.

국제혁명력량은 우리 혁명의 외적요인이기는하나 조국통일과 조선혁명의 수행에서 노는 역할과 의의는 크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당은 혁명의 주체적 력량을 강화하면서 국제혁명력량과의 련대성을 강화하고 그를 장성발전시키는데 응당한 주의를 돌리고있는것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선혁명의 전국적승리, 조국통일을 위한 전략적인 력량편성에 대한 방침을 명확히 천명하신 동시에 조국통일의 전도를 과학적으로 예견하시고 우리 당과 인민이 있을수 있는 온갖 경우에 항상 주동적으로 대처할수 있게 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조국통일은 평화적방법으로 실현될수도 있고 비평화적방법으로 실현될수도 있다.

우리 당은 자주적인 평화적조국통일 방침을 시종일관 견지하여왔으며 또 견지하고있다.

조국의 평화적통일에 관한 우리 당의 방침은 결코 미제국주의자들과의 투쟁을 배제하는것이 아니며 그것은 민족의 원쑤들과의 어떤 《타협》이나 사회제도의 이른바 《평화적이행》에 관한 《리론》과는 아무런 공통성도 없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스무돐기념 경축대회보고에서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남조선에 미제와 그 앞잡이들을 그대로 두고서는 나라의 평화적통일이란 생각할수 없습니다. 우리 조국의 평화적통일은 오직 남조선에서 현괴뢰정권을 뒤집어엎고 진보적세력들이 정권을 쥔 다음에야 실현될수 있습니다.》(우와 같은 책, 84~85페지)

조국통일의 전도에는 평화적가능성과 함께 비평화적가능성이 있다.

우리 혁명은 제국주의의 두목이며 침략과 전쟁의 원흉인 미제를 주대상으로 하고있다.

남조선에 대한 미제의 식민지예속화정책의 기본은 남조선을 자기들의 군사침략기지로, 군사적부속물로 만드는데 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남조선에 기여든 첫날부터 일관하여 남조선을 자기들의 식민지로 만들뿐만아니라 그것을 발판으로 하여 전조선과 아세아를 침략하려는 음흉한 목적을 추구하여왔다.

더우기 최근년간 조선과 아세아에서 미제와 격화되는 침략과 전쟁 정책으로 인하여 우리 나라의 정세는 날을 따라 더욱 긴장되여가고있으며 임의의 시각에 전쟁이 일어날수 있는 정세가 조성되고있다.

우리는 전쟁을 원하지 않지만 결코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만약 또다시 전쟁이 일어나게 된다면 우리는 그것을 혁명의 결정적시기로 맞이할것이며 미제와 그 주구들을 쓸어버리고 조국통일을 실현하고야 말것이다.

우리가 수행하는 전쟁은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정의의 전쟁이다. 그것은 남조선을 해방하고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민족해방전쟁이며 조선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위한 혁명전쟁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이와 같이 조국통일과 조선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위한 구체적인 전략전술적방침들과 가능성을 과학적으로 천명하심으로써 우리 당과 인민에게 확고한 승리의 신심을 안겨주시였으며 혁명의 결정적시기에 대처하기 위한 모든 준비를 철저히 갖출수 있게 하시였다.

조국통일이 어떠한 방도로 이루어지든지간에 그것을 실현하고 민족해방혁명을 완성하는 열쇠는 오직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우리 당의 전략적 방침을 관철하는데 있다.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조선혁명과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우리 당의 방침은 조선혁명과 조국통일의 어떠한 가능성에도 대처할수 있는 만능의 처방이며 우리 인민의 혁명투쟁을 승리에로 인도하는 유일하게 정당한 지침이다.

3.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남조선혁명의 위대한 전략전술적방침은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의 앞길을 휘황히 밝혀주는 등대이다.

남조선혁명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령도하시는 조선혁명의 중요한 구성부분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조국통일과 조선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위하여 남조선혁명의 진로와 그 수행방도를 가장 정확히 밝혀주고계신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남조선의 사회정치경제체계를 과학적으로 분석하시고 남조선혁명의 반제반봉건적성격과 인민민주주의적발전의 길을 명시하신데 기초하여 그 길을 개척하기 위한 탁월한 전략전술적방침을 세우시고 남조선인민들의 혁명투쟁의 앞길을 환히 밝혀주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남조선혁명의 주되는 대상을 규정하시고 반제투쟁과 반봉건투쟁을 결합할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시였으며 반혁명에 대처한 혁명력량의 편성문제를 독창적으로 천명하시였다.

남조선혁명의 주되는 대상은 미제국주의침략세력이다.

김일성동지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스무돐기념 경축대회에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남조선에서 모든 권력을 틀어쥐고있는 실제적인 통치자는 미제국주의자들이며 남조선인민들이 겪고있는 모든 불행과 고통의 화근은 미제국주의의 남조선강점에 있다. 남조선에서 미제국주의침략세력을 몰아내지 않고서는 남조선인민들이 식민지노예의 처지에서 벗어날수 없으며 조국의 통일도 실현할수 없다. 그러므로 남조선인민들은 투쟁의 창끝을 미제국주의자들에게 돌려야 하며 반미투쟁에 모든 력량을 집중하여야 한다. 반제투쟁을 성과적으로 전개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반드시 봉건세력을 반대하는 투쟁과 결합되여야 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남조선인민들의 반제국주의투쟁은 반드시 반봉건투쟁과 결부되여야 합니다.》

반제투쟁과 반봉건투쟁을 결합할데 대한 방침은 남조선혁명의 기본요구에 부합될뿐만아니라 그것은 미제와 국내반동세력들이 서로 결탁되여있는 조건하에서 반제투쟁과 반봉건투쟁을 하나의 혁명투쟁으로 다같이 성과적으로 추진시키기 위한 가장 정당한 방침이다.

봉건세력을 반대하여 투쟁하지 않고서는 반제국주의투쟁을 성과적으로 진행할수 없으며 제국주의침략세력을 반대하여 투쟁하지 않고는 반봉건투쟁을 성과적으로 진행할수 없다. 오직 이 두가지 투쟁이 결합될 때에 비로소 미제와 그 주구들에게 철저한 타격을 가할수 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남조선의 사회경제관계와 계급호상관계에 대한 심오한 분석에 기초하여 혁명의 주력군을 편성하며 이와 함께 혁명에 동원될수 있는 각계각층 애국적민주력량을 망라하는 반미구국통일전선을 형성할데 대한 원칙적이고도 창조적인 방침을 제시하시였다. 여기에서 가장 주되는 문제는 혁명의 주력군을 편성하는것이다.

주력군을 튼튼히 꾸려야만 반혁명의 폭력과 저항을 성과적으로 물리치고 혁명투쟁을 완강히 추진시켜 나갈수 있으며 전취한 혁명의 성과를 공고히 하고 그것을 부단히 확대하면서 결정적시기에 반혁명의 아성을 무찌르고 원쑤들의

숨통을 끊어버릴수 있다. 중간층의 동요성을 극복하고 그들을 확고하게 혁명의 편에 묶어세우는것도 주력군을 어떻게 꾸리는가에 크게 달려있다.

더우기 남조선에서와 같이 혁명이 간고하고 복잡한 조건하에서 반혁명에 효과적인 반격을 가하고 각계각층군중과의 동맹하에 혁명을 주동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강력한 혁명의 주력군을 편성하는 문제가 선차적인 과업으로 제기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의 주력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혁명의 주력군이란 혁명에 동원될수 있는 기본계급과 그속에 깊이 뿌리박은 맑스-레닌주의당을 의미합니다. 맑스-레닌주의당의 령도밑에 사회의 기본계급인 로동자, 농민이 동원되여야만 혁명이 승리할수 있는것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89페지)

남조선에서 유일한 맑스-레닌주의당은 4천만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에 의하여 지도되는 혁명적당이다. 이러한 당만이 남조선의 로동자, 농민들을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백전백승의 혁명사상으로 무장시키고 그들을 김일성동지의 주위에 집결된 하나의 혁명력량으로 묶어세울수 있으며 그들로 하여금 혁명의 주력군으로서의 응당한 역할을 놀게 할수 있고 혁명운동을 김일성동지의 탁월한 전략전술적방침에 따라 목적의식적으로, 통일적으로 지도하여나갈수 있다.

혁명의 주력부대인 로동자, 농민은 남조선사회의 기본계급으로서 혁명에 가장 절실한 리해관계를 가지고있다. 특히 로동계급은 무산계급이며 끝까지 싸울수 있는 가장 혁명적이고 철저한 계급으로서 남조선혁명의 령도계급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주력군편성에 관한 방침에서 로동계급과 그 당의 지위와 역할과 함께 남조선혁명에서의 농민의 지위와 역할을 독창적으로 천명하시였다.

로동자와 함께 농민을 혁명의 주력군으로 규정하신 김일성동지의 탁월한 력량편성방침은 혁명에서 로동계급의 령도적역할을 높이고 로농동맹을 강화하며 농민대중의 혁명성을 유감없이 발양시킴으로써 혁명의 주체적요인을 결정적으로 강화할수 있게 하는 중요한 담보로 된다.

혁명력량편성에서 주력군과 함께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것은 각계각층 애국적민주주의력량을 결속하는것이다.

각계각층의 광범한 애국적민주주의력량을 통일전선에 결속하는것은 혁명력량의 우세를 보장하며 반혁명세력을 칠저히 고립시키는 중요한 담보이다.

각계각층의 광범한 애국적민주주의력량은 혁명의 주력군을 키우는데 유리한 조건을 조성할수 있으며 그들이 로동자, 농민들과 힘을 합할 때에는 적에게 큰 타격을 줄수 있고 혁명의 주력군을 보조하는 유력한 부대로 될수 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남조선혁명에서의 각계각층 군중들의 역할과 지위를 천명하시면서 통일전선에 망라될수 있는 계급계층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시였다:

《남조선의 인테리들과 청년학생들, 도시의 소시민들과 량심적인 민족부르죠아지를 비롯한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각계각층 군중은 통일전선에 망라되여야 합니다.》(우와 같은 책, 91~92페지).

김일성동지의 이 교시는 남조선각계각층의 사회계급적처지와 혁명에 대한 그들의 리해관계를 정확히 분석평가하신데 기초한것으로서 여기에는 전취할수 있는 모든 군중들을 혁명의 편에 인입하고 극소수 반혁명세력을 최대한으로 고립시킬데 대한 그이의 탁월한 전략사상이 명확히 반영되여있다.

혁명투쟁에서 반혁명무력을 와해하고 그 병사들과 중하층장교들을 혁명의 편으로 돌려세우는것은 반혁명세력을 약화시키고 혁명력량을 강화하는데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력량을 편성함에 있어서 《국군》을 와해하고 그 병사들과 중하층장교들을 혁명의 편으로 돌려세우는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시였다.

남조선의 《국군》은 미제의 고용군대이며 반혁명무장력이지만 그 기본대중을 이루는 병사들과 중하층장교들의 절대다수는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근로인민의 출신이며 특히 병사대중은 군복을 입은 로동자, 농민들이거나 그자제들이다.

미제와 그 주구 상층장교들을 한편으로 하고 병사대중들과 중하층장교들을 다른 편으로 하는 량자간에 존재하는 심각한 민족적 및 계급적 모순은 《국군》병사들과 중하층장교들을 능히 혁명의 편으로 돌려세울수 있는 객관적조건으로 된다. 《국군》병사들과 중하층장교들을 혁명의 편오로 돌려세울데 대한 방침은 바로 이러한 객관적조건과 현실적가능성에 기초하고있다.

그것은 또한 남조선혁명에서 그들이 놀수 있는 커다란 역할에 대한 과학적인 타산에 기초하고있다.

《국군》병사들과 중하층장교들이 인민대중의 혁명투쟁에 합류될때 미제의 식민지통치는 밑뿌리채 뒤흔들리고 적아간의 력량관계는 혁명의 편에 결정적으로 유리하게 전변되고 혁명투쟁에는 완전히 새로운 국면이 열리게 될것은 자명한 일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남조선혁명발전의 현실적요구와 혁명의 전도를 과학적으로 예견하시고 혁명력량편성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신데 기초하여 현단계에서의 남조선혁명의 기본방침을 제시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현단계에서 남조선혁명의 기본방침은 적들의 탄압으로부터 혁명력량을 보존하는 동시에 그것을 부단히 축적하고 장성시킴으로써 혁명의 결정적시기를 맞이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데 있습니다.》(우와 같은 책, 392폐지)

이것은 남조선에서 반혁명세력을 결정적으로 격파할수 있는 만단의 준비를 갖추고 혁명을 주동적으로 맞이하며 혁명승리의 확고성을 보장하기 위한 가장 정확한 전략전술적방침이며 혁명의 결정적시기를 준비하는 전기간 남조선혁명운동에서 견지하여야 할 강령적지침으로 된다.

혁명이란 본래 낡은 사회를 뒤집어엎고 새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투쟁이다. 그러므로 낡은 사회를 유지하려고 필사적으로 발악하는 반혁명세력을 종국적으로 타승하기 위해서는 혁명정세가 성숙되는것이 필요할뿐만아니라 적들을 요정낼수 있는 강력한 혁명력량을 준비하여야 한다.

김일성동지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혁명력량이 강해야 반혁명세력을 타승할수 있고 반혁명을 타승해야 혁명이 승리할수 있다는것은 움직일수 없는 객관적법칙이다.

현단계의 남조선혁명의 기본방침은 이와 같은 혁명운동의 본질적요구에 부합될뿐만아니라 남조선의 객관적현실에도 전적으로 부합된다.

남조선혁명은 가장 포악하고 음흉한 미제와 같은 적을 투쟁대상으로 하고있으며 또한 남조선은 국내반동의 집결처이며 소굴로 되고있다. 더우기 오늘 남조선에는 류례없는 파쑈적폭압이 횡행하고있으며 위기에 직면한 원쑤들의 발악은 날로 우심해지고있다. 이러한 사정은 잘 조직되고 훈련된 강력한 혁명력량을 튼튼히 준비할것을 더욱 절실한 문제로 제기하고있다.

혁명력량을 조직사상적으로, 전략전술적으로 잘 준비하지 않고서는 간악한 반혁명세력과 그들의 악랄한 파쑈적폭압에 대처하여 혁명을 주동적으로 전진시킬수 없으며 혁명도상에 가로놓인 온갖 난관을 타개하여나갈수 없다.

현단계에서 남조선혁명의 기본방침은 또한 날로 유리하게 전변되고있는 혁명의 객관적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도 절박한 문제로 제기된다.

오늘 남조선에서 혁명의 객관적정세는 성숙되여가고있으며 혁명의 편에 더욱더 유리하게 전변되여가고있다. 남조선에서 미제의 식민지통치위기가 날로 심화되고 적들의 광란적인 전쟁정

책과 파쑈통치로 하여 민족적 및 계급적 모순이 그 어느때보다도 격화되고있는 정세추이는 금후 정세가 급격히 변할수 있으며 혁명의 유리한 정세가 어떤 계기를 통하여 급속히 도래할수도 있다는것을 예고하고있다. 이와 같은 정세추이는 남조선혁명력량이 그 어떤 사태에도 기동적으로 대처할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되여있을것을 절박하게 요구하고있다.

김일성동지께서 독창적으로 밝히신 이 기본방침은 실로 남조선에서 대사변을 주동적으로 앞당기기 위한 가장 정확한 길을 제시하신것으로서 그것은 남조선혁명을 새로운 앙양에로 인도하는 위력한 혁명적무기이다.

사실에 있어서 이 방침이 있음으로 하여 미제와 그 주구들의 가혹한 탄압과 박헌영간첩도당의 파괴암해책동으로 인하여 심대한 손실을 입었던 남조선혁명을 위기에서 구원할수 있었으며 혁명앞에 가로놓인 허다한 난관과 애로를 주동적으로 타개하면서 혁명운동의 새로운 국면을 개척할수 있었던것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남조선혁명의 기본방침을 제시하심과 함께 그를 관철하기 위하여 조성된 정세에 적응한 가장 정확한 투쟁과업을 제시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현시기 외래침략세력과 그 주구들을 반대하는 투쟁에서 남조선인민들앞에 나서고있는 가장 절박한 당면과업은 미제와 그 주구들의 전쟁정책을 파탄시키며 파쑈적폭압을 반대하고 민주주의적 자유와 권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투쟁하는것입니다.》(우와 같은 책, 390페지)

이 투쟁과업은 맑스-레닌주의적인 전략전술적지도원칙과 남조선의 당면정세에 부합되며 현시기 남조선혁명의 기본방침을 관철하기 위한 유일하게 정당한 투쟁과업이다.

남조선인민들의 당면한 이 모든 투쟁은 결코 그자체에 머무를수 없다. 그것은 미제의 식민지통치를 청산하고 지주, 매판자본가, 반동관료배들을 타도하며 정권을 전취하기 위한 투쟁에로 발전하여야 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스무돐기념경축대회보고에서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남조선인민들은 미제국주의자들을 남조선에서 몰아내며 그의 식민지통치를 때려부시기 위한 투쟁을 주권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과 밀접히 결합시켜 진행하여야 하며 여기에 모든 형태의 투쟁을 복종시켜야 합니다.》(《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우리 인민의 자유와 독립의 기치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강력한 무기이다》, 79페지)

미제의 식민지통치가 그대로 있고 그 주구들이 괴뢰정권에 들어앉아있는한 남조선인민들은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이룩할수 없다.

남조선에서 혁명의 결정적승리는 오직 폭력적방법에 의하여서만 성취될수 있다.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인민들의 자유와 해방은 투쟁이 없이 저절로 이룩될수 없으며 인민들은 오직 혁명적방법에 의해서만 주권을 쟁취할수 있는것이다.

폭력투쟁이 없이 그 어떤 평화적인 방법으로 남조선인민들이 주권을 쥘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환상에 지나지 않는다. 력사는 아직까지 그 어떤 식민지통치자나 반동지배층이 혁명적폭력에 의하여 타도됨이 없이 스스로 자기의 지배를 포기하고 정권을 내놓은 실례를 알지 못하고있다.

남조선인민들은 오직 자기의 투쟁을 미제와 그 주구들을 쓸어버리고 정권을 전취하기 위한 투쟁으로 발전시킬 때에만 남조선혁명에서 승리할수 있으며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누릴수 있다.

4.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을 위한 전략전술적방침은 위대한 생활력을 발휘하고있다.

김일성동지께서 밝혀주신 남조선혁명

과 조국통일을 위한 탁월한 전략전술적 방침은 오늘 우리 인민의 투쟁에 의하여 빛나게 실현되여가고있으며 날을 따라 위대한 생활력을 발휘하고있다.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선혁명의 기지인 공화국북반부의 정치, 경제, 군사적 위력은 비상히 강화되였다.

오늘 공화국북반부의 혁명대오는 정치사상적으로 튼튼히 꾸려졌으며 그것은 불패의 력량으로 장성강화되였다. 전체 인민이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위에 하나의 사상의지로 굳게 단결되였으며 추호의 동요없이 어떠한 난관과 시련도 이겨낼 혁명적각오로 충만되여있다.

자립적민족경제의 토대가 튼튼히 축성됨으로써 혁명기지의 물질적토대도 반석같이 다져졌다. 나라의 경제적위력이 비할바없이 강화됨으로써 남조선인민들의 혁명투쟁을 더욱 강력하게,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할수 있게 되였으며 조국의 통일을 실현하고 조선혁명의 전국적완성을 위한 투쟁을 더욱더 힘있게 밀고나갈수 있게 되였다.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자위의 혁명로선이 철저히 구현된 결과 우리의 인민군대는 적들의 어떠한 침해로부터도 혁명의 전취물을 믿음직하게 지켜내고 언제든지 원쑤들을 단매에 격멸소탕할수 있는 일당백의 혁명군대로 강화되였으며 전국은 난공불락의 요새로 전변되였다.

공화국북반부에 마련된 위력한 혁명기지와 강력한 사회주의력량은 남조선혁명을 완수하고 조국통일위업을 실현하기 위한 강유력한 보루로서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의 앞길에 휘황한 전망을 열어주는 결정적담보로 되고있다.

공화국북반부의 사회주의력량은 전국적판도에서 적아간의 력량관계를 결정적으로 혁명의 편에 유리하게 전변시켰으며 그것은 이미 우리 나라에서 정세추이를 좌우하는 기본요인으로 되였다.

우리는 이와 같이 강력한 혁명력량을 준비함으로써 전국적인 범위에서 혁명을 계속 앙양에로 이끌어갈수 있게 되였으며 혁명투쟁의 부단한 상승발전을 확고하게 담보할수 있게 되였다.

우리 당은 북반부의 혁명기지에 의거하여 적들의 침략으로부터 사회주의전취물을 확고히 고수하고있을뿐만아니라 조선혁명과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을 주동적으로 확신성있게 전진시켜 나아가고있으며 미제와 그 주구들을 궁지에 몰아넣고있다.

우리 인민의 지상락원으로 꾸려진 공화국북반부의 불패의 혁명기지는 미제와 그 주구들을 반대하는 남조선인민들의 혁명투쟁을 추동하는 위력한 고무적힘으로 되고있으며 생지옥속에서 신음하는 남조선인민들에게 희망의 등대로 되고있다.

남조선혁명가들과 인민들은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하에 륭성발전하고있는 공화국북반부를 우러러 보면서 조국의 자주통일과 남조선혁명의 승리를 확신하고있으며 그이의 품속에서 행복과 번영을 마음껏 누리게 될 영광의 그날을 앞당기기 위하여 혁명투쟁에 적극적으로 나서고있다.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에 관한 위대한 전략전술적방침에 따라 남조선인민들의 혁명투쟁은 확고하게 상승발전하고있다.

남조선인민들은 4천만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이시며 조선혁명의 탁월한 령도자이신 김일성동지의 령도를 받들고 수령의 주위에 굳게 결속되여가고있으며 이것은 그 어떠한 힘으로도 막을수 없는 추세로 발전하고있다.

위대한 수령의 주위에 굳게 뭉친 인민대중의 불패의 통일단결, 이것은 혁명승리의 결정적담보이다. 위대한 혁명의 수령의 주위에 굳게 결속된 인민대중의 힘은 무궁무진하며 그의 전진을 가로막을 힘은 이 세상에 없다.

오늘 남조선인민들이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흠모의 정을 안고 그이의 주위에 굳게 결속되여가고있는것은 남조선혁명발전의 가장

중요한 특징으로 된다.

남조선인민들은 적들의 가혹한 폭압속에서도 《김일성장군 만세》와 《김일성장군의 노래》를 대중앞에서 소리높이 부르고있으며 원쑤들에게 체포되는 경우에도 적들의 면전에서 수령에 대한 다함없는 흠모의 정을 서슴없이 토로하고있다. 그들은 혁명의 위대한 수령이신 김일성동지를 우러러 흠모하면서 그이의 위대한 혁명사상과 가르침을 유일한 지도적지침으로 삼아 투쟁할것을 결의하여나서고있다.

여기에는 자기의 수령에 대한 다함없는 흠모의 정과 깊은 존경심이 담겨져있으며 김일성동지의 품속에서 행복하게 살게 될 그날을 간절히 바라는 절절한 념원이 담겨져있다. 이것은 전체 남조선인민들의 공통된 념원과 지향을 그대로 반영하고있다.

오늘 남조선인민들속에서 높아가고있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흠모의 정은 남조선인민들의 계급적, 민족적 각성의 집중적표현이며 혁명과 수령에 대한 무한한 충직성의 표현이다.

남조선인민들은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민족적영웅이시며 백전백승의 천재적전략가이시며 국제공산주의운동과 로동운동의 탁월한 령도자의 한분이신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선혁명을 항상 승리에로 정확하게 인도하시고 자기들에게 승리와 영광을 안겨주신다는것을 확신하고있는데로부터 그이께서 가리키시는 한길을 따라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 더욱 힘차게 나서고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스무돐기념경축대회보고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오늘 남조선인민들의 혁명투쟁은 확대되고있으며 그것은 무장투쟁을 비롯한 여러가지 형태의 적극적인 반미구국투쟁으로 발전하고있습니다. 투쟁은 점차 조직화되고 혁명의 주력군인 로동자, 농민들 속에 깊이 뿌리를 박고있으며 각계각층의 보다 광범한 군중속에서 힘차게 벌어지고있습니다.》(우와 같은 책, 81페지)

오늘 남조선인민들은 적들의 온갖 파쑈적탄압을 박차고 《김일성수상의 가르침이 확고한 타침판이며 등대》라고 하면서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전략전술적방침에 따라 반미구국항쟁의 기치를 추켜들고 각종 방법을 다하여 적극적인 투쟁을 벌리고있다.

남조선혁명조직들과 혁명가들은 자기대렬을 확대강화하면서 비합법지하투쟁을 과감히 전개하고있으며 혁명투쟁을 목적의식적으로 발전시키고있다.

미제와 박정희도당이 터무니 없는 《죄명》을 들씌워 가혹하게 탄압한 《인민혁명당사건》, 《경북대학의대사건》, 《남조선적화공작단사건》, 《민족주의비교연구회사건》, 《정심회사건》, 《서울대학교사법대학 학생써클사건》, 《통일혁명당사건》 등은 남조선혁명가들과 애국자들의 이러한 투쟁의 일단을 보여주는것이다.

남조선에서는 또한 생존의 권리와 민주주의를 위한 인민들의 대중적투쟁도 더욱 적극적으로 전개되고있다.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은 로동자, 농민, 청년학생, 지식인, 도시소시민 등 광범한 계층을 망라한 대중적인 투쟁으로 더욱 확대되고있으며 투쟁의 예봉은 점차 미제국주의침략자들에게 돌려지고있다.

미제와 그 주구들을 반대하는 로동자들의 투쟁이 급격히 앙양되고있으며 원쑤들의 수탈을 반대하고 생활조건의 개선을 위한 농민들의 투쟁도 현저히 강화되고있다.

매국적인 《한일회담》을 계기로 3.24, 6.3투쟁, 8월투쟁 등 수차에 걸쳐 대중적정치투쟁을 전개한 남조선청년학생들과 지식인들은 미제와 그 주구들에게 련속적인 타격을 가하면서 투쟁대렬을 확대하고있다.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은 혁명투쟁에서 높은 형태인 무장투쟁으로까지 발전하고있다. 남조선인민들의 무장유격투쟁은 남조선의 거의 모든 지역으로 확대

되고있으며 그것은 미제와 그 앞잡이들로 하여금 공포에 떨게 하고있으며 원쑤들을 일대 혼란에 몰아넣고있다.

남조선혁명가들과 애국적인민들은 자기들의 혁명조직을 더욱 확대하면서 도시와 농촌에서, 지하와 산중에서 지어는 감옥과 《법정》에서까지 원쑤와 굴함없이 투쟁하고있다.

원쑤들은 그 어떠한 야수적폭압으로써도 남조선인민들의 불굴의 혁명적투지를 꺾을수 없으며 그들의 거세찬 혁명적진출을 가로막을수 없다.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전략전술적방침의 위대한 생활력은 오늘 우리 혁명의 국제적련대성이 더욱 강화되고있는데서도 명백히 나타나고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세계의 이르는 곳마다에 수많은 혁명동지들과 벗들을 가지게 되였으며 우리 혁명의 국제적련대성은 계속 강화되고있습니다.》 (《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581페지)

우리의 혁명력량과 국제혁명력량간에는 미제를 반대하는 공동의 투쟁목적으로 하여 날로 그 련대성이 공고화되고 있다.

오늘 우리 나라는 형제적사회주의나라들을 비롯한 세계의 수많은 나라들과 친선관계를 맺고있으며 우리의 혁명위업은 세계의 모든 혁명적이며 진보적인 인민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있다.

세계의 진보적인민들은 미제를 남조선에서 몰아내고 조국을 자주적으로 통일하기 위한 우리 당의 정당한 방침을 적극 지지하고있다.

우리 혁명에 대한 국제적련대성의 강화는 미제를 더욱더 고립시키고 궁지에 몰아넣고있으며 우리 인민의 혁명위업의 실현을 더욱 용이하게 하여주고있다.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에 대한 김일성동지의 탁월한 전략전술적방침과 그이의 현명한 령도하에 우리의 혁명력량은 비할바없이 강화된 반면에 남조선에서 미제를 두목으로 하는 반혁명세력은 현저히 약화되였다.

남조선에서 민족적 및 계급적 모순은 일층 격화되고 혁명과 반혁명간, 민주와 반동간의 대립은 극도로 첨예화되고 있으며 미제와 그 주구들은 남조선인민들로부터 더욱더 배격당하고있다.

남조선에서 미제의 식민지통치는 심각한 위기를 겪고있으며 그 밑뿌리로부터 뒤흔들리고있다.

미제의 식민지통치의 도구인 박정희괴뢰도당은 남조선인민들로부터 완전히 버림받고있다. 이에 대하여 남조선어용출판물도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있다.

《오늘날 국민의 감정은 일제시대의 그것과 털끝만큼도 다를것이 없다. …지금 지배자와 국민사이에는 완전한 적대의식이 흐르고있다.》 미제의 어용출판물까지도 남조선에 대한 식민지통치위기에 대하여 지적하면서 《남조선의 국내정세가 암담하기때문에 휴전선의 울타리건너에서 남조선인민은 북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다.》고 쓰고있다.

박정희도당의 매국배족적인 정체가 여지없이 드러나고 전쟁정책과 파쑈적폭압정책으로 인하여 남조선인민들의 재난과 고통이 더욱 커감으로써 민심은 더욱더 공화국북반부로 쏠리고있다.

남조선전지역에서 일어나는 무장유격투쟁과 대중투쟁의 발전, 정치적불안의 증대로 미제와 군사파쑈정권의 정치적지주로 되고있는 《공무원》들과 괴뢰경찰 및 괴뢰군대내에서도 심한 동요가 일어나고있으며 파쑈기구는 적지 않은 혼란상태에 빠져있다.

이상의 모든 사실은 국내외의 혁명정세가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을 위하여 투쟁하는 우리 인민의 편에 유리하게 전변되고있으며 남조선인민들의 혁명투쟁이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전략전술적방침에 따라 확고하게 발전하고있다는것을 보여준다.

이것은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전략전술적방침의 정당성을 확증하는것이며 그의 위대한 생활력을 명백히 보

여주는것이다.

＊ ＊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우리는 반드시 우리 세대에 남조선혁명을 완수하고 조국을 통일하여야 하며 통일된 조국을 후대들에게 넘겨주어야 한다.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의 위업을 하루빨리 성취하기 위해서는 북반부에서 사회주의건설을 더욱 촉진하고 우리의 혁명기지를 일층 강화하는 동시에 남반부혁명력량을 강화하는데 모든 힘을 집중하여야 한다.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위업의 달성을 위하여 우리 앞에 나서는 첫째가는 과업은 당의 유일사상으로 자신을 더욱 철저히 무장하는것이다.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그이께서 제시하신 방침대로 혁명과 건설사업을 더욱 힘있게 밀고나아갈 때 우리는 혁명도상에 가로놓인 어떠한 난관과 시련도 이겨낼수 있으며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의 력사적대사변을 촉진시킬수 있다.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을 자기의 뼈와 살로 만들며 그이께서 제시하신 로선, 정책들을 철저히 관철함으로써만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위업은 가장 빠르고 곧은 길을 따라 승리하게 될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의 진수를 깊이 연구체득하며 그이께서 제시하신 조선혁명의 전략적로선,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 방침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

이리하여 우리는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시고 조선혁명의 빛나는 앞길을 개척하시였으며 우리 인민을 항상 승리와 영광, 행복과 번영의 한길로 인도하시는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모시고 남북반부인민들이 다같이 행복하게 살 그날을 하루빨리 앞당겨야 한다.

근 로 자 제10호(루계 320호)

편집위원회

발행소 • 근 로 자 사 주 소 • 평양시 중구역 남문동
인쇄소 • 평양종합인쇄공장
인 쇄 • 1968년 10월 20일 발 행 • 1968년 10월 25일

ㄱ—83539 값 50전

전세계 로동자들은 단결하라!

11 호

평양 근로자사 1968

전세계로동자들은 단결하라!

근로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 관 지

제 11 호 (321)

차 례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와 프로레타리아독재의 임무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스무돐기념경축대회에서 하신 력사적인 보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우리 인민의 자유와 독립의 기치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강력한 무기이다》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할데 대한 문제를 제기하시고 그를 위한 프로레타리아독재의 임무를 새롭게 전면적으로 밝히시였다.

사회주의제도가 승리한 다음 정치, 경제, 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혁명을 계속 철저히 수행하여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보장하며 이를 위하여 프로레타리아독재를 계속 강화하여 계급투쟁과 경제건설을 다같이 힘있게 밀고나갈데 대한 김일성동지의 교시는 맑스-레닌주의 리론발전에서와 로동계급의 력사적사명을 완수하기 위한 실천투쟁에서 거대한 의의를 가진다. 그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합법칙적과정에 대한 새로운 고전적해명으로 되며 우리 혁명과 국제공산주의운동의 승리를 확고히 담보하는 지침으로 된다.

김일성동지의 보고에 제시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와 프로레타리아독재의 임무에 대한 심오하고도 체계정연한 리론은 확고부동한 계급적원칙성과 철저한 혁명적립장을 견지하시면서 맑스-레닌주의를 창조적으로 적용하고 발전시키며 현실이 제기하는 모든 새로운 문제를 독창적으로 풀어나아가시는 그이의 위대한 주체사상의 빛나는 구현이다. 그것은 김일성동지께서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기초가 건설된 다음 혁명발전의 요구를 깊이 통찰하시고 정치, 경제, 군사, 문화의 모든 분야에 걸쳐 혁명적인 로선과 정책을 세우시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가장 정확한 길을 승리적으로 개척하여나아가시는 과정에서 이룩하신 귀중한 성과와 풍부한 경험을 집대성하신것이며 우리 당과 인민이 앞으로 계속 확고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강유력한 무기이다.

우리는 김일성동지의 보고에서 그 정당성이 전면적으로 론증되였으며 우리 혁명의 실천에서 이미 그 생활력이 확증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와 프로레타리아독재의 임무에 관한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그것을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혁명과 건설을 더욱 촉진할것이다.

*　　　*

김일성동지께서는 공화국창건 스무돐기념경축대회보고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력사적과업을 제시하시면서 사회주의의 기초를 건설한 다음에도 프로레타리아독재를 계속 강화하여야 할 필요성을 전면적으로 천명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가르치시였다: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보장하며 로동계급의 력사적위업을 완수하기 위하여 사회주의국가는 계급투쟁의 무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무기로서의 자기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여야 합니다. 다시말하여 사회주의국가는 프로레타리아독재를 강화하여 한편으로는 계급투쟁을 계속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주의경제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가야 할것입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우리 인민의 자유와 독립의 기치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강력한 무기이다》, 43~44페지)

김일성동지의 이 교시는 사회주의제도가 선 다음 맑스-레닌주의당과 사회주의국가가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와 로동계급의 력사적사명을 완수하기 위하여 어떻게 투쟁할것인가, 프로레타리

아독재를 어느때까지 계속 견지하고 강화하여야 할것인가에 대한 해답을 명백하게 준것으로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서 원칙적의의를 가지는 귀중한 결론이다.

력사적경험은 프로레타리아독재문제에 어떻게 대하는가, 그 기능과 역할을 어떻게 높이는가 하는것은 맑스-레닌주의와 기회주의를 갈라놓는 시금석으로 된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사회주의사회에서 프로레타리아독재를 계속 견지하고 강화하는가 안하는가 하는 문제는 혁명을 중도에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철저히 수행하는가 안하는가, 내외의 계급적원쑤들의 준동을 물리치고 로동계급의 계급적립장에 확고히 서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진행하는가 안하는가를 좌우하는 관건적문제이며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와 로동계급의 력사적위업을 위한 투쟁의 운명을 좌우하는 근본문제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바로 사회주의제도가 선 다음에도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와 로동계급의 력사적위업의 완수를 위하여 프로레타리아독재를 계속 강화하여야 한다는 확고한 혁명적원칙을 제시하심으로써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위한 투쟁의 가장 정확한 길을 밝히시였다.

사회주의제도가 선 다음에도 프로레타리아독재를 계속 강화할데 대한 김일성동지의 교시는 사회주의사회의 현실과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합법칙적요구를 가장 정확하게 반영한것이다.

도시와 농촌에서 사회주의제도의 확립은 로동계급의 력사적위업을 완수하는 길에서 달성된 위대한 승리로 된다. 이것은 나라의 생산력을 급속히 발전시키며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근본적으로 개선할수 있는 넓은 길을 열어놓으며 로동계급의 령도밑에 로농동맹을 기초로 하는 전체 인민의 정치사상적통일을 강화하기 위한 사회경제적조건을 지어놓는다.

그러나 이것으로써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가 이루어진것은 아니다. 사회주의국가는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위하여 혁명을 계속하여야 하며 계급투쟁을 계속 강화하여야 한다.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착취계급이 청산되고 사회주의적생산관계가 유일적으로 지배하게 된 다음에도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에로의 과도기의 전기간에 걸쳐 계급투쟁은 계속된다. 사회주의사회에는 전복된 착취계급잔여분자들이 남아있으며 그들은 자기들의 옛지위를 되찾으려는 망상을 버리지 않고 파괴활동을 끊임없이 감행한다. 이것은 사회주의사회내부에 철저한 독재를 가하여야 할 적대적요소들이 오래동안 남아있게 된다는것을 의미한다. 뿐만아니라 사회주의나라들은 외부로부터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파괴책동의 위협을 끊임없이 받는다. 제국주의자들은 사회주의나라들을 반대하는 직접적인 무력간섭과 전쟁도발책동을 강화하는 한편, 사회주의나라들을 내부로부터 파괴하기 위하여 온갖 술책을 다한다. 놈들은 특히 사회주의나라 내부에 남아있는 적대적요소들을 앞잡이로 리용하여 그 나라들을 파괴하고 전복하려고 꾀한다. 이러한 조건에서 사회주의국가는 계급투쟁의 무기인 프로레타리아독재를 잠시도 약화시킬수 없다.

또한 사회주의제도가 선 다음에도 근로자들의 머리속에는 착취사회에서 물려받은 낡은 사상잔재들이 오래동안 남아있게 되며 제국주의자들의 사상문화적침투로 말미암아 외부로부터 부르죠아적사상독소가 끊임없이 침습해들어온다. 낡은 사상잔재를 반대하는 투쟁은 로동계급의 사상과 부르죠아사상간의 투쟁이라는 의미에서 계급투쟁으로 된다. 이것은 프로레타리아독재를 강화하여 사상혁명을 힘있게 전개할것을 절실히 요구한다.

이와 함께 사회주의사회에는 도시와 농촌간의 차이, 로동계급과 농민간의 계급적차이가 오래동안 남아있게 된다. 김일성동지께서 지적하신바와 같이 사회주의사회에서의 도시에 비한 농촌의 락후성은 낡은 착취사회의 유물이다.

사회주의사회에 낡은 착취사회의 유물이 있고 로동계급과 농민간의 계급적차이가 남아있다는 사실은 사회주의제

도가 선 다음에도 혁명을 계속하며 프로레타리아독재를 계속 강화하여야 한다는것을 말하여준다. 따라서 사회주의국가는 착취사회가 남겨놓은 유물을 청산하기 위하여 사회주의농촌문제를 종국적으로 해결하여야 하며 완전한 무계급사회를 실현하기 위하여 프로레타리아독재를 계속 강화하여야 한다.

김일성동지께서 교시하신바와 같이 사회주의국가앞에는 계급투쟁을 계속하는 동시에 사회주의경제건설을 강력히 전개하여야 할 과업이 나서고있다. 사회주의국가는 나라의 공업화를 완수하고 사회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쌓아야만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보장할수 있으며 사회주의, 공산주의에 상응한 생산력의 높은 발전수준과 인민들의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보장할수 있다. 따라서 사회주의국가는 경제분야에서도 혁명을 계속하여야 하며 로동계급의 계급적임무를 철저히 수행하여야 한다.

이 모든것은 사회주의제도의 수립만으로써는 계급투쟁의 무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무기인 프로레타리아독재의 임무가 끝나지 않는다는것을 보여준다.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는 프로레타리아독재의 임무를 완수하기전에 결코 그것을 약화시킬수 없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로동계급과 농민의 계급적차이가 없어지기도전에 또한 낡은 사회의 사상잔재가 청산되기도전에, 특히는 사회주의를 반대하는 내외의 원쑤들의 침략책동과 파괴책동이 계속 격화되고있는 때에 프로레타리아독재가 필요없게 되였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잘못입니다.》
(우와 같은 책, 49페지)

사회주의사회에서 계급투쟁이 계속되며 계급적차이가 완전히 없어지지 않은 조건에서 만일 사회주의국가가 프로레타리아독재를 약화시킨다면 승리한 사회주의제도를 공고발전시키고 그 우월성을 전면적으로 발양시킬수 없으며 내외의 원쑤들의 침해로부터 사회주의 전취물을 지켜낼수도 없게 될것이다.

특히 나라의 절반땅인 남반부에 세계반동의 원흉인 미제국주의자들이 둥지를 틀고 공화국북반부의 사회주의제도를 전복할 목적으로 침략전쟁도발책동을 강화하는 동시에 남반부의 반동계급들과 북반부의 전복된 착취계급잔여분자들을 사촉하여 파괴암해책동과 사상적침투를 끊임없이 강화하고있는 우리나라의 조건에서는 프로레타리아독재를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

프로레타리아독재를 강화하는것은 사회주의국가인민들이 진정으로 자유와 민주주의를 향유하기 위한 담보이다.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프로레타리아독재는 소수 적대분자들에 대해서는 진압하고 로동계급과 농민을 비롯한 절대다수의 근로인민들에게는 민주주의를 실시한다. 그것은 착취계급을 영원히 청산하고 로동계급을 비롯한 근로인민들의 참다운 정치적자유와 권리를 전면적으로 보장할뿐만아니라 행복한 물질문화생활을 보장하여주며 그들사이의 동지적협조와 방조를 백방으로 강화할수 있게 한다.

사회주의사회에서 적대적요소가 있고 낡은 사상잔재가 남아있으며 계급투쟁이 계속되는 조건에서 프로레타리아독재를 약화시키면서 《순수한 민주주의》, 《완전한 자유》를 주장한다면 그것은 사실에 있어서 인민들에게 부르죠아적 민주주의와 노예적자유를 강요하는것이나 다름없다.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인류력사에는 계급을 떠난 국가가 없었던것과 마찬가지로 계급성을 떠난 민주주의란 없었으며 또 있을수도 없다. 부르죠아민주주의와 프로레타리아민주주의와의 계급선을 모호하게 하고 민주주의의 계급적성격을 부인하면서 원칙적인 계급투쟁을 회피하는 경우에는 적대적요소에 대한 경각성이 무디게 되고 당과 로동계급의 령도적역할이 마비되며 사회생활에서 부르죠아지의 부식적작용이 강화될수 있다. 이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에 엄

중한 장애를 조성하게 된다.

우리는 프로레타리아독재를 결코 약화시킬수 없으며 계속 견지하고 강화하여야 한다.

프로레타리아독재는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한후에도 계속 견지되여야 한다.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한 다음에도 사회주의국가는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계속 건설하여야 하며 각자는 능력에 따라 일하고 수요에 따라 보수를 받는 공산주의원칙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하여야 한다. 프로레타리아독재가 없이는 이 임무를 수행할수 없는것이다.

뿐만아니라 아직 세계혁명이 완수되지 못하고 세계적범위에서 제국주의가 청산되지 않은 한 프로레타리아독재는 공산주의의 높은 단계에 가서도 의연히 남아있어야 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국제자본주의의 포위속에서 프로레타리아트가 주권을 잡은 개별적나라들은 전세계적규모에서 공산주의가 실현될 때까지 제국주의의 침략과 자본주의복구의 위험을 면할수 없습니다.》(우와 같은 책, 58페지)

제국주의의 침략적본성은 결코 변하지 않으며 제국주의자들은 사회주의나라들에서 혁명과 건설이 진척될수록 이 나라들을 반대하는 침략책동을 더욱 발악적으로 감행한다. 특히 제국주의자들은 사회주의나라인민들이 계급적으로 해이해지고 무경각해진 틈을 노리여 침략과 자본주의복구의 시도를 실현하려고 꾀한다.

제국주의의 침략위협이 계속되고 자본주의복구의 시도가 감행되는 한 사회주의나라들은 프로레타리아독재를 약화시킬수 없으며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을 소홀히 할수 없다.

우리 인민은 혁명의 종국적승리를 이룩할 때까지 프로레타리아독재를 계속 강화할데 대한 우리 당의 혁명적방침을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우리의 혁명적전취물을 철옹성같이 수호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더욱 힘있게 추진시켜 나갈것이다.

* *

김일성동지께서는 공화국창건 스무돐 기념경축대회에서 하신 보고에서 사회주의제도가 선 다음에도 프로레타리아독재를 계속 강화하여야 할 필요성을 전면적으로 밝히시였을뿐아니라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기 위하여 프로레타리아독재가 수행하여야 할 임무와 그 수행방도에 대하여서까지 구체적으로 천명하시였다.

혁명발전의 매 단계에 프로레타리아독재가 수행하여야 할 임무와 그것을 실현하는 구체적형식과 방도를 옳게 규정하는것은 로동계급의 혁명투쟁에서 거대한 리론실천적의의를 가진다.

특히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시기의 프로레타리아독재의 임무와 수행방도를 옳게 해명하는것은 오늘 절박한 문제로 나서고있다.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위하여 프로레타리아독재가 구체적으로 어떤 과업을 수행하여야 할것인가, 그것을 실현하는 형식과 방법은 어떻게 되여야 할것인가 하는 문제는 아직 그 누구에 의하여서도 해명되지 못한 문제였다. 또 이로부터 국제공산주의운동실천에서는 적지 않은 편향들이 발생되고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성과적수행을 위하여 날카롭게 나서고있던 이 문제는 우리 시대의 위대한 맑스-레닌주의자이시며 혁명의 천재적수령이신 김일성동지에 의하여 빛나게 해결되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우선 사회주의제도가 선 다음 프로레타리아독재가 수행하여야 할 계급투쟁의 내용과 그 형식에 대하여 전면적으로 밝히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사회주의제도가 선 다음에도 프로레타리아독재는 내부의 적대적요소를 반대하는 계급투쟁을 강화하여야 한다. 물론 이것은 계급으로서 이미 청산되고 그 사회경제적지반도 상실한 착취계급잔여분자들의 준동을 진압하는 투쟁이다. 이 적대요소들은 그 자체로서는 그리 큰것이

아니지만 외래제국주의자들의 리용물로, 앞잡이로 되고있는것만큼 그것을 결코 소홀히 할수는 없다. 특히 착취계급잔여분자들과 외부의 제국주의세력들은 사회주의나라에서 혁명과 건설이 진척될수록 사회주의제도를 반대하는 파괴책동을 더욱더 악랄하게 감행한다. 따라서 프로레타리아독재는 사회주의제도에 대한 내외의 온갖 계급적원쑤들의 파괴책동을 철저히 진압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사회주의사회에서는 프로레타리아독재앞에 새로운 계급투쟁의 과업이 나선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회주의사회에는 적대분자들을 진압하는 계급투쟁과 함께 근로자들속에 남아있는 낡은 사상을 뿌리빼고 그들을 다 공산주의사상으로 무장시키기 위한 사상혁명을 중요내용으로 하는 계급투쟁의 기본형식이 있는것입니다. 사회주의제도가 승리한 다음에도 계급투쟁은 계속되지만 그 내용과 형식은 좀 달라져야 할것입니다.》(우와 같은 책, 50~51페지)

김일성동지께서 교시하신것처럼 적대분자들에 대한 진압은 프로레타리아독재국가의 기본기능이며 사회주의국가가 끝까지 수행하여야 할 계급투쟁의 형식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프로레타리아독재기능의 전부가 아니며 계급투쟁의 전반적형식을 다 포함하는것이 아니다.

사회주의사회에서는 전복된 착취계급잔여분자들과 외부의 제국주의자들의 음모책동을 반대하는 계급투쟁과 함께 근로자들의 의식속에 남아있는 낡은 사상잔재를 뿌리빼기 위한 사상투쟁이 주요하게 나선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하에서의 낡은 사상잔재를 청산하기 위한 사상투쟁의 특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물론 사회주의사회에서 근로자들의 의식속에 남아있는 낡은 사상 잔재를 반대하는 투쟁이 로동계급의 사상과 부르죠아사상간의 투쟁이라는 의미에서 계급투쟁이기는 하지만 그것은 종래의 계급투쟁과는 완전히 구별되는것입니다. 사회주의혁명을 할 때의 계급투쟁은 주로 착취자들을 계급으로서 완전히 청산하기 위한 투쟁이였다면 사회주의제도가 선 다음에 진행하는 계급투쟁은 사람들을 청산하기 위한것이 아니라 주로 사람들의 사상을 개조하기 위한 사상투쟁입니다.》(우와 같은 책, 51페지)

김일성동지께서 교시하신바와 같이 착취사회에서는 착취계급과 피착취계급,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간의 계급적 대립과 투쟁이 사회관계의 기본으로 되지마는 사회주의제도가 선 사회주의사회에서는 로동계급과 협동농민, 근로인테리들의 단결과 협조가 사회관계의 기본을 이루고있다. 사회주의사회에서 로동자와 농민과 인테리는 사회경제적처지의 공통성, 목적과 리해관계의 공통성으로 하여 동지적으로 결합되고 서로 긴밀히 협조하며 당과 수령의 령도밑에 다같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투쟁하고있다.

사회주의사회에서 낡은 사상잔재를 반대하는 사상투쟁은 바로 공동의 리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손잡고나가는 근로자들내부의 문제이다. 이것은 오직 사상혁명을 전개하여 모든 근로자들을 공산주의자로 교양개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상혁명은 적대분자들과의 투쟁처럼 폭력적방법으로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설복과 교양의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하며 근로자들의 통일과 단결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되여야 합니다.》(우와 같은 책, 51페지)

사람들의 사상을 강제로는 개조할수 없으며 더우기 낡은 사상잔재를 가진 모든 근로자들에 대하여 폭력을 적용할수는 없다.

설복과 교양은 근로자들의 낡은 사상잔재를 뿌리빼기 위한 위력한 방법이다. 당정책교양과 혁명전통교양, 계급교양을 기본으로 하는 공산주의교양과 사회주의적애국주의교양사업을 꾸준히 전개하여야만 근로자들속에 남아있는 봉건적, 부르죠아적, 소부르죠아적 사상잔재를 청산할수 있다.

만일 근로자들의 의식속에 남아있는 낡은 사상을 반대하는 투쟁을 폭력적방

법으로 진행하려 한다면 이것은 사상혁명의 과업자체를 해결할수 없을뿐만아니라 사회에 불안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인민대중의 통일단결을 약화시키는 엄중한 결과를 초래케 할수 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위하여 프로레타리아독재가 적대분자들을 반대하는 계급투쟁과 사상혁명을 가장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는 정확한 길을 가르쳐주시였을뿐아니라 사회주의제도가 선 다음에도 남아있는 도시와 농촌간의 차이, 로동계급과 농민간의 계급적차이를 완전히 없앨수 있는 가장 혁명적인 방도를 명시하여주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농촌문제를 종국적으로 해결하고 협동적소유를 전인민적소유의 수준에까지 끌어올리는것은 사회주의제도가 승리한 다음 프로레타리아독재국가앞에 나서는 가장 중요한 과업의 하나이며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위한 근본조건의 하나입니다.》(우와 같은 책, 52페지)

김일성동지께서 교시하신바와 같이 사회주의국가는 농촌문제를 종국적으로 해결하여야만 내외의 원쑤들이 발붙이고 준동할수 있는 근거지와 지반을 완전히 없앨수 있으며 농민들을 공산주의까지 확고하게 이끌수 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이미 우리 시대의 위대한 맑스-레닌주의고전인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에서 사회주의농촌문제의 내용과 그 해결을 위한 기본원칙과 과업을 전면적으로 제시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사회주의제도가 선 다음에는 농촌문제가 그 이전 시기와는 근본적으로 달리 제기된다. 과거에는 농촌의 낡은 생산관계를 청산하는것이 농촌문제해결에서 중심적문제였다면 사회주의하에서는 이미 승리한 사회주의제도를 부단히 공고화하는 기초우에서 농업생산력을 고도로 발전시키고 농민들의 생활을 부유하게 하며 착취사회가 남겨놓은 농촌의 락후성을 없애고 도시와 농촌간의 차이, 로동계급과 농민간의 계급적차이를 점차적으로 없애는것이 농촌문제의 중심적내용으로 된다. 그것은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가 완전히 책임지고 농촌에서 사상, 기술, 문화 혁명을 힘있게 전개하며 농촌에 대한 지원을 전면적으로 강화하며 전인민적소유와 협동적소유를 유기적으로 결합시키면서 협동적소유를 전인민적소유에로 끊임없이 접근시키는 원칙에서 해결하여야 한다. 이것은 사회주의사회에서 로동계급과 농민간의 계급적차이를 없애기 위한 투쟁이 로동계급의 령도적역할을 높이고 로동계급과 농민간의 협조를 강화하는 방법으로 진행된다는것을 말하여준다.

김일성동지께서 천명하신 사회주의농촌문제의 종국적해결을 위한 방도는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위한 투쟁에서 프로레타리아독재의 기능과 역할을 결정적으로 높일수 있게 하는 위력한 무기로 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위하여 프로레타리아독재국가는 사회주의경제건설을 힘있게 추진시켜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낡은 제도를 뒤집어엎고 인민들을 착취와 억압에서 해방한 다음에 공산주의자들앞에 나서는 중요한 임무는 사회주의경제건설을 잘하는것입니다. 인민의 복리증진에 대한 배려, 이것은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 활동의 최고원칙입니다.》(우와 같은 책, 45페지)

김일성동지께서 교시하신바와 같이 공산주의자들은 인민의 자유와 해방을 위하여, 인민의 행복한 생활을 위하여 투쟁한다. 공산주의자들의 이러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는 우선 착취계급을 뒤집어엎고 낡은 생산관계를 청산함으로써 인민들을 착취와 억압에서 해방하며 생산력발전의 광활한 길을 열어놓는다. 물론 공산주의자들은 주권을 쥔 다음에는 인민들의 생활에 대하여 책임지며 따라서 경제건설을 촉진하기 위하여 모든 힘을 다한다. 그러나 낡은 생산관계가 남아있고 착취계급이 근절되지 않는한 생산력의 발전이 제한되며 근로자들을 빈궁에서 완전히 해방시킬수 없다.

사회주의제도가 선 다음에야 생산력을 급속히 발전시킬수 있는 광활한 길이 열리며 근로자들의 물질문화적생활을 전면적으로 급속히 높일수 있는 모든 조건이 마련될수 있다.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는 근로자들을 착취에서 해방한 다음에는 그들을 고된 로동에서까지 해방하며 그들의 높은 물질문화적생활수준을 보장하기 위하여 투쟁하여야 한다. 이리하여 경제건설은 낡은 착취제도를 뒤집어엎은 다음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 앞에 더욱더 전면에 나서는 과업으로 된다.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경제건설을 잘하여야 사회주의, 공산주의에 상응한 생산력의 높은 발전수준을 이룩할수 있으며 인민생활을 결정적으로 높일수 있다. 경제건설을 잘하여 모든 인민들의 생활을 적어도 지난날의 중산계층의 생활수준이상으로 끌어올리는것은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위한 중요한 담보로 된다. 모든 근로자들의 생활을 지난날의 중산계층의 생활수준 이상으로 끌어올려야 전체 인민들이 다 사회주의제도의 참다운 우월성을 실생활을 통하여 더 잘 느끼도록 하며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확신하고 사회주의제도를 공고발전시키기 위하여 몸바쳐싸우도록 할수 있는것이다. 또한 경제건설을 잘하여 사회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쌓아야만 나라의 정치적독립과 자주성을 확고히 보장할수 있으며 국방력도 강화할수 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이와 같이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프로레타리아독재의 과업과 그 수행방도를 전면적으로 천명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 천명하신 프로레타리아독재에 관한 심오한 리론은 제국주의와 장기적으로 대치한 조건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수행하게 되는 세계혁명발전의 합법칙성에 상응하게, 지난날 뒤떨어진 처지에 있던 나라들을 포함한 많은 나라들이 사회주의의 길에 들어서고있는 현시대의 요구에 맞게 파도기와 프로레타리아독재에 관한 맑스-레닌주의리론을 전면적으로 발전시킨것이다. 그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승리를 위한 우리 인민과 전세계의 혁명적인민들의 가장 정확한 투쟁강령이다.

우리는 김일성동지께서 밝혀주신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와 프로레타리아독재에 관한 심오한 사상을 받들고 혁명과 건설을 더욱 힘차게 밀고나감으로써 우리 나라에서의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와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완성을 더욱 앞당겨야 할것이다.

* *

우리는 김일성동지의 공화국창건 스무돐기념경축대회보고를 높이 받들고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위하여, 우리 혁명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위하여 프로레타리아독재를 계속 강화하며 그 기능과 역할을 높일데 대한 당의 방침을 더욱 철저히 관철하여야 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프로레타리아독재의 력사적사명은 착취계급을 청산하고 그 반항을 진압하는 한편, 모든 근로자들을 교양개조하여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며 온갖 계급적차이를 점차적으로 없애며 공산주의를 건설하는데 있습니다.》(우와 같은 책, 46페지)

우리앞에 나서는 가장 선차적인 과업은 계급적원쑤들에 대한 독재를 강화하며 사상혁명을 철저히 수행하여 전사회를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것이다.

우리는 우리 사회내부에 아직도 자기의 옛지위를 되찾으려는 꿈을 버리지 않고있는 전복된 지주, 자본가 계급잔여분자들이 있다는것을 한시도 잊을수 없으며 더우기 우리 조국 남반부에 세계제국주의의 두목 미제와 반동계급들이 그대로 있다는것을 결코 잊을수 없다. 우리는 내외의 계급적원쑤들에 대한 혁명적경각성을 고도로 높이고 국가의 프로레타리아독재의 기능을 강화하며 우리의 국방력을 철벽으로 다져야 한다. 그리하여 우리의 혁명과 건설을 음으로 양으로 파괴하려고 책동하는 전복된 착취계급잔여분자들과 반혁명분자들에 대

하여 엄격한 제재를 가하며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침략전쟁도발책동과 반혁명적기도에 대하여 제때에 단호한 반격을 가하여 철저히 소탕하여버려야 한다. 그리하여 우리 혁명의 전취물을 굳건히 보위하고 우리 나라에서의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믿음직하게 담보하며 조국통일위업을 촉진하여야 할것이다.

우리는 계급적원쑤들에 대한 독재를 강화하는 동시에 사회의 모든 계층들에 대한 로동계급의 령도적역할을 높이며 사상혁명을 철저히 수행하여 전사회의 혁명화, 로동계급화를 실현하여야 한다.

우리는 당이 이미 제시한 방침대로 로동계급의 령도적역할을 높이면서 당정책교양, 혁명전통교양, 계급교양을 기본으로 하는 공산주의교양과 사회주의적애국주의교양사업을 강력히 전개하여 근로자들의 머리속에 남아있는 봉건적사상과 부르죠아사상, 소부르죠아사상 잔재를 남김없이 뿌리빼며 외부에서 들어오는 부르죠아적사상독소와 그 부식작용을 철저히 막아내야 한다.

무엇보다도 먼저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며 전당과 전사회에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세워야 한다. 그리하여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언제 어디서나 수령의 혁명사상으로 사고하고 행동하며 어떤 풍파속에서도 조금도 동요하지 않고 오직 수령께서 가리키시는 길로 확신성있게 나아가도록 하며 일편단심 수령께 무한히 충실한 항일유격대원들의 고매한 혁명정신을 본받아 수령을 목숨으로 사수하며 수령께서 제시하시는 모든 정책을 끝까지 관철해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동시에 우리는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계급적원쑤들을 철저히 미워하고 그와 비타협적으로 투쟁하며 항상 예리한 로동계급적선을 세울줄 알도록 하며 모든 사람들이 집단과 사회를 위하여, 당과 혁명을 위하여 개인을 희생할줄 아는 고상한 혁명정신을 소유하며 사회주의제도를 열렬히 사랑하고 그 공고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하도록 하여야 한다.

우리는 프로레타리아독재를 강화하여 전사회의 혁명화, 로동계급화를 촉진하는 동시에 사회주의농촌문제의 종국적해결을 앞당김으로써 온갖 계급적차이를 철저히 없애야 한다.

사회주의농촌문제는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의 적극적인 지도와 방조하에서만 성과적으로 해결될수 있다. 우리는 농촌에 대한 지도와 방조를 백방으로 강화하고 농촌에서 기술혁명, 문화혁명, 사상혁명을 힘있게 벌려 현대적공업에 비한 농촌경리의 기술적락후성, 선진적도시에 비한 농촌의 문화적락후성, 가장 혁명적계급인 로동계급에 비한 농민의 사상적락후성을 하루빨리 없애고 협동적소유를 전인민적소유의 수준에 끊임없이 접근시켜야 한다. 이리하여 로동계급의 령도밑에 로농동맹을 반석같이 다지며 도시와 농촌간의 차이, 로동계급과 농민간의 계급적차이를 없애고 우리의 농촌을 더욱 현대적이고 부유한 사회주의농촌으로 전변시켜야 할것이다.

프로레타리아독재는 계급투쟁과 사상혁명을 잘하고 온갖 계급적차이를 없앨뿐만아니라 경제건설도 잘하여 완전한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여야 한다. 사회주의, 공산주의에로 가는 길에서는 사상적요새와 물질적요새를 다같이 반드시 점령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적대분자들에 대한 독재와 사상혁명, 경제사업을 다같이 잘해나가야 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회주의경제건설분야에서의 우리의 과업은 나라의 공업화와 기술혁명과 문화혁명을 철저히 수행하여 사회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쌓고 모든 근로자들이 현대적기계를 능숙하게 다룰수 있는 지식과 기능을 소유하도록 하는것입니다.》(우와 같은 책, 53페지)

우리는 공업과 농업을 비롯한 인민경제 모든 부문을 현대적기술로 장비하고 생산을 끊임없이 높여 우리 나라를 더욱 부강하게 하고 인민들을 고된 로동에서 해방하며 그들의 생활을 획기적으

로 높여야 한다. 그리하여 모든 근로자들이 사회주의제도를 열렬히 사랑하게 하고 그를 위하여 헌신적으로 떨쳐나서게 하여야 한다.

우리는 조성된 긴장한 정세에 상응하게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당의 로선을 관철하여 경제건설과 함께 국방건설도 힘있게 밀고나가야 한다. 그래야만 미제의 격화되는 침략책동을 때려부시고 조국과 사회주의제도의 안전을 보장할수 있으며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 위업도 앞당길수 있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는 천리마의 고삐를 늦추지 말고 계속 긴장된 투쟁을 벌려 전진, 전진, 투쟁 또 전진함으로써 7개년계획수행을 앞당기고 나라의 공업화와 기술혁명과 문화혁명의 실현을 최대한으로 촉진하여야 한다.

우리는 프로레타리아독재를 강화하여 나라의 혁명과 건설을 더 잘 수행하는 동시에 국제혁명력량과의 련대성을 강화하는데도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한다. 주권을 잡은 프로레타리아트는 자기 나라에서 혁명을 최대한으로 촉진하는 동시에 세계사회주의력량과의 계급적동맹을 강화하며 만국의 로동계급과 피압박인민들과의 참다운 국제주의적련대성을 강화하는것을 자기의 중요한 의무로 삼는다. 우리는 우리 혁명의 민족적임무와 국제적임무로부터 출발하여 맑스-레닌주의와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원칙, 완전한 평등과 자주성의 원칙에 기초하여 사회주의나라들과의 친선단결을 강화하며 반제반미투쟁의 혁명적기치를 높이 들고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혁명적인민들과 전세계피압박인민들과의 단결과 국제적지지협조를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프로레타리아독재를 강화할데 대한 당의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하여서는 우리의 인민정권기관들의 기능과 역할을 높여야 한다.

정권기관들의 사업에 대한 당의 령도적역할을 높이고 그 활동에서 당의 계급로선과 군중로선을 철저히 구현하며 변천되는 환경에 맞게 그 사업체계와 사업방법을 끊임없이 개선완성하는것은 인민정권기관의 기능과 역할을 높이는데서 우리 당이 견지하고있는 일관한 방침이다.

특히 우리는 국가경제기관일군들의 사업에서 정치사업을 확고히 앞세우는 원칙을 철저히 관철하며 그들의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을 더욱 높여야 한다.

이리하여 당정책의 집행자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강유력한 무기로서의 인민정권의 독재의 기능과 경제조직자적 및 문화교양자적 기능을 더욱 높이며 모든 일군들이 당정책을 철저히 옹호관철하고 인민의 리익을 위하여 몸바쳐싸우는 혁명가로, 인민대중으로부터 두터운 사랑과 존경을 받는 참된 인민의 충복으로 되도록 하여야 한다.

프로레타리아독재를 강화하며 그 기능과 역할을 높이는것은 우리 나라에서의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와 우리 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위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우리 앞에 나선 가장 초미의 문제이다.

우리는 김일성동지께서 공화국창건 스무돐기념경축대회에서 하신 보고에서 전면적으로 제시하신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위한 프로레타리아독재의 과업과 그 수행방도를 깊이 인식하고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우리앞에 나선 모든 혁명임무를 성과적으로 수행하여나아가야 할것이다.

전당과 전체 인민은 우리를 항상 승리와 영광에로 이끌어주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위에 굳게 단결하여 계급투쟁의 무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무기인 프로레타리아독재를 더욱 강화하고 그 기능과 역할을 백방으로 높여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와 우리 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위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완수를 위하여 힘차게 싸워나가자!

사회주의건설의 웅대한 강령, 그 실현을 담보하는 위대한 맑스—레닌주의적문헌

《김일성저작선집》 제3권출판에 즈음하여

이번에 조선로동당출판사에서는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건설의 웅대한 강령과 그 실현을 담보하는 창조적인 전략전술적방침을 휘황하게 밝혀준 위대한 문헌 《김일성저작선집》 제3권을 출판하였다.

《김일성저작선집》 제3권에는 1961~1963년사이에 하신 김일성동지의 연설, 보고, 결론들 가운데서 중요한 저작 15건이 들어있다.

*　　　*

1961~1963년, 이 시기는 국제적으로 미제를 괴수로 하는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책동이 더욱 로골화되던 때이다.

미제국주의자들은 꾸바공화국을 반대하여 카리브해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전체 사회주의진영에 도전하여나섰고 국제공산주의운동에서는 현대수정주의자들이 사회주의진영을 분렬시키고 국제공산주의운동의 통일단결을 파괴하려고 악랄하게 책동하면서 형제당들과 형제나라들에 정치, 경제적 압력을 강화하던 때이며 국내에서는 남조선을 강점한 미제국주의자들과 그 주구들이 공화국북반부를 반대하는 도발행위와 파괴, 암해 책동을 끊임없이 감행하던 때이다. 또한 이 시기는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건설이 새로운 높은 단계에 들어섬에 따라 우리 당과 인민 앞에 보다 어렵고 복잡한 과업들과 창조적인 해답을 기다리는 새로운 문제들이 수없이 제기되던 때이다.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은 조성된 어렵고 복잡한 국내외정세밑에서 국방력을 강화하는데 큰 힘을 돌리면서 사회주의건설의 웅대한 강령인 7개년계획의 방대한 과업을 수행하며 우리의 혁명과 건설에서 새롭게 나서는 리론실천적문제들을 독창적으로 풀어나가지 않으면 안되였다.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민족적영웅이시며 백전백승의 강철의 명장이시며 국제공산주의운동과 로동운동의 탁월한 령도자의 한분이신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성된 정세와 계급적력량관계를 과학적으로 분석하신데 기초하여 혁명과 건설을 위한 우리 당의 전략전술적방침을 옳바르게 내놓으시고 우리 인민을 승리의 한길로 확고히 이끄시였으며 맑스-레닌주의의 혁명적기치를 높이 드시고 국제공산주의운동의 통일단결을 이룩하며 세계혁명을 촉진시키는데 거대한 기여를 하시였다.

《김일성저작선집》 제3권에 수록된 저작들에는 우리 나라에서 기술혁명과 문화혁명을 전면적으로 전개하여 자립적 민족경제건설을 다그치며, 대안의 사업체계와 새로운 농업관리체계를 세우고

그것을 더욱 발전시키며, 사회주의건설에서 군의 역할을 강화하며, 당사업을 개선하고 당의 령도적역할을 높이며, 모든 사람을 교양개조하여 우리의 혁명대오를 정치사상적으로 튼튼히 꾸려 조국통일의 혁명적대사변을 앞당기며 세계혁명을 추진하는것과 같은 원칙적인 문제들을 창조적으로 풀어나간 현명한 전략전술이 천명되여있다.

또한 여기에 수록된 저작들에는 이 시기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당이 쌓아올린 불후의 업적과 사회주의건설에서 얻은 고귀한 경험들이 과학적으로 분석총화되여있다.

저작선집 제3권에 들어있는 문헌들은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에 관한 맑스-레닌주의리론을 우리 나라에 창조적으로 적용하고 조선혁명의 기본임무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합법칙적요구에 맞게 그것을 심화발전시킨 산 모범이며 맑스-레닌주의보물고에 크게 기여한 위대한 문헌들이다.

《김일성저작선집》 제3권에는 맑스-레닌주의를 우리 나라 실정에 맞게 창조적으로 적용하고 발전시킨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 자주, 자립, 자위의 혁명정신이 일관하게 흐르고있다.

우리는 아래에 《김일성저작선집》 제3권에 관통되고있는 중요사상들에 대해서만 해설하려 한다.

기술혁명과 문화혁명을 전면적으로 실현하여 자립적민족경제건설을 다그칠데 대하여

7개년계획은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되는 가장 장기적인 전망계획으로서 사회주의건설의 웅대한 설계도이며 위대한 민족적강령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선로동당 제4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의 당면과업에 대하여》, 《기술혁명수행에서 과학자, 기술자들의 임무》를 비롯한 여러 로작들에서 사회주의기초축성의 력사적승리를 총화하시고 사회주의건설의 높은 고지를 점령하기 위한 웅대한 설계도를 펼쳐주시였으며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우리 당의 방침과 구체적인 방도들을 밝혀주시였다.

7개년계획기간은 우리 나라 사회주의건설에서 결정적시기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7개년계획의 기본과업은 승리한 사회주의제도에 의거하여 전면적기술개건과 문화혁명을 수행하며 인민생활을 획기적으로 높이는데 있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3권, 108페지)

우리 나라의 사회주의건설은 7개년계획시기에 와서 새로운 높은 단계에 들어서게 되였다.

5개년계획기간에 우리 나라는 자립적민족경제의 토대축성과 인민경제의 기술적개건에서 커다란 진보를 이룩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아직 공업화의 기초를 쌓고 기술혁명을 시작한데 지나지 않았다. 이리하여 7개년계획기간에 사회주의공업화를 철저히 실현하며 인민경제 모든 분야에서 기술혁명과 문화혁명을 전면적으로 실시하여 우리 나라를 현대적공업과 발전된 농업을 가진 사회주의적공업국가로 만들고 인민들의 생활을 훨씬 더 높이는것이 기본과업으로 나서게 되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만일 5개년계획기간을 사회주의라는 큰 나무의 뿌리를 깊이 박고 그 줄거리를 튼튼히 자래우는 시기였다고 한다면 7개년계획기간은 이 나무를 더욱더 자래워 거기에 찬란한 꽃을 피우고 훌륭한 열매를 맺게 하는 시기라고 말할수 있습니다.》(《우와 같은 책, 381페지)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7개년계획의 웅대한 전망과업은 우리 나라 사회경제발전의 합법칙적요구와 조국통일의

혁명위업을 앞당겨야 할 혁명정세의 요구를 가장 정확히 반영한것이였으며 우리 인민의 지향에 전적으로 부합되는것이였다.

7개년계획에서 가장 중심적인 과업으로 나서는것은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기술혁명을 전면적으로 실시하는것이다.

기술혁명은 착취에서 해방된 우리 인민들을 힘겨운 로동에서 해방하여 일은 헐하게 하면서도 더 많은 물질적부를 생산할수 있게 하며 인민들의 생활을 더욱 넉넉하고 문명하게 만드는 혁명과업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나라에서 5개년계획시기에는 기술혁명이 시작에 불과하였다면 사회주의건설이 새로운 더욱 높은 단계에 들어선 7개년계획시기에 와서는 기술혁명을 전면적으로 실시하여야 할 과업이 가장 기본적인 문제로 나서게 되였다고 교시하시였다.

7개년계획기간에 사회주의적공업화를 실현하며 인민경제 모든 분야에서 기술혁명을 전면적으로 실시해야만 우리 나라를 사회주의적 공업—농업국가로부터 현대적공업과 발전된 농촌경리를 가진 사회주의적공업국가로 만들수 있다.

기술혁명과 함께 문화혁명을 전면적으로 수행하는것은 7개년계획의 기본과업의 하나이다.

문화혁명은 근로자들의 지식수준과 문화기술수준을 높이며 그들의 생활을 문명하게 꾸리기 위한 중요한 혁명과업이다.

모든 근로자들의 기술문화수준을 높여야 우리 인민경제를 새로운 기술로 튼튼히 장비하고 그것을 잘 운영할수 있으며 그래야만 우리 나라를 문명하고 발전된 공업국가로 만들수 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인민경제의 전면적기술개건은 더 많은 과학, 기술 간부를 요구하며 근로자들의 높은 기술문화수준을 요구한다고 하시면서 문화혁명을 하지 않고는 기술혁명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없다고 말씀하시였다.

7개년계획은 또한 인민들의 모든 생활을 훨씬 더 높일것을 기본과업의 하나로 하고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인민생활을 높이는데 큰 힘을 돌려 7개년계획말에 가서 전체 인민의 생활을 모든 면에서 넉넉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사회주의공업화를 실현하고 기술혁명과 문화혁명을 전면적으로 실시하면 나라의 경제력은 더욱 강화되고 자립적민족경제는 더욱 튼튼해지며 우리 나라에는 다방면적으로 발전된 자립적민족경제의 체계가 서게 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자립적민족경제건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식화하시였다: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한다는것은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인민생활을 높이는데 필요한 중공업 및 경공업 제품들과 농업생산물을 기본적으로 국내에서 생산보장할수 있도록 경제를 다방면적으로 발전시키고 현대적기술로 장비하며 자체의 튼튼한 원료기지를 닦아 모든 부문들이 유기적으로 련결된 하나의 종합적인 경제체계를 이룬다는것을 의미합니다.》 (우와 같은 책, 398페지)

김일성동지께서는 7개년계획의 기본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이 기간을 상반기와 하반기의 두단계로 나누시고 해당시기의 과업을 다음과 같이 밝히시였다:

《…우리는 7개년계획의 상반기에 중공업의 골간에 살을 붙이고 그것을 더욱 효과적으로 리용하는 기초우에서 농촌경리와 경공업을 빨리 발전시키며 인민생활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데 힘을 기울일것이며 하반기에 가서는 중공업기지를 더 늘이고 그 기술장비를 개선하여 사회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를 결정적으로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면서 인민생활을 더 높이게 될것입니다.》(우와 같은 책, 382페지)

김일성동지께서는 7개년계획의 력사적과업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후 3개년계획과 5개년계획의 실천을 통하여 그 정당성이 확증된 중공업의 우선적장성을 보장하면서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키며 과학과 문화를 전면적으로 발전시키는 당의 로선을 견지하여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우리 당은 5개년계획기간에 축성된 공업화의 기초에 의거하여 7개년계획시기에는 공업생산의 구조를 더욱더 완비하고 그 기술적토대를 강화하여 우리 나라에 다방면적으로 발전되고 자체의 튼튼한 원료기지를 가진, 그리고 최신기술로 튼튼히 꾸려진 자립적공업체계를 세우며 짧은 기간에 급속히 발전한 우리 나라 중공업의 미비한 부문들과 부족점들을 보충하고 완비하는데 가장 큰 힘을 기울였다.

저작선집 3권에 들어있는 김일성동지의 로작들에는 대규모수력발전소들을 건설하는 동시에 화력발전소들의 건설을 병행하며 매장량이 많고 채굴조건이 좋은 탄광들에 투자를 집중하여 연료동력공업을 인민경제발전에 앞세우며 나라의 연료동력기지를 튼튼히 꾸릴데 대한 문제, 흑색야금공업과 유색야금공업을 발전시킬데 대한 문제, 화학비료와 농약, 섬유원료, 합성수지, 합성고무 같은 화학공업을 대대적으로 발전시킬데 대한 문제 등 중공업발전의 방향과 구체적과업들이 밝혀져있다.

이 시기에 우리 당이 중공업건설에서 큰 관심을 돌린것은 채취공업이다.

5개년계획이 성과적으로 수행되여 우리 나라의 채취공업은 현대적기술로 장비되고 그 규모도 상당한 정도로 커졌다. 그러나 채취공업은 인민경제의 높은 발전속도와 특히는 전면적기술개건의 과업과 관련하여 빨리 늘어나는 원료, 연료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부족하였다.

채취공업을 빨리 발전시키는데서 안주탄광에서 하신 김일성동지의 교시 《석탄공업을 빨리 발전시키기 위하여》는 강령적지침으로 되였으며 위대한 전환점으로 되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인민경제발전에서 석탄공업이 차지하는 위치와 역할을 강조하시고 지질탐사사업을 앞세우며 탄광들의 관리운영사업을 개선하며 탄광들에서 군대와 같은 강한 규률을 세우며 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밀고나갈것을 중요하게 교시하시었다.

이 교시가 있은 다음 우리의 탄광들에서는 대안의 사업체계가 더 잘 구현되고 혁명적규률이 서게 되였으며 기술혁신운동이 널리 벌어져 탄광들과 광산들의 전반적사업에서 일대혁신이 일어났으며 채취공업은 빠른 속도로 발전하게 되였다.

기계공업을 빨리 발전시키는것은 이 시기 우리앞에 나서는 가장 중요한 과업이였다.

기계공업은 중공업의 핵심이며 기술발전의 기초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7개년계획의 전기간은 인민경제 모든 부문의 전면적기술혁명의 시기입니다. 기계제작공업을 빨리 발전시켜 현대적기계설비들을 충분히 생산공급하지 않고는 한걸음도 나갈수 없습니다. 생산공정을 기계화하고 자동화하며 전기화와 화학화를 실현하는것과 같은 기술혁신의 모든 문제가 결국 기계제작공업의 발전에 달려있습니다.》(우와 같은 책, 115페지)

김일성동지께서는 기계제작공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지금 있는 기계공장들의 규모를 늘이며 그 기술장비를 강화하고 생산의 전문화와 협동화를 널리 실시하며 새로운 기계공업기지들을 창설할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이 방침이 관철된 결과 우리의 기계공업은 급속히 발전하였으며 인민경제의 전면적기술개건은 빠른 속도로 추진되게 되였다.

7개년계획시기에 중공업의 우선적장성에 기초하여 경공업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키는것은 우리 당과 인민 앞에 나서는 중요한 과업이였다.

경공업부문에서 풀어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는 생산물의 품종을 늘이고 그 질을 결정적으로 높이는것이였다.

우리 당은 실천에서 그 정당성이 확증된 대규모중앙공업과 중소규모지방공업을 병진시키는 방침을 견지하면서 대규모경공업공장들을 새로 많이 짓고 이미 있는 공장들을 개건확장하며 특히 지방공업의 수공업적기술을 현대적기술로

바꾸는데 힘을 기울이였다.

이리하여 우리의 경공업은 급속히 장성하는 인민소비품과 식료품에 대한 인민들의 다종다양한 수요를 더욱 원만히 보장할수 있게 되였다.

7개년계획기간에 농촌경리에서는 농업의 기계화를 실현하며 농업생산을 더욱 높이는것이 중심적인 과업으로 나섰다.

《군의 역할을 강화하며 지방공업과 농촌경리를 더욱 발전시켜 인민생활을 훨씬 높이자》, 《량강도 당조직들 앞에 나서는 과업》을 비롯한 여러 로작들에는 농촌기술혁명의 의의와 기본내용이 밝혀져있으며 벌방지대나 산간지대나 할것없이 모든 농촌들에서 기계화를 전면적으로 전개하여 농업생산을 높이기 위한 우리 당의 독창적인 방침들이 천명되여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의 방침은 명백합니다. 그것은 산을 낀 곳에서는 산을 잘 리용하고 바다를 낀 곳에서는 바다를 잘 리용하며 농작물의 배치, 기계화, 수리화, 전기화를 비롯한 모든 사업을 군의 실정에 맞게 하여 지방에 있는 좋은 조건들과 예비들을 최대한으로 동원하도록 하는것입니다.》(우와 같은 책, 338페지)

우리 당은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이 방침을 지침으로 하여 지대에 따라 뜨락또르, 자동차, 농기계들을 옳게 배합하여 배치하고 알곡을 위주로 하면서 공예작물, 축산업, 과수업, 잠업을 동시에 발전시키는 방침을 견지하면서 벌방지대와 함께 내륙고산지대, 북부랭한지대의 농업생산을 발전시켜 모든 농민들의 생활수준을 높이며 튼튼한 후방기지를 꾸리기 위한 사업에 큰 주의를 돌리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과수원조성사업을 전인민적운동으로 전개할데 대하여》에서 산이 많고 경지면적이 적은 우리 나라에서 산을 잘 리용하여 과수업을 발전시킨 북청군의 경험을 전국에 일반화할데 대하여 강조하시면서 과수원조성사업을 모든 협동농장, 기관, 기업소, 학교들에서 로동자, 사무원, 학생, 군무자들이 총동원되여 전인민적운동으로 전개할것을 중요하게 교시하시였다.

기술혁명이 전면적으로 수행되는 7개년계획기간에 들어와서 우리의 과학자, 기술자들 앞에는 사회주의건설의 각 분야에서 해결을 기다리는 수많은 과학기술적문제들을 풀어야 할 무거운 과업이 나서고있었다.

《기술혁명수행에서 과학자, 기술자들의 임무》를 비롯한 여러 문헌들에는 현시기 기술혁명수행에서 과학의 사명과 과학연구사업에서 주체를 철저히 세워야 할 필요성, 전면적기술혁명에서 과학자, 기술자들 앞에 나서는 구체적과업들이 뚜렷이 밝혀져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과학연구사업에서 기본은 우리 혁명의 요구에 맞게 주체적립장에서 과학기술을 발전시키는것이라고 하시면서 과학연구사업에서 주체가 서지 못하면 창발성과 재능이 발양될수 없고 나라의 부원을 자기 실정에 맞게 효과적으로 리용할수 없게 된다고 지적하시였다.

계속하여 과학자, 기술자들은 국내원료에 의거하는 자립적공업체계를 세우며 우리 나라에 없거나 모자라는 원료들을 풀기 위하여 힘쓰는 동시에 최신과학기술의 성과를 적극 받아들일것을 교시하시였다.

문화혁명을 힘있게 추진시키며 사회주의문화건설을 다그쳐 기술인재를 대대적으로 키워내고 근로자들의 전반적인 문화기술수준을 높이는것은 기술혁명을 촉진하며 나아가서는 7개년계획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중요한 담보이다.

우리 당은 학교를 실생활과 더욱 접근시키고 교육과 생산로동을 확고히 결합시켜 새세대를 당과 혁명에 충직하며 전면적으로 발전된 새인간으로 키워내는 한편 학업을 전문으로 하는 고등교육체계와 함께 생산에서 떨어지지 않고 학습할수 있는 여러 형태의 고등교육체계를 병행하여 발전시키는 방침을 견지하면서 로동계급속에서 리론과 실천

을 다 갖춘 유능한 일군들을 많이 키워내는데 큰 힘을 기울였다.

이리하여 우리 나라에서 전반적9년제기술의무교육이 완전히 실시되고 공장, 기업소들은 기술인재양성의 튼튼한 기지로 전변되게 되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기술혁명과 문화혁명을 전면적으로 전개하여 자립적민족경제건설을 다그치는 결정적담보를 천리마운동에서 찾으시고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천리마작업반운동을 확대강화하여 경제발전의 높은 속도를 계속 견지하도록 하시였다.

우리의 사회주의사회에서 경제발전의 높은 속도는 사회주의경제발전의 합법칙적요구일뿐아니라 뒤떨어진 처지에서 벗어나 빨리 나아가려는 우리 인민의 지향에도 완전히 부합되는것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7개년계획의 웅대한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는데서 모든 간부들과 근로자들이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발양하고 혁명적기풍을 세우는데 중요한 의의를 부여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혁명을 위하여 투쟁하는 공산주의자들인만큼 반드시 자력갱생의 정신을 가져야 합니다. 이 정신이 없으면 자기의 힘을 믿지 않게 되고 자기 나라의 내부원천을 동원하기 위하여 잘 노력하지도 않게 되며 따라서 혁명위업을 수행할수 없습니다.》(우와 같은 책, 397페지)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으로 사회주의경제건설을 다그치고 자립적민족경제의 토대를 더욱 튼튼히 다지는것은 자체의 힘으로 조선혁명의 종국적승리를 이룩하려는 혁명적립장이며 형제나라들과 완전한 평등 및 호혜의 원칙에서 경제문화적협조를 더욱 발전시키고 전체 사회주의진영의 위력을 강화하려는 국제주의적립장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자력갱생의 기치밑에 사회주의건설을 다그치기 위하여 사회주의건설의 무기인 국가기관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고 인민경제에 대한 지도와 관리를 개선하는데 신중한 관심을 돌리시면서 국가, 경제 기관들의 기구를 개편하고 공업과 농촌경리에 대한 새 관리체계를 창조하시였으며 일군들의 사업방법과 사업작풍을 개선하는 중대한 조치를 강구하시였다.

대안의 사업체계와 새로운 농업관리체계를 더욱 발전시킬데 대하여

사회주의건설에서 경제지도관리를 끊임없이 개선하고 완성하는것은 생산력발전을 다그치며 생산관계를 공고히 하고 상부구조를 강화하는데서 관건적의의를 가지는 문제의 하나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건설에서 리론실천적해답을 절실하게 요구하던 이 문제를 독창적으로 해결하심으로써 사회주의건설을 추진하고 사회주의제도를 더욱 공고히 하며 그 우월성을 전면적으로 발휘할수 있게 하시였다.

《대안의 사업체계를 더욱 발전시킬데 대하여》,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를 더욱 강화발전시킬데 대하여》를 비롯한 여러 로작들에는 맑스-레닌주의경제지도리론을 독창적으로 발전시킨 대안의 사업체계와 새로운 농업관리체계의 본질과 내용에 대한 과학적해답이 주어져있으며 그 우월성과 생활력이 명백히 론증되여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적생산관계의 유일적지배가 확립된 다음 발전하는 현실과 변천된 새환경에 맞게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을 경제지도관리분야에 구현하여 대안의 사업체계와 새 농업관리체계를 창조하심으로써 사회주의경제지도관리에서 혁명적전환을 가져오게 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대안체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대안의 사업체계는 그전의 사업체계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며 공산주의적기업관리의 요소를 많이 가지고있는 우월한 사업체계입니다. 이 새로운 사업체계는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적, 공산주의적 생활원칙을 훌륭히 구현하고있습니다. 이 사업체계에서는 웃사람이 아래사람을 도와주며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을 가르쳐주며 모든 사람들이 동지적으로 도와주고 모든 직장들이 서로 밀접히 협력하고 있습니다.》(우와 같은 책, 422페지)

새로운 사업체계는 김일성동지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개인에 의한 경제지도관리운영이 아니라 당위원회의 집체적지도밑에 집단에 의한 지도와 관리를 실현하며 우가 아래를 도와주며 서로 돕고 서로 협력하면서 지도와 대중을 확고히 결합시키며 정치사업을 앞세워 생산에서 군중의 자각성과 창발성을 최대한으로 발양시키며 대중을 경제지도관리에 널리 참가시키고있다.

대안체계의 위력은 단결과 협력의 위력이며 대중의 자각적열성과 창발성의 위력이며 당의 지도가 아래에 깊이 들어가는데서 나오는 위력이다.

경제에 대한 지도관리기구는 그에 알맞는 사업방법과 결합될 때에만 자기의 위력을 충분히 나타낼수 있다.

대안의 사업체계는 새로운 관리기구와 위대한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혁명적이며 공산주의적인 가장 우월한 사업체계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새 사업체계의 첫째가는 우점은 그것이 공장관리운영에서 집체성을 잘 보장하는데 있습니다.》(우와 같은 책, 424페지)

지난날의 사업체계에서는 지배인 한 사람이 공장에서의 모든 결정권과 생산에 대한 책임을 지고있었다면 새로운 사업체계에서는 집체적령도기관인 당위원회가 공장의 최고지도기관으로서 공장을 관리운영하고 생산에 대하여 책임지게 되여있으며 모든 당원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이 공장관리에 직접 참가하여 생산에 대해서 책임지게 되여있다.

당위원회의 집체적령도밑에 기업관리에 광범한 대중을 직접 참가시키며 생산에 대해서 그들이 책임지게 하는것은 생산자대중의 정치적자각과 생산에 대한 그들의 책임성을 비상히 높이며 생산자대중으로 하여금 자기에게 맡겨진 과제를 완수하기 위하여, 공장전체의 생산과 관리운영을 개선하기 위하여 몸바쳐 투쟁하게 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으로 새 사업체계가 가지는 우점은 그것이 공업을 계획적으로 운영하는데 가장 효과적이라는것입니다.》**(우와 같은 책, 426페지)라고 말씀하시였다.

계획은 생산을 지도하는 사람이 생산에 필요한 모든 요소들을 제일 잘 아는 생산자대중과 토의하여 과학적으로 세울 때에만 동원적이며 현실성있는 계획으로 될수 있으며 군중자신의 계획으로 될수 있다.

지난날의 사업체계에서는 계획을 군중과 토의하지 않고 책상머리에서 주관주의적으로 세우고 그것을 관료주의적으로 아래에 내려먹였다면 대안의 사업체계에서는 생산을 지도하는 사람이 생산을 가장 잘 아는 로동자들과 토의하고 그들의 창발적인 의견을 받아들여 계획을 세우고 계획적으로 생산을 지도하고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으로 대안의 사업체계의 우월성은 생산에 대한 기술적지도를 강화하며 생산을 종합적으로 지도하도록 되여있는것입니다.》**(우와 같은 책, 428페지)라고 말씀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생산과정이란 결국 기술공정인것만큼 생산은 반드시 기술적으로 지도해야 하며 기술을 잘 아는 사람이 생산과 직접 관련된 모든 사업을 종합적으로 지도해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낡은 사업체계에서는 생산과 관련된 여러 부서들이 서로 떨어져있었으며 생산을 종합적으로 지도하는 참모부가 없었고 따라서 생산을 계획하며 준비하며 지도하는 사업도 통일적으로 틀어쥐고

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대안의 사업체계에서는 생산활동을 종합적으로 지도할수 있는 공장참모부가 나와 생산활동을 통일적으로 지휘한다.

대안전기공장을 비롯한 전국의 모든 공장, 기업소들에서의 실천적경험은 기사장을 중심으로 하는 통일적참모부를 내온것이 생산지도를 원만히 보장하는데서 큰 우월성을 가지고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으로 새로운 사업체계는 생산을 보장하기 위하여 복무하는 부서들의 역할을 근본적으로 개선하였다고 말씀하시였다.

대안의 사업체계에서는 자재공급에서 전표나 떼주고 실질적으로 책임지지 않던 낡은 사업체계로부터 우에서 책임적으로 자재를 아래에 날라다주는 체계로 자재공급사업을 개편함으로써 직장장들이 자재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고 자기들의 본신사업에 열중할수 있게 되였다.

또한 대안의 사업체계에서는 로동자들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후방공급체계가 섰으며 후방공급에 참가하는 모든 기관들이 자기 지구안에 사는 로동자들의 생활을 완전히 책임지게 되여있다.

우리의 실천적경험은 김일성동지께서 창조하신 대안의 사업체계가 근로대중의 열성과 창발성을 발동시키고 생산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며 생산과 로동자들의 생활을 위한 공급사업을 보장하는데서 자기의 우월성을 충분히 나타내고있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대안의 사업체계를 더욱 발전시키고 그것을 모든 부문에 철저히 구현할데 대하여 강조하시면서 일군들이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으로 튼튼히 무장하도록 하며 공장에서 당의 령도적역할을 높이는데 계속 깊은 관심을 돌리며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양할것을 중요하게 교시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대안의 사업체계를 창조하신데 뒤이어 위대한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을 농촌의 현실과 새로운 환경에 맞게 농업부문에 전면적으로 구현하여 새로운 농업관리체계를 창조하심으로써 농촌경리의 지도와 관리에서 일대 전환을 일으키게 하시였다.

협동농장의 규모가 커지고 그 기술장비가 강화되여 농업생산이 공업생산과 마찬가지로 기술공정으로 바뀌여지고 농촌기술혁명이 긴급한 당면과업으로 나서게 된 농촌의 현실과 새로운 조건은 낡은 행정적지도체계대신에 그에 맞는 새로운 지도체계를 요구하게 되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농촌경리발전의 성숙된 요구를 제때에 포착하시고 전문적인 농업지도기관으로서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와 도농촌경리위원회를 내오고 농업성을 농업위원회로 개편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의 첫째가는 우월성은 경영위원회가 농촌경리를 기업적방법으로 지도하는데 있습니다.》 (우와 같은 책, 438페지) 라고 교시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기술적으로 발전된 대규모의 농촌경리는 기업적방법으로만 관리운영할수 있다고 하시면서 기업적방법은 계획을 세우는것으로부터 시작하여 생산조직, 기술발전, 자재의 보장, 로동력의 배치와 조직, 기업소의 재정활동 같은 모든 기업활동을 직접 틀어쥐고 조직하며 구체적으로 지도한다는것을 의미한다고 말씀하시였다.

협동농장의 규모가 커지고 농촌사업의 범위가 확대되였으며 현대적기술수단들과 물, 전기, 화학비료, 농약 등이 널리 도입되여 농업생산은 하나의 복잡한 기술공정으로 바뀌여졌다. 이러한 발전된 대규모 사회주의농촌경리는 농업생산의 진행정을 과학기술적으로 지도할수 있는 기술력량과 농업생산을 물질기술적으로 보장할수 있는 수단을 통일적으로 틀어쥔 전문적인 농업지도기관의 기업적방법에 의해서만 원만히 지도할수 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농업생산을 과학기술적으로 지도할수 있는 기술력량과 그

것을 물질기술적으로 보장할수 있는 수단들을 가진 군을 농촌경리에 대한 기업적지도의 단위로 설정하고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가 협동농장들을 기업적방법으로 지도하는 사업체계를 내오시였다.

우리의 경험은 군을 단위로 하여 협동농장들을 기업적방법으로 지도하는것이 우리 나라 실정에서 가장 합리적이라는것을 보여주고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다음으로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의 우월성은 그것이 전인민적소유와 협동적소유를 유기적으로 결합시키고 협동경리에 대한 국가적지도와 방조를 강화한다는데 있습니다.》 (우와 같은 책, 441페지)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는 농기계작업소, 농기구공장, 관개관리소, 가축방역소와 같은 농촌경리에 복무하는 모든 국가기업소들과 기술설비들, 기술력량들을 통일적으로 틀어쥐고 협동농장들을 기업적방법으로 지도함으로써 국가적소유와 협동적소유를 유기적으로 결합시키며 협동경리에 대한 국가의 기술경제적방조를 강화한다.

새로운 농업관리체계는 사회주의적협동경리의 앞날의 발전전망에도 완전히 부합된다.

공산주의에로 가기 위해서는 나라의 경제가 전인민적소유형태로 되여야 하는것만큼 협동적소유에 대한 전인민적소유의 지도적역할을 끊임없이 높이면서 협동적소유를 더욱더 전인민적소유에 접근시켜야 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의 조직은 협동적소유에 대한 국가적소유의 지도적역할을 강화하고 이 두 소유형태의 련계를 더욱 밀접하게 하여 협동적소유를 전인민적소유에로 끊임없이 접근시키는 가장 합리적인 방도로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앞으로 기계화와 화학화가 더욱 진척되면 공업로동과 농업로동간의 차이, 도시와 농촌간의 차이는 더 줄어들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농업부문에서 새로운 농업관리체계가 선 결과 지난날과 같은 행정적방법으로가 아니라 기업적방법으로 농촌경리를 더욱 효과적으로 지도할수 있게 되였으며 농업생산력의 발전과 특히 농촌기술혁명을 더욱 힘있게 밀고나갈수 있게 되였다.

김일성동지께서 창조하신 새로운 농업관리체계는 우리 나라 농촌에서 위대한 생활력을 발휘하고있으며 날을 따라 그 위력은 더욱 커가고있다.

사회주의건설에서 군의 역할을 강화할데 대하여

우리 나라의 사회주의건설에서 군은 실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있으며 커다란 역할을 하고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군의 역할을 강화하며 지방공업과 농촌경리를 더욱 발전시켜 인민생활을 훨씬 높이자》,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를 더욱 강화발전시킬데 대하여》를 비롯한 여러 로작들에서 사회주의농촌문제해결에서 지역적거점문제를 밝히시고 우리 나라 사회주의건설에서 군의 위치와 역할을 리론실천적으로 명확히 해명하여주시였다.

농업협동화가 승리한 다음에도 농촌문제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로 남아있게 되며 그것은 도시와 농촌간의 차이, 로동계급과 농민간의 계급적차이를 없애야만 종국적으로 해결된다.

사회주의건설에서 농촌문제는 가장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의 하나이다.

이 어렵고 복잡한 문제를 옳게 해결하는데서 일정한 지역을 통일적지도의 단위로 설정하고 그것을 거점으로 하여 해당지역내의 모든 대상들을 직접 지도하게 하는것은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이러한 지도단위는 그 크기가 알

맞춤하여야 하며 그 단위의 범위에서는 자연지리적조건을 비롯한 다른 조건들에서 큰 차이가 없어야 하며 해당단위의 모든 사업을 능히 통일적으로, 종합적으로 지도할수 있는 간부들과 지도기관들, 물질기술적, 문화적 수단들을 기본적으로 갖추고있어야 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나라의 군은 그 크기에서나 간부들과 지도기관들, 물질기술적, 문화적 수단들을 갖추고있는 점에서 이러한 단위로서 가장 적절하다고 지적하시였다.

군은 농촌과 로동자구를 직접 지도하며 농민들과 로동자구주민들의 살림에 직접 접근하고있는 말단지도단위이다.

당과 행정의 말단지도단위로서의 군에는 이러한 지역의 모든 대상들을 책임적으로 지도방조할수 있는 기관들과 간부들이 꾸려져있다. 군기관들과 군일군들은 농촌과 로동자구에 내려가 근로자들과 접촉하며 모든 사업을 현지에서 조직하고 집행한다.

그렇기때문에 농촌과 로동자구의 발전도, 로동자들과 농민들의 생활문제도 군의 역할에 의하여 크게 좌우되게 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군은 리와 로동자구를 지도하는 행정적인 말단 조직일뿐만아니라 정치, 경제, 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도시와 농촌을 련결시키는 거점입니다. 모든 농민들이 큰 도시에 다 가보지는 못하지만 군소재지까지는 와보게 됩니다. 농민들은 군을 거쳐서 당정책을 받아들이며 군을 거쳐서 도시와의 경제적련계를 맺고 도시의 문화와 생활풍습을 배웁니다.》(우와 같은 책, 333~334페지)

그러므로 군이 자기 사업을 잘해야 군의 정치, 경제, 문화가 빨리 발전하게 되며 군소재지를 잘 꾸려야 농촌이 이를 따라가게 된다.

군은 무엇보다도 먼저 당정책의 집행을 직접 조직하고 지도하는 말단단위로서 당의 정책을 농촌에 침투시키는 정치적거점이다.

군이 정치적거점으로 되는것은 당중앙의 로선과 정책도, 그에 따라세워지는 도의 방침들도 다 군을 거쳐 농촌과 로동자구에 내려가며 당정책집행에로 농민들과 로동자구주민들을 동원하는것도 군이 직접 조직하고 지도하기때문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군당위원회는 농촌경리를 비롯하여 군의 모든 사업을 직접 책임지고 조직지도하며 집행하는 말단기관인것만큼 군당위원회가 집체적지도기관으로서, 군의 참모부로서 군사업의 모든 전선들, 모든 부문들을 다 틀어쥐고 당정책을 잘 침투시키고 조직사업을 잘하고 간부들이 앞장에서 나가면 모든 문제는 풀린다고 말씀하시였다.

군은 도시와 농촌을 련결시키는 정치적거점일뿐아니라 지방경제를 발전시키는 경제적거점이며 농촌에 대한 공급기지이다.

지방공업도 군을 단위로 하여 발전하며 농촌경리의 발전도 군이 직접 조직하고 지도한다. 그리고 농촌에서 나는 생산물은 군을 거쳐서 도시에 나가며 도시에서 생산되는 모든 공업제품은 군을 거쳐서 농촌에 공급된다.

군이 자기의 실정에 맞게 지방에 있는 좋은 조건과 예비를 최대한으로 동원하여 지방공업을 발전시키고 농촌경리를 옳게 지도하면 지방공업을 비롯하여 농촌경리, 상업 같은 지방의 경제가 종합적으로 발전하게 되며 이에 따라 군은 농촌에 대한 공급기지로서의 자기의 역할을 더 잘하게 될것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농촌마을들이 널려있기때문에 앞으로 공산주의사회가 실현된다 하더라도 모든 농촌리에 공급기지를 둘수 없을것이라고 하시면서 우리 나라에서는 공산주의에 들어가서도 군이 도시와 농촌을 련결시키는 경제적거점으로, 농촌에 대한 공급기지로 남아있게 될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군은 또한 농촌문화혁명의 기지이며 농촌에서 낡은 잔재와 뒤떨어진 생활풍습을 없애고 농민들의 사상의식과 생활풍습을 개변하며 농촌에 선진적인 사회주의

문화를 들여보내는 문화적거점이다.

군이 농촌문화혁명의 거점으로 되는것은 농촌문화혁명수행에 필요한 수단들을 갖추고있으며 그것을 통하여 군의 전반적인 교육문화보건사업을 조직하고 지도하고있기때문이다.

군에 있는 교원집단과 보건, 문화 일군들은 농촌문화혁명의 선구자적역할을 수행하고있으며 군을 통하여 농민들속에서 군중문화사업이 조직지도되고 도시의 문화가 농촌에 들어간다.

창성군이나 삭주군의 실천적경험은 군당위원회를 비롯하여 군인민위원회,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 군교육문화기관 일군들이 일을 잘하면 군의 지방공업이 발전하고 농업생산이 늘어나 인민들이 다 잘 살게 되며 기술혁명과 문화혁명이 성과적으로 수행되여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더 빨리 건설할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군사업을 강화하고 군소재지를 잘 꾸리는것은 사회주의건설을 다그칠뿐만아니라 나아가서는 도시와 농촌의 차이를 점차적으로 없애고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는데서도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 그렇기때문에 군을 잘 꾸리는것은 결코 일시적인 단순한 사업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할 때까지 계속 힘을 기울여야 할 중요한 사업입니다.》(우와 같은 책, 335페지)

군의 역할을 강화할데 대한 김일성동지의 교시가 관철된 결과 우리 나라의 군들은 농촌과 로동자구의 모든 사업을 직접 틀어쥐고 통일적으로, 종합적으로 지도하는 당 및 행정의 말단지도단위로 튼튼히 꾸려졌을뿐아니라 정치, 경제, 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도시와 농촌을 련결시키는 거점으로서 농촌에서의 사상혁명, 문화혁명, 기술혁명을 힘있게 밀어주고있다.

당사업을 개선강화하며 모든 사람들을 교양하고 개조하여 당주위에 튼튼히 단결시킬데 대하여

당을 강화하고 광범한 대중을 당주위에 튼튼히 묶어세우며 그들을 혁명과업수행에로 옳게 조직동원하는것은 우리 혁명승리의 결정적담보이다.

《당사업에서 주되는것은 모든 사람을 교양하고 개조하며 단결시키는것이다》, 《조선로동당 제4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 《석탄공업을 빨리 발전시키기 위하여》, 《농업부문일군들은 혁명가적기풍을 가지며 농촌경리지도사업을 더욱 개선하여야 한다》, 《당 조직사업과 사상사업을 개선강화할데 대하여》, 《량강도 당조직들앞에 나서는 과업》을 비롯한 여러 로작들에는 맑스-레닌주의당건설에 관한 김일성동지의 독창적인 사상이 전면적으로 전개되여 있으며 혁명의 참모부인 당을 강화하고 당사업체계와 사업방법을 개선하며 일군들의 사업작풍을 바로잡기 위한 방도와 과업들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여있다.

력사적인 우리 당 제4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에서 김일성동지께서는 지난 시기 우리 당 사업에서 거둔 성과와 경험들을 전면적으로 총화하시고 당을 계속 조직사상적으로 강화하며 그 령도적역할을 높일데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간부들과 당원들의 당생활을 강화하고 그들의 사업수준을 높이며 당세포들을 더욱 강화하고 각급 당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과업을 주시였다.

맑스-레닌주의당의 힘의 원천은 당의 유일사상에 기초한 그 대렬의 강철같은 통일단결에 있으며 그것은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수행에서 승리의 확고한 담보이다.

당의 강철같은 통일단결은 오직 전당에 유일사상체계를 세우고 당대렬을 조직사상적으로 강화할 때에만 보장될수 있다.

당의 통일단결을 눈동자와 같이 고수하기 위해서는 수정주의를 비롯한 온갖 반동적부르죠아사상과 종파주의, 지방주의, 가족주의를 뿌리빼는 사상투쟁을 강력히 전개하며 전당에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확고히 세우기 위한 투쟁을 계속 강화하여야 한다.

유일사상에 기초한 당의 통일과 단결을 확고히 보장하면서 발전하는 현실에 맞게 당사업을 끊임없이 개선강화하는것은 맑스-레닌주의당발전의 합법칙적요구일뿐아니라 우리 혁명정세발전의 절박한 요구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당중앙위원회 제4기 제3차전원회의확대회의에서 한 결론 《당 조직사업과 사상사업을 개선강화할데 대하여》에서 당사업의 본질과 내용을 밝히시고 새환경에 맞게 당사업체계와 사업방법을 더욱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방도를 가르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당사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식화하시였다:

《…당사업이란 당을 튼튼히 꾸리고 공고히 하며 당을 끊임없이 장성발전시키며 당조직들을 옳게 발동시켜 맑스-레닌주의적정당으로서의 전투적기능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당대렬을 튼튼히 꾸리고 그 전투적기능을 충분히 발휘하게 하는것이 당사업입니다.》(우와 같은 책, 291페지)

당의 전투력과 령도적역할을 높이고 당조직정치사업을 개선하는데서 중요하게 나서는것은 각급 당위원회들과 당조직들이 당사업에 힘을 기울일수 있도록 자기의 사업체계를 철저히 세우는것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각급 당위원회들과 당조직들이 당내부사업을 기본으로 하는 사업체계를 확립하며 당기관들의 모든 부서들이 자기의 본신임무를 원만히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당조직부, 선전선동부, 경제부서들의 위치와 임무를 정확히 규정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직부는 당대렬을 끊임없이 정비하고 공고히 하는 대렬부이며 당생활을 강화하는 당생활지도부라고 하시면서 조직부사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조직부는 당원들의 당생활을 강화하고 당원들과 간부들을 혁명과업수행을 위한 실천적투쟁을 통하여 끊임없이 단련하여 그들을 어떠한 바람이 불어도 동요없이 당과 혁명을 위하여 견결히 싸우는 참다운 혁명투사로 키워야 합니다.》(우와 같은 책, 299페지)

김일성동지께서는 선전선동부의 기본사업은 당원들을 맑스-레닌주의사상과 리론으로 교양하며 당정책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는것이라고 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선전선동부는 간부들과 당원들을 맑스-레닌주의적으로 사물을 분석하고 문제를 풀수 있도록 교양하여야 하며 그들을 언제 어떠한 풍파속에서도 당의 임무를 어김없이 관철하는 견결한 혁명가로 키워내야 합니다. 이것이 선전부의 가장 중요한 임무입니다.》(우와 같은 책, 305페지)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직부와 선전부의 호상관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시였다:

《만약 당위원장이나 조직부장이 당원들가운데서 병에 걸린 사람을 골라내고 진단을 내리는 의사와 같다고 하면 선전부는 병난 사람에게 약을 만들어주는 약제사와 같다고 말할수 있습니다.》(우와 같은 책, 303페지)

당조직부와 선전선동부가 이렇게 사업할 때 당조직은 늘 생기발랄하게 움직이는 건전한 유기체로 강화될수 있다.

경제부서들은 자기 부문내 간부들과의 사업을 위주로 하면서 경제일군들이 당정책을 정확히 인식하고 관철하도록 그들을 발동시키며 그들의 사업을 지도통제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경제에 대한 지도사업은 행정식, 명령식, 호령식으로가 아니라 조직적이고 구체적이고 동원적이여야 하며 당적인 방법으로 즉 간부들과 당원들, 당위원회와 당세포들을 움직여 사업을 보장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당사업에서 기본은 사람들과의 사업이다.

사람과의 사업을 잘할 때 혁명과업의 모든 문제는 원만히 풀릴수 있다.

사람과의 사업에서 첫째가는것은 당

의 기본핵심력량이며 혁명과업수행에서의 지휘성원들인 간부들과의 사업이다.

《석탄공업을 빨리 발전시키기 위하여》, 《량강도 당조직들앞에 나서는 과업》을 비롯한 여러 로작들에서 김일성동지께서는 간부들과의 사업이 가지는 중요성을 강조하시면서 간부대렬을 당성이 강하고 유능한 일군들로써 튼튼히 꾸리고 그들을 체계적으로 교양하며 그들을 아끼고 사랑하며 일상 사업을 통하여 그들의 지도수준을 높이도록 지도방조하여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당이 혁명적이며 전투적인 조직으로 되게 하는데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당원들과의 사업을 강화하여 그들의 선봉적역할을 높이는것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은 로동계급의 선진분자들로 구성된 조직입니다. 그러므로 당이 건전하기 위하여서는 당을 구성하고있는 매 당원들이 건전해야 하며 당원들이 다 당의 조직원칙에 따라 움직이도록 하는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당원들이 당의 조직적원칙에 따라 다 잘 움직이게 될 때 당은 강유력한 불패의 당으로 되며 자기앞에 나선 혁명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습니다.》(우와 같은 책, 291페지)

각급 당위원회들과 당조직들은 무엇보다도 먼저 당원들이 당규약상 의무를 일상 사업과 생활에서 철저히 실천하도록 그들의 당조직생활을 옳게 지도하는것이 중요하다.

당조직생활이란 당원들이 당에서 주는 임무를 수행하는 활동을 말하며 그것은 당원들의 정치생활이며 혁명활동이다. 당원들은 당조직생활을 통하여 당적훈련과 교양을 받음으로써 당성을 단련하고 혁명적수양을 높이며 선봉투사의 자질을 가질수 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당원들의 당조직생활을 강화하고 그들의 선봉적역할을 높이는데서 당적분공이 가지는 의의를 밝히시면서 모든 당원들에게 일상적으로 당적분공을 주어 그들이 당사업과 혁명과업수행에서 늘 움직이도록 하며 당원들속에서 비판과 자기비판을 강화하고 당원들이 자기의 당생활을 정상적으로 총화하도록 함으로써 그들의 당생활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군중과의 사업을 강화하여 군중자신이 당의 령도밑에 혁명과 건설 사업에 자각적으로 동원되게 하는것은 사회주의건설을 촉진하고 혁명기지를 강화하는데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당사업에서 주되는것은 모든 사람을 교양하고 개조하며 단결시키는것이다》를 비롯한 여러 로작들에서 김일성동지께서는 군중과의 사업이 가지는 의의를 강조하시면서 모든 군중을 당주위에 굳게 단결시키는데서 우리가 견지해야 할 원칙과 과업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모든 사람을 교양개조하는것은 심각한 계급투쟁이며 그 성과는 무엇과도 바꿀수 없는 귀중한것이며 쌀 몇백만톤을 얻는것보다 더 중요한것이다. 전체 당조직들과 당원들이 동원되여 모든 군중을 교양개조하여야만 한줌도 못되는 원쑤들을 철저히 고립시키고 전체 인민대중을 당주위에 굳게 묶어세울수 있으며 조국통일의 대사변을 주동적으로 맞이할수 있다.

군중을 교양개조하는 사업에서 사회정치생활의 경위가 복잡한 군중들과의 사업은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제식민지통치와 미제에 의한 나라의 분렬, 조국해방전쟁시기에 있은 적들의 리간책동으로 인하여 주민들의 사회정치적구성에서 복잡성이 생겼다고 하시면서 사회정치생

활의 경위가 복잡한 군중에 대해서는 어디까지나 본인의 현재의 동향을 기본으로 하여 평가하며 계급적견지에서 원쑤와 우리 편을 가려내고 투쟁대상과 단결해야 할 대상을 정확히 규정함으로써 계급로선과 군중로선을 철저히 관철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계속하여 김일성동지께서는 조국통일의 위업을 앞에 두고 의식적인 반동분자가 아닌 이상 모든 사람을 적극적으로 달라붙어 교양하고 절대다수의 광범한 군중을 전취하여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당의 령도적역할을 강화하며 인민대중의 정치적열성을 높이기 위하여서는 당을 강화하고 당사업체계를 확립하는 동시에 일군들의 사업방법과 작풍을 끊임없이 개선하여야 한다.

《농업부문일군들은 혁명가적기풍을 가지며 농촌경리지도사업을 더욱 개선하여야 한다》를 비롯한 여러 로작들에서 김일성동지께서는 모든 일군들이 자본주의사회에서 물려받은 낡은 사상잔재의 표현인 관료주의적이며 형식주의적인 사업작풍, 사업에서의 무책임성, 허풍, 공명심, 보수주의, 경험주의 등을 철저히 없애고 혁명적사업방법과 인민적사업작풍을 가지며 공산주의적인 혁명가적 사업기풍을 세울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가적기풍이란 어떤것인가를 밝히시면서 공산주의적인 혁명가적기풍의 첫째가는 특징은 당정책을 옹호하고 그것을 끝까지 관철하기 위하여 견결히 투쟁하는것이라고 가르치시였다.

당의 로선과 정책은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의 구현이며 우리 인민의 행복과 조국의 번영을 위한 방침이다. 그러므로 김일성동지의 교시와 당정책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그것을 끝까지 관철하는것은 혁명가의 가장 중요한 표징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공산주의적인 혁명가적기풍은 또한 지도일군들이 늘 군중속에 들어가며 현실에 침투하는데서 나타나야 한다고 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진실로 군중속에 들어간다는것은 모든 일을 군중과 의논하며 군중을 가르쳐주고 군중에게서 배우며 뒤떨어진 사람을 선진적인 사람의 수준에 끌어올리며 군중의 모든 힘을 혁명과업수행에로 조직동원하는것을 의미합니다. 진실로 현실에 접근한다는것은 땅, 농기계, 축력, 비료, 종자 등 모든 생산수단들을 자기 눈으로 직접 보고 구체적으로 타산하며 현실에 맞게 옳은 방침을 세우며 현장에서 걸리고있는 문제들을 직접 풀어주는것을 의미합니다.》(우와 같은 책, 268페지)

다음으로 공산주의적인 혁명가적기풍은 지도일군들이 모든 일에서 늘 대중의 앞장에 서서 대중에게 모범을 보여주며, 어떤 난관에도 굴하지 않는 불요불굴의 투쟁정신을 가지며, 늘 자기 사업을 검토하고 제때에 총화하는 사업기풍을 가지는데서 나타나야 한다.

당을 공고화하고 당사업을 개선할데 대한 김일성동지의 강령적교시를 관철하기 위한 줄기찬 투쟁을 통하여 당사업은 더 높은 수준으로 발전하였다. 당대열은 강철같이 통일단결되고 전당에 유일사상체계가 더욱 튼튼히 세워졌다.

당내에서는 사람과의 사업을 기본으로 하는 혁명적사업체계와 사업방법이 확립됨으로써 당의 전투적기능과 령도적역할이 결정적으로 높아졌으며 모든 군중이 당주위에 더욱 굳게 뭉치게 되였다.

새세대들을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후비대로, 우리 혁명위업의 믿음직한 계승자로 키울데 대하여

혁명이 승리한 나라들에서 자라나는 새세대들을 어떻게 키우는가 하는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과 국제공산주의운동발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청소년교양에서 교육일군들의 임무에 대하여》, 《자녀교양에서 어머니들의 임무》, 《조선로동당 제4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 《우리의 인민군대는 로동계급의 군대, 혁명의 군대이다. 계급적정치교양사업을 계속 강화하여야 한다》를 비롯한 많은 로작들에는 우리 근로자들과 특히는 자라나는 새세대들을 열렬한 혁명가로, 전면적으로 발전된 새형의 인간으로 키우기 위한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사상과 그 실현을 위한 명확한 방침과 방도들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여있다.

로동계급과 그 당은 정권을 쥐고 사회주의제도를 세우는것과 함께 사람들의 사상의식의 령역에서까지 자본주의를 종국적으로 없애고 그들을 공산주의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다그쳐야 할 중대한 력사적사명을 지니고있다.

더우기 우리 나라의 현실과 전반적국제정세에 비추어볼 때 과거 착취사회에서 살아보지 못한 새세대들이 점차 우리 사회의 주인으로 등장하고있으며 국제적으로 수정주의가 대두하여 세계혁명운동발전에 막대한 해독을 끼치고있는 조건에서 근로자들, 특히는 새세대들을 계급의식과 공산주의사상으로 교양하는것은 그 어느때보다도 절실한 문제로 나서고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의 혁명은 끝나지 않았으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아직 많습니다. 우리는 자기 세대에 혁명위업을 완수하지 못하면 그것을 우리 후대들에게 물려주어 그들의 대에 가서라도 완성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일 젊은 세대들이 적을 잊어버리고 투쟁하기를 싫어하며 안일한것만 좋아하게 된다면 그들은 우리의 혁명위업을 계승하지 못할뿐만아니라 우리가 이루어놓은 업적마저 잃어버릴수 있습니다.》(우와 같은 책, 467페지)

오늘 우리 당과 인민 앞에는 남조선에서 미제침략자들을 몰아내고 민족해방혁명을 완수하며 전국적으로 사회주의혁명을 수행하여야 할 어려운 혁명과업이 나서고있다. 이런 조건에서 지난날 지주, 자본가의 착취와 억압을 받아보지 못한 새세대들을 교양하지 않고 내버려둔다면 그들은 안락한 생활에 물젖어 편안하게만 살것을 바라며 곤난을 무릅쓰고 혁명을 끝까지 수행하려는 강의한 투지를 잃어버리고 말것이다. 또한 지난날 고생을 겪은 로동자, 농민 출신이라 하더라도 계급교양을 받지 않고 안락한 생활을 오래 하게 되면 압박받고 천대받던 지난날의 처지를 잊어버리고 점차 안일해이하여지며 계급의식이 마비되고말것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새세대들과 근로자들에 대한 계급교양은 비단 우리 나라와 같이 미제에 의하여 분렬되여있는 나라들에서뿐아니라 혁명이 승리한 사회주의나라들에서도 공통적으로 나서는 중요한 문제라고 지적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근로자들, 특히 새세대들에 대한 계급교양문제는 비단 조선의 공산주의자들에게만 나서는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세계공산주의자들에게 공통적으로 나서는 문제입니다. 국토의 한부분에서만 혁명이 승리하고 전국적으로 승리하지 못한 나라들에서의 계급교양문제와 세계혁명이 완수되지 못하고 제국주의가 남아있는 조건에서 혁명이 먼저 승리한 사회주

의나라들에서의 계급교양문제는 현시기 국제공산주의운동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로 되고 있습니다.》(우와 같은 책, 468페지)

사회주의제도가 승리하고 적대계급이 청산되였으며 생활이 높아졌다고 하여 새세대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계급교양을 그만둔다면 그들은 점차 안일하여지고 사상적으로 타락하여 제국주의도 증오하지 않게 되고 혁명을 끝까지 수행하려고도 하지 않게 될것이며 나아가서는 남이야 압박을 받건 착취를 받건 상관할것없이 자기들만 잘 살자는 부르죠아민족주의와 수정주의의 진흙탕속에 굴러떨어질수 있다. 수정주의가 들이간 곳에서는 사람들이 점차 사회주의조국에 대한 사랑과 긍지감도 잊어버리고 오직 개인리기주의와 황금만능의 부르죠아사상에 물젖게 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이 로작들에서 계급교양을 기본으로 하는 공산주의교양을 새세대들을 교양육성하기 위한 우리 당의 방침으로 규정하시고 계급교양의 본질과 그의 목적, 기본내용을 전면적으로 밝히시였다.

계급교양사업은 사람들을 로동계급의 사상으로 무장시키는 사상교양사업이며 그 기본목적은 근로자들의 계급의식을 높여 그들이 계급적원쑤들과 비타협적으로 싸우며 자기의 계급적리익을 고수하기 위하여 견결히 싸우게 하는데 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계급교양의 기본내용에서 첫째로 중요한것은 근로자들속에서 제국주의 특히 미제국주의와 일본제국주의를 미워하는 사상을 키우는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제국주의가 우리의 첫째가는 투쟁대상이며 제국주의의 침략적본성과 지주, 자본가들의 착취적본성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것을 근로자들과 새세대들에게 똑똑히 인식시킴으로써 우리 세대뿐아니라 우리의 후손들까지도 제국주의의 침략적본성을 잊지 않고 원쑤를 반대하여 끝까지 싸우도록 그들을 교양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으로 계급교양에서 아주 중요한것은 새세대들과 근로자들에게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철저히 인식시키는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우리의 사회주의제도는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시고 일찌기 혁명투쟁의 길에 나서신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40여년간 오직 우리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하여오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마련하여주신 혁명의 고귀한 전취물이다. 그러므로 전체 근로자들과 새세대들에게 이것을 똑똑히 인식시켜 그들로 하여금 우리의 사회주의제도를 무한히 사랑하고 그것을 목숨으로 수호하며 우리 제도의 공고발전을 위하여 몸바쳐 싸우도록 교양하는것은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제도를 옹호하는 투쟁은 자본주의제도를 지지하는 계급을 반대하는 투쟁이며 이것은 곧 사상분야에서의 심각한 계급투쟁으로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자본주의제도를 옹호하는 부르죠아사상과 수정주의를 비롯한 온갖 기회주의사상을 반대하기 위하여 새세대들을 우리 당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며 자본주의제도의 부패성을 날날이 폭로하고 남북의 두현실을 대비하여 교양함으로써 그들에게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철저히 인식시켜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으로 계급교양에서 중요한것은 새세대들과 근로자들을 사회주의적애국주의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켜 그들로 하여금 자기의 계급과 인민을 사랑하며 자기의 당과 조국을 열렬히 사랑하는 로동계급의 고상한 품성을 가지도록 교양하는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사회주의적애국주의교양에서 특별히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것은 새세대들과 근로자들에게 민족적자부심과 민족적자주성, 특히 정치적자주성과 경제적자주성으로 교양하며 혁명에 대한 자부심, 사회주의에 대한 자부심을 길러주는것이다.

새세대들과 근로자들을 민족적자부심과 민족적자주성으로 교양하고 그들에게 혁명을 하며 사회주의를 건설한다는 자부심을 키워주어야 사대주의와 교조주의, 대국주의를 견결히 반대하고 혁명과 건설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자기 나라 실정에 맞게, 자체의 힘으로 해결할수 있으며 혁명투쟁에서 민족적 및 국제적 의무도 다할수 있다.

계급교양에서 또한 중요한것은 새세대들과 근로자들을 혁명승리에 대한 신심과 미래를 사랑하는 정신으로 교양하는것이다.

혁명이 간고하고 오래 갈수록 새세대들을 혁명승리에 대한 확고한 신심과 미래를 사랑하는 정신으로 교양하는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운명과 관련되는 심중한 문제이다. 새세대들이 혁명에 권태증을 느끼고 동요하게 되면 아무리 정당한 혁명위업도 계승되여나갈수 없으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승리를 보장할수 없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새세대들에게 제국주의와 온갖 반동세력이 멸망하고 사회주의가 승리하는것은 력사발전의 법칙이라는것을 철저히 깨우쳐주고 모두가 혁명승리를 위하여, 보다 더 훌륭한 래일을 위하여 끝까지 투쟁하며 끊임없이 전진하게 하여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이 로작들에서 공산주의도덕교양에 관한 문제들을 전면적으로 전개하시였다.

공산주의도덕교양에서 중요한것은 새세대들과 근로자들을 로동을 사랑하는 정신으로 교양하며, 개인주의와 리기주의를 배격하고 나라와 사회의 공동리익을 귀중히 여기며, 서로 돕고 이끌어주는 집단주의정신으로 교양하는것이다.

사회주의사회에서는 물론 개인주의나 리기주의와 같은 낡은 사상잔재가 생겨날 사회경제적근원이 없지만 새세대들속에서 공산주의도덕교양을 하지 않고 내버려두면 외부로부터 침습하는 부르죠아반동사상과 수천년동안 물려내려오는 낡은 생활인습의 영향때문에 그들이 부르죠아적개인리기주의자로, 로동을 싫어하는 건달로 굴러떨어질수 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새세대들과 근로자들을 로동계급의 혁명사상으로 무장시키는 사업은 반드시 당정책교양 및 혁명전통교양과 밀접히 결부시켜 진행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자기 당의 정책과 혁명전통으로 튼튼히 무장할 때 어떠한 난관과 시련 속에서도 주체성을 잃지 않고 자기의 혁명적립장을 지킬수 있으며 혁명투쟁을 계속 견결히 전개할수 있습니다. 당정책과 혁명전통으로 무장한 사람에게는 수정주의도 교조주의도 사대주의도 절대로 달라붙을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이래야 당적사상체계가 확고하게 선 진정한 조선의 혁명가라고 말할수 있습니다.》(우와 같은 책, 492페지)

계속하여 김일성동지께서는 일하며 배우며 생활하는 단위를 거점으로 하여 실지 생활과 결부된 산자료를 가지고 교양하는 방법, 긍정적모범으로 대중을 감화하고 핵심대렬을 부단히 확대하여 나가는 방법 등으로 교양사업을 실속있게 진행할데 대하여 가르치시였다.

자라나는 새세대들을 불굴의 혁명가로 키우는데서 가정교육과 학교교육은 실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사회의 세포인 가정들과 국가의 문화교양자적기능을 맡고있는 학교들, 교육일군들과 어머니들의 임무는 새세대들을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의 믿음직한 건설자로, 전면적으로 발전된 공산주의자로 교양육성하는

것이라고 교시하시였다.

교육일군들과 어머니들이 당과 혁명이 맡긴 이 영예로운 과업을 다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교육교양자인 그들자신이 공산주의사상과 혁명가적도덕품성을 가진 훌륭한 공산주의자가 되고 실지 행동으로 모범을 보이면서 가정교육과 학교교육, 사회교육을 병진시키며 옳게 배합할데 대한 당의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여야 한다.

계속하여 김일성동지께서는 새세대들과 근로자들의 교양에서 녀맹단체들을 비롯한 근로단체들과 문학, 예술의 역할을 더욱 높이며 학교에서 공산주의교양과 과학기술교육을 체육교육과 배합하여 진행함으로써 우리 후대들을 지덕체를 겸비한 훌륭한 공산주의자로 교양육성할것을 간곡히 교시하시였다.

남조선혁명을 촉진하며 조국통일을 앞당길데 대하여

《조선로동당 제4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의 당면과업에 대하여》를 비롯한 여러 로작들에는 남조선의 사회경제형편과 계급관계가 전면적으로 분석되여있고 남조선혁명의 성격과 대상이 정확히 규정되여있으며 조국통일을 위한 우리 당의 방침과 그 방도들이 명시되여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남조선혁명의 성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남조선에서의 혁명은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민족해방혁명이며 봉건세력을 반대하는 민주주의혁명입니다. 이 혁명의 기본요구는 조선에서 미제국주의침략세력을 내쫓고 그 식민지통치를 때려부시며 남조선사회의 민주주의적발전과 나라의 통일을 이룩하는것입니다.》(우와 같은 책, 141페지)

미제국주의는 남조선인민들의 첫째가는 투쟁대상이며 전체 조선인민의 철천지원쑤이다. 미제의 남조선강점과 그의 침략정책은 조국통일과 남조선혁명의 기본장애이며 남조선인민들이 겪고있는 모든 불행과 고통의 화근이다.

남조선인민들은 미제침략자들을 반대하는 동시에 그의 주구인 지주, 예속자본가, 반동관료배들을 타도하고 남조선사회의 민주주의적발전을 위하여 투쟁하여야 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남조선에서 파쑈독재를 짓부시고 민주주의적자유와 권리를 쟁취하며, 민주주의적토지개혁을 비롯한 제반 민주주의적개혁과 인민적인 시책을 강구하기 위한 투쟁과업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남조선의 현사태를 수습하며 남조선인민들을 굶주림과 가난에서 건져내기 위한 길은 오직 미제침략자들을 남조선에서 몰아내고 나라의 통일을 이룩하는데 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조국통일을 위한 우리 당의 자주적립장을 다음과 같이 재천명하시였다:

《조선의 통일문제에 있어서 우리 당이 취하고있는 립장은 명백합니다. 당은 시종일관 우리 나라의 통일문제를 자주적으로 그리고 평화적으로 민주주의적원칙에서 해결할것을 주장하여왔습니다. 조선인민은 자주적으로 나라의 평화적통일을 실현할수 있으며 또 반드시 실현하여야 합니다.

우리 조국의 통일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기 위하여서는 어떠한 외세의 간섭도 없이 민주주의적원칙에 기초한 전조선적인 자유선거를 통하여 통일정부를 세워야 합니다.》(우와 같은 책, 148페지)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우리 당의 조국통일방침은 우리 당의 주체사상을 철저히 구현한것으로서 우리 인민의 리익과 우리 나라 혁명발전의 합법칙적요구에 부합되는 가장 현실적이며 정당한

것이다.

조선의 통일문제는 조선인민의 내정문제이며 그 어떤 나라도, 그 어떤 국제기구도 조선문제에 간섭할 권리가 없으며 조선인민자신에 의해서만 해결될수 있다. 외세에 의존하여 나라의 통일을 이룩하려는것은 망상이며 나라를 외래침략자들에 내여맡기려는 매국배족행위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최고인민회의 제3기 제1차회의에서 한 연설에서 남조선으로부터 외국군대를 물러가게 하는 조건밑에서 일련의 중간걸음을 거쳐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남조선에서 미제침략군대를 몰아낸 다음 남북이 서로 상대방을 공격하지 않을데 대한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남북조선의 군대를 각각 10만 또는 그 이하로 줄이며, 파괴된 남조선경제를 복구하고 도탄에 빠진 남조선인민들의 생활을 개선하기 위한 경제, 문화 교류와 협조를 실현하며, 민족공동의 관심사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한 련방제를 실시하며, 나라의 완전통일을 이룩하기 위하여 민주주의적원칙에 기초한 전조선 자유선거에 의하여 남북조선의 각계각층을 망라하는 통일적인 중앙정부를 세울데 대하여 다시금 천명하시였다.

이것은 조선인민의 리익과 한결같은 의사와 세계의 진보적인민들의 념원을 반영한 가장 합리적이며 현실적이며 공명정당한 방안이다.

그러나 미제와 그 주구들은 조국통일을 위한 우리 당의 이 정당한 방안을 거부하였을뿐아니라 침략과 전쟁 정책을 계속 강화하는 길로 나갔다.

남조선혁명을 촉진하며 나라의 자주통일을 앞당기기 위하여서는 공화국북반부의 혁명기지를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더욱 강화하는 동시에 남반부의 혁명력량을 결정적으로 강화하는것이 절실한 문제로 제기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이 시기 남조선인민들의 투쟁경험과 교훈을 총화하시고 남반부의 혁명력량을 강화하는데서 무엇보다도 중요한것은 혁명의 참모부인 맑스-레닌주의당을 꾸리는것이라고 지적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남조선인민들이 반제반봉건투쟁을 성과적으로 진행하며 이 투쟁에서 승리하기 위하여서는 맑스-레닌주의를 지침으로 하며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광범한 인민대중의 리익을 대표하는 혁명적당을 가져야 합니다. 이러한 정당이 없이는 인민대중에게 명확한 투쟁강령을 줄수 없으며 혁명군중을 굳게 묶어세울수 없으며 군중투쟁을 조직적으로 전개할수 없습니다.》(우와 같은 책, 141～142페지)

이와 함께 김일성동지께서는 남조선에서 모든 애국적력량을 망라하는 반미구국통일전선을 이룩하며 혁명에 동원될수 있는 모든 계급들과 계층들을 미제를 반대하는 투쟁에 조직동원하는것이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반미구국통일전선의 사회정치적기초로 되는 로농동맹을 강화하며 청년학생, 지식인들과의 단결을 강화할데 대하여 교시하시였다.

맑스-레닌주의의 혁명적기치밑에 반제반미투쟁을 강화하며 사회주의진영의 통일과 단결을 강화할데 대하여

《조선로동당 제4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 《당 조직사업과 사상사업을 개선강화할데 대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의 당면과업에 대하여》를 비롯한 여러 문헌들에는 제국주의와 수정주의를 반대하고 국제공산주의운동의 통

일과 단결을 이룩하기 위한 우리 당의 원칙적립장과 태도, 우리 당 대외정책의 기본원칙들이 천명되여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이 문헌들에서 국제정세에 대한 과학적이고 심오한 분석에 기초하여 우리 시대의 성격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시였다:

《오늘 우리 시대는 국제적규모에서 격렬한 계급투쟁이 벌어지며 지구상의 모든 피착취인민들과 피압박민족들이 해방투쟁에 떨쳐나서고있는 위대한 투쟁의 시대이며 혁명적폭풍우의 시대입니다.》(우와 같은 책, 413페지)

국제정세와 국제공산주의운동의 전행정은 우리 시대에 대한 김일성동지의 평가의 정당성을 확증해주고있다.

최근년간의 국제적사변들은 미제국주의자들이야말로 침략과 전쟁의 주되는 세력이며 인류의 가장 흉악한 원쑤라는것을 더욱더 똑똑히 말하여주고있다.

제국주의 특히 미제국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을 떠나서는 오늘 그 어떤 혁명위업에 대해서도, 세계의 평화와 인류의 진보에 대해서도 말할수 없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현정세발전은 세계의 모든 혁명력량을 한데 결속시켜 반제투쟁을 더욱 강화할것을 요구한다고 하시면서 사회주의진영의 위력을 끊임없이 강화하며 자본주의나라들에서의 로동운동과 식민지예속국가인민들의 해방투쟁을 더욱 발전시키며 제국주의의 침략과 전쟁 정책을 반대하는 투쟁에 광범한 인민대중을 조직동원하며 온갖 투쟁방법을 배합하여 제국주의자들에게 계속 강력한 타격을 준다면 평화와 민주주의와 민족적독립과 사회주의를 위한 위업에서 더 큰 승리를 달성할수 있으며 세계혁명은 더 빨리 촉진될수 있을것이라고 가르치시였다.

국제혁명력량을 강화하며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인민들의 투쟁을 힘있게 발전시키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현대수정주의를 비롯한 온갖 기회주의를 견결히 반대하여 투쟁하는것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당중앙위원회 제4기 제3차전원회의확대회의에서 한 결론에서 수정주의발생의 사회력사적 및 계급적 근원, 그 반동적본질과 해독성을 전면적으로 밝히시였으며 반제혁명투쟁을 발전시킴에 있어서 반수정주의투쟁이 가지는 의의와 수정주의를 반대하는 우리 당의 혁명적립장을 천명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어떤 사람들이 맑스-레닌주의를 버리고 수정주의의 길로 나아간다 하더라도 우리는 동요할수 없으며 제국주의와 타협할수 없습니다. 혁명가요에 있는바와 같이 〈비겁한자야 갈라면 가라, 우리들은 붉은기를 지키리라.〉하는것은 우리의 변함없는 결의입니다. 우리는 혁명을 계속하여야 하며 제국주의를 반대하여 끝까지 견결히 투쟁하여야 합니다.》(우와 같은 책, 326페지)

수정주의를 결정적으로 반대하고 혁명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계속 견결히 투쟁하는 우리 당의 립장은 자기의 힘으로 조선혁명을 완수하려는 주체적립장이며 그것은 맑스-레닌주의의 혁명적기치밑에 세계혁명을 끝까지 하려는 혁명적이며 국제주의적인 립장이다.

반제투쟁과 세계혁명위업을 위한 투쟁에서 승리의 결정적담보는 세계반제력량의 핵심부대인 사회주의진영을 옹호하며 사회주의진영과 국제공산주의운동의 통일단결을 수호하고 강화하는것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진영과 국제공산주의운동의 통일단결을 강화하기 위한 우리 당의 원칙적립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국제공산주의운동의 단결문제에 관한 우리 당의 태도에 대하여 말한다면 우리는 물론 쏘련, 중국 그밖에 다른 사회주의나라들과 단결하며 사회주의진영의 통일을 강화하기 위하여 언제나 노력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형제나라들과의 단결을 강화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하더라도 혁명을 그만두고

수정주의를 하라는 요구는 우리가 절대로 받아들일수 없습니다. 우리는 형제나라들의 옳은것은 지지하고 나쁜것은 따르지 않을것입니다.》(우와 같은 책, 330페지)

사회주의진영의 통일과 단결은 제국주의의 침략정책을 파탄시키며 평화와 민주주의와 민족적독립과 사회주의위업의 승리를 보장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담보이다. 사회주의나라들사이의 친선단결을 강화하며 사회주의진영의 통일을 지키는것은 모든 사회주의나라 당들과 정부들과 인민들의 신성한 국제주의적의무이다.

조선의 공산주의자들은 오랜 기간에 걸치는 자기의 간고한 투쟁경험을 통하여 국제공산주의운동의 통일단결이 우리의 공동위업을 위하여 얼마나 귀중한가를 잘 알고있다.

우리 당은 어느 때 어떠한 환경에서나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기치를 높이 들고 모든 형제나라, 형제당들과의 친선과 협조를 강화하며 사회주의진영의 통일을 지키기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는 한편 사회주의진영의 통일을 파괴하고 사회주의나라들을 중상비방하며 이 나라들의 당과 정부를 뒤집어엎기 위한 악랄한 음모책동을 감행하고있는 제국주의자들과 온갖 좌우경기회주의를 반대하여 결정적으로 투쟁하였으며 또 투쟁할것이다.

※

《김일성저작선집》 제3권에 들어있는 로작들은 당의 령도밑에 우리 인민이 중첩되는 애로와 난관을 이겨내고 인민경제의 전면적기술개건과 자립적민족경제건설을 다그치기 위한 위대한 전망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우리의 혁명기지를 불패의것으로 강화하며 사회주의건설에서 일대 전환을 일으키게 한 강령적지침이다.

우리 당과 인민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혀주신 독창적이며 현명한 전략전술적방침에 따라 내외원쑤들의 준동을 물리치고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갔으며 우리 인민의 혁명투쟁력사에 길이 빛날 위대한 승리를 이룩하였다.

이 저작선집에 들어있는 로작들은 인민경제의 기술적개건과 자립적민족경제의 체계를 세우기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에서 승리의 결정적담보로 되였을뿐 아니라 사회주의의 높은 봉우리를 점령하며 조선혁명의 종국적승리를 위하여 투쟁하는 오늘에 있어서도 우리 인민의 앞길을 휘황하게 밝혀주는 등대이며 우리의 위대한 투쟁강령이다.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김일성동지의 저작들을 깊이 학습하고 그이의 위대한 혁명사상을 자기의 뼈와 살로 만들어 언제 어데서나 당과 수령께 무한히 충직한 혁명전사가 되기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며 당대표자회결정과 공화국정부의 위대한 10대정강을 관철하며 우리 혁명의 종국적승리를 앞당기기 위하여 몸바쳐 투쟁함으로써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혁명적대고조의 불길을 더욱 높이자.

공산주의교양의 강령적지침

4천만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력사적인 로작 《공산주의교양에 대하여》가 나온 때로부터 10년이 지나갔다.

김일성동지의 이 로작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서 사상혁명을 전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길을 처음으로 밝혀주신 탁월한 맑스-레닌주의문헌이며 우리 당의 사상사업발전과 우리 인민의 정치사상생활에서 획기적의의를 가지는 력사적문헌이며 로동계급의 력사적위업을 완수하는 전행정에 걸쳐 맑스-레닌주의당이 확고히 틀어쥐고나아가야 할 강령적지침이다.

지난 10년간 우리 나라에서 혁명과 건설의 발전은 이 불후의 로작에 담긴 김일성동지의 심오한 사상과 현명한 방침의 위대한 생활력을 남김없이 보여주었다.

김일성동지의 교시가 철저히 관철됨으로써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정치도덕적풍모에서는 거대한 전변이 일어났으며 우리의 사회주의건설에서는 세상사람들을 경탄케 하는 기적이 창조되였다.

김일성동지께서 발표하신 위대한 로작 《공산주의교양에 대하여》를 계속 심오히 학습하며 그이의 가르치심을 철저히 구현하는것은 오늘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우리 당의 유일사상으로 더욱 튼튼히 무장하고 자신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며 당대표자회결정과 공화국정부의 위대한 10대정강 그리고 공화국창건 스무돐기념경축대회에서 하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강령적교시를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서 거대한 의의를 가진다.

1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로작 《공산주의교양에 대하여》는 사회주의제도가 확립된 조건에서 프로레타리아독재의 중요한 임무로 나서는 사상혁명의 길, 전사회의 혁명화, 로동계급화의 길을 과학적으로 심오하게 천명한 우리 시대의 고전적문헌이다.

1958년에 우리 나라의 도시와 농촌에서는 생산관계의 사회주의적개조가 완성되고 모든 사람들이 사회주의적근로자로 되였으며 위대한 천리마의 대진군속에서 나라의 공업화의 기초가 튼튼히 축성되고있었다.

우리 당 앞에는 천리마운동을 더 한층 발전시키고 승리한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켜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촉진함으로써 사회주의기초건설을 완성하며 나아가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할 력사적임무가 나섰다.

당앞에 제기된 이러한 임무를 실현하는데 있어서 관건적의의를 가진것은 사회주의일색으로 전변된 새로운 환경과 제기된 혁명임무의 요구에 맞게 사상혁명을 앞세워 모든 근로자들을 공산주의적으로 교양개조하는 문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당시 우리 혁명의 절박한 요구와 혁명발전의 먼 앞날을 명철하게 통찰하시고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공산주의교양을 전면적으로 전개할데 대한 현명한 방침을 제시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가 하루빨리 사회주의의 높은 봉우리에 올라서기 위해서는 근로대중을 공산주의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지 않으면 안됩니다. 철저한 사상교양사업과 사상투쟁을 전개하지 않고서는 혁명의 전진을 보장할수 없으며 이미 얻은 승리를 공고히 할수도 없습니다.》 (《김일성저작선집》, 제2권, 257페지)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제도가 확고히 수립되였을 때 지체없이 사상혁명을 전면적으로 전개할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신것은 혁명발전의 객관적요구와 조성된 가능성을 과학적으로 타산하시고 항상 사상혁명을 선행시켜 혁명을 진공적으로, 적극적으로 추진시키시는 김일성동지의 탁월한 령도를 집중적으로 보여주는것이다.

사회주의제도가 수립된 다음에는 이 제도를 원쑤들의 침해로부터 지켜내고 더욱 공고발전시켜야 하며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달성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서는 근로자들을 공산주의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켜야 한다. 사상혁명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필수적요구이다.

또한 사회주의제도가 수립된 조건에서는 모든 근로자들을 공산주의적으로 교양개조할수 있다. 사회주의제도의 승리는 낡은 사상을 낳는 경제적기초를 청산하며 사람들을 새로운 사상으로 무장시킬수 있는 사회적 및 물질적 조건을 지어준다. 여기에서는 모든 근로자들이 사회주의경리에 망라되여 공동으로 일하고 생활하며 공통된 리해관계를 가지고 다 같이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지향하게 된다.

그러므로 맑스-레닌주의당은 모든 사람들이 사회주의적근로자로 된 조건에서는 그들을 공산주의사상으로 교양개조할수 있으며 반드시 사상혁명을 전면에 내세우고 힘있게 추진시켜나가야 한다.

만일 맑스-레닌주의당이 사회주의제도가 승리한후 제때에 공산주의교양사업을 전면적으로 전개하지 않는다면 세워진 사회주의제도를 공고히 할수 없으며 근로자들의 의식속에 남아있는 낡은 사상잔재를 뿌리빼는 사업을 지연시키게 됨으로써 혁명과 건설에 심대한 후과를 가져올수 있다.

김일성동지의 로작 《공산주의교양에 대하여》의 력사적의의는 무엇보다도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제도가 확고히 세워진 바로 그때에 근로자들에 대한 공산주의교양을 전면적으로 전개할데 대한 방침을 독창적으로 제기하고 그 과학적 해결방도를 명확히 밝혀준데 있다.

우리 인민의 위대한 수령이신 김일성동지의 로작 《공산주의교양에 대하여》의 거대한 력사적의의는 또한 그것이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위한 투쟁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사상혁명을 실현하여 모든 근로자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할데 대한 전망적과업을 어떻게 해결할것인가 하는 문제에 과학적인 해답을 준데 있다.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위하여서는 반드시 사상혁명을 철저히 수행하여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여야 사회주의, 공산주의에로 가는 길에서 점령해야 할 사상적요새를 점령할수 있다. 또 이렇게 해야 물질적요새를 점령하는 사업도 성과적으로 해결할수 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령도의 현명성은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기초건설이 채 끝나기도 전에 벌써 앞으로의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환히 내다보시고 혁명발전의 당면한 요구와 전망적요구를 다 같이 훌륭히 해결할수 있는 사상혁명의 과업과 그 수행방도를 명철하게 천명하신데 있다.

사회주의제도가 승리한후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와 공산주의에로 나가는 길에서 모든 근로자들을 공산주의적인간으로 교양개조하는 사상혁명의 과업을 어떻게 수행할것인가 하는 문제는 국제공산주의운동에서 정확한 해답을 기다리는 절박한 문제였다.

이것은 오직 우리 시대의 탁월한 맑스-레닌주의자이시며 오랜 혁명투쟁에서 풍부한 경험을 쌓으신 김일성동지에 의하여 빛나게 해결되였다.

2

우리 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력사적인 로작 《공산주의교양에 대하여》에서 근로자들에 대한 공산주의교양의 내용에 대하여 전면적으로 천명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근로자들에게 자본주의에 비한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우월성, 새것은 반드시 승리하고 낡은것은 멸망한다는 진리를 깊이 인식시키며, 개인주의와 리기주의를 없애고 집단주의정신, 로동을 사랑하는 정신을 지니게 하며 사회주의적애국주의와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정신 그리고 부단 혁명의 정신, 계속전진하고 계속혁신하는 혁명정신으로 교양하는것이 사회주의제도가 승리한 이후 공산주의교양의 중요내용으로 되여야 한다고 가르치시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근로자들에 대한 공산주의교양은 반드시 계급교양을 기본으로 하여 진행되여야 한다는것을 천명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계급교양은 근로자들을 로동계급의 계급의식으로 무장시킴으로써 계급적원쑤를 무한히 증오하고 그를 반대하여 비타협적으로 싸우게 하며 자기 계급을 열렬히 사랑하고 그의 리익을 고수하며 로동계급의 력사적사명을 실현하기 위하여 끝까지 투쟁하게 한다.

로동계급의 계급의식을 떠나서 새형의 공산주의적인간에 대하여 말할수 없으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 대해서도 말할수 없다.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지향하며 혁명의 종국적승리를 위하여 투쟁하는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있어서 계급의식은 모든 행동과 도덕, 사상의 근저에 확고하게 놓여있어야 한다.

그렇기때문에 근로자들에 대한 공산주의교양은 계급교양을 기본으로 하여야 한다.

계급교양을 기본으로 할 때에라야만 공산주의교양의 다른 과업들도 성과적으로 해결할수 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이로부터 자본주의제도에 비한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 자본주의멸망과 사회주의승리의 필연성에 대한 신념으로 근로자들을 무장시킴으로써 그들이 제국주의침략을 반대하고 사회주의제도를 고수하며 발전시키는데 모든것을 다 바쳐 싸울수 있도록 교양하는것을 첫째가는 내용으로 규정하시였다.

여기에서 중요한것은 근로자들에게 미제국주의와 일본군국주의의 침략적본성, 착취계급과 착취제도의 반동적본질을 철저히 인식시킴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제국주의와 착취계급, 착취제도를 무한히 증오하며 그것을 반대하여 비타협적으로 투쟁하도록 교양하는것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근로자들에게 소수 착취자들만 잘 먹고 잘 입으며 대다수 인민들은 굶주림과 추위에 떠는 자본주의제도가 좋은가, 그렇지 않으면 모든 사람이 다 일하고 다 잘 살수 있는 사회주의제도가 좋은가, 이렇게 문제를 내놓으면 그들자신이 똑똑한 결론을 지을것입니다.》(우와 같은 책, 259~260페지)

남북조선의 판이한 현실을 통하여 자본주의에 비한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명백히 보여주며 새것인 사회주의는 반드시 승리하고 낡고 썩어빠진 자본주의는 필연코 멸망한다는 진리를 똑똑히 알려줄 때 근로자들은 혁명위업의 정당성과 승리에 대한 확고한 신심을 가지고 우리 혁명의 승리를 앞당겨나갈수 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공산주의교양의 중요한 내용으로서 개인주의와 리기주의

를 반대하며 로동을 사랑하고 집단을 사랑하는 정신으로 무장시키며 사회주의적애국주의와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정신으로 그들을 교양할데 대하여 제시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가르치시였다:

《…공산주의교양에서 중요한것은 사회의 공산주의적개조에서 커다란 장애로 되는 개인주의와 리기주의를 반대하는 문제입니다.》(우와 같은 책, 261~262페지)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개인주의, 리기주의는 생산수단이 사적소유로 되여있는 모든 착취사회에 고유한것으로서 집단주의에 기초한 사회주의제도하에서는 있을 자리가 없다. 그것은 사회주의제도를 공고히 하는데 장애로 되며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전진운동을 방해한다. 그러므로 개인주의, 리기주의는 혁명화의 주되는 대상으로 된다.

개인주의, 리기주의를 뿌리빼고 집단주의사상, 사회주의적애국주의사상으로 무장하는데 있어서 중요한것은 국가재산과 공동재산, 나라의 모든 부원을 아끼고 사랑하도록 하는것이다. 이와 함께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로동을 사랑하는 정신을 배양하여야 한다.

우리는 자기 향토와 직장을 사랑하는데로부터 출발하여 모든 근로자들이 다 잘 살며 앞으로 더 잘 살게 될 자기의 사회주의조국을 사랑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회주의적애국주의는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와 일치하는것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또한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부단혁명의 사상으로, 계속전진, 계속혁신하는 혁명사상으로 무장시키는것이 공산주의교양의 중요한 내용으로 된다고 가르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근로자들을 계속혁명의 사상으로, 계속전진하고 계속혁신하는 혁명적사상으로 교양하여야 합니다.

우리의 혁명은 끊임없는 전진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한개의 혁명과업을 실행하는것으로써 만족할수는 없으며 계속 새로운 과업을 내세우고 또 해결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미 이룩한 승리는 앞으로의 더 큰 승리를 위한 준비이며 더 전진하기 위한 토대입니다.》(우와 같은 책, 264페지)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공산주의자들은 사회주의제도가 승리하고 사회주의의 기초가 건설된 다음에도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보장하고 공산주의를 실현할 때까지 혁명을 계속하여야 한다.

우리에게는 조국통일의 임무가 남아있으며 통일된후에는 남조선에서 민주주의혁명과 사회주의혁명의 과업을 완수하고 전조선에서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실현하며 나아가서 전세계에서 혁명이 승리할 때까지 투쟁을 계속해야 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공산주의교양의 내용을 천명하시면서 사상혁명수행에서 견지하여야 할 원칙들에 대하여서도 구체적으로 교시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사상혁명을 확고히 앞세우면서 기술혁명과 문화혁명을 통일적과정으로 추진시켜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사람들의 사상의식은 사회생활의 물질적조건에 의하여 규정되며 따라서 사회주의하에서도 그것은 기술을 발전시키고 인민들의 생활조건을 개변시키는데 기초하여 발전하는것이다. 또한 문화혁명을 하지 않고서는 근로자들의 지식수준과 기술수준을 높일수 없으며 기술혁명도 공산주의교양도 잘할수 없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또한 근로자들에 대한 공산주의교양사업은 반드시 당에 대한 충실성의 정신으로 교양하는 사업으로 되여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당에 대한 충실성은 곧 수령에 대한 충실성이다.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으로 교양하는것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에 대한 공산주의교양에서 근본적의의를 가지는 문

제이다. 당과 수령께 충실함이 없이는 혁명에 충실할수 없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에 충실할수 없다.

우리는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 우리 당의 유일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함으로써만 당과 혁명에 무한히 충실한 진정한 공산주의자로 될수 있으며 수정주의, 좌경기회주의, 사대주의, 부르죠아사상, 봉건유교사상, 종파주의등 온갖 불건전하고 반혁명적인 사상요소들을 반대하여 강하게 투쟁할수 있으며 조선혁명의 완성을 위하여 견결히 싸워나갈수 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당과 혁명에 무한히 충실한 참된 공산주의자로 교양하기 위하여서는 우선 이들을 교양하는 일군들자신이 당의 유일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여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근로자들속에서 당의 정책을 일상적으로 해석선전하며 그들을 공산주의정신으로 교양해야 할 중요한 임무를 지니고있는 선전원, 선동원동무들의 첫번째 과업이 자기의 당성을 높이는 문제라는것을 알아야 합니다. 당성이 없는 선전원과 선동원이 당정책을 옳게 선전하며 군중을 옳게 동원할수 없으리라는것은 명백합니다.》(우와 같은 책, 267~268페지)

일군들자신이 당의 유일사상으로 무장하지 않고서는 당정책을 제대로 선전할수 없을뿐아니라 당정책을 자로 삼아 옳고 그른것을 가려낼수 없으며 당정책을 옹호관철할수 없다.

우리 일군들이 당의 유일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고 군중속에 깊이 들어가 청산리방법의 요구대로 군중을 실속있게 교양할 때 근로자들을 공산주의적으로 교양할 력사적임무를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다.

3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공산주의교양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침을 제시하시고 이 사업을 주체성있게 활발히 진행할수 있도록 지도하시였다.

우리 당은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 방침에 따라 당정책교양과 함께 혁명전통교양을 강력히 진행하면서 근로자들에 대한 공산주의교양을 부단히 심화시켰다.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혁명전통교양은 혁명의 간고성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을 공산주의혁명정신으로 교양하여 혁명을 한 사람들과 같이 만드는 가장 위력한 무기이다.

혁명전통교양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김일성동지의 혁명투쟁력사, 그이의 위대한 혁명사상과 고매한 덕성, 령도의 현명성을 명백히 인식할수 있게 하며 그들이 우리 당과 우리 혁명의 력사적뿌리를 똑똑히 알고 당과 수령을 목숨으로 보위하며 수령의 령도밑에 혁명을 끝까지 수행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정신을 배양하는데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

혁명전통교양은 또한 항일유격대원들이 혁명의 탁월한 수령이신 김일성동지께 어떻게 충실하였으며 그이의 령도밑에 그처럼 어려운 환경에서 온갖 간난신고를 이겨내고 어떻게 영웅적으로 싸워이겼는가 하는것을 보여줌으로써 그 모범을 따라배울수 있게 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공산주의교양이 혁명전통교양과 결부됨으로써 그것은 공산주의의 일반적원리를 배울뿐아니라 공산주의자들의 산 모범을 본받는 사업으로 되며 생동하고 힘있는 감화력을 가진 교양사업으로 된다는것은 이미 생활에서 확증되였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3권, 180페지)

김일성동지께서는 이와 함께 군중을 교양하는 위력한 방법으로서 긍정적모범으로 감화하는 방법, 공산주의교양을 생산현장을 거점으로 하여 진행할데 대한 방침을 명시하시였다.

긍정적모범으로 군중을 교양할데 대한 김일성동지의 교시는 사회주의제도의 본질에 맞는 가장 훌륭한 교양방법이다.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착취와 억압이 청산되고 모든 사람들에게 자유로운 발전의 길이 열려져있는 사회주의제도하에서는 사람들이 아름답고 참된것을 지향한다. 여기에서는 모든 긍정적인것이 광범한 인민대중속에서 공명을 불러일으키며 그것은 곧 전사회적인 모범으로 보편화될수 있다.

특히 우리 인민은 진리와 참된것을 존중히 여기며 혁명적기질이 풍부하고 정의를 사랑하는 마음이 대단히 강하다. 그러므로 긍정적모범으로 교양하는 방법은 우리 인민의 사상감정에 맞는 교양방법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집단적로동은 인간교양의 가장 훌륭한 학교이며 사람들을 교양개조하는 사상사업은 바로 실천적투쟁을 통해서만 성과적으로 실현될수 있다고 가르치시였다.

근로자들이 공동으로 일하며 생활하는 생산현장을 거점으로 하여 공산주의교양을 진행하는것은 근로자들의 의식을 개변하는 사업을 그들의 생산활동과 결합시키며 그들속에서 공산주의적도덕기풍을 성과적으로 배양할수 있게 한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사상의식을 공산주의적으로 교양개조하는 사업을 성과적으로 실현하는 가장 명확하고 빠른 길을 명시한 공산주의교양에 관한 김일성동지의 교시는 위대한 생활력을 나타내고있다.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공산주의교양에 대한 강령적교시는 모든 근로자들의 사상의식에서 일대전환을 가져오게 하였다.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는 우리 당의 유일사상체계가 철저히 확립되였으며 오직 당과 혁명의 리익을 위하여 몸바쳐 싸우며 수령의 교시와 명령이라면 어떤 역경속에서도 끝까지 옹호관철하는 혁명적기풍이 전당과 전사회를 지배하게 되였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적아를 똑똑히 갈라볼줄알며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와 착취계급, 착취제도를 무한히 증오하고 그와 비타협적으로 투쟁하며 조국과 인민을 열렬히 사랑하고 우리의 사회주의제도를 목숨바쳐 지키며 그를 더욱 공고발전시키기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하는 확고한 계급의식으로 무장되였다.

김일성동지께서 창조하신 혁명적사업방법인 청산리방법이 대중들에게 접수됨으로써 사람을 교양개조하는 사업이 대중자신의 사업으로 전환되였으며 이리하여 사상혁명의 어려운 과업이 성과적으로 해결되여가고있다.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 살며 일하는 공산주의적기풍이 전면적으로 확립되여가고있으며 모든 사람들이 당과 수령의 주위에 한마음 한뜻으로 굳게 뭉쳐 오직 수령께서 가리키시는 혁명의 길을 따라 전진, 전진, 투쟁 또 전진하고있다.

근로자들의 사상생활에서 일어난 거대한 변화는 우리 나라에서 천리마운동이 일어나고 발전하는데서 강력한 힘으로 되였다.

당과 수령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으로 교양된 우리 인민은 조국땅우에 인민의 행복한 락원을 더 빨리 건설하려는 불타는 애국심과 높은 혁명적열의를 가지고 공산주의적인 대중적 대진군운동인 천리마운동에 일떠섰으며 이 운동을 계속 발전시키고있다.

또한 계속혁명의 사상으로 교양된 우리 인민은 이미 달성한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혁명과 건설을 계속 힘있게 다그침으로써 북반부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며 남조선에서 미제를 몰아내고 조국을 통일하며 혁명의 전국적승리를 달성하기 위하여, 전세계에서 혁명의 승리적전진을 위하여 계속 혁신하며 부단히 전진하는 드높은 혁명

정신으로 충만되여있다.

이와 같이 공산주의교양이 전면적으로 심화되고 우리 인민의 혁명적의식수준이 높아짐으로써 인민대중의 정치사상적통일이 그 어느때보다 더욱 공고화되였으며 우리의 혁명대오는 불패의것으로 강화되였다.

바로 이것이 북반부에서 사회주의제도를 더욱 튼튼히 하고 혁명과 건설을 빠른 속도로 추진하여 조국통일의 혁명적대사변을 주동적으로 맞이할수 있는 결정적힘으로 되고있다.

우리 나라의 사회주의건설에서 달성한 위대한 승리와 성과들은 김일성동지께서 가리키신 길을 따라 사상혁명을 확고히 앞세워 근로자들속에서 공산주의교양을 강력히 진행하여온 우리 당의 방침의 정당성을 확증하여주고있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로작 《공산주의교양에 대하여》는 거대한 국제적의의를 가진다.

국제공산주의운동의 경험은 맑스-레닌주의당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전행정에서 계급교양을 기본으로 하는 공산주의교양을 계속 힘있게 전개해야 한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사회주의건설이 진척되고 사람들의 물질적생활조건이 개변된다고 하여 근로자들의 사상의식이 저절로 공산주의적으로 교양개조되는것이 아니다. 제국주의자들의 사상적침습이 끊임없이 감행되는 조건에서 근로자들에 대한 공산주의교양을 부단히 강화하지 않는다면 낡은 사상잔재가 되살아나고 조장될수 있으며 사회주의혁명의 전취물을 위험에 빠뜨릴수 있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 막대한 손실을 끼칠수 있다.

오직 김일성동지께서 가리키시는 길을 따라 공산주의교양을 더욱더 강화하고 사상혁명을 철저히 수행함으로써만 적대분자들의 준동과 반동적부르죠아사상의 침습을 반대하는 계급투쟁을 성과적으로 진행할수 있으며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훌륭히 건설할수 있다.

*　　　*

오늘 조성된 내외의 정세와 우리 앞에 나서고있는 방대한 혁명과업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서 공산주의교양을 더욱 강화할것을 절실히 요구하고있다.

우리는 앞으로도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로작 《공산주의교양에 대하여》에 담겨져있는 수령의 심오한 사상과 리론을 계속 깊이 연구체득하고 그것을 철저히 구현하기 위하여 모든 힘을 다하여야 할것이다.

여기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것은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세우는것이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과 그 구현인 당의 로선과 정책을 자기의 뼈와 살로 만들며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으로 튼튼히 무장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전사회를 혁명화, 로동계급화할데 대한 당의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여 자신의 사상의식수준과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을 더욱 높이도록 하여야 한다.

이리하여 우리는 력사적인 당대표자회결정과 공화국정부의 위대한 10대정강 그리고 공화국창건 스무돐기념 경축대회에서 하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력사적인 보고에서 제시된 방침에 따라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의 병진로선을 철저히 관철하며 조국통일의 위업을 앞당기도록 하여야 한다.

정치사업을 앞세우는것은 모든 분야에서 성과의 위력한 담보

허 학

지금 온 나라는 혁명적정열과 전투적 기백으로 넘치고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강령적교시를 심장으로 접수하고 당과 수령에 대한 무한한 충성심으로 가슴불태우고있는 우리 근로자들의 드높은 정치적열의와 무궁무진한 창조력에 의하여 우리 혁명과 건설에서는 날에 날마다 세인을 경탄케 하는 기적과 혁신이 창조되고있다.

오늘 근로자들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더욱 높이는것은 공화국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촉진하며 조국통일과 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투쟁에서 각급 당조직들과 지도일군들 앞에 나선 중요한 임무이다.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 모든 단위에서 이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모든 사업에서 정치사업을 앞세울데 대한 당의 방침을 더욱 철저히 관철하여야 한다.

정치사업은 우리 당사업의 기본이며 정치사업을 앞세우는것은 혁명과 건설에 광범한 대중을 힘있게 조직동원하고 혁명위업의 승리를 확고히 보장하는 가장 위력한 사업방법이다.

우리는 정치사업을 앞세울데 대한 우리 당의 방침의 혁명적본질과 그 거대한 의의를 옳게 인식하고 그것을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자기앞에 부과된 영예로운 임무를 성과적으로 수행하여야 할것이다.

1

정치사업을 앞세우는것은 혁명의 천재적수령이시며 우리 시대의 위대한 맑스-레닌주의자이신 김일성동지께서 일찌기 창조하시고 일관하게 견지하고 계시는 가장 철저한 혁명적사업방법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지난 40여년간 간고하고 복잡한 우리 혁명의 전행정에서 탁월한 주체사상과 철저한 맑스-레닌주의적원칙에 기초하여 수많은 새로운 문제들을 독창적으로 제기하시고 빛나게 해결하심으로써 우리 혁명을 위대한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오시였다. 그이께서는 혁명의 매 단계에 심오한 예지와 과학적인 통찰력으로 우리 혁명의 주객관적요구를 정확히 반영하시여 철저한 혁명로선과 정책을 작성하시고 제시하시였을뿐아니라 능숙한 령도예술과 혁명적인 사업방법으로 인민대중을 조직동원하심으로써 그것을 훌륭히 관철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모든 독창적인 혁명로선과 방침들과 더불어 그이께서 몸소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신 위대한 혁명적사업방법은 우리 혁명의 승리적진전을 보장한 확고한 담보이다.

정치사업을 앞세우는 사업방법, 이것은 김일성동지께서 우리 혁명의 진두에 나서신 그때에 벌써 철저한 혁명적군중로선을 구현하여 창조하신 위대한 혁명적사업방법이다.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시고 일찌기 혁명의 길에 나서신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운동발전의 합법칙성과 우리 혁명의 절박한 요구를 과학적으로 분석하시고 인민대중속에 깊이 들어가시여 그들의 계급적 및 민족적 각성을 높이기 위한 정치사업을 끊임없이 조직전개하시였으며 그리하여 우리 혁명의 주체적력량을 튼튼히 꾸려나가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특히 간고하고 장구한 항일무장투쟁시기에 정치사업을 모든 사업에 앞세우는 우리 당의 혁명

적사업방법의 빛나는 전통을 이룩하여 주시였다.

—혁명은 혼자서 할수 없으며 혁명을 하자면 군중들과 단결하여야 하며 각계각층의 광범한 군중들을 하나의 혁명력량에 묶어세워야 한다.

그러므로 광범한 군중들을 혁명대오에 묶어세우고 그들의 혁명열의를 북돋아주는 정치사업이야말로 혁명사업에서 첫 공정으로 되며 혁명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첫째가는 의무로 되는것이다.

그렇기때문에 혁명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정치사업을 하여야 한다.—

이것은 김일성동지께서 항일무장투쟁의 전기간에 항상 유격대원들에게 가르치신 사상이며 몸소 실천적모범으로 그들을 이끌어주신 혁명적사업방법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강도 일제를 반대한 그처럼 간고한 15성상의 항일무장투쟁의 나날에 언제 어느곳에서나를 막론하고 유격대원들과 혁명군중의 계급의식과 혁명적열의를 높이기 위한 다양하고 설득력있는 정치사업을 모든 사업에 앞세우시였으며 그에 기초하여 혁명대오를 더욱 확대강화하고 군중의 무궁무진한 힘을 발동하여 항일무장투쟁과 전반적혁명운동을 위대한 승리에로 이끄시였다. 이리하여 항일무장투쟁행정에서 우리 당과 혁명의 깊고 억센 뿌리가 마련되였으며 철저한 혁명적군중로선과 그에 기초한 혁명적사업방법의 빛나는 전통이 이룩되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해방후 항일무장투쟁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발전시켜 우리 당과 혁명을 령도하시는 행정에서 정치사업을 모든 사업에 앞세우는 전통적인 사업방법을 더욱 발전시키시였다.

특히 우리 혁명과 건설이 어려운 국면에 처할 때일수록 정치사업을 더욱 강력히 전개하심으로써 부닥쳤던 모든 난관을 성과적으로 풀고 혁명과 건설의 위대한 앙양을 불러일으키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제도가 전면적으로 확립된 새로운 력사적조건에 맞게 우리 당의 전통적인 사업방법을 더욱 심화발전시킴으로써 위대한 청산리방법과 대안의 사업체계를 창조하시였으며 그에 의거하여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과 위력을 최대한으로 발양시킬수 있게 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청산리방법의 기본은 웃기관이 아래기관을 도와주고 웃사람이 아래사람을 도와주며 정치사업을 앞세우고 군중을 발동시켜 혁명과업을 수행하도록 하는데 있다.》(《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226페지)

청산리방법이 일반화되는 과정을 통하여 당 및 국가경제 기관들의 사업에 남아있던 관료주의를 비롯한 온갖 낡은 사업방법이 산산이 깨여지고 정치사업, 사람과의 사업을 모든 사업에 앞세우는 기풍이 전당에 확립되게 되였다.

이리하여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조하시고 심화발전시키신, 정치사업을 앞세우는 사업방법은 우리 당사업에서와 국가경제기관들의 사업에서 근본적인 혁신을 가져오게 하였으며 거대한 생활력을 발휘하고있다.

정치사업을 앞세우는것은 공산주의운동, 맑스-레닌주의당활동의 근본요구를 반영하고있는 가장 철저한 혁명적사업방법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대중속에서 정치사업을 잘하여 그들로 하여금 혁명과업을 수행하는데 자각적으로 동원되도록 하는것은 공산주의자들의 본성, 사회주의제도의 본질에서 흘러나오는 힘있는 사업방법이다.》(우와 같은 책, 226페지)

공산주의자들과 맑스-레닌주의당은 언제나 인민의 리익을 옹호하여,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혁명을 한다. 혁명은 인민대중을 위한 사업이며 인민대중자신의 사업이다. 따라서 혁명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광범한 인민대중을 동원해야 한다.

인민대중은 혁명에 저절로 일떠설수는 없다. 혁명은 인민대중을

각성시키는것으로부터 시작된다. 정치사업을 전개하여 인민대중에게 목표를 대주고 거기까지 어느길로 가야 하며 거기에 가면 무엇을 얻게 되는가 하는것을 똑똑히 알려주는것이 인민대중을 혁명투쟁에 확신성있게 일떠세우기 위한 가장 선차적인 사업이다. 이러한 정치사업을 앞세워야 모든 사업이 잘되여 나갈수 있으며 정치사업이 없이는 만사를 그르치고 만다. 이것은 움직일수 없는 철칙이다.

따라서 공산주의자들은 정권을 잡기 이전이나 잡은 다음이나를 막론하고 또한 혁명투쟁에서나 건설사업에서나를 막론하고 군중로선을 관철하여야 하며 인민대중의 혁명열의를 높여 혁명과업을 해결하는 혁명적인 사업방법을 견지하여야 한다.

공산주의자들의 주권전취를 위한 투쟁에서는 설복과 교양을 통하여 인민대중을 각성시키고 혁명대오에 묶어세우는것이 혁명의 승패를 결정하는 사활적문제로 된다. 이때에는 대중의 높은 의식성과 자각성 이외의 다른 그 어떤 통제수단도 없다. 오직 인민대중의 높은 계급적각성과 혁명열의에 기초해서만 간고한 혁명투쟁의 모든 시련을 이겨낼수 있으며 적들의 탄압과 회유기만 등을 극복하고 혁명의 승리적전진을 보장할수 있다.

정권을 잡은후에 있어서 공산주의자들과 맑스-레닌주의당은 정치사업을 앞세우는 원칙을 관철하기 위하여 더욱 적극적으로 투쟁하여야 한다.

맑스-레닌주의당은 집권당으로 된 이후 모든 문제를 국가기구를 통하여 행정, 명령식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편향을 경계하여 적극 투쟁하여야 한다.

물론 사람들을 정치적으로 각성시켜 그들이 스스로 일떠서게 하는 방법은 명령이나 지시를 하는것보다 훨씬 어려운 방법이다. 과거 지하투쟁이나 간고한 혁명투쟁을 통하여 혁명적사업방법을 체득하지 못한 새로운 일군들에게 있어서는 더욱 그러하다.

그런데 공산주의자들이 주권을 잡은 다음 혁명과 건설이 전척될수록 지도사업에는 오랜 혁명투쟁에서 혁명적사업방법을 체득하지 못한 새로운 일군들이 더욱더 많이 인입되게 된다. 이런 조건에서 맑스-레닌주의당은 모든 지도일군들이 공산주의자들의 본래의 사업방법, 정치사업을 앞세우는 사업방법을 확고히 소유하도록 부단히 교양하여야 한다.

특히 사회주의제도가 확립된 이후에는 정치사업, 사람과의 사업을 앞세우는 원칙을 당사업에서뿐만아니라 국가, 경제 기관의 모든 사업에서 더욱 철저히 관철하여야 한다. 이것은 사회주의제도의 본질적우월성을 최대한으로 발양시키기 위한 확고한 담보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회주의의 본질적우월성, 사회주의의 위대한 생활력은 무엇보다도 착취와 억압에서 해방된 근로자들이 공동의 목적과 리익을 위하여 서로 굳게 단결하며 동지적으로 긴밀히 협조하며 창의창발성과 자각적열성을 내여 일한다는데 있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우리 인민의 자유와 독립의 기치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강력한 무기이다》, 44페지)

착취와 억압에서 해방된 근로자들이 국가와 사회를 위하여, 자기자신의 행복을 위하여 높은 정치적열의와 자각성을 가지고 일하는것은 강제와 억압이 지배하는 온갖 착취제도와 근본적으로 구별되는 사회주의제도의 본질적우월성의 하나이며 당과 수령의 주위에 튼튼히 결속된 전체 인민의 정치사상적통일은 사회주의사회발전의 기본추동력이다.

사회주의하에서는 사람들의 의식성이 노는 역할이 제고되며 그것은 사회주의건설이 심화될수록 더욱더 큰 의의를 가지게 된다. 따라서 당은 근로자들의 의식성을 높이기 위한 정치사업, 사람과의 사업을 강화하는데 제1차적관심을 돌려야 한다.

사회주의하에서 정치사업을 앞세우는것은 프로레타리아독재의 기능을 높이기 위한 필수적인 요구이다. 사회주의하

에서는 프로레타리아독재를 강화하며 계급투쟁, 사상혁명과 경제건설을 다같이 강력히 전개하여야 하며 언제나 사상혁명을 앞세우면서 그와 병행하여 기술혁명과 문화혁명을 하여야 한다. 이래야만 내외의 원쑤들의 반혁명적준동을 진압하며 사람들의 머리속에 있는 낡은 사상잔재를 청산하는 사업도, 도시와 농촌간의 차이, 로동계급과 농민간의 계급적차이를 없애는 문제도, 사회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를 강화하며 근로자들의 생활을 개선향상시키는 과업도 다같이 원만히 해결할수 있으며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할수 있다. 계급투쟁이 계속되며 사람들의 머리속에 낡은 사상잔재가 남아있는 조건에서 정치사업을 약화시키거나 홀시하는 모든 편향은 결국 프로레타리아독재를 약화시키고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위한 투쟁에 저애를 주며 사람들속에 개인주의, 자유주의를 조장하고 사회주의의 전취물을 위험에 빠뜨리는 엄중한 후과를 초래하게 된다.

사회주의하에서는 반드시 정치사업을 확고히 앞세우면서 행정경제기술사업을 하여야 하며 근로자들의 정치사상의식을 높이면서 여기에 물질적관심성을 옳게 결합시켜야 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가르치시였다:

《당의 령도적역할을 높이고 정치사업을 확고히 앞세우면서 이에 경제기술적인 사업을 옳게 결합시키며 근로자들의 정치적각성과 의식수준을 끊임없이 높이면서 여기에 물질적관심을 옳게 배합하는것, 이것이 사회주의건설에서 군중을 동원하는 우리 당의 기본방법이다.》 (《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227 페지)

김일성동지께서는 정치사업을 앞세우는 혁명적사업방법을 창조하시고 사회주의건설의 요구에 맞게 부단히 심화발전시키심으로써 사회주의하에서의 당 및 국가경제 기관들의 사업방법을 개선완성하는 분야에 있어서 맑스-레닌주의의 순결성을 확고히 고수하시고 더욱 발전시키시였다.

일반적으로 맑스-레닌주의당의 활동방법, 대중에 대한 지도방법은 혁명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며 특히 사회주의제도가 수립된후의 새로운 력사적 조건에서 공산주의자들이 당사업과 국가경제사업을 어떤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하는가 하는 문제는 리론적으로나 실천적으로 새로운 해명을 요구하는 날카로운 문제의 하나이다. 력사적경험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에 따라 혁명과 건설의 성과여부가 좌우된다는 것을 보여주고있다. 당의 령도체계와 사회주의경제관리체계를 확립하는 문제도, 사회주의건설의 매개 부문, 매개 단위에서 당의 로선과 정책을 관철하는 문제도 모두 사업방법을 어떻게 개선완성해나가는가와 중요하게 관련되여 있다.

김일성동지께서 창조하신, 정치사업을 모든 사업에 확고히 앞세우는 사업방법은 바로 맑스-레닌주의당과 공산주의자들의 대중에 대한 령도방법, 특히는 사회주의제도가 선 다음에 새롭게 나서는 당 및 국가경제 기관들과 그 일군들의 사업방법에 대한 가장 철저한 근본적인 해답을 줌으로써 이 분야에서 온갖 좌우경적편향을 극복하고 혁명과 건설을 훌륭히 보장할수 있는 유일하게 정확한 길을 명시한것으로 된다.

따라서 이것은 우리 혁명과 건설에서뿐만아니라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위한 로동계급과 그 당들의 활동에서 보편적의의를 가지며 맑스-레닌주의리론발전과 혁명실천에 대한 탁월한 기여로 된다.

2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조하시고 발전시키신 정치사업을 앞세우는 사업방법은 혁명과 건설의 성과를 확고히 담보하는 위력한 무기이다.

우리 당의 력사적경험은 전체 당조직들과 지도일군들과 당원들이 정치사업

을 튼튼히 틀어쥐고 모든 사업에서 정치사업을 앞세울 때 전진도상에서 부닥치는 모든 문제들을 성과적으로 풀고 대중의 무궁무진한 창조력을 발동하여 혁명과 건설을 비상히 촉진시킬수 있다는것을 확증하고있다.

정치사업을 앞세우는것은 무엇보다도 먼저 당의 령도적역할을 높이고 당과 수령의 주위에 광범한 군중을 튼튼히 단결시킴으로써 혁명의 정치적력량을 백방으로 강화할수 있게 한다.

맑스-레닌주의당의 위력은 군중과의 혈연적련계에 있다. 군중과 리탈한 당은 마치 물을 떠난 고기와 같으며 그러한 당은 혁명에서 승리할수 없을뿐더러 마침내 자체의 존재까지도 위태롭게 된다.

정치사업을 앞세우는것은 당조직들의 전투력을 높이며 모든 분야에 당사업이 깊이 침투되게 함으로써 당과 대중의 혈연적련계를 강화하게 하며 당의 령도적역할을 결정적으로 높이게 한다.

우리 나라에서 위대한 청산리방법의 관철을 통하여 당의 령도적역할이 결정적으로 높아진 과정은 바로 이것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위대한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이 일반화됨에 따라 우리 당 사업은 창조적열정이 들끓는 현실속에서의 사람과의 산창조적사업으로 전환되였다. 당사업이 사람과의 사업, 정치사업으로 확고히 전환됨으로써 우리 당조직들은 진실로 움직이는 조직, 생기발랄하고 전투적인 조직으로 되였으며 당의 의도가 대중속에 거침없이 깊이 들어가고 당정책관철에서 당원들의 선봉적역할이 더욱 높아졌다. 이것은 우리 당을 더욱 위력한 당으로 되게 하였으며 따라서 모든 분야에서 당의 령도적역할을 결정적으로 제고할수 있게 하였다.

정치사업을 앞세우는것은 특히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 당정책을 깊이 침투시키고 당의 유일사상, 수령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그들을 더욱 튼튼히 무장시킴으로써 당과 수령의 주위에 전체 인민을 칠석같이 단결시킬수 있게 하는 결정적담보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정치를 앞세운다는것은 모든 당원들과 군중에게 당정책을 철저히 인식시키며 그들이 혁명과업수행방도를 대중적으로 토론하며 높은 정치적각성을 가지고 혁명과업을 실천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동원되도록 하는것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2권, 496페지)라고 가르치시였다.

정치사업을 앞세우는것은 바로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무장시키고 전당과 전체 인민들 속에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확립하는 사업을 가장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게 한다.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확립하는것은 정치사업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며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당정책의 본질과 의의, 그 수행방도를 인식시키고 그들로 하여금 당정책을 끝까지 관철시키고야 말겠다는 확고한 사상적 각오와 굳은 결의를 다지게 하는것은 정치사업의 주되는 내용이다.

이리하여 정치사업을 앞세우는 사업방법은 당과 대중의 불패의 통일단결을 보장하며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당과 수령께 무한히 충실한 혁명전사로 교양육성하는 사업을 선행시킴으로써 모든 혁명과업을 가장 철저히, 가장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게 한다.

정치사업을 앞세우는것은 경제문화건설과 근로자들을 공산주의적으로 교양개조하며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 과업을 유기적으로 결합시켜 통일적과정으로 실현할수 있게 한다.

정치사업을 앞세우는 과정을 통하여 당원들과 근로자들에 대한 당정책교양과 혁명전통교양, 계급교양을 기본으로 하는 공산주의교양과 사회주의적애국주의교양이 혁명실천과 밀접히 결부되여 강력히 전개될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근로자들의 머리속에 남아있는 낡은 사상잔재들이 성과적으로 극복되고 그

들의 혁명적세계관이 확고히 서게 된다.

특히 모든 분야, 모든 단위에서 정치사업이 선행되게 됨에 따라 사람을 교양개조하는 사업이 대중자신의 사업으로 전환되게 된다.

우리 나라에서는 위대한 청산리방법이 관철되는 행정에서 사람을 교양개조하여 단결시키는 사업이 군중적운동으로 벌어지게 되였으며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자신을 개조할뿐아니라 뒤떨어진 사람을 도와주고 이끌어주어 선진적인 사람으로 개조하는 사업에 달라 붙게 되였다.

이리하여 정치사업을 앞세우는 사업방법은 우리의 혁명력량을 강화하는데서 거대한 성과를 가져왔다. 오늘 우리 당은 가장 강력하고 세련된 맑스-레닌주의당으로 강화발전되였으며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위에 하나의 사상의지로 굳게 뭉친 전당과 전체 인민의 정치사상적통일은 그 어느때보다도 확고부동하다. 이것은 우리의 모든 승리의 담보이며 우리의 불패의 힘의 원천이다.

정치사업을 앞세우는것은 인민대중의 무궁무진한 창조력에 튼튼히 의거하여 혁명과 건설을 비상히 촉진시키는 위력한 담보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대중에 의거하며 광범한 대중을 발동시키는 방법은 혁명적이고 적극적인 방법이며 혁명과 건설에서 모든 잠재력과 가능성을 남김없이 동원할수 있게 하는 방법이다.》
(《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225페지)

인민대중은 력사의 창조자이며 그들의 힘은 무궁무진하다.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혁명이나 건설에서 무슨 별다른 묘한 수란 있을수 없다. 인민대중의 무궁무진한 힘을 굳게 믿고 정치사업을 통하여 그들을 발동시킬 때 우리에게는 점령하지 못할 그 어떤 요새도 있을수 없으며 극복하지 못할 그 어떤 난관도 있을수 없다.

맑스-레닌주의당은 어렵고 큰 과업이 제기될 때일수록 정치사업을 더욱 강화하여야 하며 인민대중의 힘에 더욱 튼튼히 의거하여야 한다. 대중의 힘을 굳게 믿고 정치사업을 통하여 대중을 발동시키는 방법이야말로 가장 적극적이고 혁명적인 방법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의 경험은 곤난한 문제들이 제기될 때에 직접 로동자, 농민, 근로자들과 토의하고 그들의 지혜와 력량에 의거한다면 해결하지 못할 어려운 문제가 없고 극복하지 못할 난관이란 있을수 없다는것을 보여줍니다.》
(《김일성선집》, 제5권, 246페지)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하에 우리 당은 난관과 시련에 부닥쳤을 때에도 언제나 인민대중을 믿고 대중과 협의하며 그들의 힘과 지혜를 동원하여 그것을 극복하여나아갔다. 1956~1957년 국내외적으로 가장 어려웠던 때에도, 최근시기 국제국내적으로 긴장된 정세가 조성되고 미제의 새전쟁도발책동이 극심한 조건에서도 당은 정치사업을 강화하여 대중의 혁명적열의를 백방으로 높임으로써 조성된 정세에 대처하여 우리 혁명과 건설을 주동적으로 더욱 힘있게 밀고나아갔다. 우리 나라에서의 사회주의건설의 대고조와 위대한 천리마운동의 발생발전은 정치사업의 위력, 모든 사업에 정치사업을 앞세우는 사업방법의 거대한 생활력을 가장 집중적으로 보여주고있다.

정치사업은 광범한 대중을 발동시킴으로써 생산과 건설에서 무진장한 예비와 잠재력을 최대한으로 동원할수 있게 하며 사회주의건설의 속도를 비상히 높일수 있게 한다.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제일 총명한자는 생산자대중이다. 그들의 입을 열게 하고 그들을 일떠세운다면 상상하지도 못했던 수많은 예비가 쏟아져나오게 마련이며 그것이 훌륭히 동원되고야 마는법이다. 방대하고 어려운 건설사업도, 과학과 기술도, 문화와 예술도 군중의 지혜와 힘에 튼튼히 의거할 때 가장 빨리 발전할수 있다.

문제는 정치사업을 힘있게 전개하여 대중을 발동시키는데 있으며 대중의 혁신운동을 저애하는 온갖 장애물들을 철저히 청산하는데 있다.

사회주의건설의 높은 발전속도를 저애하는 중요한 장애물은 낡은 공칭능력과 기준에 매여달리고 과학과 기술을 신비화하는 소극성, 보수주의, 기술에 대한 신비주의이며 경제의 규모가 커지면 생산장성속도를 높일수 없다는 수정주의이다. 소극성과 보수주의, 수정주의를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하지 않고서는 대중의 창발성을 발양시킬수 없으며 생산장성속도를 계속 높일수 없다.

우리 당은 지도일군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소극성과 보수주의를 반대하는 강력한 정치사업을 전개하였으며 경제발전을 저애하는 수정주의적반동 《리론》을 반대하는 날카로운 사상투쟁을 전개하였다. 당은 근로자들을 대담하게 생각하고 대담하게 실천하는 혁명정신으로 무장시키고 전진, 전진, 투쟁 또 전진하도록 힘있게 이끌었다.

당과 수령의 옳은 령도에 무한히 고무된 우리 근로자들은 도처에서 무수한 예비와 잠재력을 동원하였으며 날에날마다 세인을 경탄케 하는 기적과 혁신을 창조하였다. 이리하여 우리의 사회주의건설은 끊임없이 높은 속도로 전진하고있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건설의 경험은 사람들의 사상개조를 촉진하고 기술혁신과 경제관리를 개선하여나아간다면 경제의 규모가 아무리 커져도 많은 예비를 동원하고 경제발전의 속도를 계속 부단히 높일수 있다는것을 확증하였다.

이 모든것은 정치사업을 모든 사업에 앞세우는 우리 당의 사업방법이 혁명과 건설에서 제기되는 모든 근본적문제들을 훌륭히 해결할수 있게 하는 가장 위력한 사업방법이라는것을 말하여준다. 그것은 혁명투쟁에서나 건설사업에서나 그리고 당사업에서나 경제문화건설에서나 항상 위대한 변혁과 기적을 창조할수 있게 하는 가장 힘있는 무기이다.

따라서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정치사업을 앞세우는 사업방법을 튼튼히 틀어쥐고 힘있게 관철시켜야 한다.

3

오늘 조성된 정세와 우리 앞에 나선 긴절한 혁명임무는 정치사업을 더욱 강화할것을 요구하며 모든 지도일군들과 당원들이 정치사업을 앞세우는 사업방법을 더욱 철저히 관철할것을 그 어느때보다도 절실히 요구하고있다.

지금 우리 당과 인민 앞에는 지난 기간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밑에 새 사회건설에서 달성한 빛나는 성과에 기초하여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며 미제의 격화되는 침략책동을 분쇄하고 조국통일과 조선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앞당겨야 할 중대한 혁명임무가 나서고있다. 이를 위해서는 사상혁명을 힘있게 밀고나가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정치사상적으로 더욱 튼튼히 무장시키고 당과 수령의 주위에 철석같이 단결시켜야 하며 그들의 혁명열의를 일층 앙양시켜 당의 로선과 정책을 철저히 관철하여야 한다.

무엇보다 먼저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철저히 무장시키고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튼튼히 확립하여야 하며 그들의 혁명화, 로동계급화를 촉진하여야 한다. 우리는 당의 유일사상,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과 배치되는 온갖 반혁명적사상들, 수정주의, 좌경기회주의, 사대주의, 종파주의, 부르죠아사상, 봉건적유교사상과의 날카로운 사상투쟁을 벌려야 하며 대중속에서 낡은 사상잔재의 표현인 소극성, 보수주의, 기술신비주의 등을 반대하는 투쟁을 일층 강화하여야 한다.

이 모든것은 정치사업을 잘하며 모든 사업에 정치사업을 앞세우는 우리 당의 일관한 방침을 철저히 관철할 때 성과적으로 해결할수 있다.

정치사업을 앞세울데 대한 우리 당

의 원칙을 더욱 철저히 관철시키기 위하여서는 모든 지도일군들과 당원들이 누구나가 례외없이 정치사업을 하여야 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정치사업은 당일군들만 할것이 아니라 모든 일군들이 다 하여야 합니다. 물론 행정일군들은 당에서 주로 행정사업을 할 임무를 받은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당원인 이상 행정사업과 함께 정치사업을 할 책임도 지니고있다는것을 알아야 합니다.》

정치사업은 혁명을 위하여 대중의 앞장에 서서 투쟁하는 모든 사람의 의무이며 첫째가는 사업이다. 우리의 지도일군들과 당원들은 그가 어데서 어떤 임무를 수행하든지간에 군중속에 있는 한 정치사업을 하여야 하며 자기의 혁명임무를 정치사업을 앞세우는 방법으로 수행할줄 알아야 한다. 어떤 과업을 수행하는데서나 먼저 그에 대한 당의 의도를 대중에게 정확히 해석침투시키고 그들로 하여금 당정책을 집행하기 위한 방도를 집체적으로 토의하여 높은 혁명적열의를 가지고 당정책관철을 위하여 이악하게 달라붙어 투쟁하도록 하여야만 자기앞에 맡겨진 모든 혁명과업을 훌륭히 해결해나갈수 있다.

당원들과 지도일군들이 정치사업을 앞세우는 사업방법을 관철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혁명적군중관점을 확립하며 인민적사업작풍을 소유하여야 한다. 대중의 무진장한 창조력을 굳게 믿고 그에 의거할줄 알아야만 그들을 발동시키기 위한 정치사업에 선차적관심을 돌릴수 있으며 또한 일상생활에서 소박하고 겸손하며 모든 일에서 이신작칙하며 례절이 바른 품성을 소유하여야만 군중의 심금을 울릴수 있게 정치사업을 전개할수 있다.

우리는 자신의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을 더욱 높이고 혁명적군중관점과 인민적사업작풍을 확립하기 위한 투쟁을 강화하여야 하며 항상 군중의 요구와 정서에 맞게 설득력있는 정치사업을 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여야 할것이다.

정치사업을 앞세우는 원칙을 관철하는데서 특히 중요한것은 각급 당조직들의 령도적역할을 높이는것이다. 모든 분야에서 당의 령도적역할을 높이고 당사업을 사람과의 사업으로 더욱 확고히 전환시켜야만 정치사업을 앞세우는 사업방법을 철저히 관철할수 있다.

당조직들은 행정경제사업에 대한 키잡이역할을 강화하며 일군들속에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더욱 철저히 확립하는 사업과 함께 그들의 사업방법과 작풍을 현실의 요구에 맞게 계속 개선하는 사업을 힘있게 끌고나감으로써 모든 지도일군들과 당원들이 자기의 혁명임무를 원만히 수행해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모든 지도일군들이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과 그 구현인 대안의 사업체계를 철저히 관철하도록 하며 정치사업을 앞세우는 우리 당의 가장 혁명적이고 위력한 사업방법을 튼튼히 틀어쥐고 자기 사업을 혁명적으로, 진공적으로 전개해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이리하여 모든 지도일군들과 당원들이 당의 유일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혁명적이며 적극적이며 가장 위력한 사업방법인 정치사업을 앞세우는 사업방법을 실지 사업에서 옳게 구현하여 나갈때 우리 근로자들의 혁명열의는 더욱 높아지고 우리 혁명과 건설에서는 새로운 더욱 위대한 승리가 이룩될것이다.

전체 당원들과 지도일군들은 김일성동지께서 창조하시고 심화발전시키신 위대한 혁명적사업방법을 튼튼히 틀어쥐고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공화국북반부의 혁명과 건설을 촉진하며 조국통일과 조선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투쟁에 적극 이바지하자.

끊임없이 전진하고 끊임없이 높은 속도로 발전하는것은 사회주의경제법칙

김 성 태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이시며 우리 시대의 걸출한 맑스-레닌주의자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제도의 무궁무진한 우월성과 사회주의경제건설을 지도하는 행정에서 쌓으신 풍부한 실천적경험으로부터 출발하여 사회주의 생산발전에 관한 경제법칙, 새로운 사회주의경제리론을 천명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사상혁명이 추진되여 근로자들의 의식수준과 자각적열성이 높아지고 기술혁명이 실현되여 나라의 경제토대가 강화될수록 생산장성의 예비는 더욱더 많아지며 따라서 끊임없이 전진하고 끊임없이 높은 속도로 발전하는것은 사회주의경제법칙이라고 교시하시였다.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혀주신 사회주의경제법칙의 기본내용은 경제가 발전하고 생산규모가 커질수록 사상혁명과 기술혁명을 힘있게 밀고나가는 조건에서는 생산장성의 예비가 더욱 많아지며 사회주의경제가 끊임없이 높은 속도로 발전한다는것이다.

김일성동지에 의하여 창시된 이 사회주의경제리론은 현시기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건설하고있는 모든 나라들앞에 나서고있는 근본문제에 맑스-레닌주의적해답을 준것으로서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종국적승리를 위하여 리론실천적으로 매우 중대한 의의를 가진다.

김일성동지께서 새롭게 천명하신 경제리론은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와 우리 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위하여 사회주의건설에서 계속혁신, 계속전진하고있는 우리의 영웅적로동계급에게 새로운 힘과 더욱 큰 투지를 안겨주고있으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위하여 투쟁하고있는 세계의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 위업의 정당성과 공산주의의 종국적승리에 대한 신념을 더욱 크게 북돋아주고있다.

사회주의생산발전에 관한 김일성동지의 새로운 혁명리론은 또한 이러저러한 《경제리론》과 궤변을 만들어내여 맑스-레닌주의를 외곡하며 비방중상하고있는 수정주의자들과 좌경기회주의자들에게 결정적타격을 주었으며 자본주의에 비한 사회주의의 다를여지없는 우월성을 다시한번 뚜렷이 증명하였다.

김일성동지께서 밝혀주신 새로운 혁명적경제리론을 옳게 인식하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투쟁하는것은 우리 혁명의 전국적승리와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앞당기며 세계혁명의 발전을 촉진하는데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우리는 경제분야에서 수정주의와 좌경기회주의를 견결히 반대하고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 혁명리론을 철저히 옹호하여야 하며 그것을 관철하기 위하여 불요불굴의 혁명정신을 발휘하여야 한다. 이것은 오늘 우리들앞에 나서고있는 가장 영예로운 임무의 하나이다.

1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생산의 발전문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현실이 보여주는바와 같이 공업이 일정한 수준에 올랐다고 하더라도 거기에다 살을 붙이고 근로자들의 사상의식을 높여 계속혁신을 일으킨다면 경제의 높은 장성속도를 보장할수 있는것입니다. …

우리가 기술혁명을 하고 사상혁명을 하면 할수록 경제발전속도는 더 빠르고 더 높아야 하는것입니다.》

사회주의건설이 진척됨에 따라 생산장성의 예비가 많아지며 경제발전속도가 더욱 높아진다는 사회주의생산발전에 관한 김일성동지의 교시는 사회주의사회의 발전과 그 합법칙적요구를 가장 정확히 반영한 혁명적경제리론이다. 이 리론은 사회주의하에서 물질적 및 정신적 력량이 끊임없이 증대되여가는 사회주의사회발전의 칠석같은 필연성을 표현한것이며 사회주의건설이 멀리 전진한 조건에서 사회주의생산발전의 일반적특징을 새롭게 천명한것이다.

김일성동지께서 교시하신바와 같이 사회주의경제제도는 일찌기 볼수 없는 높은 속도로 생산력을 발전시킬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있으며 사회주의건설이 심화되고 경제가 발전할수록 이 가능성은 더욱더 커가고있다.

무엇보다 먼저 사회주의사회는 확대재생산을 실현하는 기본수단이며 경제발전의 속도를 규정하는 결정적요인의 하나인 기본건설을 전례없는 큰 규모에서 진행할수 있는 커다란 우월성과 가능성을 가지고있다. 생산수단에 대한 사회화에 기초하여 인민경제를 계획적으로 발전시킬수 있는 사회주의사회에서는 기본건설에 막대한 자금을 투하할수 있는 가능성이 조성되며 경제토대가 확대강화되고 관리운영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축적의 규모가 커지는것만큼 기본건설투자액을 끊임없이 늘일수 있다.

또한 사회주의사회는 경제발전속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의 다른 하나인 과학기술을 전인민경제적 규모에서 급속히 발전시킬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있다. 사회의 모든 계급과 계층들의 목적과 지향, 리해관계의 공통성에 기초하고있는 사회주의사회에서는 기업소적범위에서는 물론 전국가적범위에서 과학 및 기술발전을 위한 길이 활짝 열려져있으며 사회주의건설이 심화되여 생산관계가 공고발전되고 사회의 정치사상적통일이 강화됨에 따라 기술발전의 가능성은 더욱더 커진다.

사회주의사회는 또한 경제발전의 속도를 높이는데서 중요한 작용을 노는 인민경제의 구조를 끊임없이 완성해나갈수 있는 커다란 가능성을 가지고있다. 사회주의사회에서는 기본건설이 광범히 추진되고 인민경제의 계획성이 부단히 높아지는것만큼 경제구조가 끊임없이 합리화되며 완성되여간다.

이 모든것은 사회주의하에서 생산을 빨리 장성시킬수 있는 물질적조건으로 된다.

사회주의하에서 생산이 높은 속도로 장성되기 위하여서는 이와 함께 당이 대중을 혁명적고조에로 이끌수 있는 힘을 가지고있어야 하며 당의 의도를 관철하려는 대중의 확고한 결심이 있어야 한다.

생산수단이 사회적소유로 되여있는 사회주의사회에서는 생산력을 발전시키는데서 결정적의의를 가지며 경제발전의 속도에 가장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의 의식의 역할을 비상히 확대할수 있는 가능성이 조성되며 사회주의건설이 진척되여 기술장비가 강화되고 경제구조가 완성될수록 인민경제가 더욱더 조직화되여가는것만큼 의식의 역할이 부단히 높아져간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맑스-레닌주의당의 정확한 령도밑에 근로대중이 국가와 사회를 위하여, 자기자신의 행복을 위하여 높은 자각적열성과 창의창발성을 발휘하는것은 나라의 생산력을 발전시키는데서 결정적의의를 가진다고 가르치

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로동생산능률을 높이는데 있어서 결정적의의를 가지는것은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자신의 행복을 위하여 자기의 온갖 정력과 지혜를 다 바쳐 싸우려는 로동자들의 고상한 사상입니다. 로동자들의 정치적각성이 높아지면 그들은 자기의 기술기능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더 노력할것이며 생산장성의 모든 예비와 가능성을 찾아내기 위하여 더 많은 창발성과 열성과 재능을 발휘할것입니다.》 (《김일성선집》, 제6권, 467페지)

김일성동지께서는 또한 《우리 나라에서의 사회주의건설의 대고조나 천리마의 진군도 당주위에 철석같이 단결되고 당을 무한히 신뢰하며 당이 가리키는 길을 따라 모든 난관을 돌파하고 새생활을 창조하려는 우리 근로자들의 앙양된 혁명적열의를 떠나서는 상상조차 할수 없는것입니다.》 (《김일성선집》, 제6권, 467페지)라고 가르치시였다.

근로대중의 높은 의식성과 창조적적극성은 사회주의하에서 부단히 증대되여가는 로동수단과 로동대상을 가장 합리적으로, 효과적으로 리용하고 사회주의확대재생산을 실현하는데서 그의 위력을 남김없이 발휘할수 있게 한다.

또한 그것은 생산력의 가장 적극적요소인 사람들의 로동을 최대한으로 절약할수 있게 하며 새사회제도의 승리를 위하여 가장 중요하고, 가장 주되는것인 로동생산능률을 끊임없이 높여나갈수 있게 한다.

따라서 사회주의하에서 근로자들의 의식성과 자각적열성을 높이기 위한 사상혁명을 힘있게 밀고나간다면 사회주의의 본질적우월성을 높이 발휘시키고 사회주의적생산의 온갖 잠재력과 가능성을 최대한으로 동원리용할수 있다.

또한 사회주의사회에서 적대분자들을 반대하는 계급투쟁과 함께 사상혁명을 강화하여 사회의 모든 성원들속에서 부르죠아사상잔재를 철저히 뿌리빼고 그들을 로동계급의 혁명사상, 맑스-레닌주의적세계관으로 튼튼히 무장시킨다면 끊임없이 발전하는 생산력의 요구에 적응하게 사회주의생산관계를 완성하고 확립된 토대에 맞게 상부구조를 발전시켜나갈수 있으며 토대에 대한 상부구조의 작용을 계속 강화하여나갈수 있다.

특히 사회주의하에서 확대재생산을 촉진하고 경제발전의 속도를 높이는데 커다란 작용을 노는 인민경제계획화의 발전, 사회적분업과 협동생산의 정확한 조직, 생산력의 옳은 배치, 인민경제구조와 부문구조의 완성들도 다 사상혁명을 힘있게 추진하여 사람들의 의식을 발전시키고 그들의 자각적열성과 창의창발성을 높이 발휘시키면서 국가의 경제조직자적기능을 부단히 높인다면 성과있게 해결될수 있다.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사회주의사회에서 대중의 로력적열성과 창발성은 기술발전과 결합될 때 참다운 위력을 발휘할수 있다.

사회주의사회에서는 기술발전을 위한 무한한 가능성이 열려져있으며 대중은 기술발전에 절실한 리해관계를 가지고 기술혁명에 적극적으로 참가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기술혁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기술혁명, 이것은 착취에서 해방된 우리 인민을 고된 로동에서 해방하여 일은 헐하게 하면서도 더 많은 물질적부를 생산할수 있게 하며 인민들의 생활을 더욱 넉넉하고 문명하게 만드는 중요한 혁명과업입니다.》 (《김일성저작선집》, 제3권, 108페지)

사회주의사회에서는 기술을 발전시키는데 전국가적력량이 돌려지며 새기술을 창조하고 생산에 도입하는 사업이 전당적, 전군중적 운동으로 힘있게 벌어지게 된다. 사회주의건설이 진척될수록 기술혁신운동은 더욱더 광범히 전개되며 생산발전에서 기술의 역할은

커진다.

우리가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에 확고히 의거하여 기술혁명을 힘있게 밀고나간다면 인민경제를 현대적기술로 부단히 개조하고 생산의 기술장비를 끊임없이 강화할수 있으며 생산단위들사이에서 로동조건의 차이를 짧은 기간내에 없앨수 있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기술을 혁신하고 새로운 기술을 창조하여 나라의 물질생산기술적토대를 튼튼히 축성해나갈 때 사회주의제도에 상응하는 사회주의생산력을 창설할수 있으며 경제발전의 급속한 전진을 보장할수 있다.

결국 사회주의하에서 생산을 높은 속도로 끊임없이 장성시켜나가는가 못나가는가 하는것은 사회주의사회발전의 합법칙성을 어떻게 인식하며 사상혁명과 기술혁명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추진시켜나가는가 하는데 달려있는것이다.

만일 맑스-레닌주의당의 정확한 령도밑에 근로자들속에서 사상혁명을 힘있게 추진하여 사람들의 사상의식을 발전시키고 자각적열성과 창의창발성을 불러일으켜 사회주의하에서 부단히 증대되여가는 물질적 및 정신적 력량을 전면적으로, 가장 효과있게 리용하며 기술혁명을 줄기차게 전개하여 튼튼한 물질기술적토대를 닦아나가면 경제가 발전하고 생산규모가 커진 조건에서도 계속 빠른 속도로 생산을 발전시켜나갈수 있다.

김일성동지께서 교시하신바와 같이 사회주의건설이 진척되여 경제가 발전하고 생산규모가 커질수록 생산장성의 예비는 더욱더 많아지며 따라서 끊임없이 전진하고 끊임없이 높은 속도로 발전하는것은 사회주의경제법칙이다.

경제가 발전하고 그 규모가 커질수록 예비가 많아지고 생산장성의 속도가 더욱 빨라진다는 사회주의생산발전에 관한 혁명적리론은 전세의 애국자이시며 민족적영웅이시며 백전백승의 강철의 명장이시며 국제공산주의운동과 로동운동의 탁월한 령도자의 한분이신 4천만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 계속혁명의 사상이 가져다준것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계속혁명의 사상에 기초하여 사회주의건설의 과업을 제기하시고 그 해결을 위한 혁명적방도들을 밝히시였을뿐만아니라 사회주의혁명수행에서 고도로 앙양된 근로자들의 정치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지체없이 사회주의건설을 위한 장엄한 투쟁에로 동원하시였다.

김일성동지의 현명하고도 탁월한 령도와 우리 근로자들의 영웅적투쟁에 의하여 사회주의건설에서는 대고조가 일어났으며 공업생산은 력사상 류례없는 높은 속도로 발전하여왔다.

김일성동지께서 밝히신 혁명적경제리론은 사회주의건설이 진척되여 경제가 발전하고 생산규모가 커진 조건에서도 변함없이 확대재생산의 높은 증가속도를 보장하고 공산주의의 광명한 미래를 향하여 계속 줄기차게 달려나아감으로써 혁명을 끝까지 철저히 수행하려는 견결한 혁명적립장을 표현하고있다.

김일성동지께서 천명하신 경제리론에는 또한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에 대한 그이의 철석같은 확신이 반영되여있다.

사회주의사회의 발전과 그 합법칙성에 대한 옳은 인식이 없이는, 또한 사상혁명과 기술혁명수행에서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에 철저히 의거하지 않고서는 도대체 사회주의생산발전에 관한 혁명리론, 혁명사상을 제기조차 할수 없으며 따라서 그의 위대한 생활력도 발양시킬수 없는것이다. 사회주의생산발전에 관한 혁명리론의 실현은 모든 근로자들을 교양개조하기 위한 사상혁명에서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어떻게 발양시키는가, 기술혁명수행에서 사회주의가 열어

주는 유리한 조건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리용하는가 하는데 전적으로 달려있다. 실로 이 리론에는 사회주의의 우월성과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종국적승리에 대한 김일성동지의 확고한 신념이 깃들어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진척으로 인하여 제기된 가장 절실한 문제이며 아직 그 누구도 해명하지 못한 경제발전의 문제가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의하여 처음으로 밝혀진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운명을 좌우하는 이 중대한 문제는 오직 사회주의의 기초가 세워진 다음에도 혁명을 계속하여야 한다는 새로운 사상을 천명하시고 당과 로동계급을 사회주의, 공산주의 승리의 길로 확신성있게 인도하고계시며 확고한 주체적립장에서 현시기 국제공산주의운동과 로동운동 앞에 나서고있는 새로운 원칙적문제들을 독창적으로 능숙하게 해결해나가고계시는 우리 시대의 탁월한 맑스-레닌주의자이신 김일성동지에 의해서만 빛나게 해결될수 있었다.

2

우리 나라에서의 경제건설경험은 사회주의생산발전에 관한 김일성동지의 리론이 사회주의사회의 합법칙성을 가장 정확히 일반화한것으로서 사회주의 경제발전의 본질적요구와 우리 나라의 구체적실정에 완전히 부합되는 혁명리론이라는것을 뚜렷이 확증하여주고있다. 김일성동지의 혁명리론, 혁명사상은 지금 수백만 근로대중에 의하여 접수됨으로써 위대한 힘으로, 거대한 물질적 력량으로 전변되고있다.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력사적인 당대표자회에서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당의 전략적로선을 제시하시고 우리의 전체 로동계급과 모든 근로자들을 그 관철을 위한 장엄한 투쟁에로 조직동원하시였다.

수령께서는 당중앙위원회 제4기 제16차전원회의에서와 그에 앞서 있은 함흥지구에 대한 현지지도에서 당의 이 혁명적로선을 철저히 집행하기 위하여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혁명적대고조를 일으킬것을 호소하시였으며 전국의 모든 근로자들을 천리마의 대진군에로 다시한번 힘차게 불러일으켜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지교시를 심장으로 받들고 용기백배하여 일떠선 룡성의 기계전사들을 비롯한 전국의 수많은 공장, 기업소 로동자들은 천리마의 기세로 내달려 지난해 증산과제를 포함한 계획을 당창건기념일전으로 빛나게 완수하였으며 절대다수의 공장, 기업소들이 년간계획을 한달이상 앞당겨 완수하였다.

그리하여 지난해 큰물로 인한 적지않은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전해에 비하여 공업생산을 117%로 높이는 기적적성과를 달성하였다.

력사적인 당대표자회결정을 관철하는 첫해투쟁에서 빛나는 성과를 이룩한 우리의 영웅적로동계급과 전체 근로자들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계속 사회주의건설의 혁명적대고조를 견지하고있으며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혁신적성과를 달성하고있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혁명적대고조를 계속 견지하라!》는 당의 호소를 높이 받들고 한사람같이 떨쳐나선 우리 로동계급은 높은 창발성과 헌신성을 발휘함으로써 금년 상반년계획수행에서 빛나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특히 하반년계획수행에 들어서면서부터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는 더욱 드센 혁신의 불길을 높이고있으며 눈부신 성과들을 달성하

고있다. 우리는 올해에 국방력을 더욱 강화하면서도 공업생산을 124%이상으로 높이게 될것이며 석탄, 화학비료, 주요 유색금속, 목재 생산을 비롯한 일련의 공업부문들에서는 7개년계획의 고지들을 능히 점령하게 될것이다.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혁명적대고조와 그 행정에서 이루어진 이 모든 성과들이 공업생산규모가 과거와는 비할바없이 커진 조건에서 즉 1948년에 비하여 1967년에 22배로 커진 조건에서 이룩되였다는것을 고려할 때 이것은 실로 혁신적인 성과라고 말하지 않을수 없다.

이 모든것은 공업이 일정한 수준에 올랐다고 하더라도 거기에다 살을 붙이고 근로자들의 사상의식을 높여 계속 혁신을 일으킨다면 경제의 높은 장성속도를 보장할수 있다는 김일성동지의 혁명적경제리론의 정당성을 잘 말하여주고있다.

우리 시대의 가장 탁월한 맑스-레닌주의자이시며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생산발전에 관한 혁명적경제리론을 처음으로 세상에 천명하심으로써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대로를 활짝 열어놓으시였으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실천에 불멸의 공헌을 하시였다.

사회주의나라들이 자본주의에서 벗어나 사회주의의 길에 들어선 때로부터 벌써 긴 세월이 흘렀다.

이 기간에 사회주의나라들에서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서 커다란 성과를 달성하였으며 자본주의에 비한 자기의 결정적우월성을 증시하였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이 멀리 앞으로 전진한 현시기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고있는 나라들앞에는 새롭게 해명하여야 할 많은 중요한 문제들이 제기되고있다.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는가 하는데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키는가 못 시키는가,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계속 성과적으로 건설해나가는가 못 나가는가 하는것이 달려있다.

김일성동지께서 밝혀주신 사회주의생산발전에 관한 혁명리론은 이러한 원칙적문제들중의 하나에 가장 정확한 해답을 준것이다.

맑스-레닌주의창시자들은 과학적사회주의의 전모를 밝히면서 사회주의하에서는 생산이 계통적으로 급속히 장성하게 된다는것을 론증하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경제가 발전하고 그 규모가 방대해진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조건에서도 생산의 부단하고도 고속도의 장성이 합법칙적이며 필연적이라는것을 리론실천적으로 증명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 새롭게 천명하신 사회주의경제법칙의 거대한 의의는 무엇보다도 그것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승리를 앞당기게 하는 길을 개척하였다는데 있다.

사회주의건설이 진척되고 경제규모가 방대해진 사회주의건설의 현단계에서 근로자들의 혁명적의식을 발전시키고 우리의 전진운동을 촉진시키는데 있어서 주요한 장애물로 되는것은 소극성과 보수주의, 사회주의생산발전에 관한 수정주의리론이다.

오늘 사회주의건설에서 소극성과 보수주의는 경제가 일정한 수준에 이르면 예비가 적어지고 높은 전진속도를 보장할수 없다는 옳지 못한 견해에 사로잡혀 사회주의경제가 빨리 나가는것을 두려워하는데서, 경제발전속도를 높이기 위하여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고있는데서 나타나고있다. 소극분자들과 보수주의자들은 경제규모가 커진 조건에서 그전처럼 공업의 높은 장성속도

를 보장할수 없다고 하면서 계획을 좀 낮추려 하였으며 난관에 굴복하고 혁신을 두려워하면서 대중의 장엄한 전진운동을 방해하려 하였다.

사회주의생산발전에 관한 수정주의리론과 그 발현인 소극성과 보수주의를 격파하지 않고는 사회주의건설의 혁명적대고조를 계속 견지할수 없으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성과적으로 촉진시킬수 없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경제의 높은 발전단계에서도 생산이 계속 고속도로 부단히 장성하는것이 객관적필연성으로 된다는것을 밝히심으로써 경제가 일정한 수준에 오르면 예비가 적어지고 생산속도가 떠진다는 《리론》이 맑스-레닌주의경제리론과는 아무런 인연도 없는 반동적인 리론이며 경제가 제자리걸음을 하고 빨리 나가지 못하는것을 합리화하기 위하여 꾸며낸 수정주의적 궤변이라는것을 똑똑히 보여주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또한 생산발전에 관한 경제법칙을 천명하심으로써 혁명과 건설의 명확한 전망과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종국적승리에 대한 확신성으로 전당과 로동계급을 무장시키시였다.

김일성동지에 의하여 밝혀진 사회주의경제발전법칙은 인류의 리상인 공산주의사회건설을 위하여 떨쳐나선 수백만대중에게 새로운 힘과 용기를 안겨주고있으며 그들을 로력적위훈에로 힘차게 고무하고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또한 생산발전에 관한 경제법칙을 밝히시여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전면적으로 발양시키시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광활한 대로를 열어놓으심으로써 사회주의의 위신을 더한층 높였으며 세계인민들속에서 그 견인력을 더욱 강화하였다.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사회주의경제발전법칙을 새롭게 천명하신것은 맑스-레닌주의경제과학의 발전에서도 실로 획기적인 의의를 가진다.

지금까지 정치경제학리론에는 사회주의경제가 발전하고 물질기술적토대가 강화될수록 생산장성을 위한 예비가 더욱 많아지고 증가속도가 높아진다는 문제가 해명되여있지 못하였다. 뿐만아니라 지금까지의 경제학리론은 맑스-레닌주의의 혁명적원칙들과 혁명정신을 옳게 반영하지 못하고있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맑스-레닌주의의 기본명제들과 사회주의건설의 혁명적실천으로부터 출발하여 사회의 경제발전법칙을 천명하심으로써 사회주의정치경제학을 가일층 발전시키시였으며 수정주의정치경제학리론에 대치되는 혁명적사회주의정치경제학리론을 창시하시였다.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생산발전에 관한 경제법칙을 발견하시고 천명하심으로써 맑스-레닌주의경제리론의 순결성을 견결히 고수하시였을뿐아니라 사회주의경제의 높은 단계에서 그것을 빛나게 발전시키시고 풍부화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종국적승리를 보장하는데서 그리고 사회주의경제리론을 발전시키는 분야에서 맑스-레닌주의보물고에 탁월한 기여를 하시였다.

우리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영광스러운 로정을 앞당기게 하는데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위한 우리의 전진운동을 힘차게 다그치는데 있어서 매우 중대한 의의를 가지는 이 경제발전의 리론이 김일성동지에 의하여 처음으로 우리 나라에서 밝혀진것에 대하여 높은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소리높이 자랑한다.

3

사회주의건설이 진척될수록 예비가 많아지고 확대재생산의 높은 속도가 계속 보장된다는 김일성동지의 경제사상은 그이의 위대한 혁명사상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김일성동지의 이 혁명리론, 경제사상에는 조선혁명의 전국적승리를 보장하고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며 세계혁명의 발전에 이바지할데 대한 그이의 위대한 구상과 깊은 뜻이 스며있다.

사회주의생산발전에 관한 김일성동지의 이 리론은 우리 나라와 같은 특수한 조건에서만, 또는 사회주의사회발전의 일정한 단계에서만 의의와 생활력을 가지는것이 아니다. 그것은 사회주의의 기초가 세워지고 대규모의 현대적공업을 가지고있는 모든 나라들에서 그리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전행정에서 계속 위대한 생활력을 나타내는 항구적인것이다.

그렇기때문에 사회주의생산발전에 관한 이 리론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하는것은 우리들앞에 나서고있는 가장 중요한 혁명과업이며 또 가장 영예로운 임무로 된다.

김일성동지께서 천명하신 경제법칙의 생활력을 발양시키고 사회주의확대재생산의 속도를 계속 높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촉진시키는데서 가장 중요한것은 사회주의건설의 심화발전과 더불어 모든 근로자들속에서 정치사업을 더욱더 강화하는것이다.

사회주의건설이 진척되면 될수록 사회발전에서 사람들의 의식이 노는 역할이 커지기때문에 정치사업을 더 잘하고 근로자들의 자각적열성을 더욱 높이 발휘시켜야만 사회주의확대재생산의 속도를 더욱 빠르게 할수 있으며 공산주의를 위한 우리의 전진운동을 힘차게 촉진할수 있다.

우리는 사회주의건설의 진척에 따라 모든 근로자들속에서 정치사업을 더욱더 강화하여 모든 사람이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더욱 똑똑히 깨닫고 사회주의, 공산주의에 대한 혁명적자부심을 가지며 그들이 자기의 임무를 명백히 자각할수 있게 함으로써 누구나 할것없이 높은 혁명적열의를 가지고 당정책과 맡겨진 혁명과업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 이악하게 달라붙도록 하여야 한다.

김일성동지의 혁명리론을 실현하고 사회주의경제발전을 보장하기 위한 정치사업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것은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확고히 세우는것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정치사업에서 가장 중요한것은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확립하는것이다.

당의 유일사상이란 사상에서 주체, 정치에서 자주, 경제에서 자립, 국방에서 자위의 원칙으로 일관된 우리 당의 사상이다. 우리 당의 사상, 우리 당의 정책은 조선혁명을 완성하고 조선인민을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가장 정확하게 이끄는, 우리 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된 맑스-레닌주의이다.》

모든 사람들속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칠저히 세워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더욱 튼튼히 무장시켜야만 경제분야에서 수정주의, 좌경기회주의, 사대주의를 뿌리뽑고 수령의 혁명리론외에는 그 어떤 경제건설리론도 모른다는 사상관점과 태도, 확고부동한 신념을 가질수 있다. 또한 모든 근로자들속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세워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더욱 튼튼히 무장시킴으로써만 수정주의경제리론의 영향과 그 발현인 소극성과 보수주의를 철저히 불살라버릴수 있으며 사회주의건설의 혁명적대고조를 계속 견지해나갈수 있다.

김일성동지께서 밝히신 사회주의경제

법칙의 생활력을 전면적으로 발양시키게 하는 기본조건으로 되는것은 사회주의공업화와 기술혁명을 힘차게 추진하여 자립적민족경제의 형태로 사회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축성해나가는것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의물질기술적토대를 축성하는데서 자립적민족경제의 건설이 가지는 의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고전적규정을 주시였다: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하지 않고서는 사회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를 쌓을수 없으며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성과적으로 건설할수 없습니다.

사회주의를 건설하려면 반드시 기계제작공업을 핵심으로 하는 위력한 중공업기지를 창설하고 이에 기초하여 경공업, 농업, 운수 등 인민경제 모든 부문을 현대적기술로 장비함으로써 사회주의법칙의 요구에 따라 근로자들의 복리를 전면적으로 높일수 있는 강력한 사회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를 쌓아야 합니다. 이러한 사회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는 민족적차이가 남아있고 국가가 존재하는 한 매개 민족국가단위로 쌓아야 하는것입니다. 그러므로 매개 나라가 경제건설과 국방건설 및 인민생활의 다양하고 부단히 장성하는 중공업 및 경공업 제품과 농업생산물에 대한 수요를 국내생산으로 원만히 충족시킬수 있도록 다방면적으로 발전되고 최신기술로 장비된 그리고 자체의 민족간부와 자기 나라의 자연부원과 원료, 자재에 의하여 움직일수 있는 종합적이며 자립적인 민족경제를 건설하여야 튼튼한 사회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를 쌓아놓았다고 말할수 있습니다.》 (《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537~538페지)

사회주의물질기술적토대를 자립적민족경제의 형태로 축성하여야만 경제가 발전하고 그 규모가 커진 조건에서도 인민경제발전의 균형을 주동적으로 정확히 보장하고 사회주의경제를 계획적으로 급속히 발전시켜나갈수 있다.

또한 사회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를 종합적이며 자립적인 경제단위로 축성하고 인민경제발전의 균형을 적극적으로 유지함으로써만 나라의 자연부원을 최대한으로 동원리용할수 있으며 과학기술과 문화를 빨리 발전시키고 근로자들의 기술문화수준을 부단히 높일수 있으며 그들을 전면적으로 발전된 새형의 인간으로 키울수 있다.

김일성동지께서 밝히신 사회주의경제법칙의 생활력을 발양시키게 하는 기본담보인 자립적민족경제의 건설을 더욱 추진시키기 위하여 우리는 사회주의공업화를 촉진하며 인민경제의 모든 부문에서 기계화, 자동화, 전기화, 화학화를 기본내용으로 하는 기술혁명을 더한층 힘차게 밀고나가야 한다.

천리마운동, 천리마작업반운동을 심화발전시켜나가는것은 김일성동지께서 밝혀주신 사회주의생산발전에 관한 혁명리론이 자기의 힘과 생활력을 남김없이 발휘할수 있게 하는 가장 중요한 방도의 하나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천리마운동은 많은 사람들을 계속 전진하고 계속 혁신하는 사회주의건설의 적극분자로 만드는 하나의 공산주의교양운동이며 많은 사람들이 대중적영웅주의를 발양하여 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가게 하는 공산주의적전진운동입니다.》(《사회주의건설의 위대한 추동력인 천리마작업반운동을 더욱 심화발전시키자》, 7페지)

천리마운동의 기본목적은 모든 사람들을 교양개조하여 적극분자들의 대렬을 확대하고 대중적영웅주의를 높이 발양시킴으로써 전례없는 빠른 속도로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려는데 있다.

우리는 천리마운동, 천리마작업반운동을 더욱 튼튼히 틀어쥐고나감으로써 모든 사람들을 교양개조하여 사회주의건설의 적극분자로 만들며 많은 사람들이 높은 열성과 창발성을 발휘하여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힘차게 전개해나

가도록 하여야 한다.

김일성동지께서 밝혀주신 사회주의생산발전에 관한 혁명리론의 무궁무진한 생활력을 높이 발양시키기 위한 투쟁에서 주되는 관심을 돌려야 하는것은 대안의 사업체계를 견결히 관철하여 계획화를 비롯한 경제지도사업을 생산력발전의 요구에 맞게 부단히 개선하여나가는것이다.

사회주의건설이 진척되여 경제의 규모가 커지고 부문간의 련계가 다양해질수록 대중의 창발성을 높이면서 동시에 국가의 중앙집권적, 계획적 지도를 더욱 강화하여야만 경제관리운영수준을 높이고 인민경제에 대한 지도와 관리를 더욱 잘해나갈수 있다.

김일성동지의 직접적발기와 지도밑에 창조된 대안의 사업체계는 경제관리에서 민주주의중앙집권적원칙의 관철을 가장 훌륭히 보장케 함으로써 대규모경제로 장성강화된 우리 인민경제를 가장 합리적으로, 능률적으로 관리운영할수 있게 한다.

김일성동지께서 교시하신바와 같이 경제관리를 개선하고 계속 높은 속도를 보장하기 위하여 우리는 사회주의적이며 맑스-레닌주의원칙에 립각한, 우리 나라 사회주의건설에 가장 적합한 대안의 사업체계를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더욱 철저히 관철해야 한다.

대안의 사업체계를 도입하여 경제관리를 개선하며 전반적사회주의건설을 추진시키는데서 가장 중요한 과업의 하나는 계획화에서 우리 당의 일원화, 세부화 방침을 관철하는것이다.

김일성동지의 직접적발기에 의하여 창조된 일원화계획체계와 세부계획화는 국가계획기관들의 주관주의와 생산자들의 기관본위주의, 지방본위주의를 철저히 없애고 사회전반의 리익의 견지에서 국가의 요구와 생산자들의 창발성을 가장 훌륭히 배합시켜 현실적이면서 동원적이고 과학적인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성과적으로 실현할수 있게 하는 계획화방도이다.

경험은 계획의 일원화와 세부화가 국가에서 요구하는 대로, 우리 나라 사회를 발전시키는데 필요한 대로 인민경제발전의 종합적균형을 보장할뿐아니라 모든 부문들과 기업소들을 세부분에 이르기까지 다 잘 맞물릴수 있게 한다는것을 명백히 증명하여주고있다.

우리는 대안체계의 요구대로 계획의 일원화와 세부화를 정확히 실현하여 인민경제에 대한 지도와 관리를 부단히 개선하고 사회주의경제를 더욱 계획적으로, 균형적으로 발전시켜나가야 한다.

김일성동지의 현명하고도 탁월한 령도밑에 우리가 이와 같은 과업들을 성과적으로 수행하여나갈 때 사회주의생산발전에 관한 경제법칙의 위대한 생활력을 최대한으로 발양시킬수 있으며 공업이 발전하고 생산규모가 커진 조건에서도 사회주의확대재생산의 속도를 끊임없이 높일수 있다.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가 이와 같은 과업들을 성과적으로 실현하여나감으로써만 공산주의의 휘황한 앞날을 향하여 계속 힘차게 전진해나갈수 있다.

우리는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이시며 국제공산주의운동과 로동운동의 탁월한 령도자의 한분이시며 우리 시대의 걸출한 맑스-레닌주의자이신 김일성동지의 령도를 받는 높은 긍지와 자부심을 깊이 간직하고 그이께서 밝혀주신 사회주의경제건설리론을 높이 받들고 전진, 전진, 투쟁 또 전진함으로써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와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완성을 확신성있게 앞당겨나아갈것이다.

반제반미혁명투쟁을 새로운 승리에로 이끄는 가장 정확한 투쟁전략

현 명 준

우리 시대의 위대한 맑스-레닌주의자이시며 혁명의 탁월한 령도자이시며 4천만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금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스무돐기념경축대회보고와 아세아아프리카라틴아메리카인민단결기구기관리론잡지 《뜨리꼰띠넨딸》에 발표하신 론문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인민들의 위대한 반제혁명위업은 필승불패이다》에서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가 시종일관 확고히 견지하고있는 반제반미투쟁의 원칙적립장과 투쟁방침을 심오히 천명하시면서 국제적규모에서 반제반미투쟁을 더욱 힘있게 전개하며 세계혁명운동의 승리를 급속히 촉진시키기 위한 새로운 전략적방침을 제시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하는 나라 인민들이 달라붙어 미제의 각을 뜰데 대한 독창적인 새로운 투쟁전략을 제시하심으로써 현시기 반제반미투쟁의 가일층의 확대발전과 세계혁명운동을 급속히 추진시키는데서 해결을 기다리는 절박한 문제들에 대한 해답을 주시였으며 싸우는 인민들에게 투쟁과 승리의 앞길을 환히 밝혀주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 새롭게 제시하신 전략적방침은 그이께서 조선혁명을 령도하여오신 전기간에 걸쳐 시종일관 견지하고계시는 철저한 반제혁명사상의 구현이며 그이의 현명한 령도하에 조선인민이 반제반미투쟁에서 이룩한 력사적경험과 세계혁명적인민들의 투쟁경험을 분석총화한데 기초한것이다.

혁명하는 나라 인민들의 새로운 투쟁전략은 조국통일과 조선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위하여 투쟁하는 우리 인민에게 필승의 신념과 투쟁결의를 더욱 굳게 하여주는 위대한 승리의 기치로 되고있다. 그것은 또한 미제를 종국적으로 때려부시고 세계혁명운동을 급속히 촉진시키는 가장 정확한 방침으로서 세계혁명적인민들에게 투쟁의 앞길을 밝혀주며 승리의 신심과 용기를 안겨주는 불패의 혁명적무기로 되고있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전세계혁명적인민들은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투쟁로선에 고무되여 더욱 용감히 싸우고있으며 자기들에게 항상 투쟁의 무기를 안겨주고계시는 김일성동지를 《전세계혁명운동의 령도자》, 《피압박인민들의 붉은 태양》, 《세계혁명의 위대한 수령》으로 한결같이 우러러 흠모하면서 그이를 따라배우는것을 최대의 영광으로 생각하고있다.

* *

미제국주의를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하는것은 오늘 사회주의나라들과 전세계평화애호인민들의 공동의 의무이며 그들앞에 나선 가장 선차적인 혁명과업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제국주의를 반대하여 투쟁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세계제국주의의 두목인 미제국주의에 공격을 집중하는것이 중요하다. 미제국주의는 전세계에 침략의 마수를 뻗침으로써 세계 모든 인민들의 공동의 원쑤로 되였다.》(《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521페지)

미제국주의는 세계제국주의의 두목으로서 침략과 전쟁의 주되는 세력이며 현대식민주의의 아성이며 국제헌병이며 세계인민들의 가장 흉악한 원쑤이다.

지구상에는 미제의 침략의 마수가 뻗

치지 않은 곳이 없으며 미제국주의에 의하여 침략의 위협을 받지 않고있거나 자기의 자주권을 침해당하지 않고있는 나라가 없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세계의 모든 지역에 침략의 마수를 뻗치고있다. 미제의 침략의 마수가 뻗치는 모든 곳에서 인민들의 피가 흐르고있으며 불행과 고통이 빚어지고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이 멸망하여가는 저들의 처지로부터의 출로를 침략과 전쟁에서 찾으려고 필사적으로 발악하며 온 세계를 자기의 예속밑에 넣으려는 악랄한 목적을 추구하고있는 조건에서 미제를 반대하는 견결한 투쟁을 떠나서는 혁명위업의 승리에 대해서도, 인류의 진보와 세계의 평화에 대해서도 말할수 없다.

미제국주의를 반대하여 투쟁하는것은 사회주의나라들을 비롯한 세계진보적인민들의 사활적문제이며 한순간도 미룰수 없는 절박한 과업이다.

반미투쟁을 힘있게 추진시키며 놈들의 멸망을 결정적으로 촉진시키기 위하여서는 세계의 모든 반제력량이 가장 광범한 반미공동전선과 행동통일을 실현하며 이르는 곳마다에서 인민들이 반미투쟁을 주동적으로 더욱 힘있게 조직전개하는것이 중요하다.

김일성동지께서는 공화국창건 스무돐기념경축대회보고와 아세아아프리카라틴아메리카인민단결기구 기관리론잡지 《뜨리꼰띠넨딸》에 발표하신 론문에서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광범한 반제력량이 단합하여 미제에 강력한 타격을 주며 압력을 가할데 대하여 강조하시면서 특히 혁명하는 모든 나라들이 달라붙어 미제의 각을 뜰데 대한 새로운 투쟁전략을 천재적으로 천명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더우기 작은 나라들이라고 하더라도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많은 나라들이 힘을 합쳐 싸우면 인민들은 결정적으로 우세한 력량으로 아무리 강대한 원쑤라도 능히 때려눕힐수 있다. 혁명하는 나라 인민들이 함께 달라붙어 미제가 침략의 마수를 뻗치고있는 모든 곳에서 그의 왼팔과 바른팔을 뜯어내고 왼다리와 바른다리를 뜯어내며 나중에는 머리를 잘라버려야 한다. 지금은 미제국주의자들이 허장성세하지만 세계혁명적인민들이 달라붙어 각을 뜨면 미제국주의는 맥을 추지 못할것이며 결국은 녹아나고 말것이다. 우리는 작은 나라들을 각개 격파하려는 미제의 전략에 대하여 작은 나라들이 달라붙어 미제국주의의 두족을 각개 절단하는것으로 대답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는것이 미제를 타승하기 위한 작은 나라들의 투쟁전략이라고 말할수 있다.》(《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인민들의 위대한 반제혁명위업은 필승불패이다》)

김일성동지께서 새롭게 천명하신 혁명하는 작은 나라들이 달라붙어 미제의 두족을 각개 절단할데 대한 방침은 현시기 국제정세발전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과 세계혁명적인민들의 무궁무진한 힘에 대한 깊은 확신 그리고 미제의 침략정책에 대한 정확한 평가에 기초하여 작성된, 반제반미투쟁과 세계혁명발전의 객관적요구를 가장 정확히 반영한 혁명적인 투쟁전략이다.

인류의 력사는 오늘처럼 광범한 인민대중이 제국주의를 불사르고 새세계를 창조하기 위한 위대한 혁명투쟁에 궐기한 례를 모른다.

다 아는바와 같이 오늘 세계인민들의 반제반미투쟁은 모든 대륙을 휩쓸고있으며 인민들의 혁명적진출은 전례없이 고조되고있다.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인민들의 투쟁은 특히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에서 그 어느때보다도 세차게 일어나고있으며 투쟁의 창끝은 더욱더 미제에게 돌려지고있다.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인민들을 비롯한 세계혁명적인민들의 강력한 반제반미투쟁에 의하여 미제는 저들이 발붙이고있는 모든 곳에서 호되게 얻어맞아 녹아나고있다. 수세기동안 민족적압박과 천대와 고역에서 시달리던 3대륙의 수억만 인민들은 제국주의, 식민주의를 매장하며 이 대륙에서 제국주의의 생명선을 끊어버리기 위한 힘찬 투쟁에 일떠서고있다. 3대륙인민들의 해방투쟁은 사회주의를 위한 국제로동

계급의 혁명투쟁과 함께 우리 시대의 2대혁명력량을 이루고있으며 세계제국주의를 매장하는 하나의 흐름에 합류되고있다.

반제반미투쟁의 전례없는 앙양, 그것은 현시대의 기본추세이며 중요한 특징이다. 제국주의, 특히 미제국주의를 종국적으로 매장하기 위한 세계혁명적인민들의 강력한 진출은 그 무엇으로도 막을수 없는 위대한 힘으로 더욱더 자라나고있다.

세계의 광범한 지역에서 빠른 속도로 장성하는 인민들의 반제반미투쟁은 그것을 더욱 힘있게 추진시키며 새로운 승리에로 이끄는 세련되고 독창적인 투쟁전략을 요구하고있다.

반제반미투쟁을 새로운 승리에로 이끄는 투쟁전략에 대한 요구는 또한 오늘 인민들의 강력한 혁명투쟁에 의하여 이미 칠성판에 오른 미제를 괴수로 한 제국주의자들의 날로 격화되는 침략책동을 성과적으로 분쇄하는것과 관련하여 날카로운 문제로 제기된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사회주의나라들을 반대하고 민족해방력량을 탄압하며 세계를 재패하기 위한 가장 악랄하고 음흉한 전략에 집요하게 매달리고있다.

김일성동지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미제는 큰 나라들과는 될수록 관계를 악화시키지 않고 대결을 피하면서 작고 분열된 혁명적인 사회주의나라들과 신생독립국가들을 각개격파하려 하고있다. 또한 미제는 사상적으로 나약하고 혁명을 하지 않으며 하며 제국주의와의 무원칙한 공존만 부르짖으면서 제국주의와의 타협정책에로 나아가며 인민들속에서 제국주의에 대한 환상을 퍼뜨리며 제국주의와 사이좋게 살기를 원하는 나라들에 대해서는 사상정치적공세를 강화하여 이 나라들을 내부로부터 와해시키려는 전략으로 나오고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저들의 이러한 침략적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그 어느때보다도 군사비를 대대적으로 늘이는 한편 세계의 수많은 지역들에 사회주의나라들과 진보적나라들을 반대하고 침략하기 위한 군사기지들을 설치하고있으며 침략적군사동맹을 강화하고있다. 놈들은 전면전쟁과 핵전쟁준비를 서두르면서 《국부전쟁》과 《특수전쟁》을 로골적으로 감행하고있다.

미제는 로골적인 무력침략과 함께 이른바 《최혜국》대우니, 《동서간의 접촉과 교류》니 하는 따위의 간판을 들고 일부 나라들에 침투하여 《자유화》와 《민주주의적발전》을 조장함으로써 인민들을 사상적으로 타락시키고 이 나라들을 내부로부터 파괴하려고 책동하고있으며 신생독립국가들을 반제전선에서 하나하나 떼여내기 위한 파괴활동과 전복음모를 더욱 악랄하게 감행하고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세계혁명력량을 반대하고 침략과 전쟁 정책을 추구함에 있어서 국제공산주의운동내부의 의견상이로 인한 복잡한 정세를 리용하고있다. 좌우경기회주의자들은 오늘 반제반미투쟁을 국제적규모에서 강력히 조직전개하는데서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있다.

제국주의와의 무원칙한 타협을 추구하는 로선과 제국주의를 반대한다고 큰소리만 치면서 실제행동에서는 제국주의와 싸우기를 두려워하는 뒤집어놓는 타협로선은 다같이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정책을 조장시키며 반제반미투쟁에 장애를 조성한다.

이 모든 사정은 현시기 반제반미투쟁을 힘있게 조직전개하기 위한 보다 능숙하고 세련된 독창적인 투쟁전략을 절박하게 요구하고있으며 세계혁명적인민들이 각기 자기의 위치에서 주동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투쟁할것을 요구하고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반제반미투쟁의 성과적발전과 세계혁명에 대한 높은 책임감으로부터 혁명하는 나라 인민들의 투쟁전략을 제시하심으로써 객관정세발전의 이 절박한 요구에 전면적인 해답을 주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 새롭게 천명하신 전략적방침은 이와 같이 반제반미투쟁과

세계혁명발전의 절박한 요구를 가장 정확히 반영한것으로서 미제의 세계전략을 분쇄하고 놈들의 서산일락의 운명을 더욱 촉진시키며 세계혁명운동의 결정적승리를 담보하는 가장 진공적이며 적극적인 전략이다.

미제의 군사정치적 및 경제적 취약성이 그 어느때보다도 심각히 드러나고있으며 그것을 반영하여 놈들이 각개격파전략으로 나오고있는 조건에서 혁명하는 나라인민들은 단합된 힘으로 미제의 두족을 각개 절단하는것으로 대답하여야 한다. 오직 이렇게 함으로써 미제의 세계전략을 성과적으로 분쇄하고 놈들을 종국적으로 멸망케 할수 있으며 혁명위업을 끝까지 수행할수 있다.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새로운 투쟁전략은 강도 일제와 미제를 때려눕힌 우리 인민과 반제반미투쟁에 떨쳐나선 세계혁명적인민들의 실천적경험에 의하여 그 정당성이 실증되고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경험은 아무리 작은 나라들이라고 하더라도 자기 인민의 힘을 믿고 그에 의거하며 주체를 세우고 견결히 일떠서 싸운다면 어떠한 제국주의침략세력도 능히 타승할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있습니다.》(《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우리 인민의 자유와 독립의 기치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강력한 무기이다》, 71페지)

일제의 조선강점으로 인하여 온 강토에 민족적비운이 서리고있던 시기에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하에 조선공산주의자들은 국가적후방도 없었고 정규적무력의 지원도 전혀 없었으며 국제혁명력량의 지원도 지금처럼 강하지 못한 극히 어려운 조건에서도 인민대중의 힘을 믿고 그에 튼튼히 의거하여 15성상에 걸치는 항일무장투쟁을 전개하였다. 항일유격대는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그이의 천재적인 군사전략과 령활한 전술에 의거함으로써 항상 주도권을 튼튼히 틀어쥐고 수십수백배에 달하는 일제침략자들에게 무리죽음을 주었으며 마침내 조국의 광복을 실현하는 영광스러운 승리를 이룩하였다.

항일무장투쟁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이어받은 우리 인민은 미제무력침공자들을 반대하는 조국해방전쟁에서 원쑤들에게 수치스러운 패배를 주고 조국의 영예와 자유를 빛나게 수호하였으며 세계인민들의 혁명운동발전에 거대한 기여를 하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 인민은 조국해방전쟁에서 위대한 승리를 쟁취함으로써 세계〈최강〉을 자랑하던 미제의 코대를 꺾어놓고 그 〈강대성〉에 대한 신화를 산산이 깨뜨려버렸으며 미제국주의자들이 내리막길에 들어서는 시초를 열어놓았습니다.》(우와 같은 책, 19페지)

우리 인민은 미제를 반대하는 조국해방전쟁에서 현대제국주의의 두목인 미제침략자들을 력사상 처음으로 때려눕힘으로써 당과 수령의 주위에 하나로 굳게 뭉친 우리 인민의 불패의 힘과 우리의 사회주의제도의 무궁무진한 생활력을 뚜렷이 시위하였으며 세계혁명적인민들의 반제반미투쟁에서 획기적인 전환의 시기를 열어놓았다. 전쟁에서의 우리 인민의 승리는 또한 견결한 반제반미투쟁의 혁명적립장을 견지하고 전체 인민이 하나로 뭉쳐 투쟁한다면 미제국주의자들을 능히 때려부시고 승리할수 있다는것을 전세계혁명적인민들에게 힘있게 보여주었다.

미제침략자들을 반대하는 투쟁에서 달성한 영웅적꾸바인민의 빛나는 승리 역시 비록 작은 나라들이라도 자기의 힘을 믿고 견결히 투쟁한다면 미제를 능히 때려부실수 있다는것을 여실히 보여준다.

오늘 영웅적반미구국항전에서의 웰남인민의 승리는 이 진리를 더욱 힘있게 확증하여주고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이 웰남인민의 완강한 투쟁에 의하여 웰남땅에서 완전히 패배하고 쫓겨나는것은 시간문제로 되고있다. 놈들은 웰남침략전쟁에 이미 근 55만명의 미제침략군

과 막대한 현대적군사장비를 투입하고 하루에 근 1억딸라의 군사비를 탕진하고있음에도 불구하고 더욱더 헤여나올수 없는 죽음의 구렁텅이에 깊이 빠져들어가고있다.

이 모든것은 미제국주의자들이 침략과 전쟁 정책에 필사적으로 매달리고있으며 놈들의 취약성이 어느때보다도 집중적으로 나타나고있는 오늘 혁명하는 나라 인민들이 힘을 합쳐 견결히 투쟁한다면 매 전선에서 결정적으로 우세한 힘을 가지고 미국놈을 때려눕힐수 있다는것을 보여준다.

❀ ❀

김일성동지께서 새롭게 제시하신 투쟁전략은 반제반미투쟁에서 주체를 세우고 철저하게 자기의 힘에 의거하여 주동적으로 싸워나갈것을 요구하는 가장 혁명적인 투쟁로선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큰 나라들에 대한 의존심을 가지고 가만히 앉아있어서는 혁명을 할수 없으며 다른 사람이 자기를 대신하여 혁명을 해줄수 없다는것은 너무나 자명하다. 작은 나라들도 주체를 세우고 인민대중을 묶어세워 희생을 두려워하지 않고 용감히 일어나 싸운다면 큰 적을 타승할수 있다.》(《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인민들의 위대한 반제혁명위업은 필승불패이다》)

주체를 세우고 자기 인민의 힘에 의거하여 투쟁하는것은 공산주의운동과 혁명운동의 합법칙적요구이다. 자기 나라 혁명은 어디까지나 자신이 책임지고 자기 인민의 힘에 의거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다른 사람이 자기를 대신하여 혁명을 해줄수는 없는것이다.

반제반미투쟁과 혁명투쟁을 얼마나 힘있게 추진시키며 승리를 보장하는가 못하는가 하는것은 매개 나라인민이 주인된 립장에서 투쟁을 얼마나 주동적으로 조직전개하는가에 달려있다.

오늘 혁명하는 작은 나라 인민들이 반제반미혁명투쟁에서 주체를 확고히 세우고 자기 인민의 힘에 의거하여 투쟁할데 대한 문제는 좌우경기회주의자들의 해독행위와 관련하여서도 더욱 절실하게 재기된다.

국제공산주의운동내에 대두한 좌우경기회주의자들의 해독행위는 반제반미투쟁의 성과적추진에 부정적영향을 미치고있다. 이것은 오늘 혁명하는 모든 나라 인민들앞에 반제반미투쟁과 혁명투쟁에서 그 어느때보다 주체를 세우며 자기의 힘을 믿고 더욱 주동적으로 투쟁하여나갈것을 절실하게 요구하고 있다.

그러므로 제국주의를 반대하고 혁명을 하려는 인민들은 반제반미투쟁에서 주체를 튼튼히 세워야 하며 남을 쳐다보지 말고 자기 인민의 힘에 의거하여 투쟁하여나가야 한다.

이렇게 할때에만 급변하는 정세하에서 자기의 실정에 맞게 투쟁을 주동적으로 조직해나갈수 있으며 어떠한 난관도 박차고 필승의 신념을 가지고 혁명투쟁을 성과적으로 추진시킬수 있다.

자기의 힘을 믿지 않고 남만 쳐다보면서 주동적으로 혁명투쟁을 조직전개하지 않는다면 자기 나라 혁명앞에 지닌 무거운 책임을 저버리게 되며 세계혁명에도 응당한 기여를 할수 없게 된다.

혁명하는 작은 나라들이 혁명투쟁을 성과적으로 추진시키기 위하여서는 그것을 저애하는 사대주의를 결정적으로 버려야 한다.

반제반미투쟁에서 사대주의는 미제를 과대평가하며 큰 나라들만 쳐다보면서 자기가 처한 위치에서 투쟁을 주동적으로 전개하지 않는데서 나타난다. 이러한 편향은 혁명투쟁에 극히 엄중한 후과를 초래하지 않을수 없다.

미제를 과대평가하게 되면 《공미》, 《숭미》 사상에 빠지게 되며 반미투쟁에

서 견결한 립장을 견지할수 없으며 승리의 신심과 용기를 가질수 없으며 결국 미제의 예속에서 영원히 벗어날수 없다.

김일성동지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우리는 미제국주의의 힘을 과소평가하여도 안되지만 결코 과대평가하여도 안된다. 지구상의 온갖 제국주의가 다 그러한것처럼 미제국주의도 계속 내리막길을 걷고있으며 더욱더 죽어가고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이 세계도처에서 침략과 전쟁 정책에 광분하고있지만 그것은 결코 미제의 강대성을 보여주는것이 아니라 놈들의 처지가 더욱더 어렵게 되였다는것을 보여주는것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반제반미투쟁에서 혁명하는 작은 나라들이 큰 나라들에 의존하려는 사대주의를 버려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미제국주의를 성과적으로 때려눕히자면 큰 나라나 작은 나라 할것없이 모든 나라들에서 미제에 타격을 가하여야 한다. 큰 나라들이 작은 나라들과 함께 미제를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하면 반제반미투쟁은 그만큼 힘있게 발전할것이며 미제를 더욱 성과적으로 때려부실수 있을것이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혁명하는 작은 나라들은 반제반미혁명투쟁에서 큰 나라들과 단결하기 위하여 노력하고있다. 그러나 큰 나라들이 아니면 미제를 때려부실수 없는것처럼 생각하는것은 잘못이다. 비록 작은 나라들이라도 굳게 단합하여 달라붙어 미국놈의 팔다리를 뜯고 머리를 잘라버리면 놈들은 망하지 않을수 없다.

반제반미투쟁을 성과적으로 추진시키며 미국놈의 각을 더 잘 뜯어내기 위하여서는 혁명하는 나라 인민들간의 전투적단결과 련대성을 강화하는것이 중요하다.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싸우는 인민들의 투쟁전략에는 광범한 반제력량의 전투적련대성을 강화할데 대한 원칙적요구가 일관되여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지금 미국놈들이 강하다고 호통을 치고있지만 룡성기계공장 로동계급이 작은 공작기계들을 가지고 큰 소재를 가공한것처럼 세계 여러 곳에서 그놈에게 달려들어 하나하나 각을 뜯어내면 녹아나지 않을수 없습니다.

…혁명을 위하여 싸우는 나라 인민들끼리 련대성을 강화하고 굳게 단결하여 적극적으로 투쟁하면 반드시 승리할수 있는것입니다.》(《사회주의건설의 위대한 추동력인 천리마작업반운동을 더욱 심화발전시키자》, 38~39페지)

김일성동지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오늘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인민들의 반제반미투쟁은 호상 지지하는 관계에 있다. 아프리카와 라틴아메리카가 자유롭지 못하면 아세아가 자유로울수 없으며 아세아에서 미제를 몰아내면 아프리카와 라틴아메리카 인민들의 해방투쟁에 유리하다. 미제를 반대하는 한 전선에서의 승리는 미제국주의의 힘을 그만큼 약화시키며 다른 전선에서의 승리를 더욱 촉진시킨다.

그러므로 혁명하는 나라 인민들은 미제가 발붙이고있는 모든 곳에서 힘을 합쳐 놈들에게 강력한 타격을 주어야 하며 이렇게 함으로써 미국놈들이 더는 맥을 추지 못하게 만들어야 한다.

김일성동지의 철저한 반제혁명사상으로 무장하고있는 우리 인민은 미제를 반대하는 모든 나라 인민들의 투쟁을 우리 혁명위업에 대한 지원으로 인정하면서 그것을 모든 힘을 다하여 적극 지원하고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세계의 혁명하는 나라 인민들의 투쟁을 백방으로 적극 지원할데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세계혁명을 위하여, 우리의 철천지원쑤인 미제를 때려부시기 위하여 혁명하는 나라 인민들을 적극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미국놈들을 하나라도 더 때려부실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우와 같은 책, 37폐지)

우리 인민은 세계의 혁명하는 나라 인민들과의 전투적련대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으며 반제반미투쟁의 기치를 높이 들고 미제를 반대하여 더 견결히 투쟁할것이다.

* *

오늘 세계의 혁명적인민들은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전략적방침을 자기들의 투쟁강령으로 삼고있으며 미제가 침략의 마수를 뻗치고있는 이르는 곳마다에서 놈들의 각을 뜯어내고 목을 잘라버리기 위한 세찬 투쟁을 벌리고 있다.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에서 미제침략자들을 때려엎고 내리막길에 들어서게 한 영웅적조선인민은 미국놈의 각을 뜯는 투쟁에서 앞장에 서 나아가고있다.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과 철저한 반제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한 우리 인민은 미제날강도들의 계속되는 도발책동을 걸음마다 분쇄함으로써 놈들에게 호된 타격을 주고있다.

미제침략자들은 제놈들의 무장간첩선의 우리 나라 령해침입사건으로 하여 조선에서 또다시 돌이킬수 없는 심대한 타격을 받았다. 이 사건을 통하여 미제의 취약성은 다시한번 여지없이 드러났고 놈들은 세계진보적인민들로부터 더욱 고립배격당하고있다. 우리 인민은 미제날강도들의 오만무례한 행동에 대하여 응당한 징벌을 가함으로써 놈들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 하는것을 세계인민들에게 보여주었으며 반제반미투쟁의 새로운 발전에 거대한 혁명적영향을 주었다. 이라크의 한 신문은 우리 인민의 원칙적립장에 대하여 정단을 표시하면서 «〈푸에불로〉호의 나포는 제국주의야수에 대처하기 위한 모범적인 정책이다. 조선은 우둔한 짐승을 어떻게 빠져나올지모를 덫에 몰아넣었다.»고 정당하게 썼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제놈들의 무장간첩선의 우리 나라 령해침입사건을 계기로 우리 나라에서 또다시 전쟁을 도발하려고 미친듯이 날뛰고있다. 미제의 무분별한 전쟁도발책동으로 인하여 우리 나라에는 임의의 시각에 전쟁이 또다시 일어날 긴박한 정세가 조성되고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그 어떤 모험적인 전쟁도발책동으로써도 우리 인민을 놀래울수 없으며 망해가는 자기들의 처지를 수습할수 없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위에 하나의 사상의지로 굳게 뭉치고 강유력한 국방력과 경제력을 가진 우리 인민은 덤벼드는 미제침략자들을 단매에 때려부실 만단의 준비를 갖추고 있다.

만일 미제국주의자들이 감히 전쟁을 도발한다면 미국놈들에게 차례질것이란 죽음과 시체 밖에 없을것이며 우리 인민은 미제를 때려엎고 조국을 통일할것이다.

미제국주의자들은 놈들이 둥지를 틀고있는 남조선에서 불안과 공포에 떨고 있다. 남조선인민들과 혁명가들은 미제

의 저주로운 식민지통치와 박정희괴뢰도당의 반인민적파쑈테로통치를 분쇄하기 위하여 무장투쟁을 비롯한 각종 형태의 적극적인 투쟁을 힘차게 벌리고있다.

미제는 웰남인민의 영웅적반미구국항전에 부딪쳐 련속 심대한 군사정치적패배를 당하고있으며 병신이 되여가고있다. 반미구국항전에서의 웰남인민의 거대한 승리는 미제의 취약성을 여지없이 보여주며 혁명하는 인민들이 손에 무장을 잡고 견결히 싸운다면 미국놈을 얼마든지 녹여낼수 있다는것을 현실적으로 보여준다.

서반구의 사회주의초소를 굳건히 보위하고있는 영웅적꾸바인민은 미제의 코앞에서 놈들의 침략책동에 용감히 맞서 사회주의를 성과적으로 건설하고있으며 미제침략자들에게 커다란 타격을 주고있다. 꾸바혁명은 라틴아메리카인민들에게 거대한 혁명적영향을 주고있으며 이 대륙에서 미제의 지반을 밑뿌리채 뒤흔들어놓고있다.

미제의 발악적인 침략책동에도 불구하고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의 광대한 지역에서 미제를 반대하는 인민들의 혁명투쟁의 불길은 더욱더 세차게 타오르고있으며 미제의 뒤통수를 계속 호되게 후려갈기고있다.

이 모든것은 세계의 싸우는 인민들이 김일성동지께서 천재적으로 천명하신 새로운 투쟁전략을 따라나아갈 때 미제를 더욱 깊은 멸망의 구렁텅이에 몰아넣으며 반제반미투쟁의 새로운 승리를 이룩할수 있다는것을 보여준다.

김일성동지께서 새롭게 제시하신 투쟁전략은 미제를 반대하고 혁명투쟁의 새로운 승리를 이룩하는데서 더욱더 거대한 생활력을 발휘할것이다.

우리 인민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하에 그이께서 제시하신 전략적방침을 확고히 견지하고 미제를 반대하여 더욱 견결히 투쟁함으로써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반드시 실현할것이며 미제의 종국적멸망과 세계혁명의 승리를 위한 혁명하는 나라 인민들의 공동위업에 크게 기여할것이다.

근 로 자 제11호 (루계 321호)

편 집 위 원 회

발행소 • 근 로 자 사 주소 • 평양시 중구역 남문동

인쇄소 • 평양종합인쇄공장

인 쇄 • 1968년 11월 10일 발행 • 1968년 11월 15일

ㄱ—83551 값 50전

전세계 로동자들은 단결하라!

12호

평양 근로자사 1968

근로자

전세계 로동자들은 단결하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 관 지

제 12 호 (322)

차 례

인민경제의 장성하는 수요에 맞게 철도수송을 비롯한 전반적 수송사업을 더욱 강화하자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력사적인 공화국창건 스무돐기념경축대회보고와 당대표자회결정, 공화국정부의 10대정강을 높이 받들고 우리 나라의 전체 근로자들이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혁명적대고조의 불길을 더욱 높이고 있는 장엄한 환경속에서 최근 당중앙위원회 확대전원회의가 진행되였다.

전원회의는 우리 혁명과 건설의 급속한 발전이 제기하고있는 초미의 문제들인 철도수송을 비롯한 전반적수송사업을 더욱 강화할데 대한 문제와 당중앙위원회 제4기 제16차전원회의 결정을 관철하여 로동행정사업을 더 빨리 개선강화할데 대한 문제를 토의하였으며 특히 우리 인민경제의 비약적인 발전에 맞게 교통운수사업에서 새로운 앙양을 일으키기 위한 과업을 전면적으로 제시하였다.

전원회의의 전과정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운수부문앞에 제시하신 모든 로선과 정책의 정당성을 확고히 증명하였으며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와 육친적인 배려밑에 지난 기간 교통운수부문이 달성한 빛나는 성과를 뚜렷이 보여주었다.

해방후 첫날부터 혁명발전의 매단계마다 교통운수발전의 방향과 방도를 명확히 제시하시고 그 자립적토대를 튼튼히 쌓으며 교통운수를 인민경제 다른 부문들에 앞세우기 위하여 커다란 힘을 돌려주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우리 나라 교통운수는 짧은 기간에 눈부신 발전을 이룩하였으며 나라의 동맥으로서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였다.

오늘 우리의 교통운수는 더욱더 새로운 기술로 장비되고 현대적인 운수기재생산기지와 수리기지를 가진, 그리고 어떤 어렵고 방대한 혁명과업이라도 능히 수행할수 있는 붉은 수송전사의 대부대로 꾸려진 위력한 자립적인 사회주의교통운수로 강화발전되였으며 인민경제 모든 부문의 급속한 발전을 확고히 보장할수 있게 되였다. 우리 나라 인민경제의 높은 장성속도, 특히는 최근년간 당대표자회가 제시한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로선을 관철하는 행정에서 이룩된 새로운 혁명적대고조는 바로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밑에 달성된 교통운수부문의 커다란 성과에 의하여 튼튼히 안받침됨으로써만 가능한것이였다. 실로 우리 공업생산이 1966년에 비하여 1967년에 17%의 비약적인 속도로 장성되고 금년에는 또다시 작년에 비하여 더욱 빠른 속도로 장성할수 있게 된것은 교통운수부문의 역할과 떼여서 생각할수 없다.

이것은 우리 당의 운수정책의 정당성을 뚜렷이 보여주는것이며 당과 수령의 령도를 받들고 헌신적으로 투쟁하고있는 교통운수부문 일군들의 커다란 업적을 말하여주는것이다.

금번 전원회의가 강조한바와 같이 오늘 우리 나라 교통운수부문 앞에는 달리는 천리마에 박차를 가하여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의 혁명적대고조의 불길을 더욱 높이며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위한 우리의 전진운동을 다그치기 위하여 철도수송을 비롯한 전반적수송사업에서 새로운 앙양을 일으켜야 할 영예로운 임무가 나서고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

하시였다:

《우리 나라에서 교통운수, 특히 철도는 매우 긴장성을 띠고있으며 그것을 푸는것은 다음해 생산을 원만히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조건의 하나입니다.》(《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우리 인민의 자유와 독립의 기치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강력한 무기이다》, 56페지)

철도수송을 비롯한 전반적인 수송사업을 개선강화하는것은 현시기 사회주의건설의 촉진을 위한 가장 절박한 과업의 하나이다.

오늘 우리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는 공화국창건 스무돐기념경축대회에서 하신 김일성동지의 강령적인 보고를 높이 받들고 당면한 올해 계획을 완수하며 명년에 우리 나라 사회주의건설의 웅대한 강령인 7개년계획의 중요고지들을 점령하기 위하여 생산과 건설에서 일대 비약을 일으키고있으며 원쑤들의 침략책동에 더 잘 대처하기 위한 국방건설에서도 날에 날마다 위대한 혁신이 창조되고있다.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에서 더욱더 세차게 타번지고있는 혁명적대고조의 불길은 운수부문앞에 더 많은 원료와 자재, 설비를 날라다줄것을 요구하고있다.

경제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부문간, 지역간의 생산적련계는 더욱 복잡하고 다양해지고있으며 따라서 날로 증대되는 화물을 제때에 정확히 실어날라야 할 요구성은 더욱 높아지고있다. 인민경제의 선행관인 운수부문에서 새로운 혁신이 일어나야 부문간, 지역간의 경제적련계를 밀접히 보장하고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의 생산을 정상화할수 있으며 이미 마련된 경제적밑천을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경제발전의 속도를 더욱 높일수 있다.

또한 도시와 농촌간의 정치, 경제, 문화적 련계를 보장하는 중요한 수단의 하나인 교통운수를 더욱 발전시켜야만 농촌에서의 사상, 기술, 문화 혁명을 강화하고 도시와 농촌간의 차이를 없애며 농촌문제를 종국적으로 해결하는 력사적과업을 더 빨리 수행할수 있다.

뿐만아니라 교통운수를 급속히 개선강화하는것은 오늘 상품류통사업에서 새로운 혁신을 일으키고 근로자들의 전반적인 물질문화생활을 높이며 대외무역사업을 발전시킴에 있어서도 절실한 과업으로 나서고있다.

이 모든것은 오늘 우리 나라에서 철도수송을 비롯한 전반적수송사업을 더욱 강화하는것이 우리의 비약적인 전진운동행정에서 제기된 요구이며 우리 인민경제의 급속한 발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반드시 풀어야 할 절박한 문제라는것을 말해주고있다.

우리는 혁명과 건설에서 교통운수의 발전이 가지는 거대한 의의를 옳게 인식하고 이 부문앞에 제기된 당의 정책적요구들을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전반적인 교통운수부문에서 새로운 앙양을 일으키기 위한 투쟁을 더욱 힘차게 벌려야 할것이다.

* *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혁명과 건설의 현실적요구에 맞게 교통운수를 발전시키기 위한 모든 방침들을 이미 제시하시였으며 금번 전원회의에서 또다시 운수문제를 풀기 위한 구체적방도를 명확히 밝혀주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철도수송을 비롯한 전반적수송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가장 선차적인 문제는 각급 당조직들과 지도일군들이 이 부문 일군들속에서 정치사업을 강화하는것이다.

정치사업을 강화하는것은 다른 모든 사업에서와 마찬가지로 수송사업을 성과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결정적담보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다 아는바와 같이 우리가 하는 일은 어떤것이든지 다 사람을 발동시켜야 할수 있습니다. 우리가 공장과 기업소를 운영하고 기차

나 배를 움직이려고 하여도 먼저 그것의 주인인 사람들부터 움직여야 합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13페지)

철도수송을 비롯한 전반적수송사업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의 성과적해결여부는 결국 그것을 직접 담당하고있는 이 부문 일군들에게 달려있으며 따라서 수송의 긴장성을 푸는데서 결정적의의를 가지는것은 그들의 정치적의식성과 자각성을 높이는것이다. 특히 운수부문의 많은 근로자들이 넓은 지역에 흩어져서 활동하는 조건에서 정치사업을 강하여 그들의 자각적열의를 높이는것은 더욱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김일성동지께서 교시하신바와 같이 정치사업에서 가장 중요한것은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확립하는것이다.

교통운수부문의 모든 일군들을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켜 그들속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더욱 튼튼히 세워야만 이 부문앞에 제시한 당의 모든 방침들을 철저히 관철할수 있다. 그러므로 각급 당조직들과 모든 지도일군들은 이 부문 일군들을 당의 주체사상, 자주, 자립의 사상으로 무장시키기 위한 사업을 강화함으로써 그들이 당과 수령께 무한히 충실하며 어떤 어려운 환경과 조건에서도 김일성동지의 교시, 우리 당의 정책을 끝까지 관철하기 위하여 자기의 모든 정력과 지혜와 기술을 다 바치도록 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모든 지방, 모든 단위들에서 당의 유일사상, 우리 당의 혁명사상과 배치되는 온갖 불건전한 사상조류와 반당적이며 비계급적인 현상을 반대하는 사상투쟁을 힘차게 벌려야 한다.

경험은 교통운수부문 일군들속에서 낡은 사상잔재 특히는 기관본위주의, 지방주의적 요소를 엄격히 경계하고 혁명적기풍을 세우며 나라와 인민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일하도록 그들의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을 더 높이는데 교통운수의 새로운 앙양을 위한 중요한 예비가 있다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 있다.

기관본위주의, 지방주의는 개인주의, 리기주의의 발현으로서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원칙과는 량립할수 없는 자본주의사상, 봉건주의사상 잔재이다. 이것은 전체 인민의 리익을 위하여, 전체 인민경제발전을 위하여 복무하는 교통운수부문의 사업에서는 한시도 허용될수 없다. 기관본위주의, 지방주의의 사소한 표현도 그것은 전국적범위에서 하나로 련결된 나라의 동맥의 흐름에 장애를 조성하며 인민경제의 정상적인 발전과 인민들의 생활에 커다란 부정적후과를 미치게 된다.

당조직들과 지도일군들은 우리 당의 혁명사상과 배치되는 온갖 낡은 사상잔재를 반대하는 사상투쟁을 강력히 벌림으로써 교통운수부문의 모든 일군들이 오직 전체를 위하여, 전체 인민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일하며 사업과 생활에서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을 높이 발양하도록 하여야 할것이다. 그리하여 운수부문의 모든 일군들이 서로 돕고 이끌면서 당과 혁명의 리익, 로동계급과 인민의 리익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것을 다바쳐 이악하게 싸워나갈 때 수송사업에서는 새로운 혁신이 일어날것이다.

교통운수부문의 사업을 강화하기 위하여 나서는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이 부문에 군대와 같은 강한 규률을 세우는것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찌기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철도운수일군들은 군대와 같습니다. 군대가 승리하기 위하여서는 규정과 교범을 잘 지켜야 하는것과 마찬가지로 동무들도 철도 규정과 규칙을 엄수하여야 사고를 방지할수 있고 수송사업을 옳게 보장할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규정과 규칙이 요구하는대로 행동하여야 하며 그것을 위반하는 현상과는 타협없이 투쟁하여야 합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1권, 452페지)

철도운수를 비롯한 전반적운수부문에서 강철같은 군사적규률과 혁명적질

서를 세우는것은 복잡하고 방대한 수송사업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전제조건이다. 운수부문에는 마치 시계의 치차가 서로 맞물고 돌아가는것과 같은 엄격한 규률과 질서가 서있어야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될수 있다. 규률과 질서는 운수부문의 생명이다.

특히 오늘과 같이 수송규모가 비할바없이 방대하고 렬차밀도가 매우 높은 조건에서 혁명적규률과 질서를 세우는것은 그 어느때보다 절실한 문제이다.

그러므로 철도운수부문에서는 사령지휘체계를 엄격히 세우고 렬차들의 무사고 정시운행을 보장하며 모든 운수부문에서 하나의 사건사고도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모든 경제기관들과 공장, 기업소들 그리고 전체 근로자들이 재정된 운수규정과 교통질서를 무조건 엄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사회주의하에서 규률은 자각적인 규률이다. 그러므로 각급 당조직들과 지도일군들은 운수부문에서 정연한 상학체계를 세워 규정교양과 훈련을 강화하며 인민경제 모든 부문 일군들과 전체 인민들 속에서 운수규정과 교통질서에 대한 교양사업을 광범히 진행함으로써 운수부문 일군들을 비롯한 전체 근로자들이 재정된 규률과 질서를 자각적으로 지키도록 하여야 하며 여기에 강한 통제를 배합하여야 한다.

오늘 운수부문에서 새로운 앙양을 이룩하기 위하여 중요하게 나서는 문제는 금번 전원회의가 강조한바와 같이 당이 이미 제시한 방침대로 지금 있는 운수수단들을 최대한으로 효과있게 리용하며 기술개전을 적극 추진시켜 수송능력을 끊임없이 높이는것이다.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 나라 화물수송에서 압도적비중을 차지하고있는 철도운수부문에서 당의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여야 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교통운수, 특히 철도운수를 발전시키는데 계속 큰 힘을 넣어야 하겠습니다. 철도전기화를 힘있게 추진시켜 가까운 년간에 철도의 전기화를 기본적으로 끝내며 일부 지역에 디젤기관차를 도입하여 철도의 견인력을 결정적으로 높여야 하겠습니다. 전기기관차, 화차, 객차 생산을 더욱 늘여야 할것입니다. 그리고 빨리 늘어나는 수송수요를 원만히 보장하기 위하여 이미 있는 철도의 리용률을 최대한으로 높이는 동시에 새 철도를 건설하여야 하겠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560페지)

철도전기화를 힘있게 밀고나가는것은 수송원가를 낮추고 수송의 문화성을 높이며 철도의 통과능력을 결정적으로 높이기 위한 담보이다. 전기기관차는 증기기관차에 비하여 그 견인력이 훨씬 높으며 따라서 철도전기화를 완성한다면 우리는 많은 힘과 시간을 들여 새 철도를 건설하지 않고도 지금 있는 철도를 가지고 더 많은 짐을 실어나를수 있다. 우리는 철도전기화에서 이미 달성된 성과를 확대발전시켜 빠른 기간내에 기본간선에서의 철도전기화를 완성해야 하며 일부 지역에 대한 내연화를 힘있게 밀고나가야 한다.

철도전기화를 다그치는 한편 그 경제적효과성을 최대한으로 높이는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서는 중량화차, 중량레루와 견고하고 질좋은 나무침목과 철근콩크리트침목 등을 더 많이 생산보장하고 받아들여야 하며 전반적인 철길과 구조물의 보수보강사업과 구내선확장사업을 강화하여야 한다. 동시에 철도운영과정을 적극 자동화, 반자동화하여 통과능력을 높이며 렬차운전의 안전성을 보장하여야 할것이다.

철도운수의 발전을 위하여 또한 철도운수기재의 생산기지와 수리기지를 튼튼히 꾸리고 그 능력을 높여야 할것이다.

철도운수를 발전시키는 동시에 빨리 늘어나는 자동차수송수요를 원만히 충족시키는것이 중요하다.

이미 있는 자동차의 리용률을 최대한으로 높이며 자동차운수의 물질기술적토대를 끊임없이 강화하는것은 자동차

수송수요를 원만히 보장하기 위하여 우리 당이 내세운 중요한 방침이다.

있는 자동차의 리용률을 높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화물수송규모가 전례없이 커지고 화물류동이 복잡해진 조건에 맞게 자동차의 관리운영체계를 결정적으로 개선하는것이다. 경험은 자동차들을 통합하여 유일적으로 관리운영하는 체계를 세울 때 자동차의 기술관리와 수송조직을 개선하여 그 리용률을 훨씬 높일수 있을뿐만아니라 늘 분산적으로 작업하는 운전수들을 집체적으로 교양하며 그들의 동원상태를 보장함에 있어서도 매우 유리하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우리는 자동차의 통합관리에서 얻은 선진적인 경험들을 적극 일반화하면서 그 관리운영체계를 부단히 개선하여야 한다.

또한 자동차수송사업을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그 생산기지와 수리기지를 튼튼히 꾸리며 자동차의 기술관리사업과 그 부속품공급사업을 개선하여야 한다.

자동차수송을 발전시킴에 있어서 특히 중요한것은 자동차도로를 정비보강하는것이다. 길이 좋아야 자동차가 빨리 달릴수 있고 기름을 절약할수 있으며 자동차의 수명을 늘일수 있다. 그러므로 각급 지방당, 정권 기관들과 경제기관, 기업소들 그리고 전체 인민들은 온갖 예비와 지방자재들을 최대한으로 동원하여 도로를 포장하고 보수정비하는 사업을 군중적운동으로 힘있게 벌려야 할것이다.

수상운수는 우리 나라 교통운수의 중요한 부문의 하나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철도운수의 긴장성을 풀며 인민경제의 화물수송을 더욱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수상운수를 대대적으로 발전시켜야 합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3권, 125페지)라고 교시하시였다.

삼면이 바다로 되여있고 큰 하천들이 많은 우리 나라의 유리한 자연지리적조건과 경제적조건에 맞게 수상운수를 발전시키는것은 교통운수의 종합적발전과 수송의 합리적분배를 실현하며 대외무역을 발전시키는데서 매우 큰 의의를 가진다.

수상운수부문에서는 이미 마련하여놓은 물질기술적토대를 효과적으로 리용하는 동시에 수상운수를 높은 기술적토대우에 올려세워야 한다. 이를 위하여 배를 더 많이 무어주며 배길을 적극 개척하고 수상운수망을 늘이며 항만과 포구들을 개건확장하는 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가야 할것이다.

철도를 비롯한 모든 운수부문에서는 이 모든 사업과 함께 계획화사업, 수송조직사업을 개선강화하여야 한다. 특히 경제지도일군들은 수송계획의 일원화와 세부화를 철저히 실현하여· 역수송, 반복수송 등 온갖 불합리한 수송을 없애도록 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려객과 화물수송에서 봉사성을 높이는것이 중요하다. 운수부문 일군들은 인민의 충복답게 려객과 화주들에게 온갖 편의를 봐주며 해당한 부문에서는 운수부문의 봉사성을 높이기 위한 모든 조건을 보장해주어야 할것이다.

발전하는 현실에 맞게 교통운수부문에서 새로운 앙양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이 부문의 기술인재양성사업을 강화하여야 한다. 교통운수부문의 기술인재양성체계를 더욱 튼튼히 확립하고 교통운수발전의 현실적요구에 맞게 기술인재양성사업을 강화함으로써 전기기관차, 내연기관차, 대형선박을 비롯한 현대적이며 복잡한 운수수단들을 능숙하게 다룰수 있는 기술일군들과 기계, 금속, 전기 공학 기술자들을 더 많이 키워내야 한다. 특히 철도대학과 해운대학을 튼튼히 꾸리고 교수교양의 질을 더 높여 당의 유일사상체계가 확고히 서고 현대과학과 기술에 정통한 우수한 기술간부들을 많이 길러내도록 하며 중등기술간부양성체계 및 초급지휘원양성체계를 세우고 잘 운영하여 이 부문 기술일군들의 장성하는 수요를 원만히 충

족시키도록 하여야 한다. 동시에 교통운수의 모든 단위들에서 기술교양체계를 확립하고 기술학습과 기술전습사업을 강화함으로써 일군들의 전반적기술기능수준을 높이며 모든 사람이 다 한가지이상의 기술을 배우기 위한 군중적운동을 벌리도록 하여야 할것이다.

운수사업에서 새로운 앙양을 이룩하기 위하여서는 이 부문에 대한 전인민적지원을 강화하여야 한다. 철도수송을 비롯한 전반적수송사업은 인민경제 모든 부문과 직접 련관되여 있으며 그것은 교통운수부문 일군들의 힘만으로는 개선할수 없다. 운수사업은 전당적, 전인민적 관심사로 되고 모든 지도일군들이 나라의 전반적살림살이에 대한 주인다운 립장에 설 때만, 그리고 광범한 근로대중이 자각적으로 동원될 때에만 결정적으로 강화될수 있다.

특히 경제기관들과 모든 공장, 기업소들이 이에 대한 책임성을 더욱 높여야 한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 전체 화물작업량의 압도적비중을 차지하고있는것은 전용선화물작업량이다. 그러므로 공장, 기업소 전용선들에서 화차의 리용률을 높이는것은 나라의 전반적인 철도의 긴장성을 푸는데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공장, 기업소들에서 수송계획화수준을 높이고 상하차설비와 화물저장능력을 잘 갖추며 화차가 머물러있는 시간을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한 투쟁을 더욱 힘있게 벌려야 한다.

또한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기업소들이 달라붙어 운수의 기술개건사업도 도와주며 운수기재의 수리기지와 생산기지를 꾸리는 사업도 힘있게 지원하도록 하여야 한다.

모든 당조직들과 지도일군들은 수송사업을 개선강화할데 대한 당의 방침을 근로자들속에 널리 해석침투시켜 운수사업에 대한 전사회적인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운수부문에 대한 지방당조직들의 지도통제사업을 강화하는것은 오늘 교통운수부문에서 새로운 앙양을 일으키기 위한 중요한 담보이다. 지방당조직들은 이 부문내 간부들과 당원들의 당생활을 강화하도록 구체적인 지도를 주어야 하며 철도역을 비롯한 운수부문의 기층단위들의 역할을 높여야 한다. 또한 해당 지방의 공장, 기업소들과 전체 인민들이 철도와 항만, 자동차도로를 비롯한 운수시설들의 개건확장사업에 적극 참가하도록 당적인 지도를 강화하여야 할것이다.

철도수송을 비롯한 전반적수송사업을 강화하여 긴장된 수송문제를 푸는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 과업을 수행할수 있는 모든 조건과 가능성이 마련되여있다. 우리에게는 당의 정확한 정책과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가 있으며 당과 수령의 주위에 굳게 뭉쳐 김일성동지의 교시, 당의 정책을 무조건 끝까지 관철하려는 확고한 결의에 충만되여있는 붉은 수송전사의 대부대가 있다. 또한 우리에게는 운수사업을 물질기술적으로 지원할수 있는 강력한 중공업을 핵심으로 하는 튼튼한 자립적민족경제의 토대가 있으며 전당과 전체 인민의 믿음직한 지원이 있다. 전당이 발동되고 전국이 달라붙는다면 철도수송을 비롯한 전반적수송사업을 최단기간내에 한계단 더 높은 수준에로 강화발전시킬수 있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김일성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주위에 굳게 뭉쳐 당이 운수부문앞에 내세운 모든 방침을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가장 빠른 기간내에 교통운수를 현실의 요구에 맞게 더욱 강화할데 대한 당과 수령의 의도를 훌륭히 실현하여야 할것이다.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10대정강에서 제시된 자주, 자립, 자위의 혁명적 로선을 더욱 철저히 관철하자

오늘 우리 인민은 공화국창건 스무돐기념경축대회에서 하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력사적인 보고를 높이 받들고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와 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위한 투쟁을 힘차게 벌리고있는 장엄한 환경속에서 공화국정부의 위대한 10대정강, 《국가활동의 모든 분야에서 자주, 자립, 자위의 혁명정신을 더욱 철저히 구현하자》의 발표 한돐을 맞이한다.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위대한 10대정강은 지난 한해동안 혁명투쟁에서와 건설사업에서 커다란 전진을 이룩하도록 우리 인민을 힘있게 이끌어주었으며 실천속에서 자체의 정당성과 불패의 생활력을 더욱 뚜렷히 확증하였다.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10대정강은 미제의 격화되는 침략과 전쟁도발 책동을 짓부시고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혁명적고조를 더욱 앙양시키기 위한 우리 인민들의 투쟁에서 불패의 혁명적기치, 승리의 기치로 되였다.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지금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공화국정부의 10대정강을 실현하기 위한 첫 한해동안의 투쟁에서 이룩한 커다란 승리와 성과들을 무한한 혁명적자부심과 높은 긍지를 가지고 돌이켜보면서 수령께서 제시하신 자주, 자립, 자위의 혁명로선을 끝까지 관철하고야말 굳은 결의와 혁명적투지로 가슴불태우고있다.

*　　　*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위대한 10대정강은 지난 한해동안에 우리의 혁명과 건설을 비상히 촉진시켰으며 정치, 경제, 군사의 모든 분야에서 공화국의 위력을 더한층 강화하였다.

그것은 무엇보다 먼저 당과 수령의 주위에 우리 인민을 더욱 튼튼히 단결시키고 우리의 혁명대오를 반석같이 다져지게 하였다.

김일성동지의 10대정강은 위대한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우리 혁명의 앞길을 휘황히 밝혀주고 생활이 제기한 새로운 문제들에 대한 심오한 맑스-레닌주의적 해답을 준것으로 하여 그리고 우리 인민의 한결같은 혁명적지향과 숭고한 념원을 반영하고있는것으로 하여 발표되자마자 거대한 힘으로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심장을 틀어잡았다.

정강을 일관하고있는 기본사상은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주체사상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공화국정부의 정강은 맑스-레닌주의를 조선의 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한 우리 당의 주체사상과 자주, 자립, 자위의 혁명적로선을 구현하고있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586페지)

정강에는 우리 당의 주체사상과 자주, 자립, 자위의 혁명적로선의 정당성이 전면적으로 확증되여있으며 조선혁명을 조선인민자신의 힘에 의하여 책임적으로 완수하려는 혁명적립장과 불굴의 의지가 천명되여있다. 또한 거기에는 우리 당의 자주, 자립, 자위의 혁명적로선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서 우리 인민이 쟁취하여야 할 목표와 전투적과업이 명확히 제시되여있다.

정강에 접한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 주체사상과 자주, 자립, 자위의 혁명정신

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그것을 철저히 구현하여나아갈 때 우리 혁명위업이 반드시 승리한다는 신념을 더욱 굳게 하였으며 수령의 령도밑에 우리 혁명을 끝까지 완수하고야말 불같은 혁명적열의로 들끓었다. 실로 공화국정부정강은 백전백승의 위대한 혁명사상,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우리 인민을 끊임없이 새로운 승리에로 정확히 이끌어주시는 혁명의 탁월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무한한 신뢰와 경모의 정으로 사람마다 가슴벅차오르게 하였으며 일편단심 수령의 주위에 굳게 뭉쳐 수령께서 가리키시는 길을 따라 힘차게 싸워나갈 우리 인민의 결의를 더욱 확고히 하였다.

우리 당은 정강에 구현된 수령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무장시키고 그 실현에로 그들의 무궁무진한 창조력을 조직동원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렸다. 지난 한해동안에 정강의 불패의 생활력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수령의 혁명사상으로 무장시키며 모든 군중을 당과 수령의 주위에 굳게 단결시키기 위한 우리 당의 진공적인 방침에 의하여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는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 우리 당의 주체사상을 자신의 뼈와 살로 만들고 그것을 유일한 지침으로 삼아 일하고 생활하며 자기의 모든것을 다바쳐 당의 로선과 정책을 관철하는 당의 유일사상체계가 더욱 철저히 확립되였으며 당과 수령의 주위에 하나의 사상의지로 결속된 우리 인민의 정치사상적통일단결은 그 어느때보다도 확고부동하게 다져졌다.

우리 인민은 정강의 위대한 사상에 무한히 고무되여 수령께서 제시하신 모든 과업을 실현하기 위한 힘찬 투쟁을 벌렸다.

이리하여 지난 한해동안에 《이 정강의 실현은 우리 나라를 정치에서 자주적이고 경제에서 자립적이며 국방에서 자위적인 더욱 부강하고 발전된 사회주의나라로 전변시킬것이며 우리 인민의 보다 더 행복한 생활을 보장할것입니다.》 (우와 같은 책, 586페지)라고 하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의 정당성을 빛나게 확증하였다.

위대한 10대정강을 높이 받들고 싸워온 지난 1년은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혁명적대고조의 불길이 더욱 앙양된 한해였으며 공업, 농업을 비롯한 인민경제의 모든 부문에서 비약적인 장성속도를 이룩한 한해였다.

올해에 우리 나라 근로자들은 당중앙위원회 제4기 제17차 전원회의에서와 제2차전국천리마작업반운동선구자대회, 전국청년총동원대회, 전국렬사가족및 영예군인가족대회 등에서 하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강령적교시들을 심장으로 접수하고 천리마의 대진군을 더욱 다그쳤으며 공화국창건 스무돐을 높은 로력적성과로 맞이하기 위한 눈부신 투쟁을 벌렸다. 이 과정에서 소극성, 보수주의, 기술신비주의 등 낡은 사상잔재들이 산산이 부서지고 도처에서 새로운 기준, 새로운 혁신들이 련이어 창조되였으며 수많은 예비들이 탐구동원되였다. 기술혁신운동이 더욱 활발히 전개되고 대안의 사업체계가 더 큰 위력을 발휘하여 공업부문에서 금년도 계획을 완수 및 초과완수하기 위한 대중적투쟁은 빛나는 열매를 맺었다. 올해에 우리 나라 공업은 한해동안에 17%의 높은 장성속도를 이룩한 1967년에 비하여 더 빠른 속도로 장성하었다.

농업부문의 근로자들은 금년초에 있은 전국농업일군대회에서 하신 수령의 교시에 무한히 고무되여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에서 제시된 과업을 실현하는 길에서 커다란 전진을 이룩하였다. 로동계급의 강력한 지원하에 농촌에서 기술, 문화, 사상 혁명이 더욱 추진되고 새로운 농업지도체계의 위력이 훌륭히 발휘되었다. 전국의 협동농장들에서 로력조직사업이 개선되고 고이는물때기공사와 종자개량사업이 더욱 활발히 추진되였으며 지난해보다 훨씬 많은 화학비료와 자급비료가 시비되고 특히 가장 합리적인 집단생활의 세

포이며 선진적인 생산조직형태인 분조관리제의 우월성이 더 잘 발양되였다. 이리하여 금년에 우리 나라 농촌경리는 류례없이 혹심한 가물을 이겨내고 전국의 모든 지방에서, 모든 부문에 걸쳐 만고대풍을 이룩하였다.

10대정강을 관철하기 위한 첫 한해동안에 나라의 경제적자립성이 더욱 공고히 되였을뿐아니라 자위력이 더욱 강화되였다.

특히 올해에 조선인민군창건 스무돐 기념경축연회에서 하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를 높이 받들고 당의 자위적군사로선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사업이 전인민적투쟁으로 힘차게 벌어졌다. 우리의 인민군대는 일당백의 혁명무력으로 더욱 강화되였으며 인민군대를 핵심으로 하는 전인민적방위체계는 철벽으로 다져졌다. 미제무장간첩선《푸에블로》호에 대한 단호한 징벌과 날로 격화되는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침략과 전쟁도발 책동에 대한 섬멸적타격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령도밑에 그 어떤 원쑤들의 침략도 단매에 때려부시고 미제침략자들과 그 앞잡이들에게 최후의 멸망을 주고야 말 우리 인민의 견결한 혁명적의지와 우리 당의 자위로선의 정당성을 온세상에 시위하였다.

실로 지난 한해동안에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10대정강은 공화국북반부의 혁명과 건설의 실천속에서 커다란 생활력을 발휘하였으며 빛나는 열매를 가져다주었다.

또한 정강의 실현은《…미제와 그 앞잡이들을 반대하는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을 힘있게 고무 추동할것이며 조국통일을 위한 튼튼한 담보를 마련하게 될것입니다.》(우와 같은 책, 586페지)라고 하신 김일성동지의 교시가 지난 한해동안의 실천적투쟁에 의하여 확증되였다.

정강의 위대한 사상은 남반부의 혁명가들과 인민들에게도 새로운 투지와 용기를 안겨주었으며 그들의 혁명투쟁을 힘있게 고무하였다. 남조선혁명가들과 인민들은 수령께서 제시하신 자주적조국통일방침과 남조선혁명수행방도들에서 자기들의 투쟁의 유일한 앞길을 내다보면서 무장투쟁을 비롯한 여러가지 투쟁을 더욱 확대발전시키고있다. 특히 올해에 남조선인민들의 혁명적무장유격대의 활동이 더욱 세차게 벌어졌으며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에게 커다란 타격을 주었다.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전쟁소동이 더욱 로골화되고 파쑈적폭압이 혹심한 조건에서도 계속 끊임없이 확대심화되는 남조선혁명가들과 애국적인민들의 투쟁은 조국통일과 남조선혁명을 위한 우리 당의 방침의 정당성과 거대한 생활력을 확증하고있으며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령도밑에 미제침략자들과 그 앞잡이들을 타도하고 혁명의 종국적승리를 달성하고야 말 남조선인민들의 불굴의 혁명적투지를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10대정강은 조선인민들속에서뿐만아니라 전세계의 혁명적인민들속에서 거대한 견인력을 발휘하고있으며 그들의 투쟁을 더욱 앙양시키는 혁명적기치로 되고있다. 세계의 혁명적인민들은 우리 시대의 혁명운동이 제기한 일련의 새로운 원칙적문제들에 대한 심오한 맑스-레닌주의적해답을 준 김일성동지의 10대정강을 깊이 연구하고 거기에서 자기들의 투쟁의 명백한 앞길과 혁명승리의 위력한 무기를 찾고있다.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10대정강을 가리켜《사회주의건설리론에서 하나의 고전》으로,《세계 모든 나라들과 모든 혁명조직들의 공동의 강령》으로,《세계 모든 나라 인민들의 투쟁의 지침》으로 부르고있는 세계의 혁명가들과 인민들은 오늘 반제반미투쟁을 더욱 강화하고있으며 미제가 발붙이고있는 모든곳에서 반미투쟁의 불길을 높여 미제의 각을 뜨고 미제의 종국적멸망의 날을 앞당기기 위하여 힘찬 투쟁을 벌리고있다. 오늘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혁명적인민들을 비롯한 세계 혁명적인민들의 반제반미투쟁의 고조는 바로 김일성동지의 10대정강에서 제

시된 혁명적방침들의 정당성을 증명하여주고있다.

실로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10대정강은 지난 한해동안에 모든 분야에서 자체의 위대한 생활력을 훌륭히 보여주었다. 모든 사실은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자주, 자립, 자위의 혁명정신으로 일관된 위대한 10대정강이 가리키는 길을 따라 나아갈 때 우리 혁명위업의 승리가 촉진된다는것을 힘있게 확증하고있다.

정강발표 한돐을 맞는 우리 인민은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를 받는 무한한 자부심과 긍지를 가슴깊이 간직하고 수령께서 제시하신 위대한 10대정강이 가리키는 길을 따라 더욱 힘차게 싸워나갈 굳은 결의에 충만되여있다.

⁂ ⁂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공화국정부의 10대정강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은 수령의 위대한 주체사상을 지침으로 하여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자주, 자립, 자위의 혁명정신을 구현함으로써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와 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보람찬 투쟁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위대한 10대정강에서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당의 주체사상은 우리의 혁명과 건설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가장 정확한 맑스-레닌주의적지도사상이며 공화국정부의 모든 정책과 활동의 확고부동한 지침입니다.》 (우와 같은 책, 533페지)

주체사상은 혁명의 위대한 수령이시며 우리 시대의 탁월한 맑스-레닌주의자이신 김일성동지께서 일찌기 창시하시고 혁명활동을 시작하신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40여년간 우리 혁명을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오신 백전백승의 혁명사상이다. 그것은 조선혁명의 유일한 맑스-레닌주의적지도사상이며, 우리에게 있어서 이밖에 다른 지도적지침이란 있을수 없다.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은 공산주의운동의 보편적진리와 우리 혁명발전의 합법칙적요구를 전면적으로 반영한 우리 시대의 위대한 맑스-레닌주의사상이다.

주체를 확립하는것은 혁명과 건설에서 모든 공산주의자들이 견지하여야 할 근본립장이며 태도이다. 공산주의자들은 오직 맑스-레닌주의원칙과 자기 나라 혁명의 요구에 맞게 자체의 독자적인 신념과 판단에 기초하여 모든 로선과 정책을 세우고 관철해야 하며 자기 나라 인민의 힘과 자기의 내부원천에 의거하여 혁명과 건설을 수행하여야 한다.

우리는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을 확고부동한 지침으로 삼아 정치, 경제, 군사의 모든 분야에서 자주, 자립, 자위의 혁명적로선을 견결히 관철해나가야 한다.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10대정강은 주체사상에 확고히 기초하여 공화국북반부의 혁명과 건설에서 실현하여야 할 정치, 경제, 군사, 문화 분야의 모든 과업들과 남조선혁명을 촉진하고 조국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전투적과업, 반제반미투쟁과 전반적세계혁명을 발전시키기 위한 모든 과업들을 제시하였다.

우리는 무엇보다 먼저 10대정강이 가리키는 길을 따라 정치에서 자주성원칙을 더욱 철저히 관철하여야 한다.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당의 정책에 확고히 립각하여 모든 문제를 자기 머리로 사고하고 우리의 실정에 맞게 규정하며 자기 힘으로 풀어나갈것이다. 우리는 사대주의와 교조주의를 견결히 배격하고 우리 민족의 영예와 존엄을 지키며 정치적자결의 신성한 권리를 자기 손에 튼튼히 틀어쥐고나감으로써 나라의 정치적독립과 자유를 확고히 보장할것이다.

우리는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서도 자주적립장을 계속 확고히 견지할것이며 반제투쟁과 좌우경기회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을 비롯한 모든 대외활동도 자신의 독자적인 판단과 신념에 기

초하여 우리의 실정에 맞게 진행할것이다.

정치에서 자주성을 공고히 하는 동시에 경제분야에서 자력갱생의 원칙을 관철하여 우리 당의 자립적민족경제건설로선을 계속 힘있게 집행하여나아가는것은 주체사상의 중요한 요구이다.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우리 당의 자립적민족경제건설로선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합법칙적요구에 부합되는 철저한 혁명적경제건설로선이다.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하는것은 나라의 정치적독립을 튼튼히 보장하고 사회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를 가장 성과적으로 쌓으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서 민족문제를 종국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기본담보이다. 우리는 생활에 의하여 이미 그 정당성이 확증된 우리 당의 자립적민족경제건설로선을 계속 철저히 관철해나아갈것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공화국정부는 조선로동당의 사회주의공업화정책을 계속 견지하며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기술혁명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함으로써 나라의 자립적민족경제의 토대를 강화하고 인민생활을 더욱 높이며 근로자들을 고된 로동에서 해방하는 성스러운 과업을 수행할것입니다.》(우와 같은 책, 554페지)

우리의 영웅적로동계급과 협동농민들은 수령의 이 강령적교시를 철저히 관철하기 위하여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혁명적대고조의 불길을 더욱 높여야 하며 공업, 농촌경리, 운수를 비롯한 인민경제 모든 부문의 발전속도를 한층 더 높여야 할것이다. 특히 명년에 7개년계획의 모든 중요고지들을 반드시 점령하기 위한 더욱 힘찬 투쟁을 벌려야 한다.

또한 전국의 과학자, 기술자들은 주체를 튼튼히 세우고 기술혁명의 요구에 맞게 나라의 과학기술을 급속히 발전시켜야 하며 사회주의문화건설에서 새로운 앙양을 일으켜야 할것이다.

경제건설에서 자립적민족경제건설로선을 관철하는 동시에 국방건설분야에서 자위의 혁명적로선을 더욱 철저히 집행하여나가는것은 조성된 정세와 우리 혁명발전의 절실한 요구이다.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경제건설을 추진시키는 동시에 국방력을 계속 강화하는것은 사회주의국가의 기본기능의 하나이며 세계반동의 원흉 미제와 직접 맞서있는 우리 나라의 조건에서 더욱 중요하게 나서는 과업이다. 특히 오늘 미제침략자들의 전쟁도발책동이 더우더 로골화되고있는 정세하에서 우리는 원쑤들의 임의의 불의의 침공에도 대처할수 있도록 전쟁준비를 더욱 철저히 갖추어야 한다.

우리는 수령께서 제시하신 자위적인 군사로선을 더욱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인민군대를 당과 수령께 무한히 충실하고 군사기술적으로 튼튼히 준비된 강철의 대오로 더욱 강화하여야 하며 전체 인민을 무장시키고 전국을 요새화하는 사업을 더욱 힘있게 밀고나가야 한다. 동시에 전체 인민들과 인민군장병들이 늘 긴장되고 동원된 태세를 견지하며 어떤 원쑤들이 덤벼들어도 단매에 쳐부실수 있도록 만단의 태세를 더욱 철저히 갖추고있어야 할것이다.

정치, 경제, 군사의 모든 분야에서 자주, 자립, 자위의 혁명적로선을 철저히 관철하여 북반부의 혁명과 건설을 다그치고 북반부혁명기지를 철옹성같이 강화하는 기초우에서 우리는 남조선인민들의 혁명투쟁을 지원하고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을 더욱 추진하여야 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위대한 10대정강에서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위업을 완수하기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과업을 전면적으로 명시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남조선의 해방과 조국통일의 위대한 사업을 하루빨리 완수하는것은 남조선 혁명조직들과 혁명가들이 혁명력량을 어떻게 확대강화하며 적들과 어떻게 투쟁하는가에 달려있을뿐아니라 공화국북반부인민들이 혁명적대사변을 맞이할 준비를 어떻게 하는가 하는데도

크게 달려있습니다.》(우와 같은 책, 544페지)

남조선혁명을 완수하고 조국을 통일하는것은 우리 세대의 숭고한 임무이며 민족지상의 과업이다.

우리는 남녘형제들을 한시도 잊지 말고 그들을 반드시 해방하여야 하겠다는 혁명적각오를 가져야 하며 당과 수령께서 부를 때에는 언제나 조국통일위업을 성취할 결정적투쟁에 나설수 있도록 사상적으로 튼튼히 준비되여있어야 한다. 동시에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의 병진로선을 계속 힘있게 관철하여 조국통일의 혁명적대사변을 주동적으로 맞이할수 있는 물질적준비를 충분히 갖추어야 할것이다.

우리는 민주주의적민족권리를 위하여, 조국의 통일을 위하여 계속 힘차게 싸우고있는 60만 재일조선동포들을 비롯한 모든 해외공민들의 정당한 투쟁을 견결히 지지성원할것이다.

우리 당의 자주적대외정책을 철저히 관철하는것은 우리 혁명의 민족적 및 국제적 임무를 철저히 수행하기 위한 중요한 담보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10대정강에서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공화국정부와 조선인민은 미제를 반대하는 국제혁명력량과의 련대성을 강화하는것을 조선혁명승리의 중요한 요인으로 인정하고 세계의 모든 반제반미력량과 단결할것이며 미제를 반대하는 모든 나라 인민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할것입니다.》(우와 같은 책, 583페지)

우리 당은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세계제국주의를 반대하고 평화와 민주주의, 민족적독립과 사회주의를 위한 세계혁명적인민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하며 사회주의나라들을 비롯한 세계의 혁명력량과의 긴밀한 국제주의적 단결을 강화하는것을 대외정책의 확고부동한 원칙으로 삼고있다.

미제를 반대하여 투쟁하는것은 오늘 전세계 혁명적인민들의 첫째가는 과업이다. 미제는 오늘 큰 나라들과는 될수록 관계를 악화시키지 않고 대결을 피하면서 작고 분렬된 혁명적인 사회주의나라들과 신생독립국가들을 무력으로 각개격파하려 하며 사상적으로 나약하고 혁명을 하지 않으려 하며 제국주의와의 무원칙한 공존만 부르짖으면서 인민들속에서 제국주의에 대한 환상을 퍼뜨리며 제국주의와 사이좋게 살기를 바라는 나라들에 대하여서는 사상정치적공세를 강화하여 이 나라들을 내부로부터 와해하려는 기본전략을 쓰고있다. 우리는 미제의 이 흉악하고 교활한 반혁명적전략에 미제의 두주먹을 각개분단하는 혁명적전략으로 단호히 대답해나서야 한다. 우리는 사회주의나라들과 전세계의 반제력량과의 단결된 힘으로 미제의 각을 뜨고 숨통을 끊어놓아야 한다. 우리 인민은 김일성동지의 10대정강이 가리키는 길을 따라 맑스-레닌주의와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기치, 반제반미투쟁의 기치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나라인민들과 단결하며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인민들과 단결하여 세계혁명의 공동위업을 완수하기 위하여 계속 힘차게 싸워나갈것이다. 또한 우리는 세계사회주의시장을 공고발전시키며 국제적인 경제적련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계속 노력할것이다.

김일성동지의 10대정강에서 제시된 자주, 자립, 자위의 혁명적로선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하여서는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더욱 확고히 세워야 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근로자들에게 당의 로선과 정책을 철저히 해석침투하여 그 본질과 정당성을 똑똑히 인식시켜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그들로 하여금 수정주의, 좌경기회주의, 사대주의, 부르죠아사상, 봉건적유교사상, 종파주의, 지방주의, 가족주의 등 온갖 불건전하고 반혁명적인 사상 요소들을 반대하여 강하게 투쟁하게 하며 언제 어디서나 조선로동당의 사상으로 사고하고 행동하며 어떤 풍파속에서도 조금도 동요하지 않고 오직 당이 가리키는 길을 따라 확신성있게 나아가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우와 같은 책, 549페지)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우리 당의

유일사상,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과 그 구현인 당의 로선과 정책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더욱 철저히 세워야 한다. 오직 이렇게 할 때에만 우리 앞에 제기된 모든 혁명임무를 끝까지 완수하고 조선혁명의 종국적승리를 달성할수 있다.

우리는 수령의 위대한 10대정강, 조선로동당대표자회보고, 공화국창건 스무돐기념경축대회보고 등을 비롯한 모든 로작과 교시들을 심오히 학습하여 수령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을 자신의 뼈와 살로 만들며 수령께서 제시하신 모든 로선과 정책을 모든것을 다바쳐 관철해나가야 한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수령의 혁명사상을 자신의 확고부동한 신념으로 만들고 그것을 유일한 자로 삼아 모든 사업과 생활을 조직하며 오직 수령께서 가리키시는 한길을 따라 싸워나아가는 수령의 충직한 혁명전사로 더욱 튼튼히 준비될 때 우리 당의 자주, 자립, 자위의 혁명로선은 더욱 훌륭히 관철될것이다.

자주,자립,자위의 혁명로선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하여서는 국가의 프로레타리아독재기능을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국가의 프로레타리아독재기능을 부단히 강화함으로써 우리의 혁명기지를 와해시키려고 밖으로부터 기어드는 적대분자들과 전복된 착취계급잔여분자들의 반항을 진압할뿐아니라 사상혁명과 문화혁명을 힘있게 추진하여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여야 합니다.》(우와 같은 책, 546페지)

프로레타리아독재를 강화하고 계급투쟁과 사상혁명을 철저히 수행하는것은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와 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위한 담보이며 당의 로선과 정책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필수적요구이다. 우리는 프로레타리아독재를 백방으로 강화하여 내부의 원쑤들과 제국주의자들의 반혁명적기도를 철저히 소탕해버려야 하며 로동계급의 령도적역할과 혁명적작용을 강화하면서 사상혁명을 힘있게 밀고나아가 전체 근로자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여야 한다.

프로레타리아독재를 강화하는데서 또한 중요한것은 인민정권기관들의 역할을 더욱 높이며 국가경제기관일군들의 사업방법과 작풍을 개선하는것이다.

국가경제기관일군들은 모두다 자신이 당과 수령의 전사이며 인민의 심부름군이라는 사명을 깊이 인식하고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을 높이며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하여 투쟁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당의 로선과 정책을 해석선전하며 열렬히 옹호관철하는 투쟁에서 자기의 임무와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여야 할것이다.

우리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공화국정부정강을 실현하는 투쟁에서 달성된 첫 승리를 더욱 공고히 하면서 정강에 제시된 모든 과업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하여 더욱 억세게 투쟁하여야 할것이다.

자주, 자립, 자위의 혁명정신으로 일관된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10대정강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투쟁은 우리 나라를 더욱 부강하고 발전된 사회주의나라로 전변시키기 위한 투쟁이며 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의 완전승리를 앞당기며 조국통일과 조선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촉진하기 위한 투쟁이다.

모두다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위에 굳게 뭉쳐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와 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위하여, 조선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위하여 수령께서 제시하신 자주, 자립, 자위의 길을 따라 힘차게 싸워나가자!

위대한 주체사상을 빛나게 구현한 자주, 자립, 자위의 혁명적로선, 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추동하는 강령적지침

《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출판에 즈음하여

최근 조선로동당출판사에서는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로작들을 담은 《김일성저작선집》 제4권을 세상에 내놓았다.

이로써 1945~1967년시기의 김일성동지의 로작들을 묶은 《저작선집》 전4권이 모두 출판되였다.

《김일성저작선집》의 출판은 우리 인민의 사상생활에서 획기적인 사변으로 되며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거대한 리론실천적의의를 가진다.

《김일성저작선집》에는 맑스-레닌주의를 조선혁명에 창조적으로 적용한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 주체사상과 그를 정치, 경제, 군사, 과학, 문화의 모든 분야에 구현한 우리 당의 정확한 로선과 정책들이 집대성되여있다.

《김일성저작선집》에는 조선혁명발전의 매 시기마다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실 우리 당의 정확한 로선과 정책, 탁월한 맑스-레닌주의적전략과 전술이 전면적으로 천명되여있으며 우리 당과 인민이 수령의 현명한 령도밑에 내외원쑤들과의 치렬한 투쟁속에서 새 사회를 건설하여온 고귀한 경험과 불멸의 업적이 과학적으로 분석총화되여있다.

실로 《김일성저작선집》은 혁명하는 우리모두에게 있어서 투쟁과 생활의 지침이며 교과서이며 한시도 없어서는 안될 혁명의 량식이다.

《김일성저작선집》 가운데서 제4권은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제4권이 포괄하는 1964~1967년시기는 국제, 국내적으로 매우 긴장된 때였다.

미제국주의자들과 그 앞잡이들은 침략과 전쟁 정책을 로골화하면서 북반부에 대한 도발행위를 끊임없이 감행하였으며 국제공산주의운동내부에 나타난 좌우경기회주의와 대국주의는 국제혁명력량을 분렬시키며고 악랄하게 책동하였고 형제당, 형제나라들에 정치경제적압력을 계속 가하면서 이 나라들의 혁명과 건설에 엄중한 후과를 끼치고있었다.

우리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성된 정세를 과학적으로 분석하시고 우리 당과 인민이 나아갈 방향과 정확한 전략전술을 세우시고 당과 인민을 승리에로 확고히 이끄시였으며 맑스-레닌주의혁명적기치를 높이 드시고 좌우경기회주의를 반대하며 국제공산주의운동의 통일단결을 이룩하고 세계혁명을 추진하는데 거대한 공헌을 하시였다.

《김일성저작선집》 제4권에는 이 시기의 김일성동지의 론문, 연설, 보고, 결론, 강의, 서한, 담화들 가운데서 중요

한 로작 19건이 들어있다.

이 로작들에는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주체사상과 자주, 자립, 자위의 혁명적로선이 전면적으로 천명되여있으며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혁명적로선, 사회주의건설에서 일대 앙양을 일으키며 혁명적대고조를 계속 견지할데 대한 문제, 사회주의농촌문제해결의 원칙과 방도, 계획의 일원화와 세부화, 전사회의 혁명화, 로동계급화 등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서 나서는 근본적문제들에 대한 과학적인 해답이 주어져있다.

또한 이 로작들에는 혁명적문학예술과 민족문화의 발전에서 우리 당이 견지하고있는 주체적립장, 일군들의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을 높이며 당 및 근로단체 사업을 발전하는 현실에 맞게 부단히 개선해나가는 창조적태도,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문제, 반제반미투쟁과 좌우경기회주의를 극복하고 국제공산주의운동의 통일을 이룩하는 문제들에서 우리 당이 견지하고있는 원칙적립장과 맑스-레닌주의적전략전술이 구체적으로 밝혀져있다.

우리는 아래에 《김일성저작선집》 제4권에 담겨져있는 중요사상들에 대하여 해설하려 한다.

위대한 주체사상, 자주, 자립, 자위의 혁명정신을 철저히 구현할데 대하여

저작선집 제4권에 들어있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의 사회주의건설과 남조선혁명에 대하여》, 《조선로동당창건 스무돐에 즈음하여》, 《현정세와 우리 당의 과업》, 《국가활동의 모든 분야에서 자주, 자립, 자위의 혁명정신을 더욱 철저히 구현하자》를 비롯한 여러 로작들에는 4천만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주체사상의 혁명적본질과 그 정당성이 심오하게 해명되여있으며 그것을 구현한 자주, 자립, 자위의 혁명적로선을 모든 분야에서 철저히 관철할데 대한 강령적과업들이 전면적으로 밝혀져있다.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은 조선혁명의 운명을 위기에서 구출하고 조국의 자유와 해방을 가져왔으며 이 땅에서 민족적대번영의 시대를 열어놓은 사상이며 혁명을 가장 곧바른 승리의 한길로 이끌며 그 종국적승리를 담보하는 위대한 혁명사상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체사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주체를 세운다는것은 혁명과 건설의 모든 문제를 독자적으로, 자기 나라의 실정에 맞게 그리고 주로 자체의 힘으로 풀어나가는 원칙을 견지한다는것을 의미한다.》 (《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219페지)

이것은 사대주의와 교조주의를 반대하고 맑스-레닌주의의 보편적진리와 다른 나라의 경험을 자기 나라의 력사적조건과 민족적특성에 맞게 적용하여나아가는 현실적이고 창조적인 립장이다. 이것은 남에 대한 의존심을 버리고 자력갱생의 정신을 발양하여 자기의 문제는 어디까지나 자신이 책임지고 풀어나가는 자주적립장이다.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주체사상은 혁명과 건설의 일반적원칙과 민족적특수성, 혁명승리에서의 내부적요인과 국제적요인, 로동계급의 민족적임무와 국제적임무의 호상관계에 관한 과학적분석에 기초하고있으며 공산주의운동의 원칙에서 직접 흘러나온것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매개 당들이 오직 맑스-레닌주의일반원칙을 자기 나라의 력사적조건과 민족적특성에 맞게 창조적으로 적용하여나아가야만 혁명과 건설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다고 교시하시였다. 매개 당은 자기 나라의 구체적환경과 조건에서 혁명과 건설을 한

다. 혁명과 건설에는 그 구체적인 모든 경우에 들어맞는 미리 준비된 처방이나 일반적통칙이란 없으며 또 있을수도 없다.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매개 나라 혁명의 주인은 그 나라 당과 그 나라 인민이며 혁명승리의 결정적요인도 그 나라 자체의 힘이다. 남에 대한 의존심을 가지고서는 혁명을 할수 없으며 다른 사람이 자기를 대신하여 혁명을 하여줄수 없다는것은 명백하다. 혁명에서 국제적인 지지성원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보조적역할을 하는데 지나지 않으며 주인인 자신이 노력하고 투쟁하여야만 혁명을 전진시킬수 있으며 승리에로 이끌수 있다.

매개 나라 로동계급에게 맡겨진 기본임무는 우선 자기 나라 혁명을 잘하는것이다. 자기 나라 혁명을 잘하여야만 세계혁명도 잘할수 있다.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주체사상은 혁명과 건설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가장 정확한 맑스-레닌주의적지도사상이며 국제혁명운동에 적극적으로 이바지하기 위한 철저한 국제주의사상이다.

김일성동지께서 《현정세와 우리 당의 과업》에서 명백히 말씀하신바와 같이 《주체를 잃고 사대주의에 빠지게 되면 독자적인 사고력이 마비되여 창발성을 발휘할수 없는것은 물론, 나중에는 옳고 그른것도 가리지 못하고 남이 하는것을 맹목적으로 따라가게 되며 자기 힘을 믿지 못하고 모든것을 남에게만 의존하려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수정주의와 교조주의, 종파주의 등 좌우경기회주의를 다 범하게 될것이며 혁명과 건설사업을 크게 망쳐버릴수 있습니다.》 (우와 같은 책, 379페지)

력사적경험은 사람이 사대주의를 하면 머저리가 되고 민족이 사대주의를 하면 나라가 망한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준다.

특히 우리 나라가 처한 지리적위치와 환경, 우리 나라 력사발전의 특수성 그리고 우리 혁명의 복잡성과 간고성으로 하여 우리 나라에서 주체를 세우는가 못세우는가 하는것은 실로 혁명의 승패를 좌우하는 관건적인 문제로, 민족의 흥망을 결정하는 사활적인 문제로 나섰다.

우리 당은 김일성동지께서 이미 혁명활동의 첫시기부터 확고히 견지하여오신 위대한 주체사상을 자기 활동의 확고부동한 지침으로 삼고 그것을 구현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하였기때문에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위대한 승리와 성과를 거둘수 있었다.

《현정세와 우리 당의 과업》에서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체를 더욱 철저히 세울데 대하여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사대주의의 온갖 표현을 반대하고 그것을 완전히 뿌리뽑아야 하며 모든 분야에서 주체를 더욱 철저히 세우고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더욱 발양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사상에서 주체를 세우고 정치에서 자주, 경제에서 자립, 국방에서 자위의 원칙을 계속 확고히 견지하여야 할것입니다.》 (우와 같은 책, 379페지)

자주성은 혁명승리의 필수적요구이며 그 누구도 침해할수 없는 매개 나라의 신성한 권리이다. 어떤 민족이든지 정치적자주성을 견지하여야만 독립과 자유를 보장할수 있으며 행복과 번영을 이룩할수 있다. 자주성이 보장되여야 또한 매개 당들이 자기 나라 혁명을 잘할뿐아니라 세계혁명에 이바지할수 있으며 국제공산주의운동의 단결도 강화할수 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무엇보다도 사회주의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당의 령도밑에 자기 머리로 사고하고 우리의 현실에 맞게 자주적으로 풀어나가는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며 다른 나라의 경험에서 배우는 경우에도 어디까지나 그것을 비판적으로 대하고 우리의 실정에 맞지 않는것은 맹목적으로 따르지 말데 대하여 중요하게 교시하시였다. 또한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도 자주적립장을 계속 견지하고 대외정책분야에서도 완전히 평등과 호상존중의 원칙에서 다른 나라들과 정치, 경제적 관계를 맺으며 반제투쟁이나 좌우경기

회주의를 반대하는 투쟁도 자신의 독자적인 신념에 기초하여 우리의 실정에 맞게 할데 대하여 명확히 천명하시였다.

주체사상을 구현하는데서 중요한것은 또한 경제분야에서 자력갱생의 원칙을 관철하여 우리 당의 자립적민족경제건설로선을 계속 충실히 집행하는것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자력갱생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식화하시였다:

《자력갱생, 이것은 자기 나라 혁명은 기본적으로 자기의 주체적력량에 의거하여 완수하려는 철저한 혁명적립장이며 자기 나라 건설은 자기 인민의 로동과 자기 나라의 부원으로 진행하려는 자주적립장입니다.》(우와 같은 책, 537페지)

자력갱생의 혁명적립장을 견지하여야만 어떤 풍파속에서도 혁명적절개를 굽히지 않고 투쟁을 계속할수 있으며 전진도상에서 부닥치는 난관을 용감하게 이겨내고 혁명투쟁의 승리와 건설사업의 성과를 보장할수 있다.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이 없으면 자기의 힘을 믿지 않게 되고 자기 나라의 내부원천을 동원하기 위하여 노력도 하지 않게 되며 안일성과 해이성에 사로잡히고 소극성과 보수주의를 범할수 있다.

《국가활동의 모든 분야에서 자주, 자립, 자위의 혁명정신을 더욱 철저히 구현하자》를 비롯한 여러 로작들에는 우리 당의 자립적민족경제건설로선의 정당성이 심오하게 밝혀져있다.

자립적민족경제건설로선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합법칙적요구에 부합되는 철저한 혁명적경제건설로선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어떤 민족이든지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하여야만 정치적독립을 보장할수 있고 사회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를 쌓을수 있으며 완전한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서 다른 나라들과의 경제교류도 더욱 효과적으로 발전시킬수 있다는것을 과학적으로 론증하시였다. 또한 매우 발전된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하여야만 온갖 민족적불평등을 없애고 모든 민족들은 사회주의를 성과적으로 건설할수 있으며 점차 공산주의에로 넘어갈수 있다는것을 명확하게 교시하시였다.

국방분야에서 주체를 세운다는것은 자력갱생의 혁명적원칙을 관철하여 나라의 자위력을 더욱 강화한다는것을 말한다.

자위력은 제국주의반동을 반대하는 싸움에서 승리의 결정적요인이다. 만일 자체의 력량은 강화하지 않고 외부의 지원만 바라고있다면 조국의 안전과 혁명의 전취물을 제국주의의 침략으로부터 믿음직하게 지켜낼수 없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당의 자위의 혁명정신을 구현하여 나라의 군사적위력을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는것을 가르치시였다.

오늘 우리 인민은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주체사상으로 무장하고 그것을 모든 분야에서 훌륭히 구현하여나아감으로써 우리 나라를 정치에서 자주적이고 경제에서 자립적이며 국방에서 자위적인 더욱 부강하고 위력한 사회주의나라로 전변시켜나가고있다.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키며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혁명적대고조를 계속 견지할데 대하여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선로동당창건 스무돐에 즈음하여》, 《현정세와 우리 당의 과업》, 《농민을 혁명화하며 농업부문에서 당대표자회결정을 철저히 관철할데 대하여》, 《당면한 경제사업에서 혁명적대고조를 일으키며 로동행정사업을 개선강화할데 대하여》를 비롯한 여러 로작들에서 경제건설에 못지 않게 국방건설의 비중을 높여 그들을 다같이 튼튼히 틀어쥐고 병진시켜나갈데 대한 우리 당의 새로운 혁명적

로선을 명확하게 천명하시고 이 로선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하여 사회주의건설의 전전선에서 일대 혁명적앙양을 일으킨 전투적과업을 제시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 내놓으신 이 로선은 제국주의가 남아있는 조건에서 그와 격렬한 투쟁을 전개하며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여야 할 혁명발전의 합법칙적요구와 현시기 조성된 정세를 가장 정확히 반영한것이다.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옳게 결합시키는가 못시키는가 하는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운명을 좌우하는 기본문제의 하나이다.

김일성동지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전쟁이 일어나면 다 파괴될것이라 하여 국방건설에만 치우치고 경제건설을 제대로 진행하지 않는다면 나라의 위력을 튼튼히 할수 없고 인민생활을 높일수 없으며 도대체 제국주의가 멸망하기전에는 사회주의, 공산주의도 건설할수 없게 된다. 다른 면으로 평화적기분에 사로잡혀 경제건설에만 치우치고 국방력을 응당하게 강화하지 않는다면 전쟁의 위험을 증대시킬수 있으며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건설은 고사하고 도대체 제국주의의 침략으로부터 혁명의 전취물도 수호할수 없게 된다.

전쟁의 위험성이 커진다고 하더라도 국방력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경제건설을 계속 힘있게 전개하며 전쟁이 당장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경제건설을 적극 밀고나가는 동시에 국방력을 계속 강화하는것은 제국주의가 남아있는 조건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는 우리가 반드시 견지하여야 할 확고한 원칙이다.

특히 최근년간에 미제침략자들이 전쟁확대음모를 더욱 로골화하는 길에 들어선 조건에서 우리의 국방력을 더욱 강화하는것은 우리 혁명과 건설의 근본적리익을 위하여 지체할수 없는 절실한 요구로 제기되였다.

우리 당은 조성된 정세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과 조국통일을 이룩하여야 할 우리 혁명임무로부터 출발하여 1962년 당중앙위원회 제4기 제5차전원회의에서 국방력을 더욱 강화할수 있도록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독창적인 로선을 내놓고 경제건설을 개편하는 한편 국방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일련의 중요한 대책을 세웠다.

저작선집 제4권에 들어있는 《현정세와 우리 당의 과업》을 비롯한 여러 문헌들에는 이미 생활을 통하여 그 정당성이 확증된 이 로선을 관철하기 위한 과업이 구체적으로 밝혀져있으며 그것을 실현하는데서 나서는 리론실천적문제들에 대한 전면적인 해답이 주어져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성된 정세의 요구에 맞게 사회주의건설의 전반적사업을 개편하며 특히 원쑤들의 침략책동에 대비하여 국방력을 더욱 강화할수 있도록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계속 병진시켜나갈것을 가르치시면서 4차당대회가 제시한 사회주의건설의 웅대한 강령을 실현하기 위하여 현시기 우리 나라 경제발전의 기본방향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시였다:

《이미 마련하여놓은 경제적밑천을 최대한으로 리용하며 생산과 건설에서 질을 높이는것, 이것이 현시기 우리 나라 경제발전의 기본방향이며 바로 여기에 생산의 장성과 인민생활향상의 거대한 예비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기본방향에 따라 인민경제에 내재하는 예비와 가능성을 남김없이 동원하는데 주되는 힘을 돌려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의 경제토대를 더욱 확대하기 위한 새로운 기본건설을 계속 진행하여야 할것입니다.》(우와 같은 책, 359페지)

김일성동지께서는 공업부문에서의 중심과업은 채취공업과 동력공업을 앞세우고 공업의 골간에 살을 붙이며 기술관리를 잘하고 기술혁신을 강화함으로써 생산을 정상화하고 생산능력을 최대한으로 높이는데 있다고 말씀하시였다.

전국농업일군대회에서 하신 연설 《농민을 혁명화하며 농업부문에서 당대표자회결정을 철저히 관철할데 대하여》에서 김일성동지께서는 농업부문의 가장 중요한 과업은 알곡을 많이 생산하는것이며 이것

이 경제건설도 잘하고 국방건설도 잘하며 농촌에서 전쟁준비에 이바지하는 길이라고 지적하시였으며 알곡생산과 함께 공예작물, 남새생산, 축산업, 과수업을 빨리 발전시킬데 대하여 교시하시였다.

《교통운수부문에서 정치사업을 앞세우며 군중로선을 관철할데 대하여》를 비롯한 일련의 로작들에서는 철도의 통과능력과 견인력을 결정적으로 높이고 운수기재생산을 늘이며 철도의 리용률을 높이는 동시에 새 철도를 적극 건설하며 짐을 싣고 부리는 일을 기계화함으로써 긴장된 수송문제를 풀데 대한 과업을 제시하시였다.

저작선집 제4권에 수록된 로작들에는 특히 로동행정사업에 큰 주의를 돌려 근로자들속에서 로동에 대한 자각적태도를 키우고 480분로동시간을 완전히 리용하도록 하며 기술혁신운동을 강화하고 로력배치와 사회주의적분배를 정확히 하며 로동계획화사업을 개선하고 후방공급사업을 잘할데 대한 과업과 구체적인 방도가 명백히 밝혀져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또한 인민경제의 부문구조를 개선하며 대규모기업소들과 중소규모기업소들을 병진시키고 나라의 생산력을 합리적으로 배치하며 특히 지방경제의 발전을 다그쳐 어떤 환경에 부닥치더라도 국가와 인민의 물질적수요를 원만히 보장할수 있도록 우리 인민경제를 더욱 공고하고 생활력이 강한 자립경제로 만들어야 한다는것을 중요하게 강조하시였다.

경제건설을 최대한으로 촉진시키는 동시에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인민군대와 인민을 정치사상적으로 철저히 무장시키는것이 중요하다.

혁명군대는 인민의 자유와 해방을 위하여 투쟁하는 숭고한 사명과 혁명정신, 장병들간의 동지적우애와 자각적인 군사규률, 인민들과의 밀접한 련계 등 그의 정치사상적우월성으로 하여 기술적으로나 수적으로 훨씬 우세한 침략군대를 능히 격파할수 있는것이다. 인민군대와 인민을 정치사상적으로 튼튼히 준비시키기 위하여서는 그들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무한히 충실한 혁명전사로 키우고 그들속에서 상하일치와 군민일치의 전통적기풍을 발양하며 언제 어디서나 긴장된 태세를 견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또한 《우리의 방위력을 불패의것으로 강화하기 위하여서는 당의 군사로선에 따라 인민군대에서는 전군간부화와 전군현대화 방침을 계속 관철하며 인민들은 전민무장화와 전국요새화 방침을 어김없이 집행하여야 하겠습니다.》(우와 같은 책, 573페지)라고 교시하시였다.

우리 당의 군사로선은 국방에서의 당의 자위로선을 철저히 구현하기 위한 창조적인 로선이며 그 실현은 적들의 온갖 형태의 무력침공을 섬멸적으로 격파할 확고한 담보로 된다.

인민군대렬을 정치사상적으로, 군사기술적으로 단련하여 모든 장병들이 한 등급이상의 높은 지휘관의 임무를 담당할수 있도록 전군을 간부화하여야만 인민군대의 전투력을 비상히 높일뿐아니라 일단 유사시에는 그들을 핵심으로 하여 우리 무력을 빨리 확대할수 있다. 동시에 인민군대를 현대적무기와 전투기술기재로 무장시키고 이에 정통하게 하며 군사과학과 군사기술을 빨리 발전시키고 그것을 모든 군인들이 충분히 소유하도록 하여 전군을 현대화하여야만 인민군대의 정치사상적우월성이 현대적군사기술과 결합되여 참말로 위대한 힘을 발휘할수 있다. 군대의 간부화, 현대화 방침을 관철하여야만 인민군대를 일당백의 강철의 대오로 만들수 있다.

전민무장화와 전국요새화는 전체 인민의 확고부동한 정치사상적통일과 나라의 튼튼한 자립적경제토대에 기초한 가장 위력한 방위체계이다. 전체 인민을 다 무장시키고 온 나라를 요새로 만들어야만 어느때, 어디로 적이 덤벼들더라도 단매에 쳐물리칠수 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으로 후방을 공고화하기 위하여 특히 군사전략상 중요지대를 잘 꾸리고 군수공업을 발전시키며 필요한 물자예비를 조성하고 일단 유사시에 모든 경제를 급속히 전시체제로 개편하며 전시에도 생산을 계속할수 있도록 준비할것을 중요하게 가르치시였다.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키는것은 실로 방대한 혁명과업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이 어려운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대중의 정치적열의를 최대한으로 발양시켜 천리마의 대진군을 계속 견지하여야 한다는것을 특별히 강조하시였다.

《당면한 경제사업에서 혁명적대고조를 일으키며 로동행정사업을 개선강화할데 대하여》는 여기서 나서는 리론실천적문제들에 대한 전면적해답을 준 강령적문헌이다.

문헌에서 김일성동지께서는 새로운 혁명적대고조를 일으켜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키기 위하여서는 첫째로, 모든 간부들과 근로자들이 사상적준비, 무엇보다도 전쟁에 대한 옳은 관점을 가지고 전쟁준비를 잘하여야 하겠다는 각오를 철저히 할데 대하여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전쟁을 바라지 않지만 결코 전쟁을 두려워하지는 않는다. 더우기 미제가 남반부에 둥지를 틀고 북반부에 대한 침공을 시시각각으로 노리고있는 조건에서 모든 전쟁을 다 반대하거나 두려워하여서는 절대로 안된다. 우리는 원쑤들이 덤벼들면 용감하게 그것을 맞받아나아가 싸우며 또한 조선혁명을 책임진 공산주의자로서 미제를 남조선에서 몰아내고 조국을 통일하기 위하여 어느때든지 한번은 꼭 그놈들과 해방전쟁을 하여야 한다는 사상적각오를 가져야 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둘째로, 인민경제의 모든 부문에서 우리의 전진을 방해하는 온갖 불건전한 요소들을 반대하여 강하게 투쟁할데 대해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대표자회결정을 성과적으로 관철하며 새로운 혁명적대고조를 일으키기 위하여서는 전후시기 당의 경제건설의 기본로선을 관철할 때처럼, 1957년, 1958년에 천리마대고조를 일으킬 때처럼 소극분자, 보수분자, 동요분자들을 반대하여 강한 사상투쟁을 벌려야 합니다. 특히 우리는 당안에 남아있는 좌우경기회주의, 사대주의, 자본주의사상과 봉건적유교사상, 종파주의, 지방주의, 가족주의의 요소들, 한마디로 말하여 우리의 전진운동을 가로막는 온갖 건실치 못한 사상요소들과 그 표현들을 반대하여 비타협적인 투쟁을 벌려야 할것입니다.》 (우와 같은 책, 488페지)

낡고 침체한것과의 날카로운 투쟁이 없이는 당의 새로운 로선을 관철할수 없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적대고조를 계속 견지하기 위하여서는 또한 천리마작업반운동을 더욱 힘있게 벌리며 모든 사람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기 위한 사업을 더 적극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농촌문제를 종국적으로 해결할데 대하여

사회주의하에서 농민문제와 농업문제는 사회주의를 건설하며 공산주의에로의 이행을 준비하는데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의 하나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 《농민을 혁명화하며 농업부문에서 당대표자회결정을 철저히 관철할데 대하여》를 비롯한 여러 로작들에서 사회주의농촌문제의 본질적내용, 농촌문제해결의 기본원칙과 구체적방도를 전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하에서도 농촌문제가 중요하게 남아있게 되는 근원은 낡은 착취사회에서 물려받은 농촌의 기술, 문화, 사상의 락후성에 있으

며, 이로 인하여 경제관리수준과 소유관계에서 농업이 공업보다 뒤떨어지게 되고 로동계급과 농민간의 계급적차이가 남아있게 된다는것을 밝히시고 사회주의농촌문제의 본질적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회주의하에서의 농민문제와 농업문제는 농촌에 수립된 사회주의제도를 끊임없이 공고화하는 기초우에서 농업생산력을 고도로 발전시키고 농민들의 생활을 넉넉하게 하며 착취사회가 남겨놓은 농촌의 락후성을 없애고 도시와 농촌간의 차이를 점차적으로 없애는데 있다.》(우와 같은 책, 33페지)

농촌문제는 착취사회가 남겨놓은 농촌의 온갖 락후성을 없애고 도시와 농촌간의 차이, 로동계급과 농민간의 계급적차이를 없애야만 종국적으로 해결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하에서 농민문제와 농업문제를 성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확고히 견지해야 할 세개의 기본원칙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시였다:

《첫째로, 농촌에서 기술혁명과 문화혁명, 사상혁명을 철저히 수행하여야 하며,

둘째로, 농민에 대한 로동계급의 지도, 농업에 대한 공업의 방조, 농촌에 대한 도시의 지원을 백방으로 강화하여야 하며,

셋째로, 농촌경리에 대한 지도와 관리를 공업의 선진적인 기업관리수준에 끊임없이 접근시키며 전인민적소유와 협동적소유의 련계를 강화하고 협동적소유를 전인민적소유에 부단히 접근시켜야 한다.》(우와 같은 책, 34페지)

사회주의를 전면적으로 건설하며 공산주의에로의 이행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혁명을 계속하여야 하며 특히 농촌에서 기술, 문화, 사상 혁명을 철저히 수행해야 한다. 그래야만 농민들의 혁명적열의를 계속 앙양시키고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발양시키며 기술, 문화, 사상 분야에서 농촌의 락후성을 성과적으로 없앨수 있다.

김일성동지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농촌에서의 기술, 문화, 사상 혁명의 과업은 서로 밀접히 련결되여있는 하나의 통일적인 과정으로 수행되게 되며 그 가운데서도 사상혁명은 모든 사업에 앞세워야 할 가장 중요하고 어려운 혁명과업이다.

농촌에서 사상혁명을 적극적으로 진행하여 농민들의 머리속에 남아있는 소부르죠아사상을 철저히 없애지 않고는 기술혁명도 할수 없고 사회주의협동경리제도를 공고히 할수도 없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농민을 혁명화하며 농업부문에서 당대표자회결정을 철저히 관철할데 대하여》에서 농촌사상혁명을 강화할데 대하여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농촌에서 사상사업을 강화하여 농민들의 계급적각성을 높이며 그들을 나라와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정신으로 교양하며 리기주의를 반대하고 그들에게 집단주의정신을 길러주며 로동계급의 혁명성과 조직성을 길러주기 위하여 꾸준히 투쟁하여야 하겠습니다.》(우와 같은 책, 463페지)

농민들에게 남아있는 리기주의와 소부르죠아적근성을 뿌리뽑기 위해서는 그들을 김일성동지의 교시와 당정책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고 그들속에서 혁명전통교양과 계급교양을 강화하며 집단주의사상과 공동재산을 사랑하는 정신으로 교양하는 사업을 꾸준히, 정력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사상혁명이 가장 중요하다는것은 기술, 문화 혁명을 소홀히 해도 된다는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사상혁명을 앞세우면서 이와 병행하여 기술, 문화 혁명을 힘있게 추진시켜야만 농촌경리의 물질기술적토대도 강화하고 농촌주민들의 문화수준도 높일수 있으며 그들의 사상개조도 적극 추진시킬수 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협동화후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가 농촌을 지도방조하며 지원할데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가르쳐주시였다:

《…사회주의협동화가 완성된후 농촌에서 기술혁명, 문화혁명, 사상혁명을 힘있게 추진시키며 도시와 농촌간의 차이를 점차 없애기 위하여서는 농촌에 대한 당과 국가의 지도와 방조를 백방으로 강화하여야 하며 도시가 농촌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우와 같은 책,

38페지)

농민은 오직 로동계급의 령도와 방조하에서만 사회주의의 길에 들어설수 있으며 나아가서는 공산주의로 넘어갈수 있다. 사회주의하에서 로동자와 농민은 목적과 리상이 같은 동맹자이며 다같이 사회주의적근로자이다. 또한 전인민적소유와 협동적소유는 서로 밀접한 련관속에서 발전하는 사회주의적소유의 두개 형태이며 다같이 사회주의국가의 경제적기초를 이루고있다.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는 마땅히 로동자, 사무원들의 생활뿐만아니라 농민들의 생활에 대해서도, 전인민적소유의 발전뿐만아니라 협동적소유의 발전에 대해서도 책임지고 돌보아야 하며 도시가 농촌을, 공업이 농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테제에는 또한 농촌경리의 지도와 관리를 개선하며 협동적소유와 전인민적소유의 련계를 강화하고 협동적소유를 전인민적소유의 수준에로 끌어올리기 위한 가장 정확한 길이 밝혀져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농촌경리에 대한 지도와 관리를 개선하는 기본방향은 농업협동경리의 관리운영방법을 공업의 선진적인 기업관리방법에 끊임없이 접근시키는것이라고 교시하시였다.

농업의 경영규모가 커지고 그 기술장비가 점차 공업의 수준에 가까와가고 있는만큼 농촌경리에 대한 지도관리방법도 응당 공업의 기업관리방법에 더욱더 접근시켜야 하며 농촌경리도 공업과 같이 기업적방법으로 지도관리해야 한다.

김일성동지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기업적방법으로 관리한다는것은 생산에 대한 기술지도를 강화하며 기업소의 모든 경영활동을 계획화하고 조직화한다는것을 의미한다.

기업적방법에 의한 농업협동경리의 지도관리는 농촌기술혁명을 촉진시키며 농업관리에서의 산만성과 비조직성을 없애고 토지, 농기계를 비롯한 생산수단들과 로동력을 합리적으로 리용할수 있게 하며 농촌경리에서의 생산문화를 높일수 있게 한다.

협동적소유의 발전에 관한 문제 그리고 전인민적소유와 협동적소유의 호상관계에 관한 문제는 사회주의농촌건설과 전반적사회주의건설에서 기본문제의 하나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전인민적소유와 협동적소유간의 호상관계, 공업과 농업간의 련계에 관한 문제를 옳게 해결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업과 농업간의 직접적인 생산적련계를 강화하며 협동적소유에 대한 전인민적소유의 지도적역할을 끊임없이 높이는 방향에서 두 소유를 유기적으로 결합시키는것이다.》(우와 같은 책, 41~42페지)

이를 위하여서는 농촌경리에 복무하는 국가기업소들의 역할을 끊임없이 높이고 전인민적소유에 속하는 현대적인 물질기술적수단들이 농업생산에서 점차 압도적비중을 차지하게 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전인민적소유와 협동적소유를 밀접히 결합시켜나아가야만 협동적소유를 공고발전시키고 협동적소유의 전인민적소유에로의 점차적전환과정을 순조롭게 할수 있다.

사회주의농촌건설에서 지역적거점을 옳게 설정하고 그 역할을 부단히 높이는것은 농촌문제해결의 기본원칙들을 성과적으로 실현할수 있게 하는 관건적고리의 하나로 된다.

우리 나라에서는 군이 농촌사업과 지방의 전반적사업을 직접적으로, 통일적으로 지도하는 지역적단위로 되고있으며 거점으로 되고있다.

군은 농촌에서의 기술, 문화, 사상혁명의 수행을 촉진하는 거점으로 되며 도시와 농촌을 련결시키고 농촌에 대한 도시의 정치, 경제, 문화적 지원을 실현하는 거점으로 된다.

지역적거점으로서의 우리 나라 군의 역할을 높이는것은 농촌문제를 종국적으로 해결하고 전반적인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촉진시키는데 있어서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

김일성동지의 로작 《우리 나라 사회주의 농촌문제에 관한 테제》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경리제도의 거대한 우월성을 과시하였으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서 근본적의의를 가지는 농촌문제의 종국적해결을 위한 참다운 맑스-레닌주의적길을 전면적으로 밝혀준 강령적 문헌이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계획의 일원화와 세부화를 실현할데 대하여

계획화는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성과를 좌우하는 관건적문제의 하나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계획의 일원화, 세부화 방침을 내놓으심으로써 사회주의 경제제도의 본성에 맞게 계획화체계와 방법을 완성하시였다.

《인민경제계획의 일원화, 세부화의 위대한 생활력을 남김없이 발휘하기 위하여》, 《지도일군들의 당성, 계급성, 인민성을 높이며 인민경제의 관리운영사업을 개선할데 대하여》를 비롯한 여러 로작들에는 계획의 일원화, 세부화의 본질과 우월성에 대한 심오한 과학리론적분석이 주어져있으며 그 우월성을 발양시키기 위한 방도들이 명백하게 천명되여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계획의 일원화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식화하시였다:

《계획의 일원화란 온 나라에 뻗쳐있는 국가계획기관과 계획세포들이 하나의 계획화체계를 이루고 국가계획위원회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계획화의 유일성을 철저히 보장하는것을 의미합니다.》(우와 같은 책, 254~255페지)

일원화계획체계는 계획화에서 사대주의와 교조주의를 반대하고 우리 나라의 구체적실정에 맞게 맑스-레닌주의를 창조적으로 발전시킨 독창적인 체계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원화계획체계는 계획화에서 위대한 청산리정신과 대안의 사업체계를 구현한것으로서 중앙집권적지도와 지방의 창발성, 프로레타리아독재와 군중로선을 옳게 배합한 가장 위력한 체계이라고 교시하시였다.

과거의 계획화체계에서는 될수록 보장은 적게 해주면서 생산은 많이 할것을 요구하는 국가계획일군들의 관료주의, 주관주의와 될수록 보장은 많이 받으면서 생산은 적게 하려는 생산자들의 기관본위주의, 지방본위주의와의 모순이 있었다. 동시에 국가계획일군들은 전반적나라살림살이와 경제발전전망은 알지만 현실과 구체적생산예비를 잘 모르는 반면에 생산자들은 구체적현실과 생산예비는 알지만 나라의 살림살이형편과 경제발전전망을 잘 모르는 모순이 있었다.

이로 말미암아 사실상 전국가적, 전인민적 립장에 선 그리고 과학적이고 동원적인 계획을 세울수 없었다. 더우기 이것은 경제의 규모가 커지고 부문구조가 복잡해짐에 따라 옳은 균형을 설정하고 경제를 빨리 발전시키는데 더욱더 큰 지장을 주게 되였다.

김일성동지께서 새로 창조하신 일원화계획체계에서는 바로 이러한 부족점들이 완전히 극복되고 계획화사업이 사회주의경제제도의 요구에 맞게 근본적으로 개선되게 되였다.

일원화계획체계에서는 당의 의도와 나라의 전반적인 살림살이형편에 대하여 잘 아는 국가계획일군들이 직접 현지에 나가 구체적인 생산예비를 누구보다도 잘 아는 광범한 생산자대중과 협의하여 계획을 짜게 된다. 그리하여 인민경제 모든 부문의 계획을 당의 의도와 국가의 요구에 맞게 그리고 지방과 기업소의 구체적인 현실을 옳게 반영하여 세울수 있게 된다.

우리 나라의 계획화체계와 방법은 계획의 일원화와 함께 세부계획화를 실현함으로써 더욱 완벽한것으로 되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사회주의경제에서는 경제활동의 세부문에 이르기까지 엄격히 서로 맞물리도록 계획화하여야 합니다. 특히 자재보장에 대한 세부계획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우와 같은 책, 260페지)

세부계획화에 대한 김일성동지의 창조적방침은 오직 계획적으로만 발전할수 있는 사회주의경제발전의 합법칙성과 사회적분업과 기업소내부분업이 더욱 세분화된 우리 나라 생산력발전의 현실적요구를 반영하고있다.

그전의 계획화사업에는 세부계획을 세우지 않으며 특히 이른바 비폰드물자를 계획화하지 않음으로써 생산의 정상화에 지장을 주고 적지 않은 설비와 자재를 랑비하게 하는 결함이 있었다.

김일성동지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지금까지 우리가 세워온 계획은 엄격히 말하여 계획이 아니라 통제수자에 지나지 않았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큰 수자를 몇개 묶는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며 또 그것만 가지고는 사회주의경제를 잘 운영할수 없다고 하시면서 중요한 문제는 큰것과 함께 작은것들, 소소한 것들까지 옳게 계획화하는데 있다고 가르치시였다.

세부계획화를 하여야만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더욱 발양시켜 예비를 남김없이 동원할수 있으며 인민경제의 전반적발전과 기업소의 활동을 유기적으로 결합하고 나라의 경제발전에서 균형성을 확고히 견지함으로써 경제를 끊임없이 높은 속도로 발전시킬수 있다.

일원화계획체계와 세부계획화는 서로 밀접히 련관되여있다. 세부계획화는 일원화계획체계를 잘 운영하여나감으로써만 원만히 실현될수 있으며 일원화계획체계는 세부계획화가 철저히 실현되여야 그 큰 우월성을 전면적으로 발양시킬수 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계획의 일원화와 세부화의 우월성을 발양시키기 위하여서는 계획기관들을 튼튼히 꾸리고 그 일군들의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을 높이며 새 체계에 맞게 사업방법을 끊임없이 개선해나가야 하며 국가계획위원회 일군들이 지방의 국가계획기관들과 계획세포들인 기관, 기업소 계획부서들을 잘 발동시켜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전사회를 혁명화, 로동계급화할데 대하여

《현정세와 우리 당의 과업》, 《국가활동의 모든 분야에서 자주, 자립, 자위의 혁명정신을 더욱 철저히 구현하자》, 《당사업에서 형식주의와 관료주의를 없애며 일군들을 혁명화할데 대하여》, 《농민을 혁명화하며 농업부문에서 당대표자회결정을 철저히 관철할데 대하여》를 비롯한 여러 로작들에서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과정을 계급관계의 견지에서 정확히 분석하신데 기초하여 사회주의하에서의 계급투쟁과 프로레타리아독재의 임무를 전면적으로 밝히시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서 근본문제의 하나인 전사회의 혁명화, 로동계급화의 방침을 내놓으심으로써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 탁월한 기여를 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가르치시였다:

《계급관계의 견지에서 본다면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건설하는 과정이란 주권을 잡은 로동계급이 경제와 문화, 사상과 도덕의 모든 분야에 걸쳐 사회를 자기 모양대로 개조하여나아가는 과정 즉 로동계급화하여나아가는 과정입니다.》(우와 같은 책, 369페지)

프로레타리아독재의 력사적사명은 착취계급을 청산하고 그 반항을 진압하는데 있을뿐아니라 모든 근로자들을 개조하여 로동계급화함으로써 온갖 계급적 차이를 점차 없애는데 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려면 생산력을 발전시켜 로동계급과 농민사이의 로동조건의 차이, 생산수단에 대한 소유형태의 차이를 없애는것과 함께 사회의 모든 성원들의 사상과 도덕, 문화와 기술수준에서의 차이도 점차 없애야 한다. 그러자면 사상혁명을 강화하여 사람들의 의식속에 남아있는 온갖 낡은 부르죠아사상잔재를 철저히 뿌리빼고 모든 근로자들을 로동계급의 혁명사상, 맑스-레닌주의세계관으로 튼튼히 무장시켜야 하며 동시에 문화혁명을 전개하여 그들의 문화기술수준을 높여야 한다.

이것은 복잡한 정세하에서 간고한 혁명투쟁을 하고있는 우리 나라의 조건에서 더욱 절실한 문제로 나서게 된다.

우리는 사상혁명을 강화하여 전사회의 혁명화, 로동계급화를 더욱 다그쳐야만 광범한 대중을 당과 수령의 주위에 더 굳게 단결시켜 우리의 혁명대오를 정치사상적으로 튼튼히 꾸리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추진할수 있으며 조국통일의 혁명위업을 이룩할수 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당대표자회보고에서 사회주의하에서의 계급투쟁에서 적대분자들을 진압하는 투쟁과 근로자들속에 남아있는 낡은 사상잔재를 극복하는 투쟁을 엄격히 가르며, 혁명대오를 튼튼히 꾸리는데서 인민대중의 통일단결을 강화하는 사업과 적대분자들의 음모책동을 반대하는 계급투쟁을 옳게 결합시키며, 로동계급을 다른 계급속에 용해시키는것이 아니라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로동계급의 령도적역할을 높이고 그의 혁명적작용을 강화함으로써 전사회를 혁명화, 로동계급화할데 대한 정확한 방침을 내놓으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또한 이 로작들에서 로동계급, 농민, 인테리 등 각 계급 계층의 혁명화에 대해서도 명백히 가르쳐주시였다.

우리 나라 력사발전의 특수성으로 하여 우리의 로동계급은 청소하며 그들에게는 혁명적단련이 많이 요구된다.

우리는 로동계급의 사상성, 조직성, 문화성을 더욱 높여 그들을 보다 더 혁명적이고 선진적이며 문화적인 계급으로 만들어야 하며 그들이 전사회를 개조하고 모든 근로자들을 교양개조하는 자기의 력사적임무를 더잘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서 로동계급의 가장 믿음직한 동맹자인 농민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것은 우리 혁명 승리의 중요한 담보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농민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기 위해서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에 제시된 방침에 따라 농촌에서 사상혁명과 기술혁명, 문화혁명을 힘있게 추진시키며 농민에 대한 로동계급의 정치적지도와 문화적영향을 계속 강화하여 농민들을 로동계급의 혁명사상으로 철저히 무장시키고 그들의 문화수준을 로동계급의 수준에 끌어올리며 농촌경리를 현대적기술로 장비하고 협동적소유를 전인민적소유에 부단히 접근시켜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전사회의 로동계급화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것은 인테리를 혁명화하는것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인테리를 혁명화하고 로동계급화한다는것은 인테리들의 의식속에 남아있는 낡은 사상잔재를 완전히 없애고 그들을 로동계급의 혁명정신으로, 공산주의사상으로 무장시켜 진정한 로동계급의 인테리로, 열렬한 공산주의자로 육성하는것이라고 가르치시였다.

인테리들을 믿고 아끼고 사랑하며 그들을 혁명화하여 공산주의사회까지 이끌고가는것은 우리 당의 시종일관한 방침이다.

김일성동지께서 강조하신바와 같이 인테리의 혁명성을 믿지 않으며 그들을 의심하고 배척하는것은 하나의 종파주의적경향이며 그들의 역할을 과소평가하는것은 과학과 기술을 무시하는 경향으로서 우리 당의 인테리정책과는 아무런 인연도 없는것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의 모든 성원

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그들속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세워야 한다고 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사상혁명을 진행하여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데서 무엇보다도 중요한것은 근로자들을 조선로동당의 정책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고 그들속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세우는것입니다.》(우와 같은 책, 549페지)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과 그 구현인 당의 로선과 정책으로 철저히 무장하여야만 수정주의, 좌경기회주의, 사대주의, 부르죠아사상, 봉건적유교사상, 종파주의, 지방주의, 가족주의 등 온갖 불건전하고 반혁명적인 사상요소들을 반대하여 강하게 투쟁할수 있으며 언제 어디서나 당과 수령의 사상으로 사고하고 행동하며 어떤 풍파속에서도 조금도 동요하지 않고 오직 수령께서 가리키시는 길을 따라 확신성있게 나아갈수 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사람들을 혁명화한다는것은 사람들의 머리속에서 리기주의, 개인주의 등 부르죠아사상을 뿌리빼고 개인의 리익보다 집단과 전체의 리익을 중요시하는 공산주의사상의식을 높인다는것을 의미한다고 하시면서 혁명화한다는것은 결국 개인의 리익을 버리고 당과 혁명을 위해서, 대중을 위해서, 인민을 위해서 물불을 가리지 않고 몸바쳐싸우려는 강한 의지를 가진 혁명가로 만드는것이라고 가르치시였다.

근로자들을 혁명화하는데서 사회주의적애국주의교양은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사회주의적애국주의교양을 강화하여야만 그들이 사회주의제도의 본질과 우월성을 똑똑히 인식하고 이 제도를 지키기 위하여 견결히 투쟁하며 조국의 륭성발전과 우리 인민의 번영을 위하여 적극 투쟁할수 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전통교양은 사람들을 혁명화하는데서 가장 위력한 수단의 하나라고 가르치시였다.

경험은 혁명전통교양이 직접 혁명투쟁의 시련을 겪어보지 못한 사람들과 지주, 자본가의 착취와 압박을 받아보지 못한 새세대들을 혁명화하는데서 비할바없이 큰 감화력을 가지고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우리는 혁명전통교양을 통하여 김일성동지의 혁명투쟁력사와 그이의 위대한 혁명사상, 령도의 현명성, 높은 덕성을 더욱 깊이 체득함으로써 그이께 무한히 충실한 혁명전사로 자신을 튼튼히 단련할수 있으며 항일유격대원들의 수령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 그들의 불요불굴의 고매한 혁명정신과 고상한 혁명가적 품성을 본받을수 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혁명화하기 위해서는 혁명적조직생활, 당조직생활과 근로단체조직생활을 강화할것과 근로대중의 훌륭한 공산주의학교인 천리마작업반운동을 더욱 확대발전시킬데 대하여 교시하시였다.

전사회를 혁명화, 로동계급화하자면 사상혁명과 함께 문화혁명을 적극 추진시키고 발전시켜야 한다.

우리는 근로자들속에서 학습기풍을 철저히 세워 그들의 일반지식수준을 더욱 높이고 누구나 다 한가지이상의 기술을 가지도록 하여야 하며 견실하고 유능한 로동계급의 인테리대군을 양성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여야 한다.

혁명적문학예술을 창작하며 조선어를 더욱 발전시킬데 대하여

김일성동지의 로작 《혁명적문학예술을 창작할데 대하여》, 《조선어를 발전시키기 위한 몇가지 문제》를 비롯한 여러 문헌들에는 혁명적인 문학예술을 창작하며 민족문화와 예술을 주체적립장에서 옳게 발전시킬데 대한 김일성동지의 혁명사

상과 창조적인 립장이 전면적으로 밝혀져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적문학예술의 역할과 사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람들을 혁명정신으로 교양하는데서 문학, 영화, 연극, 음악, 무용과 같은 문예부문 일군들의 역할은 매우 큽니다. 우리의 문학예술은 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건설에 복무해야 할뿐아니라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을 위한 전체 조선인민의 투쟁에 복무하여야 합니다.》(우와 같은 책, 144페지)

혁명적대사변을 주동적으로 맞이하기 위하여 우리의 혁명적문학예술앞에 나선 가장 중요한 과업은 남북조선인민들을 혁명정신으로 교양하는 작품을 더 많이 창작하는것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적문학예술이 남조선사람들에게 혁명투쟁의 방법을 가르쳐주며 그들의 혁명정신을 북돋아주며 계급적각성을 높여줌으로써 그들이 어떤 역경속에서도 혁명적지조를 굽히지 않고 굴함없이 싸워나가게 하여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이와 함께 우리의 문학예술은 북조선인민들속에서 남조선을 한시도 잊지 않고 남조선인민을 해방하고야 말겠다는 혁명적각오를 높여줌으로써 그들이 성과에 자만하지 않고 사회주의건설에 몸바쳐나서도록 하는데 큰 힘을 넣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작가, 예술인들은 김일성동지께서 이룩하여주신 우리 당의 빛나는 혁명전통으로 근로자들을 교양하기 위한 문예작품과 함께 해방후 20여년간 우리 인민이 수령의 령도밑에 인민정권을 세우고 당을 건설하며 토지개혁을 하여온 투쟁의 로정과 미제를 반대하는 조국해방전쟁의 대혁명투쟁에서 발휘한 영웅적위훈에 대하여 더 많이 써야 한다.

문학예술의 혁명적내용은 사회주의적 사실주의창작방법에 의하여 안받침될 때 비로소 사람들을 크게 감동시킬수 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작가, 예술인들이 죽은 사람이나 산 사람을 원형으로 하여 대작을 쓰되 산 사람에 대해서는 전기를 쓸것이 아니라 조선혁명의 발전과 함께 투쟁속에서 자라나는 주인공들의 전형적인 모습을 그려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우리의 문학예술은 언제나 혁명적이면서 민족적이여야 하며 사회주의건설자들의 정서와 지향에 맞아야 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적인 노래, 민요와 창극은 민족적인것을 바탕으로 하여 발전시키며 민족악기를 현대화하고 서양악기를 조선음악에 복종시키면서 음악에서 복고주의, 허무주의, 사대주의를 배격하고 제국주의의 사상적무기인 《쟈즈》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철저히 배격할데 대하여 교시하시였다.

계속하여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적문학예술을 창작하기 위하여 작가, 예술인들이 현실속에 들어가 자신을 혁명화할데 대하여 간곡히 교시하시였다.

1964년 1월 3일 언어학자들과 하신 담화 《조선어를 발전시키기 위한 몇가지 문제》는 조선어를 옳게 발전시킬데 대한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사상을 구현한 로작으로서 언어문제와 언어학발전에서 강령적지침으로 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언어가 나라의 경제, 문화, 과학, 기술 등 모든 분야의 발전에서 힘있는 무기로 된다고 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원래 언어는 민족문제와 관련되고 국가적 문제와 관련되여있으며 사람들의 모든 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있습니다. 그러므로 말과 글을 어떻게 발전시키는가 하는것은 아주 심중한 문제입니다.》(우와 같은 책, 4페지)

김일성동지께서는 이 로작에서 문자개혁도 포함하는 조선어의 발전에서 지침으로 되는 원칙을 천명하시면서 언어는 민족을 특징짓는 공통성가운데서 가장 중요한것의 하나이며 문자는 과학과 문화의 발전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것, 또한 말과 글을 발전시키는

데서 세계언어발전의 공통적인 방향을 고려하여야 한다는것을 지적하시고 우리의 문자개혁은 남북이 통일되고 우리의 과학기술이 세계적수준에 오른 다음에 민족적인 특성을 살리면서 세계공통적인것에 쉽게 접근할수 있도록 할데 대한 방향을 제시하시였다.

다음으로 김일성동지께서는 고유어를 기본으로 하여 조선어를 주체적립장에서 옳게 발전시킬데 대한 기본방향을 제시하시면서 단어는 고유어에 근거하여 하나의 체계로 만들며 한자어는 그 사용범위를 제한하고 고유한 어근에 근거하여 우리 말을 더 풍부히 하고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계속하여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선어발전의 중심은 우리 혁명의 기지인 북반부가 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말을 발전시키는데 있어서 어떤 다른 나라 말을 본받아도 안되며 또 영어나 일본말이 많이 섞여든 서울말을 표준으로 할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어디까지나 우리 나라의 고유한 말을 기본으로 하고 사회주의를 건설하고있는 우리가 중심이 되여 조선말을 발전시켜야 합니다.》(우와 같은 책, 10페지)

조선어를 주체적립장에서 옳게 발전시킬데 대한 김일성동지의 이 심오한 사상은 조선어가 걸어온 력사적특성과 미제의 남조선강점으로 우리 나라에 조성된 사회력사적환경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에 기초하고있으며 사상혁명, 문화혁명, 기술혁명이 심화되고 과학과 기술이 급속히 발전하고있는 우리 혁명의 현실적요구를 가장 정확히 반영하고 있다.

일군들의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을 높이며 당 및 근로단체 사업을 개선강화할데 대하여

김일성동지의 강령적문헌 《조선로동당창건 스무돐에 즈음하여》, 《지도일군들의 당성, 계급성, 인민성을 높이며 인민경제의 관리운영사업을 개선할데 대하여》, 《국가활동의 모든 분야에서 자주, 자립, 자위의 혁명정신을 더욱 철저히 구현하자》, 《당사업에서 형식주의와 관료주의를 없애며 일군들을 혁명화할데 대하여》, 《교통운수부문에서 정치사업을 앞세우며 군중로선을 관철할데 대하여》, 《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의 과업에 대하여》, 《근로단체사업을 개선강화할데 대하여》 등 여러 로작들에는 혁명의 참모부인 당을 조직사상적으로 강화하며 일군들의 사업방법과 작풍을 개선하고 당 및 근로단체 사업을 개선하기 위한 원칙적문제들에 대한 명확한 해답이 주어져 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당창건 스무돐경축대회에서 하신 보고에서 우리 당이 걸어온 자랑찬 행로를 총화하시고 당을 어떤 풍파속에서도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능숙하게 령도할수 있는 불패의 혁명적당으로 더욱 강화할것을 중요하게 교시하시였다.

전당에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며 당의 강철같은 통일과 단결을 고수하는것은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확신성있게 령도하며 그것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근본적의의를 가진다.

전당은 수령의 혁명사상으로 확고히 무장하고 그에 기초하여 모든 당원들의 사상의지 및 행동의 완전하고 무조건적인 통일을 이룩하여야 하며 수령의 혁명사상을 지도적지침으로 삼고 당중앙의 유일적지도밑에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이 진행되여야 한다.

당대렬의 전투력을 강화하고 당의 령도적기능을 높이면서 대중과의 련계를 밀접히 하며 일군들의 사업방법과 사업작풍을 끊임없이 개선하는것은 혁명과 건설 사업을 성과적으로 보장하는 필수적조건이다.

《지도일군들의 당성, 계급성, 인민성을 높이며 인민경제의 관리운영사업을 개선할데 대하여》, 《국가활동의 모든 분야에서 자주,

자립, 자위의 혁명정신을 더욱 철저히 구현하자》, 《당사업에서 형식주의와 관료주의를 없애며 일군들을 혁명화할데 대하여》를 비롯한 여러 로작들은 일군들의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을 높이며 그들의 사업방법과 사업작풍을 개선하고 혁명적군중관점을 확립하는데서 강령적지침으로 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일군들이 자기에게 맡겨진 혁명임무를 훌륭히 수행하는가 못하는가 하는것은 결국 일군들의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에 달려있다고 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 일군들이 당과 혁명에 충실하고 인민의 참다운 충복이 되려면 반드시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을 가져야 합니다.》(우와 같은 책, 552페지)

일군들의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은 무엇보다도 먼저 김일성동지의 교시와 당정책을 견결히 옹호하고 그것을 끝까지 관철하는데서 표현되여야 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진정한 당원이 되고 국가, 경제 기관의 참다운 간부가 되려면 실지행동으로 당의 정책을 옹호하고 관철해야 하며 인민의 리익을 위하여 몸바쳐싸워야 할것입니다. 간부들의 당성은 당의 정책을 집행하기 위한 그들의 실지투쟁에서, 로동자, 농민, 근로인테리들을 위한 그들의 실지사업성과에서 나타나야 합니다.》(우와 같은 책, 161～162페지)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은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의 구현이며 거기에는 조국의 번영과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전체 근로인민의 행복을 위한 방침과 그 수행방도들이 다 밝혀져있다.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김일성동지의 교시와 당정책을 깊이 연구하여 자기의 뼈와 살로 만들고 그에 엄격히 의거하여 사업하며 그것을 정확히 그리고 끝까지 관철하여야 한다.

일군들의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은 또한 일군들이 혁명적군중관점을 세우고 인민적인 사업작풍을 확립하는데서 표현되여야 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당정책관철에서 일군들의 사업방법과 사업작풍이 가지는 중요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의 로선과 정책이 정확하고 그것을 집행하기 위한 대책과 방도가 옳게 세워진 다음에는 혁명과업이 성과적으로 수행되는가 안되는가 하는것은 전적으로 그것을 직접 조직집행하는 일군들의 사업방법과 사업작풍에 달려있으며 그들이 어떻게 광범한 대중을 이 사업에 조직동원하는가에 달려있습니다.》(우와 같은 책, 551페지)

인민대중과의 련계를 강화하며 그들을 당정책관철에로 옳게 조직동원하기 위해서는 일군들속에서 형식주의와 관료주의를 뿌리빼고 혁명적군중관점을 세워야 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당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 선전선동부 일군들앞에서 하신 연설을 비롯한 여러 로작들에서 당 및 행정경제 사업에서 나타나고있는 형식주의, 관료주의를 분석비판하시고 그것들을 철저히 뿌리빼기 위한 구체적방도를 제시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아직도 우리 일군들에게 남아있는 형식주의에 대하여 지적하시면서 모든 일군들은 매 문제마다 겉만 핥지 말고 깊이 파고들어 연구하며 한 문제라도 틀어쥐면 끝장을 보는 혁명적기풍을 세울것을 중요하게 교시하시였다.

형식주의와 함께 관료주의도 당정책을 옳게 관철할수 없게 하며 우리의 전진운동에 장애를 주게 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일군들속에서 관료주의를 없애고 혁명적군중관점을 세울데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벼슬이란 관료라는 말입니다. 동무들에게 맡긴 자리는 벼슬이 아니라 책임입니다. … 그러므로 책임자들인 지도일군들은 인민에게 호령할것이 아니라 인민의 충복이 되여야 합니다. 자본가들의 충복이 되는것은 너절한 일이지만 인민의 충복이 되는것은 아주 영예로운 일입니다. 모든 지도일군들이 자기가 인민의 충복이라는 자각을 가지게 되면 관료주의를 부리지 않게 될것이며 사람과의 사업을 잘하게 될것입니다.》(우와 같은 책, 21페지)

김일성동지께서는 모든 사업에서 관료주의와 형식주의를 없애고 혁명적군중관점을 세우기 위해서는 모든 일군들이 자기 사업에서 우리 당의 전통적인 혁명적사업방법인 청산리방법을 철저히 관철하며 국가의 법령, 결정, 지시들을 집행하는데서 이신작칙하며 겸손하고 소박하고 례절이 바른 인민적품성을 가져야 한다고 간곡히 교시하시였다.

계속하여 김일성동지께서는 일군들에 대한 사상교양사업을 강화하여 그들로 하여금 낡은 사업작풍을 없애고 참말로 인민적인 사업작풍을 가지도록 하는 한편 일군들의 기술실무수준을 끊임없이 높여 그들로 하여금 자기 맡은 사업에 정통하게 하는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시였다.

당원들과 모든 일군들은 김일성동지의 교시와 당의 로선과 정책을 철저히 옹호관철하며 인민의 리익을 위하여 몸바쳐싸우는 혁명가로, 인민대중의 두터운 사랑과 존경을 받는 인민의 충복으로 되기 위하여 끊임없이 자체를 수양하여야 한다.

우리의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가기 위해서는 혁명의 참모부인 당을 강화하는 동시에 그 인전대들인 근로단체를 강화하고 그 역할을 높이는것이 매우 중요하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의 과업에 대하여》, 《근로단체사업을 개선강화할데 대하여》에서 발전된 현실에 맞게 근로단체사업을 개선강화해야 할 필요성과 그 기본임무를 지적하시고 근로단체들의 과업에 대하여 교시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선민주청년동맹 제5차대회에서 하신 연설에서 로동당의 믿음직한 후비대인 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을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위하여 싸우는 조선청년들의 더욱 위력한 전투적조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하시면서 정치, 경제, 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청년동맹과 청년들의 역할을 더욱 높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계속하여 모든 조선청년들은 무엇보다도 먼저 조선로동당의 령도에 끝까지 충실하며 사회주의건설에 적극 참가하여 북반부를 조선혁명의 불패의 기지로 꾸리기 위하여 투쟁하여야 하며 남조선의 애국적청년들과 굳게 뭉쳐 우리 민족의 완전한 해방과 독립을 위하여 굳세게 투쟁하며 세계의 모든 진보적청년들과의 련대성을 강화하여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당중앙위원회 제4기 제9차전원회의에서 하신 결론에서 농업근로자동맹을 조직할 필요성과 의의를 지적하시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농업근로자동맹의 기본임무는 농촌에서 사상혁명, 기술혁명, 문화혁명을 성과적으로 밀고나가기 위하여 농민대중속에서 교양사업을 진행하며 그들의 혁명적열의를 적극 조직동원하는것입니다.》(우와 같은 책, 128페지)

김일성동지께서는 농업근로자동맹의 조직문제에 언급하시면서 이 동맹을 꾸리는데서 계급관계를 신중히 고려하고 동맹간부들을 농촌핵심들로 튼튼히 꾸리며 동맹의 기층조직은 작업반을 단위로 하고 군단위에 사업의 중심을 두는 조직체계를 내온것을 교시하시였다.

계속하여 김일성동지께서는 농업근로자동맹에 대한 당적지도를 강화할것을 강조하시면서 농민들에 대한 사상교양사업은 동맹조직에만 맡길것이 아니라 당조직들이 동맹조직을 통하여 책임적으로 진행하여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또한 같은 로작에서 직업동맹조직들의 임무와 역할을 지적하시고 직업동맹사업의 기본내용을 명확히 밝혀주시였다.

직업동맹은 행정기관이 아니라 광범한 로동자, 사무원들을 묶어세운 근로단체이며 당과 로동계급을 련결시키는 인전대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발전된 현실에 맞게 동맹사업을 개선할데 대하여 지적하시면서 사회주의사회에서 직업동맹의 기본임무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시였다:

《로동계급이 정권을 틀어쥔 사회주의사회에서 직업동맹의 기본임무는 모든 로동자, 기술자, 사무원들이 사회주의건설과 사회주

의경리운영에 주인답게 참가하도록 당의 사상으로, 공산주의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는것입니다.》(우와 같은 책, 133페지)

김일성동지께서는 직맹조직앞에 나선 과업을 지적하시면서 직맹조직들은 당과 국가가 내세운 생산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며 로동보호사업, 기술교양사업, 문화교양사업, 국가재산애호사업을 책임적으로 조직진행하며 천리마작업반운동을 강화하여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근로단체사업을 개선강화할데 대한 김일성동지의 교시가 관철된 결과 근로단체들에 대한 당적지도가 더욱 강화되였고 동맹원들속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가 확고히 서게 되였으며 동맹조직들은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에서 당의 믿음직한 인전대로서의 자기의 임무와 역할을 더잘 수행할수 있게 되였다.

남조선혁명을 촉진하며 조국통일위업을 실현하기 위하여 혁명력량을 백방으로 강화할데 대하여

김일성동지께서는 《조국통일위업을 실현하기 위하여 혁명력량을 백방으로 강화하자》, 《워싱톤에 있는 조선문제연구소 소장에게 보낸 회답서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의 사회주의건설과 남조선혁명에 대하여》, 《현정세와 우리 당의 과업》을 비롯한 여러 로작들에서 남조선혁명을 촉진하고 조국통일위업을 실현하기 위한 우리 당의 맑스-레닌주의적전략전술, 3대혁명력량을 백방으로 강화하기 위한 기본방향과 과업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남조선정세를 과학적으로 분석하시고 남조선혁명의 성격과 기본임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현정세는 남조선에서 혁명력량을 급속히 장성시키며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을 백방으로 촉진할것을 요구하고있습니다.

남조선혁명의 기본임무는 미제의 식민지통치를 청산하고 남조선사회의 민주주의적발전을 보장하며 북반부의 사회주의력량과 단합하여 나라의 통일을 달성하는데 있습니다.》(우와 같은 책, 388~389페지)

남조선에 대한 미제의 식민지예속화정책과 그 주구들의 매국배족행위, 그에 따르는 경제적파국과 인민들의 비참한 사회적처지는 미제와 그와 결탁한 지주, 매판자본가, 반동관료배들을 일방으로 하고 로동자, 농민을 타방으로 하는 둘사이에 심각한 사회계급적 및 민족적 모순을 빚어내고있다.

남조선인민들은 남조선혁명의 첫째가는 투쟁대상인 미제침략자들을 반대하는 동시에 그 주구들인 지주, 매판자본가, 반동관료배들을 타도하기 위하여 투쟁하여야 하며 미제의 비호밑에 재생한 일본군국주의세력의 남조선재침기도를 분쇄하기 위하여 결정적으로 투쟁하여야 한다.

남조선에서 반혁명을 타승하고 혁명의 승리를 이룩하는 결정적담보는 남조선에서 강력한 혁명력량을 준비하는것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현단계에서 남조선혁명의 기본방침은 적들의 탄압으로부터 혁명력량을 보존하는 동시에 그것을 부단히 축적하고 장성시킴으로써 혁명의 결정적시기를 맞이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데 있습니다.》(우와 같은 책, 392페지)라고 하시면서 남조선의 혁명력량을 준비하는데서 대중운동과 투쟁을 맑스-레닌주의의 전략전술적원칙에서 옳게 지도하는것이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교시하시였다.

남조선혁명력량을 준비하는데서 무엇보다도 중요한것은 혁명의 참모부인 맑스-레닌주의당을 꾸리며 그 주위에 사회의 기본군중인 로동자, 농민을 결속하여 강력한 혁명의 주력군을 편성하는것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남조선에서 전투적이고 탄력성있는 맑스-레닌주의당을 꾸리기 위해서는 우선 당지도부를 남북반부사람들가운데서 우수한 사람들로 조직하고 당조직들을 투쟁속에서 단련

되고 검열된 혁명적핵심들로써 질적으로 꾸리며 원쑤를 반대하는 실천적투쟁을 통하여 당대렬을 부단히 확대강화하여야 하며 당이 대중과 철연적련계를 맺고 대중속에 깊이 뿌리를 박아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혁명의 주력군을 꾸리는 동시에 혁명에 리해관계를 가지는 모든 력량을 동원하여 반미구국통일전선을 형성하는것은 남조선혁명력량을 준비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의 주력군의 지도적역할을 끊임없이 높이는 조건에서 각계각층 군중을 쟁취하기 위한 하층통일전선을 강화하며 이에 기초하여 상층통일전선을 이룩하는 기본방침을 다시금 밝히시면서 낮은 형태의 공동투쟁에서 높은 형태의 공동투쟁에로, 부분적련합에서 전면적련합에로 통일전선사업을 확대하여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계속하여 김일성동지께서는 남조선혁명력량을 장성시키는데서 적군와해사업을 강화하여 《국군》 병사대중과 중하층장교들을 혁명의 편에 전취하는 문제, 인민대중을 정치사상적으로 각성시키고 의식화하기 위하여 남조선인민들속에서 숭미사대주의사상과 《반공》사상을 뿌리뽑으며 맑스-레닌주의사상선전사업을 강화하는 문제에 대하여 중요하게 강조하시였다.

맑스-레닌주의사상선전에서 기본은 우리 민족의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이신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과 혁명활동, 그이의 현명한 령도밑에 공화국북반부에 이룩된 사회주의제도의 본질과 우월성을 남조선인민들속에 널리 선전하고 철저히 인식시켜 모두가 다 그이의 령도밑에 조국통일위업을 실현하기 위하여 몸바쳐 싸우게 하는것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위싱톤에 있는 조선문제연구소 소장에게 보낸 회답서한》에서 조국통일은 한시도 미룰수 없는 절박한 민족적과업이라고 강조하시면서 어떠한 외세의 간섭도 없이 자주적으로 조국통일을 실현하려는 우리 당의 립장과 조국통일을 촉진하기 위한 파도적대책들에 대하여 다시금 천명하여주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조국통일의 수행방도가 어떻게 되든 조국의 통일과 조선혁명의 전국적승리는 결국 혁명력량의 준비에 전적으로 달려있다.

당중앙위원회 제4기 제8차전원회의에서 하신 김일성동지의 결론 《조국통일위업을 실현하기 위하여 혁명력량을 백방으로 강화하자》는 남조선혁명을 촉진하고 조국통일위업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력량준비에서 강령적지침으로 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조국통일의 실현을 위한 전략적인 기본방향을 제시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혁명이 승리하기 위하여서는 세가지 혁명력량이 잘 준비되여야 합니다. 그 첫째는 북조선의 혁명력량이며, 둘째는 남조선의 혁명력량이며, 셋째는 국제적혁명력량입니다.》(우와 같은 책, 80페지)

북조선의 혁명력량을 강화하여 북반부를 혁명의 강력한 기지로 튼튼히 꾸리는것은 조선혁명승리의 결정적담보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북조선의 혁명력량을 강화하여야 혁명의 전취물을 고수하고 남조선혁명력량과 국제혁명력량도 강화할수 있다고 하시면서 북조선의 정치적력량, 경제적력량, 군사적력량을 키우며 그중에서도 정치적력량강화에 힘을 넣어 당을 강화하고 당주위에 모든 인민대중을 묶어세워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북조선의 혁명력량과 함께 남조선의 혁명력량을 키우는것은 혁명승리에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남조선혁명의 주인은 남조선의 실정을 잘 알고 남조선혁명에 보다 절실한 리해관계를 가진 남조선사람들이며 북조선인민들은 남조선인민들을 지원할수는 있으나 그들의 투쟁을 대신할수는 없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남조선의 혁명력량을 키우기 위한 구체적과업을 제시하시면서 남조선에서 들어온 동무들을 유능한 혁명간부로 키울데 대하여 강조

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또한 국제혁명력량과의 련대성을 강화하여 우리의 벗을 더 많이 쟁취하는 한편 현대수정주의를 전적으로 물리치고 혁명적맑스-레닌주의기치와 반제민족해방투쟁의 기치를 높이 들고 국제혁명력량의 통일과 단결을 강화할데 대하여 교시하시였다.

반제반미투쟁을 강화하며 좌우경기회주의를 극복하고 국제공산주의운동의 단결을 이룩할데 대하여

김일성동지의 로작 《현정세와 우리 당의 과업》, 《반제반미투쟁을 강화하자》, 《국가활동의 모든 분야에서 자주, 자립, 자위의 혁명정신을 더욱 철저히 구현하자》, 《조선로동당창건 스무돐에 즈음하여》를 비롯한 여러 문헌들에는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반제반미투쟁로선이 전면적으로 천명되여있으며 좌우경기회주의를 반대하고 사회주의진영의 통일과 국제공산주의운동의 단결을 강화하기 위한 우리 당의 원칙적립장과 구체적방도들이 밝혀져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현국제정세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에 기초하여 미제국주의에 수되는 창끝을 돌릴데 대한 세계혁명의 기본전략을 내놓으시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제국주의를 반대하여 투쟁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세계제국주의의 두목인 미제국주의에 공격을 집중하는것이 중요하다.》(우와 같은 책, 521페지)

미제를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하지 않고서는 세계평화를 수호할수 없으며 인민들의 혁명투쟁도 승리할수 없다.

미제에 대한 태도는 현시기 공산당 및 로동당들의 립장을 검열하는 중요한 척도이다. 공산주의자들은 언제나 제국주의, 무엇보다도 미제국주의를 반대하는 원칙적립장을 확고히 견지하여야 한다.

독립도 좋고 혁명도 좋지만 평화가 더 귀중하다고 하면서 제국주의와의 투쟁을 회피하는것도 잘못이며 제국주의를 반대한다고 큰 소리만 치면서 실지 행동에서는 제국주의와 싸우기를 두려워하는것도 또한 용납할수 없다. 이것이나 저것이나 다 진정한 반제투쟁과는 인연이 없으며 제국주의의 침략과 전쟁 정책에 도움을 줄뿐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나라들이 제국주의나라들과의 외교관계 및 대외경제적관계에서 계급적원칙을 확고히 견지하면서 미제가 큰 나라들과는 될수록 관계를 악화시키지 않고 작은 나라들을 하나하나 먹어들어가려고 하며 아세아침략에 힘을 집중하기 위하여 구라파정세를 일시 완화시키려고 획책하는데 대하여 경각성을 높이며 큰 나라와 작은 나라 할것없이 세계의 모든 지역, 모든 전선에서 미제국주의자들에게 타격을 주어 그들의 력량을 최대한으로 분산시켜야 하며 미제가 발붙이고있는 모든 곳에서 함부로 날뛸수 없게 손발을 얽어매놓아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이처럼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원칙적립장을 견지하고 견결한 반제투쟁을 전개하여야만 이러저러한 지역과 나라들에 힘을 집중하여 사회주의나라들과 국제혁명력량을 각개격파하려는 미제의 세계전략을 성과적으로 까부시고 미제국주의를 때려눕힐수 있다.

세계평화를 수호하기 위해서는 미제를 반대하는 동시에 그의 동맹자들, 특히 일본군국주의와 서부독일군국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을 강화하여야 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미제의 적극적인 비호밑에 급속히 재생한 일본군국주의의 위험성과 그의 침략적야망을 날날이 폭로하고 일미간의 모순과 그 종속적동맹관계를 전면적으로 밝히시면서 모든 사회주의나라들은 미제와 함께 일본군국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을 중요시하여야 하며 일치한 행동으로써 일제의 침

략적야망을 파탄시켜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미제를 반대하는 투쟁을 힘있게 전개하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국제적인 반제공동행동을 이룩하며 반제통일전선을 형성하여야 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가르치시였다:

《반제공동행동과 반제통일전선을 이룩하는것은 오늘 국제공산주의운동에서 가장 날카롭게 제기되는 원칙적인 문제입니다. 그것은 미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전쟁 정책을 저지시키는가 못시키는가, 사회주의진영을 보위하는가 못하는가, 민족해방운동을 촉진시키는가 못시키는가, 세계평화와 안전을 수호하는가 못하는가 하는 근본문제와 관련되여있습니다.》(우와 같은 책, 340페지)

오늘 반제공동행동과 반제통일전선의 실현은 평화위업을 위해서도 혁명위업을 위해서도 절실한 문제로 나서고있다.

모든 사회주의나라들과 공산당 및 로동당들은 웰남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공동행동을 취할수 있는 초보적인 기초가 마련된 조건에서 반제공동전선을 실현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우리는 미제를 반대하는 투쟁에서 각국 공산당 및 로동당, 각국의 민주주의적사회단체들, 국제민주단체들과 공동행동을 강화하여 그 산하에 있는 수많은 군중을 쟁취하며 그들을 반제통일전선에 묶어세우는것이 중요하다.

김일성동지께서는 공동행동을 실현함에 있어서 공산주의자들이 투쟁하면서 단결하며 단결하면서 투쟁하는 원칙을 견지하며 웰남인민을 지원하는데서 공동행동을 취하기 위한 구체적대책을 세우고 그것을 실현하는것과 함께 형제당들이 우선 각기 자기가 처한 위치에서 제국주의를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하며 인민들의 혁명운동을 적극 지원할데 대하여 교시하시였다.

계속하여 김일성동지께서는 반제공동투쟁에서 이미 승리한 혁명을 보위하며 미제와 맞서서 싸우고있는 반미력량을 적극 지원하는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웰남인민들의 영웅적반미구국항전을 지원하는것과 함께 승리한 꾸바혁명을 보위하며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인민들의 반제반식민주의투쟁을 지원하여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인민들의 반제반미투쟁을 강화하고 국제혁명운동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국제혁명운동의 발전도상에 엄중한 난관을 조성하고있는 현대수정주의와 좌경기회주의를 극복하고 사회주의진영의 통일과 국제공산주의운동의 단결을 강화하여야 한다.

김일성동지께서 지적하신바와 같이 좌우경기회주의는 로동운동내에 나타난 부르죠아 및 소부르죠아 사상이며 그것은 두 극단에서 맑스-레닌주의의 혁명적진수를 외곡하며 혁명에 해를 준다. 그러므로 공산주의자들은 좌우경기회주의를 반대하여 두 전선에서 투쟁하여야 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좌우경기회주의를 반대하여 투쟁하는 동시에 단결의 기치를 고수할데 대하여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기회주의를 반대한다고 하여 단결을 부인하는 좌경적오유를 범하여도 안되며 단결을 수호한다고 하여 기회주의와의 투쟁을 포기하는 우경적오유를 범하여도 안됩니다.》(우와 같은 책, 335페지)

오늘 국제로동계급의 피로써 쟁취한 사회주의진영을 옹호하며 그 통일을 고수하기 위하여 투쟁하는것은 모든 공산주의자들앞에 나서는 절박한 과업이다.

사회주의진영은 공통된 정치적 및 경제적 기초에서 단합된 하나의 전일체로서 그 어느 누구도 사회주의진영에서 그 어떤 나라를 떼여낼수 없다.

물론 형제당들사이에 의견상이가 있기는 하지만 형제당들간의 관계를 제국주의와의 관계와 같은 적대적관계로 보아서는 안되며 의견상이는 어디까지나 단결의 리념으로부터 출발하여 사상투쟁과 혁명투쟁의 실천속에서 극복하여야 한다.

공산당 및 로동당들이 자주성을 견지하고

히 견지하는것은 그 나라 혁명을 잘하고 세계혁명에 이바지하며 국제공산주의운동의 단결과 협조를 진실로 자원적이고 공고하고 동지적인것으로 되게 하는 기본담보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모든 당들이 서로 평등한 립장에서 동지적인 관계를 맺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공산당 및 로동당들 사이에는 높은 당과 낮은 당, 지도하는 당과 지도받는 당이란 있을수 없고 그 어떤 《중심》이나 《중앙》도 있을수 없다고 교시하시였다.

또한 김일성동지께서는 어느 한 나라당의 지도리론이 다른 당들의 지도리론으로 될수 없으며 매개 나라 공산당과 로동당들은 맑스-레닌주의를 지침으로 삼고 그것을 자기 나라의 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하여 자기 나라 혁명과 건설에 대한 자체의 지도리론을 세워야 한다고 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조선공산주의자들에게 있어서 유일한 지도적지침은 맑스-레닌주의이며 그것을 우리 나라의 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한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입니다.》(우와 같은 책, 348페지)

조선인민은 오늘 세계인민들로부터 《우리 시대의 최고봉을 이루는 혁명사상》, 《우리 시대의 가장 위대한 맑스-레닌주의고전》으로 불리우는 김일성동지의 교시와 우리 당의 정확한 로선과 정책을 지도적지침으로 삼고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을 다그치고있는것을 무한한 민족적긍지로 여기고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또한 공산주의자들이 자주성을 견지하기 위하여 국제공산주의운동내에서 대국주의를 결정적으로 반대하는 동시에 고립주의나 민족주의를 배격하여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평등과 자주성에 기초하여 단결하고 협조하며 국제적련대성을 강화하면서 자주성을 견지하여나가는것은 국제공산주의운동에서 우리 당이 일관하게 견지하고있는 확고한 립장이다.

*

저작선집 제4권에 수록된 로작들은 우리 나라에서 사회적진보와 문명에로의 위대한 비약을 이룩하여 우리 조국을 튼튼한 자립적민족경제와 찬란한 민족문화를 가진 강력한 사회주의국가로 전변시키게 한 강령적지침이다.

전당과 전체 인민은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주체사상과 정치에서 자주, 경제에서 자립, 국방에서 자위의 혁명적로선을 높이 받들고 중첩되는 애로와 난관을 이겨내면서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키는 우리 당의 새로운 독창적로선을 관철함으로써 우리 나라를 부강하고 발전된 사회주의나라로, 난공불락의 요새로 전변시켰으며 우리 인민의 보다 더 행복한 새생활을 보장할수 있었다.

저작선집에 들어있는 이 로작들은 오늘 공화국북반부를 불패의 혁명기지로 튼튼히 꾸리기 위한 우리 인민의 장엄한 투쟁에서 승리의 결정적담보로 되고있으며 미제와 그 앞잡이들을 반대하는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을 힘차게 고무하고 조국통일의 위업을 앞당기기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에서 승리의 기치로 되고있다.

김일성동지의 이 로작들은 또한 국제공산주의운동앞에 엄중한 난관을 조성한 좌우경기회주의를 결정적으로 극복하고 국제공산주의운동의 통일과 단결을 이룩하며 식민지민족해방운동의 불길을 더욱 높이고 세계혁명운동을 촉진하기 위한 혁명적인민들의 투쟁을 크게 고무하여주고있다.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김일성동지의 저작들을 깊이 학습하고 그이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며 언제 어데서나 당과 수령께 무한히 충직한 혁명전사가 되기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며 력사적인 당대표자회결정과 공화국정부의 위대한 10대정강을 관철하기 위하여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혁명적대고조의 불길을 더욱 높여 전진, 전진, 투쟁 또 전진하자.

《근로자》 1968년 5호, 11호, 12호에 게재한 《김일성저작선집》 해제론설들은 조선로동당출판사에서 제공한것임.

김일성동지께서 조직령도하신 항일무장투쟁시기 군중정치사업

김 택 인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영광스러운 항일무장투쟁시기에 군중정치사업에 대한 독창적인 지도리론을 창조하시고 빛나는 업적과 풍부한 경험을 이룩하시였다.

이것은 조선혁명의 종국적승리를 위하여 우리 당과 인민이 반드시 계승발전시켜야 할 무한히 귀중한 재부이다.

항일무장투쟁시기에 이룩된 군중정치사업의 전통이 있음으로 하여 우리 당은 해방후 그처럼 복잡한 환경속에서도 로동자, 농민을 비롯하여 각계각층 군중을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무장시키고 당과 수령의 주위에 튼튼히 묶어세울수 있었으며 그들을 혁명과 건설에 힘있게 조직동원할수 있었다.

당원들과 간부들은 김일성동지께서 항일무장투쟁시기에 창조하신 군중정치사업의 탁월한 사업방법과 고귀한 경험을 깊이 체득하고 그것을 철저히 구현함으로써 각계각층 군중을 당과 수령의 주위에 더욱 굳게 묶어세워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공화국북반부에서 사회주의건설을 더욱 촉진하고 남조선혁명을 완수하며 조선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앞당겨나아갈수 있다.

1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활동의 첫시기부터 혁명의 승패는 결국 누가 대중을 더많이 전취하는가에 달려있다고 가르치시면서 모든 군중을 각성시키고 교양하여 혁명의 편에 더많이 전취할데 대한 가장 정확한 방침을 제시하시고 그를 빛나게 구현하도록 지도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찌기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혁명은 혼자서 할수 없으며 혁명을 하자면 군중들과 단결하여야 하며 각계각층의 광범한 군중들을 하나의 혁명력량에 묶어세워야 한다.

그러므로 광범한 군중들을 혁명대오에 묶어세우고 그들의 혁명열의를 북돋아주는 정치사업이야말로 혁명사업에서 첫공정으로 되며 혁명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첫째가는 의무로 되는것이다.

그렇기때문에 혁명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정치사업을 하여야 한다.

바로 이것을 위해서는 각계각층의 광범한 군중들을 깊이 료해하고 그들에게 알맞는 선전교양사업을 해야 한다.…》

김일성동지께서 천명하신 이러한 군중정치사업의 방침은 혁명발전의 요구, 특히는 항일무장투쟁발전의 객관적요구를 가장 정확하게 반영한 혁명적이며 독창적인것이였다.

군중을 혁명적으로 각성시키는것은 혁명수행에서 가장 선차적이며 필수적인 요구로 된다.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혁명은 대중을 각성시키는 사업으로부터 시작된다. 인민대중을 의식화하지 않고서는 그들을 조직적으로 묶어세울수도 없으며 대중운동을 발전시킬수도 없다. 혁명운동에 참가하는 인민대중의 의식수준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들은 더 조직화되고 더 큰 힘을 내게 된다.

그러므로 혁명운동에서 승리하자면 군중정치사업을 잘하여 광범한 군중을 의식화하고 그들을 혁명의 편에 튼튼

히 묶어세워야 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직령도하신 항일무장투쟁은 군중정치사업을 강화할것을 더욱 절실한 문제로, 혁명의 승패를 좌우하는 관건적문제의 하나로 제기하였다.

김일성동지께서 조직령도하신 항일무장투쟁은 강도 일본제국주의를 타도하고 조국의 광복을 실현하며 나아가서 해방된 조국땅우에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실현할 숭고한 사명을 지닌 위대한 혁명투쟁이였다.

당시 우리 인민의 민족해방투쟁과 공산주의운동을 승리적으로 전진시키기 위하여서는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광범한 인민대중을 무장시킴으로써 항일무장투쟁의 직접적인 영향하에 각종 형태의 투쟁을 힘있게 전개하는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였다.

또한 항일무장투쟁은 혁명적인민들의 지원이외에는 국가적후방도, 정규군의 지원도 전혀 없는 극히 어려운 조건에서 간악한 원쑤를 반대하여 한두해도 아니고 15성상이란 긴 세월에 걸쳐 진행되였다. 이러한 형편에서 군중을 혁명의 편에 더많이 전취하고 그들의 지지를 얻으며 일제와 그 주구들을 철저히 고립시키는 문제는 군중정치사업의 성과여부에 크게 달려있었다.

더우기 항일무장투쟁의 거대한 혁명적영향을 가로막아보려고 일제가 끊임없이 감행한 악랄한 《반공》선전을 짓부시고 군중속에 혁명의 씨앗을 뿌리며 광범한 반일민족통일전선을 형성하여 각계각층 군중이 반일투쟁에 힘차게 나서도록 하는데 있어서 군중정치사업을 활발히 전개하는것은 매우 중요하고도 날카로운 문제로 제기되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무장투쟁의 전기간에 걸쳐 조선혁명의 승리를 달성하기 위하여서는 광범한 군중을 조직동원하여야 한다고 가르치시면서 항상 군중정치사업에 큰 의의를 부여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우선 군중정치사업을 앞세우고 그를 부단히 강화할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시였으며 몸소 그 실천적모범을 보여주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인민대중을 위하여 투쟁하는 사람들인것만큼 우선 군중을 믿어야 하며 그들을 교양하고 도와주어야 한다. 우리는 하루속히 군중을 각성시키고 우리가 하는 일의 정당성을 그들에게 정확히 인식시키며 우리와 함께 싸우려는 사람들과 굳게 단결하여 생사고락을 같이 하면서 투쟁하여야 한다.

이것은 총칼이나 폭탄으로 얼마쯤의 적을 잡는 그것과는 비할바없이 큰일이며 반드시 수행해야 할 우리의 과업이다.》

군중에 대한 정치사업을 모든 일에 앞세우고 그들을 각성시켜 혁명투쟁에로 불러일으킬데 대한 김일성동지의 가르치심은 항일유격대원들, 조선공산주의자들에게 간악한 일제를 타승하고 혁명의 승리를 확고히 보장할수 있는 강유력한 무기를 안겨주었다.

공산주의자들은 바로 인민대중의 리익과 념원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것이며 따라서 그 투쟁목적을 대중속에 광범히 선전할 때 그들은 공산주의자들을 적극 지지하게 되며 혁명투쟁에 나서게 된다. 그러므로 군중속에서 정치사업을 앞세워 그들의 모든 힘과 지혜를 혁명투쟁에 최대한으로 동원하도록 하는것은 공산주의자들의 숭고한 투쟁목적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위력한 사업방법이며 바로 여기에 혁명승리의 중요한 담보가 있는것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무장투쟁의 그 간고한 나날에도 항상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광범한 군중들과 자리를 같이하시고 그들에게 조선혁명의 성격과 임무, 당면한 투쟁과업, 그리고 조국광복회 10대강령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해석하시였으며 모든 군중이 힘을 합쳐 일제를 반대하여 투쟁하여야 한다는것을 일일이 깨우쳐주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방침을 받들고 항일유격대원들은 언제나 정치사업을 혁명사업의 첫공정으로 삼고 무엇

보다도 먼저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 그이께서 맑스-레닌주의를 조선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하고 발전시켜 작성하신 조선혁명의 정확한 로선과 전략전술적방침들을 대중속에 깊이 침투시키기 위하여 모든것을 다하였다.

위대한 수령의 혁명사상과 그이께서 작성하신 혁명로선과 방침들을 체득한 군중들은 살 길은 오직 김일성동지의 가르침대로 일제를 반대하여 싸우는데 있다는것을 알게 되였으며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무한히 흠모하고 그이께서 높이 추켜드신 조국광복의 기치, 혁명의 기치를 따라 반일투쟁에 용감히 떨쳐나섰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또한 군중정치사업에서 계급로선과 군중로선을 확고히 견지하고 조선공산주의자들의 지도밑에 로동자, 농민들로 혁명의 주력군을 튼튼히 꾸리며 그 주위에 각계각층의 군중을 결속시켜 반일투쟁에 조직동원할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시였다.

항일유격대원들은 이 방침을 받들고 군중정치사업을 조직진행함에 있어서 언제나 로동자, 농민들과의 사업에 선차적의의를 두었으며 이와 함께 각계각층 군중에 대한 정치사업을 강화하였다.

항일무장투쟁시기 로동자, 농민들 속에서의 정치사업의 기본은 그들을 계급적으로 각성시키고 혁명화하며 반일민족해방투쟁의 전투적이며 조직적인 부대로 단련육성함으로써 혁명의 주력군으로 튼튼히 준비시키는것이였다.

김일성동지의 가르치심에 따라 항일유격대원들은 로동자, 농민들을 비롯한 각계각층 군중들에게 조선인민이 겪고있는 모든 불행의 화근이 일제의 조선강점에 있으며 따라서 일제와 그 주구 지주, 자본가들을 타도하여야만 민족적 및 계급적 해방을 달성하고 인민들이 자유롭고 행복하게 사는 새 조국을 건설할수 있다는것을 일깨워주었다.

김일성동지께서 천명하신 정확한 방침에 따라 진행된 항일무장투쟁시기의 군중정치사업은 광범한 군중을 일제의 반동사상의 영향하에서 떼여내였을뿐아니라 항일무장대오를 비롯한 혁명조직에 결속시키고 혁명력량을 정치사상적으로 튼튼히 꾸리는데서 실로 거대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일제의 탄압이 그처럼 심하던 시기에 김일성동지를 민족의 영웅으로, 우리 인민의 태양으로 우러러보면서 수많은 로동자, 농민, 애국적청년들이 그이께서 령도하신 항일유격대에 참가하여 영웅적으로 투쟁하였으며 광범한 군중이 생명의 위험까지도 무릅쓰고 항일유격대를 물심량면으로 적극 지원한것은 모두 항일무장투쟁시기 강력히 진행된 군중정치사업의 위대한 힘을 떠나서는 생각할수 없다.

2

김일성동지께서는 군중정치사업의 방침을 독창적으로 가장 정확하게 제시하시였을뿐아니라 그 형식과 방법을 창조적으로 해결하시였으며 몸소 그 실천적모범을 보여주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군중정치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우리 인민의 풍속과 관습, 각지방 주민들의 특성과 각계각층 군중의 처지, 그들의 정치적준비정도에 맞게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실속있게 진행할것을 가르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의 선전선동사업이 대중의 심장을 파악하자면 어떻게 되여야 할것인가? 우선 선전일군들자신이 선전대상의 실정과 특성을 구체적으로 료해하는 문제가 중요하다. 대상에 대한 료해가 없거나 부족할 때에는 선전선동사업이 주관주의와 형식주의를 면할수 없게 되며 또 그러한 선전선동사업은 우리에게 게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할것이다.

구두선전과 선전문, 직관물, 신문, 주간 간행물 혹은 월간잡지 등은 명료하면서도 그 내용이 풍부하여야 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로동자들속에 직접 들어가시여 로동계급은 우리 나라에서 가장 혁명적계급이며 주도적력량이며 선진적부대이기때문에 우리 혁명의 령도계급으로 되여야 하며 일제를 반대하여 견결히 싸워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1939년 무산지구에 진공하시였을 때 그곳 로동자들에게 항

일유격대의 숭고한 목적과 사명을 해설하신후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반만년의 유구한 력사를 가진 우리 인민이 일본제국주의자들의 노예로, 망국노로 된다는것은 너무나도 억울하고 원통한 일이 아닌가! 그러나 절대로 더는 그렇게 될수 없다.

그러면 조선인민이 자기의 조국을 해방할수 있는 힘이 없는가?

아니다. 그러한 힘은 얼마든지 있다. 바로 그 힘은 전체 조선의 선량한 인민들—특히 로동자, 농민의 굳은 단결에 있다. …

당신들,로동계급은 조선인민의 가장 선진적인 부대이다. 무산대중의 자유와 해방을 위하여 반일전선의 선두에 바로 당신들이 나서야 한다.…》

로동계급을 우리 혁명의 기둥으로 굳게 믿으시고 커다란 신임을 표시하시며 로동계급이 혁명에서 놓아야 할 무겁고도 중대한 임무를 차근차근 가르쳐주시는 위대한 수령의 가르치심에 무한히 격동된 로동자들은 이르는곳마다에서 혁명투쟁에 용감히 떨쳐나섰으며 조선혁명의 령도계급으로서의 자기의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모든것을 바쳐 싸웠던것이다.

그이께서는 또한 농민들속에 들어가시여 그들이 헐벗고 굶주리고있는것은 《타고난 팔자》때문인것이 아니라 일제와 지주놈들의 비인간적인 착취와 략탈때문이라는것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시고 그놈들을 하루속히 타도하여야만 제땅을 갖고 마음놓고 농사지으면서 행복하게 잘살수 있다고 가르쳐주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1936년 4월 무송현 만강부락농민들앞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지금은 여러분이 도토리를 울궈먹는다지만 우리 무산계급의 세상을 세우는 날이면 매일같이 당콩박은 흰 이밥에 고기국을 먹을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은 곡식을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고 다 자기가 가질수 있기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뼈가 휘도록 1년 내내 일을 하지만 결국은 그 수확의 거의 전부를 아무런 일도 하지 않는 지주, 자본가와 일제놈들에게 빼앗기고있습니다. 그러니 이놈들만 때려없으면 우리가 잘 살수 있습니다. 때려없자면 우리가 혁명을 해야 합니다. 혁명을 하자면 우리의 힘을 하나로 뭉쳐야 합니다. 우리가 힘을 합쳐 단결하면 못해낼것이란 없으며 참으로 두려울것이 없습니다.》

김일성동지의 크나큰 사랑과 극진한 배려를 받은 농민들은 계급적으로 각성되고 자기들의 운명을 전적으로 그이께 의탁하였으며 일제통치의 그 암담한 시기에도 광명한 미래에 대한 확고한 신심을 안고 수령께서 령도하시는 항일유격대를 전심전력으로 지원하여 적극 투쟁하였던것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또한 청년, 학생들속에서의 정치사업을 그들의 성격과 취미, 생활형편과 수준에 맞게 생동한 자료와 결부시켜 진행할데 대하여 가르치시면서 청년, 학생들을 교양하는 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리시였다.

1936년 12월 김일성동지께서는 장백현 17도구 상풍동마을에 들리시였을 때에도 반일구국청년회원들을 만나시고 왜 장백에 오게 되였는가, 고향은 어디인가, 식구는 몇이며, 살림형편은 어떠한가를 깊이 료해하시고 일제를 반대하여 싸우기 위하여서는 대중을 조직에 묶어세워야 하는데 대중을 묶어세우기 위하여 청년회원들자신이 학습을 많이 하고 대중을 깨우쳐줄수 있도록 잘 준비하여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청년들을 혁명의 믿음직한 역군으로 키우시기에 온갖 심혈을 기울이신 김일성동지의 육친적인 사랑과 교양을 받으면서 광범한 청년들이 정치사상적으로 성장되였으며 항일유격대내에서와 혁명조직들에서 김일성동지께 끝까지 충실한 열렬한 혁명전사로서 용감하게 싸웠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민족주의자들과 종교인들 그리고 지어는 적기관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친히 만나시여 그들이 조국과 민족을 배반하지 말고 일제를 반대하여 싸워야 한다는것을 해설하시였으며 적지 않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이끄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군중정치사업을 형식과 방법에 구애됨이 없이 가능한 모든 기회, 모든 계기를 다 리용하여 능동

적으로 기동성있게 조직진행하여야 한다고 가르치시고 몸소 그 모범을 보여주시였다.

그이께서는 부대가 주민부락에서 숙영할 때, 행군하다 휴식하여 군중을 만났을 때 등 이러저러한 기회에 군중들과 접촉하며 진지하게 설복하고 교양하여 반일투쟁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하여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군중정치사업에서 집체적방법과 개별적방법을 옳게 결합시켜 말은 될수록 간단히 하면서도 내용은 풍부히 하며 몇마디의 말로써도 군중에게 불타는 적개심을 불러일으키도록 하여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개별교양의 방법과 함께 가능한 조건에서는 강연, 집체선동, 연예공연, 군민련환대회, 오락회 등 집체적인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군중교양을 진행하시는데 커다란 의의를 부여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보천보전투를 비롯한 수많은 전투승리후 주민들속에서의 강연보고, 선동연설들을 통하여 군중들속에 혁명로선과 방침들을 해설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3. 1월간》을 비롯한 수많은 신문, 잡지, 소책자, 선전문, 삐라, 격문, 포스터 등 혁명적출판물을 광범히 리용하여 군중을 애국주의사상으로 무장시켜 반일투쟁에로 불러일으키기 위한 다양한 군중정치사업을 직접 조직지도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이밖에도 혁명적연극, 오락회, 각종 행사 등 모든 기회를 리용하여 군중을 교양하고 혁명화하도록 가르치시였으며 그에 대한 구체적인 지도를 주시였다.

혁명적연극은 항일무장투쟁시기 군중정치사업의 위력있는 무기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그 바쁘신 가운데도 친히 연극대본을 만드시였고 연기를 지도하시였으며 군중이 있는 모든 곳에서 언제나 연극을 할수 있도록 하도록 하시였다. 혁명적연극 《피바다》를 비롯한 많은 연극들은 당시 사회의 모순, 낡은것과 새것과의 투쟁을 생동하게 보여줌으로써 계급투쟁의 불가피성과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혁명로선의 정당성, 혁명승리의 필연성을 확신케 하였으며 각종 반일투쟁에 군중들을 불러일으키는데 거대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무장투쟁의 전기간에 걸쳐 항일유격대원들을 유능한 군중교양자로, 정치일군으로, 혁명적군중관점을 소유한 인민의 충복으로, 열렬한 정치활동가로 육성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정치공작원들을 국내 각지와 각계각층 군중속에 파견하시여 군중정치사업을 수행하도록 하시였으며 그의 활동방향과 사업내용들에 대하여 구체적이고도 현명한 지도를 주시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선 군중들속에 깊이 들어가서 그들과 고락을 같이하여야 한다. 그러자면 무엇보다도 그 지방 인민들의 언어와 생활풍습을 잘 알아야 하며 그것을 존중해야 한다. 아무리 사업방법이 능란한 사람이라도 그 지방 인민들의 생활풍습을 모르고서는 인민들속에 깊이 들어갈수 없다. 때문에 군중공작에서는 이 문제를 선차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

군중들과의 사업에서는 절대로 조급해하지 말아야 한다. 조급성은 군중과의 사업에서 금물이라는것을 명심해야 한다.

군중사업이란 매우 어렵고 힘든 일이며 높은 예술성이 요구되는 혁명사업이다. 민첩하고 능란하게 행동할뿐만아니라 매사를 신중하고 침착하게 처리해야 하며 항상 높은 혁명적경각성을 견지해야 한다.

특히 적들의 일거일동을 예리하게 주시하여야 하며 비밀을 철저히 엄수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여야 많은 혁명초소를 튼튼히 지키고 혁명임무를 잘 수행할수 있다.…》

항일유격대원들과 정치공작원들은 김일성동지의 가르치심을 높이 받들고 그이의 신천적모범을 따라 군중정치사업을 목적지향성있게 진행함으로써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광범한 군중을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고 그이의 주위에 굳게 결속시켰으며 그들을 혁명승리에로 조직동원하기 위하여 모든 힘을 다하였다.

항일무장투쟁시기 김일성동지의 직접적인 지도밑에 조직진행된 군중정치사업과정에서 정치사업을 모든 사업에 앞세워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전개하며 정치사업을 능동적으로, 진공적으로 하여 더많은 군중을 혁명의 편에 전취하고 단결시켜 혁명을 힘있게 발전시키는 고귀한 경험이 이룩되였다.

* *

4천만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령도하에 조직전개된 영광스러운 항일무장투쟁행정에서 이룩된 군중정치사업의 빛나는 전통은 해방후 우리 당에 의하여 빛나게 계승되였다.

해방후 우리 당은 항일무장투쟁시기 김일성동지께서 이룩하신 군중정치사업의 고귀한 업적과 풍부한 경험에 기초하여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무장시키기 위한 교양사업을 전면적으로 진행하였으며 그를 혁명발전의 매시기의 요구에 맞게 부단히 심화하여왔다.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당은 광범한 군중을 전취하며 그들의 무궁무진한 힘을 혁명과 건설에 동원함에 있어서 정치사업에 선차적의의를 부여하였으며 이것을 모든 사업에 선행시키는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였다.

모든 사업에서 정치사업을 선행할데 대한 문제는 김일성동지에 의하여 창조된 청산리방법에서 더욱 구체화되고 전면적으로 심화발전되였다.

우리 당은 청산리방법의 요구대로 정치사업을 모든 사업에 앞세우고 극소수의 반혁명분자, 적대분자를 제외한 모든 군중들을 김일성동지의 주위에 반석같이 단결시켰으며 온 나라를 혁명적기백이 넘쳐흐르는 붉은 대가정으로 전변시킴으로써 사회주의건설과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위대한 성과를 달성하고있다.

오늘 우리 나라에 조성된 혁명정세는 전체 인민이 4천만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확고히 무장하며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 사업을 더욱 강화할것을 절실히 요구하고 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정치사업에서 가장 중요한것은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확립하는것이다.

당의 유일사상이란 사상에서 주체, 정치에서 자주, 경제에서 자립, 국방에서 자위의 원칙으로 일관된 우리 당의 사상이다. 우리 당의 사상, 우리 당의 정책은 조선혁명을 완성하고 조선인민을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가장 정확하게 이끄는,우리 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된 맑스-레닌주의이다.

우리 당의 정책과 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는것은 전체 당원들과 로동계급을 비롯한 근로자들 앞에 가장 중요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정치사업의 기본방향에 대한 김일성동지의 강령적교시를 심장으로 받들고 우리 간부들과 당원들은 그 어느때보다도 군중정치사업을 더 잘하여 각계각층 군중을 우리 당과 김일성동지의 주위에 튼튼히 결속시켜야 한다.

정치사업을 강화할데 대한 수령의 가르치심을 받들고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4천만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더욱 튼튼히 무장시키며 모두다 수령의 의도대로 사고하고 행동하게 할 때 우리의 혁명대오는 정치사상적으로 반석같이 꾸려질것이며 혁명과 건설을 더욱 촉진하고 조국통일의 혁명적대사변을 앞당길수 있다.

대안의 사업체계의 본질과 우월성

4천만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이시며 우리 시대의 걸출한 맑스-레닌주의자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지금으로부터 7년전,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적생산관계의 유일적지배가 확립되고 사회주의건설이 바야흐로 본격적인 단계에서 전개되던 1961년 12월에 사회주의경제관리의 가장 우월한 형태인 대안의 사업체계를 창조하시였다.

우리의 영웅적로동계급과 전체 근로자들은 위대한 대안의 사업체계를 높이 받들고 그 요구를 관철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함으로써 경제관리를 부단히 개선하여왔으며 전반적사회주의건설을 힘차게 추진시켜왔다.

경험은 대안의 사업체계를 철저히 확립하는것이 사회주의경제관리의 모든 문제들을 순조롭게 풀고 사회주의혁명과 건설에서 계속 빛나는 성과를 이룩하게 하는 튼튼한 담보로 된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지금 우리 나라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는 공화국창건 스무돐기념경축대회에서 하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력사적인 보고에 접하여 새로운 커다란 희망과 보다 큰 신심을 안고 혁명적대고조의 불길을 더한층 세차게 높이고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대안의 사업체계를 더욱 철저히 관철하고 생산력발전의 요구에 맞게 경제관리를 일층 개선하는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건설을 위한 우리의 전진운동을 추진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우리는 김일성동지의 직접적발기와 지도밑에 창조된 대안의 사업체계의 본질과 우월성을 더욱 심오히 인식하고 그 요구를 전면적으로 관철하기 위하여 더한층 견결히 투쟁하여야 하며 7개년계획수행의 마지막 돌격전에서 그의 무궁무진한 위력이 더욱 높이 발양되도록 하여야 한다.

1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직접적발기와 지도에 의한 대안의 사업체계의 전면적확립은 사회주의의 경제관리에서 근본적전환을 가져오게 한 위대한 사변이다.

그것은 대안의 사업체계가 과거의 모든 사업체계와는 원칙적으로 구별되는 공업관리체계로서 사회주의경제관리를 새로운 궤도우에서 전진시킬수 있게 하기때문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대안체계의 본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대안체계의 기본정신은 간부들과 근로자들이 한덩어리가 되며 간부들이 책상에 앉아서 지시하고 명령하는것이 아니라 아래에 내려가서 생산자들과 사업하며 그들을 직접 도와주는데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여 대안체계란 경제관리에서 군중로선을 구현한것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168페지)

경제관리에서 군중로선을 관철하여 광범한 생산자대중을 인입하고 그들의 무궁무진한 창조적지혜와 자각적열성을 발양시키는것은 로동계급이 정권을 잡은이후 사회주의경제를 관리운영하는데 있어서 제기되는 기본문제이다. 그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이 수백만 근로대중의 의식적이며 자각적인 로동에 의해서만 이룩될수 있기때문이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이 심화되면 될수록 물질기술적토대가 강화되고 생산관계가 공고히 되여가는것만큼 생산자대중이 경제관리에 더욱더 광범히 참가하게 되고 결국 공산주의사회에 가서는 경제를 관리하는 사업이 진적으로 생산

자대중자신의 사업으로 전화된다. 그렇기때문에 사회주의, 공산주의하에서 기업관리체계가 어느정도로 완성되였는가 하는것은 중요하게 그것이 경제관리에 생산자대중을 얼마나 많이 그리고 깊이 참가시키는가 하는데 의하여 규정된다.

우리 시대의 탁월한 맑스-레닌주의자이시며 4천만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확고한 맑스-레닌주의원칙과 1930년대 항일무장투쟁시기에 이루어진 군중적사업방법에 기초하여 그리고 대안전기공장에 대한 현지지도에서 진행하신 과학적분석과 우리 나라 사회주의경제건설의 풍부한 실천적경험에 기초하여 대안의 사업체계를 창조하심으로써 기업관리운영에 광범한 대중을 인입하는 문제를 전면적으로 해결하시였다.

김일성동지의 직접적인 발기와 지도밑에 창조된 대안의 사업체계는 위대한 청산리방법을 사회주의경제관리에 구현한것이다.

김일성동지의 직접적령도밑에 조직전개된 항일무장투쟁의 불길속에서 군중로선에 기초한 혁명적사업방법이 이루어졌으며 그것이 해방후 김일성동지에 의하여 사회주의제도가 세워진 새로운 조건에 맞게 구체화되고 발전됨으로써 사회주의혁명과 건설을 지도하는 위력한 무기로서의 위대한 청산리방법으로 되였다. 대안의 사업체계는 혁명적 맑스-레닌주의사업방법인 이 청산리방법을 경제관리에 전면적으로 구현한것이다.

김일성동지의 직접적인 발기와 지도밑에 창조된 새로운 공업관리체계는 사회주의경제관리운영문제를 리론실천적으로 완성하는 분야에서 맑스-레닌주의보물고에 탁월한 기여로 된다. 그것은 대안체계가 우리 나라의 구체적조건에 전적으로 부합될뿐만아니라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고있는 모든 나라들에서 원칙적이고 보편적인 의의를 가지기때문이다.

생산관계의 사회주의적개조가 완성된 다음 경제관리운영을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요구에 맞게 정확히 해결하는것은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사회주의경제관리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에 따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발양시키는가 못시키는가,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성과적으로 건설하는가 못하는가 하는것이 크게 달려있다. 그런데 종전까지 이 문제는 맑스-레닌주의리론에서나 국제공산주의운동의 실천에서 해결되여있지 않았었다. 뿐만아니라 여기에서는 적지 않은 좌우경적편향이 발로되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대안체계를 창조하심으로써 그 누구도 해결하지 못하였던 우리 시대의 이 중대한 문제에 대하여 가장 정확한 맑스-레닌주의적해답을 주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대안의 사업체계는 그전의 사업체계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며 공산주의적기업관리의 요소를 많이 가지고있는 우월한 사업체계입니다. 이 새로운 사업체계는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적, 공산주의적 생활원칙을 훌륭히 구현하고있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3권, 422페지)

김일성동지의 직접적발기와 지도에 의하여 우리 나라에 확립된 새로운 공업관리체계는 사회주의제도의 본성을 훌륭히 구현한것이다. 새로운 사업체계에서는 당위원회의 령도적역할을 강화하고 정치사업을 선행하여 군중로선을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모든 근로자들이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 서로 돕고 이끌면서 화목하게 일하며 생활하게 되여있다.

대안의 사업체계는 또한 사회주의건설의 근본원칙인 민주주의중앙집권제원칙에 립각한것이다. 새로운 사업체계에서는 당의 집체적령도하에 군중로선을 관철하여 생산자대중을 기업관리에 광범히 참가시키고 그들의 무궁무진한 열성과 창발성을 높이 발휘시키면서 동시에 새로운 계획화

체계와 생산지도체계, 우로부터 아래에 내려다주는 공급체계, 그리고 우가 아래를 도와주는 사업방법에 의하여 생산에 대한 중앙집권적, 계획적 지도를 강화할수 있게 되여있다.

김일성동지께서 교시하신바와 같이 대안의 사업체계는 사회주의적이며 맑스-레닌주의원칙에 립각한, 우리 나라 사회주의건설에 가장 적합한 전혀 새로운 경제관리체계이다.

김일성동지의 직접적발기와 지도에 의하여 우리 나라에서는 로동계급의 력사적위업의 리익과 사회주의경제발전의 합법칙적요구에 완전히 부합되는 혁명적이며 과학적인 경제관리체계가 세워졌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대안의 사업체계를 창조하시여 사회주의경제관리에서 맑스-레닌주의원칙을 확고히 고수하시였으며 그것을 사회주의제도의 본성과 우리 나라의 구체적실정에 맞게 발전시키고 풍부화하시였다.

우리는 인민경제의 지도관리를 가장 정확히 실현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건설을 힘차게 전진시키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사회주의경제관리문제가 김일성동지에 의하여 우리 나라에서 전면적으로 해결된데 대하여 높은 긍지와 자부심을 가진다.

2

김일성동지의 직접적발기와 지도밑에 창조된 대안의 사업체계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건설에서 거대한 우월성을 발휘하고있으며 그것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위한 우리의 전진운동에 미치는 힘은 날이 갈수록 더욱더 커가고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공화국창건 스무돐기념경축대회의 력사적인 보고에서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새로운 공업관리체계인 대안체계가 도입된 결과 경제기관, 기업소들이 모든 사업을 당위원회의 집체적지도밑에 진행하며 정치사업을 앞세우고 군중을 발동하여 제기된 혁명과업을 수행하며 웃기관이 아래기관을 도와주고 웃사람이 아래사람을 도와주며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을 가르쳐주며 모든 사람이 동지적으로 협조하고 모든 직장, 모든 공장, 모든 부문들이 서로 밀접히 협력하여 협동생산을 발전시키며 객관적인 경제법칙들에 의거하여 경제를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운영할수 있게 되였습니다.》(《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우리 인민의 자유와 독립의 기치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강력한 무기이다》, 36페지)

대안의 사업체계의 거대한 우월성은 그것이 계획화사업을 비롯한 모든 경제관리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게 함으로써 사회주의적생산발전을 힘차게 추동하고 있는데서 나타나고있다. 사회주의건설의 혁명적대고조, 기술혁명의 급속한 추진, 로동생산능률의 부단한 제고, 생산규모의 끊임없는 확대와 경제발전의 높은 속도, 자립적민족경제토대의 가일층의 공고화 등 최근년간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는 실로 거대한 성과들이 달성되였으며 국방력을 강화하는 사업에서도 커다란 전진이 이루어졌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건설에서 달성된 찬란한 성과들과 빛나는 승리는 대안의 사업체계의 무궁무진한 우월성과 생활력을 뚜렷이 증명하여주고있다.

대안의 사업체계의 우월성은 무엇보다도 먼저 당위원회의 집체적령도를 강화하고 정치사업을 선행하여 광범한 생산자대중을 경제관리에 참가시키고 그들의 열성과 창발성을 높이 발양시키는데 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새 사업체계의 첫째가는 우점은 그것이 공장관리운영에서 집체성을 잘 보장하는데 있습니다.

…새로운 사업체계에서는 공장당위원회가 최고지도기관으로서 공장을 관리운영하며 모든 당원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이 공장관리에 참가하고있습니다. 생산에 대하여 어느 개인이 책임지는것이 아니라 모든 당원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이 책임지며 무엇보다도 먼저 집체적령도기관인 공장당위원회가 책임

집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3권, 424～425페지)

대안의 사업체계의 전면적인 확립은 지배인유일관리제로부터 집체적경제관리제에로, 자본주의적잔재를 적지 않게 가지고있던 경제관리체계로부터 완전한 사회주의적인 경제관리체계에로의 혁명적이행을 의미한다. 경제관리에서의 이 근본적전환은 생산수단에 대한 사회적소유와 현대적대기계생산에 기초하고있는 대규모사회주의경제를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한 절실한 요구를 가장 빛나게 실현한것이다. 우리나라 사회주의경제건설경험이 잘 보여주는것처럼 현대적대규모사회주의생산의 조건에서는 오직 당의 령도밑에 집체적관리를 실현하여야만 경제관리의 모든 문제를 당적, 계급적 립장에서 가장 정확하게 해결하고 인민경제를 객관적현실에 맞게 가장 합리적으로, 가장 효과적으로 관리운영해나갈수 있다.

당위원회의 령도에 기초한 집체적관리는 무엇보다도 김일성동지의 교시, 당정책을 집행함에 있어서 언제나 옳은 길을 택할수 있게 하는 담보이다.

생산에 필요한 모든 요인들 즉 설비, 자재, 로동력의 상태를 제일 잘 아는 사람은 생산자대중이며 따라서 생동하고 창조적인 지혜는 항상 군중들속에서 나오게 마련이다. 그러므로 당위원회의 집체적협의를 통하여 대중의 지혜를 발전시키면 그것은 경제관리의 개선을 위한 매우 귀중한 밑천으로 된다. 광범한 대중을 기업관리에 참가시키고 그들의 무궁무진한 열성과 창발성을 최대한으로 발양시키는 집체적관리는 김일성동지의 교시를 관철하기 위한 정확한 방향과 방도를 찾고 현대적사회주의생산을 옳게 관리운영할수 있게 하는 중요한 열쇠로 된다.

김일성동지께서 마련해주신 집체적령도제는 또한 공장의 최고지도기관인 당위원회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행정관리일군, 기술일군, 당일군들이 당정책관철을 위한 배합작전을 가장 훌륭히 진행할수 있게 한다. 당위원회의 령도밑에 공장의 모든 관리계통이 하나의 의지, 하나의 목적에 복종하게 되여있는 대안의 사업체계에서는 당정치사업과 행정경제사업이 호상 밀접히 결합되고 당사업을 통하여 행정경제사업을 풀수 있는 조건이 전면적으로 지어져있다. 여기에서는 당위원회에서 집체적으로 토의결정한 방향과 분공에 따라 행정관리일군들은 행정경제사업전반의 움직임을 책임적으로 돌보고 기술일군들은 생산에서 제기되는 기술문제를 수월하게 해결하며 당일군들은 당정치사업을 진하여 행정경제사업을 믿음직하게 안받침해주고있다. 이렇게 대안의 사업체계에서는 행정관리일군, 기술일군, 당일군들간에 배합작전이 잘 진행됨으로써 복잡한 생산활동이 질서정연하게 전개되여나가고있으며 공장의 모든 사업이 종합적으로 원만히 해결되여나가고있다.

뿐만아니라 새 사업체계에서는 당위원회의 키잡이역할이 높아지고 행정, 기술 및 당 일군들간에 배합작전이 잘 진행됨으로써 행정관리계통의 생산조직기능이 훨씬 높아지고 그 집행력이 비상히 강화된다.

당위원회의 령도에 기초한 생산자대중의 집체적관리는 또한 당정책과 기업소 앞에 나선 혁명과업의 수행에 모든 당원들과 근로대중을 한사람같이 발동할수 있게 한다. 김일성동지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당위원회가 집체적지도를 잘 보장하면 모든 당원들을 움직일수 있고 모든 당원들이 움직이면 모든 근로대중을 움직일수 있으며 전체 당원들과 전체 근로대중이 다 생산을 잘하기 위하여, 공장을 더 잘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의식적으로, 자각적으로 움직이게 되면 모든 문제들을 다 옳게 풀어나갈수 있으며 생산에서 커다란 혁신을 일으킬수 있다. 실로 당위원회의 집체적령도는 당원들의 선봉적역할을 높이고 한사람이 열사람을, 열사람이 백사람을, 백사람이 천사람을 움직여 모

든 근로대중을 발동할수 있게 한다.

모든 사업에 정치사업을 앞세우는것은 사회주의건설에서 군중의 혁명적열의와 창발성을 발양시키는 위력한 수단이며 대안의 사업체계에서 군중로선을 실현하기 위한 확고한 담보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대안의 사업체계에서 중요한것은 정치사업을 앞세우는것이다. 그리하여 매개 사람들이 사상동원이 되여 다 자각적으로 일하고 자기가 무엇때문에 일하며 할 일이 무엇인가, 자기가 어떻게 일하여야 하는가를 알도록 하여야 한다.》

대안체계에서는 당의 령도적역할이 높아지고 당사업이 부단히 강화됨으로써 정치사업이 경제관리사업의 첫공정으로 되고 경제사업은 정치사업, 사람과의 사업을 통해서만 성과적으로 풀어나갈수 있게 되여있다. 여기에서는 당일군들만아니라 기업소의 모든 일군들이 정치사업을 하고 생산현장을 거점으로 하여 정치사업이 전개됨으로써 생산의 직접적담당자들속에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과 그 구현인 당의 로선과 정책이 제때에, 정확히 그리고 깊이 침투되게 된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건설의 실천적경험이 보여주는바와 같이 당위원회의 집체적령도가 강화되고 정치사업이 선행되여 근로대중이 수령에 대한 충직성으로 철저히 교양되고 당의 유일사상체계가 확고히 세워지면 질수록 광범한 대중이 발동되여 경제관리의 모든 문제를 주인답게 해결하게 되고 생산을 힘차게 밀어나가게 된다.

대안의 사업체계의 중요한 우월성의 다른 하나는 그것이 경제를 계획적으로 관리운영하는데 가장 효과적이라는것이다.

김일성동지의 직접적발기와 지도에 의하여 창조된 계획의 일원화와 세부화는 사회주의경제제도의 본성과 더불어 대안의 사업체계에서 처음으로 제시된 계획화원칙, 군중로선에 기초한 계획화원칙을 빛나게 구현한것으로서 사회주의적계획화사업의 발전과 인민경제에 대한 지도관리를 개선하는데서 새로운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다주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공화국창건 스무돐기념경축대회의 력사적인 보고에서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계획의 일원화와 세부화가 도입됨으로써 국가기관들의 경제조직자적기능이 더욱 강화되였으며 계획화에서 국가계획기관들의 주관주의와 생산자들의 기관본위주의, 지방본위주의를 없애고 국가의 의도와 생산자들의 창의창발성을 잘 배합하여 참말로 현실적이고 과학적이고 동원적인 계획을 세울수 있게 되였습니다.》(《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우리 인민의 자유와 독립의 기치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강력한 무기이다》, 36페지)

일원화계획체계와 세부계획화는 계획화에서 대안체계의 요구를 관철하는 길이며 사회주의경제의 계획적, 균형적 발전을 보장하는 길이다.

계획을 일원화, 세부화할데 대한 김일성동지의 심오한 사상은 인민경제계획화에 관한 맑스-레닌주의리론을 사회주의건설의 실천적경험에 기초하여 새롭게 창조적으로 발전시키고 풍부화한것으로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건설을 위한 모든 인민들의 공동의 재부로 된다.

대안의 사업체계의 거대한 우월성은 또한 생산에 대한 기술적지도를 강화하며 생산을 종합적으로 지도하도록 되여있는것이다.

대안의 사업체계에서는 생산과 관련된 모든 부서들을 통일적으로 장악하는 공장참모부와 직장참모부를 내오고 기술을 아는 사람이 그것에 의거하여 생산을 계획하며 준비하며 지도하게 되여있다. 이것은 계획사업으로부터 시작하여 기술준비사업, 생산지도사업들이 생산을 보장하기 위한 유일한 방향에서 통일적으로 움직이고 생산단위들간의 련계와 균형이 잘 맞게 할뿐만아니라 우로부터의 지도가 아래에 깊이 침투되게 함으로써 생산과정에 대한 지도를

결정적으로 강화할수 있게 한다.

대안체계는 또한 자재공급사업과 후방공급사업을 잘 보장할수 있게 하는데 커다란 우월성이 있다. 대안체계에 확립되여있는 자재공급체계는 중앙집권적계획에 따라 자재와 부속품을 제때에 종합적으로 내려다줌으로써 기업소들로 하여금 기술경제적요구에 맞게 생산을 조직하고 추진할수 있게 한다. 또한 그것은 협동생산을 잘 보장하고 자재를 합리적으로 분배리용할수 있게 하며 공급과 소비에 대한 국가의 지도와 통제를 강화하며 자재를 절약할수 있게 한다.

대안의 사업체계에는 또한 생산보장체계의 일환으로서 로동자들의 생활을 책임지고 보장하여주는 후방공급체계가 확립되여있다. 후방공급체계는 로동자들의 생활을 완전히 책임지고 돌봐줌으로써 그들이 아무런 근심걱정없이 맡겨진 혁명과업수행에 전심전력할수 있게 한다.

김일성동지께서 창조하신 대안의 사업체계는 사회주의경제를 급속히 발전시킬수 있게 할뿐아니라 모든 근로자들의 사상의식을 공산주의적으로 교양개조할수 있게 함으로써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물질적요새와 사상적요새를 다같이 점령하는데 크게 이바지하고있다.

대안의 사업체계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의 사상의지로 단합되여 의식적으로, 자각적으로 즉 공산주의적으로 일하며 생활하게 하는 새로운 공업관리체계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가르치시였다:

《우리의 사업체계는 사람들을 공산주의적으로 일하고 공산주의적으로 생활할수 있게 하는 사업체계입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들을 다 단결시키며 그들의 헌신성과 창발성을 적극 발양시키기때문에 생산에서 더욱 큰 성과를 거둘수 있게 합니다.

새로운 사업체계의 위력은 단결과 협력의 위력이며 대중의 자각적열성과 창발성의 위력이며 당의 지도가 아래에 깊이 들어가는데서 나오는 위력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3권, 423페지)

사회주의제도의 본성을 구현하고있으며 맑스-레닌주의원칙에 립각하고있는 대안의 사업체계에서는 웃사람이 아래사람을 도와주며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을 가르쳐주며 모든 사람들이 동지적으로 도와주고 모든 직장들이 서로 밀접히 협력하게 된다. 그리하여 여기에서는 전체 근로자들이 다 공산주의적으로 교양개조되고 혁명화, 로동계급화됨으로써 모두가 문명한 생산일군으로, 유능한 관리일군으로, 능숙한 정치일군으로 자라나게 된다.

* *

우리 나라에서의 경험은 김일성동지께서 몸소 창조하시고 공고발전시키신 대안의 사업체계가 사회주의제도의 본성과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합법칙적요구를 훌륭히 반영한것으로서 사회주의경제건설을 힘차게 추진시키는 위력한 무기라는것을 증명하여주고있다. 우리가 사회주의건설에서 이 위대한 대안의 사업체계를 계속 견결히 관철해나간다면 사회주의제도를 공고히 하고 그 우월성을 전면적으로 발양시킬수 있으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힘있게 전진시킬수 있으리라는것은 명백하다.

오늘 우리앞에는 당대표자회결정과 위대한 10대정강을 높이 받들고 모든 분야에서 혁명적대고조의 불길을 더욱 높임으로써 사회주의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추진하여야 할 영예롭고도 중요한 과업이 나서고있다. 이를 위하여서는 대안의 사업체계를 더욱 철저히 관철하고 인민경제에 대한 지도관리를 가일층 개선하는것이 중요하다.

김일성동지의 직접적발기에 의하여 창조된 대안의 사업체계를 더욱 철저히 관철함에 있어서 우선 나서는것은 새로운 사업체계의 혁명적본질과 그 우월성을 더욱 똑똑히 인식하며 그 철저한 도입을 위하여 혁명적투쟁정신을 계속 높이 발휘하는것이다.

현시대의 탁월한 맑스-레닌주의자이시며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이신 김일성동지께서 마련해주신 대안의 사업체계는 그이의 위대한 혁명사상, 주체사상의 산구현이며 사회주의경제리론의 새로운 발전이다. 대안의 사업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투쟁은 경제관리에서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을 옹호하고 관철하기 위한 투쟁이며 사회주의건설에서 맑스-레닌주의의 순결성을 고수하기 위한 투쟁이다. 모든 일군들은 김일성동지께서 창조하신 대안체계의 본질과 우월성을 더욱 깊이 파악하고 거기에 구현되여있는 수령의 위대한 사상을 자신의 뼈와 살로 만들며 모든 분야에서 경제관리의 가장 우월한 형태인 대안의 사업체계를 더욱 확고히 틀어쥐고나가야 한다. 이와 함께 모든 일군들은 혁명적투쟁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대안체계의 도입을 방해하는 온갖 불건전한 사상요소들과 무자비하게 투쟁하여야 하며 자력갱생의 원칙에서 모든것을 자체의 힘으로 풀어나가는 혁명가적기풍을 더욱 철저히 확립하여야 한다. 전체 근로자들이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더욱 튼튼히 무장하고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을 견결히 옹호하며 그이의 심오한 사상을 구현하기 위하여 불요불굴의 혁명정신을 발휘할 때 대안의 사업체계는 더잘 관철될수 있다.

당의 령도적역할을 더욱 강화하고 정치사업을 모든 사업에 앞세우는것은 대안의 사업체계의 우월성을 발양시키는데서 주되는 관심을 돌려야 할 문제이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의 당위원회들은 공화국창건 스무돐기념경축대회에서 하신 김일성동지의 력사적인 보고에서 제시된 과업과 당면한 경제사업을 집행함에 있어서 나서는 새롭고 중요한 모든 문제들을 집체적으로 토의하고 명확한 사업방향과 방도를 세우며 당원들의 선봉적역할을 높이기 위하여 당력량배치를 옳게 하여야 한다. 특히 당위원회들과 그 일군들은 행정경제사업을 대행하거나 경제지도사업과 당조직정치사업의 어느 한측면에만 치우치는 일이 없이 사업전반을 확고히 틀어쥐고나가야하며 정치사업을 선행하여 모든 생산자들이 자기가 하는 일의 목적과 의의, 그 수행방도를 똑똑히 알고 사업에 달라붙도록 하여야 한다.

새로운 사업체계의 우월성을 더욱 높이 발양시키기 위하여서는 일군들의 사업방법과 사업작풍을 더한층 개선하여야 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새로운 사업체계는 한마디로 말하여 공산주의적사업체계입니다. 모든 일군들이 공산주의적 사업작풍과 사업방법을 배우지 않고서는 새로운 사업체계를 운영할수도 없으며 더욱 발전시킬수도 없습니다.》(우와 같은 책, 432~433페지)

우리는 청산리방법의 요구대로 아래에 내려가 현실을 료해하고 필요한 대책을 세워주면서 사람과의 사업, 정치사업을 앞세워 군중을 일깨우고 군중을 발동하여 당정책과 맡겨진 혁명과업을 성과있게 해결해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지금 전체 근로자들은 공화국창건 스무돐기념경축대회에서 하신 김일성동지의 력사적인 보고에 무한히 고무되여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혁명적대고조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높이고있으며 천리마의 진군을 힘차게 다그치고있다.

우리는 모두다 달라붙어 사회주의건설의 위력한 무기인 대안의 사업체계를 더욱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대중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더한층 높이며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향하여 혁명과 건설을 더욱 빨리 촉진해나갈것이다.

김일성동지께서 창조하신 새로운 농업지도체계는 사회주의농업지도관리의 가장 훌륭한 형태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지금으로부터 일곱해전, 1961년 12월에 평안남도 숙천군내 농촌사업을 현지지도하시고 우리 나라 농촌의 변화된 현실을 구체적으로 료해분석하신데 기초하여 전문적인 국가농업지도기관인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를 내올데 대한 강령적교시를 주시였으며 몸소 조직사업을 진행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숙천군에서 창조하신 실천적모범과 지도경험을 일반화하시여 그 이듬해 봄에 우리 나라의 모든 지역에서 군인민위원회로부터 농업지도기능을 떼내여 농업협동경리를 기업적방법으로 지도하는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를 내오시였으며 그와 함께 도농촌경리위원회를 조직하고 농업성을 농업위원회로 개편하는 획기적인 조치를 취하시였다.

이리하여 우리 나라에서는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를 기본으로 하는 새로운 국가농업지도체계가 질연하게 세워지게 되였다. 이것은 사회주의농촌경리에 대한 지도와 관리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혁명적전환으로 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시대의 탁월한 맑스-레닌주의고전이며 우리 당의 농촌건설강령인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에서 새로운 농업지도체계의 우월성과 생활력을 다시금 명백히 밝히시였으며 그것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과업을 제시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 창조하신 새로운 농업지도체계는 확립된후 오늘에 이르는 동안 자기의 우월성을 이미 유감없이 보여주었으며 날이 갈에 따라 더욱더 커다란 생활력을 나타내고있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건설의 실천적경험은 김일성동지의 독창적발기와 직접적지도에 의하여 확립된 새로운 농업지도체계가 우리 나라의 현실과 사회주의농촌경리발전의 합법칙적요구에 완전히 맞는 가장 훌륭한 형태의 농업지도체계라는것을 확증하였다.

올해에 우리 나라에는 또다시 례년에 보기드문 대풍이 들었으며 풍년든 우리의 농촌들에서는 지금 년간결산분배가 한창 벌어지고있다.

오늘 우리 전체 농업근로자들과 함께 인민들은 우리 나라 농촌에 해마다 만풍년의 가을을 가져다주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높으신 은덕과 령도의 현명성, 우리 당 농업정책의 정당성을 더욱 가슴깊이 느끼고있으며 력사적인 당대표자회결정과 위대한 10대정강 그리고 공화국창건 스무돐기념경축대회에서 하신 수령의 강령적보고를 높이 받들고 그이께서 창조하신 새로운 농업지도체계의 우월성을 더욱 발양시켜 다음해 농사에서 보다 큰 승리를 이룩하기 위하여 힘차게 투쟁하고있다.

* *

김일성동지께서는 공화국창건 스무돐기념경축대회에서 하신 력사적인 보고에서 다음과 같이 가르치시였다:

《생산관계의 사회주의적개조가 완성되고 사회주의제도가 확립된 다음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성과적으로 건설하는가 못하는가 하는것은 끊임없이 발전하는 생산력에 사회주의적생산관계를 어떻게 적응시키고 완성시켜나가며 확립된 토대에 맞게 상부구조를 어떻게 완성하며 토대에 대한 상부구조의 작용을 어떻게 강화하는가 하는데 크게 달려있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우리 인민의 자유와 독립의 기치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

의 강력한 무기이다》, 35페지)

농촌경리에 대한 국가적지도체계와 방법을 정확히 해결하는것은 농업협동화이후 급속히 발전하는 농업생산력에 맞게 생산관계를 개선완성하며 확립된 사회주의농업제도에 맞게 상부구조를 개선완성하고 그의 능동적작용을 강화함에 있어서 결정적의의를 가진다. 그것은 무엇보다 먼저 사회주의농업제도의 우월성과 잠재력을 높이 발양시키기 위한 열쇠로 되며 농민에 대한 로동계급의 지도와 지원을 강화하고 경제관리분야에서 공업에 비한 농업의 락후성을 없애는 담보로 된다. 그것은 또한 농촌에서 기술혁명, 문화혁명, 사상혁명을 추진하고 협동적소유를 점차 전인민적소유에로 접근시키며 농촌문제를 종국적으로 해결하고 전반적인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앞당기기 위한 중요한 조건이다.

사회주의농업에 대한 지도관리문제는 농촌에서 사회주의적소유관계, 사회주의농촌경리제도가 세워진 다음에 비로소 나서는 새로운 문제이다.

그러므로 이 문제는 전반적인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로 될뿐아니라 이때까지 그 누구도 명확히 내놓고 해결하지 못하였던 문제이다. 사회주의농촌건설의 경험은 이 분야에서 온갖 좌우경적편향을 없애고 농업에 대한 지도관리문제를 옳게 해결하는것이 매우 어렵고 복잡한 과업이라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사회주의농업에 대한 지도관리문제는 오직 우리 시대의 탁월한 맑스-레닌주의자이시며 혁명의 위대한 수령이신 김일성동지께서 우리 나라에서의 농업협동화의 과업을 승리적으로 끝내신데 뒤이어 농촌의 변화된 현실에 맞게 새로운 국가적인 농업지도체계와 방법을 창조하심으로써 빛나게 해결되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서 농촌경리에 대한 지도관리문제가 차지하는 위치와 그의 정확한 해결이 가지는 의의를 처음으로 독창적으로 천명하시고 사회주의농업관리의 본질과 그 개선을 위한 기본방향 그리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가장 합리적인 지도체계와 방도를 천재적으로 밝히시였으며 몸소 그 빛나는 모범을 우리 나라 농촌에서 창조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농촌경리에 대한 지도와 관리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사회주의국가가 협동경리에 대하여 완전히 책임지는 원칙적립장을 확고히 견지하여야 한다는 데로부터 출발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이러한 립장에서 이미 우리 나라 농촌에서 협동화운동이 시작되던 첫시기부터 협동농장들에 대한 국가적 지도를 강화하는데 깊은 관심을 돌리시였으며 그후 농촌의 변화된 환경과 조건에 맞게 농업지도체계와 방법을 근본적으로 고치는 창조적조치를 취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나라에서 농업협동화운동이 완전히 끝나고 협동농장들이 리단위로 합쳐져 그 규모가 커진직후인 1960년 2월에 청산리와 강서군에 대한 력사적인 현지지도를 통하여 인민경제에 대한 지도와 관리 특히는 사회주의농촌경리의 관리운영사업을 결정적으로 고치게 하는 획기적전환의 길을 열어놓으셨으며 그후 계속하여 농촌의 발전하는 현실에 맞게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을 보다 철저히 관철할수 있도록 새로운 농업지도체계를 창조하심으로써 농업에 대한 국가적지도체계와 방법을 더욱 완성시키시였다.

김일성동지의 직접적발기와 지도에 의한 새로운 농업지도체계의 확립은 우리 농촌의 성숙된 요구를 제때에 해결함으로써 사회주의농촌경리발전에 넓은 길을 열어놓은 획기적조치였으며 사회주의제도의 본성과 사회주의농업발전의 합법칙적요구에 맞게 농업지도체계를 근본적으로 고치는 혁명적조치였다. 그것은 맑스-레닌주의원칙과 우리 나라의 현실을 결합시킨 창조적인 대책이였다.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를 기본으로 하는 새로운 농업지도체계를 내온것은 언제나 확고한 주체적립장에서 맑스-레

민주의를 혁명실천에 능숙하게 구사하시며 철저한 혁명적립장에서 생활이 내놓는 새로운 요구를 제때에 포착하시고 창조적으로 풀어나가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세련된 령도의 또하나의 산모범으로 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를 내오심으로써 무엇보다 먼저 협동적소유를 그대로 두는 조건하에서 국가기업소의 지도방법과 똑같은 기업적방법을 협동농장지도에 전면적으로 받아들일수 있게 하시였으며 협동농장을 직접 지도하는 기능과 협동경리에 대한 국가의 물질기술적방조를 주는 기능을 통일적으로 실현할수 있게 하시였다. 이것은 사회주의하에서 협동경리의 발전을 추진하고 농업생산력의 급속한 앙양을 보장할수 있도록 협동농장들에 대한 국가적 지도와 방조를 최대한 효과적으로 실현할수 있게 하는 국가농업지도체계의 가장 훌륭한 형태를 창조한 독창적조치로 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또한 군을 단위로 하는 협동농장경영위원회를 내오심으로써 협동적소유에 대한 국가적지도와 방조를 가장 효과적으로 줄수 있는 지도단위와 거점문제를 창조적으로 해결하시였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에 지적되여있는바와 같이 농촌경리의 지도대상은 공업과는 달리 전국각지와 넓은 지역에 널려있는 농촌마을들과 작업장들이며 소집단으로 널려 일하며 살고있는 농민들이다. 또한 농업은 지역별로도 자연경제적조건이 고르롭지 않다. 이로부터 협동경리에 대한 국가의 지도와 방조를 줌에 있어서는 그것을 가장 효과적으로 실현할수 있는 지도단위를 옳게 설정하여야 한다. 오직 이렇게 하여야만 해당 단위의 기술력량을 통일적으로 동원리용하고 농촌경리에 직접 복무하는 국가기업소들을 거점으로 하여 협동농장들에 대한 지도와 방조를 가장 효과있게 줄수 있으며 공업과 농업간 그리고 협동농장들 사이의 생산적련계도 성과적으로 보장할수 있다.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군은 바로 협동농장들에 대한 지도에서 이러한 요구를 가장 원만히 실현할수 있는 알맞춤한 기본단위로 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협동농장은 규모가 너무 작습니다. 협동농장은 관리간부와 기술간부를 얼마 가지고 있지 못할뿐아니라 농촌경리의 종합적기계화를 실현할수 있는 경제토대도 가지고있지 못합니다. 이와는 반대로 도는 그 규모가 너무 큽니다.

그래서 우리는 군을 기본단위로 골랐습니다. 군에는 기술간부들과 관리간부들도 적지 않게 있으며 농기계작업소, 농기계수리공장, 관개관리소와 같은 농촌경리에 봉사하는 국가기업소들이 거의다 꾸려져있으며 또 농경지도 만정보가량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군을 단위로 하는것은 농촌경리를 기업적방법으로 지도하는데 알맞춤하며 모든 기술설비들을 종합적으로 리용하는데도 편리합니다.》
(《김일성저작선집》, 제3권, 440페지)

김일성동지께서는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를 창설하심과 함께 도농촌경리위원회를 내오도록 하시고 그것이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들과 국영농목장들을 직접 지도하고 도와주면서 도내의 농촌경리발전을 전반적으로 지도하도록 하심으로써 농촌경리에 대한 지도를 더욱 구체적이고도 책임적으로, 민속하게 보장할수 있도록 하시였다. 이것은 자연경제적조건이 서로 다른 지대적특성에 맞게 작물배치, 시비체계, 기경체계 등에 대한 지도를 과학기술적으로 보장할수 있게 함에 있어서 특별히 중요한 대책으로 된다.

우리 나라에서는 자연지리적조건이 군과 군, 협동농장들간, 나아가서는 맥필지별로도 심한 차이를 가지고있다. 그러나 적지않은 경우 한개 도를 단위로 군과 군간에는 기본적인 공통점들을 가지고있기때문에 농업생산의 전문화방향, 농작물의 지리적배치, 농법과 가축사육체계에서는 비슷한 점들이 많다. 그러므로 사회적분업을 조직하고 농촌경리를 지도함에 있어서는 군적인 범위를

벗어나 도적으로 되는 통일적인 대책을 취하는것이 필요하게 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또한 농업성을 농업위원회로 개편하시고 그 기구와 직능을 변경시키는 창조적조치를 취하심으로써 농업위원회로 하여금 이전과는 달리 농촌경리를 전반적으로 지도하면서 주로는 농업기술의 발전방향에 대한 연구와 농촌경리의 전망적발전과 관련된 문제들에 관심을 집중할수 있게 하시였다. 또한 이러한 조치에 의하여 농업위원회는 농업부문의 과학연구사업과 간부양성사업, 대규모의 자연개조사업을 직접 조직하고 지도하며 이 사업들을 더욱 성과적으로 진행할수 있게 되였다. 이것은 우리 농업을 더욱 전망적으로 발전시키며 가까운 앞날에 더욱 높은 과학기술적토대우에 올려세울수 있게 하는 확고한 담보로 된다.

우리 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를 기본으로 하는 새로운 농업지도체계를 내오심으로써 사회주의농촌경리에 대한 국가적지도체계와 방법, 사회주의적상부구조의 기능을 개선완성시키는 분야에서 실로 불멸의 공헌을 하시였으며 우리 시대 맑스-레닌주의적농업지도체계의 가장 훌륭한 본보기를 창조하시였다.

*　　*

김일성동지께서 창조하신 새로운 농업지도체계는 우리 나라에서 농업생산의 끊임없는 앙양을 보장하고 농촌기술혁명을 촉진하며 전반적인 사회주의농촌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감에 있어서 날이 갈수록 그 우월성과 생활력이 더욱 더 커지고있다.

최근년간 우리 나라의 자연기후적조건은 농업생산에 대단히 불리하였다.

해마다 모진 가물에 뒤이어 긴 장마철이 계속되였으며 낟알들이 익어갈 무렵에는 센바람이 불고 큰물이 졌다.

그러나 우리의 농촌경리는 자연의 엄혹한 시련을 꿋꿋이 이겨냈으며 농업생산은 해마다 끊임없는 장성을 가져왔다. 지난해에만 하여도 매우 불리한 자연기후적조건에서 농업생산은 그 전해보다 16%나 더 느는 놀라운 성과가 이룩되였으며 올해에는 또다시 작년보다 더 큰 풍작을 거두게 되였다. 우리의 농업생산은 오늘 기후의 변동이나 그밖에 다른 우연적인 요인에 의하여 결정되는것이 아니라 공업생산과 마찬가지로 사회주의경제의 발전법칙에 따라 확고하게, 끊임없이 장성하고있다.

이러한 성과는 오직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우리 나라의 농업을 언제나 확고한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주시고계시기때문에 이룩된것이며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가 빛나게 실현되고있기때문에 이루어진것이다. 그것은 김일성동지께서 창조하신 새로운 농업지도체계의 위대한 승리이며 우리 당 농업정책의 빛나는 결실이다.

김일성동지께서 창조하신 새로운 농업지도체계의 우월성은 무엇보다 먼저 농촌경리를 기업적방법으로 지도한다는데 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의 첫째가는 우월성은 경영위원회가 농촌경리를 기업적방법으로 지도하는데 있습니다.》(우와 같은 책, 438페지)

농촌경리에 대한 기업적지도란 계획을 세우는것으로부터 시작하여 생산조직, 기술발전, 자재의 보장, 로동력의 배치와 조직, 기업소의 재정활동과 같은 모든 기업활동을 직접 틀어쥐고 조직하며 구체적으로 지도한다는것을 의미하며 여기에서 기본은 생산에 대한 기술적지도이다.

기업적지도는 날로 기술장비가 강화되고있는 집단화된 대규모사회주의농촌경리에 대한 지도에서 필수적요구이다.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영도밑에 우리

나라 농촌에서는 이미 오래전에 농업협동화가 실현되고 협동농장들의 규모가 커져 매개 농장들은 평균 300호이상의 농호와 500여정보의 농경지를 가진 대규모적인 사회주의적집단경리로 발전하였다. 또한 농촌기술혁명이 전면적으로 벌어짐으로써 농촌경리의 기술적장비가 비상히 강화되였다. 우리 농촌에는 우월한 관개체계가 도입되였으며 뜨락또르를 비롯한 각종 현대적농기계들이 널리 리용되여 농업생산에서 기계화의 비중이 높아지고있고 전기화, 화학화에서도 커다란 전진이 이룩되였다.

오늘 우리의 농촌경리앞에는 농촌기술혁명에서 이미 달성한 성과를 공고히 하고 그것을 더욱 힘있게 밀고나감으로써 농업생산력을 보다 발전시키며 착취에서 해방된 우리 농민들을 힘든 로동에서까지 완전히 해방하고 그들의 생활을 더욱 유족하고 문명하게 만들어야 할 중대한 혁명과업이 나서고있다.

이러한 조건에서 농촌경리에 대한 지도는 오직 국가의 전문적인 농업지도기관인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의 기업적방법에 의하여서만 효과적으로 보장할수 있다.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는 창설된후 협동농장들에 대한 기술지도체계를 정연하게 세우고 경영위원회의 전문별 기술력량과 농촌경리에 직접 복무하는 국가의 모든 물질기술적수단들을 통일적으로 장악리용함으로써 농촌경리에 대한 기업적지도를 훌륭히 보장하고있다.

국가의 전문적인 농업지도기관인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가 농촌경리를 기업적방법으로 지도하게 됨으로써 우리 나라 농촌에서는 더욱더 기술공정으로 변하고있는 농업생산의 모든 고리들이 서로 밀접히 맞물려지고있으며 국가수중에 장악된 강력한 물질기술적력량이 동원되여 협동경리에 대한 통일적이며 집중적인 지도가 성과적으로 보장되고있다. 특히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의 기업적지도가 강화됨으로써 국가가 보낸 기술집단들과 국가의 기술설비들이 협동농장들에 더 잘 복무할수 있게 되였고 농촌기술혁명을 힘차게 밀고나갈수 있게 되였다. 협동농장경영위원회들은 또한 군내 기후조건과 토양조건, 농작물의 특성을 과학적으로 분석한데 기초하여 토지개량, 작물과 품종의 배치, 기경과 시비체계 등에 대한 과학기술적지도를 성과적으로 보장하고있다.

최근년간 우리 나라에서 농촌기술혁명이 보다 추진되고 특히 고이는 물때기 공사가 성과적으로 진행되였으며 불리한 자연기후조건밑에서도 농업생산의 커다란 성과가 련속적으로 이룩된것은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들이 협동농장들에 대한 기업적지도를 강화하고 농사를 더욱 과학기술적으로 짓기 위한 투쟁을 힘차게 벌린것과 중요하게 관련되여 있다.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의 우월성은 또한 전인민적소유와 협동적소유를 유기적으로 결합시키고 협동경리에 대한 국가적지도와 방조를 강화한다는데 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다음으로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의 우월성은 그것이 전인민적소유와 협동적소유를 유기적으로 결합시키고 협동경리에 대한 국가적 지도와 방조를 강화한다는데 있습니다.》 (우와 같은 책, 441페지)

소유관계에서의 공업과 농업간의 차이는 로동계급과 농민의 계급적차이를 규정하는 본질적차이이다. 그러므로 전인민적소유와 협동적소유간의 차이를 없애는것은 도시와 농촌간의 차이, 로동계급과 농민간의 계급적차이를 없애고 사회주의농촌건설과 전반적인 사회주의건설을 촉진시키는데 있어서 기본문제의 하나이다.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사회주의적소유의 두 형태간의 차이를 없애는데 있어서 중요한 문제는 협동적소유를 부단히 공고발전시키는 동시에 공업과 농업간의 직접적인 생산적련계를 강화하며 협동적소유에 대한 전인민적소유의 지도적역할을 끊임없이 높이는 방향에서 두 소유를 유기적으로

결합시키는것이다.

이렇게 하여야만 농민들에 대한 로동계급의 정치사상적영향을 강화하고 공업의 기계기술, 선진적인 기업관리와 생산문화를 농촌경리에 더잘 보급할수 있으며 농촌에 대한 도시의 지원을 효과적으로 실현할수 있다. 또한 그렇게 하여야만 협동적소유를 공고발전시키고 그것을 전인민적소유에 더욱더 접근시킬수 있으며 협동적소유의 전인민적소유에로의 점차적전환과정을 순조롭게 실현할수 있다.

사회주의하에서 협동적소유에 대한 전인민적소유의 지도적역할을 끊임없이 높이며 이 두 소유를 유기적으로 결합시키기 위하여서는 농촌경리에 직접 복무하는 국가기업소들 즉 농기계작업소, 관개관리소, 채종농장과 종자처리장, 농사시험장, 종축장과 수의방역소 등을 강화하고 이 기업소들로 하여금 협동경리의 농업생산에 적극 참가하도록 하여야 한다.

김일성동지께서 창조하신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는 바로 농촌경리에 직접 복무하는 군내의 모든 기업소들과 기술설비들, 기술력량을 통일적으로 틀어쥐고 협동농장들을 지도함으로써 공업과 농업간의 직접적인 생산적련계를 강화하고 협동적소유에 대한 전인민적소유의 지도적역할을 확고히 보장하고있으며 그에 기초하여 두소유간의 유기적인 결합을 실현하고 협동경리에 대한 국가의 기술경제적방조를 강화하고있다. 이것은 또한 농촌기술혁명을 촉진시키는 확고한 담보로 되고있다.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는 국가적소유와 협동적소유의 유기적결합을 실현하게 함으로써 또한 협동경리를 조직경제적으로 더욱 강화하고 협동농장자체의 관리운영수준도 결정적으로 개선할수 있게 하고있다.

대규모적인 사회주의협동경리는 오직 계획적으로만 발전할수 있다. 그것은 계획작성으로부터 시작하여 로동행정, 재정 및 재산관리에 이르는 모든 경영활동을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진행할것을 요구한다.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는 협동경리를 한계단 더 높은 국가경리와 유기적으로 결합시킴으로써 국영경리의 우월한 관리운영방법에 따라 이와 같은 모든 문제를 성과적으로 해결하고 협동농장의 관리운영방법을 공업의 선진적인 기업관리방법에 접근시킬수 있게 한다.

이 모든것은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를 기본으로 하는 새로운 농업지도체계가 기술, 문화, 사상의 각 방면에 걸쳐 농민에 대한 로동계급의 영향을 강화하고 농업에 대한 공업의 물질기술적방조를 효과적으로 실현함으로써 현대적공업에 비한 농업의 기술적락후성, 선진적도시에 비한 농촌의 문화적락후성, 가장 혁명적인 로동계급에 비한 농민의 사상적락후성을 없애고 농민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며 농촌문제를 종국적으로 해결하는데 커다란 작용을 하는 철저하게 혁명적이며 과학적인 농업지도체계라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새로운 농업지도체계는 지방정권기관들의 역할과 기능을 더욱 높일수 있게 하는데서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전문적인 새로운 농업지도체계를 내온것은 지방정권기관들의 사업도 근본적으로 강화할수 있게 하였습니다.》(《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우리 인민의 자유와 독립의 기치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강력한 무기이다》, 37페지)

새로운 농업지도체계의 확립은 도, 시, 군 인민위원회로부터 농업지도기능을 분리시킴으로써 이들로 하여금 국토관리, 건설, 상업, 교육, 문화, 보건사업 등에 힘을 넣어 이 부문들의 사업을 더욱 강화할수 있게 하는 담보로 된다. 이것은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지방정권기관들의 기능과 역할을 높임에 있어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실로 김일성동지께서 창조하신 새로운 농업지도체계는 우리 나라 농촌경리 발전의 당면한 문제들과 함께 전망적인 문제들의 해결을 옳게 결합하며 전반적

인 사회주의건설을 촉진하는 가장 우월한 형태의 맑스-레닌주의적농업지도체계이다.

✻ ✻

오늘 농촌경리부문앞에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가 밝혀준 휘황한 길을 따라 사회주의농촌건설을 촉진하며 농업생산에서 새로운 앙양을 일으켜야 할 영예롭고도 보람찬 과업이 나서고있다.

이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우리는 새로운 농업지도체계의 우월성과 생활력을 더욱 높이 발양시켜야 한다.

새로운 농업지도체계는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 주체사상이 농촌경리의 지도관리분야에 구현된 우리 당의 독창적이며 혁명적인 체계이다.

그러므로 이 체계를 더욱 철저히 관철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 먼저 농업부문의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이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해야 한다. 오직 이렇게 하여야만 이 체계를 백방으로 옹호하고 끝까지 관철하여 그 우월성과 생활력을 남김없이 발휘시킬수 있다.

새로운 농업지도체계의 우월성과 생활력을 높이 발휘시키자면 또한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을 철저히 관철해야 한다. 농업부문의 모든 일군들은 관료주의와 형식주의 등 낡은 사업작풍을 결정적으로 없애고 청산리방법의 요구대로 모든 사업에 정치사업을 앞세워 대중의 혁명적열의와 자각성을 높이 불러일으키며 지도를 아래에 더욱 접근시켜 아래일군들을 도와주며 걸린문제를 하나하나 풀어주어야 한다. 도, 시, 군 농업지도일군들은 농촌경리에 대한 기업적지도를 더욱 강화하여 계획의 일원화와 세부화를 실현하며 농업생산에 대한 기술적지도를 더잘해야 한다. 또한 김일성동지의 독창적발기에 의하여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실시되였으며 그 정당성이 리론실천적으로 확증된 분조관리제를 더욱 심화발전시켜야 한다.

농촌경리부문일군들은 당면하여 올해 농사에서 거둔 커다란 승리를 더욱 공고히 하고 다음해에 알곡생산을 더욱 높이며 축산업과 남새, 과수업을 발전시키는데 모든 힘을 넣어야 한다. 특히 지금부터 물준비와 종자준비를 잘하고 뜨락또르를 비롯한 농기계들과 설비들의 보수정비사업을 철저히 하는 등 새해농사준비를 빈틈없이 갖추며 알곡절약투쟁을 강화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농촌경리의 물질기술적토대를 강화하기 위하여 기계화와 화학화의 비중을 계속 높이는데 심중한 관심을 돌리며 앞으로 국토건설을 대대적으로 진행할 준비사업을 적극 추진시켜야 한다.

농촌경리부문의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은 김일성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주위에 굳게 뭉쳐 그이께서 창조하신 새로운 농업지도체계의 위력을 더욱 높이 발양시킴으로써 농업생산에서 혁명적고조를 계속 견지하며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의 과업을 실현하는데서 더욱 큰 승리를 이룩하자.

우리 당의 자주적이며 원칙적인 대외정책

남 국 선

우리 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하에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오늘 대외정책분야에서 실로 빛나는 성과를 이룩하고있다.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과 그이께서 천명하신 자주적이며 원칙적인 립장이 대외정책에 철저히 구현됨으로써 우리 나라의 국제적위신은 비상히 제고되였으며 공화국의 국제적지위는 그 어느때보다 강화되였다.

오늘 우리 나라는 형제적사회주의나라들을 비롯하여 아세아, 아프리카의 여러 신생독립국가들과 친선협조관계를 맺고있다. 세계의 많은 평화애호인민들과 우리 인민들과의 접촉과 교류도 날로 확발해지고있으며 그들과의 련계가 더욱 밀접해지고있다.

세계의 수많은 나라 인민들이 우리 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무한히 흠모하면서 그이를 국제공산주의운동과 로동운동의 탁월한 수령으로 우러러 받들고있으며 그이께서 령도하시는 우리 공화국을 《천리마의 나라》, 《주체의 조국》, 《반제투쟁의 기수》로 부르면서 사회주의건설과 조국통일의 실현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에 대한 지지와 성원을 아끼지 않고있다.

지난 공화국창건 스무돐기념경축행사에 참가하였던 세계의 수십개 나라 대표들과 5대륙인민들의 대표들이 우리 인민과 함께 우리의 민족적명절을 축하하면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 다함없는 흠모와 신뢰의 정을 표시하였으며 혁명과 건설에서 이룩한 우리 인민의 성과와 업적을 높이 평가한것은 오늘 우리 나라의 국제적위신이 얼마나 높아졌으며 우리 인민과 세계혁명적인민들간의 친선단결이 얼마나 강화되고있는가 하는것을 잘 보여준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세계의 가는 곳마다에 수많은 벗들을 가지게 되였으며 우리 혁명의 국제적련대성은 날을 따라 더욱 강화되고있다.

세계지도우에서 오래동안 빛을 잃었던 우리 나라가 오늘 천리마의 나래를 펴고 이처럼 수많은 나라들과 친선관계를 맺고있으며 세계의 이르는 곳마다에 벗들을 가지게된것은 바로 우리 당 대외정책의 정당성과 그 위대한 생활력을 뚜렷이 실증하여주고있다.

국제관계에서 우리 당이 이룩한 성과들은 우리 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의 빛나는 승리이며 그이께서 제시하신 우리 당의 자주적이며 원칙적인 대외정책이 가져온 응당한 결실이다.

1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우리 당의 대외정책은 우리 혁명의 총적과업으로부터 출발하여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을 대외적으로 관철하는것을 기본임무로 삼고있다.

김일성동지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오늘 조선공산주의자들과 조선인민 앞에는 두가지 혁명과업이 나서고있다. 그 하나는 나라의 북반부에서 사회주의를 건설하는것이며 다른 하나는 남조선을 미제국주의의 식민지통치에서 해방하고 조국의 통일을 실현하는것이다. 우리 당과 우리 인민 앞에 나서고있는 이 숭고한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공화국북반부의 사회주의력량과 남반부의 혁명력량을 강화하는 동시에 국제혁명력량과의 단결을 강화하여 우리 혁명에 대한 더많은 국제적지지를 획득하는것이 중요하다.

국제혁명력량과의 친선단결을 발전시켜 우리 혁명의 국제적련대성을 강화하는것은 우리 당 대외정책의 중요한 과업의 하나이다.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아래 우리 당은 시종일관 자주적이며 원칙적인 대외정책을 실시하여왔으며 우리 혁명의 국제적련대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커다란 노력을 기울여왔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스무돐기념경축대회에서 하신 력사적인 보고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견결한 반제반미적립장과 자주적이고 원칙적인 대외정책에 의하여 우리 공화국의 국제적지위는 끊임없이 높아가고있습니다.》(《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우리 인민의 자유와 독립의 기치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강력한 무기이다》, 33페지)

국제관계에서 자주적이며 원칙적인 립장을 견지하는것은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대외정책의 근본원칙의 하나로 된다.

다아는바와 같이 자주성을 존중하는것은 국제관계에서 진정한 단결의 전제로 되며 기초로 된다. 다른 나라들과의 관계에서 자주성이 보장되여야 평등한 지위에서 친선관계를 맺을수 있으며 그것은 진실로 공고한것으로 될수 있는것이다.

만약 자주성을 견지하지 못한다면 대외활동에서 자기 당의 정책과 로선을 관철할수 없으며 더구나 다른 나라들과의 관계를 평등한 원칙에서 맺을수 없게 된다.

대외관계에서 자주성을 견지하여야만 자기 나라의 독립과 민족적존엄을 확고히 고수할수 있으며 이러저러한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고 당의 로선과 정책을 국제무대에서 철저히 관철할수 있는것이다.

우리 당은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주체사상의 구현인 자주적립장에 튼튼히 서서 국제관계에서 제기되는 복잡한 문제들을 자기의 독자적인 판단과 신념에 기초하여 해결해나감으로써 국제무대에서 온갖 장애를 뚫고 우리 당의 립장을 확고히 견지할수 있었으며 자기의 지위와 권위를 당당히 행사할수 있었다.

대외정책분야에서 우리 당이 견지하고있는 자주적립장은 철저히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적인것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가 주장하는 자주성은 결코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와 모순되지 않을뿐만아니라 반대로 그것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것입니다. 자주성도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를 강화하기 위한것으로 되여야 하며 결코 그것을 약화시키는것으로 되여서는 절대로 안됩니다. 자주성을 떠난 국제주의가 있을수 없는것과 마찬가지로 국제주의를 떠난 자주성도 있을수 없습니다.》(우와 같은 책, 64페지)

우리 당의 자주로선은 민족적리익과 국제적리익에 다같이 부합될뿐만아니라 우리 나라 혁명과 국제로동계급의 혁명위업에 더 큰 기여를 하는 가장 정당한 로선인것이다. 우리 당 대외정책이 오늘 세계의 많은 나라들의 공감을 불러일으키고있으며 그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고있는 리유의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다.

대외관계에서의 우리 당의 자주로선은 그 원칙적립장으로 하여 더욱 공고한것으로 되고있다. 철저한 원칙적립장을 견지하여야만 대외정책에서 일관성을 견지할수 있다. 원칙적립장이 없으면 자주성을 고수할수 없을뿐만아니라 남의 풍에 놀게 되며 결국 남에게 맹종맹동하게 된다.

만약 국제관계에서 원칙적인 립장이 없이 남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며 남이 말하는대로 따라 말하고 남이 움직이는대로 따라 움직인다면 그것은 자기 민족의 리익에 막대한 해독을 끼치게 될뿐만아니라 국제로동계급의 혁명위업에도 커다란 손실을 주게 된다.

우리 당은 대외정책에서 시종일관 확고한 원칙적립장을 견지함으로써 그 어떤 좌우경적편향에도 빠지지 않았으며 로선과 정책에서 원칙성과 일관성을 가질수 있었을뿐만아니라 다른 나라들과의 관계를 건전하게 발전시킬수 있었다.

계급적원칙에 기초한 철저한 반제반미립장은 우리 당의 대외정책의 근저에 놓여있는 근본원칙의 하나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

하시였다:

《사회주의나라들은 외교에서도 응당 계급적원칙을 견지하고 미제에 압력을 가하며 그의 침략과 전쟁 정책을 폭로하고 규탄하여야 합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321페지)

김일성동지께서 천명하신 대외정책에서의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철저한 반제적립장은 미제를 괴수로 하는 제국주의자들을 멸망시키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공동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세계혁명적인민들의 절박한 지향을 반영하고있다.

세계혁명을 추진시키고 그 승리를 이룩함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제국주의 특히 미제국주의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취하며 그를 반대하는 투쟁을 어떻게 진행하는가 하는것이다.

미제에 대한 원칙적인 립장과 태도를 가지지 않고서는 그를 반대하여 성과적으로 투쟁할수 없으며 또한 미제를 반대하여 적극적으로 투쟁하지 않고서는 세계혁명을 추진시킬수 없다.

우리 당은 철저한 반제적이며 계급적인 원칙에 튼튼히 서서 반제반미투쟁을 전개하며 세계의 모든 반제력량과의 계급적련대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힘찬 투쟁을 벌림으로써 미제의 침략정책을 분쇄하고 세계혁명을 추진시키는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대외정책에서 계급적원칙을 고수하는것은 사회주의진영과 국제공산주의운동의 통일단결을 수호함에 있어서도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오늘 좌우경기회주의자들은 국제로동계급의 피로써 쟁취한 사회주의진영의 계급적성격을 흐리게 하며 그 통일단결에 엄중한 장애를 조성함으로써 사회주의진영의 위력을 강화하는데 커다란 해독을 끼치고있다.

그러므로 현시기 좌우경기회주의를 반대하고 사회주의진영나라들의 계급적련대성을 강화하는것은 사회주의진영의 운명과 국제혁명운동의 전도와 관계되는 원칙적인 문제이것이다.

우리 당은 시종일관 사회주의진영의 통일단결을 수호하며 계급적형제들간의 동맹을 강화발전시킬데 대한 원칙적인 립장을 견지하여왔으며 그 실현을 위하여 커다란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상에서 본바와 같이 우리 당의 대외정책은 자주성과 원칙적립장으로 일관되여있으며 그것은 우리 혁명의 리익을 위해서뿐만아니라 국제로동계급의 근본리익에 부합되는 가장 정확한 정책인것이다.

대외정책분야에서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가 자주적이며 원칙적인 립장을 확고히 견지할수 있은것은 우리 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와 떼여놓고 생각할수 없다.

우리 당의 대외정책은 국제분야에서의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주체사상과 반제혁명사상의 구현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시종일관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가 국제무대에서 견지하여야 할 원칙과 구체적인 방침들을 밝혀주시였으며 그 관철을 위하여 커다란 노력을 기울이시였다.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아래 우리 당은 변천되는 국제정세를 정확히 평가하고 공화국북반부의 혁명적민주기지를 공고히 다져 우리 나라의 정치, 경제, 군사적 위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그이께서 제시하신 자주적이며 원칙적인 립장을 대외정책에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세계무대에서 자주권을 떳떳이 행사할수 있었다.

우리 당의 자주적이며 원칙적인 대외정책은 김일성동지께서 조직전개하신 항일무장투쟁에 력사적뿌리를 두고있으며 그 빛나는 전통을 계승발전시킴으로써 더욱 확고한것으로 되고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찌기 항일무장투쟁시기부터 대외관계에서 우리 나라가 견지하여야 할 원칙적인 립장을 천명하여오시였으며 그 실현을 위하여 적극 투쟁하시였다.

항일무장투쟁시기에 김일성동지께서 친히 작성하신 인민혁명정부정강과 조국광복회 10대강령은 대외정책에서 자주적원칙과 반제립장을 철저히 견지할데 대하여 명백히 밝히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1933년 인민혁명정부정강에서 《일본을 반대하는 모든 피압박민족과의 공동전선을 결성》하는것을 대외정책의 기본원칙으로 규정하시였으며 그후 1936년 조국광복회 10대강령에서 그것을 더욱 구체화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조국광복회 10대강령에서 《조선민족에 대하여 평등적으로 대우하는 민족 및 국가와 친밀히 련합하며 우리 민족해방운동에 대하여 선의와 중립을 표시하는 나라 및 민족과 동지적친선을 유지할것》을 강조하심으로써 장차 해방된 조국이 대외정책에서 견지하여야 할 립장과 원칙을 제시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 항일무장투쟁시기에 제시하신 이 원칙은 당시 조선혁명의 요구와 리익을 가장 정확히 반영한 것으로서 그것은 해방된 우리 조국의 대외정책의 기본원칙을 규정하는 기초로 되였던것이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항일무장투쟁시기에 이룩된 이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해방후의 새로운 국내국제정세에 적응하게 전면적으로 계승발전시킴으로써 대외관계에서 오늘과 같은 빛나는 성과를 이룩할수 있었다.

2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대외정책에서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가 견지하여야 할 원칙적립장을 명백히 제시하시였을뿐만아니라 우리 혁명의 국제적련대성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침들에 대하여서도 명백히 밝혀주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국제관계분야에서의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일관한 립장은 우리 혁명의 국제적련대성을 강화하며 세계혁명발전을 더욱 촉진시키려는 그이의 높은 책임감과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의 뚜렷한 표현인것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혁명의 국제적련대성을 강화함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먼저 사회주의나라들과의 친선과 협조관계를 강화발전시킬데 대하여 강조하시였으며 그것을 우리 공화국 대외정책의 기초로 규정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사회주의진영의 통일을 강화하며 모든 사회주의나라들과의 친선과 협조관계를 끊임없이 발전시키는것은 우리 공화국의 대외정책의 확고부동한 초석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3권, 417페지)

김일성동지께서 천명하신 우리 당 대외정책의 초석을 이루는 이 원칙은 세계혁명운동에서 사회주의나라들이 노는 역할에 대한 심오한 분석에 기초하고 있다.

김일성동지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사회주의진영은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종국적승리를 위한 국제로동계급의 불패의 혁명기지이며 전세계 피압박인민들과 모든 진보적인민들의 승리의 믿음직한 보루이며 세계평화의 위력한 성새이다.

사회주의진영의 통일단결은 제국주의 침략으로부터 매개 사회주의나라들을 믿음직하게 보위하고 매개 나라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더욱 성과적으로 추진시키며 전세계적범위에서 사회주의의 종국적승리를 보장하는 중요한 담보로 된다.

또한 사회주의진영이 확고히 통일되고 그 위력이 끊임없이 강화되여야만 식민지예속국가인민들과 신생독립국가인민들의 반제민족해방투쟁과 자본주의나라 로동계급의 혁명투쟁을 힘있게 지지하고 고무할수 있다.

국제혁명운동에서 사회주의진영이 노는 이와 같은 역할로부터 우리 당은 사회주의진영의 통일단결을 파괴하려는 온갖 책동을 견결히 반대하고 사회주의진영전체를 옹호하며 그 통일단결을 강화하기 위하여 투쟁하는것을 신성한 국제주의적의무로 간주하고있으며 그 실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 있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적들의 침공으로부터 사회주의진영을 공동으로 보위하기 위하여 커다란 노력을 기울이고있으며 미제를 반대하여 피흘려싸우는 형제나라들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있다.

사회주의진영의 통일단결은 그것을 약화시키려는 좌우경기회주의를 반대하는 원칙적투쟁을 떠나서는 실현할수 없다.

우리 당은 사회주의진영을 약화시키는 사소한 행동도 배격하여왔으며 그를 반대하여 비타협적으로 투쟁하였다.

특히 최근년간 사회주의진영내부에 발생한 의견상이로 하여 사회주의진영의 통일단결에 엄중한 난관이 조성되고있는 정세하에서 우리 당은 어디까지나 단결의 념원으로부터 출발하여 사상투쟁의 방법으로 의견상이를 해결할데 대한 정당한 방도를 제시하고 그 실현을 위하여 적극 투쟁하여왔다.

사회주의진영의 분렬을 저지하고 사회주의진영전체를 옹호할데 대한 우리 당의 정당한 방침과 원칙적인 투쟁은 사회주의진영의 통일단결을 수호함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진영의 통일단결을 수호하는것과 함께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신생독립국가들과의 친선단결을 강화하며 이 지역 인민들의 해방투쟁을 지지하는것을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대외정책의 중요한 원칙으로 지적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 당과 정부는 제국주의를 반대하며 자유와 해방을 위한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인민들의 투쟁을 지지하는것을 대외정책의 중요한 원칙으로 삼고있습니다.》

(《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333페지)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인민들의 혁명투쟁은 사회주의를 위한 국제로동계급의 혁명투쟁과 함께 우리 시대의 위대한 혁명력량이며 세계평화의 강력한 요인이다. 이 지역 인민들의 혁명투쟁은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전쟁 정책에 심대한 타격을 주며 세계제국주의자들의 생명선을 끊어버림으로써 제국주의의 종국적멸망을 촉진시키는데 크게 기여한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우리 당은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인민들의 혁명투쟁을 자신에 대한 지원으로 인정하고 그들의 혁명투쟁을 지지성원하는것을 자기의 신성한 국제주의적의무로 간주하고있다.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인민들의 반제투쟁을 지원함에 있어서 우리 당과 정부는 특히 현시기 혁명력량과 반혁명력량사이의 투쟁에서 초점으로 되고있는 웰남인민의 정의의 반미구국투쟁과 미제국주의자들의 끊임없는 침략과 전쟁도발 책동을 용감하게 물리치면서 혁명의 전취물을 고수하고있으며 사회주의를 건설하고있는 꾸바인민의 투쟁을 적극 지지하기 위하여 커다란 노력을 기울이고있다.

우리 당과 정부는 평화와 민주주의와 민족적독립과 사회주의를 위하여 싸우는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인민들의 혁명투쟁을 적극 지원하며 그들과의 친선단결을 강화하기 위하여 모든 힘을 다하고있다.

이와 함께 국제관계에서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자본의 착취와 억압을 반대하며 자기들의 생활상권리와 민주주의와 사회주의를 위한 자본주의나라 로동계급과 근로자들의 혁명투쟁에 대하여도 적극 지지성원하는 확고한 립장을 견지하고있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우리 나라와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모든 나라들과 국가적 및 경제문화적 관계를 맺으며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서 무역과 문화교류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있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국제무대에서 언제나 반제투쟁의 기치를 높이 들고 세계평화애호인민들과 굳게 뭉쳐 아세아와 세계의 평화를 수호하기 위하여 견결히 투쟁하고있다. 따라서 제국주의의 침략과 전쟁 정책을 분쇄하고 세계평화를 수호하기 위하여 투쟁하는것은 우리 당 대외정책의 기본내용의 하나로 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의 침략과 전쟁정책을 반대하고 세계평화와 인류의 진보를 위하여 투쟁하는것은 대외활동분야에서 우리 공화국이 견지하고있는 일관한 방침입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우리 인민의 자유와 독립의 기치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강력한 무기이다》, 66페지)

김일성동지께서 천명하신 이러한 방침을 받들고 우리 당은 국제무대에서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원칙적립장을 확고히 견지하면서 제국주의의 침략을 저

저시키고 세계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투쟁을 전개하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미제침략자들을 세계인민들의 첫째가는 투쟁대상으로 규정하시고 광범한 반제력량을 동원하여 미제를 반대하는 투쟁에 주되는 창끝을 돌리는것을 사회주의나라들과 세계혁명적인민들의 선차적인 과업으로 제시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반제반미투쟁로선에 따라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미제를 반대하는 광범한 력량과의 공동행동과 공동투쟁을 전개하기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여왔으며 그에 크게 기여하였다.

우리 당은 김일성동지께서 밝히신 현시기 세계침략을 위한 미제의 기본전략을 분쇄하며 미제를 타승하기 위하여 큰 나라나 작은 나라 할것없이 모든 나라들에서 미제에 타격을 가할데 대한 립장을 확고히 견지하고있다. 반미투쟁에서 특히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의 작은 나라들이 달라붙어 미제국주의의 두쪽을 각개 절단할데 대한 투쟁전리은 미제를 종국적으로 멸망시키며 전세계적범위에서 반제반미투쟁을 힘있게 조직전개하는데서 거대한 생활력을 발휘하고있다.

미제국주의를 반대하며 세계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투쟁에서 미제의 앞잡이들과 그 동맹자들을 반대하여 투쟁하는것은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우리 당은 미제의 《동맹자》들을 반대하여 투쟁하는것을 반미투쟁의 일환으로 인정하고 일본군국주의와 서부독일군국주의자들을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하고있으며 그 투쟁을 약화시키려는 경향을 반대하는 원칙적립장을 견지하고있다.

이와 같이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대외정책의 원칙에 튼튼히 의거함으로써 사회주의진영의 통일단결을 수호하고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인민들과의 친선과 협조 관계를 강화발전시킬수 있었으며 미제의 침략과 전쟁 정책을 분쇄하는데 크게 이바지할수 있었다.

* *

미제를 괴수로 하는 제국주의자들과 온갖 반동들의 분렬과 파괴 책동에도 불구하고 우리 공화국의 국제적위신은 날로 높아가고있으며 우리 인민과 사회주의진영나라들을 비롯하여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인민들과의 전투적련대성은 날이 갈수록 강화발전되여가고있다.

우리 당과 인민은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대외정책의 로선과 원칙을 받들고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맑스-레닌주의와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기치, 반제반미투쟁의 혁명적기치를 높이들고 사회주의진영나라들과 단결하며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의 혁명적 인민들과 단결하며 세계의 모든 진보적인 민들과 단결하여 평화와 민주주의와 민족적독립과 사회주의공동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계속 견결히 싸워나아갈것이다.

근 로 자 제 12 호 (루계 322호)

편 집 위 원 회

발행소 • 근 로 자 사 주 소 • 평양시 중구역 남문동
인쇄소 • 평양 종합 인쇄 공장
인 쇄 • 1968년 12월 10일 발 행 • 1968년 12월 15일

ㄱ—83575 값 50전

1968년도 《근로자》 차례묶음

김일성동지의 문헌

필자 호수 페지

편집국론설

혁명전통

당 건 설

정치 사상문제

경 제 건 설

남조선 및 국제관계